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Household Religion



가정신앙

ㅇ ~ ㅎ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Household Religion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한국민속신앙사전 _ 가정신앙

발행일 2011년 12월 1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전화 02-3704-3230)

총괄 정명섭(민속연구과장)
기획 · 진행 김창일 이성곤 김태우
편수원 김혜경 변혜민 백민영 조선영
이유나(전 민속연구과 연구원)

윤문 · 교열 · 교정 제1차 사전편찬팀
제2차 한국어문기자협회
제3차 황치영(교정전문가)
디자인 ·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090-01
ISBN 978-89-289-0005-3 94200
978-89-92128-58-2 94200(세트)

발간사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형의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보존가치가 뛰어난 무형유산을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하는 등 각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속신앙을 집대성한 〈한국민속신앙사전〉이 완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국립민속박물관은 2004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인편 및 전자사전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 무속신앙편, 2010년에 마을신앙편을 발간하였고 올해 가정신앙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일단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웹서비스를 통해 종이사전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동영상이나 사진, 음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생동감있는 인터넷백과사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문학사전〉, 〈일생의례사전〉, 〈민속예술사전〉, 〈의식주생활사전〉, 〈생업기술사전〉, 〈민속사회사전〉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명실공히 한국 민속 문화의 정수를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편찬사업의 대장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현세기까지의 한국 민속문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한국 민속의 총체적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정신앙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윤문 · 교열 · 교정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 11월에 '무속신앙편' 1·2권이 발간되었고 2010년 11월에 '마을신앙편' 1·2권이 발간되었으며 2011년 올해는〈한국민속신앙사전〉의 종결편인 '가정신앙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가정신앙편'은 표제어 248항목, 원고 5700여매, 사진 700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진자료에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자를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정신앙편'은 가정신앙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민속신앙을 전공한 107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원고는 사전편찬팀과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어문기자협회, 원로 교정 전문가에 의해 3차에 걸쳐 윤문·교열·교정을 진행했다. 또한 가정신앙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7명의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에 의해 최종 원고 감수가 이루어졌으며 감수위원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된 원고의 경우에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민속신앙사전〉은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찬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방향은 표제어의 주제에 맞춰 기술하되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주변적인 사항도 함께 기술하여, 해당 표제어만으로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즉 내용의 분량과 범위를 계층화하지 않고 개별 표제어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무속신앙편'과 '마을신앙편'이 이러한 방향으로 편찬되었고, 이번에 발간되는 가정신앙편 역시 이러한 편찬방향을 따랐다. 즉, 가정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는데 제의, 신격, 신체, 제구, 제물, 자료, 용어로 나누어 7개 분야 총 248개의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사전의 전체 구성은 '무속신앙편'과 '마을신앙편'의 구성과 동일하다. 즉,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가정신앙편'의 전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독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령 제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분야별 차례를 통해 제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제어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필자란에는 일반적으로 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페이지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신앙편'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상호연관성이 있는 정보의 연계는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민속신앙분야는 관련 항목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표제어를 긴밀히 연관시키는 사전편집체계가 필요하다. 분야별 차례의 병기와 상호참조표시의 강화는 〈한국민속신앙사전〉의 전문백과사전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신앙사전은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정신앙편으로 구성된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라 함은 『한국민속신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신앙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표제어 추출 후 중요도,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3. 가정신앙은 가옥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신에 대한 신앙과 가정단위에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의 전반을 포함한다. 가정신앙의 특징상 신앙의 형태가 확연하게 구별되기보다는 무속, 불교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정신앙의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표제어는 제의, 신격, 신체, 제구, 제물, 자료, 용어 등 7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1) 제 의 : 지역에 따라 혹은 성격에 따라 달리 일컬어지는 제의 명칭은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는 것을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2) 신 격 : 가정신앙에서 모셔지는 신(神)으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신격과 특정 지역에서 모셔지는 신격을 포괄하여 표제어를 선정했다.
3) 신 체 : 가정신앙에서 모셔지는 신격을 대상화한 형상물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4) 제 구 : 제의에 사용되는 도구 중 상징적 의미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5) 제 물 : 제의에 사용되는 중요한 구성물이나 상차림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6) 자 료 : 가정신앙과 관련되는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헌, 문서 등은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7) 용 어 :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가정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표제어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구성은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의 끝부분에는 집필자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표제어 및 상호참조

1. 가표제어 :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어휘일 경우 대표형을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이외의 것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가표제어를 표제어와 같은 배열상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된 표제어로 이동을 유도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가표제어 표시 : (표제어) 원고가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2. 상호참조 :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참조 표시 : (상호참조)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 간의 상호 참조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국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하거나 유의어를 뜻풀이 할 때 표기하였다.
(2) 큰 따 옴 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 낫 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 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 현판 등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 괄 호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 썼다.
(6) 소 괄 호 (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중 괄 호 〈 〉 : 민요, 무가, 설화 등을 지칭할 때 표기하였다.
(8) 줄 임 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9) 가 운 뎃 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표기하였다.
(10) 온 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11) 물 결 표 ~ : '내지'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와 생몰년 사이에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랐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 등을 밝혔다.

이칭 가표제어와 그 외 방언 등의 이칭들을 모아서 표제어별 이칭표를 제시함으로써 이칭을 통해서도 주표제어와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가 어떤 표제어를 집필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목차 기존에 발간되었던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과 이번에 발간되는 가정신앙편의 표제어를 통합하여 가다나 순으로 배열한 〈한국민간신앙사전〉 통합 목차를 제시함으로써 세 가지 사전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위원 및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김동섭(제주도립미술관), 김지욱(경기문화재단), 김진순(코리아루트), 김효경(한남대학교), 서해숙(전남대학교), 유승훈(부산박물관), 임승범(문화재청), 황경순(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제의 분야에 김명자(안동대학교)·이필영(한남대학교), 신격 분야에 나경수(전남대학교), 신체 분야에 김헌선(경기대학교), 제구 분야에 황루시(관동대학교), 제물 분야에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와 용어 분야에 서영대(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맡았다.

가나다 차례

ㄱ

가을고사 22
개공제 25
개토제 27
객귀물리기 29
객귀밥 31
거리밥 34
거리제 34
건궁 36
걸립신 38
고깔 39
고사 40
고수레 45
고추 47
고팡신 48
곡물 48
곳간신 51
광대감 52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구일차례 61
군웅 61
굴대장군 63
굴뚝신 63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귀신가두기 69
귀신종이 72
귀신종이모시기 75
귀표고사 79
그물고사 80
금기 81
기자 83

ㄴ

나락 88
나무고사 91
나이떡 91
낙인고사 92
넋들임 94
노구솥 97
논고사 97
논둑제 97
농사고사 98
농신제 101
눌굽지신 107

ㄷ

단오고사 112
단잡기 115
담배고사 121
대감 121
대감단지 127
대감벙거지 128
대구심리 130
대주 131
덤장고사 132
도깨비 132
도깨비고사 134
도신 138
돗제 138
동국세시기 141
동지고사 144
동토 148
동토잡기 149
돼지코 151
된장 151
똥떡먹이기 154
뜬귀물리기 155

ㅁ

마구간고사 158
마당신 159
마당제 160
마대장군 163
마중시루 163
맞고사 167
메밀묵 167
멩감제 168
모밥내가기 168
모탕고사 169
못자리고사 169
문간제 170
문신 171
문전제 175
문전철갈이 178
물대 179
미륵바위 180
미륵불 180
미역 182
밀떡 186

ㅂ

바꾸보살 190
바위치성 190
밧칠성 192
방앗간신 196
방위가리기 197
밭고사 197
배고사 197
배서낭 201
배서낭함 204
배성주 205
백중고사 205
벗고사 205
볏짚 205
병경 208
보름고사 211
복대 216
복물뜨기 217

복숭아나무 217
복제 221
부루단지 221
부적 223
북어 227
불막이 230
불밝히기 230
비손 233

ㅅ

사신 238
사신대감 239
산 240
산동이 243
산멕이 244
산바람막기 249
산소탈막기 250
산신멩감 250
산치성 251
살고사 252
삼신 254
삼신단지 257
삼신대 258
삼신모시기 261
삼신바가지 265
삼신받기 266
삼신밥 268
삼신짚 269
삼잡기 270
삼재 273
삼재부적 274
삼재풀이 276
삼짇고사 282
삼칠일 284
상달고사 287
상량문 287
상량제 292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새옹 295
서낭신 297
서낭제 300
석전 · 기우 · 안택 304
선왕 307
선왕제 307
섬떡 307
성주 307
성주고사 313
성주매기 317
성줏단지 319
성줏대 320
세이레 322
세존 322
세존단지 323
소금 326
소삼신 327
소삼신모시기 328
손 331
솔가지 333
송경 336
솥 336
쇠코뚜레 341
수세 345
수양부모삼기 345
수지 345
숯 347
시루 347
시루떡 349
시매 351
신구간 352
신수보기 354
신줏단지 359
신충애기 362
실타래 362
쌀 365
쌈 367

ㅇ

아이팔기 438
안칠성 440
안택 441
애기씨 451
액막이 451
야광귀 452
양밥 456
양씨아미 457
어부심 460
엄나무 463
업 464
업가리 466
업맞이 469
염전고사 472
영등 473
영등고사 477
영등까꾸리 484
예조 485
오곡밥 486
오방지신 489
오색천 493
옥녀각시 497
옥녀살 500
올개심니 500
올레대위 500
올레신 500
올벼심리 504
옹기가마고사 506
왕신 509
왕신단지 511
용단지 513
용단지모시기 516
용알뜨기 519
용왕 522
용왕제 526
우마신 530
우물제 531
웃줄할매 534
위목 535
유두고사 537

이월할매 540
인삼고사 540
인업 541
임신네 544
입택고사 545

ㅈ
자동차고사 552
잔밥먹이기 555
장독신 558
절미 561
정월고사 561
정월떡 561
정초차례 562
정화수 565
제미하기 567
제석 567
제석오가리 569
제석주머니 573
제석할망 57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 580
제웅버리기 583
조군영적지 586
조기심리 588
조상 591
조상단지 592
조상모시기 594
조상종이 598
조선 598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조왕 605
조왕고사 611
조왕중발 616
좀도리 618
종이성주 619
주당풀이 623
주부 625
죽산이 626
중구차례 626
지붕신 627
지신 631
지신밟기 634
지신제 634
지앙 637
짐승뼈 637
집들이고사 642
짚신이바지 642
짚주저리 643

ㅊ
찰밥 650
참봉고사 650
천신 650
철륭 653
철륭제 657
체 659
춘첩 661
출어고사 668
측신 672
측신모시기 675
칠석고사 678
칠성 680
칠성고사 684
칠성단지 689

ㅋ
키 696

ㅌ
탈 698
택일 699
터밟기 703
터주 707
터주고사 711
터줏가리 716
토봉고사 717
토신제 718
통시각시 718

ㅍ
팥죽 719
풍신 719
풍신제 719

ㅎ
학질떼기 722
한지 723
해물리기 726
햇곡식갈기 726
허궁 729
허재비 729
헌식 729
호구신 729
호서낭 733
호식장 734
홍수맥이 735
화재막이 735
횡수막이 736
이칭 740
색인 746
필자 760
통합목차 766

분야별 차례



제의

가을고사 22
개공제 25
개토제 27
객귀물리기 29
거리제 34
고사 40
구일차례 61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귀신가두기 69
귀신종이모시기 75
귀표고사 79
그물고사 80
나무고사 91
낙인고사 92
넋들임 94
논고사 97
논둑제 97
농사고사 98
농신제 101
단오고사 112
단잡기 115
담배고사 121
대구심리 130
덤장고사 132
도깨비고사 134
도신 138
돗제 138
동지고사 144
동토잡기 149
똥떡먹이기 154
뜬귀물리기 155
마구간고사 158
마당제 160
마중시루 163
맞고사 167
멩감제 168
모밥내가기 168
모탕고사 169
못자리고사 169
문간제 170
문전제 175
문전철갈이 178
바위치성 190
밭고사 197
배고사 197
백중고사 205
벗고사 205
병경 208
보름고사 211
복물뜨기 217
복제 221
불막이 230
불밝히기 230
산멕이 244
산바람막기 249
산소탈막기 250
산신멩감 250
산치성 251
살고사 252
삼신모시기 261
삼신받기 266
삼잡기 270
삼재풀이 276
삼짇고사 282
상달고사 287
상량제 292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서낭제 300
선왕제 307
성주고사 313
성주매기 317
소삼신모시기 328
송경 336
수세 345
수양부모삼기 345
신충애기 362
아이팔기 438
안택 441
액막이 451
어부심 460
업맞이 469
염전고사 472
영등고사 477
올개심니 500
올레대위 500
올벼심리 504
옹기가마고사 506
용단지모시기 516
용알뜨기 519
용왕제 526
우물제 531
유두고사 537
인삼고사 540
입택고사 545
자동차고사 552
잔밥먹이기 555
정월고사 561
정초차례 562
제미하기 56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버리기 583
조기심리 588
조상모시기 594
조왕고사 611
주당풀이 623
중구차례 626
지신밟기 634







지신제 634
집들이고사 642
짚신이바지 642
참봉고사 650
천신 650
철륭제 657
출어고사 668
측신모시기 675
칠석고사 678
칠성고사 684
터밟기 703
터주고사 711
토봉고사 717
토신제 718
풍신제 719
학질떼기 722
해물리기 726
햇곡식갈기 726
호식장 734
홍수맥이 735
화재막이 735
횡수막이 736



신격

걸립신 38
고팡신 48
곳간신 51
광대감 52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군웅 61
굴대장군 63
굴뚝신 63
눌굽지신 107
대감 121
도깨비 132
마당신 159
마대장군 163
문신 171
바꾸보살 190
밧칠성 192
방앗간신 196
배서낭 201
배성주 205
사신 238
사신대감 239
삼신 254
서낭신 297
선왕 307
성주 307
세존 322
소삼신 327
안칠성 440
애기씨 451
야광귀 452
양씨아미 457
업 464



영등 473
오방지신 489
올레신 500
왕신 509
용왕 522
우마신 530
웃줄할매 534
이월할매 540
인업 541
임신네 544
장독신 558
제석 567
제석할망 577
조상 591
조왕 605
죽산이 626
지붕신 627
지신 631
지앙 637
철륭 653
측신 672
칠성 680
터주 707
통시각시 718
풍신 719
호구신 729
호서낭 733

신체

곡물 48
귀신종이 72
나락 88
대감단지 127
대감벙거지 128
미륵바위 180
미륵불 180
볏짚 205
부루단지 221
산 240
산동이 243
삼신단지 257
삼신바가지 265
성줏단지 319
세존단지 323
신줏단지 359
업가리 466
왕신단지 511
용단지 513
제석오가리 569
제석주머니 573
조상단지 592
조상종이 598
조왕중발 616
종이성주 619
칠성단지 689
터줏가리 716
한지 723



제구

고깔 39
노구솥 97
돼지코 151
물대 179
배서낭함 204
복대 216
복숭아나무 217
부적 223
삼신대 258
삼신짚 269
삼재부적 274
상량문 287
새옹 295
성줏대 320
솔가지 333
솥 336
쇠코뚜레 341
숯 347
시루 347
시매 351
엄나무 463
영등까꾸리 484
오색천 493
위목 535
제웅 580
짐승뼈 637
짚주저리 643
체 659
춘첩 661



제물

객귀밥 31
거리밥 34
고추 47
나이떡 91
된장 151
메밀묵 167
미역 182
밀떡 186
북어 227
삼신밥 268
섬떡 307
소금 326
시루떡 349
실타래 362
쌀 365
쌈 367
오곡밥 486
정월떡 561
정화수 565
찰밥 650
팥죽 719
키 696
허재비 729



자료

동국세시기 141
석전 · 기우 · 안택 304
조군영적지 586
조선 598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용어

건궁 36
고수레 45
금기 81
기자 83
대주 131
동토 148
방위가리기 197
비손 233
삼재 273
삼칠일 284
세이레 322
손 331
수지 345
신구간 352
신수보기 354
양밥 456
예조 485
옥녀각시 497
옥녀살 500
절미 561
좀도리 618
주부 625
탈 698
택일 699
허궁 729
헌식 729
이칭 740
색인 746
필자 760
통합목차 766



O

아이팔기
안칠성
안택
애기씨
액막이
야광귀
양밥
양씨아미
어부심
엄나무
업
업가리
업맞이
염전고사
영등
영등고사
영등까꾸리
예조
오곡밥
오방지신
오색천
옥녀각시
옥녀살
올개심니
올레대위
올레신
올벼심리
옹기가마고사
왕신
왕신단지
용단지
용단지모시기
용알뜨기
용왕
용왕제
우마신
우물제
웃줄할매
위목
유두고사
이월할매
인삼고사
인업
임신네
입택고사

제의
아이팔기
안택
액막이
어부심
업맞이
염전고사
영등고사
올개심니
올레대위
올벼심리
옹기가마고사
용단지모시기
용알뜨기
용왕제
우물제
유두고사
인삼고사
입택고사

신격
안칠성
애기씨
야광귀
양씨아미
업
영등
오방지신
올레신
왕신
용왕
우마신
웃줄할매
이월할매
인업
임신네

신체
업가리
왕신단지
용단지

제구
엄나무
영등까꾸리
오색천
위목

제물
오곡밥

용어
양밥
예조
옥녀각시
옥녀살



아이팔기

정의 아이의 명이 짧거나 사주가 좋지 않을 경우 신이나 자연물 또는 사람을 수양부모로 정하여 아이의 수명장수를 비는 의례.

역사 아이팔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16세기때 이문건이 남겨 놓은 『묵재일기(默齋日記)』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 신해생인 손자 숙길의 팔자를 뽑아 점복 김자수에게 물었더니 아이의 운명이 귀하여 3세와 7세 때 액운이 있어서 수명을 주관하는 별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친모가 길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모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답이 왔다. 아이를 위해 주성(主星)에게 제사 지낼 날을 택일해 주겠다고도 한다. 이문건은 당시 오랜 사화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자식마저 잃어 오로지 손자에게 가문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만큼 점복 김자수의 예언을 그대로 따랐다.

이문건이 태어난 손자의 사주에 대해 문복한 것, 점복이 손자에게 액이 있으니 수명을 주관하는 별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 친모가 기르지 말고 유모에게 맡기라고 한 것 등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아이팔기 속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문복이나 제사 행위가 정월 상원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오늘날의 '아이팔기'도 정월 신수를 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정월 초승이나 보름에 제의가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대신 유모의 양육을 강권한 것도 결국 아이의 액운을 벗어나기 위해 수양어머니를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수명을 주관하는 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칠성에게 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오늘날의 아이팔기와 비견될 만하다.

담헌 홍대용의 『담헌서외집(湛軒書外集)』 권8 「연기(燕記)」의 '연로기략(沿路記略)' 부분에도 중국과 한국의 아이팔기[賣兒] 습속에 관한 언급이 있다. 1765년 동지사 서장관이 된 담헌이 계부 홍억(洪檍)의 수행원으로 연경을 다녀와 기록한 것으로, "길가에 늘어선 점사의 주인들이 그 자녀들을 우리나라의 역졸이나 역관들과 부자관계를 맺어주고는 주찬을 대접하고 토산물을 선사했다."라는 내용이다. 담헌은 이것을 어린아이를 위한 액막이라고 하면서 당시 조선에 있던 매아속(賣兒俗)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똑같은 내용이 역시 1832년 서경보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온 김경선의 『연원직지(燕轅直指)』 6권 「유관별록」의 인물요속에서도 보인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아이팔기 습속이 널리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수양부모를 정하고 주찬과 토산품으로 수양부모를 대접하는 풍속도 오늘과 다르지 않다.

아이팔기의 습속과 제의에 관한 더 오래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광줄이, 실경이, 바우, 판돌이, 판수와 같은 아명(兒名)들이 민간에서 흔히 불려졌던 것을 보면 아이팔기 신앙은 근대 이후까지도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광주리에 담아 시렁에 올려놓는 것은 시렁 위에 모셔진 삼신에게 아기를 파는 행위이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광줄이가 되고 실경이가 되었다. 바우는 바위에게 판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판돌이나 판수는 무당에게 판 아이라는 의미이다. 아이팔기 의례를 치른 아이들에게 붙여진 이런 이름들은 늦어도 1950~1960년대까지는 흔하고 친숙한 아명이었다.

근대 의료기관이 보급되기 이전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절을 살았던 세대에게 아이의 수명을 연장하는 아이팔기 의례가 지니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태어난 아기에게 정기적 일생의례로 행해진 아이팔기가 점차 귀한 자손이나 병치레가 많은 아이, 사주가 좋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비정기적 의례로 바뀌어 간 것도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강화된 남아선호사상과 문화가 딸보다는 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이팔기를 행하는 변화를 부추겼다.

내용 수양부모를 정하여 아이의 수명을 길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을 '아이를 판다.'라고 한다. '아이팔기'는 수양부모를 정하는 것이 곧 수양부모에게 아이를 파는 것이라 인식한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식팔기, 수양부모 삼기, 수양어머니 삼기, 시영어매 삼기, 명다리 걸기, 수양 걸기, 신충애기 등으로도 불린다. 언나팔기, 시엉(시영)어매(어머니) 삼기 등의 이칭은 '언나'가 아이의 경상도 방언이고 '시엉(시영)어매'는 수양어머니의 충청도 방언인 데서 비롯되었다. '명다리 걸기'는 무당에게 아이를 판 것을 일컫는 이름이다. 명다리는 긴 무명베에다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시, 주소를 적은 것을 말하며, 아이를 파는 집에서는 이 명다리를 마련하여 수양어미가 될 무당에게 건네준다. 명다리 걸기는 무당이 명다리를 자신의 신당에 거는 행위를 이른 것으로, 실제로는 아이의 이름을 신당에 올린다는 의미이다. '아이사기'는 아이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아이팔기의 이칭이다. 제주도의 '신충애기'도 심방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린 애기라는 의미이다.

아이팔기 습속은 거의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식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라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귀한 자손이 출생하였을 때, 아이가 단명할 사주일 때, 아이의 사주가 부모와 맞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가 잔병치레가 잦을 때, 그리고 아이의 신수에 액운이 끼었을 때 부모들은 아이팔기를 했다. 딱히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당이 태어난 아이의 장래를 위해 팔아 주면 좋다고 권하면 부모로서는 그 권유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팔기도 하지만 대개는 3~7세 때 팔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팔기는 3세 안으로 하면 좋고 늦어도 10세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1, 3, 5, 7, 9와 같은 홀수 나이에 파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나 2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건강과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아이팔기를 해 주었다.

아이를 파는 대상은 자연물, 신, 무당, 다복한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연물은 산, 나무, 바위, 물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연물에 팔 때는 아이의 띠에 따라서 파는 곳이 달라진다. 아이가 용띠라면 샘이나 물가에 팔고, 범띠이면 산이나 바위에 파는 것은 그곳들이 띠동물과 상관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무당이 잡은 대가 향하는 곳에다 팔거나, 집안에서 특별히 위하는 산, 나무, 샘 등에다 팔기도 하였다. 아이의 사주를 감안하여 무당이 직접 팔 곳을 정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무당이나 스님과 같은 종교직능자에게 아이를 파는 것이다. 단골무당에게 아이의 명다리를 걸거나 다니는 절에 아이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이 때는 무당 또는 스님이 아이의 수양부모가 된다. 수양부모가 된 무당이나 스님에게는 쌀, 돈, 옷, 무구 등을 시주한다. 특히 무당을 수양어머니로 삼을 경우, 징, 북, 꽹과리 등의 악기를 무구로 장만해 주면 아이에게 좋다고 여겼다.

이웃에 사는 다복한 사람에게 아이를 팔기도 했다. 수양어머니로는 첫아들을 낳았거나 아들을 많이 낳은 다복한 부인이 선호되었고, 수양아버지 역시 다복한 집안의 손위 어른에게 부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에는 수양 관계를 위한 의례는 특별히 행하지 않지만, 수양부모에게 새 옷을 장만해 드리거나 명절이나 특별한 날 인사를 가는 등으로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친밀하게 지낸다. 그리고 수양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과 마찬가지로 상복도 입었다.

용왕, 산신, 부처, 칠성과 같은 신격에게 아이를 파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산신은 산과, 부처는 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때로는 산신당의 무당이나 절의 승려에게 판 것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샘이나 물가에 판 것을 용왕에게 팔았다고도 하는 것처럼, 때로 자연물과 신격이 겹쳐지기도 하였다. 특히 수명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칠성신은 아이팔기 신앙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아이가 명이 짧으리란 사실 자체가 칠성을 위해 주지 않은 탓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아이팔기가 주로 칠성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의 제사도 칠석맞이의 하나로 행해지게 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는 용왕에게 아이를 판 뒤, 용왕먹이기로 제사를 대신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아이팔기 의례는 주로 무당이나 점복, 때로는 승려와 같은 종교직능자가 주재하는 경우가 많다. 파는 곳이 결정되면 아이를 파는 집에서는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무당이나 점복과 함께 그 곳으로 간다. 그리고 금줄을 치고 제물을 진설한 후, "아무것이 동자 사소.", "○○○, ○살 먹은 중생, 명복 길게 해 주소.", 또는 "우리 ○○○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고 재죽재죽 잘 봐 주이소."라고 하면서 아이의 수명장수를 축원한다. 제물은 지역과 집안, 그리고 의례 주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밥, 떡, 삼색과일 외에 향과 초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실타래나 흰 천(명다리)은 빠뜨리지 않는다. 둘 다 명을 길게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 되기 전에 아기를 팔 경우에는 미역국도 올려야 한다. 나무에 팔면

종이나 헝겊을 묶어 아이 판 곳임을 표시하고, 바위에 팔면 판 아이의 이름을 새기거나 실타래를 걸어 두어 그 흔적을 남겼다. 아이팔기 의례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집안 사정에 따라서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할 수도 있었다.

아이팔기 의례를 한 후에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연중 특별한 세시마다 아이 판 곳을 찾아가 수명장수를 비는 치성을 올린다. 제일은 아이를 판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월대보름과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가을맞이, 섣달그믐날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아이를 판 날이나 아이의 생일에 그 곳을 찾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판 사람과 아이를 산 종교직능자들이 함께 올리는 이 치성은 아이의 나이가 13세 또는 20세가 될 때까지, 더러는 결혼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명다리를 건다거나 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결국 무당 또는 승려 등의 종교직능자와 아이를 판 집 간의 단골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곧 아이팔기가 양자 간의 단골관계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단골관계에서 서로 아이를 사고 팔았다면 이 의례를 계기로 단골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다.

지역사례 경기도지역의 아이팔기에서는 만신의 존재와 역할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아이를 판 집에서 장만한 명다리를 건네받은 만신은 그것을 신당에 걸어 두었다가 진적굿을 할 때나 그 밖의 특별한 제의가 있을 때 들어내 걸어놓고 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해 준다. 이 지역에서는 그것을 '명다리 놀린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아이팔기보다 명다리 걸기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경북지역에서는 무당보다는 자연물이나 사람에게 아이를 파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경북지역의 무당이나 점바치는 주로 아이를 산천에 파는 것을 중개하거나 그 의례를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띠에 따라 아이를 파는 자연물의 대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된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아이가 용띠이면 샘이나 물가에, 범띠이면 산이나 바위에, 뱀띠 또는 양띠이면 들판에 각각 판다. 또 소띠나 말띠는 풀이 많은 곳, 쥐띠는 변소나 돌담, 돼지띠는 질퍽한 땅에 각각 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띠동물이 거처하는 곳에 아이를 팔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주술의 원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신충애기'라는 독특한 명칭으로 불리는 제주도 지역의 아이팔기도 독특한 면이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에서는 아기가 허약할 경우 심방의 자식으로 신당에 이름을 올리고, 때로 심방이 직접 키우기도 한다. 또 심방은 여러 가지 굿을 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어 귀신이 범접하는 것을 막아 준다. 다만 아이가 15세 정도가 되면 그 이름을 도로 가져와야 한다. 부모가 그것을 무심히 놔두면 아이에게 해롭다고 여겼다. 부모가 자주 굿을 해 주면서 뒷바라지를 하거나 적절한 때에 뒷마무리를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온전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부로 심방 밑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인식도 나타난다. 또 육지와 달리 이 지역에서는 자연물이나 일반인에게 아이를 파는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이팔기 의례의 실제는 곳곳마다 다양한 사례가 산재하여 지역적 특징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참고문헌 **湛軒書外集 권8, 묵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이복규, 민속원, 1999), **서미마을 아이팔기 신앙 연구**(한해숙,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천혜숙(千惠淑)**

안칠성

상호참조 곳간신(51쪽), 밧칠성(192쪽)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고팡(광)에 좌정하여 곡물을 지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

내용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神)으로 숭배하였다. 1521년(중종 16)에 김정(金淨)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몹시 숭배하였다.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제물을 올리고 소리지르고 조롱하면서 두렵게 위협한다. 명절이나 삭망(朔望), 이렛날에는 짐승을 희생으로 음사(淫祠)를 위하였는데, 그것이 300여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더욱이 "풍속에 몹시 뱀[蛇]을 꺼리고 이를 신이라 여겨 받들면서 위하는데, 뱀을 보면 주문을 외우고 술로 위하며 신성한 신으로 여겨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사신(蛇神)인 칠성의 내력담이 신화로 전해져 불려지고 있다. 이를 〈칠성본풀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간에 불공을 드려 태어난 귀한 집안의 딸이 중의 자식을 임신하여 돌함에 담긴 채 쫓겨나 제주도에 표착했다. 이 딸이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뱀의 모습을 한 딸 일곱을 낳았다. 이들은 각각 신이 되었다. 일곱째 막내딸은 집 뒤 주저리 밑 기왓장 아래로 들어가서 부군칠성, 즉 '밧칠성'이 되었다. 어머니는 고팡의 쌀독에 들어가서 곡물을 지켜 부자가 되게 하는 '안칠성'이 되었다.

여드렛당이란 명칭은 그 제일(祭日)이 매 8일(8일, 18일, 28일)인 데서 유래한다. 이 당들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여드렛당이 확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산당이라고 부른다. 이 당은 사신을 모시는 당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은 반드시 단골의 딸에서 따온다. 이 신을 숭앙하다가 중단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 집안에 장가들기를 꺼린다. 몰라서 장가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신을 숭앙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인이 많아지면 공동 제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여기저기에 여드렛당이 존재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사는 이영숙(여, 1969년생) 씨에 따르면 별도로 위하는 신은 없지만 집안에 기일 제사가 있어 조상을 위하는 때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을 별도로 대바구니에 차려서 '할망상'도 올렸다고 한다. 제물은 제를 치르고 나서 걸립할 때 함께 걸립해서 내렸다. 한남리의 오영종(남, 1931년생) 씨에 따르면 제사 때마다 여성이 중심이 되어 제물을 별도로 차려 올렸다가 제를 파할 때 내리면서 위하고 있다고 한다.



고팡상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8.7
김동섭



안할망상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8.7, 김동섭

제주시 아라동의 강화순(여, 1968년생) 씨에 따르면 기일 제사 때 모시는 조상 말고도 별도로 안할망을 위하고 있다고 한다. 별도의 제물을 준비하고 고팡의 쌀독 위에 제물을 차린 쟁반을 올려 두었다가 파제 때 함께 내려 걸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상의 기일 제사와는 별도로 제사 때마다 고팡의 할망을 위하고 있다.

이는 남자들이 제관이 되어 제물을 준비하고 유교식으로 행하는 조상 제의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제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속식 제의의 유습이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참고문헌 **여성농업인의 삶과 전통**(김동섭 외, 여성농업인중앙회, 2005),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민속문화이해**(김동섭, 거마문화사, 2010), **제주유식마을제의 전승양상**(김동섭, 제주도, 2009), **제주전래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제주풍토록**(김정, 홍정표 역,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동섭(金東燮)**

안택(安宅)

상호참조 가을고사(22쪽), 보름고사(211쪽)

정의 매년 또는 3년 들이로 음력 10월 또는 정월에 주부가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에 대한 기원 및 감사

등의 목적으로 가신(家神)에게 기원하는 가정단위의 의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주부의 비손 형식과 전문사제자의 굿 형식이 있다.

내용 한국인은 집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머물고 있다고 인지하는 전통적인 사고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신을 가신이라고 하며, 조상, 성주, 조왕, 터주, 삼신, 제석, 업, 철륭, 칠성, 수비, 측신, 액사령(厄死靈), 풍신, 마마(손님), 문신, 가업수호신(군웅) 등이 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의 신체(神體) 또는 신이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써 표식을 삼는다. 이 표식은 지역마다 동일하기도 하고 상이하기도 하다. 안택은 이들 가신에게 식구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가정단위로 주부가 행하는 종합의례이다. 또한 안택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집안에 성주를 새로이 모실 때,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성주를 대물림할 때 행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신에 대한 신앙의 정도가 약화되기도 하였고, 이들 신의 신체 또는 표식 등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농어촌 또는 산간지역에서는 시월상달이나 정월 초순에 가신에 대한 종합의례인 안택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 도시에서도 더러 찾을 수 있다. 즉 가신을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은 많이 사라졌지만 가신에 대한 사람들의 심성은 의례를 통해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월상달이나 정월초순이 되면 고사떡(시루떡)을 장만하여 성주, 조왕, 터주 등이 위치하는 공간에 모셔 두고 기도를 올리는 집을 자주 찾을 수 있다. 안택은 식구들의 평안을 위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택은 주부가 행하기도 하지만 무당이나 소경을 불러서 독경을 하거나 굿을 하는 안택굿을 행하기도 한다.

의례는 택일-부정 치기-제수 장만하기-의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택일은 주부가 정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 이때 손 없는 날로 결정한다. 의례를 행하는 날이 되면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두어서 잡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일정한 정화의례를 행한 뒤에 가장 중요한 제물인 팥 시루떡, 술, 감주, 나물 등을 장만한다. 떡과 술은 새로이 수확한 햅쌀로 만들며, 떡은 보통 석 되 서 홉의 쌀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시루는 한 개 또는 두 개를 준비한다. 떡은 본래 집에서 주부가 직접 찌는 것이지만 요즘은 방앗간이나 떡집에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된 제물은 마루의 대들보에 위치한 성주를 위해 한 상 차려 두고 남자 주인이 재배하면서 간단한 의례를 행한다. 떡 시루를 한 개 준비했을 때는 시루째로 상에 차리고, 두 개 준비했을 때는 시루 한 개를 차려 둔다. 그 후에 조왕(부엌)과 장독대 또는 마당(터주), 안방(삼신) 등에도 상을 차려서 주부가 비손을 하면서 집안의 평안을 위해 간단히 의례를 올린다. 성주 또는 조왕, 터주, 삼신 등에 대한 의례가 끝나면 나머지 떡을 조금씩 썰어서 쟁반에 담아 집안의 공간 곳곳에 갖다 둔다. 시루가 한 개면 절반 정도의 떡을 썰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두 개면 시루 하나의 떡을 썰어서 사용한다. 즉 대문, 우물, 부엌, 다락, 마구간, 장독대, 창고, 경운기, 변소, 안방 등에 갖다 두었다가 잠시 후에 거두어들인다. 이 떡은 이웃집에 돌려서 나누어 먹는다. 떡을 이웃집에 갖다 주는 역할은 어린아이들이 담당한다. 또한 안택을 행할 때 용단지나 터줏단지, 삼신바가지(단지), 볏섬(성주섬), 성주오쟁이 등에 담겨진 곡식을 햇벼로 바꾸기도 한다. 이때 본래 담겨 있는 곡식의 모양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특징 안택은 지역에 따라서 '안택고사' 또는 '고사' 등으로 불린다. 또한 이 의례에서 떡을 필수적인 제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떡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시루구멍 막기'라고 한다. 또 정월에 안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정월떡 해 먹는다', '정월떡고사', '정월시루한다', '보름떡 한다', '고사떡', '꺼먹시루(조상시루)한다', '캐떡(터주시루)해 먹는다', '농사시루 한다', '농사떡 한다' 등이라고 한다. 가을에 안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가을떡 해 먹는다', '가을떡고사', '신곡맞이', '햇곡맞이', '도신한다', '도신떡 해 먹는다' 등이라고도 한다. 정월 초순에 행한다는 의미에서 '정초고사'라고도 하며, 안택을 행할 때 무녀나 법사를 불러서 굿을 행하는 경우에는 '안택굿'이라고 한다. 또한 정월이나 시월에 안택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례를 '안택' 또는 '고사'라고 부른다. 안택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은 지역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민속의 문화적 · 지역적 다양성과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면서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성격은 가정신앙 의례를 통해서 일정 지

안택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1991, 국립민속박물관



소지 올리기



조왕고사 제물



터주고사



터주고사 제물



성주고사

안택 경남 산청군 삼장면, 2001.11.13, 코리아루트



1. 안택 제물 준비



2. 성주상에 술잔 올리기



3. 성주모시기



4. 성주모시기



5. 성주모시기



6. 조상상 제물



7. 조상모시기



8. 삼신상 제물



9. 삼신모시기



10. 헌식



11. 헌식

역 내의 문화영역을 설정하는 데에도 유효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의 가정신앙-충북』에 실린 안택사례를 통하여 지역적 분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충북내 지역에 따라서 안택을 표현하는 용어인 '안택'과 '정월떡', '가을떡' 등 민속어휘를 대상으로 살핀다.

단양지역에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를 행하는 시기와 규모는 차이가 없지만 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행한다. 가을떡의례는 소백산을 경계로 경북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산간지역, 안택은 남한강에 인접한 지역이다. 안택은 정초나 10월에 택일해 무당은 초빙하지 않고 부부가 의례를 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이 편하고 일 년 농사 잘 짓고, 가축이 잘 크게 해 달라.'고 성주, 오방터신, 조왕을 모시면서 안택을 행한다. 성주는 남편이, 터주는 부인이 의례를 행한다는 것은 안택의 목적을 잘 나타낸다. 가을떡의례는 햇벼로 터주항아리를 갈아 넣고 햇곡식으로 가을떡(붉은 시루떡)을 해서 성주와 터주를 주로 모신다. 제천지역에서는 안택만 행한다. 시기는 대부분 음력 10월이며, 정월은 극소수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종합의례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만 행하며, 경북 북부지역, 강원도 남부지역과 경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충주시는 남한강과 인접한 마을들에서 안택과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를 모두 행한다. 산골마을에서는 가을떡의례와 정월떡의례만 등장한다. 이를 통해 충주지역에서는 안택보다 가을떡의례와 정월떡의례가 더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제천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던 정월떡의례가 행해지고 있다. 괴산지역에서는 안택,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비교적 고르게 등장한다. 세 의례는 시기와 목적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주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인 평야지대에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가 강조된다면 소백산맥과 인접한 산악지대에서는 가을떡의례와 정월떡의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음성군은 차령산맥의 오갑산에서 분기하여 부용산, 좌구산, 거대령 등을 지나 남쪽으로 뻗은 노령산맥으로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정월떡의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안택과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을떡의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정월떡의례는 지금도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진천군은 동쪽으로 노령산맥, 서쪽으로 차령산맥 및 충남과 각각 경계하고 있다. 진천지역에서는 안택이 드물지만 정월떡의례와 가을떡의례도 함께 행해지면서 정월떡의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음성과 진천지역에서는 정월떡의례가 더욱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동쪽으로 노령산맥을 기준으로 괴산군과 경계를 두고, 서쪽으로는 충남과 연접해 있다. 청원지역에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를 함께 행하면서 정월떡의례는 조금씩 행한다. 또한 가을떡의례는 안택의 간소화된 형식 또는 상보적 관계로 표현되지만 정월떡의례의 차이는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청주지역의 안택과 가을떡의례 자료는 다수 있지만 정월떡의례는 매우 약화되어 있다. 즉 청원군과 청주시는 이 두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진천군 및 괴산군과 달리 모두 안택과 가을떡의례가 함께 행해지면서 정월떡의례가 가끔식 행해지는 곳이다.

보은군은 안택과 가을떡의례를 강조하는 지역이다. 또한 안택은 여러 가지 제수를 장만하고 모든 가신을 모시는 의례이지만 가을떡의례는 집안에서 떡만 준비해서 집안의 가신을 위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차이가 있다. 옥천지역은 안택과 가을떡의례를 모두 잘 행하는 곳이다. 특히 가을떡의례는 지금까지도 잘 행해지고 있다. 시기는 정월보다 시월이 더 많은 편이다. 영동지역은 정월떡의례가 없는 반면에 안택과 가을떡의례를 많이 행하는 곳이다. 금강과 인접한 마을이나 평야지역에서의 안택은 주로 정초에 식구들의 액막이의례로 행하는 것이며, 가을떡은 '도신' 또는 '도신떡'이라고 하여 주기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보은·옥천·영동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월떡의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충북의 안택과 고사는 서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안택은 새집을 지어서 성주를 새롭게 모실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와 같은 수시 의례적 성격과 함께 매년 행하는 주기적 성격을 동시에 띤다. 정기 의례적 성격이 강한 안택은 매년 행하기도 하지만 3년마다 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기는 두 의례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안택은 전문사제자의 참여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의례

규모가 안택과 고사의 구분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사는 매년 행하는 정기 의례적 특성이 강하다. 그러나 두 의례는 신년제의 성격과 수확 의례적 성격으로 완전히 구분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게 표현된다. 즉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정월에 행하는 의례와 시월에 행하는 의례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안택과 고사의 빈도는 두 의례의 성격을 구분 짓는 기준이기보다 특정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포도는 안택과 고사(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의 충북내 지역적 편차를 나타내며, 이것은 충북 내 문화영역을 나타낸다. 단양과 제천지역은 대부분 안택이 단수로 행해졌으며, 충주시로 접어들면서 정월떡의례와 안택 및 가을떡의례가 함께 나타난다. 괴산군지역에서도 안택과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노령산맥 너머의 음성·진천지역에서는 달리 나타난다. 음성지역에서는 정월떡의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진천지역에서는 정월떡의례가 가을떡의례와 공존하지만 정월떡의례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음성지역과 진천지역에서는 정월떡의례가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충주지역은 안택의례 영역과 정월떡의례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점이지대(漸移地帶)로 상정된다. 다만, 안택의례 영역과 정월떡의례 영역 사이에 위치한 충주지역에서 가을떡의례가 나타나는 것은 괴산군의 달천과 남한강이 합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복합 현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청원군과 청주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가 복수로 행해지는 경향이 강한 곳이면서 안택,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함께 행해지기도 하는 지역이다. 즉 두 지역 모두에서 정월떡의례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가 공존하고 있다. 즉 청원군과 청주시는 안택과 가을떡의례가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보은·옥천·영동지역과 정월떡의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천지역과의 점이지대로 상정할 수 있다.

종합적 가정신앙의례의 분포와 지역적 차이는 인접학문들의 성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충북의 문화영역은 첫째 지형적 특성은 한강 유역의 북부 분지와 금강 본류 유역의 남부 구릉-산간지, 금강 지류(미호천) 유역의 서부 저지 평야로 구분된다. 둘째 방언권(강원도 영향의 북부방언, 경북과 전북 영향의 남부방언, 경기도와 충남 영향의 중서부 방언지역)과 지형적 생활권(북부 분지의 충주 중심, 남부 구릉·산간지의 영동 중심, 서부 저지 평야의 청주 중심) 및 신라·백제·고구려의 영향권이면서 쟁패·분할점거 지역 등을 토대로 북부, 한강 유역의 충주 문화지역, 금강 본류유역의 남부 문화지역, 서부 미호천유역의 청주 문화지역 등 세 문화지역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구려 고토의 북부지역 방언권, 백제 고토의 중부지역 방언권, 신라 고토의 남부지역 방언권으로 구분되고 이것은 소백·태백·차령산맥에 의한 지형적인 조건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 등이다. 즉 이러한 영역은 종합적 가정신앙의례인 안택의 민속어휘를 대상으로 한 영역 설정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안택과 고사에서 사용되는 명칭, 즉 안택, 정월떡의례, 가을떡의례를 대상으로 문화 영역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택 영역은 소백산맥지역과 남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단양군과 제천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달천 중·하류지역에 속하는 괴산군의 일부,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유역의 충주시 일부가 해당된다. 정월떡의례영역은 미호천 상류지역과 노령산맥 서쪽지역에 속하는 음성군과 진천군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령산맥과 인접한 충주시 일부 지역, 괴산군의 일부지역, 미호천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청원군·청주시의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택·가을떡의례영역은 보청천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 상류지역, 소백산맥 서쪽지역과 노령산맥 중·남부지역 및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구릉맥(청주 남동쪽 피반령 근처~속리산)의 남쪽지역에 속하는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중심으로 한다. 보은군과 인접한 괴산군의 남부지역과 노령산맥에 인접한 청원군·청주시 남부지역도 일부 해당된다. 그리고 세 영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영역들의 접촉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복합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접촉지대는 세 문화 영역들이 서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충주시, 괴산군, 청원군, 청주시 등 영역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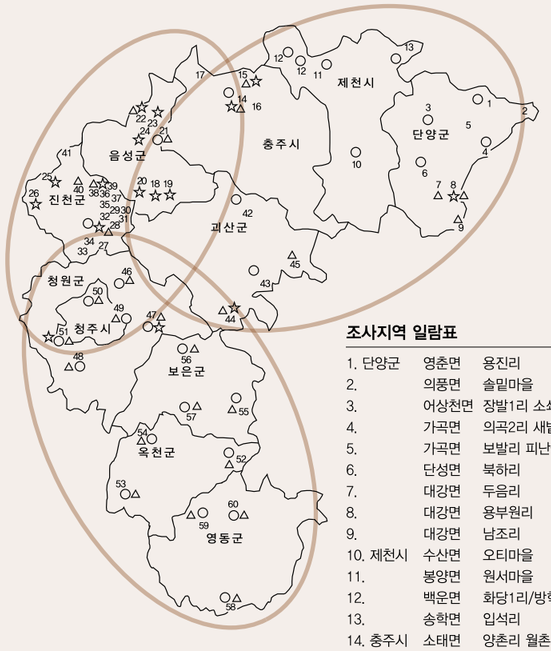
상이한 문화영역의 문화 요소들이 서로 혼재하면서 혼합문화를 형성하는 이들 지역은 점이지대로 설정한다. 즉 정월떡의례영역과 안택·가을떡의례영역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청원군, 청주시)은 안택,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혼재하고 있다.(점이지대①) 안

택, 가을떡의례영역과 안택영역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괴산군)은 안택,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혼재하고 있고(점이지대②) 안택영역과 정월떡의례영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충주시)은 점이지대②와 만나면서 안택, 가을떡의례, 정월떡의례가 혼재하고 있다.(점이지대③) 이러한 점이지대는 상이한 문화권이 서로 만나는 지역으로서 양쪽의 문화가 서로 혼합되면서 공존하게 되고, 이러한 혼합문화 영역을 서로 수용해서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교량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상이한 문화 영역들은 각각의 점이지대를 통해 서로 만나게 되고, 이것은 충북을 하나의 문화영역 또는 서로 유사성을 지니면서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도와 같은 문화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 문화 영역은 이전에 발표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북도』의 산신제, 서낭제, 탑신제, 장승제의 분포, 또한 이들 각 의례의 통합적 측면을 보이는 마을제당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안택의 문화영역 설정은 다른 문화 요소들과 함께 지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역사례 안택은 음력 10월 또는 정초에 점쟁이(또는 법사나 경쟁이)에게 날을 받아서 주부가 행하거나 점쟁이 또는 법사를 초청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상예곡마을의 사례를 들어본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중 달력을 보아 일진

충북 종합적 가정신앙의례 문화영역 지도



범례: ○ 안택 △ 가을떡의례 ☆ 정월떡의례

△☆: 35, 36, 37, 38, 39
○△☆: 27, 28, 29, 30, 31, 32

조사지역 일람표

1.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24.	생극면	신양리
2.		의풍면	솔밑마을	25.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상봉
3.		어상천면	장발1리 소쇄골	26.		백곡면	갈월리 노신/강당
4.		가곡면	의곡2리 새밭	27.		초평면	연담리 판탄
5.		가곡면	보발리 피난골	28.		초평면	용정리 부창
6.		단성면	북하리	29.		초평면	금곡리
7.		대강면	두음리	30.		초평면	금곡리 수문
8.		대강면	용부원리	31.		초평면	양촌리
9.		대강면	남조리	32.		초평면	오갑리
10.	제천시	수산면	오티마을	33.		문백면	은성리 은성1
11.		봉양면	원서마을	34.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
12.		백운면	화당1리/방학2리	35.		덕산면	구산동
13.		송학면	입석리	36.		덕산면	옥골
14.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월촌	37.		덕산면	기전리 티미실
15.		소태면	주치리 하남	38.		덕산면	산수리 중방
16.		엄정면	목계1리	39.		덕산면	석장리 장암
17.		양성면	영죽리 음촌을	40.		이월면	동성리 자네실
18.	음성읍	초전3구	능암마을	41.		만승면	구암리 병무관
19.		초전4리	풋내(초전, 음달)	42.	괴산군	감물면	오간리
20.		동음1리	아랫창골	43.		청천면	관평리 제비소
21.	음성읍	생극면	차곡리	44.		청천면	사담리
22.		생극면	차평리	45.		연풍면	주진리
23.		생극면	차평2리	46.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배나무골
				47.		낭성면	문박리 재실말
				48.		남이면	외천2구 담안/진바위
				49.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50.		상당구	오동동
				51.		흥덕구	휴암동
				52.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상예곡
				53.		군서면	하동리 마구실
				54.		안내면	답양리 양지골
				55.	보은군	마로면	관기1리
				56.		내북면	서지리
				57.		수한면	묘서1리 안말
				58.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59.		심천면	약목리
				60.		용산면	율리

이 좋은 날에 안택을 지낸다. 안택은 가능한 한 열나흗날 이전에 한다. 대개는 정초 범날이나 용날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때 식구들의 생기(生氣)는 따지지 않는다. 정초에 하는 안택은 경쟁이(법사)가 와서 경을 읽어 주는 것이고, 10월에 행하는 '가을떡'은 주부가 직접 떡을 쪄서 집안 신령들에게 올리고 비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을떡은 매년 해 먹지만 안택은 3년 들이로 한다.

정초에 안택을 하려고 날을 잡았다가 마을과 집안에 부정이 있으면 하지 못한다. 부정은 초상이나 출산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달[月]을 넘겨서 다시 날을 잡아야 한다. 보통 남의 부정은 사흘만 가리면 된다고 하지만 달을 넘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한편, 집안 식구 가운데 달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날을 피해서 잡았다. 피 부정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달거리 하는 날에 고사 일이 닿으면 별 수 없이 제를 모신다. 며느리나 딸에게 몸 부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고사 일에 내보내지는 않는다. 본래 여자의 월경은 '산나무의 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다.

정월 외에 시월이나 동짓달에도 안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섣달과 6월은 액달이라고 하여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택일을 하고 나면 대문 양쪽으로 황토를 세 무더기씩 펴 놓아서 부정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조심시키고, 주부는 목욕재계한다. 안택은 하루만 가리면 되는 이른바 '하루 정성'이다.

안택에 사용할 제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고사일 이전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온다. 제물은 시루떡과 함께 삼색실과, 명태, 나물, 적, 탕 등을 사용한다. 시루떡은 많이 찔수록 좋다. 탕은 쇠고기, 무, 두부를 넣어서 끓인다. 적으로는 배추적과 무적을 장만한다.

여러 가지 제물 가운데 가장 신경 써서 장만하는 것은 시루떡이다. 예전에는 디딜방아로 쌀을 빻아서 새벽에 떡을 쪘다. 그런데 부정이 들면 떡이 잘 익지 않고 '푹푹 분다.'고 한다. 즉 김이 푹푹 소리를 내면서 새어 나오기 때문에 떡이 잘 익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수를 바가지에 담아서 아궁이의 재를 집어 넣고 시루를 한 번 두른 다음 솔잎으로 물을 찍어서 주변에 뿌린다. 그러고 나서 청수를 바깥에 버리고 들어오면 부정을 푸는 것이다. 집안에 임신한 며느리가 있으면 혹시 부정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뱅이'를 해 둔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루떡을 찔 때 떡가루를 담은 접시를 올려놓고 그 위에 된장을 떠 놓으면 설익는 것을 방지하는 '뱅이'가 된다. '뱅이'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부정풀이 방법을 말한다.

시루떡을 찔 때 멥쌀과 찹쌀을 섞어서 시루에 반듯하게 놓는다. 그 위에 흰떡을 조금 해서 얹는다. 이를 '삼신할머니떡'이라고 하며, 삼신상에 차리기 위한 것이다. 안택할 때 아랫목에 짚을 '일(一)'자로 깔고 그 위에 삼신상이라고 하여 메, 미역국, 떡, 간장을 놓고 위한다. 삼신은 집안에서 애기가 있든 없든 안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하는 중요한 신령이기 때문에 안택을 행할 때는 또다시 위한다.

안택은 저녁에 시작된다. 조왕 앞에 제물을 차려 놓으면 경쟁이가 조왕 앞에서 북을 두드리며 경을 읽는다. 조왕에게는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다만 밥솥에 주걱을 꽂고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빙 돌려서 꽂아 둔다. 경쟁이는 우선 부정경(不淨經)을 읽어서 집안에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제거하고 나서 조왕경을 읽는다. 부정을 풀 때는 물그릇에 숯, 고추, 재를 띄워 놓고 부정경을 읽고 부정경을 다 읽으면 물그릇을 들고 마당 바깥에 쏟아내 버리고 돌아온다. 조왕 앞에서 먼저 의례를 행하는 것은 조왕이 모든 제물을 장만해 주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은 차리지 않고 부뚜막에 짚을 깔고 조왕을 대접한다. 조왕 앞에서는 조왕소지와 식구소지를 한데 올린다. 조왕을 위한 뒤에는 터주 앞으로 가서 터주경을 읽는다. 조왕에게 올린 제물을 그대로 들고 장독대로 가서 터주 앞에 차린다. 터주 앞에는 시루떡과 함께 메, 탕, 나물, 정수 한 그릇 등을 올린다. 터주에서도 경을 모두 읽고 나면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그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성주, 조상, 삼신 등 집안의 주요 신령들을 모두 축원한다. 안방에는 성주, 조상, 삼신상을 각각 차린다. 가운데 상은 조상상(祖上床), 왼쪽상은 삼신, 오른쪽은 성주상이 된다. 즉 방문으로부터 성주-조상-삼신 순으로 상을 차린다. 삼신상에는 앞에서처럼 짚을 깔아서 차리고 성주상과 조상상에는 차린 제물을 모두 진설한다. 특히 조상상에는 기제사를 지내듯이 4대 조상을 모두 모신다.

상을 차리면 경쟁이가 성주경부터 읽고 삼신, 조상 순으로 축원경을 읽는다. 축원이 모두 끝나면 자시(子時) 무렵에 경쟁이를 앉혀 놓고 대를 잡는다. 성주

안택 충남 연기군 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님도 조상님도 밤12시가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퇴송을 하는 것이다. 닭이 울 때가 되면 가시라고 퇴송을 한다. 경쟁이는 대에 성주신을 내리게 해서 집안 신수를 다 봐주고 나서 거리제, 홍수맥이(횡수막이) 등을 하라고 일러준다. 이에 따라 그해 운수가 안 좋은 식구가 있으면 내전을 하기 전에 거리제를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안택은 집안 신령을 축원하는 굿이므로 집안에 탈이 있다고 할 리가 없다. 따라서 대체로 대가름이 끝나면 내전을 치고 안택을 마치게 된다. 대잡이는 마을 주민 가운데에서 고르기도 하고 경쟁이가 데리고 오기도 한다. 이 마을에도 대를 잘 잡는 노인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안택과 고사의 특징과 가정신앙의례 영역**(이기태,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2006),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북**(문화재관리국, 1976), **중원문화권 제설의 검토**(김현길, 충북학 2, 충북발전연구원, 2000), **중원문화권 제설의 검토에 대하여 토론**(신영우, 충북학 2, 충북발전연구원, 2000), **충북 민속학의 성과**(임동철, 충북학 창간호, 충북발전연구원, 1999),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이창식, 충북학 2, 충북발전연구원, 2000), **충청북도 방언의 특징과 하위방언권**(박경래, 충북학 2, 충북발전연구원, 2000), **충북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권**(임덕순, 충북학 2, 충북발전연구원, 2000),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마을제당–충북**(국립민속박물관, 2000).

필자 **이기태**(李淇泰)

애기씨

정의 황해도지역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서 경기도 서해안지역 뱃사람들이 모시는 특징적인 신. 애기씨 서낭, 소당 애기씨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애기씨는 집안 조상 중 비운에 죽은 여자로, 애기씨의 신체(神體)는 싸리로 만든 고리짝에 담아서 모셔 놓는다. 매년 정초나 가을에 노구메를 올릴 때 함께 위한다. 경기도 서해안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지역 뱃사람들은 출어할 때 배 안에 '애기씨'를 모신다. 이때 작은 상자에 여자 옷감이나 실 등을 넣어둔다. 애기씨가 여자이기 때문이다. 황해도지역 피란민들은 덕적도에 정착해서도 그들이 고향에서 모신 신을 따로 모셨다.

지역사례 경기도 서해안지역에서는 애기씨의 신체로 싸리로 만든 고리짝을 사용한다. 이것을 시렁에 얹고 그 앞에 종이를 건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안에 실과 여자 옷 등을 갈아 넣는다. 귀신을 모신 바구니라고 하여 이를 '귀신동구리'라고 부른다. 고리짝 앞에는 흰 종이를 한 장씩 건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 살고 있는 황해도 출신 사람들은 집이나 그들의 배에 애기씨 서낭을 모셨다. 고리짝에 돈, 옷감을 넣어서 안방 위에 모셔두고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애기씨는 여신이기 때문에 색동저고리나 실을 담아서 모신다. 한편 도련님을 모시는 집들도 있다. 이 경우 작은 두루마기를 지어 신체로 모신다. 신체는 대체로 갓난아기가 입을 정도의 크기이다. 신체는 해마다 교체한다. 섣달그믐이 되면 그동안 모셔놓은 옷을 마당 깨끗한 장소에서 불태우고 다시 새것을 장만해 갈아 넣는다. 종이상자에 돈과 옷감을 넣어서 모시는 사람도 있다.

옹진군 연평도에서도 애기씨를 모신다. 이곳에서는 집안 조상 중 비운에 죽은 여자로 상정한다. 억울하게 죽은 남자 조상은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애기씨를 모시는 집은 많아도 도련님을 모시는 집은 흔하지 않다. 도련님은 주로 무당 집에서 모시고 여느 가정에서는 잘 모시지 않는다. 애기씨의 신체는 싸리로 만든 고리짝이다. 이 안에 실과 여자 옷을 넣어둔다. 이것을 시렁 위에 얹고 고리짝 앞에 흰 종이를 한 장씩 걸어둔다. 해마다 흰 종이를 걸기 때문에 여러 장이 겹쳐있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 흰 종이가 성주라고도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신체는 매년 가을에 새로 갈아 넣는다.

이 밖에 뱃사람들은 출어할 때 배 안에 '애기씨'를 모신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액막이

정의 액운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정초에 액을 막기 위해 하는 주술적 의례.

내용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아서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거나 점쟁이에게 문복을 하여 액운이 끼었다고 하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액막이를 한다. 일반적으로는 '액맥이' 또는 '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막이의 역행동화 현상이다.

액막이는 대개 정월대보름날 밤에 한다. 그러나 점쟁이가 특별한 날을 정해 주면 그날에 하기도 한다. 대개는 점쟁이나 무당을 불러서 간단한 비손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방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물(代物)을 사용하여 액운을 대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대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 속에 액운이 낀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어서 넣는다. 해당하는 사람의 속옷을 함께 넣거나 입히는 경우도 있다. 방 안에 간단한 제상을 마련하여 그 앞에서 점쟁이나 무당이 비손을 한다. 비손이 끝나면 마을의 삼거리에 나가 허수아비를 태우거나 땅에 묻고 돌아온다. 제주도지역에서는 허수아비 대신 장닭을 사용하기도

제웅만들기 경기도 양평군 상자포리,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액운이 든 사람의 저고리에서 동정을 뜯어내 마당에 놓고 달을 향해 절을 한 뒤 태우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나경수(羅景洙)**

야광귀(夜光鬼)

정의 정월 초하루나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날 밤에 인가에 내려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것을 신고 간다고 하는 귀신. '야광귀(夜光鬼)' 또는 '신발귀신'이라고도 한다. 이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것을 가져가면 신발의 주인은 일 년 동안 운수가 불길하다고 믿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발을 방 안에 숨기고 문 밖에는 체를 걸어두는 풍속이 있다. 이것을 '야광귀 쫓기'라고 한다.

역사 조선 후기 세시풍속을 기록한 각종 세시기(歲時記)에 야광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권2 세시(歲時)의 원일(元日)조에는 "야광이라는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은 밤에 인가에 들어와 신을 훔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 주인은 불길하다. 아이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신을 감춘 뒤 불을 끄고 일찍 잔다. 마루의 벽에 체를 걸어두면 야광귀가 와서 그 구멍을 세다가 다 못 세고, 결국 닭이 울면 도망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수삼(趙秀三)의 『세시기(歲時記)』에는 정월 원조(元朝)에 "해질 무렵에 모아둔 머리카락을 태우고 밤에 신발을 감춘다. 비록 해진 신발이나 짝 잃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이다. 머리카락을 태워 야유광(夜遊珖)을 피할 수 있다. 혹자는 머리카락을 태운 재가 쇠고기 독을 제거한다고 말한다. 신발을 감추는 것은 밤에 비가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듯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유광이라는 글자 옆에는 "모귀(耗鬼)의 이름으로 설날 인가에 들어가 신발을 훔친다. 신발을 잃으면 재악(灾惡)이 있다."라고 부기(附記)되어 있다.

면암(勉庵) 조운종(趙雲從)의 『세시기속(歲時記俗)』에는 "이날 밤에 신발을 문 밖에 두면 야귀왕(夜鬼王)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들의 신을 두루 신어보고 발의 크기가 맞으면 그 신을 신고 간다.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는 운수가 좋지 않게 된다고 하여 아이들은 분주히 방 안에 신발을 감춘다."면서 "가장 우스운 것은 황당무계한 속설에 속은 아이들이 방 안에 신발 감추는 풍습이다. 하늘에서 온다는 야귀왕은 누구인가."라고 전하고 있다.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는 정조(正朝)에 야광귀를 쫓기 위해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머리털을 태우고 그 재를 뿌리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도와 울루가 항상 꾸짖으며 막고 있으니 야괴가 어떻게 신발을 훔치러 올 수 있으랴."라고 적고 있다. "속설에 정초에 야괴가 신발을 훔쳐가면 불길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야괴(夜怪)를 야묘(夜猫)라고도 한다. 혹은 이날 밤에 비가 내린 것이 와전되었다."라는 설명도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원일(元日)에 "속설에 이름이 야광이라고 하는 귀신이 이날 밤 인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두루 신어 보다가 딱 들어맞는 것을 신고 가면 그 신발의 주인은 불길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아이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여 신발을 감춘 뒤 불을 끄고 잔다. 그리고 체를 마루의 벽이나 뜰에다 걸어둔다. 야광귀는 체의 구멍을 세느라고 아이들의 신을 훔칠 생각을 잊고 있다가 닭이 울면 도망간다. 야광이 어떤 귀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약왕(藥王)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약왕의 모습이 너무 추하여 아이들을 두렵게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는 "정월 원일 밤에 아이들이 신을 감춘다. 이는 야광신이 밤에 인가를 다니다가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신고 가면 그 아이는 좋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숫자 세기를 좋아하는 야광신은 체를 보면 그물눈을 세다가 헷갈려서 멈추지를 못한다고 한다. 집집마다 체를 시렁이나 기둥에 걸어두는 것은 야광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 야광신이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야광신 이름을 척발(瘠魃)로 부기하고 있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는 "옛 풍속에 야광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면 반드시 구설수가 있다고 한다. 이에 미혹된 부녀자들은 크고 작은 신들을 모두 깊숙한 곳에 감춘다. 설날 밤에 내려온다고도 하고, 정월대보름날 밤에 내려온다고도 하니, 이를 앙광이라고 한다."면서 야광신과 관련된 풍속을 시로 읊고 있다.

내용 야광귀는 정초 캄캄한 밤에 인가로 와 사람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귀신이다. 이 귀신이 신발을 가져가면 신발의 주인은 일 년 동안 운수가 불길하다고 믿는다. 이때 운수가 불길하다는 것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에 신발을 방 안에 감춰 두거나 엎어 놓기도 하며, 체를 마루 벽이나 대문 등에 걸어두기도 한다. 체를 걸어두는 이유는 체의 구멍 세는 것을 좋아하는 야광귀가 체 구멍을 세다가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또 세다가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광귀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름을 보면 밤에 환하게 빛이 나는 귀신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이 귀신이 실재한다고 믿는 가운데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감추거나 집 안에 체를 걸어두기에 야광귀 신앙은 '신발 감추기' 또는 '체 걸기'로 상징될 수 있다. 야광귀 신앙의 실체를 알고자 한다면 신발 감추기와 체 걸기 등이 나타나는 민속 현상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실상을 고찰해야 한다.

야광귀나 야광귀와 관련된 신앙은 『경도잡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후기의 각종 세시기에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이 귀신을 야광귀(경도잡지 · 동국세시기), 야유광(夜遊狂, 조수삼의 세시기), 야귀왕(세시기속), 야괴(夜怪) · 야묘(夜猫)(세시풍요), 귀물(농제속담), 야광신(한양세시기 · 해동죽지), 앙광이(해동죽지)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자료에서는 야광귀라는 명칭보다 신발귀신(경기), 야귀할멈(경기북부), 달귀구신(충북), 마고할미(충북), 톳재비(경남 거창), 고마이(경남 고성 · 사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야광신은 문헌에는 주로 정월 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정초는 극히 드물고 정월 열나흗날, 보름, 열엿샛날 등 밤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월 열나흗날로 나타나는 곳은 경기도, 충청도 등이다. 강원도와 경북은 거의 열엿샛날로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월 열엿샛날을 '귀신날'로 생각하는 곳이 많다. 현재 야광신 신앙도 이처럼 귀신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곳이 많은 편이다. 귀신날은 귀신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날이므로,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날은 '귀신달굼불(귀신불)'이라 하여 일 년 동안 모아둔 머리카락, 고춧대, 목화씨, 노간주나무 등을 함께 넣고 태운다. 나쁜 냄새로 귀신을 쫓기 위함이다. 복숭아나무, 두릅나무, 엄나무 등의 가지를 대문에 걸어 놓기도 한다. 귀신을 쫓기 위해 칼질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귀신의 머리를 깬다고 하여 방아를 찧거나 널뛰기를 하는 곳도 있다. 귀신날 밤이면 집집마다 야광귀가 신발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부엌이나 방 안에 감추고, 마루 · 벽 · 대문 등에 체를 걸어 놓기도 한다. 신발 감추기와 체 걸기 두 가지를 다 하는 곳도 있지만, 신발만 감추거나 체 걸기만 하는 곳도 많다.

야광귀의 유래에 대해서는 유득공이 관심을 기울여서 설명했다. 그는 『경도잡지』에서 "구귀(癯鬼)는 음식을 먹지 못해 바짝 여윈 귀신을 뜻한다. 어떤 이는 '야광이 구귀를 뜻한다고 하며, 그러기에 구광(癯光)이라 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한자 '야(夜)'의 음과 '야윌 구(癯)'라는 글자의 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것이고, '약왕(藥王)'이라는 음이 와전되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왕의 형상이 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이런 이유에서 어린아이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는 것이다. 약왕은 약왕보살의 준말로,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스물다섯 보살 가운데 하나이다. 좋은 약을 값없이 남에게 주어 중생들의 심신의 병고를 덜어주고 고쳐주는 보살이다. 야광귀 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인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비교연구를 해야 그 유래나 기원을 밝힐 수 있다.

야광귀가 잡아갈 사람을 고를 때 특별히 신발을 신어본다는 것에는 신발이 곧 한 개인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이 쓴 〈신선전(神仙傳)〉에는 신선이 죽은 것을 나타낼 때 "신발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신발을 감추는 것에 대해 조선시대 후기의 어떤 세시기는 정초에 신발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비에 젖을까 봐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야광귀 신앙의 핵심은 '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귀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왜 체를 사용하고, 이 귀신은 왜 체의 눈을 센다고 했느냐가 의문의 핵심이다. 이는 눈[目]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눈에는 물건을 알아 살피는 힘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민간에는 눈을 많이 가진 것이 귀신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물러가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장례식의 행렬 앞에 네 눈을 가진 방상시[方相氏] 가면을 세우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이 신앙에서 귀신이 체의 구멍을 센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체의 구멍을 눈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체의 구멍은 많은 눈이 모인 것이고, 체는 야광귀보다 더 무섭고 능력이 있는 존재인 셈이다. 그러기에 야광귀는 체를 두려워하여 그것의 눈을 세고 또 세며 시간을 보내다 날이 새면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체의 구멍이 아주 작아 세기 어렵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문헌에서는 야광귀 신앙이 어린아이들과 관련하여 언급되기도 한다. 야광귀는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좋아한다거나 아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서 신발을 감추고 일찍 잔다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채록된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야광귀 신앙은 문헌만을 보면 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현행 조사자료를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는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함경도, 강원도, 경북지역에서는 16일인 귀신날과 결부되어 있다. 이에 비해 충남, 전라도지역은 전승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야광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지 정월에 야광귀를 쫓기 위해 신발을 숨기거나 체를 거는 집이 별로 없다.

지역사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와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야광귀 신앙의 지역별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월 열나흗날 밤에 신발귀신이나 야귀할멈 · 달귀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신발을 방 안에 숨기고 체를 걸어둔다. 성남, 군포, 김포, 구리, 남양주, 광주 등의 지역은 16일인 귀신날과 관련이 있다. 구리시 갈매동에서는 16일인 귀신날 모두가 하루를 쉰다. 여자들이 일하면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귀신 대가리 깬다고 널뛰기를 하기도 한다. 이날 밤에는 신발을 방에 숨긴다.

강원도에서는 대부분 정월 열엿샛날인 귀신날이 야광귀 신앙과 겹쳐있다. 16일을 '귀신날'(화천군), '귀신 달구는 날'(인제군), '귀신 달기는 날', '귀신 달래는 날'(횡성군 강림2리), '귀신당날'(영월군, 태백시, 인제군), '귀신당기날'(태백시, 평창군), '귀신닭날'(원주시, 정선군), '달귀귀신날'(횡성군, 홍천군), '닭이귀신날'(원주시)이라고 한다. 이것은 '닭이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이날 머리카락이나 고추씨 등을 태운다. 이를 '귀신달굼불'(영월군)이나 '귀신불'(속초시), 이렇게 하는 것을 '귀신 달군다(내쫓는다)'고 한다. 이날 밤 신발을 방에 들여놓거나 엎어 놓기도 하고, 대문에 체를 걸어 놓기도 한다. 홍천군에서는 신발 대신 옷을 감추기도 하며, 태백시에서는 체 대신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한 주먹만큼 거꾸로 꽂아두기도 한다.

귀신당기날에는 빨래를 하지 않고, 귀신이 따라 온다 하여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지 않으며(태백시), 머리를 빗으면 새삼(덩굴식물)이 생겨 농작물을 망치기에 머리를 빗지 않고(정선군), '귀신 목 자른다', '귀신 골통 판다'며 칼질을 많이 하고 나무도 하며, '귀신 머리 깬다'라고 널뛰기도 한다(춘천시). 또 '귀신 대가리 깬다'라고 방아도 찧고, '귀신 목 자른다'라고 칼질을 하고 나무를 벤다(화천군). 해안가 마을에서는 귀신에 홀린다고 출어하지 않는 곳이 많다(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충북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야광귀가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 그런 곳에서는 이날 신발을 들여놓고 체를 건다.

야광귀는 '양광이'(영동읍), '달귀귀신'(청주시), '달기할미'(충주시), '마고할미'(영동군 매곡면), '신발귀신'(진천군), '깨깨할미'(옥천군) 등으로 불린다. 영동군 매곡면 수동리에서는 이날을 마고할미가 저승에서 내려와 어린이를 잡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여 신발을 들여놓고 얼기미를 문 입구에 걸어놓는다. 이를 '마고할미쫓기'라고 한다. 옥천군에서는 섣달그믐날에 깨깨할미가 아이들의 신발을 훔치러 온다고 여긴다.

충남에서는 천안 · 아산 · 부여 · 홍성 등지에서 야광귀 신앙이 나타나고, 기타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주로 14일이나 15일과 관련 있고, 특정한 귀신 이름은 없다. 또 주로 신발 감추기만 한다.

전북 역시 야광귀 신앙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원심곡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방문 입구에다 체를 매달아 둔다. 이렇게 하면 도깨비가 그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돌아가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남에서도 영암, 강진 등과 같은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광귀 신앙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영암군에서는 정초에 신발을 숨기고, 강진읍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방 안에 신을 들여놓고 잔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에서는 이것이 정월 16일인 귀신날(귀신단오날)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야광귀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지만 귀신을 막기 위해 이날 신발을 감추거나 체를 걸어두는 곳이 많다.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에서는 이날 종이에 '귀신달갈날'이라고 써서 대문에 붙여 놓고 개똥으로 불을 피운 뒤 대문에 체를 걸어둔다. 신발은 엎어 놓는다. 또 귀신이 솔잎을 헤아리는 사이에 날이 새라고 방문에 솔잎을 꽂아 두기도 한다. 울진군의 경우 정월 열엿샛날은 '구신단날'이나 '구신날'이라고 하며, 이날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날이어서 나들이를 하면 귀신한테 맞아 죽는다는 말이 전해 온다. 이 때문에 이날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바다에도 나가지 않는다. 또 신발은 감추고, 문 밖에는 체를 걸어둔다. 울릉도에는 귀신날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예전에 '손님', 즉 마마가 번지면 아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문 앞에 체를 걸어두어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경남에서는 야광귀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정월 그믐날 밤 신발귀신인 톳재비가 오기 때문에 신발을 방 안에 들여놓는다고 한다. 밀양지역에서는 설날 밤에 야광귀가 내려오기 때문에 체를 걸어두는 곳이 많다. 고성지역에서는 16일을 '암고마이날', 17일을 '숫고마이날'이라고 하면서 16일에 신발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6), **조선대세시기 1·2**(국립민속박물관, 2003~2005), **朝鮮の鬼神**(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8),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이수자(李秀子)

양밥

정의 전통적인 민간처방으로 액막이 방법의 하나. 예방·방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며 방술이나 술법이라고도 한다.

내용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예기치 못한 액운이 닥쳐오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생활상의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민간신앙은 현실의 액운을 당장 풀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적 수련 없이 일정한 절차에 의한 제의를 행하면 무언가 초월적인 힘에 의해 구제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밥은 개인의 액과 화를 막기 위해 간단하게 행하는 주술행위이므로 전문사제자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집안의 주부가 직접 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음력 정초가 되면 일 년간의 액과 화를 막기 위해 무당이나 점쟁이, 또는 법사를 불러서 방액을 위한 액막이굿을 하였다. 그러나 정월에 신수를 보아 수가 좋지 않으면 부적을 써 주거나 가벼운 경우 양밥을 일러준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발생한 잔병을 주술적으로 치유하는 '객귀물리기'나 '잔밥먹이기'와 동일한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칠월칠석날 저녁에 어머니들이 색실을 꿰어 자식의 오지랖에 꽂아 두는 것을 '양밥한다'라고도 하며 이렇게 하면 자식의 과거운(科擧運)이 트인다고 믿었다. 바늘에 실꿰기 풍속과 마찬가지로 '색실 달기', '골무물에 띄워 보내기' 풍속도 모두 자손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풍속이며 특히 경남지역에서 다수 발견된다. 전남, 경북지역에서도 이러한 풍속이 행해졌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신수를 보고 액이 가벼운 경우에는 '양밥'을 일러준다. 만일 몇 월에 차사고가 있을 수가 있으면 소금과 팥, 고춧가루를 섞어서 봉지 안에 넣고 자리 밑에 놓으라고 일러주거나 몸에 지니게 한다. 혹은 몇 월에 초상집 등 어디를 가지 말라고 일렀는데 갔다 와서 좋지 않으면 객구를 쳐주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에서는 가족 중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면 무당을 통해 점을 본다. 귀신이 붙어 아픈 것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무당이 이를 풀어주거나 주부가 귀신을 쫓는데 이를 '양밥'이라고 한다. 주로 집안 여성들이 양밥을 하는데 바가지에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넣은 다음 부엌칼로 아픈 사람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훑은 후 머리카락을 조금씩 뜯어 넣는다.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잡아내는 시늉을 한 후 마지막으로 마당에 칼을 던진다. 이때 칼날 끝이 대문 쪽을 향하면 액이 나간 것이고 집 안을 향하면 액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에서는 '홍역양밥'이라고 하여 아이가 홍역에 걸리면 마을에 홍역을 하다 죽은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콩나물 시루에 아기 옷을 넣어 엎어둔다. 이는 홍역으로 죽은 귀신을 가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고 믿었다.

예천군 유천면 광전리에서는 밭제를 할 때 가져간 음식은 반드시 밭에서 다 먹어야 좋다고 한다. 이때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밭에 뿌린다. 시루를 찌지 않을 경우는 찹쌀부꾸미를 굽거나 감자로 적을 한다. 이는 기름 냄새를 풍겨 벌레가 끓지 말라는 뜻이 있고 쥐가 벼를 쏠지 않게 하기 위해 양밥으로 하는 것이다.

충북 괴산에서는 귀신불을 놓기 전에 대문 밖에 황토를 여섯 군데 뿌려 미리 귀신의 접근을 예방하고, 경북 영덕에서는 귀신 쫓는 불이라 해서 달봉나무 수염에 불을 붙여서 윙윙 돌렸는데 이를 '양밥한다'라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백민영(白旻永)

양씨아미

정의 제주도지역에 전승되는 조상신 가운데 하나. 아미는 제주도의 여신을 지칭하는 일련의 어미이다.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가 그 용례 가운데 하나이다. 양씨아미는 이러한 전통 속에서 우러난 여신으로, 신가물[神病]로 말미암아 원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신이다. 양씨아미는 신에 대한 응감력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이를 용납하지 않은 쪽과 용납한 쪽의 사정이 다르게 되어 후대의 자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것이 이 본풀이의 여성신이 지니는 위력이다. 〈양씨아미본풀이〉는 억울하게 죽거나 온전한 신으로 대접받지 못한 신들의 내력 등이 핵심적인 주제이고, 시원적(始原的)인 빙의현상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외롭게 생각하는 현상이 반영된 여주인공에 관한 내력을 기술하고 있다.

역사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양씨아미본풀이〉는 남원읍 예촌 양씨 댁으로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입무담(入巫談) 성격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양씨아미본풀이〉는 모두 3편이 채록되었다. 안사인 심방본은 남원읍 예촌 양씨 댁의 조상신본풀이, 이중춘심방본과 양창보심방본은 조천읍 와산리 양씨 댁의 조상신본풀이이다. 신가물이 있는 여성의 내력담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신가물이 있는 여성이 온전하게 심방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이중춘, 양창보)에는 큰오라방의 반대가 문제로 작용한다.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에서는 오라방이 누이를 돕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씨아미본풀이〉에 나타난 오누이의 죽음과 유사한 내용이 성산면 신천리의 〈현씨일월당본풀이〉에 보인다.

양씨아미는 집안의 내력이어서 소규모의 전승적인 절차를 밟은 구전의 역사물이다. 그러나 특정한 사제자들에 의해 조상의 내력이 밝혀지고, 이 전통에 입각한 심방들의 집단 전승이 구현되기 때문에 내적 전승과 외적 전승에 의해 구현되는 면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씨아미는 소중한 기억의 전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다른 조상신본풀이와 달리 〈양씨아미본풀이〉는 동기간(同氣間)의 갈등이 취약해서 전승이 다른 곳에 잘 공개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조상신본풀이로서는 가장 비의성(祕儀性)이 높은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형태 양씨아미본풀이는 유형이 둘이다. 우선 신가물이 내려서 고통을 받는 여동생의 면모를 확인하고 이를 도우려는 오라버니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본풀이 유형이 있다. 나중에 수중고혼이 되어 이 오라버니의 미래를 예견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이다.

다음은 둘째 오라버니와 셋째 오라버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며, 큰 오라버니가 개고기를 삶아서 먹으라고 하고 이를 여동생이 먹지 않자 개를 삶아 건진 국물을 뒤집어씌워서 여동생을 죽이는 유형이다.

이 본풀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유형으로 보기 어렵고 변이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 〈양씨아미본풀이〉에서 이러한 유형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전승 과정에서 생긴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신가물이 있는 동생과 이를 바라보는 오라버니의 관점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양씨아미본풀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본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고을 예촌 양좌수 집에 부모형제 동기간이 없이 사는 양씨열이와 양씨아미가 있었다. 누이동생인

양씨아미는 일곱 살 때부터 신병이 들어 열다섯 살이 되도록 몸이 말라갔다. 양씨아미가 열다섯 되던 해, 하루는 예촌마을 어느 집에서 원성기제맞이 큰굿을 하는데 시왕맞이 차례가 되니 양씨아미가 오라비에게 자신을 업고 굿 구경 가길 청하였다. 오라비가 동생의 소원대로 등에 업고 굿하는 집안 마당 신자리 위에 앉혀 놓으니 양씨아미가 공신상(恭神床)의 떡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양씨열이가 심방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심방이 양씨아미를 보고 사주를 그르쳐 심방이 될 아이라고 말하며 떡을 주었다. 양씨아미가 떡을 두어 입 먹더니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심방이 소무(小巫)에게 북과 장고를 잡아 아기씨 신가슴이나 열어 주자며 노래를 부르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양씨아미가 춤을 추며 놀았다. 한참 춤을 추고 나서 양씨아미가 오라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심방이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양씨아미가 하늘과 땅 일을 다 알게 되어 아는 소리를 하게 되었다.

이때 정의골 예촌 양씨 댁이 천하거부로 사는데, 외아들이 사경에 이르게 되자 양씨아미에게 문복을 왔다. 양씨아미가 원성기제맞이굿을 하라 이르고, 굿을 하려는데 굿을 할 무악기나 의복이 없어 탄식을 하였다. 양씨열이가 심방 선생들에게 묵은 악기와 의복을 빌려다가 굿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육지에서 무구를 모두 준비해 오겠다고 당부하였다.

양씨아미가 오라비의 말대로 첫길을 인도해 주던 심방의 악기를 빌려 굿을 하여 시왕맞이에 당하였다. 양씨아미가 첫 번 산판점을 쳐 보니 양씨열이 오라비가 수중고혼이 된 듯하였다. 양씨아미가 얼른 복색을 차려 입고 무악기를 세 번 울리고, 예촌 열룬이의 혼연개 낭떠러지로 올라서더니 동생 하나 살리려다가 오라비가 수중고혼이 되었는데 자신이 살아 무엇 하겠냐며 그 역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중고혼이 되었다.

양씨아미는 사신용왕국에 좋은 몸을 바치고, 전생 궂던 몸을 예촌 땅 사해용왕 용신을 위해 수중길로 들어가서 예촌 땅 혼연개 아래 사는 예촌 양씨 댁을 마혼여덟 상단골을 맺어 인정 사정을 받는다. 일 년에 한 번 정월에 신과세로 양씨열이 신당에서 축원을 받고, 유월에는 양씨아미가 가는 배 오는 배를 차지하여 불쌍한 오라비를 축원하며 상을 받아 올린다. 불쌍한 오라비 양씨열이가 동생이 축원드리는 상을 받으려 하면 용왕 몸기를 세우는데, 양씨열이가 좌정하던 양씨 일월을 본향으로 위하는 조상이다. 양씨아미는 한 몸은 용왕국에 바치고 한 몸은 양씨열이를 뒤이어 용궁의 수중고혼이 되어서 무악기 소리로 일천간장을 풀리고, 삼명일 기일제사 때는 상단골에게 상을 받는 조상이 된다.

특징 〈양씨아미본풀이〉는 무당이 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반추하는 본풀이이다.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 특정한 굿이나 의례적 절차를 체험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계기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조상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이 본풀이의 특징이 발견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굿하는 것을 보다가 신가물 체험을 하게 된다. 제주도의 몇몇 본풀이에서는 신가물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심방 노릇을 하는 이야기가 흔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상신앙과 무속신앙이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무당 노릇을 하는 인물과 조상으로 섬겨지는 인물의 경계면이 아주 모호하고 서로 겹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무속집단 이외에 주변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본풀이에 작동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본풀이는 불행한 신앙의 역사와 집안의 조상이 서로 어울리는 면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된다.

지역사례 제주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조상신본풀이의 유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상신본풀이의 '조상'은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서 '태운조상'을 뜻한다. 혈족에 의해 전승되지만 집안의 창시자인 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상신본풀이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조상신화와 차이가 있다. 한 집안의 성씨시조신화에서 인물은 어떻게 성씨나 가문의 시조가 되었는지를 밝혀 집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 조상신본풀이에서 인물은 한 집안에서 섬기는 특정한 조상과 관련되는 넋이거나 신이다. 조상이기는 해도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되거나 원한을 품고 죽은 인물의 혼신과 관련된다.

이처럼 조상 가운데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가문의 조상 역사에 해당한다. 구비로 전해지는 가문의 조상 역사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집안에서 섬기는 조상신의 내력을 밝히는 것이어서 신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조상이 집안에 모셔지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제일(祭日)을 차지하고, 나아가 심방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노래로 불려지기 때문에 구비율문의 서사시이기도 하다.

조상신본풀이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 어떻게 조상신으로 위함을 받는지 그 경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한다.

(가) 남녀 이합 · 애정담 유형 : 광청아기, 구슬할망
(나) 강신 · 원사 유형 : 양씨아미
(다) 부군칠성 유형 : 나주기민창, 안판관 · 고대정
(라) 영감(도채비) 유형

(가) 유형은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흥미로운 서사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진상을 간 인물이 육지부 처녀를 만나 사연을 이루고, 그 여성이 제주도로 들어오거나 죽어서 제주도의 집안에서 모셔지는 것이 결말이다. 육지부에서 들어온 여성이 제주도 집안에 재산을 일구게 하거나 '신가물'을 일으키고, 집안에서는 신의 풍파를 잠재워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간적으로 제주도와 육지부가 배로 연결되고 제주도에서 벗어나 육지부의 처녀와 사연을 이루는 애정담이 매우 큰 의미이다. 남녀 이합에 의해 애정담을 이루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내용이다. 남성에 의해 버림받은 원혼이 남성의 집안에 신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광청아기〉이고, 제주도 남성을 따라 제주도로 와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구슬할망〉이다. 남녀가 만나고 이에 따라 후손에게 받들어지는 점이 내용의 귀착점이다.

(나) 유형은 신가물을 일으킨 조상이 억울하게 죽어서 집안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강신 체험을 하게 된 주인공이 이 현상에 반대한 집안 사람에 의해 죽게 된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그 결과 심방을 불러 굿을 하자 마침내 집안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유형의 내용이다.

〈양씨아미본풀이〉가 이 유형의 적절한 사례이다. 오라버니가 신가물이 있는 여동생을 굶기고 개장국을 끓여서 덮어씌워 죽게 한 것이 곧 〈양씨아미본풀이〉이다. 이로 인해 집안이 어지럽게 되어 그 결과 굿을 해서 누이동생의 원혼을 달래고, 그에 따라 조상으로 섬기게 했다는 것이 결말이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조상으로 섬겨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는 부군칠성 유형이다. 특정한 인물이 구렁이 또는 뱀을 발견하여 '태운조상'으로 모시자 집안이 크게 번창하고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안의 번창이 구렁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조상신의 색다른 변모이다. 이는 육지부에서 업을 모시는 것과 의미가 같다. 업 신앙 역시 집안에서 대물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다)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는 〈나주기민창 조상본풀이〉와 〈안판관 · 고대정본풀이〉에서 나타난다. 〈나주기민창 조상본풀이〉에서는 제주도의 인물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나주 기민창에 갔다가 무곡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여성을 만난다. 이 여성은 홀연히 사라지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배에 구멍이 나서 모두 빠져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뱀이 똬리를 틀어 구멍을 막아서 살 수 있었다. 이 뱀이 곧 나주 기민창을 지키던 뱀이다. 안씨 선주가 이 뱀을 부군칠성으로 모시고 기일을 지켜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다. 선주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각 집안에서 모두 모셨지만 안씨 선주가 상단골이어서 집안의 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 뱀이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뱀이 되어 조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변형이다. 이것은 구렁이업과 인업의 복합 형태로 추정되지만 칠성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안판관 · 고대정본풀이〉는 〈나주기민창 조상본풀이〉보다 더욱 특별한 변형을 보여준다. 안동에서 들어온 안씨 삼형제가 한라산 구경을 하고서는 이데기 마루에 왔다가 정학지와 갈릴 일을 논의하고, 저늘(선흘리)에 머물다가 귀 달린 뱀을 만나 각기 태운조상으로 삼으려다가 막내 동생에게 들어서 저늘 배남마루에 정착한다. 그러자 안씨는 큰 부자가 되고 판관 벼슬을 한다. 안판관은 고씨 심방을 불러 굿을 하면서 하필이면 제주판관이냐고 벼슬 낮은 것을 불평한다. 그러자 화가 난 조상은 고씨 심방의 '안채포'라는 자루로 옮겨간다. 이 과정에서 고씨 심방은 스님을 만나 음식 대접을 한다. 그 스님은 부모님 묘소를 용연으로 이장하라고 일러 준다. 고씨 심방은 그다음에 벼락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벼슬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

이 유형의 핵심적 요소는 집안 조상으로 부군칠성

과 같은 뱀이나 구렁이가 등장하고, 이 존재를 알아차린 윗대 조상이 잘 모셔서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상으로 태운 것이라고 해도 불만을 제기하면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판관 · 고대정본풀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부잣집에서 업구렁이가 나가면 삽시에 망한다는 생각과 상통하는 면모이다.

(라) 유형은 서울에서 태어난 일곱 아들 가운데 막내아들 영감참봉이 제주도에 와서 성널오름에 물 맞으러 간 여인이나 장녀에게 해코지를 한다. 이 영감참봉은 주로 술과 음식을 즐긴다. 특히 여인네에게 마음씨 좋다 하여 함께 살자고 하는 영감참봉 조상이라고 일컫는다. 영감참봉에게는 수수떡이나 범벅, 네 발 짐승의 열두 뼈, 횟간, 더운 피 등을 좋아해 이것들을 바친다. '살강깃소리'를 좋아해서 소리를 하여 애간장을 녹이기도 한다. 섬기면 부자가 되도록 어패류를 몰아다 주고, 잘못 모시면 달라붙어서 병을 주고 해코지를 하는 조상이다.

제주도 조상본풀이는 육지부와 제주도의 공간적 설정을 통해 오고 가는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생물 사이의 신가물이나 조상가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제주도에서만 생기는 사연도 있지만 공간적 이동에 따른 사연이 훨씬 우세하며, 사람과 칠성이 조상신으로 받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의의 제주도 조상본풀이는 제주도의 특정한 신앙적 근거를 통해 조상으로 섬겨지는 존재의 본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본풀이는 신내림이 이루어진 존재에 대한 제주도의 각별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병 또는 신병을 통해 신내림을 경험하고, 계면돌기를 통해 단골의 자본을 마련하며, 신굿을 통해 내림굿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신굿을 하는 절차는 신굿이라는 의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육지의 신굿과 제주도의 신굿은 절차와 구현 양상이 다르다.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는 심방이 나서서 일련의 사단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본풀이도 심방이 되는 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굿을 통해 보이는 가족 간의 죽음 현상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오라버니의 사망은 무당 노릇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투사함으로써 이 본풀이는 신굿의 앞 단계에 발생하는 가족 관계의 갈등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차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불가피한 관계를 다각도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본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보고사, 2006).

필자 **김헌선(金憲宣)**

어부심

상호참조 용왕(522쪽)

정의 정월 열나흗날 밤이나 대보름 새벽 또는 밤에 강이나 바다에서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인 여성이 물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집안이 잘 되는 것 등을 용왕에게 비는 의례.

역사 1819년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상원조에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魚鳧施]이라고 한다."라는 매우 간단한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어부슴이라는 글자의 뜻은 물고기나 오리[鳧]에게 베푼다는 것이다. 이는 대보름날에 그해의 액막이를 위해 조밥을 강물에 던져서 고기가 먹게 하는 일이다. 물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어부심은 1970~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보름 전날 밤에 한강변에서 성행했다. 특히 제1 한강교 남쪽이 성대했다. 열나흗날 저녁에 한강을 지나는 사람들은 해마다 어두운 강물에 비치어서 아롱지는 무수한 불빛이 빚어내는 기이하고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재에도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 새벽에 어부심을 하는 이들을 간혹 목격할 수 있다.

내용 어부심은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에 주부가 냇물, 강, 바다, 집안의 우물 등에 밥, 과일, 떡, 나물, 술, 시루떡, 미역국, 생쌀, 조 등 제물을 마련하여 용왕에게 절을 올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가정의 안녕을 빈다.

어부심은 어부슴, 어부시(魚鳧施), 어부식(魚付食), 용궁맞이, 용왕제, 용왕먹이기, 용왕산제, 물산제, 액막이 등으로 불린다. 앞의 셋은 물고기와 관련되어 물고기에게 베풀어 먹인다는 뜻이고 나머지 뒤의 명칭은 모두 용궁이나 용왕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물이나 내, 하천, 강, 바다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용궁이나 용왕과 관련시켜 생각한 관념이 어부심에도 적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용어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사는 곳과 용궁, 용왕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어부심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에 존재하고, 강이나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냇물이나 집안의 우물에서도 행해진 용왕신앙이다. 어부심은 물을 관장하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반영된 신앙이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용왕의 노여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용왕을 달래고 위해 준다. 용왕은 신격으로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정 단위에서 나타난 것이 어부심이다. '어부심'은 용왕에 대한 신앙이 마을 차원에서 아니라 가정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어부심의 주체는 집안의 여자에게서 여자로 전승된다. 기원의 내용은 가족들이 잘 되게 해 달라는 것, 탈 없게 해달라는 것, 병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것, 자식들 무사하게 해 달라는 것 등이다. 더욱 일차적인 기원 내용은 바로 앞이 물가이니 물가에서 아이들이 별탈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강은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흔히 말한다. 강 마을 아이들은 강을 제 집 마당처럼 생각하고 놀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일 년 내내 무사하게 놀게 해 달라고 빈다.

주로 정월 열나흗날 밤이나 대보름날 새벽 어부심을 한다. 이는 부정이 타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때에 정성스럽게 하려는 것이다. 어부심에 쓰는 바가지를 만들 때 화장실 지붕에 올린 박은 쓰지 않고 행랑지붕처럼 깨끗한 곳에 올린 박을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박은 따로 보관해 놓을 정도로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또한 새 밥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경북지역에서는 '어부심' 또는 '어부슴'이라 하여 안주인이 밥을 해서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을 뜬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종이에 집안 식구들의 생년월일시 등을 써 넣고 보에 싸서 냇가에 흘려보낸다. 정월 열나흗날 남자들이 산신제를 지내러 간 사이에 행한다.

『열양세시기』의 상원조에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魚鳧施]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어부슴이라고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정초에 신수를 보아 액운이 있거나 삼재가 들었으면 대보름날 밤에 나이대로 오곡밥을 한지에 싸서 겉에다 액운이 있는 이의 성명을 쓴 뒤 바다에 나가 던지면서 액을 던진다고 주문을 외우며 액막이를 한다. 마을에 무녀가 한 명 있어서 대신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열양세시기』에서의 기록과 강원도지역 사례에서는 똑같이 '어부슴'이다. 또한 정월대보름날 밤에 밥을 종이에 싸서 강이나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공통된다. 특히 『열양세시기』에서는 용궁맞이와 어부슴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열양세시기』의 기록이 1819년 김매순의 기록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819년 이전부터 어부심이라는 민속이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1984년쯤에도 한강 변에서 어부심이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군지역에서는 백지에 성명과 생년월일시를 쓰고 백반을 싸서 수중에 던져 물고기에 주면서 도액(禱厄)하였다. 이를 어부식이라고 한다.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에서는 대보름날 밤에 어부식을 한다. 바닷가에 나가 밥 세 접시를 놓고 달에게 가정의 무사안녕을 빈다.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밥을 물에 띄워 보낸다.

이 경우는 강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 이루어진 어부심이다. 이는 정선군지역의 어부식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가가 아니라 해안이라는 점이 다르다. 어부심이나 어부식이라는 용어는 강가나 해안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 한강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낮부터 밤에 걸쳐서 한강변의 용궁당(龍宮堂) 및 강 위에서 용궁맞이를 행한다. 당일 강 위에는 수많은 작은 배가 뜨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와 할머니 등이 배를 타고 용신에게 바치는 공양물을 강 속에 던지며 소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용궁당은 가족 단위로 온 기원자들로 가득 차고, 무녀는 소지축원(燒紙祝願)으로 매우 바쁘며, 기원자는 모두 자손의 장수연명을 기도하기 위해 이른바 명다리[命橋]·명실[命絲]로 칭하는 흰 목면 또는 흰 실을 바친다. 자손을 용신의 아들로 삼고, 그 신당 안에 이들의 명다리·명실을 쌓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성수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 무렵 아이들이 물가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에게 올리는 글을 쓴 한지에 백반을 아이들의 나이 수대로 수저로 떠 놓고 그것을 싸서 개울에 던진다. 지금도 어부슴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용왕제를 지낸다고 깨끗한 톳에 밥과 무를 동그랗게 올려놓고 목화로 심지를 삼아 불을 밝혀 우물 안의 샘에 띄운다. 아침에 봐서 버섯 벙거지처럼 생기면 좋다고 하며, 이렇게 하여 일 년 재앙을 소제해 주길 빈다.

경남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목욕재계하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개울가에 가서 제수를 차리고 비는 것을 '용왕 먹인다', '용왕산제', '용왕제', '물산제'라고 한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면 밥, 나물 등을 해 몇 접시 떠 놨다가 동전과 함께 봉지에 싸서 물에 가 던지면서 '액막이 한다.'라고 하며 '좋게 해 달라.'고 빈다.

충남 보령지역에서는 집마다 대부분 우물이 있어서 각각 이를 위하는 유왕제를 지낸다. 제물은 메, 나물, 청수, 술, 고사떡(팥떡)이다. 주부를 비롯한 며느리들은 이날 목욕재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물을 진설하고 주부가 절을 올린다. 그리고 우물 앞에서 비손을 하며 집안에 물이 잘나고 평안하기를 빈다.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우물이 없는 집에서는 공동우물에 가서 제를 지낸다.

의의 용왕신앙은 우리나라의 여러 신앙 가운데 오랜 기원을 보인다. 용궁, 용왕, 물에 대한 신앙의 기록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된다. 용왕신앙은 물의 풍요와 기우(祈雨)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제액초복(除厄招福) 신앙도 함께 작용했다. 용왕에 대한 기원은 단순히 물의 풍요와 정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을 위하는 사람들의 액운 제거와 풍운 순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데까지 이어졌다.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어부심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용왕을 달램으로써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차적인 기능이 '날마다 물에 나가 노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용왕에 대한 인식이 투사된 것이 온 집안이 아무 탈 없이 잘되고 무사한 것이다. 이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단순히 '물'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민속전승 주체자의 모든 생사를 관여하는 신격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부심은 그 기원의 목적이 순전히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는 것, 집안이 잘되는 것이라는 가정신앙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어부심은 가정신앙과 그 기원의 내용이 같지만 그 신격이 가정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신앙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여성신앙으로서의 가정을 위한 의례라 할 수 있다. 가신과 어부심은 모두 유교적 제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행해진 주체적인 의식이라는 데서 여성신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기도 3대 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 2 한강**(경기도박물관, 2002), **정선군지**(정선군, 1978), **조선무속의 연구-하**(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38, 199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민속의 세계 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93),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한국의 세시풍속 1 – 서울·경기·강원·충청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전통마을, 해신이 지켜온 어촌**(문화체육부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1991).

필자 **이성희(李聖熙)**

엄나무

정의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두릅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서 민속신앙에서 잡귀나 병마를 물리치는 데 쓰이는 도구. 학명은 칼로파낙스 픽투스(Kalopanax pictus)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란다. 음나무, 엄목(嚴木), 자동(刺桐), 총목(楤木), 해동(海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엄나무 가지에는 굵은 가시가 돋아나 있어 잡귀나 병마가 이 나무를 보면 무서워한다고 믿는다. 정초에 엄나무 가지나 굵은 줄기 또는 묶음을 대문간 문설주 위에 걸어 놓거나 큰방 문설주 위에 가로로 걸어두면 잡귀와 병마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한다. 엄나무가 많은 숲으로 말라리아 환자를 데려가 병이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풍습도 있다. 엄나무는 가정을 지키는 역할도 하며, 지역에 따라 마을신앙의 대상물이 되기도 한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는 350년이 넘는 엄나무 당산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는 음력 정월 초순에 방에다 엄나무를 가로로 걸어 놓는다. 고양시지역에서는 엄나무 가지를 묶음으로 만들어 대문에 걸어 둔다. 용인과 충북지역에서는 야광귀를 쫓기 위해 엄나무를 사용한다. 이때 체와 함께 밖에 걸어둔다. 충남 아산지역에서는 정월 초순에 엄나무 몸통을 대문 위에 걸기도 한다. 강원도 고성지역에서는 정월 열엿새 귀신날에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머리카락을 태우고, 엄나무 가지를 체에 꽂아 매달아 놓는다. 경남지역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엄나무 가

엄나무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신촌, 2011.4.12, 배도식



경남 밀양시 용평리, 2011.4.12, 배도식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신촌, 2011.4.18, 배도식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적지, 2011.4.18, 배도식

엄나무



경남 밀양시 무안면, 2011.4.18, 배도식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문호리, 황현만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황현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2002.11.29, 코리아루트

지를 거실에 가로로 걸어둔다.

가시가 있는 나무를 이용해 잡귀를 쫓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도 잡귀, 역병, 귀신을 쫓아내고 막기 위해 가시나무를 걸어둔다. 시베리아의 알타이, 투바, 부랴트 민족들도 아까시나무나 여타 가시가 돋친 나무를 집 입구 위에 걸어둠으로써 나쁜 악령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의의 옛날에는 질병이나 흉사 등이 나쁜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귀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가시가 많이 달린 엄나무 등을 집 또는 마을 어귀에 걸어 두어서 흉사 등을 예방하거나 쫓고자 했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김형주, 민속원, 2002), **부랴트 샤머니즘**(국립민속박물관, 2007), **알타이 샤머니즘**(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이건욱(李健昱)**

업

상호참조 업맞이(469쪽), 인업(541쪽)

정의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

형태 업의 신체는 주저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개 건궁 방식으로 인정된다. 집의 뒤뜰 장독대 주위에 나무를 쌓아 업이 있음을 알린다. 이를 업주가리(業主嘉利)라고 부른다.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는 구렁이가 대표적인 업이다. 족제비와 두꺼비도 해당된다. 며느리를 들여 부자가 될 경우에는 이를 인업이라고 한다. 대개 '업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갓난아기를 의미한다.

내용 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는 업을 업왕신(業王神)으로 표기하면서 세속에서 업양(業樣)으로 이른다. 또한 업의 형태로는 인업(人業), 사업(蛇業), 유업(鼬業)을 들었다. 이때의 인업은 갓난아기를 말하며, 사업은 구렁이 등의 뱀, 유업은 족제비를 말한다. 오래전부터 업에 대한 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능화는 곡물을 쌓은 곳에서 뱀이나 족제비가 사는 모습을 흔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식을 지키는 신으로 여겨 업왕이라고 부른 것은 아닌지 추정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돈이 아니라 쌀이나 직물 등으로 금전적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재물신을 곡식을 지키는 신으로 이해한 것도 설득력이 있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에서는 업위(業位) 또는 업위왕(業位王)으로 표현하면서 행복이나 헛간을 관할하는 신으로 해석하고 큰 병에 콩을 넣고 위에 지푸라기를 덮은 제석단지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업주저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뱀이나 족제비도 이 신의 심부름꾼 정도로 설명하며, 집안에 나타나게 되면 흉사가 있다고 한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쓴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에서는 업으로 뱀 · 족제비 · 돼지 · 고양이 · 소 · 두꺼비와 인업을 들고 있다. 이들 업은 다년간 집에 붙어서 살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며, 성별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닭과 개를 뺀 가축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업의 전승이 활발한 곳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지역이다. 업은 한 집안의 재물 신격으로서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구렁이의 경우 지붕에 올라가 살고 있다고 믿으며, 구렁이가 눈에 띄면 집안이 망할 징조로 여긴다. 이때에는 구렁이가 다시 들어가길 기원하면서 머리카락을 태워 노린내를 내거나 흰 쌀죽을 해서 먹인다고 한다. 그러나 업의 의지로 행해지기 때문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 집을 나간다고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밧칠성이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개 토산 출신만 위하는 신으로, 집안 깨끗한 곳에 기왓장으로 깔아 오곡 씨를 놓고 기왓장을 덮어 놓는다고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지역에서는 업과 터주가 집안 뒤란에 나란히 배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포천과 남양주, 양평과 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부터 동쪽지역에까지 널리 분포하는 업과 터주는 대개 단지를 놓고 그 위에 짚가리를 올린 방식을 취한다.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쌓고 그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덮은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소나무 등을 쌓는 이유는 족제비 등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에서는 날이 궂을 때 두꺼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업두꺼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업두꺼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고양이와 날짐승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이 잘 풀리면 업으로 본다. 즉 구렁이나 두꺼비, 족제비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날짐승을 모두 업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곳간의 마룻보 위에 사람의 옷을 걸어 놓는 것을 업의 신체로 취한다.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는 업을 발이 네 개 달린 구렁이



업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010.1.10, 윤동환

라고 한다. 이 업은 집안에 탈이나 우환이 생길 경우에 보인다. 영암지역의 경우에도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업구렁이가 보인다고 한다. 구렁이가 나오면 머리카락을 태워 노린내를 풍기거나 흰죽을 쑤어 구렁이가 있는 곳에 놓는다. 이렇게 하면 구렁이가 다시 들어간다고 믿는다. 시종면 월롱리에서는 기와를 얹기 위해 지붕을 뜯을 경우 업이 피하도록 사다리를 놓거나 '지붕을 뜯는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지붕을 뜯으면 헝겊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바로 그곳이 업구렁이가 살던 자리라고 한다.

전북지역에도 전남에서 전승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집안이 망하려면 업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업으로 상징되는 구렁이가 집 안에 나타나면 우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에서는 귀가 달린 구렁이가 업이다. 이 업은 사나우며, 주로 부잣집에 많이 산다고 한다. 특히 업을 맞이하기 위해 업집을 마련한다. 업집은 짚으로 만들어 놓고 주인이 항상 달래준다고 한다. 업을 모시는 집에서는 항상 밥을 가져다 놓는다.

경남지역에서는 업이 주로 집 안의 고방(창고)에 있다고 믿는다.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에서는 업을 '집지킴이'라고 한다. 집안이 평안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보인다. 이것은 지킴이가 집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에서는 업을 '업장군'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업을 섬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음력 시월에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비손은 "업장군님네요! 이 음식 잡수시고 천석만석 부라 주고 만석천석 부라 주이소." 하는 내용이 보편적



업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010.1.12, 윤동환



업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010.7.22
윤동환

이다. 동짓날 팥죽을 큰 대야에 담아 바치기도 한다. 바친 뒤에 가 보면 팥죽이 없어졌다고 한다. 팥죽이 남아 있으면 불길하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가정신앙**(김종대, 경기민속지 1, 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도 터주신앙의 존재양상**(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朝鮮の鬼神**(村山智順, 김희경 역, 東文選, 1990),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종대(金宗大)**

업가리

정의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는 업의 형태 하나.

내용 집안의 재운을 관장한다. 보통 사람업(인업), 뱀업(긴업), 족제비업, 두꺼비업 등이 있다 이러한 업은 집으로 들어왔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만 섬긴다. 이를 업양 또는 업영이라고 한다. 또 다른 형태로 업가리가 있다. 대개 집 뒤란에 위치한다. 모양은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은 형태이며, 주저리 안에 나무막대기를 박아 놓았다. 막대기는 대개 밤나무 막대기이다. 그 안에 한 되 정도 들어가는 단지에 콩이나 벼를 넣어 둔다. 주저리는 가을에 고사를 지내기 전에 갈아주며, 이전의 주저리는 불사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나무 가지를 해를 거듭하여 쌓아두어 업가리의 규모가 큰 예도 있다. 가을에 집고사를 지낼 때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건달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장독대 옆 담 모퉁이에 업양을 모시고 있다. 신체는 짚으로 주저리를 씌웠으며 안에는 역시 밤나무 막대기를 꽂아 두었다. 업양은 아이가 죽은 뒤 만신의 권유로 모시기 시작했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백설기와 청수를 놓고 업양을 위한다.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물구리마을의 업영 신체는 터주와 마찬가지로 주저리를 해서 씌우고 그 안에 밤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는다. 업에는 족제비업, 도깨비업, 인업 등이 있다고 한다. 예전에 업영가리가 부엌과 뒤란에 하나씩 있던 가정에서는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뒤란에 있는 업영가리에는 백설기와 청수, 부엌의 업영가리에는 콩시루와 청수를 각각 올렸다. 뒤란의 업영가리는 족제비, 터줏가리라고 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은모시마을의 경우 터의 업영이어서 터를 지키는 귀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텃대감의 비서신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업과 업영이 다르다고 한다. 업영은 터에 있는 것으로 텃대감 옆에 있으며, 한 집안의 텃대감과 업영은 각각 하나라고 한다. 터와 업영은 꼭 붙어 앉는다. 고사를 지낼 때에도 업영에는 터주시루의 팥 시루떡을 썰어놓고 막걸리 한 잔을 올린다.

업에는 인업, 족제비업, 돼지업, 구렁이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업은 항아리형태가 많다고 한다. 인업은 밖에 앉아 있지 않고 건물 안에 앉는다. 대개 안방에 좌정한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인업에 백설기와 청수를 올린다. 항아리 안에는 쌀이 들어 있으며, 3년마다 굿을 하면서 갈아준다. 그러나 그동안 굿을 하지 않다가 2004년 가을에 만신을 불러 고사를 지내면서 업항아리의 쌀을 갈아주었다. 항아리의 묵은쌀은 제석주머니의 묵은쌀과 한데 섞어 고사를 지낸지 사흘 뒤에 백설기를 쪄서 제석주머니와 업항아리에 먼저 올린 다음 먹었다. 인업과 달리 돼지업이나 족제비업, 구렁이업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앉는다. 업이 오면 만신이 와서 대를 붙잡고 빈다. 그러면 대가 흔들리며, 그러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앉는다. 이 댁의 업은 뒤란에 있으며, 주저리를 씌워 놓았다. 하나는 밤나무 막대기가 들어 있고 두 개는 항아리에 주저리를 해 놓았다. 주저리 안의 항아리에는 콩, 조, 수수도 들어 있었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팥 시루떡을 떼어서 접시에 담아 청수와 함께 올린다. 광명시 가학동 가학8리 노리실마을에서는 재물을 가져다준다는 업은 항아리에 쌀이나 벼를 담아 넣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덮는 형태로 터줏가리와 함께 뒤란에 세워둔다. 업의 겉모양은 터줏가리와 같지만 안에 항아리를 두고 쌀이나 벼를 담아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김인수 씨 댁에서는 시어머니 생전에 6기의 업을 모셨으며, 만신이 모시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항아리 안에는 벼를 넣어두었다. 이 벼는 가을에 햇곡이 나면 새로 갈아주며, 이전에 담아 둔 벼는 찧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유난스럽게 모시는 게 싫어서 터줏가리와 함께 업도 없앴다. 항아리는 던져서 깨고 짚가리는 불을 놓아서 태웠다.

한 가정의 경우 뒤곁 장독대에 돼지업을 모셔놓은 짚주저리가 있다. 검은색의 작은 항아리 안에 벼를 가득 넣고 주저리를 씌워 놓았다. 방복선 씨가 1950년대 말 시집오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만들어서 모셔오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도 돼지업 주저리만은 계속 가지고 다녔다. 돼지업 주저리는 예전



업가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2005.6.23, 김태우

에 시어머니가 새끼를 많이 난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어렵던 살림이 나아져서 노인들끼리 의논하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돼지업 주저리에는 일년에 한 번 고사를 지낸다. 매년 음력 시월 초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산치성을 끝낸 뒤 손 없는 날을 택해 집안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방씨가 직접 지내며 올해로 58년이 되었다. 시집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고사를 지내 왔다.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가 이어서 지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고사는 고사 때만 사용하는 시루에 백설기를 쪄서 돼지업 주저리 앞에 놓고 지낸다. 이 고사 시루도 장독대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

서동우 씨 댁에는 다양한 집안 신이 모셔지고 있었다. 집안 신들은 뒤꼍에 모셔진 네 개의 짚주저리 형태와 안방과 마루에 선반을 만들어 상자로 올려놓은 형태가 있다. 뒤꼍에 있는 네 개의 짚주저리에는 터줏대감, 뱀업긴업, 족제비업 등이 모셔져 있었다. 짚주저리 안에는 각각 쌀, 볍씨, 콩, 물 등이 담긴 항아리가 있다. 고사는 해마다 농사가 잘되고 식구가 잘되게 해 달라고 지낸다. 이 고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집안을 보호하는 여러 신과 조상을 위하는 것이다. 주부 이석남 씨는 해마다 겉의 짚주저리는 새로 갈지만 안의 내용물은 시집와서 한 번만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뱀업과 족제비업에 대한 의례 구분은 없다. 이 업주저리는 2004년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없앴다. 만신을 청해 오랫동안 위하던 업주저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만신이 터주만 다시 모시면 된다고 하여 다른 업주저리는 그대로 불에 태워없앴다.

김포시 고촌읍 전호1리 전호마을에서도 집안에 재복을 불러온다는 업은 재산을 많이 모으게 해달라는 의미로 터주와 함께 집 뒤꼍에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서 모신다. 업은 모든 집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며, 꿈이나 생시에 업이 나타난 경우 모신다고 한다. 업도 긴뱀업, 돼지업, 족제비업, 인업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처럼 업을 받아서 모시면 집안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여긴다. 주로 꿈에 긴짐승을 보거나 생시에도 뱀을 보면 치마폭에 싸서 집에 모셔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배추를 장에 팔러 다닌 개인사례의 경우 큰 뱀이 자신에게 업히는 꿈을 꾸고 난 이튿날 배추를 팔러 나갔다가 도중에 어떤 사람이 돈 얼마를 줄 테니 전부 팔라고 하여 금방 팔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간난씨는 "그래서 업이 돈이라고 하는가봐."라고 하면서 특히 뱀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 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신체가 남아있거나 뚜렷한 신앙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이 마을에서는 가을 고사를 할 때면 굴뚝, 짚가리, 외양간에도 떡을 놓는다고 한다. 굴뚝에는 굴뚝장군이 있다고 하며 외양간에는 소가 잘되기를 기원하며 놓는다.

양주시 중촌마을에서도 업에는 긴업(구렁이업), 족제비업, 돼지업 등이 있다. 이들 업은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거나 보살펴 준다. 형태는 터줏가리처럼 주저리를 해서 업주저리로 위하거나 항아리로 업항아리를 위하기도 한다. 업주저리의 경우 대개는 주저리 안에 쌀이나 콩으로 채운 작은 단지가 들어있으며, 업항아리의 경우도 단지 안에 쌀이 들어있다고 한다. 대주가 업이든지 안주인이 업이면 만신에게 물어서 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업을 해서 앉힌다. 그리고 업에 따라 단지 안에 쌀이나 콩으로 채운다. 쌀이나 콩은 가을에 고사를 지낼 때 갈아준다. 고사를 지내면 백설기와 청수를 올리고 업을 위한다.

긴업을 위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긴업은 작은 단지에 쌀을 담고 주저리를 씌웠으며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서 쌀을 갈아 준다. 업주저리의 쌀로 밥을 하면 식구끼리만 먹어야지 다른 사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업을 모시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업을 지녔으므로 업을 받으라는 만신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은 위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업도 함께 치워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업도 함께 없앴다고 한다.



터주와 업가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005.6.19
김태우

오산시 금암동 금바위마을에서 업은 주로 광이나 곳간 등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나 뒤뜰 등 은밀한 곳에 봉안된다. 형태는 크게 볏짚이나 소나무 등의 나뭇가지로 엮은 주저리를 씌운 짚가리형과 주저리를 씌우지 않은 항아리(단지)형으로 구분된다. 한 가정의 경우 '업짚가리'는 크게 만들고 업이 와서 묵으면서 먹으라고 안에 벼를 담은 항아리를 두었다. '긴업이'와 '인업이' 등이 있다. '긴업이'는 구렁이, '인업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들어오는 것을 각각 가리킨다. 시월 상달고사 때 업가리는 벗겨내지 않고 새로 만들어 그 위에다 씌운다. 또 다른 가정의 경우 집에 '업짚가리'라고 하는 큰 것과 그 옆에 작은 터줏가리가 있었다. 가을고사를 지내기 전에 '업짚가리'와 '터줏가리'를 새로 만든다. 이때 '업짚가리'가 너무 크면 겉면의 짚을 벗겨내고 그 위에 새 짚으로 씌우고, 크지 않으면 벗겨내지 않고 그 위에 새 짚으로 덧씌운다. 가을이 되면 집안의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달라고 빌면서 고사를 드린다. 이때 시루떡을 해서 '업짚가리'를 위하고 그 위에 돈도 한 푼씩 놓곤 했다.

의왕시 초평동 아랫새우대(아랫말)의 경우 집에서 모시는 업에는 족제비업, 돼지업, 구렁이업 등이 있다. 구렁이업은 '진대업'이라고 하며, 보통 돼지업을 가장 크게 만든다. 업은 부자가 되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해 놓는 것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새로 앉힌다. 구렁이업이 있는 한 가정의 경우 구렁이가 집 울타리에 걸쳐 있는 꿈을 꾸었다. 이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점집에 가서 물으니 구렁이업을 앉히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 한다. 업은 대가 내린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뒤뜰에 있을 수도 있고 광에다 앉힐 수도 있다. 업을 앉힐 때는 "백자천손 만세유전 여기에다 앉힙니다." 하고 아뢰면서 빌었다. 터줏가리 안에 벼를 넣는 것과 달리 구렁이업 안에는 쌀을 넣은 질그릇 단지를 놓아두었으며, 쌀 위로 구렁이가 기어 다닌 자리가 남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쌀은 해마다 햅쌀이 나면 새로 갈았다. 보통 가을고사 때 성주와 터주에는 팥 시루떡을 올리지만 구렁이업에는 백설기를 올렸다. 또 다른 가정의 경우 업은 뒤뜰 장독대 뒤에 터줏가리 모양으로 이엉을 엮어서 만들었으며, 모두 세 개가 있다. 보는 사람 편에서 왼쪽으로부터 '긴업(구렁이업)', 돼지업, 족제비업 순으로 놓여 있다. 업에도 '대감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긴업대감님', '돼지업대감님', '족제비업대감님'이라고 각각 불렀다. 업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높이는 63㎝, 밑지름은 40㎝이다. 족제비업 안에는 원래 쌀을 담은 단지를 넣어두었다. 현재는 만신이 넣지 말라고 하여 말뚝만 있다. 돼지업 안에는 까만콩을 넣은 단지가 있다. '긴업' 안에는 원래부터 말뚝만 있다. 모두 만신이 하라고 하여 만들었다. 만신이 직접 와서 고사를 지내고 대를 내렸다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는 만신이 혼자 와서 비손만 하고 백무리(백설기)를 쪄서 올린 뒤에 업을 앉혔다. 업대감의 쌀은 가을고사를 지낼 때 햅쌀로 갈아 넣는다. 묵은 쌀은 벌레가 먹지 않았으면 흰무리를 해먹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업맞이

상호참조 업(464쪽), 인업(541쪽)

정의 집안의 운세와 재물을 관장하는 가신인 업을 맞이하기 위해 올리는 제의.

내용 업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가신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성주, 조상, 조왕, 삼신에 비해 그 신앙의 강도가 약하다. 정기적으로 의례를 거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업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안 좋으려면 업이 보인다', '집안이 망하려면 업이 보인다.' 등의 표현으로 보아 업은 집안 어딘가에 존재하며 조심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업이 보이면 함부로 잡지 않는다. 업을 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하며, 집을 허물면 업이 미리 알고서 먼저 나간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업이 보이거나 나가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여 조심스러워하고, 업이 있는 곳에서 흰죽을 쑤어 바쳐 놓고 비손하는 비교적 간단한 제의를 행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역에 따라 업모시기, 업제, 업잔치 등

으로 부르고 있다.

업은 지역에 따라 형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대체로 큰구렁이나 두꺼비를 업으로 인식한다. 사람이 신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인업'이라 하며,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간 아이를 업처럼 들어왔다고 하여 '업둥이'라고 불렀다. 업신은 대체로 곳간이나 헛간 · 지붕 · 노적가리 · 뒤주 · 장작더미 · 나뭇단 · 담 등에 깃들어 있거나 드나들며, 업이 들어오면 재산이 들어와 부자가 되고 업이 나가면 재산이 빠져나가 망한다고 믿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업에 대한 신체가 없다. 반면에 경기도와 경상도지역에서는 '업주가리', '업가리'라 하여 창고 또는 광의 위쪽 한 귀퉁이에 팥을 담은 옹기 형식으로 안치되어 있거나 단지에 낟알을 집어넣고 짚주저리를 씌우는 형태를 모시기도 했다. 업신을 모시는 업단지(뱀항아리)를 곳간에 두기도 한다. 단지 안에는 쌀이나 다른 곡물을 넣어 둔다. 제주도에서는 집 안팎에 짚이엉을 주저리처럼 엮은 '칠성눌'이란 것을 두어 업신인 구렁이 신체를 모신다. 그리고 오늘날 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구전되고 있다. 주로 업을 잡거나 죽여서 집안이 망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보자는 목격담으로 구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업이 보이거나 있어야 할 업이 없을 때 업맞이를 한다. 대체로 부녀자들이 주도하는 의례적 행위는 흰죽을 쑤어 바치고 비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당이 하는 업맞이는 집안 사연과 함께 복잡한 의례적 행위를 보여 준다. 이러한 행위는 업이 집을 나가지 않고 집 안 어딘가에 좌정하여 집안의 재복을 관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새로 집을 짓거나 업이 집에서 나간 경우 업을 맞아들이기도 한다. 업을 맞이할 때는 작은 시루에 통팥을 넣어 떡을 찌고 그것을 대문 밖으로 가져간다. 떡을 차려 놓고 다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업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장사를 하는 집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재수를 기원하는 고사의 일종이다. 가게에 상을 차린다. 과일도 푸짐하게 놓고 상업대감을 찾으면 장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일 년에 한 번씩 주로 정월에 행한다.

지역사례 전북 순창군에서는 큰구렁이를 업이라고 여긴다. 실제 업이 보이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여 조심스러워한다. 업이 보이면 업이 보이는 곳에 흰죽을 쑤어 바쳐 놓는다. 집안이 앞으로 좋으려면 업이 흰죽을 거의 먹고 일부 남겨 놓는다. 이때 남겨놓은 죽을 집주인이 먹으면 좋다고 한다. 그것이 더럽다 하여 먹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남원지역에서는 구렁이와 두꺼비를 업이라 하며, 어느 집에든 모두 업이 있다고 한다. 구렁이업은 귀가 달리고, 여느 뱀과는 달리 유독 크다고 한다. 뱀 외에도 두꺼비가 집 안에 들어오면 잘 살고, 나가면 못 산다고 한다. 실제 구렁이업이 보이면 죽을 쑤어 바치면서 단골과 함께 비손한다. 죽을 바칠 때도 먼저 맛을 본 뒤에 죽을 놓는다고 한다. 죽을 바치는 것은 업이 먹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업이 죽을 다 먹지 않고 남겨 놓으면 집 안주인은 복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한다.

전남 영암지역에서는 업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집 안 어딘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 집안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주로 업은 구렁이, 소, 돼지, 두꺼비, 짐승 등이다. 이 가운데 구렁이업이 가장 좋다고 한다. 따라서 예전에 초가지붕을 이을 때가 되면 언제 지붕을 잇는다고 말한 뒤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았다. 이는 사람이 없을 때 사다리를 타고 어딘가에 운신(運身)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업은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보인다고 한다. 크게 보이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 구렁이가 보이면 업이라 하여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어디로 운신하라고 빌기도 한다.

구례지역에서는 부잣집에 방석만한 크기로 똬리를 틀고 있는 뱀이 창고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밤에 잠을 자면 집 뒤란에서 "고개딱딱, 고개딱딱" 또는 "똑똑똑똑" 하면서 절구 찧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결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밤만 되면 이렇게 절구 찧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업이 방아를 찧은 소리이다. 보통 이런 소리는 터가 센 집에서 난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 집이 망하려고 하면 뱀업이 집안사람들 모르게 그 집에서 살짝 나가 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업이 나가면 집이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뱀이 그 집 안에 사리고 있어야 그 집의 운세가 좋다고 여긴다. 또 집안 창고 깊숙이 있는 뱀이 사람 눈에 띄면 그 집 안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이렇게 업이 보이면 집안사람들은 흰죽을 쒀 놓고 업이 다시 집 안에 좌정하기를 바라며 비손하는 행위를 한다. 이를 '들온수'라고 한다. 그러나 들온수를 못해 업이 나가면 그 집 안은 어쩔 수 없이 망한다고 한다. 또 사람 눈에 업이 보이게 되면 아이 달래듯 정성을 다해 달래서 좌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업을 달랠 때는 손을 비비고 북, 장구를 치면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빌어야 한다. 그 업이 그대로 좌정하지 않고 나가면 그 집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곡성군에서는 집 안에 있는 업이 나갔다면 다시 업을 맞이하기 위해 '업맞이'를 한다. 업이 집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집안사람의 꿈에 나타나 현몽을 한다. 업맞이는 많은 양의 흰쌀로 죽을 쑤어 업이 산다고 여겨지는 자리나 마당에 짚을 깔고 놔둔다.

장성지역에서는 업을 구렁이라고 한다. 이 구렁이가 보이면 그 집안의 운이 다한 것으로 믿는다. 구렁이는 집안 상량 용마름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짚을 걷어낼 때 그 집이 잘되려면 업이 나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업이 있다가 나갈 때 마을 사람이나 자기 눈에 보이면 분명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한다. 정오순 씨의 당숙이 남의 집에서 7년을 살았다. 당숙이 어느 날 그 집의 도장문을 열었더니 꼬리를 하나로 감은 두 마리의 뱀이 양쪽에서 혓바닥을 내밀고 검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 머리카락 한 움큼을 광 안에 던져 놓고는 곧장 그 집을 떠났다. 그 뒤로 그 당숙이 일 년 동안 몸져 누워 있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진도지역에서도 역시 구렁이를 업이라 생각하며, 따로 신체를 봉안하지 않는다. 업은 집 안 어딘가에 존재하며, 조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양지역에서는 업이 나오면 '업제'를 모신다. 업이 나타나면 보통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업이 나타날 때는 집안에 복이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그 사람의 꿈에 선몽을 한다. 꿈에 업이 보일 경우 그 자리에 가 보면 꼭 뱀이 있다. 이 뱀을 업이라고 한다. 업이 사람의 눈에 띄면 흰죽을 정성 들여 쑤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뱀에게 줘야 한다. 예전에 어떤 부잣집에서 장독에 뱀이 빠져 죽어 있었다. 그 집 부인은 그 장이 불길하다고 생각되어 자기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남에게 모두 줬다고 한다. 그 부인이 그 장을 한 번이라도 찍어 먹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집의 복이 남의 집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집에는 업이 한 쌍 있었다. 그 구렁이가 자꾸 나와서 개울을 건너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를 개울에 놔 주었더니 그 구렁이 한 쌍은 통나무를 타고 개울을 건너 이웃집으로 건너갔다. 업이 건너온 집에서는 업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업잔치'를 했고, 업이 나간 집은 망했다고 한다.

영암지역에서는 큰소리로 지붕을 뜯는다는 말을 하면 밤 사이에 업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 그런 다음 지붕을 뜯으면 헝겊으로 가득한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구렁이가 자신의 집을 짓고 살던 '업자리'라고 한다.

이들 사례는 주로 집안 부녀자들이 주도하는 의례행위이다. 무당을 불러 '업맞이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함평지역에서 무당이 주도한 업맞이는 그 집의 업이 있다가 나간 경우, 업이 약해서 대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주로 행한다. 의례의 날짜는 그 집 대주와 큰아들의 운세를 보고 택일한다. 나락을 깨끗이 해서 큰 항아리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구멍이 뚫어지지 않은 창호지에 구렁이를 크게 그려서 종이를 접어 항아리 위에 놓고 주저리를 씌운다. 대주에게 주저리를 씌운 항아리를 들고 광에 가져다 모시게 한다. 주저리 아래에는 쌀로 흰죽을 쒀 놓는다. 죽은 간을 하지 않는다. 업주저리는 매년 새것으로 갈지 않고 굿할 때만 만든다.

예전에 어느 집에서 떡을 하려고 시루를 찾았더니 양은 시루 안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인이 구렁이를 버리고 시루도 다른 것으로 바꾼 뒤에 밭을 매다가 그만 벼락을 맞아 죽었다. 죽은 부인은 후처이며 전 부인은 19살에 결혼한 뒤 남편이 첫날밤 이후 자신을 찾지 않아 한이 맺혀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노보살이 전처를 업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여 굿을 했다. 노보살은 경을 읽은 다음 나락을 담은 항아리에 뚜껑을 덮고 창호지에 구렁이를 그려 접어서 그 위에 얹고 주저리를 씌웠다. 그리고 장독대에 놓은 다음 죽은 사람 옷으로 '깐치옷'을 준비하여 항아리 옆에 놓고 바닥에다 베를 깐 뒤 남편에게 베를 밟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주저리에 씌운 창호지를 보니 뱀이 나간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노보살은 전처가 너무 한이 맺혔으니 종이와 옷도 그곳에 둔 채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남편만 가을에 직접 나락을 갈게 했다고 한다. 그런 뒤에야 집 안이 비

로소 편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몇 년 뒤 남편이 몸이 아프다며 노보살을 찾았다. 노보살은 자신도 모르게 "왜 나를 간수하지 못하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남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새로 얻은 세 번째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주저리 안의 나락을 갈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보살이 굿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나서야 몸이 나았다고 한다. 흰죽을 쑤어 죽이 식으면 뱀이 지나간 것처럼 자국을 남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집은 창호지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영광지역에서도 부녀자가 집에 업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을 앉혀달라고 부탁하여 무당이 직접 업맞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 시루떡을 하나 찌고, 작은 옹기에 물을 담고 바닥에 짚을 깔아 그 위에 밥과 고사리나물을 올려놓고 집안에 잘 좌정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특징 가신 가운데 업은 집안의 재물을 지켜 주거나 늘려 주는 신격이다. 성주, 조상, 삼신, 철륭 등은 집 전체와 가족의 안위를 관장하는 가신으로서 그 성격이 포괄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렇지만 업은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그 성격이 분명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대체로 업에 대한 신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앙 형태 역시 희박하다. 또한 업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업에 대한 정기적인 의례 행위는 하지 않지만 '집 안에 구렁이가 보이거나 집에서 나가면 집안이 좋지 않거나 망한다'라는 신념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집 안에 구렁이가 나타나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 역시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특히 구렁이를 대표적인 업의 상징물로 보는 것은 구렁이의 실제 모습보다 뱀이 지닌 신성성을 숭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가정신과 가정신앙**(서해숙,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화순군, 1998), **가정신앙**(서해숙, 남도민속연구 4, 남도민속학회, 1997), **가정신앙**(서해숙,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문화재 26, 문화재관리국, 1993),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민간신앙 1, 민속원,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문화재관리국, 197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호남지역 철륭신의 성격**(김명자,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필자 서해숙(徐海淑)

염전고사(鹽田告祀)

정의 염전의 주인들이 소금이 많이 생산되고 소금 일을 무사히 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제의. 염전고사는 지역에 따라 벗고사, 벌막고사, 소금고사라고도 부른다.

역사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염(煮鹽)이 생산되었다. 자염의 생산은 바닷물을 바로 끓이는 직자식(直煮式)과 갯벌에서 흙을 갈아서 짠 흙을 만든 다음 여기에 바닷물을 부어서 짠물을 얻는 염전식(鹽田式)이 있었다. 염전식 생산법은 삼국시대에 시작하여 고려시대에는 보편적인 방식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염은 갯벌이 분포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집현전의 학자인 이계전(李季甸)은 "동해는 바닷물을 졸이고, 남해부터 서해까지는 조수가 물러갈 때를 기다려 소에 멍에를 매어 갯벌을 갈아서 조수를 취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해부터 남해까지의 갯벌에서 두루 염전식으로 소금을 생산하였음을 보여준다. 염전에서 소금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소금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일제에 의하여 천일염전이 세워지면서 염전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자염전은 흙을 가는 갯벌과 소금가마가 있는 염막 등으로 구성되지만 천일염전에는 조수를 막는 제방을 비롯하여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세워졌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이러한 천일염전이 대거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자염전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소금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천일염전에서도 소금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염전고사는 이어졌다.

내용 충남 서산 · 태안 지역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가운데 자염 생산이 활발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든다고 하여 '화염(火鹽)'이라 불렀다.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서는 여름철 조수가 밀려가는 조금에 맞춰서 염전고사를 지냈다. 염전 앞에서 돼지머리를 비롯한 음식을 차려 놓고 술잔을 올려서 한 해 동안 소금 생산이 잘된 것을 감사드렸다. 고사가 끝난 뒤에 일꾼들이 모여서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장곡리에서는 양력 3월에 소금고사를 지냈다. 염전에서 시루떡, 돼지머리, 삼색실과로 상을 차려 놓고 "우리 소금 잘 나게 해 달라"라고 빌었다. 고사가 끝난 뒤에는 떡을 조금씩 떼어 접시에 담아서 '짠물 보관하는 굴'의 지붕 아래쪽에 가져다 놓았다.

전북 고창군 검당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 벌막고사를 지냈다. 고사는 섣달그믐날 밤 또는 첫 소금을 내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벌막에서 지냈다. 이 고사를 지내기 위한 음식은 벌막의 주인이 장만한다. 이때 빠져서는 안 되는 제물이 메밀범벅이다. 벌막 기둥에다 제상을 차려 놓고 일꾼들과 함께 고사를 모신다. 벌막 주인이 절을 하고 나서 '소금을 잘 내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소지도 올렸다. 고사를 마친 뒤에는 메밀범벅을 벌막 근처에 뿌려 두고 돼지머리와 음식을 일꾼들이 나눠먹는다. 돼지머리를 먹은 이후에 남은 뼈는 왼새끼에 끼워서 벌막 기둥에 매달아 두었다.

천일염전에서도 염전고사와 비슷한 제의가 이어졌다. 전남 신안군의 천일염전에서는 이러한 고사를 '채렴식'이라고 부른다. 염전 저수지의 수문 앞에서 제상을 차리고 술을 올렸다. 이 고사에서는 좋은 소금을 많이 생산하고,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들이 건강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자염과 마찬가지로 천일염의 생산도 절대적으로 그해의 기후에 의존하였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천일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금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이 고사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역사례 염전고사는 소금의 풍요와 염전일의 무사를 위해 기원하는 제의이다. 어느 지역이든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고사 일시, 장소,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태안군에서도 장곡리에서는 봄철에 첫 소금을 생산하여 고사를 지내는 반면에 고남리에서는 한 해 동안 소금이 잘 생산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름철에 고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전남 신안군의 비금면에서는 중양절에 염전고사를 지냈다. 비금면의 염전고사는 염전과 염전의 솥에 조상 상을 차려 두고 고사를 모셨다고 한다. 중양절인 음력 9월 9일은 거의 염전 일을 끝마칠 때이므로 한 해 동안 소금 생산이 무사히 이뤄진 것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이다. 이 염전고사에서는 조상신이 후손의 생업이 잘 되도록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08), **자염생산관련 의례 고찰-섯구덩이 방식을 대상으로**(박종오, 남도민속연구 16, 남도민속학회, 2008),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유승훈(柳承勳)

영등

상호참조 영등고사(477쪽)

정의 가정과 마을에서 모시는 바람신[風神]. 영등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영등' 또는 '영동'이라는 말에 '할머니'에 해당하는 지역적 방언이 결합하는 형태이다. 영등, 영등할머니, 영등할만네, 영등할망이, 영등할미, 영등할매, 영등할망, 영등제석, 영동, 영동할머니, 영동할만네, 영동할망네, 영동할매, 영동할멈, 영동제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등할매, 영등할마니, 영두할매, 영두할만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영등신의 속성에 중점을 둔 호칭으로, '풍신' 또는 '바람'에 '할머니'가 더해진 형태이다. 이때도 '할머니'는 지역적 방언을 취한다. 풍신, 풍신할머니, 풍신할매, 바람님, 바람할머니, 바람할매, 바람제석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등신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시기를 강조하여 '이월'을 앞세우는 형식이다. 이월할머니, 이월할맘네, 이월할매, 이월손님 등이 그 예이다. 이월영등할머니, 이월풍신님네 등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영등할머니'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제석할머니와 제석할매, 제주도지역에서는 영등하르방 등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할마님네', '구름제석 할마씨네', '손'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영등의 기원이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경북 청도지역에서는 정영등이라는 사람이 죽은 뒤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니 풍년이 들어 그 후 정영등을 모시는 날이 영등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경산지역에서는 영동이라는 아이가 죽은 날이 영등날의 유래라고 전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영등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풍속(濟州牧 風俗)조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귀덕(지금의 한림), 금녕(지금의 구좌읍)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애월리에 사는 사람들은 떼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戱)를 해서 신을 즐겁게 한다. 보름이 되어 끝나니 이를 연등(然燈)이라 한다. 또 이 달에는 승선을 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이월(二月)조에도 "영남지방에는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영등신(靈登神)이라 한다. 신이 내린 무당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아다가 즐긴다. 이달 1일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기를 15일에서 또는 20일까지 간다."라고 하였다.

내용 바람은 농경과 어로 등 생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등은 이러한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며, 천계(天界)에 거처한다. 평소에는 지상계(地上界)의 질서나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다가 일 년에 한 번 이월 초하룻날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때 딸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이날의 날씨에 따라 영등신과 함께 내려온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바람이 불면 딸,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여긴다. 딸을 데리고 올 때는 바람을 일으켜 함께 오는 딸의 치마가 팔랑거려 예쁘게 보이도록 하고, 며느리와 함께 올 때는 비를 내려 그 치마가 얼룩져 밉게 보이도록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딸과 어머니 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보편적인 관계를 토대로 유추한 해석이다. 흔히 딸과 어머니는 잘 통하는 사이, 고부간은 항상 갈등의 대상으로 여긴 탓이다.

이날의 날씨를 두고 사람들은 그해 생업의 풍흉을 점친다. 이날 비가 오면 '물영등 내린다.',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 내린다.',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하면 '불영등 내린다.'라고 한다. 바람은 가뭄을 의미하여 그해 생업이 좋지 않다는 징조로 여기고, 비는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해 생업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영등신이 내려오는 날은 지역에 따라 영등날, 영동할머니날, 이월할매 먹는 날, 이월밥 해 먹는 날, 바람님 오는 날, 풍신날, 이월 바람하는 날 등 다양하게 부른다.

영등신은 지상에서 15일 또는 20일 동안 머물다가 천계로 돌아가며, 하늘로 올라가는 날의 날씨 또한 그해 생업의 풍흉을 점치는 대상이 된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조금 흐려도 길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제주도지역에서는 이날 날씨가 좋고 장닭 꽁지가 팔랑거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그해 생업이 풍요롭다고 믿는다.

한편 지역에 따라 하늘에서 한 번 내려오고 한 번 올라간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오르고 내린다고 믿는 곳도 있다. 예컨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등 지역에서는 영등할미가 세 사람이어서 10일에는 상등할미, 15일에는 이등할미, 20일에는 마지막으로 하등할미가 상천(上天)한다고 한다. 이때 대부분의 가정은 정성껏 저녁상을 차리고 소지를 불사르며 안택(安宅)과 풍년을 기원한다. 특히 통영지역은 명정동 충렬사 앞마당에서 합동 분신제(소지를 태워 올리는 것)를 지낸다.

영등신은 대표적인 호칭이 '영등할머니'로서 보편적으로 여성신격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영등하르방'이라는 남신을 섬기기도 한다.

영등신앙은 제주도와 동남부지역, 특히 영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경기도나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전반과 호남지방에도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영등신앙은 흔히 '영등제', '풍신제'라는 형태로 전승되지만 지역마다 전승 양상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의례 방식, 제물 규모, 의례 참여자의 성격 등을 준거로 분류하면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제주도형 제주도의 영등신앙은 형태가 특이하다. 첫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연등굿을 한다. 이는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지역보다 매우 성대하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주도에서는 마을 공동체별로 100명이 넘는 선주의 부녀나 해녀들이 제의에 참여하고 제물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제주도가 특히 바람이 많기 때문에 바람신인 영등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등고사
경남 밀양군 단장면 법흥리, 1993.2.6
배도식

둘째 영등을 맞이하는 굿만이 아니라 영등을 보내는 배송굿이 따로 존재하며, 맞이하는 굿보다 배송굿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영등배송굿은 2월 1일 영등맞이굿을 하고 그달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지낸다. 배송굿 말미에는 해녀들이 바다에 좁씨를 뿌리는 '씨드림'이라는 절차가 있다. 굿을 주재한 심방들은 씨드림이 끝난 뒤 씨점을 쳐서 바다 밑의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풍흉을 점친다. 이 때문에 영등신을 바다 밑의 증식신(增殖神)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셋째 영등신의 신격이 구체화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등신을 흔히 외방신(外訪神)으로 해석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영등신을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온 존재로 구체화한다.

넷째 타 지역의 신격이 모두 여성인 데 비해 제주도에는 남성 신격도 있다.

해안형 해안지역의 영등신앙은 제의 규모가 제주도지역에 비해 작고 내륙지역보다 큰 편이다. 해안지역의 영등제는 개별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경남과 전남 남해안지역의 제의 방식은 유사한 편이며,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지역은 이들 지역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다.

해안형의 가장 보편적인 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독대나 부엌의 살강 아래, 부엌 근처의 마당가 등지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서 임시 제의 장소를 마련한다. 그리고 정화수를 기본으로 올리고, 가정의 사정에 맞게 떡을 비롯한 각종 제물을 차린다. 경북 해안지역에서는 떡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밥은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고 솥째로 올려서 가족 수만큼 숟가락을 꽂는다. 찌개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솥이나 냄비째로 올린다. 이는 영등신이 욕심과 시샘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남 남해안지역에서는 정화수를 올리기 위해 '물대'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한다. 대나무나 소나무로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 세워 고정시킨 뒤 그 위에 정화수를 올리는 것이다. 물대에는 오색천이나 인형을 달아 두기도 한다. 물대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경남 남해안지역에서 영등신앙이 더욱 번성했음을 의미한다. 제의를 마친 뒤 소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영등 음식은 남에게 주지 않고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곳도 있다.

해안형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의례를 주관한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신남마을에서는 남성 제관이 제의를 주관하여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쪽지게 밑에서도 영등은 올린다.'라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영등제를 주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륙형 내륙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화수만 올리고 기원하는 것이다. 호남지방이나 충청도 내륙지역보다 비교적 강한 전승을 보이는 영남지방 내륙지역에서는 정화수와 함께 밥이나 떡을 올리기도 한다.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에는 과일, 나물 등을 제물로 차려서 올리기도 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영등날 새벽 2~3시쯤 닭이 울기 전에 영등신에게 올릴 우물물을 남보다 먼저 길어 오는 '영등물뜨기' 풍속이 성행한다. 닭이 울기 전 시간은 성(聖)의 세계에 속하고 닭이 울고 난 뒤에는 속(俗)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

이 다녀간 우물물은 신성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렇게 떠온 정화수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로 장독 위에 올려놓고 북쪽을 향해 비손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영등날로부터 열흘 동안 매일 정화수를 갈아주기도 한다. 정화수를 긷는 주부가 제의를 주관하며, 남성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사례 제주도의 마을신앙은 마을 본향당신(本鄕堂神)에게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어업이 생업의 중심인 마을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제주로 들어와 어패류의 씨를 주고 보름이 되면 강남천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영등신을 위한 영등굿이 마을 단위로 치르기도 한다. 제의 날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굿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영등환영제, 열나흗날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는 2월 12일에 영등송별제를 치른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굿, 조천읍 북촌리의 영등굿, 조천읍 함덕리의 영등굿, 구좌읍 김녕리의 좀수굿, 구좌읍 하도리의 영등굿, 구좌읍 세화리의 영등굿, 우도면의 영등굿,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영등굿, 성산읍 수산리의 영등굿, 성산읍 신양리의 영등굿, 성산읍 온평리의 영등굿, 안덕면 사계리의 좀수굿 등이다.

제주도 영등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칠머리당굿의 경우, 굿 전체가 영등신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제차(祭次) 중 칠머리당 본향당에 모신 부부신을 위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굿의 대부분이 영등신과 용왕신에게 잠녀와 어부의 안전을 기원하고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월 열나흗날에 본향당신, 영등신, 요왕신(용왕신)을 모시고 행하는 칠머리당굿 영등송별제의 제의 절차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감제** : 모든 신을 모셔서 기원하는 기본 형식이다. 이때 요왕신과 영등신도 함께 모셔 둔다.

② **본향듦** : 마을의 본향당신을 모시기 위한 당굿이다. 초감제 과정에서 강신한 본향당신들을 5리 밖까지 마중나가 안내하여 모시고 들어오는 과정인 오리정 신청궤를 한다. 본향다리에서 본향당신을 놀리고 맞아들인 뒤 삼헌관에게 절을 시킨다.

③ **요왕맞이** :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신과 영등신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제차이다. 이때에도 요왕신과 영등신을 맞이하기 위해 오리정 신청궤를 한다.

④ **씨드림** : '씨를 뿌림'이라는 뜻으로, 영등신이 잠녀 채취물의 씨를 뿌려주는 모의 행위이다.

⑤ **영감놀이** :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굿이다.

⑥ **배방선** :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제차이다. 떼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하늘에서 '바람할매'가 내려온다고 한다. 정월 그믐부터 바람할매를 모실 준비를 한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이때에는 바람할매를 모시지 않는다. 바람할매를 모시기 위해 우선 사립 밖에 황토를 깔아놓아서 잡귀의 범접을 막는다. 다음으로 바람할매의 신체를 준비한다. 대나무 끝을 갈라서 부엌의 살강 위에 놓는다. 이 대나무에는 일곱 가지 헝겊이나 실을 걸친다. 대나무 앞에는 물그릇을 놓는다.

바람할매는 이월 열아흐렛날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날까지 매일 물을 떠서 올리며 "일 년이 하루 아침같이 가거로(같도록) 정지해 주고 집안 식구 다 빌어 주고 바람 풍수 업거로(없도록) 해 주이소."라고 비손을 한다. 물을 올리기 전에는 꼭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레에 한 번 저녁에 밥을 올린다. 밥은 큰 바가지에 담아 물그릇 앞에 놓아둔다. 여기에는 숟가락도 여러 개 올려놓는다. 열아흐레가 되는 날에는 마지막으로 밥을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물그릇도 치우고 신체로 사용한 대나무는 태운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지사마을에서는 이월에 바람이 많이 분다. 이를 두고 '영두할매'가 내려온다고 말한다. 보통 이월 초하루에 영두할매를 위한 의례를 행한다. 이를 '이월 바람한다.'고 하며, 의례에 음식 올리는 것을 '영두할매 섬긴다.'고 한다. 주로 부엌에서 밥, 떡, 나물 등의 음식을 차려놓고 비손을 한다. 이때 '영두물'이라고 부르는 정화수와 함께 과일, 조기, 북어 등을 놓기도 한다. 밥은 솥째 차린다. 여기에 주걱과 식구들의 숟가락을 놓는다.

이날 영두할매에게 올리는 음식을 인간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영두할매에게 제의를 지낸 뒤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두할매가 삐치기 때문이다. 음식이 차려지면 소지를 올린다. 이때 영두할매 소지부터 올리고 나서 식구들 소지를 차례로 올린다. 집안의 여자들 소지도 올린다. 소지가 끝까지 잘 타오르면 그해 무탈하게 지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의례를 마치면 식구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영두물은 이월 스무날까지 새벽마다 계속 갈아 준다. 영두물은 남보다 먼저 떠다 놓으면 좋다고 하여 주부는 새벽 일찍 이것을 떠다 놓고 비손을 한다. 이때 영두물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곳에 둔다. 손이 없는 방향으로 소나무 가지와 함께 묶어서 놓기도 한다.

의의 영등신앙은 한반도의 기후 환경 중 특히 바람과 기상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정착된 생태민속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월의 기후생태학적 환경과 지역의 생업 조건 간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음력 이월은 대개 입춘을 지나 우수, 경칩의 절기에 해당한다. 이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때의 기후는 변화가 아주 심하다. 따뜻한 저기압과 차가운 고기압의 확장과 소멸이 불규칙적이어서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절기상으로는 봄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겨울의 잔재가 여전하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영등할머니의 속성을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영등신앙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 결합해 나타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월의 기상 상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경외심이 맞물려 영등으로 신격화된 것이다. 극복할 수 없는 기후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숭배를 통해 풍농과 풍어 등 현실적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역설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세시풍속-충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김재호,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영등할머니 신앙 연구**(남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오세길(吳世吉)**

영등고사

상호참조 물대(179쪽), 섬땍(307쪽), 영등(473쪽), 영등까꾸리(484쪽)

정의 매년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바람의 신(神)인 영등신에게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어 풍년(豊年)과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고사.

역사 우리 사회에서 바람신을 섬기던 전통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다.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사(雨師), 운사(雲師), 풍백(風伯)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일찍부터 농사의 필수조건인 우순풍조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민속신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월 초하룻날에 지내는 영등고사가 그것이다.

영등고사에 대한 옛 기록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동국세시기』 2월조에 보면 "영남지방에서는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속이 있다. 이를 '영등'이라고 한다. 영등신이 무당에게 내려 마을을 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영등신을 맞이하고 위한다. 이월 초하루부터는 사람 만나기를 꺼린다. 이렇게 하기를 대보름 또는 20일까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미 영등신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신앙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제주 풍속조에 보면, "음력 2월 1일 제주 귀덕(歸德, 지금의 한림)과 김녕(金寧, 지금의 구좌읍) 등지에서는 목간(木竿)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를 올렸으며, 제주 애월(涯月) 사람들은 떼[槎, 뗏목]를 말머리[馬頭]와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비단으로 곱게 꾸민 다음 '약마희(躍馬戱)'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2월 15일에 끝난다. 이를 '연등(煙燈)'이라 한다. 또 이달에는 승선(乘船)을 금(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영등신에 대한 믿음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 오늘날처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에서는 농경신(農耕神)으로서의 '영등고사'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에서는 '풍신(風神)'으로서의 '영등굿'이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 영등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여신(女神)이다. 보통 '영등할머니' 또는 '이월할매'라고도 한다. 영등신은 평상시에는 천계(天界)에 살고 있다가 음력 이월 초하룻날이 되면 비바람을 몰고 지상으로 내려와 활동한 뒤 음력 스무날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따라서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영등할머니를 맞아들이는 날이라 하여 '영등날' 또는 '이월 할매 먹는 날'이라 하고, 이월 전체를 '영등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영등할머니는 딸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이월 초하룻날에 내려 왔다가 이월 초사흗날이나 이월 보름 또는 이월 스무날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각각 다르게 믿고 있다. 이처럼 영등신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이기 때문에 영등신을 위하는 '영등제'를 '풍신제(風神祭)', 영등할머니를 맞아들이는 의례를 '영등맞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영등신은 대개 여성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모셔진다. 해안지역 일부에서는 영등제를 마을제사로 모시기도 하며 최근에는 영등제를 축제화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지역의 경우 바람의 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새봄맞이 풍어굿인 '영등굿'을 치르기도 한다. 이러한 영등신앙에 대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영남지방과 제주도지방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는 가정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음력으로 이월 초가 되면 대개 품 안으로 파고든다는 꽃샘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온다. 이는 바로 영등바람과 연결된다. 바람신인 영등할머니가 이월 초하룻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머무는 까닭에 봄답지 않게 꽃샘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것이다. 그런데 영등할머니가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에는 혼자 오지 않고 늘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이때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예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맑은 날씨에 바람만 살살 나부껴 날씨가 좋지만 고부(姑婦)간의 갈등 관계에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비바람이 몰아쳐 농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한편 바람이 불면 딸의 분홍치마가 아름답게 보이고, 비바람이 사나운 날에는 며느리의 치마가 젖어서 흉하게 보인다고 한다. 여기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심술과 딸에 대한 모정(母情)이라는 양면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정어머니와 딸은 뜻이 맞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불화와 갈등이 있음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바람의 신인 영등할머니를 딸과 며느리라는 시대적 상황에 연결시킴으로써 농사와 어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른 초봄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날씨가 불순하면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날씨가 순조로우면 풍작(豊作)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영등할머니는 바람의 신으로서 동시에 농작의 풍흉과 관계되는 농신(農神)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거센 바람이 일어 난파선(難破船)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부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출어(出漁)를 삼가면서 집에서 쉰다. 이와 같이 영등할머니는 농신이자 풍신이어서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풍재(風災)를 면하기 위해 영등할머니와 그 며느리에게 풍신제를 올린다. 이를 '바람 올린다'라고 한다. 특히 바람이 심한 제주도지역에서는 '영등제'를 지낸다. '영등할망'이라고 불리는 여신이 섬 주변의 해산물을 증식시켜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월 초하루 영등날에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 햇볕이 내리쪼이면 '불영등',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고 한다. 여기서 바람영등이 오면 그 해 바람이 많고, 불영등이 오면 가뭄이 들고, 물영등이 오면 비가 흔하여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오르는 날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들고, 조금 흐리면 길하다고 한다.



영등고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005.3.10
김도현

이월 초하루 영등날은 한 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머슴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사의 주체가 되는 머슴들을 위해 농사밥(일밥)을 해 먹거나 머슴들을 위한 '머슴장'이 서기도 한다. 모두 일 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월 초하루 영등날에는 날씨나 농사의 풍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즉 영등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황토를 퍼와 대문 앞에 뿌려 신성하게 해야 하며, 대나무에 오색헝겊을 달아 사립문에 매달아 부정한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창문도 바르지 말아야 하며, 고운 옷을 입는 것도 삼가야 한다. 논밭 갈이는 물론 땅을 다루거나 쌀을 집 밖으로 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영등맞이 제수용 나락을 말릴 때 새가 그 나락을 쪼아 먹으면 즉석에서 죽을 정도로 영등할머니가 영험하다고 한다.

한편 영등신이 처음 내려오는 이월 초하루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초사흘, 보름 또는 스무날에는 바람을 순조롭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부엌에 있는 살강(찬장)에 대나무 가지를 꽂고 음식을 장만하여 극진히 치성을 드린다. 이처럼 영등신에 대한 믿음과 의례는 매우 다양하다. 그 제의 과정을 영남지방의 '영등고사'와 제주도지역의 '영등굿'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등고사는 지방에 따라 절차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신앙되고 있는 영남지방의 영등고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영등고사를 지내기 전날인 정월 그믐날 대문에 황토를 뿌린 다음 왼새끼에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를 매달아 금줄을 친다. 걸인이나 병자 또는 부정한 것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어 이월 초하룻날 새벽에 첫닭이 울면 남들보다 일찍 우물로 가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장독대나 뒷간에 정화수를 올린다. 아침이 되면 섬밥을 해서 볏가릿대에 가져다 놓고 안주인이 그해 농사의 풍요와 가정의 안녕을 빈다. 또 푸른 대나무 가지 세 개를 서로 교차한 다음 위에서 한 자쯤 되는 곳을 묶어 그곳에 색실, 오색천, 백지를 매단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정성껏 빈다. 정화수는 10일, 15일, 20일 등 세 번을 새로 갈아 놓는다. 이러한 영등제는 영등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 절정에 달한다.

한편 제주도지역에서는 음력 이월에 영등신에게 올리는 '영등굿'을 치른다.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本鄕堂神) 대신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당굿이다. 이를 연등(煙燈), 영등(迎燈), 영등할망(영등할머니)이라고 부른다. 육지의 영등신앙이 대개 개인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주도지역에서는 주로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잠녀)들을 중심으로 집단신앙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영등신의 성격을 살펴보면, 바람신인 영등신은 다른 신들과 달리 한때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속성을 보인다. 이러한 속성은 육지나 제주도나 동일하다. 그러나 육지와 다른 점은 제주도지역의 경우

영등고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005.3.10, 김도현









영등 신체와 제물
전남 구례군 문척면 화정마을, 1995.2, 서해숙

영등신의 성(性)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묘사되는 자료가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제주도의 무가 〈영등본풀이〉에 따르면 영등은 원천군의 유대감 댁 머슴이었다고 한다. 영등이 죽은 뒤 유대감이 가엾이 여겨 제사를 지내 주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유대감 댁에 풍년이 들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후 유대감 댁 사람들은 영등의 혼을 신으로 모시고 음력 이월에 굿을 하여 덕을 빌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주도지역 역시 '영등하르방' 또는 '영등대왕'으로 불리는 이 신을 농사의 신으로서 풍년과 해산물의 수확을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지역 역시 육지와 마찬가지로 영등신을 여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도의 영등신은 본래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一目人島]'에 사는 신이다. 영등신은 이 나라에서 매년 음력 초하룻날 제주도를 찾아왔다가 2월 보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즉 영등신은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섬[牛島]으로 정월 말일에 들어와서 해변의 보말(고동류)을 잡아먹은 다음 하루를 묵고 이월 초하룻날 한림의 수원당에서 제(祭)를 받는다. 그 후 섬을 돌아다니면서 미역, 전복, 소라 등 해녀들이 주로 채취하는 해산물의 씨를 바다에 뿌려 번식시켜 줌은 물론, 어업이나 농업에도 풍요를 준 뒤 다시 성산과 소섬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원당에서 행한 영등하르방을 환영하던 '영등환영제'는 현재 소멸되었으나, 이월 열이튿날부터 보름 사이에 행해지는 '영등송별굿'은 아직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지역 영등굿은 마을에 따라 제의 절차가 다소 다르게 전승된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지역에서 전승되는 영등굿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굿하는 전날 잠수회, 부녀회 등 여성단체 간부들이 모여 떡을 만들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의 비용은 집집마다 추렴하거나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사 당일 아침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당에 오른다. 이때 심방 5~6명도 무구를 준비하여 당으로 나온다. 이어 제단에는 준비해 간 제물을 진설한다. 메, 시루떡, 도래떡, 생선, 야채류, 과일류, 계란, 술, 쌀, 실, 돈 등이 올려진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는 개인 축원용 제물을 마련하여 당으로 모인다. 오는 순서대로 공동 제물 앞에 개인 축원용 제물을 차려 놓는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그 당의 핵심 심방이 '수심방'이 되고, 소미[小巫] 세 명이 악기를 치면서 굿을 시작한다. 굿 순서는 먼저 신이 내려오는 길인 '큰대'를 제장에 세운다. 이어 모든 신을 초청하는 '초감제'가 이루어진다. 초감제에서는 신들이 즐겁게 잘 하강했는지를 점쳐 신의 뜻을 전달하고, 이어 이장 부인을 선두로 참가한 각 가정의 부녀자들이 차례로 배례(拜禮)하면서 복을 빈다. 초감제가 끝나면 제장 중앙에 6~8개의 대나무를 2열로 나란히 땅에 꽂아 요왕문[龍王門]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龍王]과 영등신을 맞아들여 '요왕맞이굿'을 진행한다.



영등고사 제물
충북 옥천군
청석면 합금리
황헌만

영등고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2008.3.8,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요왕맞이가 끝나면 '씨드림'이라 하여 영등신이 해녀 채취물의 씨를 바다에 뿌려 주는 모의행위 과정이 진행된다. 이어 제장으로 돌아와 돗자리 위에 좁씨를 뿌려 그 흩어진 밀도를 보아 해녀 채취물의 풍성함 여부를 점치는 '씨점' 의례가 진행된다. 다음으로는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백지에 조금씩 싸서 바다에 던지는 '지아뤔' 과정이 진행된다. 요왕과 선왕(船王),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한 과정이다. 지아뤔이 끝나면 제장에서 참가자들에게 각자 그해 일 년의 길흉을 점치는 '산받음' 과정이 이어진다. 이어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절차인 '배방송' 과정을 끝으로 영등굿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영등신과 관련된 금기 사항으로는 영등할망이 찾아온 기간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없으며, 빨래를 해서도 안 된다. 빨래를 해서 풀을 먹이면 집에 구더기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제주도지역의 영등신은 풍신의 성격과 함께 내방신(來訪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의 신 영등에 대한 신앙은 육지와 섬 등 많은 지역에서 순조롭게 자연을

영등고사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2007.3.19, 국립민속박물관



조절하여 풍요로움을 누리려는 기원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육지의 영등할머니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되어 왔고, 그나마 영농기술의 발달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제주도지역의 영등하르방은 아직까지 해마다 굿이라는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상 바다라는 위험 속에서 생활하는 제주도 잠녀들의 절실한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작업에 길러진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영등신은 전국적으로 모셔지는 가신(家神)이지만 대개는 경상도와 제주도지역 등 남부지방에서 널리 신앙되고 있다. 영등신의 지역적 전승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제주시 용담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등 해안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영등신이 우도를 통해 들어왔다가 보름 동안 온 섬을 돌아다니며 어패류와 해조류의 씨앗을 뿌려준 다음 다시 우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신은 풍어를 주관하며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제의인 영등굿이라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에서는 영등고사를 '영등할마씨'라고 한다. 영등할마씨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풍년과 가내평안을 기원한다. 이월 초하룻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이월 열흘, 스무날, 그믐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날 마을 사람들은 찰밥과 음식을 차려서 영등할매를 위한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바람떡'이라 하여 송편 모양의 떡을 만들고, 찰밥을 양푼에 푸거나 솥째 정지 부뚜막에 놓고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는다. 영등할마씨는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릇째 갖다 놓아야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여긴다.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에서는 '영등할매'라고 부른다. 이 마을 영등할매 역시 이월 초하룻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영등할매는 농사의 풍흉을 관장하는 신으로 비록 신체는 없지만 심술궂어서 각별히 정성을 다해 모셔야 탈이 없다고 여긴다. 영등할매를 모실 때에는 마을의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다가 정화수로 한 사발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거나 정지 부뚜막에 올려놓는다.

이외에도 경북 다른 지역에서는 영등할매를 '영등고사', '이월 할머니 모시기', '영등 위하기', '영등제'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농촌과 산촌에서는 떡, 밥, 나물 등 갖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영등할매(영등할머니)를 맞이한다. 떡으로는 취떡·백찜·망두떡 등을 만든다. 이들 떡을 짚단으로 묶어 만든 '떡오쟁이(거저리)'에 싸서 영등신에게 바친 뒤 간단히 비손한다. 한편 어촌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부터 잡은 좋은 고기를 '까꾸지(까꾸리)'에 걸어두었다가 이월 초하룻날에 내려 찌개로 끓여 제를 지낸다. 이 고기를 '까꾸지' 또는 '까꾸리'라고 하며 이를 영등신에게 바친다 하여 '영등까꾸리'라고도 한다. 까꾸지로 제를 지낼 때에는 큰 그릇에 오곡밥을 지어 올리고, 섬떡 안에는 가족의 나이 수만큼 새알을 비벼 넣어 만든 '나이떡'을 올린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계리나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 등지에서는 바람신인 영등신을 "영등맞이" 또는 "이월(바람) 할맘네 모신다."라고 말한다. 영등을 '제석'이라고도 하는데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한다. 영등은 '영두할매' 또는 '이월 할만네'라 불리며, 이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이월 스무날에 다시 올라간다. 이러한 영등신은 이월 초열흘날, 보름, 스무날에 각각 상층, 중층, 하층이 올라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월 초하룻날 비가 내리면 그해 농사가 풍년든다고 생각한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에서는 영등신을 '이월할머니' 또는 '영등할머니'라고 부른다. 이월할머니는 매우 영험하지만, 잘 삐치는 신이므로 정성껏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탈이 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월 한 달 동안은 근신하여 집안 혹은 마을에 부정이 있는지 살핀다. 이월할머니 신체는 고사 지낼 무렵에 만든다. 생솔가지를 꺾어 와서 신체로 삼는데, 가지가 세 갈래로 난 것을 고른다. 그래야 바가지를 그 위에 안전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든 신체를 부엌 또는 장광에 꽂아 놓고 청수를 담은 바가지를 그 위에 얹어 놓는다. 이 때 생솔가지에는 오색 헝겊을 달아 놓기도 한다. 고사가 끝나면 사흘 또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생솔가지와 바가지를 모두 태운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비 영등 드린다."라고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 드린다."라고 한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메를 짓고 보리 뿌리를 캐어 정지(부엌)에 있는 찬장에 놓은 다음 오색천을 대나무에 꽂아 놓고 영등제를 지낸다. 한편 이 마을에서는 영등달을 '제석달'이라

고도 한다. 이월 초하루가 되면 집집마다 부엌이나 밭에 나가 콩을 볶아 먹는다. 이는 곡식을 뜯어먹어 농사를 망치는 벌레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하였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를 '영등할망이', '영동할멈', '영등할마니' 등으로도 부른다. 남원에서는 영등할머니가 이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초나흘, 초아흐레, 열나흗날에 올라가고 보름날 마지막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한편 진안에서는 보름과 스무날 사이에 올라간다고 믿어 이월 초하루나 초사흘에 제를 시작하여 보름에서 스무날까지 모신다.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풍신날'이라고 한다. 바람신인 '풍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월 그믐날 저녁에 초가지붕 용마루 꼭대기에다 세모꼴의 끝이 뾰족한 청기(靑旗)를 만들어 꽂아 둔 다음, 이튿날인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풍신제를 지낸다. 또한 이월 초하루에 풍신이 온다고 해서 정화수를 떠 장독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후 풍신이 올라가는 날까지 매일 물을 새로 떠 놓는다.

충남 연기지역에서는 이월에 좋은 날을 정해서 이월 영동할머니를 위한다. 쌀을 깨끗하게 마련하여 집에서 절구로 찧어서 떡을 한다. 백무리(백설기)를 쪄서 장독대에 놓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빈다. 이를 '영동할매 올린다.'라고 한다. 이월에 바람이 불면 영동할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리는 것이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경기도 민속지** 1(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躍馬戱考**(현용준, 한국민속학 12, 한국민속학회, 1980), **영등신앙의 제의적 특징과 생태학적 해석**(김재호, 실천민속학 10, 실천민속학회, 2007), **영등제의 전승과 축제화**(나승만,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전남의 세시풍속**(전라남도, 1988),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 외, 2002), **제주도의 영등굿**(문무병,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제주도의 영등굿**(현용준, 한국민속학 1, 한국민속학회, 1969),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1 ·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8),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풍속-상**(문화재관리국, 1970).

필자 **이관호(李官浩)**

영등까꾸리

상호참조 영등(473쪽), 영등고사(477쪽)

정의 영남지방의 해안지역에서 이월 영등제사를 지낼 때 제물인 물고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제구. 영등신의 신체(神體)로 믿는 경우도 있다. 보통 소나무로 만들어 부엌 천장에 매달아 둔다.

형태 까꾸리는 소나무로 만든다. 산에서 좋은 소나무를 골라 술을 한 잔 붓고 가지를 잘라온다. 가운데 굵은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갈라져 올라가는 소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긴 뒤 줄을 매어 천장에 내려 단다. 그러면 그 모양이 우산을 거꾸로 달아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생선은 뻗어 나온 가지에 줄로 매 둔다. 생선은 정월부터 이월 초하루까지 매두지만 까꾸리는 내내 같은 장소에 달아놓는다.

내용 까꾸리는 영남지방 해안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영등신의 신체이자 제구이다. 영등제사를 지내기 위해 정월대보름 이후에 잡히는 가장 좋은 물고기를 매달아 두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영등제사에 제물로 쓸 물고기는 부엌의 까꾸리에 걸어둔 것을 내려서 쩐다.

정월 이후 집에 들어오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까꾸리에 걸어둔다. 어촌에 살더라도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까꾸리에 걸어두었다. 영등까꾸리는 부엌 안쪽 천장에 달아두었다.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양을 걸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가정은 식구들이 먹기 위해 생선을 살 때마다 가장 좋은 것 한 마리를 따로 걸어두었다. 영등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준비가 끝나면 까꾸리 앞쪽에 상을 차린다.

오늘날 까꾸리를 걸어두는 집은 거의 없다. 그러나 까꾸리를 없앤 뒤에도 영등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많다. 까꾸리 대신 벽에 못을 박아 그곳에 고기를 걸어두었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정월부터 잡아 올린 고기 가운데 영등상에 올릴 고기를 저장고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영등제사를 지내기 2~3일 전에 제사를 지낼 부엌의 벽에 잠시 걸어둔 다음 내려 찌개를 끓이는 경우도 있다.

과거 까꾸리는 정월부터 제의가 시작되는 이월 초

영등까꾸리
국립민속박물관



하루까지 잡아 온 가장 좋은 고기를 저장하는 기능이 중요시됐다. 그러나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어장을 하는 가정에는 고기를 따로 저장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까꾸리가 필요 없게 되면서 사라졌다. 그 대신 상징적으로 벽에 잠시 고기를 걸어두거나 줄로 달아 놓는 등의 형태를 취한다.

지역사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2리,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에서 까꾸리의 형태가 나타난다. 창포리의 경우 정월부터 잡은 물고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미리 까꾸리에 걸어두었다가 이월 초하루에 내려서 제물로 사용한다. 어가의 까꾸리는 조업을 나갔다가 좋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월 초하루가 되면 다섯 마리가 넘을 때도 있다고 한다. 까꾸리는 이월에만 특별히 매다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부엌의 한 자리에 달아 둔다. 과거 까꾸리는 제물로 쓸 좋은 고기를 걸어 말려 둘 수 있는 저장고 기능과 함께 영등할머니의 신체 기능을 했다. 창포리 대부분의 가정에 까꾸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좋은 고기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집으로 들어오는 음식 역시 까꾸리에 올렸다가 먹기도 했다. 또 창포리에서 큰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긴 장대를 세워 두고 좋은 고기가 잡힐 때마다 걸어두었다. 까꾸리에 가장 좋은 고기를 걸어두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걸어둔 고기처럼 좋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까꾸리는 그 자리에 일 년 내내 매달아 두며, 이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내기 전 까꾸리에 한지를 묶음으로써 영등할머니가 좌정했다고 믿었다. 까꾸리에 한 번 걸어둔 고기는 이월 초하루가 될 때까지 내리지 않는다.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까꾸리의 고기를 먹어야 할 때는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내려 먹는다. 고양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영등할머니도 나무라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까꾸리에 걸려있는 고기를 철없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훔쳐 먹으면 벌을 받아서 입이 부푼다고 할 만큼 그 영험성이 대단하다고 믿는다. 한편 까꾸리에 한지를 묶어 두었다가 이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그 한지로 연을 만들어 집안의 남자아이에게 날리게 하는 풍습이 전해진다. 초하루에 연을 날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등할머니를 맞이하는 의미이고, 보름에 연을 날리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영등할머니를 배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재는 행해지지 않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2리에서도 정월에 물고기를 새로 잡아 오거나 집 안에 물건이 들어오면 '영등갈쿠리'에 먼저 매달아 놓는다.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에서도 정월대보름부터 '영등깔꾸지(정제깔꾸지)'에 그날 잡은 고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매단다. 그러다가 이월 초하루에 그 고기를 내려서 찐 다음 영등상을 차린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생업차이에 따른 영등신앙의 존재양상**(김미주,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세시풍속 2**(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김미주(金美珠)**

예조(豫兆)

정의 앞날을 예언하는 징후. 사람들은 어떠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곧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에 대한 예조라고 생각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무엇으로 현몽 또는 신비한 종교체험, 일상과 다른 어떤 특이한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꿈에 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와 같은 문헌에 종종 나타난다. 가령 『삼국유사』「기이(紀異)」 1 동부여조에 의하면 북

부여 왕 해부루의 재상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천제가 나타나 이곳에 자신의 자손이 나라를 세울 것이니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을 권한다. 아란불이 왕을 설득하여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했다.

특이한 일을 통해 앞날을 예견하는 경우도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 애장왕조에는 두꺼비가 왕의 죽음을 예견하는 괴이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역시 「백제본기(百濟本紀)」에는 의자왕 20년 4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여드는 변괴가 있은 후 나라가 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가정신앙에서 앞날을 예언하는 예조는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현몽이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예조현상으로서 가신의 좌정 경위와 신앙행위의 지속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준다. 꿈에 족제비나 구렁이를 보고 터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례,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 삼신으로 들어앉겠다고 말해 모시게 된 사례는 가정신앙 좌정 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돌아가신 조상 또는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가 꿈에 자주 나타나 근심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거나 무엇인가를 이야기 해주려는 듯한 모습을 본 뒤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다는 사례 역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현몽을 통한 예조이다.

둘째는 집안에서 모시고 있는 신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통해 앞날을 예견하는 경우이다. 주로 업을 모시는 가정에서 나타난다. 사람의 형상, 족제비 혹은 구렁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업이 붙어 있는 가족 누군가에게 변고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모시고 있는 조상단지 또는 터줏단지에 벌레가 생기는 것 역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집안의 우환으로 앞날을 예견하는 경우이다.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그밖에 좋지 않은 운수가 계속될 때 그 원인을 찾아 처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환 자체가 예조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주로 모시고 있는 가신을 소홀히 하였다든가, 가신을 모셔야 할 상황임에도 모르고 방치하였다가 화를 당한 경우가 많다. 우환이 있으면 점복자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사건을 해결한다.

평상시에는 가족들이 지닌 가정신앙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집안에 변고가 있거나 현몽을 통해 신격을 만난 경우 믿음은 극대화 된다. 즉 미래를 예언하는 예조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행위를 지속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가정신앙관련 종교체험 사례 일고**(김명자, 한국무속학 18, 한국무속학회, 2009), **현몽계시 꿈의 양상과 의의**(안혜경, 제10회 실천민속학회 동계 발표요지, 실천민속학회, 2003), **현몽을 통한 조상의 보호와 A가의 믿음**(오선화,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필자 **오선화(못善花)**

오곡밥

상호참조 보름고사(211쪽)

정의 중요한 곡식 다섯 가지로 지은 밥. 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에 지어서 집안의 여러 가신(家神)에게 올린 다음 식구나 이웃 간에 나누어 먹는다. 더러는 이월영등일에나 용왕제를 지낼 때 오곡밥을 지어 올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찰밥, 잡곡밥, 오곡잡밥 등으로 부른다.

역사 오곡밥의 역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내용물로서 오곡밥이고, 둘째는 명칭으로서 오곡밥이다. 오늘날 오곡밥의 시원에 해당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밥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射琴匣)조에 '찰밥[糯飯]'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소지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를 나갔다가 쥐, 까마귀, 돼지의 신이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왕실의 분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쥐가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라고 하여 이를 추적하는 데 말을 탄 기사가 동원되었다. 이로써 나라 풍속에 매년 정월 첫 번째 돼지날 · 쥐날 · 말날에는 모든 일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며, 15일을 오기일(烏忌日, 까마귀 제삿날)이라 하여 찰밥[糯飯]으로 제사지내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것을 달도(怛忉)라 하니 슬퍼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을 금기하는 뜻이다.

이 기록을 보면 정월 대보름에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까마귀는 왕을 살린 영험한 조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왕을 살리는 데 기여한 다른 동물은 모두 띠동물인데, 오직 까마귀만이 띠동물이 아니란 점이 주목된다. 대보름 까마귀 제삿밥은 오곡밥이 아니라 찰밥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보름 오곡밥의 연원이다. 조선시대의 『동경잡기(東京雜記)』 풍속조 나반제오[糯飯祭烏]항,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상원(上元)조에는 '찰밥[糯飯 또는 糯米飯]'이라 하였다. 또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약밥[藥飯]'이라고 하였다. 다만 『경도잡지』에는 찰밥과 약밥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에는 찰밥과 별도로 '오곡잡밥[五穀雜飯]'이 처음 등장한다. "정월대보름날에 오곡잡밥을 지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제삿밥을 나누어 먹는 옛 풍습을 본받은 것이다." 이는 명칭상 오곡밥에 해당하는 최초의 '오곡잡밥'에 대한 기록이다.

형태 정월대보름날 오곡밥의 이름은 오곡밥, 찰밥, 약밥, 잡곡밥 등으로 다양하다. 재료 또한 제법 융통성이 있었다. 오곡밥의 재료가 되는 오곡은 대체로 찹쌀, 팥, 수수, 차조 또는 기장, 콩으로 파악된다. 그것도 반드시 5종의 곡식을 넣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찹쌀이나 차조와 같이 찰기 많은 곡식을 넣은 것은 곡종이 같아도 속성에 차이가 있는 곡식을 이용했다는 뜻이다. 이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는 의례음식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속성을 무시하고 곡종을 중심으로 오곡밥의 재료를 다시 정리하면 쌀, 팥, 수수, 조 또는 기장, 콩이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찹쌀 대신 멥쌀을 이용하기도 하며, 보리쌀을 넣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보리쌀은 평소 흔히 먹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오곡밥이라는 의례음식에서 제외되는 편이다.

오곡밥의 재료가 고정적이지 않은데도 그 이름을 오곡밥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구성물의 내용보다 오곡 개념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즉 오곡밥에서 명명되는 오곡은 구체적인 5종 곡식이라기보다 추상적인 5종 주곡을 말한다. 그러면서 오곡의 내용 구성은 개별적 · 지역적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5종 주곡이다.

오곡밥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지역에서는 '찰밥'이나 '잡곡밥'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경기 · 충청 · 강원도지역에서는 주로 '오곡밥'이라고 불렀다. 찰밥이나 잡곡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오곡을 넣는다고 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더러는 찹쌀, 팥, 밤, 대추, 곶감 등을 재료로 하여 짓기도 하였다. 반면에 충청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오곡밥의 재료는 찹쌀, 팥, 수수, 차조 또는 기장, 콩이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 주로 먹은 '약밥'의 재료는 찹쌀, 팥, 밤, 대추, 곶감, 꿀이었다. 그런가하면 약밥은 찰밥이나 오곡밥과 달리 대보름 별식의 기본식이라기보다 추가식에 해당한다. 『경도잡지』에는 '찰밥'에 대추, 밤, 잣을 넣고 꿀, 기름, 간장을 넣어 버무려서 다시 찐 것을 '약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약밥은 찰밥에서 다시 변형 · 파생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보름을 전후하여 먹는 찰밥, 약밥, 오곡밥은 동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찰밥을 먹는다고 하는 지역은 평소에 주로 먹는 메진 음식과 다른 차진 음식을 중시하고 오곡밥을 먹는다는 곳에서는 대표적인 곡종을 두루 갖춘 오곡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약밥은 글자 그대로 약용이나 의례용, 주술용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내용 정월 열나흗날이나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 찰밥, 잡곡밥을 지을 때는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지어서 집안 곳곳의 가신이나 잡신에게 올린다. 어떤 곳에서는 부엌의 조왕에게만큼은 밥솥째로 올린다. 오곡밥을 다른 반찬과 함께 상에 차려서 올리기도 하고, 반찬 없이 오곡밥 그릇에 수저만 갖추어서 올리기도 한다. 그런 다음 가족이 나누어 먹는다. 가신에게 오곡밥을 올리는 풍속은 가신이 그 집의 일 년 농사의 풍년, 가족의 건강, 가정의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때로는 하찮은 신격이 있는 듯한 외양간, 변소 등에도 오곡밥을 올리거나 뿌린다. 하찮은 신격도 사람에게 액운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즐겁게 한 셈이다. 드물게는 정월대보름날에 소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먹이기도 했다. 농사짓는 데 가장 큰 일꾼인 소도 평소에 먹지 못하는 오곡밥을 먹고 힘을 길러야 일을 잘하고, 그래야 풍년이 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박백수 씨 댁에서는 매

넌 대보름에 찰밥을 올리고 고사를 지낸다. 순흥면 일대 주민들은 대보름날 가장 이른 시간에 '두레골 성황제'를 지낸다. 박씨는 성황제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와서 대보름고사를 올렸다. 안방에 마련한 고사상에는 찰밥(오곡잡밥), 콩나물국, 냉수, 나물(배추나물 한 그릇, 여러 가지 함께 담은 나물 한 그릇), 탕(쇠고기, 무, 두부 혼합), 과일(대추, 밤, 곶감 한 접시씩), 강정(한 접시), 술(막걸리 한 잔), 촛불(두 자루)을 차렸다. 찰밥에는 숟가락을 꽂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술 한 잔씩 올리고 절을 하였다. 부인은 비손을 겸했다. 고사가 끝나자 곧바로 음복을 하였다. 음복상에는 과일을 제외하고 고사상에 올린 모든 종류의 음식이 차려졌다.

한편 음력 이월초하룻날 '영등할머니'를 모실 때 오곡밥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이것을 '농사밥', '바람밥'이라고 불렀다.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다. 영등날의 기상상태를 통해 일 년 농사를 미리 점치는 풍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사밥이라는 오곡밥에도 농사의 풍년을 비는 의미가 있다.

『동국세시기』 상원조에 보면 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곡식 이삭을 매어 단 장대를 세우는 풍속이 소개되어 있다. 농가에서 이처럼 장대하고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은 곡식 형상의 솟대를 만들어 세우는 것은 모든 곡식(또는 오곡)이 풍요롭게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에 오곡밥을 먹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오곡밥이 아니라 조리하지 않은 오곡으로 의례를 행하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동 동점마을에서는 동토를 제거하기 위해 쌀, 콩, 팥 등 오곡잡곡을 볶아서 동토가 난 곳에 뿌리거나 부적을 써 붙이기도 한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는 '조왕동티'로 눈이 심하게 아플 때, '하늘레기'(하눌타리) 안에 죽을 쒀서 담고 오곡과 쇠붙이 다섯 조각을 동티가 난 장소에 묻는다고 한다. 이런 주술은 오곡이 지닌 어떤 신성한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사례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언제말과 안말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과 나물을 터주와 성주 등 가신에게 올리고 배 밭에도 한 그릇 가져다 놓는다. 부인이 음식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비손한 다음 거두어들인다. 고사라고 하지 않고 그저 집안을 지켜주는 가신과 조상, 이 댁 농사의 중심인 배 밭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시흥시 계수동 건지정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보름고사'를 지낸다. 이때 오곡밥을 해먹고 나서 팥 시루떡을 쪄서 고사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성주, 터주, 칠성에 올리고 축원한 다음 가족과 이웃이 나눠 먹는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찰밥(오곡밥)을 지어 먹는다. 남보다 먼저 떠온 용물로 지은 찰밥을 각별히 '용밥'이라고 부른다. 고령군 쌍림면 하거1리 학곡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용왕을 먹인다. 용왕은 신작로 밖의 냇가에 가서 먹였다. 이때 사용하는 제물로 잡곡밥, 나물, 소금, 떡을 준비해 간다.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농사밥'을 지어 조왕, 시준, 성주, 나락창고, 두지 등에 올린다. 농사밥은 좁쌀, 찹쌀, 멥쌀, 콩, 팥으로 지은 오곡밥이다.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안조실과 약밭골에서는 이월초하룻날에는 '영등할매'가 내려온다고 한다. 영등은 부엌의 부뚜막 위에 음식을 차리고 위한다. 가정마다 차리는 음식은 자기 성의대로 장만한다. 밥 또한 가정에 따라 흰밥을 하거나 오곡밥을 한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도동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농사밥'을 짓는다. 농사밥은 잡곡밥이다. 이를 '찰밥'이라고 한다. 밥은 솥에다 가득 해서 먼저 부엌에서 조왕을 위한 다음 방에 들어가 조상을 위한다.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농소마을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에 영동할매를 모시기 위해 바람을 올린다. 바람을 올릴 때는 잡곡밥(오곡밥)을 한다. 이를 '바람밥'이라고도 부른다. 짚단을 하나 깔아두고 양푼에 밥을 담아서 나물과 함께 장독대에 정성껏 올린다. 또한 박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바치고 소지를 올리면서 일 년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갈산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지어 성주상, 지앙상, 선영상을 차렸다. 소가 있을 경우 소 옆에 오곡밥과 나물을 올린 상을 차려주었다. 곡성군 입면 약천리 약천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철륭을 위한 찰밥을 마련한다. 철륭은 집의 터를 관장하는 신격이다. 지신, 터주신이라고도 한다. 철륭이 센 곳, 즉 집터의 기운이 센 곳에서는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팥이든 찰밥을 해서 장독대에 놓는다. 담양군 용면 용연리



대보름고사 상차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2007.3.4
배영동

분통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해서 문 앞에 놓아둔다. 이 밥을 '거리밥'이라고 한다. 오곡밥을 차려놓기도 하지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뿌려놓고 잡귀를 몰아내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외천2구 담안 · 진바위 마을에서는 거리제를 정월 열사흗날에 주로 지낸다.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오곡밥, 막걸리, 팥떡, 청수, 나물, 삼색실과, 밤, 대추, 옥춘 등이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사기소마을에서는 예전에 정월 열나흗날 저녁까지 보리밥을 먹고 대보름날 아침에 오곡밥을 먹었다. 대보름날 차례를 지낼 때는 성주께 양푼처럼 큰 그릇에 오곡밥을 퍼서 숟가락을 꽂아 올리고 나물도 종류별로 담아서 올렸다.

의의 한 해가 시작될 때 일 년 동안 무사하고 평안하며 그해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의식은 고대부터 있었다. 오곡밥을 먹는 풍속은 연초에 해당하는 정월대보름날에 그해 농사에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란 민속의 하나이다. 다만 오곡밥을 사람이 먹기 전에 집을 지켜주는 가신에게 먼저 바쳐서 가신을 존중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온 가정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와서 찰밥과 오곡잡밥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므로 남부지방에서는 지금도 오곡밥이라는 말 이외에 찰밥이나 잡곡밥이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든지 찹쌀을 비롯한 오곡이 들어간다는 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하다. 오곡은 구체적으로 한정된 5종 주곡이라기보다 대표성이 있는 5종 주곡이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곡의 구성물은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의 상황에서 오곡은 보리, 콩, 조, 팥, 기장 가운데서 4종과 쌀이었다. 그런데 오곡밥은 찹쌀, 팥, 수수, 차조 또는 기장, 콩 등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곡밥에서는 오곡 가운데 평소에 자주 접하는 보리가 빠지고, 쌀은 찹쌀이며, 조도 차조로 바뀌었다. 찰진 곡식으로 지은 밥이라는 점에서 오곡밥은 신라 소지왕 때 찰밥의 전통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 오곡밥을 먹는다는 것은 오곡이라는 곡식을 고루 갖추어 지었다는 의미이고, 오곡을 다 지었다면 모든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오곡은 본디 오행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곡식이라는 뜻으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오곡밥을 지으면 가족을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여긴 가신들에게 먼저 올린 다음에 먹은 것이다. 나아가 이웃끼리도 나누어 먹는 것은 행여 가난하여 먹지 못한 이웃에게도 베푸는 의미가 된다. 또한 정월대보름날뿐만 아니라 이월영등일에도 오곡밥을 올리는 등 모두 일 년 농사의 시작단계에서 풍년을 염원하고 예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京雜記,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곡식에 대한 신성관념과 의례의 의미(배영동, 농업사연구 8, 한국농업사학회, 2009), 오곡의 개념과 그 중시의 배경(배영동, 민속연구 8,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배영동(裵永東)

오방지신(五方之神)

상호참조 방위가리기(197쪽)

정의 집터의 동 · 서 · 남 · 북 · 중앙에서 집터의 안전과 보호를 주관하는 신. 오방지신 중에서 중앙신에 해당

하는 신을 터주신으로 여긴다. 이 터주신은 지역에 따라 터줏대감, 토지대장, 지신 등으로 칭하면서 지신과 터주신이 혼용되기도 한다. 지신의 성소(聖所)는 마당으로 여겨지지만 집 안에서 오방지신을 이 방위에 따라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방지신의 신체(神體) 역시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지신과 터주신을 함께 모시기보다는 터주신만을 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역사 지신에 대한 문헌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奇異)」 2의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조에 처음 보인다.

> 또 동례전에서 연회를 베풀 때 지신이 나와 춤을 추어 지백급간이라 이름했다
>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이는 신라 헌강왕(875~886 재위) 때의 기록으로, 지신이 실제 출현했다기보다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자에게 지신이 내려 춤을 추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신에 대한 관념이 요즘과 같이 집터를 관장하는 지신이었는지 어떤 마을이나 나라를 지켜주는 지신, 즉 천신에 대비되는 신격으로서의 지신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지신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석전 · 기우 · 안택(釋奠 · 祈雨 · 安宅)』에서 토주(터주)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지신과 터주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토주 : 택지(宅地)의 주재신인 오방지신 가운데 중앙신이다. 다른 사방신을 통괄하여 택지의 안전과 보호를 관장한다. 토주대감, 기주, 후토주임, 대주, 지신 등으로도 부른다. 신체는 작은 항아리 속에 백미 또는 나락, 수수 등 곡물을 넣어 짚가리로 씌운 것이다. 보통 뒤뜰 또는 장독대의 구석에 안치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집터를 지키는 다섯 방위의 신들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신이 터주신이며, 이 터주신이 바로 택지의 보호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터주신을 토주대감, 기주, 후토주임, 대주, 지신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니 터주신이 바로 지신을 지칭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에 발표된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는 가택신 중 터주신[土主神]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터주신[土主神] : 우리나라 민가(民家)에서는 터주신[土主神]을 신봉(信奉)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 의식(儀式)을 보면 쌀과 베[麻布]를 오쟁이에 넣어 부엌 뒷벽에 달아두고 비단을 사와서 그 척두(尺頭, 토끝)를 잘라 볏짚으로 신탁(神橐)에 주렁주렁 매달아 마치 면점(麵店)의 사지(絲紙)모양같이 만든다. 요즈음 풍속에 면점에서 종이를 오려 농두(籠頭)에 달아 놓는데 그것을 사지라 하며, 이를 초패(招牌)라 한다.
> 시월에 추수가 끝나면 집집마다 가택신사(家宅神祀)를 올린다. 무녀들의 작법(作法)이 성주(城主)를 먼저 하고 터주[土主]를 뒤에 하므로 터주[土主]풀이를 후전(後殿)풀이[뒷전풀이, TuchonPuri]라 한다.
>
> 土主神 : 我俗人家奉土主神, 其儀以米與布, 盛之藁橐, 置于竈之後壁, 凡家買匹緞, 剪其尺頭, 俗名토끗 懸掛神橐, 如麵店絲紙之樣, 今俗麵店剪紙條懸籠頭名曰絲紙卽招牌也, 十月農畢, 安宅神祀, 巫女作法, 先城主而後土主, 故土主釋謂之後殿釋, 「뒤젼푸리」(Tu Chon Puri)

이 글에서는 터주신의 신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쟁이에 쌀과 벼를 넣은 것으로 터주신의 신체를 삼는 것은 대부분 햇곡식을 담은 항아리를 터주의 신체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터주의 신체를 부엌 뒷벽에 걸어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터줏가리를 뒤뜰이나 장독대 옆에 모시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터주풀이를 후전풀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 뒤에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터주신을 뒷마당[後殿]에 모셨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조선무속의 연구-하』에서는 가제(家祭)의 장소에 대해 서술하면서 터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지금 경성 지방의 민가에 관해서 말하면…… 뒷마당의 구석 또는 장독대 옆 등에 있는 높이 2, 3척의 짚가리에 금줄을 감아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 여기에 짚주저리를 덮어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터주 즉 택지신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것을 터줏가리 또는 대감주저리라 부르며, 그 속에 햇곡물을 담은 항아리를 안치해 두고 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에서 본 한 민가에는 뒷마당 장독대 옆에 두 개의 짚주저리가 있는데, 하나는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에 구운 항아리에 나락을 담아 텃대감[基大監]을 제사 지내고, 다른 하나는 하얀 항아리에 흰 쌀을 담아 업왕대감(業王大監)을 제사 지냈다.
> …… 성소(聖所)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방(부엌)에는 조왕(竈王), 마당에는 지신(地神), 변소에는 측신(廁神) 즉 부출각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 …… 택지의 구석에서 대감주저리를 볼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뒷할망이라 부르며, 남부지방에서는 뒷마당의 약간 높은 곳에 금줄을 치고 한 그릇의 맑은 물을 올려 터주를 제사 지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경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주 및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도 터주를 모시고, 터주는 집의 뒷마당에 모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터주의 신체는 햇곡물을 담은 항아리가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기록들을 통해 오방지신보다 지신, 토주신, 터주신 등의 기록에서 오방지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오방지신은 집터를 관장하고 보호하는 집안의 동 · 서 · 남 · 북 · 중앙에 거하는 각각의 지신이며, 그 중앙신이 바로 터주신이다. 터주신을 지신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가에서는 토주신과 지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오방지신은 집터를 관장하고 보호하는 집안의 동 · 서 · 남 · 북 · 중앙에 거하는 각각의 지신이다. 이 중에서 다른 사방신을 통괄하는 중앙신을 터주신이라고 한다. 지신은 토주신, 터주신과 혼용되어 왔다. 또 지신의 신체나 지신보다 터주의 신체나 터주신에 대한 의례가 훨씬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지신이 터주신보다 실체는 미약하지만 현지조사에 따르면 지신에 대한 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신에 대한 의례는 안택굿을 하는 정초나 가을에 주로 보인다. 안뜰이나 안마당에 쌀을 묻거나 간단한 상을 차려서 절을 하면서 풍농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례를 진행하면서 경(經)이나 축(祝)을 읽기도 한다. 여기서 전해 오는 자료를 통해 지신과 터주가 다른 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신축원(地神祝願) : 경성무녀 배경재(裵敬載) 전승〉

남디신 녀디신에 동의디신 남의디신
서의디신 북의디신, 한가운데 음당지신
이집 일울 때에
디신할아버지는 무쇠천륙 입으시고
무쇠장군에 물을길어, 이 와가를 일욱하고
디신할머니는 무쇠치마 입으시고
이원당을 일욱헐 때
흙도싸고 돌도주어, 쳔년디덕지엿구나
아홉아들 한쌀애기, 일곱손쥬를 거느리시고
주야사철 쉬지안코, 이 와가를 일욱해서
쳔년디덕(千年地德) 늘여주고, 만년디덕 늘이여서
부쟈되게 도와쥬고, 쟝쟈되게 도와쥬고
거부(巨富)에 일부되고, 조선에 소문나고
텬하각국에 명예나게
도와주신 디신할머니, 디신할아버지
만만이 도와줍소사

〈터쥬축원[基主祝願] : 경성무녀 배경재(裵敬載) 전승〉

남터쥬 녀터쥬, 은터쥬 금터쥬
농의터쥬 졔추터쥬, 부즁터쥬 령감터쥬



터주위하기
경기도 수원시 평동 당굿, 2005.2.19
시지은

마누라텨쥬 셔방님터쥬, 이기씨터쥬 도령님터쥬
처녀터쥬 터왕텨젼에 원쥬터쥬 집주터쥬
허씨대쥬 나갈졔 빈바리
들어올졔 챤바리, 수레대여 실어들여
먹고남게 도와쥬고, 쓰고남게 도와쥬고
삼재팔란 손재실물 원경쳔리 소멸하고
밤이되면 불이밝고, 낫이되면 물이맑고
수화텬명을 갓추맑혀 주옵소사

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신축원에서는 방위마다 지신을 읊고 지신 할머니와 지신 할아버지에게 자손 번창과 집안 번성, 터주축원에서는 집안 식구대로 터주신을 읊고 명과 복을 각각 기원하고 있다. 이같이 신의 종류도 다르고 기원하는 내용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지신과 터주가 애초에 별도로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 오방지신을 위하는 지신경을 찾아볼 수 있어 지신에 대한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방토주지신 : 지신경〉
나무 태극 지신래 조아 나무 황극 지신래 조아
나무 동방 청제 지신래 조아
나무 남방 적제 지신래 조아
나무 서방 백제 지신래 조아
나무 북방 흑제 지신래 조아
나무 중앙 황제 지신래 조아
나무 일육 지신래 조아 나무 이칠 지신래 조아
나무 삼팔 지신래 조아 나무 사구 지신래 조아
나무 오십 지신래 조아 나무 건방 지신래 조아
나무 간방 지신래 조아 나무 손방 지신래 조아
나무 곤방 지신래 조아 나무 임자방 지신래 조아
나무 계축방 지신래 조아 나무 간이반 지신래 조아
나무 갑묘반 지신래 조아 나무 울진방 지신래 조아
나무 손사방 지신래 조아 나무 병오방 지신래 조아
나무 정미방 지신래 조아 나무 곤신방 지신래 조아
나무 경유방 지신래 조아 나무 신술방 지신래 조아
나무 건해방 지신래 조아 나무 상계 지신래 조아
나무 중계 지신래 조아 나무 하계 지신래 조아
나무 성조 지신래 조아 나무 전문 후방 지신래 조아
나무 전정 후정 지신래 조아 나무 주중 지신래 조아
나무 대청 지신래 조아 나무 교방 지신래 조아
나무 마개 지신래 조아 나무 원단 지신래 조아
나무 대문 지신래 조아 나무 청칙 지신래 조아
나무 오방 오색토 지신래 조아
나무 오방 오색토 장군 지신래 조아
나무 오방 오색토 용왕 지신래 조아
나무 오방 오색토 관관 지신래 조아
나무 오방 오색토 동자 지신래 조아
나무 여시 각위제 지신래 조아
상당 온호 안호 택중 무유 흉화 부귀 길창
소구 개득 현관 구설 일시 소멸 오토지신
터주할매 일체 하강 하옵시고
○○씨 궁전 ○씨 명당 구버 살펴 주실 적에
오토지신님과 터주 할머니 언덕이 아니라 하오리까
금일날로 일체하강 하옵시고 소구 발원 드리오니
지신님과 터주할머님 전에 빌어 원정 드립니다
옴 급급 여율령 사바하

오방지신과 그 중앙신인 터주신이 지신과 서로 혼용되어 왔지만 역사적인 문헌과 최근의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지신과 터주신이 다른 신이었음이 확인된다. 지신과 터주신 중 터주신에 대한 신체나 의례가 더 일반적이고 명확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신과 터주신이 혼용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지역사례 터주신의 신체가 일반적으로 곡식을 담은 항아리를 볏짚으로 덮어씌운 것이고 그 성소가 뒷마당이나 장독대 옆인 것과 달리 지신에 대한 신체는 뚜렷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오방지신에 대한 의례를 진행하는 지역은 존재한다.

2000년대에 나온 현지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지역에서는 앞마당에 오방지신을 모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강원도 동해지역에서는 햅쌀로 백설기를 쪄서 흰밥, 어물, 삼실과를 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 밭에서 오방신에게 농사 잘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고 한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오방토주지신을 집안의 다섯 방위를 담당하는 신으로 모시고 안택에서 성주상이나 조왕상에 함께 차려서 제를 지낸다. 특별한 제물 없이 큰 양푼에다 메를 담아 숟가락 다섯 개를 꽂아서 성주상 옆에 놓고 지신경을 읽는다.

충남 태안지역에서는 지신제를 따로 지낸다. 지신제는 정초에 법사를 불러서 안택을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부가 단독으로 지신을 비롯하여 집안의 여러 신령을 위한다. 이때 주부는 법사가 행하는 안택을 흉내내어 부엌에서 떡을 쪄서 조왕을 위한 다음 집 뒤란으로 가서 지신을 위한다. 이 지역에서 말하는 지신은 다른 지역에서 모셔지는 터주신과 같다. 태안지역에서는 터주보다 지신이라는 호칭을 쓴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업주저리를 씌운 신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에서도 안뜰 중앙에 쌀 한 홉을 싼 백지를 땅에 묻고 상을 차려서 가장이 재배(再拜)하는 것으로 오방지신을 위한다. 전남 광양, 구례, 담양 등 지역에서 지신은 집터를 이르는 말로 '지신' 또는 '지신철륭'이라고도 하며,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관념된다. 지신을 위해 지신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터제를 지내주기도 한다. 터제는 정월대보름과 가을에 적당한 날을 받아 떡과 돼지머리로 상을 차려서 고사를 드리는 것이다. 지신은 성주, 조왕 다음으로 높은 신이기 때문에 잘 위해주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별다른 의례를 행하지 않는 집안이 더 많다.

의의 오방지신은 집안의 동 · 서 · 남 · 북 · 중앙에서 집터를 지켜주고 가족을 보호해주는 신격으로 여겨지지만 특별히 방위를 따지지 않고 지신으로 섬겨지거나 중앙의 지신이라 여겨지는 토주(터주)와 혼용되기도 한다. 예전 문헌과 최근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지신과 터주신은 애초에 다른 신격이었으나 땅을 관장하는 신, 터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지면서 일반적으로 터주신을 더 많이 모시고 있다. 터주신이 뒷마당에 터줏가리의 형태로 안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지신은 안마당에서 의례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오방의 위치와 개념을 따져서 의례를 지내거나 신체를 모시는 경우는 볼 수 없다. 다만 전해지는 지신경이나 축원에는 각각의 방위에 따라 지신이 읊어지고 있다.

다른 민속에서도 오방(五方)에 대한 행위를 엿볼 수 있는데, 가령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할 때 우물굿에서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적제 용왕님, 중앙황제 용왕님' 하고 외는 것이나 액막이를 할 때 '동에는 청제장군 청마적에 청화장 청갑을 입고……' 하면서 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액을 차례로 막아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을굿에서 유가돌기 또는 돌돌이를 하면서 마을 입구의 사방을 돌아다니며 축원을 하고 부정을 가시는 형태, 무속에서 무당이 텃대감을 놀 때 시루를 머리에 이고 막걸리를 들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에 떡과 막걸리를 던지며 뿌리는 행위는 가정신앙으로서 오방지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방에 대한 개념은 민속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념이다. 이 관념이 집터를 수호하는 지신과 연결된 것이 오방지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악**(정병호, 열화당, 1986), **삼국유사**(일연, 김원중 역, 을유문화사, 2002),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조선무속의 연구-상 ·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조선의 향토신사-석전 · 기우 · 안택**(조선총독부, 1938),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시지은(施知恩)



오방신 제물
충남 금산군 추부면 내부리, 2005.1.14(음)
강성복

오색천

정의 붉은색 · 녹색 · 파란색 · 노란색 · 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천. 주로 서낭나무, 서낭기, 영등대 등에 매달아서 이를 신체(神體) 혹은 신에게 바치는 헌물로 인식하며 배서낭을 모실 때도 오색천을 신체로 모시거나 헌물 등으로 쓴다.

역사 오색천이 언제부터 민간신앙에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오색천이 사용되는 마을신앙이나 무속 등에서 그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마을신앙에서는 서낭당에 오색천 등을 거는 현납속(縣納俗), 무속에서는 오방신장기 등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서낭당에 거는 오색천은 몽골의 오보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돌무덤인 오보의 나뭇가지에 포백편(布帛片), 오색천 등을 거는 현납속이 한국의 서낭당이나 서낭나무에 오색천을 걸어놓는 것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한국의 서낭신앙이 몽골의 오보신앙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면 그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인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반쯤이며, 서낭당에 오색천을 거는 풍속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속에서 사용하는 오방신장기는 다섯 방위의 색과 관련이 있다. 즉 동쪽(파란색)·서쪽(흰색)·남쪽(빨간색)·북쪽(검은색)·중앙(노란색)을 상징하는 색으로 깃발을 만들었다. 각각의 색은 길흉과 명복 등을 상징한다. 무당은 오방신장기를 신자들에게 임의로 뽑게 하여 뽑힌 깃발의 색깔에 따라 운수를 점친다. 무속에서 오방신장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에 쓰여진 『무당내력(巫黨來歷)』에 오방신장기를 들고 있는 무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신앙과 무속에서 사용된 오색천은 가정신앙에서도 사용된다. 개별적으로 서낭에 정성을 들일 때나 영등고사, 배고사 등을 지낼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오색천은 마을신앙, 무속, 가정신앙에서 신에게 드리는 헌물 또는 신체로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형태 오색천은 붉은색·녹색·파란색·노란색·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천을 잘라서 사용한다. 천은 무명을 주로 사용하지만 비단이나 베를 쓰기도 한다. 오색천의 길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서낭에 감거나 거는 오색천의 길이는 보통 일곱 자 일곱 치 정도(약 223㎝)라고 하며, 뱃기로 사용할 때는 한 발(약 150~180㎝) 정도이다. 오색천은 그냥 잘라서 걸거나 접어놓기도 하지만 대나무 등에 매어서 세워두기도 한다. 오색천과 비슷한 유형으로는 오색실과 삼색천이 있다.

내용 민간신앙에서 오색천을 사용하는 경우는 서낭에 오색천을 헌물로 바칠 때, 영등고사나 배서낭을 모시기 위해 대나무 등에 오색천을 달아매어 깃발로 사용할 때, 무속에서 병굿 등을 하는 과정에서 오색천을 갈라 환자를 닦아 줄 때 등이다.

먼저 서낭에 오색천을 바치는 경우는 마을 서낭과 배서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 서낭의 경우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나 개인적으로 서낭에 정성을 들이고자 할 때 서낭으로 인식하는 돌무더기, 서낭나무 등에 오색천을 감거나 걸어놓는다. '서낭님 옷을 입힌다.'라고 하여 서낭님에게 헌물로 바치는 것이다. 사방의 살(煞)을 막아달라는 의미도 있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산멕이를 할 때 나무에 오색천을 맨다. 이 역시 조상님께 옷을 입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배서낭의 경우는 대나무에 오색천을 달아매어 배에 꽂기도 하지만 고사를 지낼 때 오색천을 다른 제물들과 함께 올리기도 한다. 이때 올린 오색천은 다시 접어서 상자 등에 넣어 배에 보관한다.

오색천을 달아 깃발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등고사를 지낼 때 대나무에다 오색천을 달아 부엌 한구석에 꽂아 놓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영등옷'이라고 하며, 영등할미의 신체로 인식한다. 배서낭을 모실 때 오색천을 다는 사례도 있다.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안섬에서 당제를 지낼 때 쓰는 봉죽기이다.

무속에서 굿을 할 때 오색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북 고창군에 사는 안병채 법사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병굿을 할 때 잡신을 털어내기 위한 털임굿 과정이 있다. 이때 법사가 신장칼로 오색천을 갈라 환자의 몸을 닦아 준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삼색천, 오색기, 오색실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4리 대무마을에서는 배서낭을 모실 때 삼색실 세 타래와 삼색 헝겊을 백지로 싸서 모셔둔다. 또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가마미마을에서는 '배선영' 또는 '배당'이라고 하면서 당을 배에 모신다. 배선영은 상자에 오색실, 바늘, 베를 넣어서 모신다.

지역사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1리에서는 음력 시월에 서낭제를 지낸다. 마을에 있는 거목을 서낭으로 여기면서 이곳에 고사를 지내고 빨간색, 파란색 등 화려한 색깔의 천들을 나뭇가지에 묶어 놓는다. 서낭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흥시 군자동 군자봉에서는 평상시에는 대나무와 오색천을 분리한 서낭기를 굿당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매년 성황제를 진행하는 날 아침에 대나무에 오색천을 감는다. 이를 '옷을 입힌다.'라고 한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1리 소라실마을에는 고갯마루에 서낭이 있다. 아이가 운이 좋지 않거나 병이 나면 '서낭치기'를 한다. 이때 헌물로 오색천을 바치기도 한다. 이는 서낭신이 여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산군에 사는 양선주 보살에 따르면 서낭제를 지낼 때 서낭에 오색천을 매달아 놓는다고 한다. 이는 서낭에게 사방 어느 방향을 다니더라도 살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오색천을 묶지 않고 '신을 모시는 사람'만이 묶는다고 한다.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의 서낭나무에도 오색천이 감겨 있었다.

청양군에 사는 강화선 법사와 이순례 만신에 따르면 서낭제를 지낼 때는 돼지머리, 떡, 막걸리, 통명태, 청수, 오색천 등을 준비한다. 오색천은 수비(악귀를 따라온 귀신)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서낭에 매달아 놓는다고 한다.

아산시에 사는 이석분 보살에 따르면 서낭제를 지낸 뒤 일곱 자 일곱 치 정도로 다섯 가지 색의 천을 잘라서 서낭께 오색무지개 옷을 입히고 돌아온다고 한다. 연기군에 사는 김진환 법사에 따르면 서낭은 서낭장군·서낭대감이라고도 부르며, 동네로 들어오는 대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서낭은 마을 어귀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으로, 이곳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서낭제를 지내고 나서 오색천을 걸어 놓는다. 이것을 '서낭옷을 입힌다.'고 표현한다. 천안시에 사는 이은정 보살도 서낭제를 지내고 나면 서낭나무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여 오색(청·녹·황·적·백)의 천을 매달아 두고 돌아왔다고 한다. 떼어낸 헌것은 불사른다.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안섬에서는 당제를 지낼 때 오색천을 봉죽기에 단다. 봉죽기는 뱃기의 일종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만선의 기쁨을 알리는 깃발이다. 뱃기는 단색, 삼색, 오색으로 만든다. 이를 각각 외폭기, 세폭기, 오폭기라고 한다. 깃발의 최상부에 꽃장식을 길게 늘인 서리화를 매고 그 아래에 청·홍·백의 삼색천 또는 황색과 녹색을 더해 오색천을 달았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산멕이를 할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삼척시에 사는 김동철 법사에 따르면 산멕이를 마친 뒤 오색천을 찢어서 산나무에 매고 돌아온다. 이는 산멕이를 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조상 옷을 해입힌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어떤 집안에서는 나무 여러 그루에 천을 빙 둘러 놓고 오기도 한다. 태백시에 사는 김해당 보살은 말명을 모실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옛날에는 양반 집안에 무당이 나면 그를 가두어서 굶겨 죽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원귀가 된다. 이를 잘 위해 주어야 집안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믿어서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터주에 넣고, 메밀 농사를 마치면 햇메밀을 수문말명에 넣는다. 이때 베 한 조각을 함께 넣어 신체로 삼는다. 베를 구하기 힘들면 오색천을 대신 넣기도 한다. 또한 강원도 강릉단오제 중 국사성황제를 할 때 성황신이 강림했다고 믿는 신목에 오색천을 거는데 이를 "에단을 입힌다."라고 한다.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는 영등고사를 지낼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영등고사는 주부가 부엌에서 직접 지낸다. 제물을 모두 차리고 나면 그 앞에 오색 헝겊을 가져다 놓는다. 영등고사가 끝난 뒤 다른 집의 오색 헝겊을 훔쳐다가 골무를 만들어 쓰면 바느질이 잘된다는 속신이 있다. 다른 집의 오색 헝겊을 훔치지 못하면 자기 집안에서 영등고사 때 쓴 헝겊을 훔치는 시늉을 하고 써야 효과가 있다. 울릉군 북면에 사는 손씨 보살에 따르면 영등고사를 지낼 때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헝겊을 대나무에 색실로 묶어서 신체로 삼는다고 한다. 닭이 울자마자 마을 우물에 가서 남들보다 먼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부엌으로 옮긴 다음 헝겊을 묶은 대나무를 물바가지에 담가놓는다. 그리고 제



은산별신제 오색천
충남 부여군 은산리, 2004.3.24, 김태우

물을 다 차린 다음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 '이월 할맘네'가 내려온다고 하여 삼색천으로 '할맘대'를 만든다. 할맘대는 할맘네의 신체로 인식한다. 대나무 끝을 50㎝ 크기로 잘라 대나무 가지에 빨강, 하양, 검정의 삼색천을 걸어둔다. 이 할맘대는 부뚜막에 세워 놓고 그 앞에 물을 떠 놓는다. 경북 경산지역에는 음력 정월대보름에 가축의 질병 퇴치와 건강을 위해 왼새끼줄이나 복숭아나무 가지를 소, 개 등의 목에 걸어주는 '목서리(목도리)'라는 풍속이 있다. 이때 줄을 오색천으로 감싸기도 한다. 오색천은 무색의 헝겊이며, 신령들에게 바치는 매우 중요한 보편적인 폐백이다. 이를 왼새끼줄에 입힘으로써 목서리의 신성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영등할매 옷을 만든다. 빨간색 · 파란색 · 노란색의 오색실을 매어 시렁 위에 꽂아 놓거나 달아 놓는다.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죽전마을과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등에서는 대나무 한 개를 꺾어서 그것을 쪼갠 다음 오색 헝겊이나 실 또는 소지를 달아 '영등옷'을 만든다. 이것을 부엌 시렁 위에 세워 놓거나 틈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구석에 세워 놓기도 한다.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선장마을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 '영동할미제' 또는 '바람 올리기'를 지낸다. 부엌 바닥에 자리를 깔고 떡, 밥, 나물, 과일 등 음식과 함께 삼색천을 진설한다. 제를 마친 뒤 삼색천은 대꼬챙이에 달아 장독간에 세워둔다. 이는 영동할미가 잘 내려오라는 의미이다.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에서도 영동할미제를 지낼 때 대꼬챙이에 오색천이나 소지를 꽂아 선반이나 부엌문 옆에 세워뒀다가 제의가 끝나면 달리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태운다. 오색천을 다는 이유는 오색천이 나부끼듯 영동할미가 잘 내려오라는 의미라고 한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에서도 음력 이월 초하루에 '영두할매고사'를 지낸다. 이때에도 제물 앞에 오색천을 놓는다. 이를 영두할매의 신체로 인식한다. 고사가 끝나면 오색천은 태워 없앤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사는 동순옥 보살은 가정에 낀 살을 푸는 살풀이를 할 때 오색 베를 이용한다.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입암마을이나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 영동할미제를 지낸다. 이때 제물과 함께 소지와 물색 천이나 오색천을 대꼬챙이에 꽂아 놓아둔다. 여기에서도 영동할미에게 바친 천으로 골무를 만들면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하고, 소지에 글을 쓰면 아이의 글솜씨가 좋아진다고 믿는다.

전북 부안군 계화면 상리 계상마을에서는 배에 서낭을 모실 때 조그마한 상자를 짜서 그 안에 단지를 넣고 모신다. 단지 안에는 쌀, 실, 베, 삼색천을 넣어둔다. 고창군의 안병채 법사는 병굿을 할 때 잡신을 털어내기 위한 털임굿 과정에서 오색천을 사용한다. 즉 법사가 신장칼로 오색천을 갈라 환자의 몸을 닦은 다음 명태에 일곱 매듭으로 묶는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서는 배고사를 지낼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배에 꽂는 기는 크기가 한 발 정도 되는 오색천이며, 배를 처음 지을 때 마련한 것이다. 명절에만 꽂고 평소에는 접어서 배 안에 보관해 둔다. 목포지역에서는 당거리를 할 때 오색천을 사용한다. 당거리는 배고사와 같은 것이지만 배에서 화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당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오색실과 오색천을 이용하여 당을 만들어서 배의 본당서낭에 놓고 그 앞에 제물과 시루를 진설해 비손한다. 여수시 군자동의 진남관 일대에 사는 박신선 보살은 배고사를 지낼 때 오색천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오색천은 댕기처럼 만든 삼색천으로, 예쁜 색깔로 댕기를 들여 놓고 오색실을 그 위에 놓는다. 그 옆에는 명태를 한 마리 달아 놓은 뒤 그 안에 돈을 넣어서 배에 달아 놓는다.

영광군 염산면 옥실4리 대무마을에서도 배서낭을 모실 때 삼색실 세 타래와 삼색천을 백지로 싸서 모셔둔다. 또한 고사를 지낼 때 오색기를 걸어두고, 배서낭을 모실 때 오색기를 접어서 백지로 싼 삼색천 등과 함께 둔다. 이것을 배서낭이라고 여긴다. 홍농읍 계마리 가마미마을에서는 배에 모시는 당을 '배선영' 또는 '배당'이라고 한다. 배선영은 상자에 오색실, 바늘, 베를 넣어서 모신다. 배선영은 주로 조타실의 높은 곳에 두며, 여성신격으로 인식하여 상자 안에 하얀 고무신을 넣어두기고 하고 명태와 함께 모시기도 한다.

여수시 해산동 해지마을에서는 음력 이월이 되면 '이월함쎄(영등할머니)'를 모신다. 이월함쎄를 모시기 위해서는 조왕을 모시는 곳이나 부엌의 한쪽 구석에 깨끗한 황토를 깔아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꺾어 만든 유지지(벗가릿대)를 세운 다음 오색천과 한지 등을 달아맨다. 화양면 용주리 고내마을에서는 영등할머니를 '이월함네'라고 하면서 이월함네가 내려오면 깨끗한 황토를 떠다가 유지뱅이(벗가릿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오색천을 매단다. 영등할머니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유지뱅이에 매달린 오색천을 잘못 만지면 눈이 멀게 된다고 여긴다. 이월 한 달 동안 유지뱅이를 꽂아놓고 영등할머니에게 공을 드리다가 21일이 되면 유지뱅이를 걷는다. 전북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원덕신마을에서도 음력 이월 초하루가 되면 영등을 맞아들이기 위해 깨끗한 곳에서 꺾어온 대나무를 부엌에 꽂아놓는다. 영등대로 사용하는 대나무는 오색천으로 장식해 놓는다.

제주도지역에는 당신(堂神)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삼색천이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마을 어귀에는 서문하르방당이 있다. 자식을 얻고 싶으면 여기에 와서 빈다. 이때 제물로 시리떡(시루떡), 메, 실과, 일곱 자 걸렛배(띠배), 지전, 실 두 가름, 채소, 해어(海魚) 등과 함께 바락끈(삼색천)을 올린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도 본향당제인 일뤳할망제를 지낼 때 제물로 빨간색 · 노란색 · 초록색 삼색천을 올린다. 대정읍 구억리에서는 본향당인 할망당에 갈 때는 제물로 떡 아홉 개, 사과, 배를 종이 석 장에 골고루 놓고 싼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을 신목에 매달고 "멩실이우다. 복실이우다. 물색을 가정 왕 바첨수다."라고 하면서 빌고 온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강릉시, 1994), **무당내력**(서울대학교 규장각, 민속원, 2005),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태우(金泰佑)**

옥녀각시

정의 신부가 처음으로 시가(媤家)로 가는 신행(新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피해야 하는 방위와 관련된 살(煞)의 일종.

역사 조선 후기에 관과 민에서 두루 사용된 『천기대요(天機大要)』의 방서(方書)에는 옥녀살(玉女煞)이라 하여 월(月)에 따라 닿는 방위로 보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기록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신행일에 따라 피해야 하는 방위로 보기도 한다. 옥녀살이 신행하는 방위에 국한된 관념인 데 반해, 옥녀각시는 신행하는 방위뿐만 아니라 새신부를 비롯하여 친정과 시가의 미래운명을 예견하는 전조(前兆)로도 활용된다. 신행이라는 특별한 의례의 시간과 공간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삶을 예견하고,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민간 주술적인 관념이다. 옥녀각시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살의 일종이므로 그에 관한 역사적 실체는 찾기가 어렵다. 옥녀(玉女)는 도교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하나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여자를 지칭한다. 이러한 옥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각시라는 수식어가 첨가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덕흥리 벽화고분에 도교의 여러 신령과 함께 등장한다. 옥녀는 도교의 신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에서 산신으로 혹은 창조설화속의 거인(巨人)으로 등장한다. 인근에서 가장 높고 깊은 굴이나, 특별한 형상을 지닌 지형지세에 대한 풍수인식체계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곳저곳에 위치한 〈옥녀봉(玉女峯) 전설〉은 옥녀의 신비함이 극화된 것으로, 민간에서 옥녀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옥녀각시는 이러한 옥녀에 대한 관념의 한 분파일 것이다. 옥녀살은 시집가는 신부의 첫길인 신행(新行)에 피해야 하는 방위로 계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환한다.

> 춘삼월(春三月) 동방(東方, 寅卯辰)
> 하삼월(夏三月) 남방(南方, 巳午未)
> 추삼월(秋三月) 서방(西方, 申酉戌)
> 동삼월(冬三月) 북방(北方, 亥子丑)

열두 달을 사시(四時)로 나누어 각기 3개월씩 흉한 방위에 옥녀살이 머문다. 봄에는 동방, 여름에는 남방, 가을에는 서방, 겨울에는 북방에 있다. 이 방위만을 피하면 옥녀살은 피할 수 있다. 옥녀각시는 옥녀살과 마찬가지로 신행하는 방위에 존재하는 살의 일종으로 충남지역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이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청양, 예산, 당진, 공주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옥녀살이 옥녀각시로 변화되었는지는 분명하

지 않지만 이 둘이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옥녀살이나 옥녀각시 모두 첫길을 떠나는 신부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방위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이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비가시적(非可視的) 살(煞)의 일종인 옥녀살은 '옥녀각시', '옥녀각시살' 등으로 불린다. 신부의 첫 신행이라는 시간과 신행하는 길의 방향이 어디인가와 연관하여 피해야 하는 방위이므로 새신부를 상징하는 '각시'라는 용어가 붙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옥녀살이 옥녀각시로 표현되면서 그 내용도 상이해진다. 옥녀살이 신행하는 달과 관련되는 것에 반해서 옥녀각시는 신행하는 날과 관련된다. 한 사례로 충남 청양군의 한 지관(地官)은 신행하는 날짜와 관련해 옥녀각시의 존재를 파악한다. 옥녀살이 열두 달을 4등분하여 석 달씩 살이 해당 방위를 공유하도록 했다면, 옥녀각시는 한 달의 세부 단위인 10일을 5등분하여 4방위에 각기 2일을 배당하고 나머지 2일은 무탈한 날로 간주한다. 1일과 2일에는 동쪽, 3일과 4일에는 남쪽, 5일과 6일에는 서쪽, 7일과 8일에는 북쪽에, 9일과 10일에는 승천(昇天)하기 때문에 옥녀각시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언급되는 또 다른 비인격적인 힘인 '손'과 동일한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날짜의 변화에 따라 해당 방위에서 일을 하면 탈이 난다는 손이 신행일에만 옥녀각시로 표현된 셈이다. 그러나 옥녀각시는 일상 속의 손과 달리 특별한 의례 상황과 결부된 것이므로 옥녀살의 일종이라 하겠다.

옥녀각시는 옥녀살의 다른 표현이지만 그 변화 안에는 옥녀살에 대한 민중의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옥녀살은 신행하는 달의 방향만을 가리도록 되어 있다. 불길한 방위는 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옥녀각시는 그날의 방위를 피했다 하더라도 그 방위가 어디인가에 따라 시가와 친정, 심지어는 새색시 본인의 미래도 예견한다. 옥녀살이 단순히 액을 막기 위한 피방(避方)이라면 옥녀각시는 피방인 동시에 그 방향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전조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신행 가는 신부가 옥녀각시를 '등에 지고 오는지', '품에 안거나 이마에 끼고 오는지', '옆에 끼고 오는지'에 따라 시집과 친정의 행·불행이 좌우된다. 옥녀각시를 등에 지고 오면 친정이 불행해진다. 이런 경우 곧바로 시댁으로 향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을 들려 빙 돌아서 간다. 예를 들어 친정이 논산이고 시가가 공주인데 옥녀각시를 등에 지고 간다면, 곧장 공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산이나 대전 등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나절이면 될 거리를 하루 내내 돌아서 간다. 옥녀각시를 등에 지고 갈 경우에는 친정에 변고가 생긴다. 친정 재산의 일부를 잃거나 식구 중 한 명을 잃게 된다. 딸이 시집간 직후 곧 논 한 마지기를 잃기도 했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한다.

신부가 옥녀각시를 안거나 이마에 끼고 가면 시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혹시라도 시집온 후 집안에 탈이 발생하면 신부 탓을 했다. 이때 '옥녀각시를 앞으로 품고 왔네', '이마에 붙이고 왔네' 하며 신부를 닦달하여 시집살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옥녀각시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의 한 마을에서는 미리 액막이를 하기도 한다. 친정에서 팥 주머니 두 개를 만들어 주면 시댁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이것을 대문에 던지기도 한다.

한편 신부가 옥녀각시를 양쪽 옆구리에 끼고 오면 그다지 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간혹 왼쪽에 끼고 오면 신부의 건강이 나빠지고, 오른쪽에 끼고 오면 새댁이 건강하게 잘 산다고도 한다. 이처럼 옆구리에 끼고 오는 것을 선호했기에 이런 경우 시댁에 들어갈 때도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집의 울타리를 뜯고 옆걸음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한다. 옆에 대한 선호가 각별하다 보니 모든 것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하게 한 것이다.

옥녀살이 옥녀각시가 되면서 동남서북이라는 방위 개념이 옥녀각시의 등, 품, 왼쪽과 오른쪽 옆구리 등 신체 일부를 지칭하게 되었다. 살(煞)이 의인화(擬人化)되면서 방위도 그에 맞게 의인화된 셈이다. 이때 방위의 기준은 친정에서 시집으로 향하도록 선 것으로, 시가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한다. '등=친정', '품 혹은 이마=시집'이라는 등식은 시가가 옥녀각시를 바라보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어느 곳에서든 절대방위는 존재한다. 그러나 방위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품, 이마, 옆구리 등의 상징성이다. 이는 한 사람의 창작물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옥녀살을 옥녀각시로 인식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민중의 소박한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절대방위와 관련된 옥녀살을 옥녀각시의 신체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서 쉽게 각인되고 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옥녀각시의 이러한 관행은 새댁이 시집오는 첫날 닿게 되는 주당(周堂)과 뒤섞이기도 한다. 주당이 대문에 닿으면 신부는 대문을 피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흔히 울타리를 뚫고 들어간다. 주당과 옥녀각시가 발생하는 시점이 동일하기에 개념이 혼재된 것이다.

일단 집안으로 들어간 새댁은 혹시라도 불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손이 없는 방위에 앉힌다. 이는 옥녀각시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때로는 신부가 옥녀각시를 끼고 왔기에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에 앉힌다는 증언을 하기도 한다. 신행의 모든 순간이 주당 혹은 옥녀각시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댁이 시가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시집식구에게나 새댁에게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그 순간에 발생할지 모를 불길한 운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관념이 옥녀각시, 옥녀살, 주당, 손 없는 방위 등을 철저히 따르게 하는 기제가 된 것이다. 간혹 충남지역에서는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이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사하는 방위와 관련하여 옥녀각시가 부각되기도 한다. 옥녀살과 마찬가지로 옥녀각시도 석 달마다 동서남북의 순으로 옮겨간다. 옥녀각시가 없는 방위로 이사 가면 집안에 우환이 들끓기 때문에 역시 피한다. 이외에 처녀로 죽은 딸의 혼을 옥녀각시라 하여 집안에 모시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비운의 조상의 일종인 왕신의 다른 형태일 뿐 방위개념과는 무관하다.

지역사례 지금까지 옥녀각시에 대한 보고는 충남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청양군의 칠갑산 부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홍성, 보령, 서천, 금산, 공주 등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선굿보다 양반굿이라 하여 앉은굿이 유행하는 지역인 동시에 조선 후기에는 유림 세력이 강했다. 옥녀각시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토대 속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신행과 관련한 주당은 전국적으로 두루 확인되지만 옥녀각시가 충남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앉은굿의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서의 유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독경쟁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들에 의해 방서 속의 옥녀살이 언급되면서 강하게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정감록을 비롯하여 동학, 천주교 등 민중종교가 크게 유행했음을 고려할 때 앉은굿 전통과 민중의 정서가 만들어 낸 민중 신앙관념으로 보인다. 옥녀각시에 대한 이해는 지역적인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 충남 홍성에서는 신부가 신행할 때 옥녀각시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면 그 집안이 부자가 되고, 반면에 등에 지거나 가슴에 품고 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한다. 보령에서는 옥녀각시를 옆에 끼고 오거나 등에 지고 오면 신부에게 좋지만, 머리에 이고 오거나 이마에 붙이고 오면 신부에게 좋지 않다고 여긴다.

의의 새댁이 처음 시집으로 옮겨가는 신행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지위로 인해 혼란이 예견되는 순간이다. 이 혼란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술과 종교적 조치를 마련했고, 그중 하나가 옥녀각시이다. 옥녀각시는 옥녀살의 이칭(異稱)으로서 조선 후기 방서류에 신행하는 달에 있는 방위의 신이다. 악신의 하나로 그 방향으로 신행하게 되면 탈을 입는다.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첫 만남에 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완전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기 위한 사회문화적 조치인 셈이다. 더불어 옥녀살을 옥녀각시라는 민간에서 이해하기 용이한 대상으로 의인화하고 방위 개념에서 탈피해 옥녀각시의 신체인 등, 품이나 이마, 옆구리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각인되는 효과를 크게 하였다. 의례적 불안함을 옥녀각시라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통제하고, 기운이 규범화됨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즉 옥녀각시는 신부의 거주 공간 이동으로 야기될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주술적인 관념이 투영된 문화장치인 것이다.

참고문헌 **개정증보 천기대요**(명문당, 1970), **서해와 금강이 만나 이룬 문화**(이해준, 충남역사발전연구원, 2009), **소라실장승제**(이필영 · 심우성 · 김효경, 공주문화원, 1998), **청양지방의 혼속에서 나타나는 옥녀각시 속신에 관한 연구**(김진영, 민속학연구 18, 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인의 일생의례-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필자 **김효경(金孝慶)**

옥녀살

표제어 옥녀각시(497쪽)

올개심니

표제어 올벼심리(504쪽)

올레대위

표제어 문전제(175쪽)

올레신

상호참조 문신(171쪽), 문전제(175쪽)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정살(정낭)에 거처하면서 집안을 보호해주는 신.

예전에 제주도 사람들의 일반 주거는 초가였다. 이에 따라 마을은 초가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올레'라고 하였다. 특히 마을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장자리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정주목, 정주석을 세웠다. 정주목에는 곧은 낭이라는 뜻으로 '정살' 또는 '정낭'을 설치하여 집안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곳에 집안을 지켜주는 주목, 정살(정낭)의 신(神)인 '올레신'이 거처하면서 집안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관념하였다. 그리고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음식을 할 때에는 별도로 대접하여 위하여 왔다.

내용 일만팔천의 많은 신을 모셔왔던 제주도지역에서는 이들 외에도 문전, 칠성 등 가신(家神)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내력담으로는 〈문전본풀이〉가 전해온다. 내용은 남편인 문신과 그의 처인 조왕, 아들 일곱 형제, 그리고 첩(妾)인 변소의 신 간의 이야기로서 계모담(繼母談) 등으로 되어 있다.

문전(門神)의 할아버지는 해만국, 할머니는 달만국이요, 아버지는 남선비, 어머니는 여산 부인이며, 일문전(一門前)은 똑똑하고 영리한 녹디생인이다. 옛날 옛적 남선 고을의 남선비와 여산 고을의 여산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은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은 일곱 형제나 태어났다. 하루는 여산 부인이 남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가 이래서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살 수가 없으니, 무곡(貿穀) 장사나 해보기 어찌합니까?"

남선비는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곧 배를 한 척 마련했다. 쌀을 살 밑천이 마련되자 남선비는 처자 권속과 이별하여 남선 고을을 떠나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갔다. 그곳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간악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남선비가 독선(獨船)을 잡아 무곡 장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을 긁어내려 귀일의 딸은 남선비에게 가 아양부터 떨기 시작했다.

남선비는 매끈한 여인의 아양 소리가 싫지 않았다. 둘이 장기를 두는데 승부는 뻔한 일이었다. 남선비는 타고 간 배도 무곡을 살 돈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이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남선비는 어쩔 수 없이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그녀에게 끼니를 얻어먹기로 했다. 간악한 첩이 남편을 잘 모실 리가 없었다. 집이라곤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수수깡 외기둥의 움막이다. 이 집에서 남선비는 첩이 끓여 준 겨죽만 먹고 지냈다. 이런 생활을 이어가니 몇 해 안 가 눈까지 어두워졌다.

한편 여산 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어 돌아올까, 연 삼 년을 기다리다가 끝내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렀다.

"너희 아버지가 무곡 장사를 갔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무슨 곡절이 있는 성싶다.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하나 지어 주면 너희 아버지를 찾아오겠다."

이튿날 아들 일곱 형제는 깊은 산중에 올라가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 한 척을 지어 놓았다. 여산 부인은 일곱 형제와 이별하여 남선 고을을 떠났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배를 띄워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닿았다. 오동고을에 닿은 여산 부인은 남편을 찾아 헤매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발 가는 대로 길이 난 대로 자꾸만 가다가 기장 밭에서 새 쫓는 아이를 만났다.

"요 새 저 새 너무 약은 체 마라. 남선비 약은 깐에 도 노일제대귀일의 딸 호탕에 들어 수수깡 외기둥 움막에 앉아 겨죽 단지 옆에 끼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쫓고 있다."

이 소리에 여산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산 부인은 아이에게 자세히 물어 남선비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남편은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산 부인은 하룻밤 재워달라 부탁을 했고 남선비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여산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솥을 열어 보니 겨죽이 바닥에 바짝 눌어붙어 있었다. 우선 밥부터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여가니 남선비는 첫술을 뜨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다.

"설운 부인님아,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런 밥도 먹어 보았습니다마는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나도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선 고을 남선비가 됩니다. 무곡 장사를 왔다가 노일제대귀일의 딸 홀림에 들어 이 지경이 되고, 이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아이고 설운 남선비님아, 나를 모르겠습니까? 여산 부인이 됩니다."

남선비는 깜짝 놀라며 부인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이윽고 귀일의 딸이 겨 한 되를 치맛자락에 얻어 들고 들어왔다.

"이놈 저놈 죽일 놈아, 나는 어디 가서 죽을 듯 살 듯 겨 한 되라도 빌려다가 죽을 쑤어 배 부르게 먹이다 보니, 지나가는 년을 끌어들여 만단정화 이르는구나."

"설운 부인아, 그리 후욕을 하지 말고 어서 내 말을 들어 보라. 여산 고을 큰부인이 나를 찾아왔단다."

그 말을 듣자 귀일의 딸은 방으로 들어오더니 상냥한 말씨로 어리광을 부려 가며 큰부인 대접을 했다.

"아이고 형님아, 오뉴월 한더위에 우릴 찾아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우선 시원히 목욕이나 하고 와서 저녁밥이나 해 먹고 놀기가 어떱니까?"

여산 부인은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귀일의 딸의 뒤를 따라 주천강 연못으로 목욕을 나갔다.

"설운 형님아, 어서 옷을 벗으세요. 제가 먼저 등에 물을 놓아 드리리다."

귀일의 딸은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여산 부인을 물속으로 와락 밀어넣어 버렸다. 여산 부인은 주천강 연못의 수중고혼이 되고 말았다. 귀일의 딸은 여산 부인의 옷을 벗겨 입고 큰부인인 척하며 남선비에게 돌아갔다.

"설운 낭군님아,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행실이 괘씸하기에 주천강 연못에 가서 죽여 두고 왔습니다."

"하하, 그년 잘 죽였다. 내 원수 갚았구나. 자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남선비와 귀일의 딸은 남선고을로 향하였다. 남선비 아들 일곱 형제는 부모님을 마중하러 선창가로 나왔다. 배가 선창에 닿아 아들들은 부모를 맞는 정성으로 각각 다리를 놓아갔다. 큰아들은 망건을 벗어 다리를 놓고, 둘째는 두루마기를 벗어 다리를 놓고, 셋째는 적삼을 벗어 다리를 놓고, 넷째는 고의를 벗어 다리를 놓고, 다섯째는 행전을 벗어 다리를 놓고, 여섯째는 버선을 벗어 다리를 놓는다. 그런데 영민한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칼날을 뒤로 세워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닌가.

이상히 생각한 큰형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녹디생인이 대답했다.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의 말대로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윽고 부모님이 내리고 그들은 집을 향해 갔다.

부모를 앞세우고 일곱 형제가 뒤를 따랐다.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길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이 골목으로도 들어가려 하고 저 골목으로도 들어가려 하면서 우왕좌왕했다.

"어머님은 어째서 벌써 길도 잊었습니까?"

"애들아, 말도 마라. 너희 아버지 찾아 오느라고 하도 고생을 해서 정신이 어찔어찔하단다."

겨우 집을 찾아 들어가 저녁을 하여 밥상을 보는데 아버님께 놓던 상(床)은 자식에게, 자식에게 놓던 상은



올레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005.4, 김동섭

아버님께 가 뒤죽박죽이었다.

"어머님은 어째서 밥상도 벌써 잊었습니까?"

"아이고 애들아, 말도 마라. 너희 아버지 찾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정신이 없단다."

그날부터 일곱 형제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귀일의 딸도 이 눈치를 알아차렸다. 그러자 아들들에게 무슨 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없애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어느 날 귀일의 딸은 배가 아프다며 방안을 팽팽 돌기 시작했다. 남선비는 부인이 사경에 이르러 가자 혼겁을 먹고 당황했다. 남선비가 점을 치러 먼 문간 바깥으로 나가니 귀일의 딸은 얼른 일어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름길을 잡아 달려갔다. 그러곤 대로변에서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점쟁이인 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곧 남선비가 허둥지둥 달려와 자신의 부인 병세에 대해 일렀다. 이에 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신병에 좋다고 점괘를 내렸다.

남선비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귀일의 딸은 이미 지름길로 먼저 와서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가니 무어라고 합니까?"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좋겠다고 하더라."

"아이고, 할 수 없구나. 설운 낭군님아, 그러거든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주십시오. 내 살아나서 한꺼번에 세 쌍둥이씩 세 번만 낳으면 형제가 아홉 형제가 될 게 아닙니까?"

남선비는 부인의 말이 그럴싸하여 은장도를 꺼내어 슬근슬근 갈기 시작했다. 때마침 뒷집의 청태산 마구할망이 불을 빌리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남선비야, 어떤 일로 칼을 가느냐?"

"우리 집 부인이 삽시에 신병이 나서 사경이 되어 가 문복을 하고 보니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 하기에 간을 내려고 칼을 갑니다."

청태산 마구할망은 혼겁이 나서 밖으로 내달았다. 네거리에 가 보니 남선비의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다. 마구할망은 이에 남선비의 일을 형제에게 알려 주었다.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막내 녹디생인이 의견을 내놓았다.

"설운 형님들아, 그리 울지 말고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버님이 가는 칼을 뺏어 오리다."



올레코사 상차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8.7
김동섭

집에 갔더니 남선비가 칼을 갈고 있었다.

"아버님아, 어떤 일로 칼을 갑니까?"

"너희 어머니가 신병이 나 사경에 이르므로 어디 가서 문복하였더니 너희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다고 하기에 간을 내려고 칼을 가노라."

"아버님아, 그거 좋은 일입니다. 어머님 신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아, 아버님 손으로 우리 일곱 형제 간을 내면 송장 일곱을 묻어야 할 게 아닙니까. 흙 한 삼태기씩만 덮어 주려 해도 일곱 삼태기가 아닙니까? 그 칼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깊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섯 형님의 간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머님이 먹어 봐서 효과가 있거든 저 하나는 아버님 손으로 간을 내옵소서."

남선비가 그러자고 하고 칼을 내 주니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데리고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깊은 곳으로 향하였다. 가다가다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러더니 누군가 나타나 말을 걸었다.

"설운 아기들아, 어서 빨리 눈을 떠 보아라. 산중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올 것이니 그 노루를 잡아서 죽일 판으로 누르고 있으면 알 도리 있으리라."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과연 노루 한 마리가 저 산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일곱 형제는 몰려들어 그 노루를 잡았다. 그러자 노루가 말했다.

"설운 도련들아, 나를 죽이지 말고 내 뒤에 보면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 그걸 잡으십시오. 어미는 씨 전종할 것으로 남겨두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어가면 될 게 아닙니까?"

일곱 형제는 거짓말 아니냐면서 노루 꼬리를 짤막하게 끊고 엉덩이에 백지 한 장을 붙여 놓았다. 그래서 노루 몸뚱이가 아롱다롱하고 노루 꼬리가 짧아졌다. 노루를 놓아 주고 잠시 있으니 과연 산돼지 일곱 마리가 저 산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노루 말대로 어미는 씨 전할 것으로 살려 주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었다. 일곱 형제는 산돼지 간을 돌돌 싸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설운 형님들일랑 동서남북 중앙으로 벌려 서십시오. 대기해 있다가 나의 큰소리가 들리거든 왈칵 달려드십시오."

녹디생인은 이렇게 형들에게 당부하고 멀리 집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러고는 산돼지 간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귀일의 딸은 그때까지도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었다.

"어머님아, 이걸 잡수어 보십시오. 형님들 여섯 형제 간을 내어 왔습니다."

"아이고 설운 아기야, 효자로구나. 중병 든 데에 약 먹는 거 보는 법 아니다. 너는 저기 나가 있거라."

녹디생인은 바깥으로 나오면서 창 구멍을 하나 뚫어 몰래 거동을 살폈다. 귀일의 딸은 간 여섯 개를 먹는 체하다가 자리 밑에 묻어 놓고 피만 입술에 바르는 척 마는 척하고 있다. 녹디생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님아, 약 다 자십데까?"

"다 먹었노라."

"어머님아, 약 자시니 신병이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 뵌다마는 하나만 더 먹었으면 아주 활짝 나아질 듯하다."

올레코사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8.7
김동섭

"어머님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머님 머리에 이나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 효도 고맙다만 중병 든 데에 이 잡는 법 아니다."

"그러면 방 안이나 치워 드리리다."

"이거 무슨 말이냐? 중병 든 데에 방 안 치우는 법 아니다."

녹디생인은 화를 벌컥 내며 달려들어 귀일의 딸의 쉰댓 자 머리를 좌우로 핑핑 감아 한쪽으로 잡아 엎질렀다. 그러고는 자리 밑에 숨겨 놓은 간 여섯 개를 한 손에 세 개씩 들고 지붕 용마루 높은 곳에 올라가 "요 동네 어른들아, 저 동네 어른들아, 의붓어머니 의붓자식 있는 사람들아, 요거 보고 조심하십시오! 설운 형님들이여, 동서로 달려드십시오!"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때를 타 형들도 모두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남선비는 달아날 길을 잃어 엉겁결에 '올레'로 내닫다가 거기에 걸려 있는 정낭에 목이 걸려 죽었다. 그래서 주목지신, 정살지신이 되었다. 귀일의 딸은 아들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바깥으로 도망칠 수 없어 벽을 허위 뜯어 구멍을 뚫고 변소로 도망쳐 머리털로 목을 매어 죽었다.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이 된 것이다.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죽은 위에 다시 복수하려고 두 다리를 찢어 발겨 디딜팡(디딤판)을 마련하고, 대가리는 끊어 돗도고리(돼지밥그릇)를 마련하고, 머릿결은 끊어 던지니 저 바다에 가 해초가 되었다. 입은 끊어 던지니 바다의 송사리가 되고, 손톱 · 발톱은 끊어 던져 버리니 쇠굼벗(조개), 돌굼벗(조개)이 되고, 배꼽은 끊어서 던져 버리니 굼벵이가 되고, 항문은 끊


1


2


3

어 던져 버리니 대전복과 소전복이 되고, 육신은 푹푹 빻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각다귀와 모기가 되었다.

분풀이를 해 놓고 일곱 형제는 모조리 서천꽃밭에 올라갔다. 이 꽃밭은 뼈 살 꽃, 살 살 꽃, 도 환생 꽃 등 가지가지 꽃을 가꾸는 곳이다. 일곱 형제는 꽃을 몇 송이 얻어내고, 그 길로 오동나라 오동고을의 주천강 연못으로 달려가 축수를 드렸다. 그랬더니 삽시에 연못이 잦아들면서 바닥에 어머니의 뼈가 드러났다. 이 뼈 저 뼈 모아 놓아 도환생 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 번 후려쳤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를 긁으며 살아났다.

어머님을 살려낸 일곱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아, 춘하추동 사시절을 물속에서만 살았으니 몸인들 안 추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일랑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 할망으로 앉아 얻어먹기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조왕 할망이 되어 들어서고,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들이 되었다. 큰형은 동방 청대장군, 둘째 형은 서방 백대장군, 셋째 형은 남방 적대장군, 넷째 형은 북방 흑대장군, 다섯째 형은 중앙 황대장군, 여섯째 형은 뒷문전으로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영리한 녹디생인은 일문전이 되어 들어섰다.

그 이후로 오늘날에도 명절, 기일 제사 때 문전제를 지내고 나서 그 제상의 제물을 조금씩 떠서 지붕 위에 올린 다음 다시 조금씩 떠서 어머니신인 조왕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때 조왕과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은 처첩 관계이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는 마주서면 좋지 않은 법이다.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하고,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라 하더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큰굿 때 집안의 각처를 관장하고 수호하는 신에게 기원하는 제차(祭次)로 각도비념을 한다. 이때 가내의 신들을 위하면서 '주목, 정살지신'이라 하여 집의 출입로를 지켜 주는 신도 위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이영숙(여, 1969년생) 씨에 의하면 집안 기일 제사를 할 때면 언제나 제(祭)를 치르고 나서 제상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걸립하고, 지붕 위와 올레의 정한 곳을 찾아 대접하면서 위하고 있다고 한다.



걸립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8.7
김동섭

남원읍 한남리의 오영종(남, 1929년생) 씨에 의하면 해마다 정초가 되면, 택일하여 올레코시를 하는데 이때 심방을 불러 위한다고 한다. 결혼 등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도 심방을 불러 위했다고 한다.

성산읍 성산리의 채영아(여, 1961년생) 씨에 의하면 평시에 별도로 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기일 제사가 있을 때 제물을 문전제의 제상에 차린 다음 단헌단배(單獻單拜)로 행제한다. 제사가 끝난 후 집사(執事)가 '걸립'하여 지붕 위로 올려 위하고, 또 하나는 올레로 가져와서 올리는 것으로 위해 주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여성농업인의 삶과 전통**(김동섭 외, 여성농업인중앙회, 2005),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민속문화이해**(김동섭, 거마문화사, 2010), **제주유식마을제의 전승양상**(김동섭, 제주도, 2009), **제주전래농기구**(김동섭, 민속원, 2004),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동섭(金東燮)**

올벼심리

상호참조 천신(650쪽)

정의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새 곡식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대접하는 제의. 주로 백중, 추석 즈음에 행한다. 지역에 따라 올벼천신, 올기심리, 올개심리, 오리십리, 올비신미, 올벼차례 등으로 부른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풋바심이라고도 한다.

내용 농사를 짓는 전 지역에서 올벼심리가 행해지지만 호남지역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벼심리를 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깨끗한 날을 골라 행한다. 마을에 상(喪)이 나는 등 부정이 들면 올벼심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임종을 맞을 상황이 보이면 미리 올벼심리를 행한다. 특히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하여 올벼심리를 빨리 행하는 일이 잦았다.

벼가 여물기 전에 여문 일부분을 골라 훑어다가 솥에 찐다. 찐 나락은 잘 말렸다가 찧어서 밥을 짓는다. 나락을 쪄서 말리는 이유는 쌀알을 단단하게 여물게 하여 나락을 찧을 때 부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찧은 쌀로 밥을 짓고 나물, 술, 조기, 햇무 등 햇곡식과 햇과일을 상에 차려 집안의 조상에게 먼저 대접한 뒤에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올벼심리를 할 때에는 집안사람끼리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가까이 거주하는 인척이나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미리 베어온 벼 포기나 옥수수, 수수, 조 등 곡식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안방의 윗목이나 마루 기둥에 묶어 두기도 한다. 이것 역시 올벼심리라고 한다. 이렇게 올벼심리한 곡식은 이듬해 씨앗으로 사용한다.

올벼심리는 이듬해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따라서 남들보다 일찍 올벼심리를 행하면 좋다고 여겨 서로 경쟁하기도 하였다.

농사를 짓지 않는 집이 점차 많아지면서 점차 올벼심리 의례가 사라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추석 전에 시장에서 올벼쌀을 사다가 일반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새로 나는 나물 등과 함께 상을 차려 제사를 올리는 형태로 변화된 양상도 찾아볼 수 있다.



올벼심리(옥수수)
전북 정읍시, 2011.3
이명진



올벼심리(콩)
전남 무안군, 2006.11, 이명진

지역사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거의 올벼심리를 행한다. 올벼를 훑어서 찌고 말렸다가 찧어서 밥을 하고 햇과일, 나물 등과 함께 상을 차려 조상에게 올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전라도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전북 전주지역에서는 삼신을 모신 집의 경우 올벼심리를 행하면 큰방의 살강 위에다 바가지를 놓고 새 음식을 넣어 둔 다음 절을 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빌었다고 한다. 남원시 운봉에서는 올벼심리를 할 때 당산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까다롭고 정성스럽게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때 간을 보지 않는다. 또 올벼심리를 하려고 널어놓은 쌀을 새가 먹게 되면 그 새가 죽는다는 속설이 있다.

전남 화순지역에서는 올벼쌀뿐만 아니라 수수, 팥, 콩 등을 가지째 삶아서 상을 차리고, 닭을 잡고 미역국을 끓여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고흥지역에서는 남보다 먼저 올벼심리를 하면 좋다고 여겨 '유두벼'를 심어 유두 이전에 올벼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 수확한 것을 나락째 문 위에 매달아 놓았다가 그것을 올벼심리하는 일도 있었다. 해남지역에서는 올벼심리를 주로 선영을 모시는 장남 · 종손 집에서 올린다. 올벼심리를 할 때 신줏그릇(지그릇, 성줏단지, 조상단지, 제석항아리 등으로 부름)의 쌀을 햅쌀로 갈아 담고 원래 있던 쌀로는 밥을 해서 먹는다. 성줏단지의 쌀은 집안의 종부가 갈아 담으며, 일 년에 딱 한 번 올벼심리를 할 때만 갈아 둔다. 이때 지은 밥은 식구끼리만 먹으며 짐승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 혼례를 치른 집에서는 사돈 집으로 옷과 음식(떡)

을 장만해 보내기도 한다. 올벼심리를 할 때 신줏그릇에 쌀을 바꾸어 담는 것은 장흥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명진(李明珍)**

옹기가마고사

정의 옹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옹기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가마소성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고사. 장인에 따라 방법이나 상차림, 장소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옹기 가마 앞에서 고사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면서 옹기가 잘 구워지기를 기원한다.

역사 옹기가마고사를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없다. 단 옹기의 원류가 도기(陶器)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 옹기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점에서도 역시 옹기가마고사와 마찬가지로 소성 전에 가마고사를 지내며, 인간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자연의 힘을 빌거나 이에 의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기원을 따지면 오랜 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옹기가마고사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 천주교 신부인 뮈텔의 일기 『뮈텔주교일기』에는 옹기점의 여러 모습이 나온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마침 옹기를 굽는 날이어서 이번 가마의 옹기와 다음 가마를 위한 하느님의 축복을 빌기 위해 나에게 가마의 축성을 부탁했다. 저녁 때 크렘프 신부와 함께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의식에 참석했다.(1906년 11월 13일)" 이는 천주교 신자인 옹기 장인의 가마에 옹기가 잘 구워져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의식으로, 기존에 행해지던 가마고사의 형태와 천주교가 결합하여 나온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옹기가마고사는 무엇보다 소성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작 가마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즉 장작가마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옹기 공장에서도 기름가마나 가스가마를 사용하게 된 197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옹기점에서 가마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말에 있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생겨난 많은 교우촌에서는 옹기를 생업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많은 옹기 장인이 천주교인으로 교화하기도 하였다. 이후 천주교를 믿는 장인들의 경우 가마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면서 고사의 풍습은 대를 이어오면서 점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내용 옹기가마고사를 지내는 날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옹기를 만들어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이나 가마 소성이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불을 앞둔 때에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작가마에 불을 지피는 것은 한두 달에 한 번 있는 크고 중요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불을 지피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가스가마나 기름가마를 사용한 이후에는 자연의 힘을 빌려 옹기가 잘 구워지기를 기원해야 하는 이유가 약해지면서 가마 소성 때 불을 지피는 모습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가마고사는 가마의 소성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어서 대부분 가마 앞에서 지낸다. 그러나 일부 장인의 경우 가마 공장 안이나 물레 앞에서 제의를 드리기도 하였다. 가마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절을 하지만 일부 장인의 경우 절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다.

가마고사의 상차림은 대부분의 고사상과 비슷하게 차린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거나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나 지역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돼지고기와 함께 떡, 과일, 나물류가 올라가는 등 큰 상차림이 아니라 간단하게 형식을 갖추어 놓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에 올리는 음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부분 돼지고기를 올린다. 간혹 쇠고기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닭고기를 올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생선의 경우 올리지 않으며, 일부 장인의 경우 비늘이 없는 생선에 한해 상에 올리기도 한다.

가마고사의 순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대부분 술을 올리고 절을 한 뒤 가마 주변에 술이나 음식을 뿌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옹기 장인이나 집안의 특성에 따라 고사상이 없이 술만 올리는 경우, 절을 하지 않는 경우, 술을 가마의 중요한 부분에만 뿌리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부 장인의 경우 가마 소성 때 고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정월대보름날 집 안과 공장 또는 가마 앞에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 경우 대보름 제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려지는 상차림은 대보름 제사상과 비슷하다. 나물류, 밥, 국, 과일류, 돼지고기 또는 생선류가 주요 음식이다.

가마고사에서는 특별한 신체나 신격이 없다. 일부 사기점의 경우 가마고사를 지낼 때 '가마대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옹기점의 경우 특별히 사용하는 명칭이 없다. 다만 개인에 따라 가마신, 천지신 등을 언급하며 기원하기도 한다.

옹기가마고사는 가마 불을 지피기 전에 지내는 경우 이외에도 장작 가마를 새로 만들었거나 겨울철 일을 쉬었다가 봄에 다시 옹기일을 시작할 때 지내기도 한다. 즉 장작 가마를 새로 만든 뒤 가마 앞에서 고사를 지내면서 앞으로의 가마 소성이 잘되기를 기원하거나 봄에 옹기 작업이 시작될 때 옹기점을 청소하고 고사상을 차려 한 해의 작업이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고사를 지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옹기 장인마다 모습이나 시행 여부는 다르다.

특징 옹기는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낸다. 그 가운데 옹기가마고사의 모습도 천주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선시대 말 천주교의 박해로 많은 천주교 신자가 신앙의 자유와 신분 보장을 위해 산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들 천주교인은 경제적 · 종교적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옹기 제작이나 판매를 생업으로 하게 되었다. 이는 천주교의 전파 경로와 교우촌의 입지 조건이 옹기점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나 조건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는 현재도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옹기 장인이 천주교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잘 알 수 있다. 즉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된 천주교의 전파는 중부내륙지방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천주교인 옹기점이 대부분 이 지역과 일치하여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전국의 옹기점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를 믿는 장인 대부분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 속하여 있다. 이는 현재의 옹기 장인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특징과 지역성에서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옹기 제작과 천주교 신봉은 모두 가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천주교 신자의 옹기 제작은 계속 대물림되었다. 따라서 현재 3대 정도 이어져 온 천주교 신자인 옹기 장인의 경우 대부분 옹기가마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 대신 신앙적인 면과 결합해 새로운 풍속을 보인다.

경기도 여주 옹기 장인의 경우 천주교 신자여서 가마고사는 지내지 않는다. 대신 성당의 신부가 가마 앞에서 기도를 해 주면서 성수물을 뿌려주거나 레지오 회원들이 가마 앞에서 기도해 준다.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성당에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축복해 주는 형태이다.

경기도 안성 옹기 장인의 경우 간혹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가마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한다. 특별한 형식이나 구성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 형태의 기도가 대부분이다.

가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신부가 찾아와 성수물을 뿌려 주는 모습은 가마고사를 지내던 풍속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변모된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마고사를 지내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하는 행위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의지해 작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나 충청도의 경우 대부분의 옹기 장인이 천주교신자여서 옹기가마고사를 지내는 옹기점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옹기가마고사는 천주교신자가 아닌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옹기점의 경우 매해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제를 지낸다. 이때 상은 옹기공장 안과 집안에 각각 차려 놓는다. 상 차리는 시간은 설이나 추석의 제사상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다. 해가 뜨면 보름을 맞는다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

옹기가마고사 전남 무안군, 2005.2.23, 민경은







에 새벽 3시쯤부터 일어나 음식을 장만하고 6~7시에 상을 올린다. 대보름날에는 설이나 추석과 같이 반드시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에 올리는 음식이나 제를 올리는 형태가 특정 격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차림은 제사상과 같이 밥, 국, 과일류, 나물류 등을 올린다. 생선은 보통 올리지 않지만 간혹 올리는 경우 비늘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대보름날에는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보름 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상은 공장 안에 한 개, 집 안에 세 개를 놓는다. 집 안에 놓여지는 상은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성주신께 각각 따로 차린다. 이들 상에는 제삿밥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지만 공장 안에 차려지는 상에는 특별한 대상이 없다. 공장에 차리는 상에는 수저를 공장의 안쪽 방향으로 하여 놓는다. 한 시간 정도 둔 뒤 식구들의 아침상에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해 동안 공장 안에 상이 차려지는 경우는 대보름날밖에 없다. 또한 대보름 전날인 열나흗날에는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에 공장 안과 집 안에 불을 환하게 밝혀 놓는다. 이는 일 년 동안 환하게 잘살라는 의미이다.

영암군 신북면 옹기점의 경우 1970년대까지 장작가마를 사용할 때는 불을 지필 때 가마 앞에서 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가스가마를 사용한 이후에는 거의 매일 불을 지피기 때문에 불을 지필 때는 지내지 않고 정월대보름날에만 지낸다. 상에는 돼지머리, 떡, 술, 나물류, 밥, 국 등이 올라간다. 집 안에 차려 놓는 상에는 일반 제사상과 같이 두 번 절을 한다. 현재 사용하는 가스가마 앞에도 상을 차리지만 절은 하지 않는다. 상은 보통 대보름날 새벽 3~4시쯤에 올리며, 일 년 동안 일이 잘되기를 기원한다. 상을 올릴 때에는 집안 식구 외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옹기점의 경우 현재 장인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여서 가마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도 가마고사를 지냈다. 가마에 불을 지필 때 지내는 가마고사는 돼지머리, 떡, 술을 올려놓는 일반 고사상과 같이 차리고 절을 하면서 옹기가 잘 구워지기를 빌었다고 한다. 가마고사를 지낼 때와 가마에 불을 지필 때에는 여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 사항도 있었다.

의의 가마고사를 지내는 옹기점의 경우 장작가마 소성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 고사를 드리지만 이는 그 수나 경우가 매우 적어지고 있다.

일부 옹기점의 경우 일 년 가운데 정월대보름날에만 고사를 지낸다. 이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간소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작 기술의 진보로 인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마에 불을 지필 때는 작업은 물론 본인의 기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바람이나 기압 등 자연 조건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자연적 신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마고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손 성형보다는 석고틀을 이용한 작업이 늘어나고, 장작 가마의 위험성과 비효율적인 경제성보다 가스가마를 이용한 제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우려하던 자연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기술 진보로 인해 자연적 신에 의지하던 가마고사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기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스가마를 사용하는 사기점에서 가마고사를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일부 장인의 경우에만 고사를 지내고 있다. 가마고사를 지내는 사기점 장인의 경우에도 장작가마가 아닌 가스가마를 사용하면 고사를 지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옹기의 제작 기술이 늘어나거나 옹기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 이를 제작하는 장인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경우 함께 이어져 오던 옹기가마고사의 풍습도 그 모습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옹기가마 앞이나 공장 안에서 고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옹기가마고사를 일 년 중 정월대보름날에만 지키는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보름 제사와 같이 '제삿밥'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집 안에 상을 차리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자들이 상차림에 관여하거나 일부의 경우 남성은 관여하지도 않게 되는 특징도 나타났다.

참고문헌 경기도 옹기점 현황조사보고서(옹기민속박물관, 200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72(정명호, 문화재관리국, 1987), 옹기장(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10),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민경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김진소,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필자 민경은(閔庚恩)

왕신(王神)

상호참조 왕신단지(511쪽)

정의 집안에 정식으로 봉안(奉安)한 처녀의 혼백. 곡식을 넣은 단지를 신체(神體)로 삼아 집 뒤란 장독대에 모시거나 치마, 저고리 등을 넣은 동고리나 반짇고리를 신체로 하여 벽장이나 다락에 앉힌다.

이승에서 정처없이 떠돌던 처녀 귀신은 왕신으로 좌정(坐定)하여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을 받는 대신에 일종의 '가신(家神)'이나 '비운(悲運)의 조상신(祖上神)'으로서 집안을 잘 보살핀다. 그러나 왕신은 조금만 서운해도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키는 매우 무섭고 사나운 신령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왕신을 모시면 언젠가 신벌(神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왕신 모시기를 포기하게 된다.

내용 왕신 탄생의 심리적 배경 모든 죽음은 망자 본인과 그의 가족들을 불행과 슬픔으로 몰아넣는다. 특히 한 인간으로서 완성된 삶과 그에 따른 복락을 누리지 못한 채 맞이한 죽음은 상명지통(喪明之痛)을 유발한다. 슬피 운 끝에 두 눈이 멀 정도로 고통스럽다. 어린이나 젊은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악상(惡喪)이나 젊어서 죽은 참상(慘喪), 사고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생초상(生初喪) 등이 그러하다.

비극적 죽음의 하나가 미혼 청춘 남녀의 사망이다. 이들은 부모 가슴에 묻힌 불효자이다. 부모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참담한 아픔을 준 것이다. 이들 청춘 혼신(魂神) 스스로도 더없이 원통(冤痛)하다. 적령(適齡)에 이르렀으나 미처 혼인을 하지 못하고, 부부지애(夫婦之愛)나 자식 키우는 세상 재미 등도 보지 못하고 후사(後嗣) 없이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하고 서럽다. 원(怨)과 한(恨)이 극도로 맺히지 않을 수 없다.

청춘 혼신 중에서도 처녀는 총각보다 원한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 원한 때문에 처녀 귀신은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녀는 이 세상을 떠돌며 식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자꾸 접촉하려고 한다. 귀신이 사람 주변을 얼씬거리면서 가까이 하면 무서운 변고(變故)가 생길 수 있다. 원한에 사무친 처녀 귀신은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딸의 죽음은 아들에 대한 선호나 애착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층 애처롭다.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단장(斷腸)의 슬픔이 전제되지만 몸과 마음이 가녀린 딸은 심히 가엽고 불쌍하다. 한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속담에서도 보듯 처녀 귀신의 응어리진 마음은 그만큼 매섭고 독하다. 여성과 남성의 한이 지닌 강도와 영향력은 그토록 다르다.

미혼으로 죽은 딸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과 연민, 원한이 깊은 처녀귀신은 매우 위험하다는 민속적 관념은 그녀의 고혼(孤魂)을 왕신으로 좌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처 없이 방황하며 서러워하는 처

너 귀신을 왕신이라고 명명(命名)하고 집안에 정식으로 앉혀서 극진히 보살피며 위하는 일은 부모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식 사랑이다. 또한 왕신 봉안을 통하여 그녀의 가탈이나 해코지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한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요컨대 왕신은 '미혼으로 죽은 딸에 대한 가족의 애절한 사랑'과 '그녀의 원한이 지닌 위험성을 소멸시키려는 종교적 욕구'가 빚어낸 신령이다. 그리고 왕신 봉안은 처녀 귀신을 위로하고 달래며 때로는 제어하여 그 위험성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민속적 대응 방식의 하나이다.

신체와 그 봉안 과정 모든 처녀 귀신이 왕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당이나 법사(경쟁이)가 한 가정의 재앙이나 사고의 원인을 처녀의 원혼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그녀를 왕신으로 모시라고 지시하면 가내(家內)에 왕신을 봉안하게 된다.

매우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다른 집안에서 모시던 왕신의 신체, 즉 왕신단지 등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경우에도 자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모실 수 있다. 신체를 발견했음에도 수습하지 않으면 해(害)를 크게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집안을 크게 일으켜 준다고 기대하여 모신다.

신체의 형태와 봉안 위치는 집안마다 다소 다르다. 대체로 조그만 단지 안에 곡식을 담아서 신체로 삼고 장독대에 봉안한다. 왕신은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스럽게 모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단지에 짚주저리를 씌워서 터줏단지로 위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장독대 부근에 단지를 묻어 놓기도 한다. 때로는 영등할머니의 물대처럼 세 개의 막대기를 서로 엇걸어 세우거나, 세 개의 나뭇가지가 역(逆)삼발이처럼 되어 있는 어린 소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단지를 모신다. 부잣집에서는 큰 항아리에 곡식을 한 가마니 정도 넣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이웃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그만 단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단지 안의 곡식은 봄가을로 햇곡식이 나면 새로 갈아 준다. 묵은 곡식으로는 밥을 지어 반드시 집안 식구끼리만 먹어야 한다. 개나 닭 등이 왕신단지의 곡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다가는 큰일난다고 여긴다.

단지 안에는 곡식만이 아니라 처녀의 사주(四柱), 혼백(종이로 오려 만든 사람), 허재비를 넣기도 한다. 이는 왕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종의 신주(神主)이다. 이러한 왕신단지나 항아리는 흔히 장독대 뒤쪽에 모신다.

그 밖에도 반짇고리나 동고리에 치마저고리, 옷감, 돈 등을 넣어 신체로 삼는다. 이런 경우에는 왕신을 다락이나 벽장 등 집안의 후미진 곳에 모셔둔다.

왕신을 더욱 정성껏 위한다면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하여 모신다. 대개 시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봉안한다. 서해안 어촌에서는 건넌방에 많이 모신다.

다른 신령과 마찬가지로 왕신도 깨끗하고 조용한 장소에 봉안하지만 되도록이면 신체가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기는 경향이 있다.

왕신위하기 왕신은 모시기가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 기왕에 위하려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지 까닥 잘못하면 집안 식구 하나 죽어 나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왕신단지를 장독대에 모셨다면 특별한 일이 없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린다.

집 안에 왕신단지를 모셨다면 다른 가신보다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집 안에 떡 한 덩이나 헝겊 조각 하나라도 들어오면 일단 왕신에게 바쳐야 한다. 별식(別食)을 마련해도 마찬가지이다. 새색시도 왕신에게 먼저 폐백(幣帛)을 올려야 한다. 부고(訃告)를 받아도 먼저 왕신에게 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왕신의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다고 한다.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매달 초사흗날이나 초이렛날에 떡을 해서 위한다. 물론 각종 명절 때에는 제물을 제대로 갖추어 모시기도 한다. 이때 왕신단지의 짚주저리는 벗겨 놓는다.

왕신을 어느 정도 모시다가 버거우면 새색시로 하여금 없애게 한다. 갓 시집 온 신부만이 왕신을 제어할 수 있다. 새색시가 신행(新行)을 왔을 때 또는 신혼 초기에 왕신단지를 깨트리거나 버리면 왕신은 못살겠다고 하여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이다. 새색시는 처녀와 부인 사이의 경계지역(liminal zone)에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왕신조차도 새색시의 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한편 법사에게 의뢰하여 왕신단지를 없애기도 한다. 이때에는 '고혼풀이'를 해 주어야 뒤탈이 없다.

왕신의 성격 왕신이란 호칭에서 '왕(王)'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보다 '전횡(專橫)을 일삼는 폭군'의 뜻에 가깝다. 특히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비위를 거스르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폭력을 휘두르는 왕의 모습에서 왕신의 신격(神格)이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음에 들면 무한한 특혜를 베푸는 것도 왕을 닮았다.

전횡적 군주를 대하는 신하는 늘 불안하다. 언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삭탈관직(削奪官職)을 당하고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초조와 긴장 속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다. 그러다가 왕의 남다른 총애를 받으면 차서(次序)를 뛰어넘는 승진을 하고 왕의 권세를 배경으로 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은 항상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왕신과 그를 모시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왕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성으로 모셔야 한다. 모든 식구가 왕신만을 바라보며 최고의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조금만 정성이 부족하면 금세 탈이 나서 식구 한 사람쯤 죽어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다. 반면에 왕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가세(家勢)를 불길처럼 크게 일으킨다.

이러한 왕신의 극단적인 이중성은 식구들과 왕신 간의 관계를 장기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한다. 식구들은 잘한다고 해도 왕신만이 잡아내는 꼬투리는 예측하기 어렵다. 백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집안이 풍비박산할 수 있다. 왕신의 무섭고 까다로운 성격을 모두 맞추며 모시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신을 모시는 식구들의 피로는 축적되어 마침내 떠나보내기로 결심한다.

왕신을 오랫동안 모시면 결국 집안에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왕신은 식구들로 부터 버림을 받는다. 왕신을 저버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왕신의 해코지를 방어하고 극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애지중지하며 치성을 올리던 왕신이 어느 순간부터 '왕신덩어리'로 폄하되고, 종국에는 꺼리며 귀찮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왕신 모시기의 근원적 한계이다.

참고문헌 처녀 · 총각의 죽음과 그 상례 연구(오선영,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 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필자 이필영(李弼泳)

왕신단지

상호참조 왕신(509쪽)

정의 미혼 처녀의 혼백을 봉안한 신인 왕신의 신체.

역사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 '손각시귀[孫閣氏鬼]'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손각시귀는 손씨가(孫氏家)의 규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어서 된 귀신이다. 즉 왕신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하다. 지금도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에서 처녀로 죽은 혼신을 손각시로 모신 사례가 있다. 손각시의 신체는 추형여상(雛形女像)을 만들고, 또 계집애들이 희롱하는 자고(紫姑)의 모양처럼 만들어 붉은 의상을 입히고 장분제구(粧粉諸具)를 모두 생시(生時)에 쓰던 것과 같이 만들어 종이상자에 넣어 대쪽으로 만든 옷상자에 간직한 것이다. 이는 왕신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집안에 왕신을 처음 봉안할 때는 무당을 초빙한다. 무당은 왕신으로 모시게 될 집안 처녀귀신의 신체를 정성스럽게 봉안한다. 한번 안착시킨 왕신단지는 함부로 옮기거나 단지를 교환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햇곡식이 나면 단지 안의 나락을 새로 갈고 봉헌물들을 교환할 뿐이다.

형태 왕신단지의 형태는 이를 모신 집안의 형편에 따라 비슷하다. 대개는 조그만 단지 안에 나락을 담아 왕신의 신체를 만들고 안방에 모신다. 이때 왕신을 좀 더 은밀히 모시고자 한다면 방 안의 다락이나 벽장 깊숙한 곳을 봉안장소로 정한다. 가세가 좋으면 아예 큰 항아리에 나락 한 가마니를 넣어 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한편 왕신단지를 장독대에 모시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단지에 유두지를 씌운다. 장독대라는 열린 공간에 모셔진 왕신을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챌까 염려하여 터주로 위장한 것이다. 이조차 불안하면 단지를 아예 장광 부근에 묻어 놓기도 한다. 단지 안의 나락이나 쌀은 매년 햇곡식이 나면 가장 먼저 갈아 넣는다. 단지에서 꺼낸 곡식은 떡을 찌거나 밥을 해서 집안 식구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왕신단지가 안방에 모셔졌을 경우 삼신, 장독대에 모셔졌을 경우 터주와 각각 같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일상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더

욱 비밀스럽게 모셔진다. 왕신과 그녀를 모시는 집안 사람들은 남들이 미처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왕신은 더욱 은밀하고 강한 힘을 지닌 신령이 된다.

집 안에 왕신을 모실 때는 단지 외에도 나무상자나 동구리 등 용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안에는 나락보다 주로 필목류나 색실, 비단저고리, 돈, 화장품 등을 넣는다. 때론 왕신의 신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름과 사주를 적은 종이를 넣거나 위목(位目)을 넣기도 한다. 신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남 · 여 허수아비나 사람의 형체로 오린 종이를 넣는 경우도 있다.

내용 왕신은 모든 집안에서 모셔지는 신이 아니다. 아주 드물게 미혼 총각의 혼령을 왕신으로 모신 왕신단지를 만들기도 한다. 왕신은 집안의 특별한 사정으로 모셔지는 신령이다. 가정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성주나 터주 등 여타의 가정신(家庭神)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왕신에게 할당한 공간 또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왕신은 반드시 그 신체가 만들어져 집 안에 봉안 되어야만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즉 왕신단지는 왕신의 신체이면서 동시에 신격을 지칭한다. 그러나 왕신이 왕신단지라 불리는 것은 왕신으로서의 위엄이나 역할이 존중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신을 모시지 않는 사람 또는 왕신을 모시지 않게 된 사람들이 주로 왕신을 왕신단지라고 부른다.

왕신단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왕신은 성격이 까다롭고 엄하여 자신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대하면 곧바로 집안에 탈을 부린다. 자신을 서운하게 하는 대상이 집안사람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마름마을에서는 머슴이 장난으로 왕신단지를 건드리면서 "이 자식아! 떡 좀 먹게 해줘라!"라고 했더니 왕신이 곧바로 그 집 식구 가운데 한 명에게 병이 나게 하였다고 한다.

왕신은 식구들의 지극정성으로 인해 점점 더 폭군으로 변해간다. 왕신의 가탈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집안에 생기는 화(禍)는 왕신을 받드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왕신을 잘못 모시면 결국 집안이 망한다는 관념은 왕신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고 이어 정성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한다. 왕신을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신단지를 건드리게 된다. 단지를 깨거나 동구리를 물에 띄워 멀리 보냄으로써 집안에서 왕신단지가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왕신을 몰아낸다. 그러나 왕신은 천리를 도망가도 뒤따라올 만큼 무서운 신이다.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방죽마을에 왕신을 모시던 어떤 사람이 이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고 왕신단지를 꺼내 강을 건너가서 깨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왕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이고, 너 찾느라고 죽을 뻔했다."라고 한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다시 왕신을 모셨다.

왕신은 함부로, 섣불리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때론 왕신을 버리기 위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 왕신단지를 없애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왕신을 모신 사람의 초상을 치를 때나 왕신을 모시는 집안에 혼사가 있어 새색시가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왕신을 모시던 이가 죽어 상여가 집을 출발하면 곧바로 대문 앞에서 왕신단지를 깨 버린다. 왕신을 모시던 사람이 집을 떠났으므로 더 이상 왕신을 모실 사람도 없으니 함께 나가라는 것이다. 한편 갓 혼인을 하여 시집으로 들어오는 새색시는 경계지역에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는 동시에 시집의 왕신과는 아직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새색시는 왕신단지를 단호하게 없앨 수 있다. 서산시 해미면 저성리 도투생이마을에서는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이까짓 게 뭐야!"라고 하며 왕신단지를 집어던져 깨뜨리면 왕신은 '사나운 년(새색시)'의 기(氣)에 눌려 사라진다. 곧 왕신단지의 훼손은 왕신의 소멸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가정신앙과 제물–충남 지역을 중심으로**(이필영,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역내 고고유적 지표조사 · 민속조사보고서**(충남대학교박물관, 1995),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27), **처녀 · 총각의 죽음과 그 상례 연구**(오선영,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 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오선영(吳仙榮)

용단지

상호참조 용단지모시기(516쪽)

정의 신체뿐만 아니라 용신신앙 자체를 의미하며 용 또는 용신을 형상화한 것.

역사 용신신앙은 이미 고대국가 때부터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가정신앙으로서의 용신신앙 역시 역사가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제2 처용랑과 망해사조에는 '동해에 사는 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신라 헌강왕 때 왕이 개운포에 놀러 갔다가 동해 용(龍)의 조화를 알고 좋은 일을 베푸니 용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가운데 자식 하나는 임금을 보좌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처용(處容)이다. 용의 아들인 처용은 춤으로 역신(疫神)을 물리칠 수 있는 영력(靈力)을 지니고 있어 가정에서는 처용의 형상을 그려 부적처럼 문에 붙여서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였다.

처용의 형상을 부적으로 붙였다는 것은 곧 가정신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신앙으로서 용신신앙의 오랜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용단지라는 신체의 시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용단지가 옹기로서 농경의 시작과 함께 씨앗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와 관련시킨다면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추정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오늘날 섬기는 용단지는 가정마다 봉안하게 된 시원을 달리할 수 있는데다 선대부터 한 경우여서 그 연원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당대에 모시기 시작한 경우만 알 수 있으며 그때마다 나름의 유래가 있다.

용단지는 터줏가리나 업가리와 같이 해마다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선 옹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단지 안에 있는 곡물만 해마다 갈아준다. 혹시 실수로 인해 용단지를 깨트렸을 경우 새로 용단지를 봉안할 수도 있지만 없는 채로 그 자리에서 비손만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체없이 '건궁 용단지'를 섬기는 것이다.

용단지를 처음 봉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례가 행해진다. 방법은 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주부가 직접 봉안하기도 하지만 무당과 같은 사제자가 와서 봉안해 주기도 한다.

주부는 '용왕님'을 모시기 위해 옹기로 된 단지를 사온다. 이때 장에 가서도 첫 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 옹기장사가 값을 부르는 대로 주고 절대 깎지 않는다. 물건을 고른 뒤에는 다른 물건을 보지 않는다. 용단지를 모셔놓고 빌 때 주부는 목욕재계하며 가족들도 모두 금기하여 조신하게 행동한다. 각별히 무당이 용단지를 모시는 의례를 주관할 때에는 주부가 제물을 차린 뒤에 무당이 "용왕님, 용왕님 계시는데 성심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축원을 하면 주부는 그 곁에서 성심껏 빈다. 용단지를 구입할 때부터 제물 차리기, 비손하기 등이 모두 용단지를 섬기는 중요한 의례이다.

용단지를 봉안하기 위해 큰 물에 가서 용을 받아오기도 한다. 용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길일을 잡아 큰 물의 소(沼)에 가서 용을 맞이해야 한다. 이때 무당이 해 주기도 하지만 주부가 직접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가 직접 용맞이를 하는 경우 흰밥, 미역국, 과실 등 제물을 장만하여 강가에 있는 소(沼)로 간다. '용머리'라는 곳에 제물을 진설하고 빌면서 용왕을 맞는다. 용을 맞아 한지에 싸 집으로 가지고 온 뒤 쌀과 함께 단지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러고는 뚜껑 위에 다시 한지를 덮고 그 위를 돌로 눌러 놓는다.

보살이 용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실에 돈을 달아 물에 떠내려 보내다가 용을 맞게 되면 그 실을 다시 끌어올린다. 이때 실과 함께 용이 끌려오므로 무척 무겁다. 단지에 쌀을 찧어서 넣고 물을 부어놓는다. 이튿날 단지에 물이 불어 있으면 용이 들어앉았다 하고 이후 용단지를 모시기 시작한다.

용단지는 무작정 모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신앙이 대체로 주부들에 의해 전승되듯이 용단지 역시 시어머니 또는 시할머니 등 여자 상어른이 모셨기 때문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그대로 모신다. 이 밖에 정월에 신수를 보아 용단지를 모셔야 한다는 점괘에 의하거나 현몽에 따라 새로 모시는 경우도 흔하다. 꿈에 용이 나타나면 모신다. 용을 모시려면 다른 가신을 모실 때와 마찬가지로 무당에게 청하여 길일을 잡아야 한다. 길일이 잡히면 용을 모실 단지부터 준비하

고 용맞이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용단지를 섬기는 사람은 가족 가운데 여자 상어른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이어받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형태 용단지는 이름 그대로 신체가 옹기로 된 단지형태이다. 한 개나 세 개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를 모신다. 꺼칠용과 쌀용의 두 개로서 여자를 상징한다는 쌀용은 안용이라고도 하며, 이 안에는 쌀을 넣어둔다. 남자를 상징한다는 꺼칠용 단지에는 나락을 넣어두며, 건용 또는 터용이라고도 한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한 경우는 대단히 특수한 형태지만 단지가 아닌 것으로 용단지를 모신 가정도 있었다. 용단지로는 두 개를 모신다. 쌀용과 꺼칠용이다. 쌀용단지 안에는 쌀을 넣었으며 집안의 고방(광) 안에 모셔 두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단지형태의 용단지를 봉안하기 전에는 다른 형태의 용단지를 봉안했다.

1980년대 중반에 부엌을 입식으로 하는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기 전에는 마루 실경[시렁] 위에 쌀 한 말들이 큰 버지기(자배기)에 쌀을 담아 쌀용으로 모셨다. 그러나 가옥 개조 후 쌀용의 신체를 단지로 바꾸고 고방 안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터용'이라고도 하는 꺼칠용은 예나 지금이나 뒤꼍 굴뚝 아래에 모시고 있다. 단지 안에는 나락을 넣어두고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아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햇곡식이 나면 용단지에 으레 수지(처음 마련했다는 의미)를 올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쌀용단지에는 수지쌀, 꺼칠용단지에는 수지 나락을 각각 갈아넣는다.

용단지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무척 꺼린다. 이 때문에 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할 정도이다. 선대부터 용단지를 단지로 하지 않고 버지기로 했지만 그 연원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 버지기는 바가지나 함지박같이 생긴 그릇을 말하는 안동지역 방언이다. 단지를 바가지나 고리(주로 버들고리) 형태로 대용하는 경우가 있다. 곧 가신의 신체가 단지 이외에 삼신바가지나 삼신고리처럼 바가지와 고리형태도 있는 것이다. 이들 신체를 바가지-단지-당세기(고리)로 계보화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버지기는 단지 이전의 형태가 된다. 이를테면 더욱 고형(古形)인 셈이다.

용단지의 신체는 옹기로 된 단지로서 모시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 터줏가리나 업가리 또는 성주의 신체는 무당과 같은 사제자가 만들거나 집안의 주부, 가장(家長) 등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용단지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용기를 구입하여 용단지로 신격화하는 것이다. 일단 시장에서 구입한 단지라 하더라도 용단지로 탈바꿈하면 신을 상징하는 몸, 곧 신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용단지를 구입할 때부터 각별하게 정성을 쏟는다.

용단지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높이가 30㎝의 아담한 단지부터 그 이상 높이의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단지는 주로 가운데가 불룩한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내용 용단지는 집안의 농사를 비롯하여 재물을 불게 해주고 집을 지켜주며 가내의 평안을 도모하는 가신이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이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흔히 용단지는 '용이 드는 자리'에 모신다고 한다. 용이 드는 자리란 재산이 들고 그 재산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용단지의 자리는 대체로 곡물을 취급하는 부엌이라든가 고방(광), 안방 위 다락을 비롯하여 뒤뜰이나 처마밑 또는 뒤란 등지가 된다. 이는 가옥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용단지의 자리는 용단지의 신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곧 용단지는 이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자리함으로써 재복과 관련된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등 명절과 음력 시월 추수 때에 행한다. 이



용단지
경북 예천군
유천면 광전리
2005.7.20
김명자



용단지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동
김명자

때 정갈한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린다. 또는 봄에 햇보리가 나면 용단지의 곡물을 갈아주고 다시 가을에 햅쌀이 나왔을 때 갈아넣고나서 간단히 의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다. 이 밖에 봄에 풍농을 위해 용단지에 제를 지내거나 오랜가뭄 또는 심한 홍수 때에도 임시제로서 용단지에 의례를 올려 비가 오기를 기원하거나 비를 알맞게 조절해줄 것을 기원한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사례에서는 용단지에 곡물을 갈아넣을 때 항상 고사를 지낸다. 우선 가을에 햇농사를 지으면(수확하여 햇곡식을 거두어들이면) 고사를 지내기 위해 바깥어른(남편)이 손 없는 날을 택일한다. 날이 잡히면 '수지쌀(처음 수확한 깨끗한 쌀)'로 백편이나 마구설기 등 마음 내키는 대로 떡을 쪄 올리며 치성을 드린다.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떡을 쪘지만 방앗간이 생긴 이후에는 집에서 햅쌀을 물에 불려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떡을 해온다. 고사떡은 각 가신에게 고루 나누어 올린다. 다만 성주를 새로 맬 때에는 떡을 시루째 올린다. 용단지에 제를 지낼 때에는 쌀용에 먼저 음식을 올린 뒤에 꺼칠용에게 올린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주로 그 집의 여자 상어른이 집이 생길 경우에는 간혹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에게 의례를 의뢰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 사제자가 집행할 경우는 주로 용단지를 새로 모실 때이다. 또한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독자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성주, 조왕, 삼신 등 여러 가신을 위하는 가정의 경우 이들 가신과 함께 제의를 올린다. 순서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단지는 점괘나 현몽에 따라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가신의 신체와 가신을 모시기 전후해서는 내력담이나 영험담이 있다. 내력담은 주로 어른이 모시거나 집안의 우환이 있어서 모시는 경우가 중심이 된다. 반면에 영험담은 현몽, 이를테면 종교체험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는 구별할 수 없을만큼 유사성을 띠는 경우가 흔하다. 가정신앙 관련 체험에서 꿈, 이를테면 현몽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고대 때부터 특출한 꿈은 국가건설과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빼어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징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늘상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때문에 앞날을 예징하는 각별한 꿈은 현몽이라고 하며, 해몽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몽에 따라 용단지를 모시게 된 사례도 있다. 시집온지 얼마 안되어 커다란 누런색 구렁이가 사흘 내내 꿈에 나타났다. 또 부엌에서 맑은 샘물이 흐르는 꿈을 꾸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당에게 물으니 친정에서 시집으로 복(福)을 가져온 것이라며 용단지를 모시라고 했다. 이러한 사연으로 길일을 잡아 용을 맞고 귀하게 섬기고 있다.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가 신과 같은 존재를 볼 경우 흔히 환시(幻視)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환시가 아니라 실제로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 이후 집안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과거 시어른과 함께 살 때에는 시어머니가 용단지를 모셨다. 남편이 차남이어서 분가(分家)하면서부터 별도로 용단지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자가 계속 몸이 아프자 시어머니가 권해서 1970년대 후반에 뒤늦게 용단지를 모시게 되었다. 그후 건강이 좋아지고 용단지가 늘 마음의 기둥이 되고 있다.

용단지는 신줏단지로 뿐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해



용단지
경북 안동시 석동, 1993.5, 김명자

둔다는 의미도 있어서 필요할 때 쓰기도 했다. 특히 모심기 철이나 논매기 철에 용단지에 들어있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그때 용단지 안의 곡물을 쓰기도 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사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정신앙 관련 종교체험 사례 일고(김명자, 한국무속학 18, 한국무속학회, 2009),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김명자(金明子)

용단지모시기

상호참조 용단지(513쪽)

정의 용단지를 섬기는 신앙.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용단지 신앙은 용 또는 용신을 모시는 신앙이다. 용단지는 이 신을 형상화한 신체명(神體名)이며, 용신신앙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동지역에서 용신은 농경신이면서 때로는 업신이나 터주와 같은 기능도 하고 있어서 농사의 풍요와 재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섬긴다.

역사 용신신앙은 고대국가 시대부터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9 잡지(雜志) 제8 직관(職官) 중(中)조에는 용왕전(龍王典)이라는 직관이 나온다. 이는 용왕의 제사를 맡는 곳으로, 곧 용신신앙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제2 처용랑과 망해사조에는 '동해에 사는 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용의 일곱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처용(處容)인데, 처용의 형상은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스런 일을 맞이하는 상징이 되었다. 동해의 용은 이미 신격화된 존재로, 용신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신신앙은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가령 기우제는 이미 고대국가 뿐 아니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국가차원, 그리고 고을과 마을 단위로 행해졌는데 그 기원의 대상신은 바로 용신이다. 오늘날에도 마을단위로 소소하게나마 기우제가 행해지고 가정에서도 농사철에 가뭄이 들면 용신에게 비를 기원한다. 비[雨]와 관련되기 때문에 용신은 수신(水神)으로, 또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농경신(農耕神)으로 받들어지기도 한다.

가정신앙으로서 용신신앙의 역사성은 알 수 없다. 다만 고대(古代)부터 용신신앙이 존재했다는 근거를 보면 가정신앙으로서 용신신앙 역시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신라시대에 용의 아들인 처용의 형상을 그려 부적처럼 문에 붙여서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곧 가정신앙의 한 형태이다. 이를 통해서도 가정신앙으로서 용신신앙의 오랜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용단지라는 신체의 시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용단지가 옹기로서 농경의 시작과 함께 씨앗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와 관련시킨다면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추정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용단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비롯하여 인근 청송, 의성, 문경, 예천, 영주, 상주, 대구 등지에서 보편적으로 섬기며, 울진과 영덕에서도 간혹 섬긴다. 그러나 안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에 따르면 용단지 사례가 조사된 곳은 안동지역 뿐이었다. 물론 조사지역의 한계는 있겠으나 용단지라는 명칭으로 모시는 것은 그만큼 안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안동지역의 용단지 신앙에 대해서는 1930년대 자료에도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석전 · 기우 · 안택(釋奠 · 祈雨 · 安宅)』에는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농가 각호에서 농번기 또는 명절에 성주 또는 용단지에 청수(淸水)나 음식물, 햇곡식, 햇보리 등을 올리고 그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농신제(農神祭)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안동지역의 용단지모시기는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성행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용단지는 집안의 농사를 비롯하여 재물을 불게 해주고 집을 지켜 주며 가내의 평안을 도모해 주는 가신이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이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흔히 용단지는 '용이 드는 자리'에 모신다고 한다. 용이 드는 자리는 집안에 재산이 들고 그 재산을 잘 지켜 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용단지의 자리는 대체로 곡물이 취급되는 부엌이라든가 고방, 안방 위 다락을 비롯하여 뒤뜰 처마 밑 또는 뒤란 등이 된다. 이는 가옥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용단지의 자리는 용단지의 신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곧 용단지는 이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자리함으로써 재복과 관련된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재물의 기본은 곡물이며, 용단지는 곡물을 관장하는 농경신으로 받들어진다. 1930년대 안동의 용단지 사례도 바로 용단지의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을 말해준다.

용단지는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를 모신다. 꺼칠용과 쌀용의 두 개로써 주로 여자를 상징한다는 쌀용은 '안용'이라고도 한다. 이 안에는 쌀을 넣어 둔다. 남자를 상징한다는 꺼칠용 단지에는 나락을 넣어둔다. 이 용단지를 '건용', '터용'이라고도 한다.

용단지 안의 곡물은 주로 음력 10월 추수기에 햇곡식이 나면 갈아 넣는다. 이 안에 넣은 쌀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내가지 않으며, 밥을 짓거나 떡을 쪄 가족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福)을 주는 신성물(神聖物)로서 밖으로 내가는 것은 곧 재복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등의 명절과 추수 때에 올린다. 이때에는 정갈한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 또는 명절식을 올린다. 특히 동짓날에 팥죽을 쑤면 성주, 조왕, 삼신, 용단지 등 주요 가신에게 각각 떠 놓고 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용단지에는 가장 큰 그릇을 떠 놓고 한 해의 농사를 기리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역시 명절식인 찰밥[오곡밥]을 용단지에 올려 풍농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 또는 봄에 햇보리가 나면 용단지의 곡물을 갈아 주고 다시 가을에 햅쌀이 나왔을 때 갈아 넣은 뒤 간단히 의례를 올리는 가정도 있다. 이때에는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떠 올리고 주부가 수확을 기리고 농사가 잘되기를 빈다. 이 밖에 봄에 풍농을 위해서 용단지에 제를 올린다. 가뭄이 오래 들거나 홍수가 심할 때에도 임시제로서 용단지에 빌어 비가 오기를 기원하거나 비를 알맞게 조절해 줄 것을 기원한다. 이는 용이 농경신이자 수신(水神)으로도 받들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사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모심기 철이나 논매기 철에 용단지에 들어 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가신은 독자적인 기능을 하거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중층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신의 고유 기능이 있다. 용단지는 기본적으로 농경신이면서 재복신(財福神)으로서 업신과 동일시되며, 터주신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아울러 조상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안동지역의 용단지는 특히 업신(神)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용단지를 업 계통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용단지를 섬기는 전승 현장에서는 용단지와 업신을 거의 동일시한다. 이들을 구별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용단지를 섬기

용단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1리, 2007.1.12, 윤동환



쌀용



터용

는 사람들은 용단지가 곧 업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용단지는 집 안의 우물에 있는 정신(井神, 우물신)과 관련되어 수신(水神)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용=물'이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우물신은 가신으로서의 위상이 용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실상 우물신은 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용단지와 직접 관련시키지는 않는다. 용단지와 동일하게 또한 친연성이 있는 가신으로 터주도 해당된다. 이 역시 업신에 비해서는 약하다.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신은 업신이다.

업신(神)은 광이나 곳간과 같은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복을 준다는 가신이다. 업 · 업왕신(王神) · 업왕 · 업위신(位神)라고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업이라는 말과 함께 지킴이 · 지킴 · 집지킴이로 불린다. 업신은 그 대상을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을 업으로 상정한다. 이 밖에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는 인업도 있다.

집에서 위하던 업구렁이라든가 업족제비가 가족들의 눈에 띄거나 집에서 나가면 재물이 사라지고 가족에게 우환이 생겨 폐가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업구렁이를 새로 받아들여 부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안동지역의 많은 제보자가 용단지의 용이 구렁이 같은 것이며, 이것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재물이 불어난다고 한다. 용은 재산을 일으키는 집지킴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혹시나 용이 나가면 살림이 줄어든다고 한다. 곧 재물이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업신은 재복신으로 상당히 비의성을 띠고 있으며, 안동지역에서도 용단지를 각별히 외경시하여 남이 보는 것을 꺼리는 가정도 있다. 용왕업의 은거처도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솔갑(솔가지) 아래 · 뒤주 · 곳간 · 고방 · 뒤꼍 · 용단지 안 등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으로 생각한다. 용왕업 역시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가산(家産), 가운(家運), 가택수호를 맡고 있다.

이처럼 용단지는 업신과 동일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곧 업신으로 여겨진다. 용단지와 친연성이 있는 터주(또는 터주신) 역시 집터와 더불어 재복을 맡은 신인데 용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안의 쌀은 해마다 햇벼가 날 때 갈아 넣는다. 이때 단지 안에 들어 있던 쌀 역시 남을 주지 않고 가족끼리만 먹는다. 용단지 안에 들었던 쌀이 그렇듯이 터주단지 안의 쌀 역시 신성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터주 역시 용단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터주의 대상을 업신의 대상처럼 구렁이로 여기기도 한다. 이 구렁이를 지신 또는 텃신이라고도 한다.

구렁이가 터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예는 『삼국유사』 권4 자장정률조에도 보인다.

> (자장이) 만년에는 서울을 하직하고 강릉부에 수다사(水多寺)를 세우고 살았다. 어느 날 북대(北臺)에서 본 것과 같은 형상의 중이 다시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내일 대송정(大松汀)에서 그대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놀라 일어난 자장은 일찍 나가서 송정에 이르니 과연 문수보살이 감응하여 온지라 법요(法要)를 물으니 "태백산 갈반지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는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자장이 태백산으로 가서 그를 찾으니 큰 구렁이가 나무 둥지를 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시자에게 "여기가 갈반지다."라고 하고 이곳에 석남원(石南院)을 세워서 대성(大聖)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큰 구렁이가 이미 '갈반지'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가 터주로서의 성격을 보이며 그 지역을 지켜주는 지킴이, 곧 업신의 기능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용단지를 조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제보자는 용단지를 '조상'으로 여긴다. 이 댁에서는 용단지의 쌀용은 거실, 꺼칠용은 고방에 각각 모신다.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쌀용단지에는 쌀, 꺼칠용단지에는 나락을 넣어 두었다. 그러나 다른 가정처럼 굳이 용단지의 성별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꺼칠용단지는 제보자가 시집왔을 때부터 이미 모시고 있었다. 누구를 모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윗대 어른이라고 한다. 쌀용단지는 1980년대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섬기기 시작하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설날에 무당을 찾아가니 시아버지를 용단지로 모시면 집안에 재수가 많다고 하여 모시게 되었다. 꺼칠용단지는 막연히 윗대조상이라고 하는 반면에 쌀용단지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시아버지를 용신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쌀용이 주로 여자라는 것과는 다른 셈이다.

사실상 용단지가 조상의 성격을 지녔다는 예는 지극히 드물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구에 출가해 거주하고 있는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출신의 제보자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구 같은 도시에서도 한 집안에서 안방에는 삼신단지, 부엌에는 용단지, 고방에는 시조단지, 마루에는 성주를 모시는 일이 있다. 시조단지는 윗대 어른이고 용단지는 중간조상으로 재수소원을 비는 것이고, 삼신단지는 시부모와 시조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햇곡식이 눈에 띄면 사다가 갈아 넣는다고 한다.

이 댁의 가신은 주로 조상을 상징한다. 이는 용단지는 시부모나 시조부모와 같은 가까운 윗대와 먼 윗대 사이의 '중간조상'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용단지가 조상이라는 말은 드문 예에 속한다. 흔히 삼신의 경우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앉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리를 바꾸어 시어머니가 좌정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집안의 으뜸 가신인 성주도 많이 모시지만 특히 용단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용단지를 대청 뒤 뒤뜰 축대 위에 나란히 모시고 있는 안동시의 한 제보자는 이들 용단지가 영감과 마누라이며, 따라서 부부용을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 용단지는 안에 곡물(쌀이나 나락)을 넣은 뒤 그 위에 한지를 덮어 실타래로 동여맨 다음 깨끗하고 평평한 돌을 얹어 놓았다. 각별히 돌을 얹는 것은 다른 잡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단지 안의 쌀은 주로 음력 10월 추수기에 햇곡식이 나면 갈아 넣는다. 이 안에 넣은 쌀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내가지 않으며, 밥을 짓거나 떡을 쪄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福)을 주는 신성물(神聖物)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가는 것은 곧 재복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귀해 용단지에 있던 쌀로 밥이나 떡을 했지만 근래에는 쌀이 흔해져 고추장을 담그거나 감주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명절에 용단지에 의례를 올릴 때에는 명절식을 바친다. 특히 정월대보름날에는 찰밥을 지어 올린다. 이는 용이 살찌라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 더욱더 잘 대접한다. 용이 살찐다는 것은 풍농을 뜻하며, 재물이 불었다는 의미도 있다.

부부용을 모시는 또 다른 제보자 역시 곡물을 비롯한 재물과 관련된 곳에 용단지를 모셔 두었다. 부엌에는 마누라를 상징하는 쌀용, 뒤꼍에는 나락을 넣은 꺼칠용을 각각 두었다. 꺼칠용은 남편을 상징한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용왕님을 모셔야 집에 재수가 있으며, 용단지는 집지킴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극진히 모시면 재물을 불게 해 주고 집안이 평안하도록 지켜 준다고 믿는다.

용단지에 비는 주문 내용은 곧 용단지의 성격을 말해 준다.

"이 터전에 용왕님네는 어에든동 농끼 비끼 둘러가지고 자주자주 부까주고 한 피기 숨그거든 및가지씩 벌어주고 및천만을 벌어주고 용왕님의 덕택인 줄 아옵니다. 미련한 이 중상은 천지분간을 모르다게 모든 것을 잘못해도 여러 가지로 용왕님 덕택으로 물리침을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기(한 포기) 심거든 및 가짓씩(몇 가지씩) 벌어주고 및 천만을(몇 천만을) 벌어주고……"라고 하는 주언에서도 용왕이 농경신이자 재복신(財福神)임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釋奠 · 祈雨 · 安宅**(조선총독부, 국서간행회, 1938),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신신앙의 역사**(김명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안동지역 용단지 신앙의 양상과 용단지의 성격**(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김명자(金明子)**

용알뜨기

상호참조 용왕(522쪽)

정의 정월대보름날이나 첫 용날[上辰日] 새벽 첫닭이 울 때 부인들이 우물이나 샘에서 물을 길어오던 풍속. 가장 먼저 용알을 뜨면 그해 운수가 대통한다고 하고, 이 물로 밥을 해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지역에 따라 용물뜨기, 용알줍기, 새알뜨기, 복물뜨기, 수복수(壽福水)뜨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역사 용은 민간신앙에서 물을 다스리는 수신(水神)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우물, 샘, 하천, 바다 등 물이 있

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주한다고 믿어진다. 신라의 국모인 알영이 알천에 사는 계룡의 옆구리에서 출생했다는 혁거세신화나 용의 화상을 그리고 비를 빌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진평왕조의 기록을 볼 때 용이 고대사회부터 수신으로 신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현종조에는 흙으로 용의 상을 만들고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기우제는 조선시대에도 토룡제(土龍祭)라 불리며 성행하였고, 현재도 정초에 용왕제를 지내는 지역이 많으므로 용신신앙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유래 깊은 신앙임을 알 수 있다.

용물뜨기의 정확한 기원 연대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용신신앙에 기대어 가정의 무병과 풍농을 기원하는 기본적인 신앙 행위이고,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보편적인 민간의례이기 때문에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민간의 풍속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조선시대 후기에 요즘과 동일한 형태의 용알뜨기가 민간층에서 성행하였음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상원조에는 "이날 꼭두새벽에 정화수 한 그릇을 긷는 것을 '노룡자(撈龍子)',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시(魚鳧施)'라고 한다."라고 하여, 용알뜨기와 어부심 등 용왕을 모시는 민간층의 의례가 당시에도 성행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상원조에도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 집집마다 바가지를 가지고 서로 알을 다투어 정화수(井華水)를 길어 온다. 이것을 '노룡란(撈龍卵)'이라고 한다. 맨 먼저 긷는 사람이 그해의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하여 정화수 뜨기가 가정마다 행해졌으며 경쟁 의례로서의 특징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룡자(撈龍子)', '노룡란(撈龍卵)', '급용란(汲龍卵)' 등 문헌에 나타난 명칭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후기 당시의 명칭도 '용알뜨기', '용알줍기' 등과 같은 오늘날의 명칭과 동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용알뜨기를 행하는 날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초에 맞이하는 첫 용날에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진다. 간혹 정월 열나흗날이라는 제보도 있는데, 이는 용알을 먼저 뜨면 그해의 운수가 좋다고 하므로 서로 먼저 물을 길어 오려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시간이 점점 앞당겨진 결과로 보인다.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등 문헌에는 용알뜨기가 정월대보름날에 행하는 의례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문인인 김려(金鑢)가 정월대보름의 다양한 풍속을 노래한 〈상원리곡(上元俚曲)〉 25수 가운데에서 이 용알뜨기의 모습을 읊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 용알뜨기가 원래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여성의 민속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 마을 각시들 초록명주 차림새로
> 담장 밖에 모여서 소곤거리는 말
> 동이 끼고 패 지어 냇물에 가서
> 용의 알 남실남실 떠 이고 오네.

민간의 속설에 따르면 하늘에 사는 용이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지상으로 내려와 우물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한다. 따라서 물을 첫 번째 긷는 사람만이 물에 낳은 용의 알을 떠 갈 수 있고, 용의 알이 들어간 정화수로 밥을 해 먹으면 그해 운수가 대통하고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부녀자들은 서로 먼저 용알을 뜨려고 밤을 지새워 가며 우물을 지키거나 아예 두레박줄을 잡고 버티는 부산스러움을 떨기도 하는 풍속이 생겼다. 그러나 용알은 첫닭이 울어야만 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도 상당한 인내심과 부지런함을 요하는 일이었다.

용알뜨기에서 말하는 용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다.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은 『해동죽지(海東竹枝)』의 명절풍속 가운데 '급용란(汲龍卵)'에서 "옛 풍속에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정화수를 긷는다. 물 위에 방울 거품이 있으면 이것을 용란(龍卵)이라 하고, 이것을 보면 재수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용의 알이 뜬다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우물이나 샘의 물을 바가지에 따를 때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온다. 이것을 용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예전부터 이 물방울을 용알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급용란(汲龍卵)'의 이어지는 시에서 "어여쁜 색시 희미한 달빛 비치는 새벽에 정화수를 길으니 / 돌우물 난간머리에서 두레박틀 소리 울려 퍼진다. / 파뿌리 머리의 늙은 어머니 나직한 소리로 묻기를 / 용알 몇 개나 떴느냐?"라고 노래하고 있어 정초 가정신앙으로서 용알뜨기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바가지에 뜬 물방울이 많을수록 좋은 징조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용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 광명지역에서는 정초 용날 새벽에 달이 우물에 가득 비칠 때 가서 물을 떠 왔다는 경우도 있어 우물이나 바가지에 비친 달을 용알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장독에 떠놓은 정화수
충북 단양군 도담리, 2003.3.22, 김준기



정월대보름 용왕에게 올리는 촛불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섬강, 2003.1.15, 김준기

용알뜨기에서 먼저 온 사람이 일단 용알을 뜨게 되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용알을 뜰 수가 없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먼저 다녀간 사람들은 물을 떠갔다는 표시로 짚으로 똬리를 틀거나 지푸라기를 잘라서 우물에 넣어 두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른 샘이나 우물로 용알을 뜨러 다녔다. 늦게 물을 길어 오면 여름에 농사일을 할 때 비를 자주 맞는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용알을 뜨러 갈 때 오곡밥이나 약밥을 뭉쳐 우물에 던져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용알뜨기'와 '용왕먹이기'가 결합된 형태이다. '용왕먹이기' 역시 정월대보름이나 첫 용날에 강이나 우물에서 촛불을 밝히고 가족들의 평안과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여성들의 의례이다. 따라서 이 두 의례가 병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에 따라 '용왕먹이기'는 생쌀이나 팥 등을 우물이나 강에 뿌리기도 한다.

지역사례 '용알뜨기'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정월의 여성민속이고, 형태나 절차 역시 대동소이한 편이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용알뜨기'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동두천지역에서는 보름날 주부들은 일찍 일어나 우물에 가서 용알을 떠 왔다. 물을 뜨고 난 뒤에는 짚을 동그랗게 말아서 띄워 두고 온다. 정월 열나흗날 밤 12시가 넘으면 서로 먼저 물을 길어 가려고 서둘렀다. 대보름날에 늦게 물을 길어 오면 농사일을 할 때 비를 맞는다고 한다. 이렇게 새벽 일찍 길어 온 물로 정월대보름날 아침에는 쌀밥을 해 먹고 밤에는 섬만두를 해 먹었다. 섬만두는 벼가 많이 열려 풍년이 되어 쌀섬이 많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평상시에 만드는 만두보다 속이 꽉 차게 소를 넣어 크게 만든다.

양주지역에서는 밤에 달이 뜨면 우물에 가서 '용알 뜬다'라고 하여 물을 길어 왔다. 정월 열나흗날 밤에 떠 온 이 물로 대보름날 아침밥을 지어서 먹었다. 용알을 뜨지 못하고 대보름날 아침에서야 우물에서 물을 떠 오면 일 년 내내 소나기를 자주 맞는다고 한다.

강원도 화천지역에서는 '용알떠오기'라고 하며, 정월 열나흗날과 대보름날 아침에 동네 우물에서 일찍 물을 길어 온다. 우물은 세 곳의 우물을 떠 오면 좋다고 한다.

경북 문경지역에서는 대보름날 새벽에 여성들은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 온다. 이날 새벽에 마을 공동우물 세 곳에서 먼저 물을 길어 가면 그

해 농사가 잘된다고 하여 남보다 먼저 우물을 떠가려고 한다. 이것을 '용물뜨기'라고 한다. 원래는 열나흗날 자정에 우물을 길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남보다 먼저 길어 가기 위해 자정이 채 되기도 전에 우물물을 길어 가기 일쑤였고 점차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한다.

충북 제천지역에서는 '용물'이나 '용알뜨기'라고 하며, 정월 열나흗날에 찰밥을 먹고 짚으로 동그란 똬리를 만든다. 예전에는 대보름날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간 똬리를 우물에 넣고 "용알뜨자."를 세 번하고 우물물 한 바가지를 떠 가지고 와 대보름날 아침밥을 하였다.

충남 논산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남보다 먼저 떠오는 우물물을 '행운의 물'이라고 하여 부녀자들이 새벽 일찍 우물물을 떠 온다. 이 물을 가족들이 마시기도 하고 장광(장독대)에 올려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용의 고유어는 '미르'이다. 어원적으로도 물의 고어 '믈'과 연관성이 짙다. 따라서 용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적 물의 신[水神]임이 분명하다. 이 용에 대한 신앙은 물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심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전통적 세시풍속이나 가정신앙에서 용왕신앙과 관계있는 의례가 유난히 많았다. '용알뜨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용알뜨기'는 정월대보름날에 여성들이 물에서 용알을 떠 오는 의례로서 보름달, 물, 알, 여성이라는 생명과 풍요의 원형적 상징으로 이루어진 민속이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의 주술원리와 상통하는 것이어서 '용알뜨기'의 유래가 자못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용알뜨기'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인 동시에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보편적 여성민속이라는 점에서 가정신앙에 속하기도 한다. '용알뜨기'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용왕은 주로 마을의 우물이나 샘, 강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분명 집 밖에 존재하는 신격이지만 마을신으로서 모셔지는 신격이라기보다 가신(家神)으로서 모셔지는 성격이 짙었다. '용알뜨기'의 주체가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였고, 그 내용 또한 가족들의 평안과 가정 단위의 풍농을 기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존재하는 다른 가신(家神)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용알뜨기'는 용이 낳은 알을 먼저 떠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되게 해 달라고, 일 년 열두 달 신수가 좋으라고 비는 기복신앙으로서의 민속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정월대보름 이후에는 농사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근면함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기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정화수를 뜨며, 가족과 집안일을 생각하면서 비손하는 '용알뜨기'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의 부지런함과 가족에 대한 정성 및 사랑을 잘 나타내 주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海東竹枝,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민속지 3–세시풍속, 놀이**(경기도박물관, 2000),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속악유희**(최영년, 범우사,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선대세시기 2**(국립민속박물관, 2005),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민속대관 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세시풍속**(최상수, 고려서적, 1960), **한국풍속지**(양재연 · 임동권 · 장덕순 · 최길성, 을유문화사, 1971).

필자 **김준기(金俊基)**

용왕(龍王)

상호참조 어부심(460쪽), 용단지모시기(516쪽), 용알뜨기(519쪽), 용왕제(526쪽), 우물제(531쪽)

정의 가정의 평안, 가족의 무병장수, 풍년, 풍어, 무사항해 등을 관장하는 신.

역사 용은 우리나라 역사에 흔하게 등장하는 신적 존재이다. 고구려의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의 수레를 끄는 오룡(五龍)이 바로 용이다. 주몽도 죽은 후 용을 타고 승천한다. 신라의 국모 알영 또한 계룡(鷄龍)의 몸에서 났으며, 석탈해도 자신의 본국을 용성국(龍城國)이라 하고 있다. 백제의 30대 무왕 또한 지룡(池龍)의 후손으로 묘사된다. 특히 신라시대에 용왕에 대한 숭배는 강화된다. 불교의 호국룡(護國龍)신앙이 그것이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동해 바위 위에 장사 지냈으며, 그 후 호국용신으로서의 이적을 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용왕은 재래의 수신(水神)신앙에 불교, 도교의 용신앙이 결합하여 형성된 신격으로서 호국신의 위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제향(祭享) 대상이 되어 섬겨지기도 하였다.

내용 민간에서 용왕에 대한 신앙은 크게 세 층위에서 형성된다. 우선 마을신앙 형태이다. 어촌에서는 정초에 그해 어로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를 지낸다. 풍어제 절차 중 용왕제(龍王祭)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풍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 바로 용왕이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의 경우 용왕은 풍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넋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정신앙에서는 가정의 평안, 가족의 무병장수, 풍년, 풍어와 무사항해 등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숭배된다. 가정 단위에서 주부가 용왕에게 행하는 의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왕먹이기'이다. 이는 '용왕제', '요왕제', '용신제', '유왕제', '농사 용왕', '바람할매 용왕', '갯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용왕먹이기'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가정에 따라 용왕먹이기를 하는 날은 다양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정월이며, 그중에서도 대보름날이다. 이 외에 3일, 6일, 7일, 13일, 14일 등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놓고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정월 한 달 이내 또는 정월대보름 이내에 용왕먹이기를 하면 된다고도 한다.

정월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삼월삼짇날과 시월상달이다. 삼월에는 삼짇날 외에도 초하루에서 삼짇날 사이에 택일하기도 한다. 시월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 그 달 내에 택일하여 용왕먹이기를 한다. 이 밖에도 이월 바람 올리는 날, 사월, 칠월칠석날, 구월, 섣달그믐에 용왕먹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이월 바람 올리는 날에 먹이는 용왕은 '바람할매 용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에 따라 제의 시기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 송골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은 서낭신을 받기 때문에 용왕먹이기를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또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에서는 이월은 영등달이라 하여 용왕먹이기를 피한다.

용왕먹이기를 하는 횟수는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대개 두 번 이상이고, 일 년에 세 번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정 횟수를 정하지 않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한다. 즉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배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대주나 아이들의 생일 등에 용왕먹이기를 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용왕먹이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한 해 동안 집안에 액운이 들지 않고, 집안 식구 모두 건강하고 재수 좋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어촌에서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빈다. 농촌에서는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를 '농사용왕'이라고 한다. 농사용왕은 제의 시기가 정월과 시월이다. 정월 농사용왕은 그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시월상달에 행하는 농사용왕은 한 해 농사가 잘된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객지로 나간 식구들이 탈나지 않기를 빌기도 한다. 특히 제주도지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심방을 불러 바다에서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용왕먹이기를 하면 아기를 낳는다고도 한다. 용왕을 모시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례도 있다.

용왕먹이기가 행해지는 장소는 가정마다 고정되어 있다. 지역의 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제의 장소가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마다 장소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장소를 바꾸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모시던 장소를 며느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제의 장소로는 다음 세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집안의 우물이다. 이것은 가정에 개인 우물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빈도는 낮은 편이다. 둘째 마을 공동우물이다. 이 경우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피하기도 한다. 또 공동우물에서 샘제를 치른 뒤 그 물을 길어 와서 집 안의 부엌이나 장독대 등지에서 용왕먹이기를 하는 가정도 있다. 셋째 마을 주변의 물가이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되도록 집 밖에서 용왕

먹이기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마을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는 다양하다. 어촌에서는 근처의 바닷가나 모래사장, 인근에 산이 있는 마을은 근처의 골짜기나 냇가로 가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선정하여 각각 행한다. 가까이 못이 있는 마을에서는 그곳을 제의 장소로 이용한다.

이때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근래에 환경 오염 등으로 마땅한 제의 장소를 찾지 못하면 집 안의 수돗가에서 지내기도 한다.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인근의 제의 장소를 찾아가기가 힘들 때도 집 안의 수돗가에서 지낸다. 간혹 절을 찾아 용왕 먹이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에 따라서는 제일(祭日) 이전, 주로 섣달그믐날에 제의 장소를 찾아가 그곳을 청소하고 금줄을 쳐서 촛불을 밝히는 등 미리 제의 공간을 정화하기도 한다.

용왕먹이기의 제의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개인의 상황과 가정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는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제의 장소의 정화 가장 보편적인 정화 방법은 소금으로 부정을 치는 것이다. 주부는 가져간 소금을 동서남북 사방과 물에 뿌려서 잡귀를 물린다. 소금 대신 된장을 물에 흘리기도 한다. 이 과정은 제의 장소가 개인 우물이나 공동우물 또는 바닷가인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산속 골짜기나 냇가에서 행하여진다. 특별한 예로 짚단을 가지고 가서 불을 피운 뒤 이를 건너뛰기도 한다. 이 또한 부정을 없애는 의미이다.

제물의 진설 제의 공간의 정화가 끝나면 주부는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밥, 떡, 각종 나물, 북어, 과일, 마른 미역, 김, 술 등이다. 제물은 개인에 따라 개수와 양이 결정된다.

밥은 찹쌀에 콩, 팥, 땅콩, 조, 수수 등을 넣은 잡곡밥이나 흰 쌀밥을 사용한다. 밥을 올릴 때 용왕에게 용왕밥만 올리는 경우와 산신에게 산신밥을 올린 뒤 용왕밥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제의 장소와 연관이 있다. 산 근처 시냇가에서 제의를 행할 경우 산신밥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의 장소에서는 용왕밥만 올린다. 하지만 이것도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용왕밥만 올릴 때도 용왕에게 올릴 메를 그릇에 담고, 접시 세 개에 각각 밥을 조금씩 놓아 잡신을 물리기도 한다.

밥을 올리는 대신 쌀을 가져가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쌀은 평소 먹는 쌀이 아니라 새 부대에 담긴 것에서 처음 푼 것을 사용한다. 공동우물에서 제의를 행할 경우 생쌀을 손가락으로 조금 집어서 세 번 우물에 넣는다.

떡은 주로 흰 시루떡을 사용하며, 나물은 삼색 나물을 준비한다. 나물로는 집에서 흔히 먹는 콩나물, 무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등으로 준비한다. 나물 또는 나물과 함께 삼색실과를 올리기도 한다. 과일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배, 사과가 가장 흔하다. 과일을 구할 수 없으면 곶감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과일을 차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특징은 마른 미역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역은 용왕이 거주하는 용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른 미역 대신 생미역을 우물에 걸치거나 한 조각을 떼어내어 우물물에 띄우기도 한다. 집안에 마른 미역이 없으면 대신 마른 김을 진설하며, 생미역 대신 미역국을 올리는 가정도 있다.

술은 제물과 함께 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술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사람과 금기시하는 사람이 있다. 또 용왕은 그 속성이 맑은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린 음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제물 진설과 동시에 촛불을 켜서 제의 공간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불을 우려하여 촛불 밝히기를 꺼리기도 한다. 촛불 대신 조그만 바가지에 들기름을 넣고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히기도 한다.

소지와 기원 제물 진설이 끝나면 주부는 그 앞에서 동서남북으로 절을 한다. 산신밥을 올린 경우에는 산신에게 두 번 절한 뒤 산신 소지를 올리면서 "산신님네 일 년 내내 좋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며 기원한다. 산신밥을 올리지 않은 경우 용왕에게 절한 뒤 소지를 올린다. 이때의 기원 내용도 산신 소지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산신과 용왕에게는 소지 태우기를 하지 않고 간단히 비손만 한 뒤 곧 바로 가족들 소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산신 또는 용왕에 대한 소지 올리기와 기원이 끝나면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리며 기원한다. "우리 ○○○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가정이 좋게 해 주시오."라고 한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집안의 대주, 큰아들, 작은아들 순이다. 가정에 따라 여자들 소지를 함께 올리기도 하지만 대개 남자들만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보통 한 장씩 올린다. 산신, 용왕에게 먼저 석 장씩 올리고 남편과 자식들의 소지를 석 장씩 올리는 경우도 있다.

퇴상 및 제물 처리 소지를 올리고 기원을 마치면 제물을 퇴상한다. 보편적으로 제물 일부를 떼어내어 물이나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던지거나 바가지 등에 담아서 물에 흘려보낸다. 충청도지역 일부 가정에서는 집안의 액을 멀리 모두 가져 가라는 의미에서 퇴송배를 만들어 띄워 보내기도 한다.

나머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가정에 따라 다르다. 우선 제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방식이다. 경남지역의 한 가정은 소지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종이에 싸서 용왕님 흠향하라며 물에 던지고 나서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 오지 않고 제의 장소에 그대로 둔다. 바닷가 마을의 경우 제물을 모두 바다에 뿌리는 가정도 있다.

다음은 제물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물로 차린 음식을 물에 조금 흘리거나 사방으로 던진 뒤 나머지는 가져와서 먹는다. 특히 이튿날 아침에는 제의에 사용한 미역으로 국을 끓여서 밥을 먹는다. 밥 대신 쌀을 올린 경우 제물로 올린 생쌀로 이튿날 아침밥을 지어 식구끼리만 먹는다.

가장 금기시되는 일은 초상이나 출산이 있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출산이 더 금기시된다. 이는 출산을 피부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해 용왕먹이기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하고, 가정에 따라서는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용왕먹이기를 하기도 한다. 또 용왕먹이러 갈 때 부정을 타지 않도록 동물의 사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주와의 대면을 피한다. 용왕먹이기를 한 날은 남의 집 초상이나 혼사 등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조상의 묘에 손을 댄 경우에도 그해에는 용왕을 먹이지 않는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에서는 요왕제라 한다. 정월맞이를 가서 가족 중에 운수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정월대보름날 해지기 전에 한지에 수가 나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오곡밥과 나물을 담아 개울가로 간다. 가져간 오곡밥과 나물은 개울에 띄워 보내 한지는 불사른다. 오곡밥은 대보름 전날 오후에 콩, 팥, 수수, 조, 찹쌀을 넣고 14일 오후에 지은 밥이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집 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월고사와 가을고사 때 우물 앞에 떡을 놓고 치성을 드리는 사례도 많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마고실마을에서는 유왕제라 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정월 초사흗날이나 초이렛날, 열사흗날 등 좋은 날을 가려 유왕제를 지낸다. 유왕샘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는 우물이다. 한 해 동안 마을 우물이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유왕제를 잘 지내면 아들의 운수가 좋다고 하여 지내는 집이 많다. 샘고사를 지낼 때는 흰 시루떡, 미역, 생쌀을 가져간다. 늦은 밤에 유왕 앞에 도착하면 먼저 미역을 우물에 걸쳐 놓고 생쌀을 손가락으로 조금 집어서 세 번 우물에 넣는다. 그런 다음 짚을 깔아서 그 위에 나머지 제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리고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리며 비손한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지사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이전에 용왕을 먹인다. 대보름날 먹이는 것은 '농사용왕', 그 외 다른 날에 먹이는 것을 '내가 위하는 용왕'이라고 한다.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용왕 먹이기를 하지 않는다.

경남지역에서는 정월, 삼월, 시월 가운데 길일을 택하여 가정주부가 강이나 냇가의 물 맑은 곳을 찾아가 간단한 제물을 진설하고 용왕에게 안과태평과 집안 식구의 수복장수를 기원하면서 제의를 베푼다. 이를 용왕 먹이기라고 한다. 시기와 횟수는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시월상달 등 일 년에 세 번 먹인다.

장소는 마을 옆 도랑, 도랑 옆 바위,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선택한다. 가정마다 매년 먹이는 장소는 고정되어 있다. 밥, 소금, 소지 종이, 미역, 나물(콩나물, 무나물, 새파란 나물) 등을 준비하고 술이나 물은 가져가지 않는다. 미역이 없으면 김으로 대신하며, 비린 음식은 가린다.

소금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뿌려 부정을 치고, 소금 대신 된장을 물에 풀어 흘려보낸다. 그런 다음 제물을 차리고 절하면서 '용왕님네'를 부른다. 소지를 올리면서 정월에는 일 년 농사와 가족이 잘되도록 빌고, 시월에는 한 해 농사가 잘된 것을 감사한다. 소지는 용왕소

지를 한 장 올린 다음 가족 소지를 올린다. 가족 소지는 집안 어른 순으로 올린 다음 "우리 OOO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가정이 좋게 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절을 한다. 대개 남자 소지만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종이에 싸서 용왕님 흠향하라며 물에 던지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 오지 않고 제터에 그대로 둔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용왕을 요왕이라 하며, 바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해상 안전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의 물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며 정화와 생생력(生生力)의 원형이다. 또한 물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유지 수단이다. 물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수신신앙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용왕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용왕의 신성과 힘에 기대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중에서도 물을 사용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종교적 심성이 용왕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 주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용왕에 대한 종교적 심성이 결합된 형태가 바로 용왕 먹이기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오세길(吳世吉)**

용왕제(龍王祭)

상호참조 용왕(522쪽)

정의 강이나 바다 또는 우물 등 물이 있는 곳에서 용왕에게 풍어와 풍농, 안과태평, 재액초복, 자녀의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제의.

역사 신라시대의 사해제(四海祭)와 사독제(四瀆祭), 고려시대의 사해사독제와 해신제, 조선시대의 용신제 등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용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高麗圖經)』 사우조에 있는 "군산도 일봉산에 오룡묘가 있는데 그 입벽에 오신상을 그려 놓고 선원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상원조에 있는 "정결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강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을 통해 민간에서 역시 용왕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왕제는 전국에 일반적으로 분포하던 제의였지만 현재는 중부지방을 비롯한 일부 지역과 바다를 생업 터전으로 삼는 어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주관하던 용왕제를 절에서 방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방생을 용왕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내용 용왕제는 지역에 따라 어부슴(어부심, 고기밥주기), 요왕제(유왕제, 유황제), 용왕먹이기(요왕멕이, 용왕밥주기), 용왕공(요왕공), 용왕치기, 물 위하기, 산신용왕제(용왕산제), 액막이, 삼신받이, 용궁칠성 등으로 불린다. 대개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 밤에 지내지만 지역과 가정에 따라 정초, 이월,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시월, 섣달그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왕제는 매년 한 번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등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날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여러 번 지내면 더 좋다고 하여 일 년에 여러 차례 지내기도 한다. 연안 마을의 경우 대개 만조 시간을 택해 용왕제를 지낸다. 이는 제의가 끝난 뒤 용왕이 바다로 돌아가기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풍어와 풍농, 안과태평, 우물(샘)이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용왕제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액막이, 수재 예방, 아이의 점지 및 무병장수 등과 관련짓기도 한다. 따라서 용왕제를 '용왕액막이'라고 한다. 또 아이의 점지를 기원할 때는 '삼신받이',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는 '용궁칠성'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한다. 수재를 막기 위해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산신을 먼저 위한 뒤 용왕을 모시는 특징이 있다.

용왕제는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진 용왕을 위하는 제의이다. 따라서 바다나 강, 우물, 샘 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치성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대개 마을마다 정해진 몇 개의 장소가 있지만 점쟁이의 지시에 따라 샘이나 바위 등을 선택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아이팔기를 한 장소에서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아이의 점지를 기원하는 경우에는 우물이나 개울보다 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골짜기의 깨끗한 샘에서 용왕을 위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거리제와 습합된 경우에는 다리나 물 근처의 길목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장독(장꼬방)에서 용왕을 위한다.

한편 용왕은 모시는 장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기도 한다. 개울과 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흐를 용왕이 있고, 샘과 같이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솟을 용왕이 있다고 여긴다. 이밖에 대보름에는 농사짓는 용왕을 위하고 이월에는 바람할매용왕을 위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용왕제는 부녀자가 중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제수는 일반적으로 메, 편, 미역, 명태, 삼실과, 초, 소지 등을 마련한다. 먼저 용왕제를 지내는 곳에 가서 짚을 깔고 제수를 진설한다. 그러고 나서 부녀자가 절을 하고 안과태평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이때 반드시 용왕소지를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대주, 아들, 딸 등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 대신 용왕에 대한 헌물로 한지나 김에 밥을 싸서 만든 '쌈'을 물에 던져 넣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식구의 이름이나 특정 이름을 부르면서 쌈을 던져 넣는다. 쌈이 가라앉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겨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쌈을 던진다. 소지를 올린 뒤에는 상을 거두고 제장 주변에 떠도는 잡귀잡신을 위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주변에 놓는다. 제물의 일부를 바가지에 담고 촛불을 밝힌 뒤 물에 띄워 보내거나 진설하기 위해 깐 짚으로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종짓불과 미역 등을 넣어 띄어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바가지 또는 짚으로 만든 배가 액을 가지고 멀리 떠내려간다고 여긴다. 남은 제물은 집으로 가져와 식구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튿날 아침에 용왕제 때 쓴 미역으로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용왕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바닷가, 2006.2.12, 김도현



용왕에게 비손



용왕제 후 쌀점보기



용왕제 후 액막이

지역사례 경기도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요왕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부슴(어부심), 고기밥주기, 용왕액막이 등으로도 부른다. 경기도지역의 용왕제는 집안의 안과태평뿐만 아니라 액막이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특히 수재의 예방과 관련짓는 경우가 많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찰밥을 해서 한 숟갈씩 한지에 싼 뒤 우물에 세 개, 개울에 일곱 개를 띄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물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는 대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용왕제(어부심)를 지낸다. 어린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액막이를 하기 위함이다. 간혹 어린이가 없는 가정에서도 수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왕을 위한다. 주로 대보름날에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한지나 김에 제의 대상자의 나이 수대로 밥을 떠서 싼 뒤 바가지에 담아 두었다가 마을 앞에 있는 개울에 함지박채로 던져 넣으면서 가족들이 수재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1리에서는 바가지 대신 종이배를 접어서 띄우기도 한다. 종이배에는 대주와 식구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함께 넣는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는 가족 가운데 그해 수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용왕제를 지낸다. 정월 열나흗날 오후에 콩 · 팥 · 수수 · 조 · 찹쌀 등으로 지은 오곡밥과 나물, 수가 나쁜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쓴 한지를 마련한 뒤 밤이 되면 개울가에 간다. 그리고 오곡밥과 나물을 개울에 띄워 보내면서 한지를 태운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에서는 용왕제를 어부심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오곡밥을 반 주먹 정도 크기로 한지에 싸서 바다나 우물에 띄운다. 이때 오곡밥을 식구 수대로 준비해서 가족 모두가 편안하기를 기원한다. 지역에 따라 대보름 아침에 식구 수대로 밥을 담은 뒤 밥그릇의 밥을 세 숟가락씩 떠서 김에 싼 것을 제물로 사용하기도 하며, 나이 수대로 밥을 싸기도 한다.

한편 용왕제와 방생이 습합되는 양상도 다수 나타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에서는 대보름날 강가에 가서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조밥을 물에 띄운다. 이를 용왕제 또는 고기밥주기라고 한다.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서는 정월에 절이나 만신 집에 갔을 때 신도들이 단체로 강이나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자라를 방생하고 가족들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한지를 태우면서 사방으로 절을 한다. 이를 용왕제라고 한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어부슴(어부식, 어부심, 어부제), 용왕밥주기, 액막이 등으로도 부른다. 주로 안과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내지만 경기도지역처럼 액막이와 관련짓는 경우가 많다.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서는 대보름날 아침에 용왕제를 지낸다. 이를 주민에 따라서 어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지에 집안 식구 수대로 밥을 싼 뒤 개울에 던지면서 안과태평을 기원한다. 그해 액이 있는 식구가 있으면 대보름날 새벽에 개울가로 가서 촛불을 밝히고 메를 한 그릇 차린다. 그리고 용왕님께 액운을 막아 주길 기원한다. 한편 연안지역에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배고사와 용왕제를 지낸다. 대주와 부인의 생시에 맞춰 날을 받은 뒤 바닷가에 제물을 차려 놓고 풍어를 기원한다. 이때 수사자(水死者)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사한 조상 수대로 메를 올린다. 이 밖에 해녀가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서는 일부 해녀들이 대보름날 밤에 바닷가에서 용왕을 위한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유왕제(요왕제, 유황제), 요왕먹이기, 요왕치기, 물 위하기 등으로 부른다. 경기 · 강원도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안과태평과 액막이, 자녀의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낸다.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지티2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을 "용왕이 굽어보시는 날"이라고 여겨 이날 용왕제를 지낸다. 가정에 따라 정월 초사흘이나 초엿샛날을 택하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는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낸다. 한편 길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리제와 습합된 형태의 용왕제도 있다. 논산시 양촌면 양촌1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해거름쯤에 용왕제와 거리제를 함께 지낸다. 장소는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근처이다. 제물은 잡곡밥 세 그릇, 떡 한 시루, 삼색채소, 김 등이다. 차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를 갖고 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 차고사를 별도로 지낸다. 진설이 끝나면 가족의 안과태평을 기원하면서 용왕소지를 올리고 길에서 안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길대장군 소지를 올린다. 차고사를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 차소지도 따로 올린다. 소지를 모두 올린 뒤에는 떡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제사 지낸 곳에 버리고 동전 일곱 개를 놓고 돌아온다. 떡은 조금만 떼어 제물과 함께 버리고 남은 떡은 마을로 갖고 와서 주민들과 나눠 먹는다.

용왕밥만들기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마을, 2000, 국립민속박물관



이 밖에 용왕이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여기는 마을도 있다.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는 용왕을 위한 뒤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용왕제(요왕치기)를 지낸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서도 아이의 점지와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용왕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임신을 원하는 부인이 산속에 있는 깨끗한 샘에 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가정에 따라 부부가 함께 가서 아이의 점지를 기원하기도 한다.

한편 산에서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 산신과 용왕을 함께 모신다. 이를 산신용왕제라고 한다. 보은군 수한면 묘서1리에서는 주로 산에서 요왕모시기를 했기 때문에 산신요왕제라고 부른다. 대개 주부가 제의를 주관했지만 무당이나 점바치와 함께 가는 경우도 있다.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에 골짜기에 있는 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제수는 팥 시루떡, 삼색실과, 청수, 소지, 초 등이었다. 샘에 도착하면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진설한 뒤 안과태평을 기원한다. 그리고 "용왕님, 용왕님, 용왕님"이라고 세 번 부르고 나서 반절을 한 뒤 동서남북 차례대로 세 번씩 절을 한다. 소지는 용왕님소지를 먼저 올리고 대주, 나머지 가족 순으로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린 뒤에는 잡귀를 위해 제물을 조금씩 떼어두고 온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용왕먹이기(용왕멕이), 용왕공드리기 등으로도 부른다. 이 지역에서는 용왕제의 목적을 주로 아이의 점지 또는 무병장수와 관련짓는다. 특히 아이팔기와 용왕제가 습합되어 아이팔기를 한 장소에서 용왕제를 지내는데, 이 때문에 대개의 마을이 정해진 장소에서 용왕을 위하는 것과 달리 각 가정마다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1리에서는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도록 자연물이나 사람(무속인)에게 아이팔기를 한다. 그리고 매년 한 번 아

이를 판 장소에서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를 용왕먹이기라고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2리에서는 대보름날 또는 시월에 백편 등으로 제물을 차린 뒤 아이팔기를 한 곳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고령군 개진면 생리 송골마을에서는 대보름쯤에 용왕제를 지낸다. 이 곳에서는 가정마다 정해진 장소가 있다. 주로 마을 뒤에 있는 못이나 물이 깨끗한 골짜기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메, 나물, 과일 등으로 차린다. 먼저 산신에게 절을 두 번 한 뒤 용왕에게 절을 두 번 하면서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한 주민은 정월 초엿샛날에 유가사 수도암에서 용왕을 위한다. 제수로는 쌀, 소금, 촛불 등으로 간단히 준비한다. 먼저 산쪽을 향해 소금을 뿌리면서 부정을 가시고 쌀을 세 군데에 놓고 용왕을 위한다. 정월에 초상이 나면 4월에 절에 갈 때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용왕공(유왕공), 용왕멕이, 용왕산제, 용신제, 삼신받이 등으로도 부른다. 이 지역 용왕제의 특징은 가정의 안과태평뿐만 아니라 아이의 점지와 무병장수와 관련짓는 경우가 특히 많다는 점이다. 또한 개울에 자라, 미꾸라지, 붕어 등을 방생하며 용왕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제의 장소로 장독대가 선택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남 곡성군 입면 약천리에서는 자녀의 운세가 좋지 않을 경우 용왕제(용왕공)를 지낸다. 처음 용왕제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용왕에 대한 헌물로 산 닭을 사용해야 한다고 여겨서 닭을 물에 빠뜨린 뒤 용왕을 위한다. 장성군 북일면 상덕리1구에서는 삼월삼짇날에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낸다. 제물은 메, 편, 나물, 고기 등이다. 제의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 간 계란을 꺼내 속은 먹고 껍데기 안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 불을 밝혀서 물에 띄운다. 이때 계란 껍데기가 물에 잘 떠내려가면 집안이 태평하다고 믿었고 반대로 물속에 가라앉으면 집안에 우환이 들 것으로 여긴다.

한편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에서는 가뭄이 들어 샘에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산속에 있는 깨끗한 샘에 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표주병을 준비해 깨끗한 물을 담고 솔잎으로 표주병 구멍을 막는다. 용왕제를 지낸 뒤 이 표주병을 거꾸로 들고 온다. 거꾸로 들린 표주병에는 솔잎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며, 이 물줄기를 따라 물이 따라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남은 물을 마을에 있는 샘에 부어주면 가문 샘에서 다시 물이 차오른다고 여긴다. 이 밖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에서는 용왕제를 삼신받기라고도 한다. 이는 용왕을 위하면 득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마을의 공동샘에 가서 샘의 네 귀퉁이에 쌀을 놓고 득남을 기원하면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三國史記**,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한양명(韓陽明)

우마신(牛馬神)

상호참조 마구간고사(158쪽)

정의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좌정하여 소와 말을 관장하는 가축 신. 마부신, 쇠구영신, 마대장군, 마귀신(馬鬼神), 외양간신, 구신(廐神)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우마신은 가축이 번성하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외양간을 지켜주는 신으로, 소나 말을 기르는 집의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소나 말을 귀하게 여겨서 정월의 첫 소날[丑日]이나 말날[午日]에 소와 말을 잘 대접하며 위로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시월(十月) 오일(午日)조에 보면 "오일은 말날이라 부르면서 이날 붉은 시루떡을 만들어 마구간에 차려 놓고 신에게 빌면서 말의 건강을 축원했다. 병오일(丙午日)에는 '병(丙)'과 '병(病)'의 음이 서로 같아서 말이 병드는 것을 꺼려 말을 쉬게 하였고 무오일(戊午日)에는 귀하게 위하였다.(午日稱馬日 作赤甑餠 說廐中 以禱神祝 其馬健 丙午日則不用 丙與病音相似 忌馬病也 以戊午日爲貴)"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월 말날에는 붉은 팥떡을 하여 마구간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명절이나 마소가 병이 났을 때 제를 지내는 게 전부이다. 제를 지낼 때는 특별히 음식을 차리지 않고 축원만으로 병이 낫기를 빈다. 명절 때도 떡 같은 것을 조금 떼어내 놓는 것이 전부다.

별다른 신체(神體)는 없지만 경기도지역에서는 외양간에 '우마걸립'이라고 하여 하얀 종이 또는 창호지를 손수건 크기만큼 잘라서 벽에 박힌 못에 걸어두기도 한다. 이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고사를 지낼 때 떼어서 불사르고 다시 새 창호지를 준비하여 건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창호지 대신 구멍 뚫린 돌을 새끼에 꿰어 걸어두기도 한다.

참고문헌 **마제**(천진기,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필자 조선영(曺善映)

우물제

상호참조 용왕(522쪽)

정의 우물에 있는 용신(龍神)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제의. 샘제 또는 용제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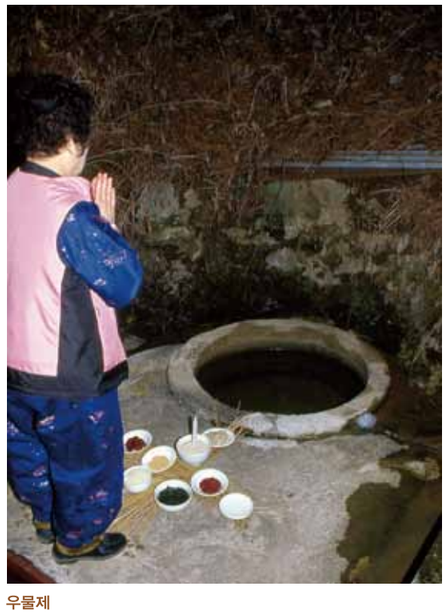
역사 우물제와 관련된 용신은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수렵채취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용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종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용신은 고려시대에 중요한 신격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용신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의 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용의 영험성 · 신성성 등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용을 신앙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훨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물과 용의 관계성은 용과 관련된 우물 설화에 무수히 나타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용 두 마리가 금성 우물 속에 나타났다. 이때 소낙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성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백제 무왕인 서동은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지변(南池邊)에서 살던 중 그 연못의 지룡(池龍)과 교통하여 출생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용왕제가 삼국시대 초기부터 계속 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려시대에 와서도 고려 건국주인 왕건의 가계도를 보면 왕건이 용부인에 얽히는 개성대정설화(開城大井說話)에 우물과 용의 복합 관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용왕제인 우물제의 역사는 원초 이래로 유구한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우물제는 정월 세시풍속의 하나로 거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물에 음식을 차려 놓고 물의 풍족함을 기원하기 위해 가정 단위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을 단위로 우물제를 지내기도 한다. 우물제의 신격은 용신이며, 물을 신격화한 수신(水神)이다. 용은 못이나 강 또는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몰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이처럼 용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용을 위한 제사가 모두 물가라는 점도 용의 수신적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수신이 마을의 공동우물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의 동신(洞神)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용신이 본래 수신으로서 물의 풍족함을 관여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급기야는 가정의 복록을 주관하거나 무병장수, 부귀다남, 무사안녕, 만사형통을 주관하는 신격으로서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정월에 풍물굿으로 반드시 샘굿을 쳤다.

가정과 마을로 나누어 우물제의 제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정 단위의 제사 내용이다. 정월 열나흗날에 집 안의 우물을 다 퍼내고 밤에 부인이 목욕재계한 뒤 상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절을 하며 집안의 행운을 빈다. 제물은 밥, 미역국, 정화수 한 그릇이다. 우물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려 촛불을 밝혀 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와 같은 우물제는 집안에 샘이 없는 경우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하기도 하고, 집 안이 아닌 마을의 공동우물이나 냇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마을 단위의 우물제는 제의적인 절차와 풍물굿이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풍물굿으로만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제사와 풍물이 어우러지는 우물제의 대표적인 예로 전남 영암군 시종면 정동마을 정호제를 들 수 있다. 정호제는 '우물제'라고도 부르며,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마을의 재난 예방과 풍년 · 풍어를 기원하는 샘굿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당산굿을 필두로 우물제를 올리고 샘굿을 친다. 샘굿이 끝나면 2월 초하루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밟기를 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생기복덕을 맞추어 제관을 정하고 제관 가운데 가장 청결한 제관의 집을 선정하여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제물로는 술, 흰 설기떡, 삼채, 오과, 포, 육어, 촛불 등이 있다. 제사는 유교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 某日干支十五日干支 幼學某祭官(姓名)敢昭告于, 높으신 우리 샘 각씨님께 드리옵니다. 금년에도 이 정성을 모아 공을 드리오니, 우리 동네 매사가 형통하고 마을 전체 인물들이 훌륭하게 출세할 것이며,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샘물이 약이 되어 여러 병질을 몰아내어 무병할 것을 축원하오니 흠향하옵시고 항시 맑은 물이 되시길 재배 상향 하옵니다."이다. 아헌이 잔을 올리고 종헌이 첨작한 다음 본격적으로 풍물을 친다. 풍물은 꽹과리 3, 쟁 1, 장구 1, 북 1, 상모 3, 소고 15, 영기 2, 농기 1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1, 2, 3채를 돌려 치고 4, 5채로 풍물패가 서서 재배한 뒤 "컹컹 나으소서 자발자발 나으소서."라고 소리 맞추어 외친다. 1, 2, 3채를 느리게 맞추어 치면 샘 세 바퀴를 돌고 굿을 그친다. 그런 뒤 제관 이하 마을 사람 및 풍물패가 모두 음복을 하고 샘굿을 친 뒤 퇴장한다.



우물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비봉, 2010.1.14(음), 강성복

특징 우물제는 단순히 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물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이 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뿐이지 샘이 지니는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제가 용신신앙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용신신앙의 일환으로 거행되기 때문에 용신을 모실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우물제나 용왕제를 지낼 수 있다. 따라서 우물제는 단순히 샘이라는 장소성보다도 물과 관련된 용신을 모실 수 있는 곳이고, 용신신앙의 실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제는 마을의 샘에서 지내는 제사로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을의 냇가나 깊은 산속의 샘, 바닷가 등지에서 지내는 용왕제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지내는 용왕제는 마을 앞 냇가에서 지내는 경우와 선창이나 바닷가에 제물을 진설하여 용왕에게 풍어를 비는 경우가 있다. 냇가에서 지내는 경우는 한 해 동안 식구들이 객지에서 탈나지 않고, 특히 물가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원한다. 용왕제를 지내는 사람은 정월대보름날 식전에 보름밥을 차려서 냇가로 나간다. 주로 그 집안의 주부가 지내며, 용왕에게는 밥을 해서 던져 넣는다. 이때 흰 종이에 집안 식구 수대로 밥을 싼다. 그해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몫에는 부적을 미리 구해 놓았다가 한데 넣기도 한다. 용왕에게 재배하고 밥을 냇가에 던지면서 올해 운수대통하게 해 달라고 빈다. 이를 용왕제 또는 어부제라고 부른다. 식구 중에 액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미리 냇가에 가서 촛불을 밝히고 그 앞에 메 한 그릇을 지어 올린다. 그리고 용왕님께 "나쁜 액운을 모두 막아주십사."하고 빈다. 용왕제에 올린 제물은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화천군 상서면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우물에 용이 내려와서 먹는다고 하여 찰밥이나 떡을 해서 물에다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세 번씩만 숟가락으로 떠서 던지고 소원을 빌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역의 용왕제는 액막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물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2009.4.20
강성복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날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제물은 팥 시루떡, 삼색실과, 청수 등이다. 소지종이, 초, 짚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산속에 있는 샘가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다. 용왕에게는 '집안이 태평하게 해 달라,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크게 해 달라' 등의 기원을 한다. "용왕님"이라고 세 번 부르고 나서 용왕에게 반절을 한다. 이때 횟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신이 만족할 만큼 하면 된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번씩 절을 한다. 용왕님소지와 식구소지를 올린다. 식구소지는 대주의 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고, 나머지 가족의 순으로 올린다. 소지를 올린 뒤에는 제물을 조금씩 떼어두고 온다. 나머지 제물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그런가 하면 영동군 용화면이나 심천면에서는 용왕제를 냇가에서 지낸다. 이처럼 충북지역에서는 용왕제를 냇가에서 많이 지낸다.

충남 예산지역에서는 샘제를 정초에 샘에서 지낸다. 선거리나 제를 잘 모시는 사람들이 좋은 날을 알려 주면 그날 제를 모신다. 대체로 용날(辰日)이 좋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초에는 지신제, 용왕제 등을 지내느라 바쁘다. 용왕제 역시 집안 식구들이 한 해 무탈하고 좋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왕에게 비는 것이다. 고사날 저녁이 되면 주부가 직접 제물을 지고 샘으로 간다. 상황에 따라서 선거리를 부르기도 하고, 본인 혼자 가기도 한다. 제물로는 메, 떡시루, 명태 등을 올린다. 과일이나 대추, 감 등은 놓지 않는다. 용왕에게 비손과 절을 한 뒤에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려주고 온다. 공주시 탄천면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땅거미가 진 뒤에 밥, 미역국, 나물 등을 마련해 샘으로 나간다. 샘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마련해 간 제물을 올려놓는다. 그런 뒤 그 앞에서 자손들이 물가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비손한다. 치성을 마친 후에는 불밝이쌀을 조금씩 세 번 집어서 샘에 넣는다. 샘에서 치성을 드릴 때에는 김쌈을 넣지 않지만 냇가에서 치성을 드릴 경우에는 미리 가져간 김에 밥을 조금씩 싸서 냇물에 던져 넣기도 하고 명태 머리를 잘라서 넣기도 한다. 이렇게 제물을 조금씩 넣는 것은 용왕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한다. 논산시 광석면에서는 용왕제를 자신들이 먹는 마을 샘에서 지낸다. 제일은 무당이나 스님이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주기도 하지만, 주로 정월 초승이나 보름, 그믐에 행한다. 일반적으로 충남지역에서는 용왕제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자신들이 먹는 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경남 의령군 칠곡면에서는 용왕제를 '용왕먹이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의의 목적은 안과태평, 자식들의 소원성취, 수복장수이다. 주로 정월대보름이나 이월 초하룻날에 지낸다. 제의 시간은 가정마다 다르다. 아침에 행하거나 낮에 행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에 행하기도 한다. 제사는 예전에는 공동우물에서 행하였으나 우물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근처 냇가나 산에 있는 개울에서 주로 행한다. 용왕을 먹일 때는 먼저 주부가 아침 일찍 목욕재계를 한 뒤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물을 길어 그 물로 제물을 장만한다. 장만한 제물을 제터로 옮길 때에는 더러운 것을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상주와 동물의 사체, 오물을 꺼린다. 제터는 각기 깨끗한 곳을 가려 정하며, 제물은 바닥에 깨끗한 짚이나 종이를 깐 뒤 진

설한다. 제물은 밥, 나물, 마른 명태, 소금 등이다. 제의 절차는 간소하다. 제물을 진설한 뒤 삼배 또는 사배를 올린 다음 "용왕님네! 산신님네! 우리 자식들 소원성취 시켜 주시고 재수 있게 해 주이소, 집안 편케 해 주이소."라고 이령수를 외며 비손한다고 한다. 비손이 끝나면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소지종이의 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길하다고 한다. 제의가 끝나면 각 제물을 세 번씩 나누어 물에 던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일반적으로 경남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용왕먹이기라고 부른다. 일 년에 세 번, 즉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및 시월에 먹이는 경우가 많다. 용왕을 먹이는 장소는 깨끗한 냇가나 골짜기로, 각 가정이 매년 먹이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반드시 소금을 가지고 간다. 이것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뿌리면서 나쁜 것을 쳐 낸다.

전남지역에서는 샘에 가서 드리는 공을 '용왕공'이라고 한다. 곡성군 오곡면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동네 부녀자들이 각자 음식을 대야에 담아서 마을 앞에 흐르고 있는 섬진강 강가에 가서 차린 다음 비손하고 소지하는 것으로 용왕공을 드린다. 소지를 한 다음에는 한쪽에 짚을 깔고 음식을 담아 헌식한다. 그러나 집 안에 샘을 판 뒤부터는 섬진강까지 가지 않고 집 안 우물 앞에서 용왕공을 드린다. 요즘에는 절에 가서 방생하는 것으로 용왕공을 대신하는 경우도 생겼다. 담양군 금성면에서는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아이가 잘될 수 있도록 샘이나 우물에 가서 용왕공을 드린다. 마을에서는 샘굿을 칠 때 용왕제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다. 목포시 서산동에서는 밥, 나물, 술 등을 준비해 샘에 가서 비손을 한다. 이를 '용왕'이라고 부른다. 여수시 돌산읍에서는 우물신이라 하여 정월대보름날에 보름음식을 준비하여 우물 앞에다 상을 차려 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남지역에서 정월대보름날에 용왕제를 모시는 곳은 샘 · 냇가 · 강 등 물이 있는 곳이며, 가족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정초에 가족 중 손재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왕제를 모시기도 한다.

의의 우물제는 주로 정월대보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기풍제의적인 의미와 세시의례적인 의미가 있다.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용이 지니는 풍요의 대상으로서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과 만사형통 등을 보장해 주는 신적 존재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물제가 용의 영험성과 신성성을 구현하는 의례적인 실천으로써 가족 중심의 신앙형태에서 마을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물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황헌만

참고문헌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표인주(表仁柱)**

웃줄할매

정의 자손들의 안녕과 무병장수 등을 위해 모시는 조상신(祖上神)의 하나. 지역에 따라 웃줄, 웃줄할아버지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웃줄할매 관련 제의는 경북, 전남,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손들의 안녕과 무병장수, 득남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긴다. '웃줄할매'로 불리는 경북지역에서는 신격이 여성신이고, 신체(神體)는 웃줄단지이며, 시월에 햇곡으로 갈아준다. 성주보다 우위에 있는 신으로 가정의례에 있어서도 우선시된다. '웃줄'로 불리는 전남지역에서는 신격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고, 신체는 한지로 싼 쌀이며, 일 년에 한 번 새로 모신다. 자식의 나이만큼 웃줄에 실을 감아놓는 특징이 있다. '웃줄할아버지'로 불리는 충남지역에서는 신격이 남성신이고, 신체는 상자 안에 넣은 옷이며, 시월에 제물을 올리고 옷을 갈아주기도 한다. 안택과 명절 같은 가정의례에서는 웃줄할아버지상을 별도로 차려 올린다.

지역사례 경북 군위지역에서 웃줄할매는 시어머니, 시할머니 등 시댁의 여자 조상신들을 이른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이는 시주할매와 웃줄할매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집안이 잘되게 해 준다고 여긴다. 또 웃줄할매를 성주보다 더 상위에 있는 신으로 여긴다.

웃줄할매의 신체는 조그마한 단지에 쌀을 넣고 한지를 덮어 금줄로 묶어놓거나 작은 돌을 얹어 놓은 형태이다. 안방 시렁 위에 얹어놓거나 마루 모서리에 모셔 놓는다. 이 밖에도 성줏단지 위에 작은 판자를 올려서 그 위에 웃줄단지를 올려놓기도 한다. 가을 수확철에 손 없는 날을 택하여 벼를 베어서 정갈하게 말리고, 이것을 찧은 쌀을 단지에 넣는다. 가정에 따라 쌀을 쪄서 넣기도 한다.

대체로 성줏단지를 갈 때와 같은 날 행하며, 웃줄할매에게 가장 먼저 의례를 행한다. 설, 정월대보름, 시월상달, 기제사 때에는 웃줄할매에게 가장 먼저 제물을 차려놓고 빈 다음 성줏단지에 제물을 올리고 빈다. 그 후 차례나 기제사를 지낸다.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서 웃줄단지와 성줏단지에 한 그릇씩 먼저 올리기도 한다.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도 예물로 음식이 들어오면 웃줄할매와 성주에게 먼저 올리면서 혼인을 아뢰기도 한다.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남지역에서는 한지에 쌀을 두 홉 정도 싸서 안방의 문 위쪽에 걸어둔다. 웃줄은 군대에 간 자식이나 외지에 나간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다. 자식의 나이에 맞춰 명주실을 감아 웃줄 목에 걸어두기도 한다. 웃줄은 일 년에 한 번 새로 모신다. 쌀이 좀먹거나 변해 있으면 집안이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조짐으로 여겼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에서는 웃줄할아버지를 모신다. 집안의 안녕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모신다. 특히 득남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웃줄할아버지는 조그만 상자 안에 남자 한복 한 벌을 넣어 만든다. 이를 안방의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일단 신체를 봉안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절 열어보지 못한다. 웃줄할아버지의 생신(生辰)은 시월이라고 한다. 이달 중에 택일하여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자손을 위해 빈다.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준다. 안택을 할 때나 명절 때에도 '웃줄할아버지상'이라 하여 따로 상을 차린다.

의의 웃줄할매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신에 해당한다. 조상단지, 시주단지, 용단지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웃줄'이라는 말은 '윗대에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 조상신은 명칭의 용례에서도 구분되듯 지역에 따라 여성신과 남성신의 성격을 두루 지니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북 군위지역에서는 가정신앙에서 최고의 신으로 알려진 성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신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안태헌(安泰賢)**

위목(位目)

정의 신령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놓은 것. 위목(位目)은 무당 또는 앉은굿을 하는 법사가 굿이나 독경을 할 때 굿상 앞과 그 주위에 걸어놓는다. 무당보다는 법사가 자신의 신당에 신령을 모시기 위해 신당 벽면에 붙여 놓거나 독경하는 경방(經房)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무신도 사이에 위목을 설치하기도 한다. 위목에 쓰인 신령의 성격에 따라 신장위목(神將位目), 가신위목(家神位目), 십대왕위목(十大王位目), 성수위목(星宿位目) 등으로 구별된다. 위목은 왼쪽부터 높은 신령 순으로 배치한다. 문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부터 위목을 설치한다.

형태 위목은 한지를 직사각 형태로 접어서 만든다. 위목에 여러 신위를 한 번에 쓸 때는 큰 사고지를 여러 번 접어서 윗부분만을 남겨놓은 채 칼로 잘라 낸다. 윗부분에 풀을 붙여서 벽에 붙인다. 위목을 낱장으로 잘라내었을 경우에는 위목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실로 꿰어서 굿청에 설치한다. 한 장의 위목을 별도로 만들 경우 시루나 쌀그릇에 꽂았을 때 반듯하게 서도록 위패 뒷부분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붙여서 기둥으로 삼기도 한다. 위목에는 신령의 이름을 한자로 묵서한다. 경우에 따라 경명주사[鏡面朱砂]를 사용하여 붉은색으로 쓰기도 한다.

내용 위목은 무당 또는 법사의 신당이나 그들이 굿을 행하는 굿청 또는 경방에 초빙되는 신령의 이름을 종이에 쓴 것이다. 무당이 주로 무신도를 통해 자신의 신당에 신령들을 모셔놓는다면 앉은굿 법사들은 무신도의 역할을 대신해 위목을 신당에 모셔놓는다. 앉은굿 법사 또는 보살의 신당에 무신도를 봉안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목을 별도로 봉안하기도 한다.

각 위목은 독경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어 신당에 걸어놓는다. 안택의 경우 집안에 가신위목만 써 붙이지만 병경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집 처마에 성수위목을 걸고, 방 안에는 축사단 상단 부분에 붉은 글씨로 신장위목을 써놓는다. 신장(神將)은 인간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귀신 또는 동토를 제압하는 신이다. 법사는 이 신들을 통해 잡귀를 쫓아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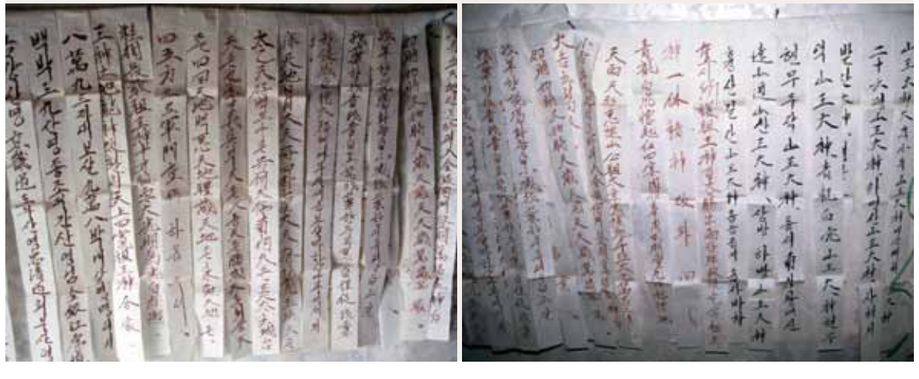
신장위목은 대체로 12신장의 이름을 쓴 것이다. 내용은 법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신장(九天應元雷聲寶化天尊神將), 대성북두칠원성군(大聖北斗七元星君), 소거백마대장군(素車白馬大將軍) 등 도교 계통의 신들을 비롯해 산왕대신(山王大神), 용왕, 오방신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장들은 법사들이 일반적으로 모시는 신으로서 앉은굿 법사들이 기본적으로 신봉하는 용왕, 산신과 더불어 도교 계통의 천신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병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장위목 앞에 대철망을 친다. 신장위목을 보호하여 잡귀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신위목은 안택을 할 때 묵서하며 걸어놓는다. 가신(家神)은 집안을 지키는 여러 신령이다. 충남 태안지역에서는 가신위목에 조왕, 성주, 조상, 삼신, 지신, 용왕, 별성, 수배 등 신령을 쓴다. 이 가운데 조왕위목만 부엌에 붙여놓고 나머지 위목은 모두 성주상 앞에 걸어놓는다. 위목은 성주대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조상 · 삼신 · 오방토지신의 위목을 걸고, 왼쪽으로 용왕 · 호구별성 · 수배신을 배치한다. 가신위목 가운데 수배신은 다른 신들에 비해 격이 낮기 때문에 다른 신위보다 조금 아랫부분에 붙인다.

성수위목은 별자리를 나타낸다.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여 병경을 하게 되면 집안에 별자리 이십팔수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종이에 쓴 뒤 이를 집 처마 밑으로 빙 둘러친다. 이는 이십팔수 별자리가 이 집안을 보호함을 나타내어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이다.

십대왕은 명계에서 망자들의 죄업을 재판하는 열

위목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1리, 1998.6.5, 코리아루트



위목
국립민속박물관



명의 대왕, 팔보살은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해주는 여덟 보살을 각각 일컫는다. 주로 조상해원경을 할 때 십대왕과 팔보살 위목을 조상상 앞에 걸어놓거나 지화(紙花)를 제작하여 함께 붙여놓고 독경을 한다.

참고문헌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남 태안지역의 안택과 병경**(임승범,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충청굿의 설경 연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8, 한국무속학회, 2009), **충청지역의 종이 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유두고사(流頭告祀)

상호참조 농신제(101쪽), 천신(650쪽)

정의 음력 6월 보름 유두날에 지내는 고사. 유두제,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도 한다. 가정에서 지내기도 하고 논밭에 나가서 지내기도 한다. 벼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한여름에 수확되는 밭곡식과 과실 등의 수확을 기리는 천신제의 성격이 강하다.

역사 유두(流頭)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약자이다. 유두명절이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 19대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는 문집 『김거사집(金居士集)』에서 "경주의 옛 풍속에 6월 보름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를 지낸 뒤 술을 마신다. 이것을 유두연(流頭宴)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유두는 고려 9대 속절(俗節)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에 들어서도 이어받아 속절, 곧 명절로 삼았다. 유두연은 유두음(流頭飮)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권20 명종 15년에 기록되어 있다.

> 6월 병인(丙寅)에 시어사(侍御使) 두 사람과 환관이 광진사(廣眞寺)에 모여서 유두음을 하였다. 나라 풍속에서 15일 유두수에 머리를 감아 상서롭지 못한 것을 없애고 이로 인하여 모여 술을 마시니 이를 유두라 이름하였다.

유두가 1518년(중종 13)에는 설 ·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질 만큼 큰 명절이었다. 조선시대 경주지역에는 유두연 풍속이 있었다.

조선시대 유두날에는 전통명절로서 다양한 명절식이 있었다. 유두날에는 수단(水團)이라 하여 멥쌀가루를 쪄서 둥글고 길게 만든 다음 구슬처럼 잘게 썰어 꿀물에 담갔다가 얼음에 채워 먹었으며, 제사에도 썼다. 건단(乾團)도 있다. 건단은 수단처럼 만들지만 물에 넣지 않은, 곧 찬 경단과 같은 것이다. 더러는 멥쌀 대신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하였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꿀에 버무린 콩이나 깨를 속에 넣어 찐 것을 상화병(霜花餠)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고 고미(조호미)로 만든 소를 넣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은 소를 넣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물어 만든 연병(連餠)이 있다. 나뭇잎 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고미로 만든 소를 넣고 채롱에 쪄서 초장에 찍어먹기도 한다. 이들 유두 음식은 명절식이면서 제사음식이기도 하다.

식용뿐만 아니라 밀가루로 액막이용도 만든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 모양의 누룩을 만든다. 이것을 유두누룩(유두면)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오색 물감을 들여 세 개를 이어 색실에 꿰어 차고 다녔으며, 문 위에 걸어 액을 막기도 하였다. 이것을 서로 선물로 보내기도 하였다.

내용 유두고사는 유두천신과 유두제 이외에도 용제, 용신제, 농신제 등의 명칭이 있듯이 모두 농사와 직접 관련된 의례이다. 용제나 용신제는 농사의 기본인 물을 관장하는 용신, 곧 농경신인 용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다.

유두고사는 가정에서 지내거나 논밭에 나가서 지내기도 한다. 논밭에서 하는 고사를 유두고사라고도 하지만 용제나 용신제 또는 농신제라고도 한다. 이는 논농사의 풍농을 기원하면서 잡곡과 과실의 수확을 기리는 것이다. 특히 잡곡농사의 수확을 기리는 천신제의 성격을 지닌다. 또 여름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잡곡과 함께 햇과일을 신에게 올리는 고사를 지낸다. 이는 곧 유두천신(流頭薦新)이다.

유두 무렵이면 벼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이다. 예전에는 이 무렵에 이른 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유두벼라 하였다. 유두날을 경북 상주지역에서는 유두벼가 패는 날, 예천지역에서는 햅쌀밥을 찌는 날, 경주·군위·월성 등지에서는 옛날 나랏님이 햅쌀밥을 먹는 날, 영양지역에서는 유두벼를 심어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벼농사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유두벼를 조상에게 바치는 천신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중심이 되는 것은 밭작물과 관련된 고사라는 점이다.

유두는 여름 명절이다. 여름에는 밀 음식이 제철 음식이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때에도 밀 음식을 쓴다. 대표적인 것이 밀전병인데 그냥 밀로만 부치기도 하지만 제철을 맞은 호박을 넣어 전을 부쳐서 가신에게 올려 고사를 지낸다.

유두날 밭제를 지낼 때에는 밭작물의 수확을 기념한다. 각별히 팥죽을 장만하는 집안도 있다. 유두 무렵에는 참외, 수박 등 과일이 나기 시작하여 이들 과일도 제물로 올렸다. 예전에는 유두날에 약수터에서 노구메를 드리기도 하였다. 노구는 놋쇠로 만든 작은 솥을, 메는 밥, 노구메를 드린다는 것은 곧 노구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는 뜻이다. 이는 가정 단위의 고사이다.

강원도 산간마을에서도 유두날이면 밀국수와 밀부침을 만들어 유두고사를 지냈다. 이는 올해 지은 농사가 여름 동안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신에게 비는 것이다. 유두고사는 1960년대까지 성행했으나 1980년대 들면서 거의 잊혀져 갔다. 밀부침을 올려 유두고사를 지내는 풍속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에도 성행했지만 역시 1960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유두 무렵에 농촌은 한참 손이 많이 가던 모내기를 끝내고 잠시 한가롭다. 물론 지난 겨울 또는 초봄에 파종한 밭작물을 수확할 때이기는 하지만 모내기처럼 때를 다투는 일은 아니다. 이 무렵 영·호남 지방에서는 논과 밭에 가서 농신제 또는 용신제를 지내는 일이 많았다.

전북지역에서는 찰떡을 해서 논둑 밑과 물꼬에 한 덩이씩 놓고 물이 새지 말고 농사가 잘되길 농신(農神)에게 빈다. 찰떡 대신 밀떡이나 송편을 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 떡들을 논둑에 꽂아 두거나 나무에 둥글둥글한 떡을 꽂았다가 논둑에 꽂아 둔다. 이렇게 고사를 마치면 동네 아이들이 급히 떡을 먹는다. 이 떡을 '유두알'이라고도 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유두날에 나락이 잘되도록 유두지(유두제)를 지낸다. 유두고사라고도 하는 유두제는 197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으나 거의 사라졌다. 잘사는 사람들은 쌀로 송편을 빚었다. 이를 '참떡'이라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밀을 쪄서 떡을 만들었다. 유두날 아침 일찍 논 주인이 떡을 해서 '지릅대'(겨릅대)에 꿰어 땅에 꽂아 둔다. 그리고 밥과 떡을 뿌리면서 농사가 잘되도록 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논을 돌아다니면서 꽂아 둔 떡을 빼 먹는다. 또 유두일에 논물이 풍족해지라고 '용'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를 용제라고 하였으며, 유두날에 지낸다고 하여 '유두제'라고도 하였다. 용제는 대개 일꾼이 지냈으며, 논가에 파놓은 덤봉(웅덩이)에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덤봉제라고도 하였다. 용제는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삿갓과 도리(도롱이)를 입고 밤에 지낸다. 논에는 수숫대를 세우고 '지릅대' 윗부분에 서숙을 끼우고 아래에다 시루떡과 적 등 제물을 차린다. 천수답에 의존한 마을에서는 용제가 보편적인 의례였다.

둑이 터지는 것을 막고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용제를 지내는 마을도 있다. 용왕제라 하여 간단히 떡을 장만하여 논이나 밭가에 두고 농사가 잘되기를 빌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되며 병충해가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유두날 동류수에 머리를 감고 모든 궂은 일을 털어내 불제제(祓除祭)를 지낸 뒤 음식을 차려 먹었다. 부인들은 이날 약수에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하여 약수를 찾았다. 또한 산이나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 아래에서 물맞이를 하였다. 그러나 약수를 찾을 때에는 부정(不淨)이 없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피서가 아니라 의례의 범주에서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두는 각종 농산물이 나올 때여서 풍요를 기리고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물맞이를 하는 등의 의례는 유두연(流頭宴)을 원류로 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유두고사를 유두천신, 유두제, 용제, 농신제 등으로도 불린다고 했지만 유두고사란 이름으로 지내는 지역도 많다. 반면에 이를 구별하지 않는 지역 역시 많다.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서는 유두날에 가정에서 유두고사를 지냈다. 특히 이날에 칠석과 마찬가지로 밀떡(밀전병)을 해 먹는다. 밀로만 전을 부치거나 호박을 썰어 넣고 전병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음식이 마련되면 안방과 마루, 터주가 있는 장독대 등에 올렸다가 가져와 먹는다. 참외 등 햇과일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음력 6월과 7월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햇곡인 밀로 만든 음식을 집안의 신들에게 올리는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지내는 음력 10월의 가을고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천신으로 볼 수 있다.

경북 영일만 지방에서는 유두날에 논밭에서 충제(蟲祭)를 겸해 고사를 지낸다. 떡을 논두렁에 놓고 구우면 연기가 난다. 이 연기로 구충(驅蟲)이 된다고 한다. 전을 지져 기름냄새로 구충하는 곳도 있다. 이는 충제이기도 하다. 유두날 무렵이면 밭작물을 거둘 시기여서 밭에 팥죽을 올리고 밭작물의 풍농을 기리는 밭제를 지내기도 한다. 과일 농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유두날 과일밭에 나가 특별히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안동지역에서는 유두날 아침에 국수를 만들어 수박 밭고랑에다 뿌린다. 이는 수박줄이 국수처럼 쭉쭉 뻗어 나가라는 의미이다. 또 수제비를 해서 참외 밭에 뿌려 둔다. 이는 역시 수제비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고사를 지낸 뒤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상주시 사벌면 원흥1리에서는 유두일에 용제를 지낸다. 유두에는 천방이 터지는 것을 막고 곡식이 잘되게 해 달라고 떡이나 국수를 만들어(잡곡농사의 수확을 볼 때니까) 논이나 천방에 갖다 놓고 "아래 논에 용왕님, 웃논에 용왕님, 밭으로는 비 내루고(내리고), 맞으로는 도끼로 나락을 비고(베고)"라고 빌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를 용지(용제), 또는 유두지(유두제)라고 한다.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머슴을 제사에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참외밭에는 수제비를 끓여서 도롱이를 깔아 놓고 제를 지내고, 삼으로 겨릅을 묶어서 세워 놓고 고시하듯이 그 위에 가지고 간 음식을 모두 꽂아 놓는다. 제를 지낸 뒤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남으면 집으로 가지고 온다.

김천시 구성면 하강2리 강성마을에서는 유두일에 떡 여러 개를 삼바리 형태로 엮어 놓은 삼대에 꿰어 논으로 가져간다. 그런 다음 물꼬에 삼대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떡을 놓고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빈다. 이 일은 대개 집안의 머슴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많이 한다. 제물로 가지고 간 떡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나 아이들이 빼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놓아 두고 온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다복마을에서는 유두날 부침개나 송편을 만들어 논을 위한다. 위한다는 것은 고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밀가루에 부추와 호박을 잘라 넣고 부친다. 송편은 쌀가루를 빻아서 뜨거운 물로 반죽하여 만든다. 반죽이 되면 소로 콩, 팥, 깨 등을 넣는다. 남자들은 송편을 '다래끼'에 담아 논으로 가져 간다. 논의 귀퉁이에 부침개와 송편을 놓아 둔다. 이렇게 하면 나락이 잘 여문다고 한다. 떡과 부침개는 주워 먹으면 좋다고 하여 아이들이 주로 주워 먹는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마을에서는 유두날에 논고사를 지낸다. 아침 일찍 밥을 해 먹은 다음 제물을 장만하여 논으로 나간다. 제물은 메 한 그릇과 과일, 밀떡 등 간단하게 준비한다. 논둑에 가서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손을 비비며 한 해 농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게 해 달라고 논에 있는 신령에게 부탁한다. 비손이 끝나면 제물은 논둑에 묻거나 그대로 놔두고 돌아온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서는 유두날 물꼬에 가서 밀부침개를 해 놓는다. 그러면 짐승이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여긴다. 또 논에서 기름 냄새를 피우면 벼멸구가 줄어든다고 하여 이곳에서 직접 부침개를 해서 비손을 하고 온다. 근래에는 농약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은 사라졌다.

유두날에 각별히 터주를 위하는 날로 여겨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유두일에 터주를 위하는 날로 여겨 터주단지 안의 쌀을 처음으로 헐어서 밥과 떡을 하여 터주고사를 지낸다.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유두고사를 지내지 않고 청수만 한 그릇 올린다. 조상을 위하는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밥, 김, 나무새(나물) 등 제물을 장만한다. 떡으로는 송편을 올린다. 터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기 때문에 밥을 두 그릇 올린다. 숟가락은 밥 위에 올려놓는다. 송편은 고물을 넣어 배가 볼록하게 만든다. 아이들도 그 송편처럼 배가 두둑하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삼우제를 지낼 때도 송편을 올린다.

장광에 나가 마련한 제물을 상에 받쳐 올리고 그릇에 불밝이쌀을 담아 촛불을 밝히고 향도 피워 놓는다. 청수는 별도로 마련된 정화수 그릇에 담아서 올린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비손을 하고 천황, 성주, 터주, 식구들 소지를 순서대로 올린다. 이 때는 시집간 딸을 포함하여 사위까지 모두 위한다. 사위를 위해서 소지를 올릴 때는 "누구누구 자손, 동남간에 어디를 가도 잘되게 해 주시오."라고 빈다. 소지가 보얗게 잘 올라가야 좋다고 한다. 이런 경우 소지를 다시 올려 본다. 터주에 올린 제물은 모두 방 안의 성주와 조상께 올렸다가 나누어 먹는다.

참고문헌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동국세시기**(홍석모, 정성모 역, 풀빛, 2009), **세시풍속-충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조선대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2007), **조선상식-풍속 · 지리 · 제도**(최남선, 동명사, 1948),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7),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김명자(金明子)**

이월할매

표제어 영등(473쪽)

인삼고사(人蔘告祀)

정의 인삼을 재배하는 가정에서 인삼농사의 풍작을 위해 생업 현장인 인삼밭에서 지내는 고사.

역사 인삼고사는 생업과 직결된 제의이다.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행했다. 인삼을 신격화하여 제의를 행함으로써 인삼신은 생업신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삼의 성장을 위한 제의이면서 또 피해를 막기 위한 제의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잠업을 하는 가정에서 누에신을 섬기기도 하고 방앗간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방앗간 신을 상정(想定)하기도 했다.

가정신앙으로서 인삼고사는 충남 금산의 '삼장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삼장제는 인삼 재배지로 유명한 개성의 인삼제사에서 시원(始原)을 찾아 볼 수 있다. 개성에서는 일제강점기때 서부공원에다 인삼신사(人蔘神祀)를 건립하여 해마다 음력 시월상달에 길일(吉日)을 택해 삼업계의 원로가 제주(祭主)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면 제등 시가행렬을 하고 밤중에는 폭죽행사를 하는 등 크게 축제로 이어졌다.

금산지역에서는 이러한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인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삼장제'라는 것을 지냈다.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돋아오를 때면 이 고장에 인삼을 재배하도록 해 준 산신령에게 감사하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가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삼고사의 원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삼장제를 현대적인 축제로 재구성하여 1981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축제일자를 늘려 인삼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금산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되었다. 축제는 밤 1시에 진악사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인삼 재배가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개삼터에서 개삼제를 지내는 것으로 막이 오른다. 이에 앞서 강처사에게 인삼을 내려준 산신령께 감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관음굴 기도회가 열리는 등 무속신앙의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다.

〈강처사 이야기〉는 금산 인삼의 시원과 관련된다.

> 약 1500년 전의 인물로 알려진 강처사는 효성이 지극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진악산 관음굴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산신령이 관음굴 위에 있는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의 뿌리를 달여 먹이라는 현몽이 있었다. 꿈에서 깬 강처사는 그것을 찾아서 달여 먹인 결과 어머니의 병환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그 후 그 열매를 재배한 것이 지금의 금산인삼이 된 것이다.

금산 인삼축제 때에는 이러한 인삼의 탄생설화를 배경으로 한 강처사 설화 마당극, 인삼마당극 공연 등이 행사기간에 매일 펼쳐진다. 충남의 전통민속놀이인 금산물페기농요(충남무형문화재 제16호), 100명으로 구성된 금산 아낙네들의 기우제인 농바우끄시기, 남성적이면서 빠르고 경쾌한 가락의 금산농악, 금산좌도 풍물굿, 인삼 장사 씨름대회, 전통민속놀이 등 금산의 전통문화가 시연된다. 이 밖에도 인삼축제는 금산 이외에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강원도 홍천군 인삼축제, 경기도 파주시 개성인삼축제, 충북 증평군 인삼골축제 등이 있다.

지역사례 가정신앙으로서 인삼고사는 인삼이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한다. 경북 영주시 풍기지역의 한 제보자 집에서는 인삼고사를 지낸다. 봄에 인삼씨를 심기 전에 떡, 돼지고기, 과일 등 제물을 장만하여 삼포밭에 나가서 미리 제를 지낸다. 제관은 남자가 주관한다. 여자들은 상차림을 도울 뿐 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인삼은 명물(名物)이자 신물(神物)로 여겨서 인삼일을 할 때에도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가렸다. 인삼의 풍성함뿐 아니라 '남의 손을 타서' 없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다.

역시 풍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한 가정에서는 인삼농사가 잘되고 도둑이 들지 말라는 뜻에서 인삼고사를 지냈다. 인삼씨를 심을 때에는 삼포밭에서 잠시 빌고 한지를 삼포 울타리에 매어 놓으며, 인삼을 캘 때에도 토지신에게 비손을 한다. 또 도둑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월대보름날에는 인삼밭의 출입문에 오색헝겊을 걸어서 바늘로 꽂아둔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다가 바늘을 밟고 도망간다고 한다.

예전에는 인삼고사를 으레 했지만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보자는 간단하게나마 인삼고사를 지낸다.

인삼고사를 반드시 남자만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여자가 지내기도 한다. 풍기의 한 할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인삼 제의도 직접 행하였다. 인삼고사를 지낼 때에는 백설기 한 되를 찌고, 돈 한 푼을 한지로 감싸 접어서 삼포밭 한가운데에 놓고 절을 한다. 이렇게 고사를 지낸 뒤에 한지를 삼포밭에 매단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가정에서는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시기는 양력 3~4월 삼을 심을 때이다. 이때 삼밭에 가서 정성을 들인다. 인삼씨를 심는 날이 되면 주부가 팥시루떡과 술 등을 마련하여 삼밭에 간다. 술로는 막걸리를 쓴다. 삼밭에 제물을 진설한 뒤 절을 하고 인삼의 풍성을 비는 것으로 간략하게 고사를 마친다.

이와 같이 인삼고사는 우선 인삼의 풍요를 위해 지내며, 남의 손을 타서 도둑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도 한다.

참고문헌 **釋奠 · 祈雨 · 安宅**(조선총독부, 국서간행회, 1938),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영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두산 백과사전**(encyber.com).

필자 **김명자(金明子)**

인업

상호참조 업(464쪽), 업맞이(469쪽)

정의 가족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업신. 인업은 모양이 그 사람과 같다고 한다. 동물업과 마찬가지로 재복신(財福神)으로서 집안의 재복과 가택을 수호하는 신이다.

내용 업신은 광이나 곳간과 같은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복을 준다는 가신이다. 업 · 업왕신 · 업왕 · 업위신(-位神)이라고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업이

라는 말과 함께 지킴이 · 지킴 · 집지킴이 · 집지킴 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업은 그 신체를 대체로 짚이나 소나무로 주저리 형태를 갖추면서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 동물을 업의 대상으로 들고 있어 다른 가신과 양상이 다르다. 특히 구렁이업이 가장 보편적인데 그밖에 돼지업, 쥐업도 있다고 한다.

용단지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있는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용단지의 용을 업으로 여긴다. 특히 용을 구렁이와 동일시하면서 용왕업이라고 한다.

인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구렁이나 족제비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업의 대상이 보이거나 그 집에서 나가면 패가(敗家)한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실화(實話)나 설화가 많이 전해온다. 더욱이 구렁이업 관련 이야기는 상당히 전해진다. 가령 업으로 있던 구렁이가 집에서 나간 뒤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이다. 인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업이 나가면 역시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망해간다고 한다.

인업은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서 복을 준다는 업신의 일종이다. 인업의 형상은 인업이 붙어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인업과 인업을 달고 있는 사람은 별개의 존재임에도 인업을 달고 있는 사람이 곧 인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람이 대상인 인업이나 동물이 대상인 동물업은 가정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어서 사실상 지역적 특성을 말하기가 곤란하다. 다음 이야기는 창녕(昌寧) 성씨가(成氏家)의 며느리가 겪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구렁이업과 인업이 모두 등장한다.

> 며느리가 갓 시집왔을 때 시댁에는 어느 정도 살림이 있었으나 망해가고 있었다. 망하게 된 연유를 시댁 가족에게서 들었다. 며느리가 시집왔을 때에는 시아버지가 이미 작고하신 뒤였다. 그런데 생존했을 당시 시아버지가 병환이 나서 소생이 불가능하게 되자 집안에 뱀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발을 딛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지붕 위에 인업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시아버지와 같았다. 인업이 나타난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뱀도 없어졌다. 시아버지 작고 후 살림이 줄기 시작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집안의 중요한 물건은 거의 팔고 돈궤만 남았다. 그 돈궤마저 비게 되니 우는 소리가 났다. 돈궤 우는 소리에 식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느리도 갓 시집와서 돈궤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돈궤는 인근의 정씨가(鄭氏家)에 팔았다.

인업의 형상이 시아버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인업을 달고 있었으며, 시아버지가 인업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업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업신으로, 그 형상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하지만 실상은 추상적이다. 흔히 인업이 붙어 있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옥동자 등 선별된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곧 업이라고도 한다. 결국 인업이 붙어 있어서 복이 많아지고 지체가 높아지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인업의 위력을 말해준다.

창녕 성씨가의 사례에서도 인업을 달고 있던 시아버지가 병환이 들자 인업이 지붕 위에 나타났다. 이는 곧 인업이 시아버지 곁, 나아가 그 댁을 떠난다는 예고였다. 그 무렵에 뱀도 나타났으나 시아버지 작고 후 뱀도 없어졌다. 인업이 나타난 후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세도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돈궤가 울었다는 것은 재복을 주는 업신, 즉 인업과 구렁이업이 나갔음을 뜻한다.

인업의 자리는 돈이나 곡식과 관련된 곳, 즉 뒤주 · 돈꾸러미 · 천장 · 곳간 등이다. 창녕 성씨가의 사례에서도 인업의 자리는 돈궤, 즉 돈꾸러미이다. 여기에서 업이 나갔으니 재산이 나가고, 이로 말미암아 빈 돈궤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업은 간혹 현몽을 한다. 꿈에 인업이 나타나 "나는 이제 집이 없어서 못 지킨다. 주인이 없어서 못 지킨다."며 다른 곳으로 떠난다. 그 뒤 그 집은 천석꾼 살림이 모두 나가 망했다는 얘기도 있다.

인업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상인과는 구별되는 비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업은 실제 어떤 인물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선별된 비범한 존재로 만든다.

요즘에도 기아(棄兒)가 있지만 예전에는 비록 기아라 하더라도 업둥이로 대접받는 아이가 있었다. 업둥이는 얻은 아이를 일컫는다. 즉 자기 집 문 앞에 버린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재복을 주는 업처럼 들어온 아이라는 뜻으로, 역시 업신에서의 '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집을 골라 대문 앞에 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얻은 집안에서는 업처럼 귀중한 존재로 여겨 업둥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그 얻은 아이에게 애초부터 '업'이라는 복된 말을 붙여주는 것이다.

업둥이를 맞은 가정에서는 졸지에 업, 즉 재복을 얻은 셈이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업둥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업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그 자녀가 태어난 후 재산이 불어나는 등 집안일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여 업둥이니 업이니 하는 별칭이 붙는다.

여자가 시집올 때 인업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며느리에게 인업이 붙어서 오는 것으로, 그녀 자신이 업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철저하게 규범화하면서도 삼불거(三不去)라는 예외 규칙이 있었다. 첫째 아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 둘째 부모의 삼년상을 치렀을 경우, 셋째 장가들기 전에는 가난하다가 장가든 후 부귀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가운데 셋째 조건은 인업과 관련시킬 수 있다. 즉 며느리에게 인업이 붙어서 따라왔으므로 재복을 주어 그 시댁을 부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인업이 복을 준다고는 하지만 반면에 대접도 잘해야 한다. 이는 인업뿐만 아니라 민속신앙의 신 전반에 해당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 사(蛇)업 또는 인업이라고도 하며 매달 15일에 진수성찬을 창고나 헛간에 차려 재신을 대접한다. 이것은 뱀이 먹는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은 주인이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는 망해 가난한 자로 되고 만다.

인업과 사업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인업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추상적인 존재여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창녕 성씨가의 사례에서도 구렁이업과 인업은 함께 존재했다. 이와 상관 없이 업은 항시 대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업이 먹고 남긴 음식은 주인이 먹음으로써 복록을 얻는다. 친정이 황해도인 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인업을 받들었으며, 인업을 받든 자리가 광이었다고 한다. 친정 어머니가 밥을 지어 올리면 어느 틈에 인업이 먹어치운다는 것이다.

업신을 대접하는 의례는 정기적으로 지내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내기도 한다. 정기의례는 설, 추석, 동지 등 주로 큰 명절에 다른 가신과 함께 의례를 행한다. 혹시라도 업이 눈에 띄었을 때에는 단독으로 행하기도 한다. 업신이 눈에 띄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업을 비롯한 동물업은 예사롭게 형상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비의적(祕儀的)이다. 설령 나타났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인업의 경우는 더욱더 비의적이다. 업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그 밖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별한 사람에게 보인다. 그것도 각별한 일을 예견할 때 나타난다.

각별한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도 신기(神氣)가 있다든가 유달리 영감(靈感)이 강한 사람 따위를 일컫는다. 어느 특정인에게 강신(降神)이 되어 무당으로 입무(入巫)하는 경우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를 보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무당이 되는 신병(神病)도 실상 불가사이한 일이지만 신기나 영감도 불가사이한 요소가 있다.

구렁이업, 족제비업, 두꺼비업의 경우 형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용왕업은 구렁이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어서 현몽을 한다. 인업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일종의 환시(幻視)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용처럼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몽하기도 한다. 물론 실존하는 동물업도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구렁이 · 족제비 같은 동물업의 경우 그 대상 이외에 업주저리라는 신체(神體)를 상정(想定)하여 모신다. 용왕업은 용단지로 모시기도 한다.

이처럼 대상이 존재하면서 각별히 신체를 상정하는 것은 업신의 경우만이 아니다. 성주가 그 집의 대주(大主), 삼신이 여자 조상(祖上)을 각각 상징하기도 한다. 업의 경우 동물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인업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했으니 살아있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이는 상당히 추상적인 존재이다.

업이 그 집에서 나가거나 모습을 보이면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특히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려면 업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업이 집안의 좋지 않은 일을 예견하는 것이다. 업신은 재복신, 가택수호신으로의 기능과 더불어 미래를 예시해 주는 기능도 한다.

창녕 성씨가의 사례에서 인업과 구렁이의 등장은 시아버지의 죽음을 예고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 애장왕(哀莊王)조에는 두꺼비들이 뱀을 잡아먹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더니 왕이 시해당하는 변괴가 있었으며, 백제 본기 의자왕(義慈王)조에서는 재위 20년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여드는 변괴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업 역시 이처럼 예견의 기능을 한다.

인업의 신체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 사례 역시 확연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인업의 신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가정에서는 업의 신체로 백항아리를 안방의 한쪽 구석에 모시고 있다. 한지로 싸인 항아리 안에는 돈을 넣어둔다. 또 돈이 들어오면 업항아리에다 넣어둔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업항아리에서 돈을 꺼내 돼지머리를 사는 등 제물을 장만하기도 했다. 예전에 시할머니가 계실 때에는 '옛날 돈'도 넣어 두었지만 1970년대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옛날 잔전(잔돈, 옛날 동전)은 상여에 실어 보냈다. 그 가정에서는 동물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백항아리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백항아리 신체가 인업의 신체가 아니었는지 추정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할머니가 업을 달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할머니는 작고했지만 이왕에 모시던 신체는 그대로 모셔 둔 것이다.

인천시 강화지역에서도 인업의 신체로 항아리를 모신다. 특히 이곳에는 인업애기라는 업신이 있다. 이는 몸 밖에 있는 복을 모시는 것으로, 분홍색 도포를 작게 만들어 항아리에 벼와 함께 넣어 모신다. 또 인업주라 하여 안방의 칠성, 지석(제석)과 나란히 모신다. 인업주의 신체는 한복의 치마 안감을 직사각 모양으로 꾸렸다. 현재 강화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체이지만 이는 사실상 무속적인 요소가 강하다. 원래 무속이 강한 강화도에서는 굿을 한 후 무속인이 가신의 신체를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1 · 2**(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지역 업신싱앙의 지속과 변화**(김명자, 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화, 집문당, 2001),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노성환 역, 민음사, 1990),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신화 · 민속 · 민담**(김열규, 정음사, 1983).

필자 **김명자(金明子)**

임신네

정의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에 거주하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일부 집안에서 모시는 비운(悲運)의 조상신(祖上神). 역사적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어느 전쟁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특정 선조를 가내(家內)에 봉안하여 해마다 2월이 되면 무당을 초빙하여 위로하고 놀려준다. 특히 임신네는 김해 김씨 집안의 어로(漁撈)를 보살핀다.

내용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해 김씨가 80여호 살았다. 이들 집안에서는 대부분 '임신네'라는 특별한 조상신을 위했다. 다른 지역의 김해 김씨 집안에서도 임신네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

'임신네'란 말뜻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때때로 '할아버지' 또는 '조상할아버지'라고도 불려 부계(父系) 혈연의 조상으로 보인다. 왕신과 유사한 신령이라고도 한다.

임신네를 모시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 삼국시대에 김해 김씨네 삼형제 중 막내가 전쟁에 나가 총각으로 전사하였다. 부모는 막내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가 입던 군복(軍服)과 쓰다 남은 노잣돈을 큰 그릇에 넣어 이를 '임신네'라고 부르면서 치성을 드렸다. 후손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해마다 2월이 되면 무당패를 데려다가 크게 굿을 하여 임신네를 위해 주었다. 그리고 분가(分家)할 때마다 반드시 임신네의 신체(神體)를 봉안하고 정성으로 모셨다.

임신네는 대개 건넌방이나 끝 방의 윗목에 선반을 만들어 그 위에 모신다. 반짇고리에 비단을 깔고 그 위에 옷을 넣은 나무상자를 놓는다. 나무상자 안에는 바지저고리나 두루마기 또는 사모관대(紗帽冠帶) 등을 넣는다. 약간의 돈을 함께 넣기도 한다.

반짇고리 옆에는 닷 되 정도의 쌀을 넣은 단지를 봉안한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묵은쌀은 햅쌀로 교환한다.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들만 먹는다.

그리고 출어(出漁)할 때마다 임신네에게 풍어(豊漁)를 기원한다. 뱃일로 돈을 벌게 되면 먼저 임신네에게 돈을 가져다 놓는다.

요컨대 임신네는 김해 김씨 집안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혼신(魂神)이다. 후손들은 그를 정식으로 가내에 봉안함으로써 그 원혼(冤魂)을 위무(慰撫)하며, 또 조상신으로 승격시켜 정성껏 모신다. 특히 이들 마을은 어로(漁撈)에 크게 의존하기에 그는 풍어를 보장하는 신령으로 여기기도 한다.

참고문헌 **도서지-중**(이필영 외,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이필영, 샤머니즘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필자 **이필영(李弼泳)**

입택고사(入宅告祀)

정의 새로 집을 지어서 입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 가족들의 안녕과 부(富)를 기원할 목적으로 짐을 옮기기 전 또는 새집에 들어가 생활하기 전에 행하는 의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고사'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 각 가정의 신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례 방식이 있다. 크게 제의형과 주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낯선 공간과 세계로 진입함으로써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액과 불운을 예방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의형은 무당이나 만신 또는 독경쟁이 등 민간신앙의 전문 사제자가 중심이 되어 성주신을 맞아들이는 성주받이 의례와 가정 내 대주, 즉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고사 형식의 가정신앙 제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택고사로 나뉜다. 입택고사는 성주를 중심으로 새집의 각 공간에 좌정한 것으로 믿어지는 가신들에게 이사 온 것을 알리고 안녕과 보살핌을 기원하기 위한 인사로서의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주술형은 주술적 액막이로서 가정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의 집에는 생활공간의 성격이나 가족사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가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 자체와 관련된 신은 성주이다. 한자로는 상량(上樑)을 뜻하는 성조(成造)로 표기되는 만큼 어떤 형태의 집이든 건물이 있으면 성주가 있다. 그런데 성주는 맞아들이지 않으면 오지 않는 신이다. 따라서 새로 집을 짓거나 집을 사서 이사할 경우 성주를 모셔 들이는 의식인 성주받이가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가정에 따라 남의 집을 구입해 이사할 때 성주 신체를 모시지 않고 고사만 한다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 가옥 전체를 사용하는 주인인 경우 집에 성주를 모신다.

성주받이는 상량식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 입주 때 행해진다. 상량을 할 때 대들보 중심에는 입주(立柱) 연월일과 '응천상지삼광 비인문지오복(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등 복을 비는 글귀를 쓰며, 대들보의 양쪽 끝에는 '용(龍)' 또는 '해(海)'와 '구(龜)' 자를 적어 놓고 백지를 붙인다. 그런 다음 제물을 차려서 고사를 지낸 뒤 상량한다. 이것은 집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에 성주를 받아들이는 간단한 의례이며, 보통 상량고사로 불린다. 그러나 집에 따라서는 날을 받아 성주받이굿을 하기도 한다. 이때 성주거리에서 그 집의 대주로 하여금 소나무 가지로 된 성줏대를 잡게 하여 신을 내리게 한 다음 좌정시키고 나서 무녀가 백지를 술에 적셔 대들보에 대고 쌀을 뿌려 붙게 한다.

새집에 입주할 때 행하는 성주받이굿 역시 형식이 다르지 않다. 다만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 약간씩 변이가 발생한다. 대주가 아니라 무당 자신이 대를 잡고 뜰로 나가 성주신을 맞아들여 놀리고 나서 성주신의 좌정처를 그 대가 가리키는 곳으로 삼아 대에 매단 백지를 풀어서 동전을 넣고 접은 다음 청수에 적셔 상량대 밑 벽이나 기둥 상부에 붙이는 방식이 있다. 경남

산청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지을 때 그 전에 있던 성주와 조상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 나무로 옮겨 임시로 좌정하고 있다고 여긴다. 집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을 다시 집 안으로 모셔온다. 무당이 대를 가지고 근처 나무에 가서 "성주, 조상님. 여기 계시다면 이곳에 오르십시오." 하여 대에 앉힌 다음 집에서 새로 정해 둔 자리에 옮겨 좌정하시라고 앉힌다.

성주신의 봉안인 성주받이가 비록 집을 새로 지었거나 새로 산 집의 가옥 신으로 성주를 모시는 굿이지만 아무 때나 성주를 모실 수는 없고 대주의 나이가 27, 37, 47, 57 등과 같이 7의 수가 드는 해 10월에 택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도 있다. 경상도에서는 3과 7의 수가 드는 해에 행해진다고도 한다.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이 경과된 뒤에 성주받이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주를 매년 새로 맞아들이는 곳도 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에서는 '안택 한다.'고 하여 매년 정월이나 2월에 성주받이를 한다. 이때 '성주받는 양반', 즉 독경쟁이를 불러서 한다. 그는 경을 읽는 사람으로, 북을 두드리면서 성주풀이를 한다. 성주풀이를 할 때마다 성주를 새로 바꾸며 한지를 둥근 모양으로 뭉쳐서 물을 발라 마루의 상량 위에 붙여놓는다.

새집에 입주를 하면서 똑같이 가신을 맞아들이지만, 성주가 아니라 터주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구리지역에서는 새집을 짓고 집안 살림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터주 앉히기'를 한 사례가 있다. 터주의 신체로서 터줏가리를 만들었다. 항아리에 벼를 넣고 짚주저리로 덮었다. 주저리를 엮는 일은 대주가 하였다. 징이나 장구는 치지 않는다. 즉 굿이 아니라 돼지머리, 시루떡, 과일 등 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고사 형식이었다. 이 경우는 가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상황이었다. 집을 헐기 전에 무당을 불러 기존의 가신 신체들을 태우는 의례를 행했다. 이를 "터주 내린다."고 하였다. 내린 터주를 다시 앉힘으로써 새로운 주택에 대해 새로운 공간 질서와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은 성주받이와 마찬가지이다.

입택고사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사를 가면 먼저 고사부터 지내야 한다."라는 말이다. 시루떡과 술을 차려서 보통 고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이 절한 뒤 집의 여기저기에 떡을 떼어 가져다 둔 다음 이웃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기도 가평지역에서는 집고사라 하여 새로 집을 지은 뒤 입주할 때 고사를 지냈다. 시월고사 지낼 때와 같이 집 안에 시루떡을 올렸다. 용왕이라 부르는 집 밖 우물에는 백설기, 터주에는 돼지머리를 각각 제물로 올렸다. 주부와 그 남편이 함께 절을 하였다. 또는 입택고사를 할 때 통북어를 창호지나 무명천에 묶어 왼새끼를 조금 꼬아서 마루의 기둥 위에 묶어 두기도 한다.

주술적 액막이는 낯선 공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액이나 탈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행하는 주술적 방식의 의례이다. 이사액막이라고도 불린다. 경남 밀양지역에서는 이사할 경우 가재도구를 들이기 전에 부정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른 해삼과 콩, 보리 등 잡곡 볶은 것을 깨끗한 종이에 함께 담아 큰 방의 네 귀퉁이에 먼저 놓아두거나 이사하는 날 새벽에 산에서 나는 약수를 한 동이 가득 담아 방 한가운데에 둔다. 이사 액막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팥과 소금을 섞어 부정치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집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 움큼씩 집어 뿌리는 것이다. 팥죽을 쑤어서 집의 여기저기에 뿌리면서 다니거나 문설주나 대문에 바르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개인에 따라 액을 쫓는 주언(呪言)이나 축원의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 이사 액막이는 부적 붙이기가 일반화되었다. 절에 다니는 가정에서는 사찰의 스님, 단골 만신이 있는 경우는 만신에게서 부적을 받아오거나 그들이 직접 와서 집을 돌면서 축원해 준 다음 현관을 비롯해 각 출입문 위쪽으로 부적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런 신앙적 배경이 없는 가정 가운데에는 소의 코뚜레를 구해다 거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가정에는 엄나무가지, 자작나무, 목화씨, 성냥을 조금씩 섞어서 묶음을 만든 다음 새로 이사 간 집 안방 장롱 위쪽의 손 없는 곳에 봉안한 주물(呪物)이 있다. 이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 주부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일러준 방법이라고 한다. 다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옛것은 버리고 새로 만들어 똑같은 장소에 모셔 놓는다고 한다. 이는 벽사(辟邪)의 성질을 지니는 엄나무와 부풀어 오르는 성질로 인해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목화씨, 성냥 등을 통해 액을 물리치고 부를 기원하는 일종의 부적으로 볼 수 있다.

입택고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2007.12.29, 황헌만


1


2


3


4


5


6

이와는 별도로 일종의 귀신 속이기 형태의 연극적 의례도 있다. 주술적 내용을 포함한 이 의례는 한편으로는 길흉추택(吉凶推擇)의 택일(擇日)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 집을 지었다 해도 대주의 나이가 일정 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주받이를 하지 않는다. 성주는 그를 상징하는 가족 구성원인 대주의 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일반적으로 민속 상에서는 새로 집을 지으려 할 때 먼저 '성주 운 보기'라 하여 새로 집 짓는 대주의 운수와 앞으로 그 집을 지켜 줄 성주의 운이 서로 맞는가를 문복한다. 양쪽의 운이 닿지 않을 땐 대주의 아들이나 손자의 운으로 대신한다. 남자들 가운데 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른 이의 운을 빌려서 짓는다. 이 경우 집 주인은 상량고사 때도 절을 하지 않으며, 상량문에도 운을 빌린 이의 이름을 쓴다. 집이 완성되면 하룻밤을 운 닿은 사람이 자고 나서 원 주인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형식을 밟았다. 매매대금과 운을 빌려 준 사례로 담뱃값 정도를 주며 술을 대접한다. 이후에 상량문의 주인 이름도 바꾼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성지역의 한 가정에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했다. 그러나 가주(家主)의 운이 집을 새로 짓는 것과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마침 운이 닿는 큰아들 이름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다. 상량문을 쓸 때도 가주를 큰아들로 했고 새집에 입주할 때도 큰아들이 먼저 가서 잤다. 그때 아랫목에서 '절굿대'[절굿공이]를 거꾸로 베고 잤다고 한다. 이후 초아흐렛날이나 열흘날처럼 손 없는 날로 잡아 고사떡을 해서 제의를 행하고 입주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건네고 "내가 네 집을 사야겠으니 팔아라."라고 말하면 아들은 "그 돈을 받고 팔겠습니다."라고 하여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에 식구들이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으로 집을 짓는 경우는 대주와 나이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새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도록 한다. 이때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거나 베개 대신 방수목(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처리한 나무판) 같은 것을 베고 자야 한다. 이튿날 아침에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 들어간다. 이러한 형식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피하면서 필요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매개자를 세우는 것이다.

사실 집의 건축과 관련된 의례들은 건축의 전 과정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길흉추택서(吉凶推擇書)들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새로운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금기, 의례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각 과정이 수행되는 날과 시간에 대한 가림이 매우 심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입택 관련 의례들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행해지는 것들이다. 이들 책에 나온 내용은 일종의 의례적 상식으로서 일반화된 것들이며, 관련 의례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례 매뉴얼로서 기능하였다. 대개 한문으로 쓰여 있고 역법(曆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이를 따로 공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의례를 행하면 되지만 한학(漢學)을 한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전문적 종교 직능자에게로 그 역할이 옮겨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안혜경(安惠敬)**





자동차고사
잔밥먹이기
장독신
절미
정월고사
정월떡
정초차례
정화수
제미하기
제석
제석오가리
제석주머니
제석할망
제석할망고사
제웅
제웅버리기
조군영적지
조기심리
조상
조상단지
조상모시기
조상종이
조선
조선무속고
조선의귀신
조왕
조왕고사
조왕중발
좀도리
종이성주
주당풀이
주부
죽산이
중구차례
지붕신
지신
지신밟기
지신제
지앙
짐승뼈
집들이고사
짚신이바지
짚주저리

제의
자동차고사
잔밥먹이기
정월고사
정초차례
제미하기
제석할망고사
제웅버리기
조기심리
조상모시기
조왕고사
주당풀이
중구차례
지신밟기
지신제
집들이고사
짚신이바지

신격
장독신
제석
제석할망
조상
조왕
죽산이
지붕신
지신
지앙

신체
제석오가리
제석주머니
조상단지
조상종이
조왕중발
종이성주

제구
제웅
짐승뼈
짚주저리

제물
정월떡
정화수

자료
조군영적지
조선
조선무속고
조선의귀신

용어
절미
좀도리
주부

ㅈ

자동차고사(自動車告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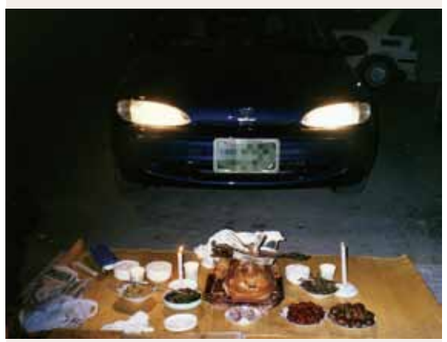
정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막고자 행하는 제의.

내용 자동차고사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연원이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운수 사나운 일은 액(厄), 재액(災厄), 액운(厄運)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예부터 이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의 액막이를 거행하였다.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위험은 근대에 와서 나타난 신종 액운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고사 역시 이러한 액운을 막고자 하는 전통적인 액막이의 현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고사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8.2.6, 윤동환



광주시 북구 용봉동, 2005, 서해숙

자동차고사는 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을 때 연행하거나 사고가 난 뒤 재발 방지의 의미로 치러지기도 한다. 제차는 지역이나 연행자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단출하게 진행되어 진설과 재배, 제물 일부의 헌식, 음복으로 맺음된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의 모든 문짝을 열고, 보닛과 트렁크도 개방한다.
② 제물을 진설하고 분촉(焚燭)한다. 제물로는 대략 삼색과일, 삼색나물, 시루떡, 제주(祭酒) 등이 쓰인다. 돼지머리를 함께 올리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북어와 실타래는 빠지지 않는 제물이다.
③ 차주(車主)부터 헌작 재배하고 참여한 사람들도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때 금일봉을 올리기도 하며 액운을 막는 덕담을 나눈다.
④ 제물로 올린 시루떡을 떼어 차량 주변에 뿌리거나 제주를 차량의 네 바퀴에 뿌린다. 이때도 운전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액운이 물러가도록 덕담을 한다.
⑤ 경우에 따라 차량의 바퀴 앞에 달걀이나 바가지 등을 놓고 차량을 움직여 그것을 깨도록 한다.
⑥ 차려진 제물을 거두어 음복과 덕담을 나눈다.
⑦ 제물로 올린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차량의 트렁크 안쪽이나 엔진실의 빈 공간, 실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둔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의 자동차고사는 지역적 차이와 주재자에 따라 제의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다. 팥을 차에 뿌려 액을 막기도 하고 북어와 실타래를 함께 두었다가 실타래를 태우고 북어만을 차 안에 두기도 한다. 부적을 따로 받은 경우 부적을 접어 북어 입 안에 넣고 차에 두기도 한다. 의례의 중심적 연행자도 차주의 친구, 집안의 어르신 등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안이 단골인 경우 무당이 차고사를 행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제의 양식을 보이기도 하는 자동차고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로 의례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치러지는데 비해 의례의 대상이 되는 신격이 불분명하다. 즉 특정한 신앙의 대상이 의례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특징은 '거리제'라고 하는 액막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거리제는 마을

자동차고사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2007.5.16, 국립민속박물관



자동차고사 충남 홍성군 수룡동, 2002.2.25,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6


7

공동체 신앙의 대상 가운데 하위 신격에 해당하는 신령들에게 드리는 의례를 말하기도 하고 거리의 신, 즉 노신(路神)에 대한 의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마을 앞 삼거리나 진입로에서 개인에 의해 지내지는 거리제는 별도의 신앙 대상물이나 신격이 존재하지 않는 액막이의 모습을 보여 준다. 거리제를 지낼 때 사람들은 마을 앞 삼거리에서 간단한 고사를 지내고 식구들의 옷이나 신발을 태워 한 해 동안의 무사를 기원한다.

근래에는 도로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거리제를 지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고사를 마을 앞 삼거리에서 연행하는 예도 있다. 여기에서 이전부터 있어 온 액막이로서의 거리제와 자동차고사의 의례적 연계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둘째로 자동차고사가 끝난 뒤 제물의 일부를 기물(奇物)로 여겨 차 안에 모신다는 것이다. 형식으로는 마치 집안의 신격인 성주나 터주를 모시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고사가 끝난 이후 모셔진 기물이 신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 오히려 부적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자동차고사는 비록 일부에서는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범위 또한 생각보다 넓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그 예가 조사되었다.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깊이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차 구입 예배, 가톨릭 신부의 자동차 축성, 스님의 축원 등 필요에 따라 다른 종교로 자리를 옮겨간 같은 목적의 의례들이 있음은 자동차를 통해 겪을 수 있는 액운을 없애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지를 가늠케 한다.

자동차고사는 현대 사회의 가장 보편화된 액막이로서 사람의 생활이 변함에 따른 보편적 신앙 형태의 영속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자동차고사와 속신**(황경숙,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창호(金昌鎬)**

잔밥먹이기

정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한 뒤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두통·복통·오한(惡寒) 등을 앓게 되면 '잔밥각시'에게 잔밥을 먹여서 질환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일종의 치유(治癒) 의례.

내용 잔밥먹이기는 부정(不淨)한 장소나 다른 집안의 혼인 잔치, 장례(葬禮) 등에 다녀온 뒤에 까닭 없이 아플 경우에 행한다. '잔밥각시'가 일러주는 질환의 원인은 대개 네 가지이다. 곧 성주나 터주 등 가신(家神)이 빌미가 된 경우, 객귀가 침입한 경우, 집 안에 각종 물건을 잘못 들여 놓아서 발생한 동토(動土)의 경우, 몸 자체가 허약해져서 생긴 병환의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신과 객귀로 인한 질환에만 잔밥먹이기를 한다. 이때 가신에게는 잘못을 빌고 위로를 하며, 객귀는 된장국밥을 주어 내쫓는다.

잔밥먹이기의 성격 잔밥먹이기는 글자 뜻 그대로 '잔밥을 먹이는 의례'이다. 잔밥의 정확한 뜻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잔반(殘飯), 곧 먹고 남은 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잔밥은 '먹고 남은' 밥이 아니라 쌀 · 콩 등 곡물을 가리킨다.

여기서 잔밥을 누구에게 먹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잔밥을 먹이면서 외는 주문(呪文)에서 보면 잔밥은 '잔밥각시'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해된다. 잔밥각시는 호남지방에서는 '뒷박각시'로 불린다. 이는 곡물을 뒷박에 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잔밥각시는 강남(江南)에서 온 어린 새색시로 인식된다. 그녀의 남편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에게 병을 치유해 달라고 애원도 하며, 잡귀 침탈의 유무 또는 그 밖의 질병의 원인을 알려 달라고 요청도 한다. 병자의 질환을 모두 걷어 달라고 간절히 빌기도 한다.

잔밥각시는 미지(未知)의 병인(病因)을 뒷박의 쌀을 증표로 삼아 일러줄 수 있다. 뒷박 안 어느 곳의 쌀을 잔밥각시가 먹었는지, 곧 어느 위치의 쌀이 파여져 있는지를 유심히 살핀다. 쌀을 담은 뒷박을 주문을 외면서 환부(患部)에 문지르면 뒷박 안의 쌀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어느 부분은 다소 움푹 파이게 마련이다. 이를 두고서 잔밥을 먹였다고 관념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성주, 조상, 터주 등 가신이 빌미가 된 것인지 동토가 난 것인지 객귀가 붙은 것인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잔밥각시가 어리석고 답답한 인간을 위하여 뒷박 안 특정 부분의 쌀을 먹음으로써 그녀의 신의(神意)를 나타낸 것이다. 일종의 신탁(神託)인 셈이다.

실제로 잔밥을 누가 먹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잔밥각시가 먹는 것인지 가신이나 객귀 등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잔밥각시가 가신이나 객귀로 하여금 어떤 부분의 쌀을 먹으라고 인도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대개의 주문 내용에 따르면 잔밥각시가 잔밥을 먹는 것으로 이해된다.

잔밥각시는 환자의 질환을 거둘 수 있는 존재로 믿어진다. "잔밥각시가 환자를 당장에 살려 내라."라든가 "잔밥각시가 아픈 것 다 걷어 가지고 가라."라는 등의 주언(呪言)은 그러한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요청이나 명령은 잔밥각시에게 공양(供養)된 잔밥, 곧 쌀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이해된다. 잔밥각시는 자신에게 제공된 쌀을 먹으면 그 대가로서 병인의 증표(證票)를 보여 주어야 하고, 더욱이 병을 거두어 마침내 완쾌하도록 해야 한다.

잔밥각시에게 "잔밥을 덜컥 먹으라!"라는 재촉이나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세닐곱 스물하나를 먹여 줄 테니……" 등의 회유는 잔밥각시가 잔밥을 먹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 준다.

잔밥각시에게는 칭송과 아부의 기도문(祈禱文)도 바쳐진다. 기도문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고 미련한 존재로, 잔밥각시는 대단히 영험한 신령으로 각각 묘사된다. 이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급박한 병세에 갑갑하고 당황스러워서 잔밥각시에게 병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잔밥을 먹고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대칼로 목을 쳐서 무쇠 둠벙에 가두거나 한강에 내버린다는 등 협박성의 주문을 퍼붓기도 한다. 잔밥먹이기에 애원, 청탁, 회유, 협박, 강제의 태도와 감정이 함께 섞여 있다.

잔밥먹이기 절차 잔밥먹이기는 객귀물리기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부녀자가 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신(神)할머니, 선거리, 영신 등에게도 의뢰한다.

잔밥먹이기를 하려면 먼저 쌀 한 되를 뒷박이나 그릇에 소복이 담고, 그것을 환자의 옷이나 보자기로 단단히 싸매 쌀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것으로 환자의 아픈 곳을 문지르면서 주문을 왼다. 동일한 주문을 세 번이나 일곱 번, 아니면 스물한 번을 반복한다. 또는 환자의 나이 수(數)만큼 외기도 한다. 주문을 외는 횟수만큼 환부를 문지르기도 한다.

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곧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그 원인도 모른 채 고생을 하고 답답하여 잔밥을 먹이려고 한다고 전제를 하고 나서 아무쪼록 강남에서 나온 영검하신 잔밥각시가 병인이 가신에 의한 것인지 객귀에 의한 것인지 동토에 의한 것인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뒷박의 쌀로 표징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뒷박의 쌀을 많이 먹고 환자의 병을 거두어서 속히 떠나가라고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칼로 육신을 해체하고 무쇠 둠벙 등에 가두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주문을 외는 동안 가신이나 객귀가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하여 동토가 난 경우라면 그들이 "사각사각" 또는 "찰각찰각" 하고 쌀을 먹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주문은 세 번, 일곱 번, 스물한 번을 외거나 환자의 나이 수만큼 왼다. 주문이 모두 끝나면 뒷박을 싼 옷가지를 벗겨서 쌀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파여져 있는지 유심히 살핀다.

각 지역이나 마을의 전통에 따라 쌀의 파여진 위치와 모습으로 병인을 파악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객귀가 들면 되의 옆쪽 부분이, 성주가 빌미가 되면 되의 위쪽이, 그리고 터주가 서운했으면 되의 아래쪽이 움푹 파인다."
> "뒷박 한가운데가 파이면 조상이 왔다고 여긴다."
> "바가지 큰 귀 부분의 쌀이 파였다면 성주가 먹은 것으로 간주하고, 옆 귀가 파였으면 잡귀가 먹은 것으로 여긴다."
> "바가지 꼭지 부분의 쌀이 파였으면 조상이고, 바가지 주변이 그런 경우라면 객귀로 인정한다."
> "바가지의 꼭지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조상이 먹은 것이고, 중간 부분이면 객귀, 그 반대편 끝이면 터주로 간주한다."
> "바가지 윗부분의 쌀이 줄었으면 동토가 난 것이고, 옆 부분이면 바로 '뜬 것'이 붙은 것이다. 손잡이 부분이 줄었다면 조상이 탈 난 것이다."
> "바가지 꼭지 부분이 파여 있으면 조상신이 붙었다고 하고, 배꼽 부분이 그러면 객귀가 붙었다고 헤아린다."

이처럼 병인 판정의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보편적 원칙을 추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뒷박의 옆이나 가장자리 등은 객귀의 침탈로 판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신의 빌미와 객귀의 침탈인 두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① **가신(家神)의 경우** 이들 가신에게 무엇이 서운했는가를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며,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비손을 한다. 이러한 태도에서 가신과 식구 간의 종교적 관계를 잘 볼 수 있다. 무엇이 서운했는가 하는 질문은 미련한 인간은 어떤 언행으로 가신을 섭섭하게 했는지 잘 모른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이 잘못했으니 아무쪼록 노기(怒氣)를 풀라고 애원을 한다.

가신은 객귀처럼 내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정성들여 메를 짓고 나물을 마련하여 청수와 함께 간단한 상(床)이라도 성주나 조상 또는 터주에 올려서 잘못을 빌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뿐이다.

성주는 항상 조상 · 삼신과 함께 있거나 다닌다고 하여, 성주상에는 제물을 세 몫씩 놓기도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집 안에 헌 물건 또는 헝겊 · 옷 등을 잘못 들인 경우에도 성주는 서운할 수 있다. 터주에 탈이 나면 뒤꼍 장독대의 터줏가리 앞에 청수와 쌀 등을 차려 놓고 비손한다.

② **객귀(客鬼)의 경우** 객귀의 침입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객귀를 물릴 채비를 서두른다. 잔밥먹이기의 후반부 절차로 행해지는 객귀물림은 대체로 풀어먹이기, 짚신이바지, 짚끄랭이가 보편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에는 모두 객귀물리기의 기본 절차가 반영되어 있다. 객귀로 밝혀지면, 먼저 뒷박의 움푹 파여 들어간 부분의 쌀로 그를 풀어먹이기 위한 하찮은 음식이 준비된다. 뒷박 쌀 자체를 쓰든가 그것으로 밥이나 죽을 마련한다. 먹다 남은 찬밥이나 반찬 등을 쓰기도 한다. 이들 잔반을 흔히 된장국에 말기도 한다. 여기에 환자의 머리카락과 침도 넣는다.

이것을 객귀에게 풀어먹이면서 주언과 칼로 달래고 협박하여 객귀를 집 바깥으로 내친다. 부엌칼을 대문 바깥쪽으로 던져보아 객귀가 정말 쫓겨 나갔는지를 확인한 뒤에 대문 앞에 부엌칼로 엑스(X)자를 긋고 그 교차점에 부엌칼을 꽂아 놓는다.

세 방법 가운데 풀어먹이기는 객귀물리기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객귀를 풀어먹이는 주된 방식이 짚신에 음식을 담아 태우거나 내버리는 것인가, 짚끄랭이에 담아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따라 짚신이바지와 짚끄랭이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곧 짚신이바지는 짚신에 담은 잡음식(雜飮食)을 객귀의 제물로 삼아 객귀를 풀어먹인 뒤에 내치는 치병 의례이다.

잔밥을 환부에 문지르다가 쌀 뒷박에서 "찰각 찰각" 하며 객귀의 먹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먼저 환자가 귀가한 길을 역순(逆順)으로 가서 마을 어귀에 이르면 왕겨를 담은 짚신,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재, 뒷박의 쌀, 된장국, 고추 등을 진설하듯 죽 펼쳐 놓는다. 재의 불씨로 짚신을 소각하면서 객귀에게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는 위협적인 주문을 퍼붓는다. 부엌칼을 몇 번이고 던져서 객귀 구축을 확인하면 마을 어귀에 부엌칼을 꽂아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가한다.

짚끄랭이(짚수세미)의 기본 의미도 거의 비슷하다. 짚끄랭이 안에 '뒷박 안 파인 부분의 쌀'을 비롯하여 고춧가루, 소금, 된장, 동전 등을 넣고 이것을 환자의 머리 둘레 좌우로 각각 여러 차례 돌린다. 환자의 병을 모두 거둔다는 의미이다. 다음에는 짚끄랭이를 대문이나 동구(洞口) 부근의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불에 태운다. 짚끄랭이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지날 때 사람들은 객귀가 자신에게 붙지 않도록 침을 세 번 뱉어 준다.

이 밖에 쌀 까부르는 키[箕] 위에 제물을 담아 놓거나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 음식을 묻는 다소 변형된 방식들도 나타난다. 특히 하위의 잡신이나 수부 등에게 음식을 차려 줄 때 키를 사용할 때가 많다. 키는 곡식은 남기고 쭉정이, 검부러기 등은 날려 보내는 기구이기 때문에 잡귀 등도 음식을 먹은 뒤에는 마치 그렇게 흩어져 버리라는 뜻이다.

예컨대 충북 보은지역에서는 객귀물림 때 먼저 키

에 세 무더기의 밥, 소금 한 줌, 물 한 그릇을 놓고 이를 환자의 앞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축귀의 주문을 왼 다음에 다시 된장국을 마련하여 객귀를 물린다. 이렇게 하여 잔밥먹이기가 모두 끝나면 '잔밥을 먹여준 사람'이 남의 집 사람인 경우 결코 환자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수고했느니 어떠했느니 하는 등의 인사말도 주고받지 않고, 잔밥을 먹인 쌀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한다. 형편에 따라서는 추후에 잔밥을 먹여 준 사람에게 약간의 돈이나 선물을 사례(謝禮)로 준다.

참고문헌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이필영,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장독신

상호참조 철륭(653쪽)

정의 장독대에 좌정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관장하는 신.

내용 장독대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담은 독을 두는 곳이다. 주로 집 뒤란이나 마당에 있다. 집 담장을 따라 약간 높직한 곳의 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며, 물이 잘 빠지도록 돌을 2~3층가량 쌓은 다음 판석을 깔아 만든다. 가장 큰 독에는 간장, 중간들이에는 된장이나 막장을 담는다. 항아리에는 고추장이나 장아찌류를 담아 놓는다. 영남지방에는 안마당에 장독대가 위치하지만 전남지역에는 대체로 집 뒤란에 자리한다. 장독대는 '장꽝', '장꼬방'이라고 불린다. 부유한 집안의 경우 장독대 주위에 담을 두르고 문까지 세운 집이 적지 않다.

장독에 담긴 음식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다. 장독대는 방안 못지않게 청결한 곳이며, 여성들의 전용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며, 가족 내에서도 잦은 출입을 금한다. 집의 마당이 외부 사람이나 가족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이라면 집 뒤란은 마당에 비해 폐쇄된 닫힌 공간, 즉 성소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장독대가 있고, 장독 안의 음식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독대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

주재자에 따라 가신(家神)의 거소를 달리한다. 집 뒤란에 장독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철륭, 칠성, 장독신 등 가신도 더불어 그곳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집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신앙 행위이므로 그 기능에 따라 얼마든지 장소적 수용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독신은 독자적인 신으로 인식되지만 대체로 철륭, 지신, 터주, 칠성과 혼융되어 표출된다. 일반적으로 가신은 저마다의 기능이 있는 반면에 다른 가신의 기능을 함께하는 중층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오랜 전승의 역사를 통해 때로 각 가신이 지닌 기능이 어느 한 신에게 통합되거나 잔존하기는 하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가신 가운데 장독신은 이러한 특징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예전에 부잣집에서는 간장도 겹장을 담가 몇 년씩 묵은장을 보관하였다. 여러 가지 장아찌도 만들어 몇 년씩 묵은 것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과 양념 재료 등을 두었다. 서민 집에서는 최소의 양념과 장류를 담가 두었다. 한 집안에서 장독대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고, 장독대의 크기가 곧 가세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였다. 또한 음식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대개는 크고 깨끗한 돌로 대를 쌓고 그 돌 위에 독을 올려놓았다. 간장독에는 간장을 담그면 숯과 붉은 고추 등을 띄워 놓는다. 이는 간장의 맛을 지키기 위한 축귀적 주술이다. 여러 음식의 맛과 음식의 재물성을 지키는 것이 장독신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전남지역에서 철륭은 집 뒤란과 집터를 이른다. 장독대를 철륭이라 일컫는 것은 집 뒤란에 장독대가 위치하며, 장독대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으로 가장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곳에 철륭상을 차림으로써 자연히 장독대를 철륭으로 인식한다. 해남군 북평면지역에서 철륭은 장독대에 모시는 신체(神體)로서 장독의 신령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명절인 설, 보름, 추석 때 장독대 앞에 상을 차려 놓는다. 제물은 밥, 물, 떡, 과일, 나물, 술 등이다. 절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독신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2003.4.23
윤동환

구례군 구례읍지역에서는 철륭이 집 뒤란을 이른다. 주로 음력 정월대보름날이면 집 뒤란의 장독대나 깨끗한 곳에 음식을 차려놓는다. 또한 자식의 무사안일을 기원한다. 장독대는 대체로 집 뒤편에 담을 두르고 그 안쪽에 옹기를 줄지어 놓아둔다. 매일 이른 아침이 되면 장독대 가운데 깨끗한 옹기 위에 물 한 그릇을 바친다. 이렇게 물을 떠놓는 사람은 따로 있으며, 아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군대 간 자식, 시험을 앞둔 자식, 병든 자식 등이 있는 경우 장독대에서 비손한다.

영암군 시종면지역에서는 제사 때가 되면 집안에 찾아드는 잡귀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해전밥'을 차려놓는다. 해전밥은 바구니에 떡 세 개, 밥, 나물 등을 각각 세 그릇 차려서 집안 장독대나 깨끗한 곳에 놓아둔다.

화순군 동면지역에서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식구가 아프면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비손한다. 장독대가 깨끗하기 때문에 장독대에서 비손하는 것이다. 장독 가운데 가장 크고 깨끗한 것을 골라 그 위에 촛불을 켜놓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북쪽 방향으로 절을 네 번 한다. 대개 동쪽으로 절을 하고 비손하지만 북쪽에 절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이다.

화순군 이양면지역에서는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아침 일찍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비손한다.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사람이 죽거나 아이를 낳으면 물을 떠 놓지 않지만 이웃집이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아이를 낳을 때에는 장독대에 물을 떠 놓지 않는다. 이는 삼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군대 간 아들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목욕재계한 다음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축원한다. 자식들이 홍역을 치르고 아플 때에도 장독대에 공을 들인다.

화순군 한천면지역에서는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시험을 보러 가면 아무 사고 없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집 뒤란의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비손한다. 자식이 시험 보러 가면 합격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녘에 물을 떠 놓는다. 물은 동이로 떠 놓으며, 인적이 없는 시간에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절을 한다.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 역시 군대 간 자식을 위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새벽마다 기원한다. 특히 아기 낳을 달에 장독대에 손을 대면 산모가 아프거나 죽게 된다는 말이 전한다.

장흥군 유치면과 화순군 일대에서는 칠성을 장독대에 모시기도 한다. 장독대를 가리켜 '칠성당'이라 부르면서 장독대 옆에 칠성당을 만들어 놓고 징용에 끌려간 아들을 위하기도 한다.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는 칠월칠석날 저녁에 집안 마당이나 장독대에서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기원한다. 오늘날 이러한 의례행위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신 칠월칠석, 사월초파일에 가까운 절을 찾아가 축원한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지역에서는 집 뒤란의 장독대를 철륭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독대에 모시는 것을 '철륭공'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자식들이 잘되라고 모두 철륭을 모셨다고 한다. 추석, 칠월칠석, 유월유두와 매월 초이렛날이면 물, 밥, 떡 등 장만한 모든 음식을 장독 위에 차려놓는다. 그러나 설과 대보름에는 차려놓지 않는다. 장독대 위에 음식을 차려놓은 뒤에 절은 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무사안일을 기원한다. 차려놓은 음식은 여자들이 먹으면 사나워지기 때문에 먹지 않고 남자들이 먹었다고 한다. 박옥남 씨는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칠성공이 제일 크니 꼭 칠성공을 드려라."라고 해서 장독대에서 칠성공을 드렸다고 한다. 이 밖에 정월대보름날 저녁이면 짚 한 다발을 마당 가운데에 깔고 그 위에 물 한 동이를 가득 채워 놓는다. 그 앞에서 동서남북으로 네 번씩 절을 한다. 그리고 오곡밥을 쪽박에 퍼서 짚 속에 넣어둔다. 이튿날 새벽이 되면 집안 사방으로 돌면서 오곡밥을 수저로 떠 뿌린 뒤에 소금을 뿌리면서 일 년 열두 달 무사하게 해달라고 빈다. 그러고 난 뒤 물동이의 물을 대문 밖에 버리고 짚은 불사른다.

순창군 순창읍지역에서는 장독대에 철륭을 모시며, 지신은 마루에 상을 차려놓는 것으로 모신다고 한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성주, 삼신상, 선영상을 차려놓은 뒤에 바로 마루에 지신을 위한 상을 차려놓으며, 이어 장독대에 철륭상을 차려놓는다고 한다.

완주군 봉동읍지역에서는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를 일러 당산, 철륭당산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철륭에 쌀을 담은 단지를 놓아두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집을 찾을 수 없다. 김학순 씨는 초사흗날, 초이렛날, 섣달그믐날에 장독대에서 철륭을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명절 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독대 앞에 준비한 음식과 물 한 그릇을 차려놓고 짚을 열십자로 놓아 그 위에 떡시루를 올려놓는다. 그런 뒤 동서남북으로 재배한다. 특히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장독대에서 많이 빌었다고 한다.

순창군 유등면지역에서는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를 철륭이라고 인식하며 "철륭공이 칠성공이여."라고 말하기도 한다. 설, 보름, 추석 때 집 뒤란 장독대의 깨끗한 곳에 음식을 차려놓는다. 음식은 명절 때 장만한 음식 그대로이다. 이외에 촛불, 물 한 그릇을 올려놓는다.

익산시 여산면지역 역시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 갖은 음식을 차려놓는 것으로 철륭을 모신다. 이언봉 씨는 시집와서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자, 그날부터 장독대에 물 한 그릇을 받쳐놓고 비손하였으며, 초사흗날과 초이렛날마다 떡시루를 해놓고 비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물은 저녁마다 새로 갈아서 놓아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남편이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했으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자 그 뒤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장독대에 떡시루를 놓아두면 마을 장난꾼들이 몰래 가져가 지키고 있기도 했다고 한다.

정읍시 금붕동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가장 · 자식이 집을 떠나 있을 때면 우환이 끝나거나 가장 · 자식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과 촛불, 시루떡, 밥, 나물 등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가정의 평안과 무사안일을 기원했다. 송배마을 수금댁은 장독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위했다고 한다. 이는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로 그만큼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명절 때가 되면 장독대에 밥, 나물 등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는다. 또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시험을 보는 등 공 드릴 일이 있으면 목욕재계한 뒤 옷을 정갈히 차려입고 공을 드렸다고 한다. 행정마을 김순옥 씨는 정월대보름날이면 집 뒤란의 장독대에 밥, 나물, 정화수 한 그릇을 차려놓는다. 동지 때에는 팥죽 한 그릇을 차려놓는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장독대를 철륭이나 칠성신을 모시는 곳으로 인식한다. 특히 장독대는 깨끗하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만신을 불러 자리를 정했다고 한다.

특징 장독신은 독자적인 가신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아울러 철륭, 지신, 터주, 칠성 등 가신과 혼융되어 표출된다. 장독대라는 동일한 공간과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하는 동일한 목적 때문에 혼융은 가정신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정신앙은 여느 종교와 달리 이념과 체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신심(信心)에 의지해 행위가 구체화된다. 또한 집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각각의 기능으로 의례 행위를 표출하지만 의례 수행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신들과 혼융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가정신앙의 목적인 가족의 평안은 특정 가신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철륭이 애초 장독신으로 장맛을 관장했지만 가옥구조, 생활환경, 의식 등의 변화로 인해 장맛을 위한 의례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맛은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장독신이 당연히 중요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철륭이 장독신으로서 장류를 보살펴주는 독자적인 기능이던 것이 후대에 약화되었는지, 장독대 또는 뒤란이라는 철륭의 자리 때문에 장독신으로 기능이 부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가신의 기능이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행위화되고 있음을 이 장독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정신과 가정신앙**(서해숙,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화순군, 1998), **가정신앙**(서해숙, 남도민속연구 4, 남도민속학회, 1997), **가정신앙**(서해숙, 남도민속연구 5, 남도민속학회, 1999),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민간신앙 1, 민속원, 2008),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호남지역 철륭신의 성격**(김명자,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필자 **서해숙(徐海淑)**

절미

표제어 좀도리(618쪽)

정월고사

표제어 보름고사(211쪽)

정월떡

참조항목 보름고사(211쪽), 안택(441쪽)

정의 정월에 행하는 안택에서 준비하는 떡.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에 대한 기원 및 감사 등의 목적으로 정월에 떡을 만들어 행하는 의례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용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에 행하는 의례를 '고사', 시월에 행하는 의례를 '안택'이라고 각각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팥을 넣은 시루떡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을에 행하는 안택(고사)을 '가을떡 해 먹는다', 정월에 행하는 것을 '정월떡 해 먹는다'라고도 한다.

정월떡은 부정이 섞이지 않은 매우 정결한 상태에서 주부가 직접 준비한다. 떡을 찌기 전에 대문에 금줄을 치고 대문 밖에 황토를 뿌려서 집안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다음 주부는 목욕재계한 뒤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떡쌀은 새로 찧은 쌀을 석 되 서 홉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떡을 찔 때도 정성을 다하면서 부정이 깃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떡시루에 김이 잘 오르지 않고 김이 새어나와서 잘 익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부가 다시 기도를 올리거나 짚을 썰어 넣은 물을 마시는 등 부정풀이를 행해야 한다.

떡이 온전하게 잘 쪄진다면 이 떡을 먼저 성주상에 올려두고 다른 제물을 차려서 남자 주인 또는 부부가 함께 절을 하고 비손을 하면서 가정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한다. 그런 뒤에 떡을 조금씩 썰어서 쟁반에 담아 집안의 공간 곳곳에 갖다 둔다. 이 떡은 잠시 후에 거두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정월떡을 이용한 전반적인 의례는 안택을 행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특징 정월떡은 정월에 행하는 안택의 주요한 제물이다. 시월에 행하는 안택과는 의례과정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정월떡'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월상달에 준비하는 '가을떡'과 대비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지역에 따라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표현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충북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적인 편차가 명확히 나타난다. 즉 충북지역의 종합적인 가정신앙의례는 안택, 정월떡의례, 가을떡의례로 구분된다. 이 세 의례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토대로 작성한 문화영역도와 거의 일치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안택에 관한 문화영역에서 자세히 살폈다.

지역사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진도리마을은 정월떡을 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행한다. 음력 정월에 '정월떡'을 하는 것은 그해 농사가 잘되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시월상달에 하는 '가을떡'은 농사를 다 지었다고 가을 천신(薦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가을떡'을 해먹는 집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 두 의례는 집의 지킴이인 성주와 터주에게 천신하는 것이다. 성주는 거실의 상기둥 터주는 장광(장독대)에 각각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떡은 멥쌀로 만든 백설기와 팥을 삶아서 만든 케떡(켜켜이 층을 쌓듯이 만든 떡) 두 종류를 준비한다. 케떡만 준비하는 집도 있다. 떡쌀은 석 되 서 홉 또는 한 되 서 홉을 준비하며, 형편에 따라 준비한다. 떡을 준비할 때는 삼일 기도를 하거나 당일 기도를 한 뒤에 행한다. 삼일 기도를 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목욕재계하고, 사흘 동안 초상난 것이나 부정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웃집에 초상이 나도 모른 척해야 한다. 당일기도로 떡을 찔 때는 캄캄한 새벽에 대문을 깨끗하게 쓸고 흙을 퍼서 뿌린 뒤 금줄을 쳐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성함은 "떡을 만들 벼를 말리기 위해 널어놓았을 때 참새가 와서 먹으면 그 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떡을 찌는 과정은 두 경우 동일하다.

그런 다음 오후 3시쯤에 떡시루를 아궁이에 걸어서 준비한다. 쌀가루는 하루 전날 저녁에 쌀을 물에 담

가 두었다가 아침에 면소재지에 있는 방앗간에 가서 빻아 온다. 이 동안에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방앗간에서도 그 쌀이 정월떡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군소리 없이 잘해준다고 한다. 떡을 찔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찐다. 떡시루를 아궁이에 얹을 때는 먼저 이를 닦고 세수를 한다. 뒤에 작업을 시작한다. 떡을 찌는 동안에는 화장실에도 가지 않는다. 떡을 차리면 절을 하고 기원을 한다. 그 내용은 "일 년 열두 달 가더라도 한날한시 같이 반갑게 받으시와 재수 대통하고 아무 근심 없게 해 달라."라는 것이다.

정월떡고사를 행하는 방식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천이 천 말하고 만이 만 말하더라도 정성껏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떡시루를 차릴 때는 상에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짚을 깨끗이 추려서 바닥에 깔아두고 차리기도 한다. 상차림에는 술, 청수, 과일(밤, 대추, 사과, 배), 촛불 등을 차린다. 기제사를 지내는 것과 동일하다.

성주에게 바칠 떡시루는 상기둥 앞에 차린다. 그런 다음 집안의 대주가 술(막걸리)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대주가 절을 하지 않으면 안주인이 절을 하며, 부부가 함께 절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의례가 끝난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일 년 동안 신수가 좋다고 한다. 소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소지는 식구마다 개개인이 올린다.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소지가 덜 타고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사람을 말한다. 무당은 그 사람에게 방비(방지하기 위한 주술적 처방)하기도 하지만 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일 년 동안 열심히 마음기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해 준다. 이것을 '막음한다'라고 한다.

소지가 끝나면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서 부엌과 조왕에 한 접시씩 바치고, 장독대나 놓고 싶은 곳에 갖다 둔다. 부엌의 조왕이나 장독대의 터주, 쌀 단지 위 또는 쌀 포대 위, 변소, 기계 위, 수도, 삽짝(대문) 등의 순서로 갖다 놓는다. 수도에 바치는 것은 일 년 열두 달 동안 물이 잘 나오라는 뜻, 변소에 바치는 것은 변소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삽짝에는 "삽짝 장군이 천신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 먹고 뚝 떠나라."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갖다 놓는다. 10분 정도 지나면 모두 거두어들인 뒤에 금줄을 걷어치우고 떡을 나누어 먹는다. 걷어낸 금줄은 담장에 끼워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어 불에 태운다.

참고문헌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기태(李淇泰)**

정초차례(正初茶禮)

정의 정월 첫날 아침 조상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를 비롯하여 집안 곳곳 가신에게 상을 차리고 가정의 평안을 비는 제의. 지역에 따라 성주차례, 성주고사, 정초고사라고 불린다.

역사 조선시대 초기 국가 차원의 의례 지침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序例)」에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臘)의 여섯 가지 속절(俗節)이 나타난다. 이때 조상을 모신 곳에 제향(祭享)한다고 나온다. 이러한 속절 제사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인정(人情)에 구애되어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명절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음식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미 돌아간 조상들을 빼놓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돌아간 조상 역시 살아 있는 가족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보살펴 주는 가신들 역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절에 조상신과 함께 가신에게 기도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적 맥락이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정월 초하룻날은 대표적인 명절로, 이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 상차림은 기제사와 동일하다. 지역에 따라 설에는 특별히 메와 탕 자리에 떡국을 올린다. 설날에 조상차례뿐만 아니라 집안의 최고 신인 성주를 비롯하여 집 안 곳곳에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 여러 가신 가운데 특히 성주 앞에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의례를 '성주차례'라고도 부른다.

정초차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2008.2.7, 국립민속박물관



성주상차림



음복



헌작



삼신상차림



정초차례상

집터를 선정해 집을 짓고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주를 모신다. 터주나 지신은 원래 그 터에 있던 신으로서 잘 달래고 화합해 이끌어가야 한다고 여긴다. 반면에 성주는 정식으로 초빙하여 앉히기에 집안의 큰 신으로 여긴다. 성주가 집안의 길흉화복을 일러주고 액을 막아 주는 최고의 가신이기에 명절이나 제사 때 가장 먼저 성주상을 차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도 성주에게 고하는 의례를 수행하는 것이다.

설과 명절 때 차례상을 차리기에 앞서 성주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상을 차리는 방법, 제물, 성주상에 이어 집안의 각 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순서와 방법에 차이가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2007.2.18, 국립민속박물관



삼신을 위한 제물



바닥은 삼신할머니상, 차례상 위 첫 메와 갱은 성주의 몫



재배

있을 뿐이다.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사례를 보면 설과 추석 때 조상차례를 지내기에 앞서 성주, 조상 등 집안의 각 가신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쌀을 보관하는 채독 앞, 뒤꼍의 장독대 당산, 마당의 터를 지켜주는 지신을 위해서도 떡국을 한 그릇 놓고 제사를 지낸다. 서천군 서면 신합리 선돌마을에서는 설날에 성주와 조상차례를 지내고, 뒤꼍의 당산 장독대와 대문 앞에도 제물을 가져다 놓는다. 대문 앞에는 제물을 치(키)에 담아 놓는다. 이 치밥은 객귀를 위한 것이다. 채독을 위하는 가정에서는 다른 곳보다 먼저 채독 앞에 제물을 가져다 놓는다. 채독은 쌀을 담아 두는 용기를 말하며, 집집마다 형편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제물은 밥 한 그릇, 나물 세 접시, 물 한 그릇, 명태포 등이다.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돛배마을에서는 설날 아침에 조상에게 떡국차례를 지내고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 앞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떡국 한 그릇과 차례상에 올린 제물 가운데 삼색실과와 나물을 각각 올린다. 당산을 위하고 마당으로 나와 터를 지켜주는 지신을 위해 지신제를 올린다.

부여군 내산면 지티2리 괴목정마을에서는 설날 아침 조상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성주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조상께는 고기를 넣어 끓인 떡국을 올린다. 그러나 성주와 당산에는 멸치로 국물을 내어 떡국을 끓이고, 비린 것은 올리지 않는다. 성주는 방 안의 윗목에 있다고 여기어 방 안에 상을 차리고, 대주가 먼저 술 한 잔을 올리면 주부가 장독대로 가서 당산 앞에 떡국을 올린다. 조상차례를 지낸 뒤 마당과 샘에도 떡국을 한 그릇 올린다.

성주상을 따로 차리지 않고 차례상에 성주밥을 놓고 제를 지내거나 차례상을 차려서 먼저 성주차례를 지낸 뒤 그 상을 물리고 나서 조상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다.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사기소마을에서는 성주상을 따로 차리지 않고 차례상 위에 성주 몫으로 밥 한 그릇을 올린다. 차례상 옆에는 짚을 깔고 밥, 간장, 청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삼신을 위한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서는 설날 차례를 지낼 때 성주와 시준할매를 위한 상을 따로 차린다. 차례상의 오른쪽에는 성주상, 왼쪽에는 시준상을 각각 차린다. 시준상에는 비린내 나는 고기를 올리지 않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안골마을에서는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에게 먼저 절을 하고 "새해가 되었으니 집안을 맑게 해 달라."라고 기원한 뒤 상을 물려서 다시 차례를 지낸다.

가정에 따라 성주가 아니라 다른 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에서는 시준에게 가장 먼저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낸 뒤 성주상을 차린다.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에서는 조상단지 앞에 상을 차리고 떡국 한 그릇과 술 한 잔을 올린다. 군위군 부계면 가호2리 동림마을에서는 웃줄단지 앞에 상을 차리고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성주상을 차린다. 웃줄할매는 일종의 조상신이며, 집안을 돌봐주는 가장 높은 신이다.

정월에 성주차례 또는 성주고사라고 불리는 의례가 또 있다. 이는 정초고사 또는 정월고사라고도 불린다. 정월대보름 이전에 집안의 각 가신을 위한 의례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화성지역에서는 정월 초하룻날에 떡국차례를 지내고 이튿날 성주고사를 지낸다. 성주 앞에는 팥 시루떡, 제석 앞에는 백설기를 각각 놓는다. 고사떡의 쌀은 반드시 석 되 서 홉을 쓴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정월 초사흗날에 정월고사를 지낸다. '마구설기'라 하여 호박에 콩 또는 팥을 삶아 섞어 떡을 쪄서 먼저 안방에 시루째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대청마루에 가져다 놓는다. 그 떡을 잘라 장독, 광, 부엌, 우물 순으로 가져다 놓는다. 고사를 지내는 날 아침 일찍 금줄을 치고 대문간에 황토도 펴 둔다.

정월고사를 대보름날에 지내는 지역에서는 '보름고사'라고 부른다. 정월보름떡은 '정월시루' 또는 '농사시루'라고 부른다. 정월대보름날에 올 한 해 농사가 잘되도록 기원하는 고사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 시루를 놓는 위치와 떡의 종류는 다르지만 새해가 시작되어 온 집안 식구가 평안하고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안의 각 가신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정초차례와 같다. 지역에 따라 정초차례와 정월고사가 합쳐진 사례도 있지만 정월고사는 한 해 동안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안택의 의미가 짙다.

의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조상차례를 지내기에 앞서 성주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는 정초차례는 가신의 위계를 잘 보여준다. 조상에 앞서 집안의 최고 신인 성주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조상뿐만 아니라 집 안 곳곳에 있는 가정신까지 한 식구로 인식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남부지역의 가신신앙 연구**(안혜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음력 정월의 세시풍속과 가정주부**(김효경, 샤머니즘연구 5, 샤머니즘학회, 2003),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오선화(吳善花)**

정화수(井華水)

정의 새벽 일찍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

역사 우물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 제1 시조 혁거세 거서간(居西干) 5년 정월에 용이 알영정(閼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으며, 여자 아이는 자라면서 덕행과 용모가 뛰어나 시조가 왕비로 맞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25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넘쳤는데 이는 대왕이 우뚝 일어날 징조라고 하였다. 고대 초기에 우물은 이미 있었으며, 신화적 상징인 생명력과 풍요의 기능을 발휘하고 미래를 예지하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기원을 위해 의례적으로 정화수를 올리는 관행은 고대에도 행하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내용 인간은 물이 없이는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음료로 사용되는 맑은 물은 신앙행위의 대상이나 매체가



청수동이와 기름종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7.1.1(음), 강성복



우물을 상징하는 청수동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011.2.1(음), 강성복



당산(장독대)에 올린 정화수
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2003.1.20, 강성복



터주에 올린 정화수와 불밝이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7.1.1(음), 강성복



정화수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010.7.22, 윤동환

되었다. 이 물을 '정안수'라고도 한다. 주로 주부가 사발이나 중발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 등을 신령에게 기원한다.

정화수는 주부들이 비정기적으로 새벽에 정성을 들여 작은 소망을 빌기 위해 떠놓는 깨끗한 물이며, 제수나 공물로서 의미가 있다. 이른 새벽이라는 특정한 시간대에 정성을 들여서 떠온 정갈하고 맑은 물은 신령이나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제수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띤다. 주부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소망을 비는 장소는 우물가나 장독대, 부엌 등이다. 이곳들은 여성의 공간이다. 신앙대상은 수목이나 바위와 같은 자연신이거나 칠성, 조왕, 터주 등 여성이 모시는 가신(家神)이다. 따라서 정화수를 매개로 기원의 공간이나 신령은 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부정을 쫓거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정화력(淨化力)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정화수로써 부정을 물리치고자 한다. 정화수를 손가락으로 세 번 흩뿌리며 주술적 효과를 기대한다. 비손은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병 또는 액을 막기 위해 무당에게 간단한 굿을 의뢰하거나 경험이 있는 이웃 주부에게 부탁하여 행한다. 제물로 떡이나 정화수를 간단히 마련하여 두 손을 비비며 기원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서는 칠성을 장독에 모신다. 칠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

이어서 천신(天神)의 신격(神格)으로 모시기도 한다. 잘못 모시면 큰 탈을 입는다고 한다. 칠성을 모실 때에는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흰 시루떡을 올린다. 칠성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므로 비린 것은 일절 쓰지 않는다.

의의 정화수는 유교의 제사나 굿에서 올리는 제수 또는 공물이 다양해지면서 의례에서 사라지고 있다. 단지 주부들이 간소한 소망을 빌거나 액을 물리치기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화수는 물의 상징성과 거의 일치하며, 여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구미래, 비교민속학 23, 비교민속학회, 2002),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5).

필자 임장혁(任章赫)

제미하기

표제어 햇곡식갈기(726쪽)

제석(帝釋)

상호참조 제석오가리(569쪽), 제석주머니(573쪽)

정의 자손의 점지나 출산을 도와주고 자손의 명(命)과 복(福)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던 가정신앙의 신격 중 하나.

내용 서울과 충북지역에서는 제석이라고 불리지만 경기도와 전남지역에서는 봉안 형태에 따라 제석주머니, 제석오가리 등으로 불린다. 또 '삼신할머니', '불사할머니', '칠석할머니' 등으로 불려 여성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불사할아버지' 같이 남성신의 명칭이 나타나는 사례도 일부 있다.

제석은 불교에서 유래했다. 가정신앙에서는 삼신과 기능이 같아 삼신의 성격으로 섬겨지기도 한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충북 등 중부지방에서는 자손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



종이를 벗긴 제석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1983.5.28, 김명자



제석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2010.7.22, 윤동환



지석(제석)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010.1.16, 윤동환

제석신체만들기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2010.1.21, 윤동환



닌다. 전남지역에서는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풍요신적 면모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신체(神體)인 단지나 제석주머니에는 쌀을 담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가을에 햅쌀로 바꿔 담는다. 이때 쌀의 상태를 보고 가운(家運)이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간혹 무명을 접어 창호지로 싸 두는 형태로 제석을 모시는 사례도 있다. 지역에 따라 칠월칠석날 신체에 담아 둔 쌀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 간단히 제의를 올리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지석(제석) 내부 모습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010.1.16
윤동환



지석(제석)을 펼친 모습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1리, 2010.1.21
윤동환



제석오가리

성호참조 제석(567쪽)

정의 호남지역에서 가신신앙의 신체로 모시는 질그릇.

역사 제석오가리는 호남지역에서 성주신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신, 농신 등을 지칭한다. 흔히 제석오가리, 제석단지, 성주오가리, 성줏단지, 조상단지, 신줏단지 등으로 불린다. 그 성격은 지역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제석오가리에서 '제석(帝釋)'은 불교적 성격의 신격, 오가리는 호남지역의 옹기를 각각 말한다. 이른바 제석이라는 신성을 지닌 옹기그릇인 셈이다. 제석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본 수미산의 정상인 도솔천에 거주하는 천주(天主)로 알려져 있으며, 호국안민(護國安民)하고 인간의 선악을 주재하는 신으로 신앙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옛날에는 환인을 일컬어 제석이라고 했다."라고 하여 국조단군신앙과 습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환인에 대한 천제신앙과 불교의 제석신앙이 습합된 것임을 말해준다. 전북 익산시의 제석사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석신은 사원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온 것으로 조사된다. 즉 사원에서 제석탱화(帝釋幀畫)를 봉안하고 그에 대한 신앙행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제석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으로서의 신중(神衆) 기능과 더불어 제석 스스로의 신앙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석신앙은 고려 왕실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의 제석신앙은 전기에 왕실 위주로 신앙된 신라의 제석신앙을 계승함으로써 불교신앙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았다. 이후 무속화되어 민간신앙, 즉 가정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고려 의종 대에는 전국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제석신앙과 관음신앙이 성행하였다. 제석신앙이 지니고 있는 장수 기원의 현세기복적인 성격은 도솔왕생 사상과 관련하여 불교 교리의 실천적 맥락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고려 후기에 무속화된 제석신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제석신앙은 불교적인 신으로 출발하여 민속신앙으로 수용되고 가정신앙과 접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제석신앙은 무속에서 '제석거리'가 그것을

지역사례 제석신앙은 전국적으로 전승되지만 신체나 봉안 형태는 지역적으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서울지역에서는 백지에 햅쌀을 싸서 항아리에 넣어 안방이나 다락에 보관하며, 경기도지역에서는 안방 구석 벽에 제석주머니를 만들고 쌀을 넣어 걸어놓는 형태를 보인다. 충북지역에서는 바가지에 햅쌀을 담고 다른 바가지를 덮어 안방 시렁 위에 모시고, 전남지역에서는 제석오가리(단지)에 쌀을 담아 안방이나 마루에 보관하는 형태이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세존단지를 안방에 모신다. 이 또한 제석을 모시는 가정신앙의 한 형태이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장주근,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4), **조선무속의 연구-하**(赤松智聖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권태효(權泰孝)**

말해준다. 무속에서의 제석 역시 천신을 말하며 복덕을 맡은 신으로 신앙된다.

형태 제석오가리는 햅쌀을 담은 질그릇의 형태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복합적 신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석오가리나 제석단지에서의 '제석'뿐만 아니라 성주오가리나 성줏단지에서의 '성주', 조상단지나 신줏단지에서의 '조상'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 또한 다양하다.

집안의 으뜸신인 까닭에 모셔지는 곳은 집안의 중심인 대들보의 위쪽이나 대청마루가 된다. 성주는 집을 처음 지을 때 상량식에서 올리면서 명주실, 명태, 한지를 함께 묶어 상량목에 매달아 놓고 그곳에 성주가 깃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해마다 새로운 성주꾸러미를 갈아놓는다. 새해가 되면 명태 한 마리, 명주실 한 꾸러미, 한지 등을 묶어서 그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들보나 대청마루의 보에 매달아 성주가 깃들도록 한다. 명주실은 집안 식구들의 장수를 기원한다. 한지는 명예, 즉 발원을 위해 사용한다. 명태는 건강을 위한 염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어떤 지방에서는 부엌이나 툇마루 한쪽에 성줏단지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곳에는 쌀이나 돈을 넣어둔다. 이는 집안에 재물이 쌓이기를 염원하는 뜻이라고 한다.

대체로 성주는 집을 지키는 신으로 신앙되며, 흔히 성주대감 또는 성주조상이라고도 한다. 성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와 한지의 형태이다. 단지는 보통 높이 50~60㎝의 단지에 그해의 햅쌀이나 보리를 넣고 나무 또는 옹기 뚜껑으로 덮은 형태이다. 뚜껑 위에는 성주물그릇이란 작은 종지를 놓고 정화수를 떠 넣기도 한다. 대청마루 한구석에 동이를 놓고 거기에 쌀을 담아 성주로 모시는 곳도 있다. 이런 형태를 경남지역에서는 '부르단지' 또는 '부르독'이라고 한다. 한지는 창호지를 접어서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량대에 실로 매달거나, 안방 문절주 위에 창호지를 접어 붙이고 그 위에 쌀알을 붙여 놓는 형태이다.

성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최고의 가택신이다. 성주를 모시는 형태로는 성줏단지와 종이성주가 있다. 성줏단지는 고루막이나 안방 시렁에 놓아두고, 종이성주는 대들보나 안방 중앙 위쪽에 백지에다 태실을 걸어 매달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줏단지에는 찹쌀을 넣어 두며 때로는 동전을 넣는 경우도 있다. 곡식을 넣는 이유는 농사가 잘되고 무병을 기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쌀은 먹고 단지는 산에 묻으며 종이성주는 나무에 매달고 가며 이사를 가서는 다시 만들어 놓는다.

오가리는 유교제례의 조상 신주 변형과 뒤섞이는 수도 있다. 신주는 제례에서 사대봉사하는 조상의 위패를 말한다. 이것은 별채인 사당에 모셔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가라 하더라도 사당을 따로 두고 있는 집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벽감(壁龕)이라는 약식을 만들어서 사랑채나 대청마루에 모셔놓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상당세기, 즉 조그만 고리짝을 만들어 조상 대수(代數) 대로 표시해놓고 조상단지와 나란히 안방에 모셔놓은 경우도 많다. 조상단지는 대개 안방에 모셔놓는다. 지방에 따라서는 조상단지 대신 똑같은 삼신단지를 고리짝과 나란히 안방에 모셔두기도 한다.

이처럼 제석은 흔히 성주와 혼용된다. 성주는 조령신(祖靈神)의 일종으로서 조상의 혼령이 깃든 신줏단지로 불린다. 이를 호남지역에서는 신줏단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지석, 지석오가리, 세존주머니 등으로 부른다. 경기도지역에서 제석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제석오가리는 성주인 셈이다. 성주의 신체는 대체로 백지, 성줏단지, 성주동이 등으로 나타난다. '성주오가리'는 '제석오가리'와 동일하여 주로 마루 귀퉁이 바닥에 놓는다. 그러나 성줏단지는 크기가 작아 벽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안방 윗목 구석위에 나무판자로 선반을 달아 그 위에다 작은 단지에 쌀을 가득 넣어 하얀 종이로 덮은 다음 무명실로 묶어 올려놓는다. 대청의 한 구석에 모셔 두는 단지의 쌀은 매년 시월상달에 햅쌀로 새로 채운다. 사람이 먹기 전에 이들 신주의 쌀을 새로 갈아 먼저 조상신들에게 풍년농사를 보고하는 셈이다. 대들보에 잎담배를 말아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쌀을 담은 주머니를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다. 호남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 형태가 없는 건궁성조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충청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지로 신체를 만들어 대들보에 모시기도 한다.

조상단지는 조상 현령의 상징으로 종손 또는 장손들이 집에서 모신다. 그 옆에는 신줏단지 또는 '몸오가리'라고도 부르는 것을 한 개에서 원칙적으로는 여덟 개까지 모시기도 한다. 이 복수의 신줏단지는 유교 제례의 신주 변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손의 경우 4대봉사로 남녀별로 여덟 개 합사하면 네 개가 된다. 이 조상단지와 신줏단지들은 흔히 마루 또는 안방에 시렁을 달아서 그 위에 모셔놓는다. 조상단지 안에는 쌀을 넣고 해마다 가을에 신곡이 나면 갈아 넣는다. 묵은 쌀로는 밥을 지어서 식구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단지 안의 쌀이 불으면 풍년이고 줄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정성껏 담고 모신다. 이런 이유로 농사가 잘되게 해주는 '농사오가리'라고도 하고, 자손이 잘되게 해주는 조상신이라고도 한다. 단지 안의 곡령신(穀靈神)과 조령신(祖靈神)이 합해진 셈이다.

제석은 민속 또는 무속에서 신의개념이 일정치 않다. 즉 삼불제석(三佛帝釋)이 혼용되어 포태 신인 삼신과도 혼용되고 있다. 또 고사, 안택 등에서 제석본풀이가 구송되는 것을 보면 가신인 성조신과도 확실한 구분이 없다. '제석단지', '세존단지', '성조단지' 등의 민속신앙에서는 생산의 신인 농신과도 상통하고 있다. 신체는 조그만 단지에 쌀 또는 조를 넣어 백지로 덮어서 다락 위나 부엌 한 귀퉁이에 안치하며, 이때 많은 헝겊 조각을 늘어놓는다. 이것을 제석단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제석은 신체가 고깔 씌운 주머니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석주머니로 불리기도 한다. 주머니 안에 쌀을 넣어두는 것이나 자녀들의 안녕과 장수를 비는 것 등으로 보아 다른 지역의 삼신과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도 삼신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식은 매우 불교적이다. 고깔 자체가 승려들이 쓰는 것이라고 하며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칠월칠석에 그 쌀을 꺼내서 밥을 짓고 제를 올리는 것을 보면 불교적 연관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머니 역시 불교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시주주머니(바랑)의 형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내용 조상신에 제석이나 세존이라는 말이 결부되는 것은 불교와 무속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제석오가리가 '성주독'의 형태로 마룻바닥에 좌정된다고 한다. 제석단지는 시렁 위에 좌정되는 작은 크기의 질그릇이다. 여기서의 조상신은 장손 집에서만 모시며, 대개 안방의 윗목 벽 아래쪽에 모셔진다. 단지로 된 신체 외에 신체가 없이 받들어지는 경우 '건궁'이라고 한다. 단지로 된 경우 보리쌀 수확기에는 보리를 바꾸어 넣고 벼 수확기에는 벼를 햇곡식으로 바꾸어 넣는다. 명절에 행하는 유교식 제례가 있다. 출산 때에는 이 조상신격에다 쌀, 정화수 한 그릇, 미역을 놓고 촛불을 밝혀서 초이레·두이레·세이레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대소명절에 차례로 치르는 주기적인 제의뿐만 아니라 집안에 액운이 낄 때 수시로 올리는 수시제의도 행한다. 제주는 유교식 차례의 경우 대주가 되지만 그 외에는 주부를 중심으로 의례가 행해진다. 제상에는 밥, 과일, 떡 등을 차린다. 고기는 차리지 않는다. 때로는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혀서 간단하게 기도를 한다. 조상신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신앙, 장손 집에만 모셔진다는 남존 우월의 조상숭배사상, 술과 고기를 바치지 않는 불교적 신앙의 면모를 함께 지니고 있다.

성주의 기본 성격은 주택을 관장하는 신이다. 성주는 무속의 굿거리에서도 등장한다. 성주풀이의 내용은 소나무가 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는 기본적으로 식구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집 건물 자체를 관장한다. 성주 매는 날을 보면 대체로 상량식 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상량이 되면 주택의 틀이 거의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의 집 짓는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량하는 것을 한자로 성조(成造)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때에도 성주는 가택, 즉 집의 건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석은 자손의 번창과 가정의 화목을 관장하는 집안의 최고 신이다. 안방 윗목 천장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제석주머니나 제석할머니 또는 삼신할머니 등으로도 호칭된다. 이 밖에 제석할아버지와 제석할머니를 신격으로 삼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제석으로 표현되는 성주신은 가신의 대표신이고 대주는 가족의 대표성을 지닌다. 성주는 가택의 건립부터 일문일족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복덕(福德)을 주관한다. 이에 따라 집을 지을 때 성주를 받아들이는 성주받이굿을 하며, 가옥의 상량·낙성·신축 때뿐만 아니라 이사했을 때나 분가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 등에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성주는 집안에 부정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집을 나가기 때문에 매년 정초나 가을에 성주신을 새로 모시는 안택(安宅)을 한다. 매년이 아니면 격년 또는 대주의 나이가 일곱 살이 되는 해마다 성주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성주신에게는 가내평안, 농사의 풍년, 부귀, 무병 등을 기원한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 조상님(보령), 제석(서울), 제석오가리(구례, 무안), 제석주머니(화성), 세존단지(영덕도), 세존주머니(강진), 부루독(통영), 부르단지(임실) 등으로 불린다. 조상신앙의 성격은 조상, 삼신, 곡신이 서로 중복을 이루고 있어 구분이 되지 않기도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조령(祖靈)의 신체를 제석오가리(오지항아리)라고 부른다. 제석오가리는 종손이나 장손의 집 안방 또는 마루에 추수한 햅쌀을 넣어 조상의 위패로 모신 감실 옆에 두었다. 그 옆에는 못오가리라고 하는 오지 그릇을 대수(代數) 대로 놓아두었다. 못오가리란 조상의 위패나 신주를 모신 독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조상단지를 조상할매라고도 하여 조상을 여신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모계중심사회의 풍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영남지역에서는 세존단지 또는 지주단지라고 부르고 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조상단지를 조상당세기, 세존단지를 시조단지 또는 시준단지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이는 조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조상당세기는 4대봉사의 위패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중부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기 드물다. 무당의 열두거리 굿가운데 제석거리나 세존거리 또는 조상거리라는 것이 있어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만 대부분 제석을 수명신이나 농경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경우 오가리란 작은 뚝배기 또는 오지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이른바 옹기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마레(대청마루)에 모신다. 마레가 없는 경우에는 안방 시렁 위에 모신다. 지석오가리는 종손 집에만 있는 것으로,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오가리 안에는 쌀을 가득 넣는다. 그 쌀이 흉년에는 좀이 슬고 풍년에는 깨끗하다고 한다. 매년 햇곡식을 바꿔 넣는다.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때 제석오가리 앞에 상을 차려 바친다. 고기와 술은 놓지 않고 밥, 물, 떡, 나물 종류들을 놓는다. 제석오가리 외에 신줏단지라는 것이 있다. 신줏단지는 석짝(뚜껑이 있는 대바구니)을 성주머리(안방 또는 큰방의 시렁 뒤쪽) 한 구석에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역시 장남이 한 개에서 여러 개까지 모신다. 단지 안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이름만 써 넣는다. 이사할 때면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을 입은 다음 맨 앞에서 안고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말한다.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때에는 마루의 제석오가리 옆에 불을 밝힌다. 이 불은 부리불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는 '부리불 썬다'라고 한다. 설이나 추석 때에는 차례의 시작과 동시에 부리불을 밝힌다. 주부들이 주로 촛불을 밝히는 형태를 말한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초도(草島)마을에서는 지석오가리 또는 지석단지 등으로 호칭한다. 모시는 위치는 '말리(마룻방)'의 선방 위 감실 옆이 원칙이다. '옴구오가리(단지)'를 참지종우(한지)로 덮어서 묶고 안에는 쌀을 넣어둔다. 초도는 쌀농사가 적지만 구입해 와서 쌀을 넣되 보리쌀은 넣지 않는다. 이를 '농사오가리'라고도 한다. 농사가 잘되게, 집안 무고하고 자손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서는 제석오가리 외에 몸오가리라는 호칭을 쓴다. 제석오가리는 지방마다 유사한 이름이다. 몸오가리는 감실, 신줏단지와 유사한 4대봉사 위패의 한 종류로 해석된다. 제석오가리는 안방 시렁 위에 모셔지며 안에는 쌀을 넣고 장손 집에만 대대로 전승되는 것이다. 장남이 사망하거나 타향살이를 하면 차남 집으로 옮기기도 한다. 설, 대보름, 추석 등 때 여기에 제사를 지낸다. 몸오가리 역시 안방 시렁 위에 모셔지며, 안에는 쌀을 넣고 장남 집에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 집에 여덟 개까지 있을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를 모시기 때문이다. 5대 이상은 시앙[時享]으로 보내 제사한다. 오가리에 담은 쌀은 밥을 지어서 타인이나 개는 주지 않고 남자 식구들만 먹는다.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에서는 제석오가리를 장손 집에서 모시며, 차남 이하도 분가하면 성주를 내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모신다고 한다. 모실 때는 새로 오가리를 산다. 이때는 깎지 않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준다. 택일을 하지는 않고 섣달그믐날에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3, 4년 뒤에라도 모실 수 있다. 대부분 안방 선반 위에 모셔 놓지만 더러 마루가 있으면 마루 선반위에 모셔놓는다. 그러나 성주동우는 언제나 바닥에 놓는다. 제사는 설, 대보름, 추석 때 제사지낸다. 제상에는 밥, 수저, 나물을 놓으며 고기와 술 및 국은 놓지 않는다. 아들딸 결혼식 때에는 아침 일찍 단골(당골)들이 와서 제석오가리, 성주동우, 조왕에게 음식을 바치고 손굿을 한다.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송현마을에서는 세존주머니라고 호칭한다. 안방 출입문 위에 길이 20㎝ 정도의 삼베로 만든 삼각형의 주머니를 만들어 쌀을 넣어 걸어둔다. 아들들이 세존에게서 생겼기 때문이라며 잘 성장시켜 달라고 비는 대상이다. 이를 '세존 공들인다'라고 하며, 주부들이 한다. 친정의 성, 남편의 성, 시어머니 성 등 세성바지의 남의 논에다가 각기 대가로 엽전 다섯 푼을 실에 꿰어놓고 일곱 포기의 벼알을 훑어내어 모아서 주머니에 바꾸어 넣는다. 묵은 벼는 탁발승(구걸하는 중)에게 주며, 밥을 지어 먹이지는 않는다. 설, 추석에는 정화수만 떠놓고 빈다.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하위마을에서는 조상단지라고도 부른다. 큰방 윗목 구석 시렁 밑에 삼각형 선반을 달아서 모셔놓았으며, 집집마다 있었다. 단지 안에는 햅쌀이 날 때마다 쌀을 바꾸어 넣었다. 집안이 잘되려면 단지 안의 쌀이 불어난다고 한다. 햅쌀로 바꿀 때 전년도의 묵은쌀은 밥을 지어서 식구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단지 위에는 한지를 대고 끈으로 묶었으며, 먼지가 쌓여도 만지거나 청소하지 않는다. 햇곡식을 바꾸어 넣을 때만 만지게 된다. 단지가 깨져도 바꾸지 않은 채 어머니가 천으로 발라서 사용했다. 신격은 '할매'라고 호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음력 시월 첫 오일(午日), 곧 말의 날에 성주를 모신다. 선조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부들이 주관하는 가정의례에 속한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실천민속학 새책 4, 실천민속학회, 2003),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백제의 제석신앙고**(홍윤식, 마한 백제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송천동의 가신신앙과 세시풍속**(김명자, 안동문화 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용인지역의 가신신앙**(민병근, 인문사회과학연구 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명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한국민속대관 3**(김태곤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대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3).

필자 **이윤선(李允先)**

제석주머니

상호참조 제석(567쪽)

정의 제석을 모시는 작은 자루형태의 쌀이 든 주머니.



세존주머니
전남 화순군 청풍면 순지동마을, 1998.7.3, 서해숙

내용 안방이나 안방 관련 공간에 위치한다. 보통 안방의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면의 모서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방 장롱의 위쪽 벽에 나무못을 박아서 자루를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자루 한가운데를 못에 걸어서 양쪽으로 늘어지도록 걸어두기도 한다. 간혹 집을 개량하여 안방과 고방, 안방과 상방을 터놓은 경우 고방 또는 상방을 뜻하는 '안방 웃방'에 걸기도 한다. 명다리(명이 짧은 아이의 수명장수를 위해 명주 또는 무명헝겊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실타래와 함께 바치는 공물)를 접어 한지로 네모나게 싼 다음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매달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지석'으로 발음되는 제석은 경기도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밖에 강원, 충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주머니형태로 나타난다. 주머니 외에도 항아리(단지)나 바가지에 모신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석주머니, 제석단지(제석항아리), 제석바가지로 명칭이 달라진다. 신체의 형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뚜렷하다. 주머니는 경기도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른 지역은 제석단지나 바가지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제

석단지나 제석바가지가 놓이는 위치도 대개 안방 장롱 위나 다락이다. 드물게 부엌 큰솥 옆인 경우도 있다. 작은 오지그릇을 가리키는 오가리 형태의 '지석오가리'를 모시는 전남지역에서는 '마레', 즉 대청마루에 모신다. 마레가 없는 집은 안방 시렁 위에 모신다.

일반적으로 제석은 불교의 제석천과 같은 이름으로, 불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세기 초에 이능화는 제석을 가택신으로서 주곡신(主穀神)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삼신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제석의 성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명과 자손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된다. 자손의 건강과 출생을 관장한다는 믿음이 삼신과 겹쳐짐으로써 지역에 따라 삼신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성남지역의 경우 신의 명칭 자체가 삼신제석(삼신지석)으로 불리기도 한다. 때로는 안성지역처럼 칠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칠성 역시 자손을 보살피는 신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는 삼신, 제석, 칠성이 모두 자손을 점지하고 보살펴주는 점에서 공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존재가 서로 복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삼신이나 지석이나 한 가지'라고 보거나 제석과 칠성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삼신주머니와 제석주머니가 같은 형태로 나란하게 걸린 경우도 있다. 평택시 안중지역에서는 이를 '칠월칠석주머니'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제석자루 안에 든 묵은 쌀로 대개 칠월칠석날 미역국과 함께 밥을 해먹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으로 보인다.

무속의 제석굿 등에서 나타나는 제석은 생산신이나 수복관장신이기도 하다. 가정신앙에서도 강원도, 충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단지나 바가지형태의 제석은 농업생산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전남 무안지역에서는 제석을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제석할망'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며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농경신이다. 경기도 양평지역에서는 항아리 신체로서 제석단지가 일반적이며, 제석이 터를 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에 여름에는 보리쌀, 가을에는 햅쌀을 담아 놓아서 항아리가 비어있는 때가 없다.

그런가하면 충북 옥천지역에서는 무당의 굿을 통해 죽은 조상을 제석으로 모시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전처 또는 남편으로 제석이 조상과 복합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시준단지(세존단지)가 있다. 역시 세존이 조상과 뒤섞여 받아들여진다. 전남지역에서는 제석오가리가 종손 집에만 있고 차자 이하의 아들 집에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신줏단지와 함께 모셔지며 구체적인 어떤 조상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조상 숭배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세존주머니
전남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원봉소마을
1999.7
서해숙

그러나 신체의 형태나 모시는 위치와 상관없이 제석의 신체 안에는 가을에 처음 수확해서 방아 찧은 햅쌀을 넣어두며, 이듬해 여름에 그 쌀로 밥을 해먹거나 고사떡을 찌는데 사용한다. 제석 쌀로 지은 밥은 오직 집안 식구끼리만 먹고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도 주지 않는다. 새우젓 같은 비린 음식도 먹지 않는다. 제석에게 올리는 제물에는 술과 고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백설기나 흰밥, 청수나 미역국만 쓰는 등 신앙 내용에서는 모두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개 지석주머니, 가끔은 지석자루로 불리기도 하듯이 제석의 신체로서 주머니는 그리 크지 않다. 만드는 천의 크기로 규모를 표현하며, 자루 안에 들어가는 쌀의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말하는 주머니의 크기는 석 자 세 치이지만 보통 흰 무명천으로 가로 30㎝, 세로 40㎝ 정도이다. 소창을 한 마 세 치 길이로 끊어서 주머니를 만든 다음 쌀 한 되 다섯 홉을 넣는다는 경우도 있었다. 쌀의 양으로 표현하면 쌀 한 되 들어갈 정도 크기의 자루이다. 과거 쌀이 귀한 시절엔 석 되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는데, 이는 쌀을 저축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제석주머니의 형태적 특징은 무명이나 광목 주머니만 매단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위에 한지로 고깔을 접어 씌워두었다는 점이다. 고깔 위에 실을 감아 놓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지역에서는 주머니 위에 고깔을 씌우지 않는 대신 명다리 또는 칠성이라고 하여 제석 위쪽에 소창 한 필을 끊어다가 한지로 싸서 못을 길게 박아두고 그 위에 얹어놓는 경우도 있다. 제석과 칠성은 자손들의 명이 길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뜻으로 모신다고 한다. 수원지역의 제석주머니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무명천으로 된 주머니가 아니라 한지를 접어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중간을 접으면 주머니 두 개가 생긴다. 이 주머니 안에 쌀을 넣어 안방 벽에 걸어둔다.

제석주머니에 대한 관리는 주머니 안에 든 쌀에 대한 것, 고깔에 대한 것, 주머니 자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쌀은 보통 칠월칠석에 꺼내서 밥을 지어 먹고 이후 빈 자루만 걸어두거나 깨끗이 빨아서 치웠다가 시월의 상달고사 때 다시 쌀을 넣어서 걸어둔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는 3년마다 굿을 하면서 쌀을 갈아주기도 한다. 이때 주머니도 깨끗하게 빤다. 2년에 한 번 갈아주기도 한다. 이때는 특히 홀수 해에만 갈아 넣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쌀 주머니나 고깔을 접은 한지는 낡아서 보기 싫어지거나 때가 타서 검어지면 새것으로 갈아준다. 주머니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위에 덧씌운 한지고깔만 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주머니를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적으로는 매년 가을고사 때마다 고깔을 갈아 씌워야 하지만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지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많다. 벗겨낸 고깔은 안마당에서 불에 태운다. 잘 비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때도 축원을 드린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부는 "삼신할머니, 새 옷 입혀 드리니 명 길고 복 많게 해 주십사." 하고 빈다. 이렇게 보면 대개의 가신 신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제석주머니나 제석단지 등은 애초에 제석에게 바치는 공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것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신이 임재(臨在)하는 공간이 되고 종국에는 신성 자체로 전화(轉化)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신의 가시적 현현(顯現)인 신체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제석주머니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마을, 1996.7
서해숙

집을 수리할 때는 제석을 떼어내 한편에 백지를 깔고 잘 모셨다가 다시 그대로 달기도 한다. 집안에 상(喪)이 나면 제석주머니를 밖으로 내놓았다가 장사를 마치고 자리걷이를 하여 집안이 깨끗하게 되고 나면 며칠 후 깨끗한 날을 받아 다시 제자리에 모신다. 제석을 방 밖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흰 천으로 씌워서 가려놓아야 한다. 집안에 상이 나면 부정하다고 하여 제석주머니를 깨끗한 백지로 덮어두었다가 장례를 마친 뒤에 걷어내는 것이다.

제석을 모시게 된 경위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단골 만신을 두고 있는 집이나 다니는 절이 있는 집들은 이들 종교 직능자의 조언에 따른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시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아 내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개는 아이가 귀한 집에서 자손을 얻기 위해 모시게 된 경우이지만 무당이 제석굿을 하면서 자손 번창을 위해 제석주머니를 달아준 사례도 있다. 신체가 없어지게 된 과정도 시어머니가 생전에 스스로 없앴거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며느리가 없앴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체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신체가 없어졌어도 집안 고사를 하면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 앞에 가장 먼저 시루를 가져다 둔다.

제석의 영험함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지역적으로 제석이 드물게 나타나는 곳에서 전해진다. 오산시의 한 사례에서는 절에 다니는 가정에서 자손이 귀해 제석주머니를 해놓으면 좋다고 하기에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32세에 첫 아이를 보았다. 그러나 그만 아이가 죽자 제석주머니를 태워없앴다. 그 후 10년

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다시 제석주머니를 모셨으며, 실제로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 제석주머니는 아니지만 경기도 양평지역의 경우 터를 위한다고 하는 제석을 항아리 형태로 안방 시렁에 올려두었다가 안채를 지으면서 없앴다. 그러나 그 후 대주가 자꾸 몸이 아파서 다시 항아리를 사다가 제석단지를 모시고 있다. 이 집에서는 평시에도 꿈자리가 안 좋고 몸이 더 아프거나 하면 제석항아리에 정화수 한 사발과 밥 한 그릇을 해서 올려놓는다.

역시 주머니 형태의 제석은 아니지만 양주시 광적면에서 분가하면서 제석바가지를 안방 다락에 모시고 있었다. 벌꿀을 발견한 남편이 꺼내어 담을 적당한 그릇을 찾다가 다락에 있는 제석바가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담긴 쌀을 다른 곳에 쏟아내고 꿀을 받는 데 썼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놀라 그 쌀로 밥을 한 다음 제석할머니 앞에 놓고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다행히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내고 있다. 부인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제석바가지로 꿀을 받은 이후 서른이 넘도록 선만 보고 장가를 못든 막내아들이 혼인을 하게 된 것도 제석바가지에 꿀을 받아서 재수가 좋아진 것으로 생각했다.

제석을 위한 의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가을에 주머니 안의 쌀을 햅쌀로 갈아 넣으며, 주머니 안에 있는 쌀은 이듬해 칠석 또는 백중날에 꺼내서 미역국과 함께 밥을 해먹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 쌀로 한 밥은 오로지 식구끼리만 먹어야 한다. 밥을 해먹을 때는 그 밥과 물 한 그릇을 제석 앞에 차려놓는다. 그러나 꼭 칠석 즈음해서만 쌀을 꺼내 먹는 것은 아니다. 제석주머니나 항아리의 쌀은 비축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집안에 쌀이 떨어지면 언제든 꺼내서 먹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장마가 지면 쌀이 못쓰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먼저 꺼내서먹고 추수를 한 뒤에 햇곡으로 넣어두는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주머니 안의 쌀을 갈아주고 좋은 날을 잡아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백설기를 제물로 한다. 집 고사 때 제석에게 올리는 제물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백설기로 나타난다. 청수 한 그릇과 더불어 백설기를 올린다. 밥을 해먹을 때 비린 것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사 때도 제석 앞에만은 비린 것을 올리지 않는다. 이는 삼신에 대한 제물차림과도 유사하다. 주머니에서 쌀을 꺼내서 먹을 때도 이 쌀로 지은 밥과 정화수, 혹은 미역국 한 그릇을 함께 먼저 제석에게 올린 다음 먹는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대개 주머니에서 쌀을 꺼내는 시기가 음력 칠월로 칠석날이나 백중날로 집중된다. 그러나 강원도 속초지역에서는 동짓달 텃고사를 지낼 때 제석단지의 쌀을 헐어서 쓴다. 남은 쌀은 이듬해 여름이 되어 쌀이 없을 때 꺼내서 먹는다. 양양지역의 경우는 부엌에 있는 큰 가마솥 옆에 제석단지를 둔다. 이 단지는 쌀 두어 말들이로 크다. 삼월삼짇날, 구월중구, 시월 텃고사 때 이 단지의 쌀을 헐어서 쓴다. 강원 영서지역에는 '제석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잘 모신다는 뜻으로, 제석에 대한 신앙심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집에서 특별한 떡이나 고기 등을 먹을 때도 가장 먼저 제석단지 위에 올려놓았다가 먹는다. 이렇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아이들에게 속탈이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석단지는 주머니 형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을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일부에서 과거 쌀이 귀한 시절에 제석주머니에 석 되 이상의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주머니가 컸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만 집안의 고사 때 제석주머니의 쌀을 다른 가신에게 제물로 올리는 것은 경기도지역에서 찾기 어렵다. 이는 고사와 같은 제의 시기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집안 고사에 필요한 떡을 할 때 제석주머니의 쌀을 꺼내 이것을 보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쌀이 제석에게 올린 공물로 정결하기 때문에 가신들에 대한 제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회, 2001), **용인지역의 가신신앙-용인시 기흥읍을 중심으로**(민병근, 인문사회논총 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제석님과 제석굿-전통제석신앙의 성격규명과 자료**(방창환 · 조흥윤, 문덕사, 1997),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 신령의 체계와 성격**(조흥윤, 한국종교문화론, 동문선, 2002),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민병근(閔丙槿)**

제석할망

상호참조 제석할망고사(579쪽)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농경과 관련해 충해(蟲害), 한해(寒害), 풍해(風害) 등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풍농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지는 신. 지역에 따라 '제석할머니'라고도 한다.

내용 제석할망은 제주도지역에서 농작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는 신이다. 할망이란 용어로 보아 여신이다. 육지부에서 농사도 관장하면서 삼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으로 이해되는 제석신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제석할망이 농업관장신으로만 관념되고 있다.

대개 6월쯤 '제석제', '제석할망제', '제석할망ᄀᆞ사(고사)'와 같은 제의를 행한다. 주로 조, 밭벼, 메밀 같은 밭농사를 지을 때 밭을 일구고 파종을 하기 전에 풍농을 기원한다. 제석할망에 대한 제의는 마을제의 및 가정신앙으로 함께 존속해 왔다.

현용준(玄容駿)의 『제주의 민속』에서는 제석신에 대한 제의가 마을신앙편에 소개되어 있다. 제석신에 대한 제의는 '제석제'라고 한다. 조나 메밀 파종 직전에 하는 곳, 조나 메밀 파종 직후에 하는 곳, 음력 칠월 열나흗날인 백중에 하는 곳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시기는 파종하는 종자의 육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마을 전체의 풍농을 기원하고자 행하는 것이다.

제석제는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언덕에서 한다. 이곳은 '제석동산'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제단이 없지만 간혹 별도의 제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단의 형태는 포제단(酺祭壇)과 거의 같다.

제석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8 · 15 광복 이전에는 마을마다 공용(公用) 용인(하인)이 있었다. 이 용인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얻어와 이것으로 떡과 기타 제물을 마련한 뒤 솥, 쌀, 물을 제석제단으로 운반한다. 제단 앞에서 솥에 메를 지어 솥째로 제단 위에 올리고, 용인이 제관이 되어 유식(儒式) 제의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제의가 끝나면 용인은 그 제물을 이장 등 동네 어른들에게 나누어 준다. 광복 후 마을의 공용 용인이 없어져서 방별(坊別)로 순차 부담하였다. 그 방 내에서 제의 담당자를 정하여 의례를 지내왔지만 근래에 와서 없어진 곳이 많다. 제물로 메, 도래떡 등 소박한 것을 올리며, 지방을 써 붙이지 않는 대신 댓가지에 백지 한 장을 붙여 기(旗)를 만든 다음 이를 신위의 위치에 꽂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의는 포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이중으로 지내기도 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의 제석제는 조 파종 전과 메밀 파종 전에 택일하여 연 2회 행한다. 조, 메밀 같은 곡식의 파종 시기가 되면 용인은 향장(지금의 이장)에게 택일을 정해 받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석제 지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각 집에서는 집안 형편에 따라 밀을 한 되 내지 넉 되 정도 내준다. 이를 "제석제 제물 받는다."라고 한다. 용인은 이렇게 모은 쌀로 도래떡, 해어(海魚), 오과(五果), 감주 등 제물을 준비한 다음 솥과 백미를 지고 제석동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제장에서 솥에 불을 피워 메를 짓고 솥째로 제단에 올린다. 그 후에는 용인 스스로 분향 배례하고 술잔을 부어 올린 뒤 숟가락을 메에 꽂고, 조금 있다가 '잡식(걸림과 같은 의미)'을 하고 나서 그것을 땅에 묻는다. 댓가지에 백지 한 장을 붙여 기를 만들어서 이를 신위의 위치에 꽂고 행제를 한다. 기는 제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둔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를 보고 용인이 제석제를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끝나면 용인은 제물을 향장 댁에 가져와 올리고 행제하였음을 보고한다. 이 마을의 경우 메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일을 점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솥에 메를 지을 때 밥이 넘치면 바람이 일어 흉년, 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방향이 흉년, 물이 맞게 밥이 잘되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식이다.

제석제는 무식(巫式)인 '제석굿'을 유식화(儒式化)한 것이다. 무식 제의를 이어받아 유식화한 것이어서 제관이 격하되어 용인이 행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지역에 '제석동산'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의는 전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석제는 8 · 15 광복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다. 현재는 별로 행하지 않는다. 표선면 성읍리에도 제석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에는 각 가정에서 행하는 '제석할망제'가 소개되어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어영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제를 올린다. 밭에 따라 다르지만 밭머리에서 밥, 해어(海魚), 술을 떠서 제석할망을 위했다가 가져온다. 삼양동 매촌마을

(도련2동)에서는 조나 밭벼(산듸)를 파종하는 날 메, 채소, 제숙을 밭 가운데에 차린 다음 메에 숟갈을 꽂고 술을 올려서 튼 방향을 찾아 선 뒤 제석할망에게 '올 한 해 농사 잘되게 주십서.' 하고 마음속으로 빌거나 절을 한다. 그리고 고수레를 한 다음 제물을 밭에 두었다가 나중에 말[馬]을 이용하여 밭 밟기를 하고 난 뒤 점심으로 나누어 먹는다. 그 밖에 밭일이 바빠 점심을 밭에서 먹게 될 경우 언제나 웃봉을 세 번 걷어 "제석할머니, 잘 잡수십서."라고 위한 다음에 먹는다. 김(검질)을 매기 위해 도시락을 싸갈 때도 우선 제석할망을 위한다. 아라1동에서는 밭에서 밥을 먹기 전에 목부(牧夫, 테우리)를 위해 먼저 음식을 케우린다(음식을 조금씩 뜯어 흩뿌린다는 뜻). 이것은 쟁기질할 때 쟁기가 튀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밭 밟기를 하기 위해 몰아넣은 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구좌읍 송당리에서는 유월절이 들면 '제석할망ᄀᆞᆺ사'를 행한다. 망태기(멱)에 씨를 넣고 그 위에 마른 우럭 한 마리를 얹어서 밭에 나가 씨를 뿌린다. 우럭은 장만하는 기간이 길수록 정성이 있다고 하여 3~4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우럭은 씨를 뿌리고 난 뒤 집에 가져와 먹는다.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는 한 해 농사의 처음 밭갈이를 하고 파종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석할망제'를 올렸다. 강정동에서는 백중인 음력 칠월 열나흗날에 '제석할망제'를 지냈다. 이날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은 밭,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각각 지낸다. 강정동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 '물코'에 가서 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메 두 그릇, 고기 두 마리, 과일 등을 가져간다. 메 두 그릇 중 하나는 '사발메'로 제석할망, 다른 하나인 '보시메'는 테우리에게 각각 올리는 것이다. 절을 하지는 않지만, '제석할망, 제석하르방제'라고 한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성산읍 신풍리에서는 밭을 밟기 전에 쌀밥, 해어, 계란 등 제물을 케우리며 간단히 '제석할망ᄀᆞᆺ사'를 지낸 뒤에 밭을 밟았다. 테우리를 잘 대접하여 밭을 잘 밟아야 그해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다.

제석할망제는 대부분 유월에 많이 지냈으며, 간혹 백중에 지내는 곳도 있다. 이 제의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1980년대까지 전승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석할망제는 제주도의 서부쪽보다 제주시를 비롯해 동부쪽에서 많이 행했으며, 해안가보다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산간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제석할망은 농경과 관련된 신이고, 제석할망제는 제석할망에게 제의를 행하면서 풍농을 기원하는 것이다.

제주도지역의 무속에서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가 구송되고 있다. 이 신화의 주인공인 여신 자청비는 남신 문도령을 따라 하늘에 오른 뒤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얻어 음력 칠월 열나흗날인 백중날 지상에 내려온다. 남편인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자청비네 집의 남종 정수남은 목축신인 하세경으로 각각 좌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신화는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경본풀이〉의 마지막 부분에 '제석할망'이란 명칭이 언급되는 자료가 간혹 있다. 이본(異本)에 따라 제석할망은 두 가지 존재로 나타난다. 첫째는 세경신인 자청비가 제석할망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청비에게 점심을 나누어준 노부부 중 할머니가 바로 제석할망이 된다는 것이다.(진성기 채록, 이달춘 구연본 참조)

> 자청비는 남편인 문도령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 뒤 굶어 죽어가던 남종 정수남을 살려서 목축신 및 세경테우리로 들어서라 하고, 이후에는 정수남과 함께 들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자청비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자 정수남을 시켜 밭을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줄 것을 부탁하라고 한다. 처음에 부탁한 부잣집에서는 욕을 하면서 자기네 아홉 머슴이 먹을 음식도 모자란다면서 점심을 안 준다. 그래서 이 집의 밭작물에는 온갖 병을 몰아주고 흉농을 준다. 다음으로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난한 늙은 부부에게 점심을 요청하는데 이 부부는 자기네는 조금 먹고 나누어준다. 자청비는 점심을 먹은 보상으로 이 집의 밭에 풍농을 준다. 그리고 할아방에게는 제석천왕으로 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년 열두 달 고사를 지낼 때 큰 상을 받아먹으며 살라고 한다. 할망에게는 제석지왕으로 들어서라 하면서 사람들이 세경 땅에서 밭농사를 지을 때 점심밥을 동서로 케우리면 운감을 하고, 제석사발로 그해 시절의 좋고 궂음을 마련해 주라고 한다.

〈세경본풀이〉에서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남종 정수남은 목축신인 하세경이 각각 되었다는 점에서 중세경인 자청비가 제석할망이 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내용이 더 맞다고 보아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았기에 이러한 행위를 한 여신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석할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화의 본질적 기능은 신의 일에 비롯하여 인간사회 의례의 기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세경본풀이〉 같은 신화에 제석할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사회에는 제석할망에 대한 제의, 즉 '제석할망제'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들은 점심을 먹을 때 밥을 동서로 케우리면서 풍농을 기원한다. 그리고 신에게 올리는 사발(솥째로 올린 메로 대치됨)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오곡을 가지고 오는 날이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날을 '백중대제일'이라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석할망에 대한 제의도 원래는 칠월 백중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석할망제 또는 제석할망ᄀᆞᆺ사가 음력 7월 14일인 백중에 행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편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백중 때보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 더욱 간절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석할망제'는 시기가 앞당겨져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유월 또는 그 이전에라도 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석할망'에 대한 신앙과 '제석제', '제석할망제', '제석할망ᄀᆞᆺ사(고사)' 같은 제의는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은 농경에 기초하여 삶의 양상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을 때, 농사의 풍흉이 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을 때 존재할 수 있었던 신앙이다. 이제 제주도지역의 생업이 다양해졌으며, 농업 형태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농사의 결과도 비료, 농약 등의 활용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석신앙은 그 존재 의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현용준, 제주의 민속 5, 제주도, 1998), **백중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제주도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제주도의 유식 부락제**(현용준, 석주선교수회갑기념민속학논총, 1971), **제주의 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이수자(李秀子)**

제석할망고사

상호참조 제석할망(577쪽)

정의 제주도지역에서 풍농의 신인 제석에게 올리던 고사.

내용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며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제석천(帝釋天)이 민간신앙에선 출산을 주관하는 삼불제석으로 변화되었다. 삼신은 사람의 목숨, 삶의 행복,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고 있다. 제주도지역에선 여성 신격을 상징하는 '할망'을 덧붙임으로써 제석할망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 제석동산이란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에서도 모셨으며, 제의 형태도 마을공동체 제의와 개인 제의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 파생된 풍농신으로서 제석신의 신격이 제주의 세경신과 혼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제의란 측면에서 보면 제석할망고사는 조나 메밀을 파종한 직후 또는 직전에 하였다. 모두 파종한 종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석'에게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밭에 따라 다르지만 밭머리에 밥과 해어(海魚), 술을 떠서 제석할망을 위해 두었다가 걷어 온다. 이때 인부들을 위해 밥과 해어 한 마리, 술 한 병을 더 준비해 갔다. 또한 마소[牛馬]로 밭을 밟을 때나 김매기를 할 때 밭에서 밥을 먹게 될 경우 제석할망 몫으로 먼저 밥 한 숟가락씩을 조금 떠서 밭 주위에 던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수레와 같은 것으로, 절은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제석할망코시, 밧불리는 코ᄉᆞ(밭 밟는 고사), 밧불리는 테우리코ᄉᆞ(밭 밟는 목동고사)라고도 한다.

민속 5(제주도, 1993),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민속**(진성기, 교학사, 1980),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4~2006).

필자 강권용(康權用)

제웅

상호참조 제웅버리기(583쪽)

정의 짚을 재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것. 한자로 추령(芻靈), 초우인(草偶人)이라고 적는다. 민속에서는 나후직성에 든 인물을 대신하는 존재로 사용된다.

역사 제웅이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에 기록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 『세시기(歲時記)』, 『세시기속(歲時記俗)』, 『해동죽지(海東竹枝)』,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등에서 제웅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수삼(趙秀三)의 『세시기』에 따르면 제웅치기는 중국의 송나라 때 시작되었다.

> 정월 14일 밤에 성 안의 소인배가 몽둥이를 들고 무리지어 다니는데 이를 '나후(**羅睺**)를 친다.'라고 한다. 나후는 별 이름이다. 남녀가 각기 나이로 별운을 계산한다. 나후직성에 든 사람은 짚을 엮어서 인형을 만들고, 각기 옷을 입혀 그 안에 동전을 넣어 문을 열고 밖에다 버린다. 이를 '나후를 보낸다.'라고 한다. 나후를 치는 사람들은 다투어 나후를 해체하여 동전을 빼내간다. 이를 통해 액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 년 내내 사람들에게 창피나 비웃음을 당한다고 한다. 나후치기는 송나라 때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웅은 처용(處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제웅과 처용을 동일시한 것이다. 실제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따르면 제웅이 신라 헌강왕 때의 인물인 처용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한다.

>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 제웅직성)에 들면 추령(芻靈, 제웅)을 만든다. 이것을 사투리로 처용이라고 한다.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 머리 안에 동전을 집어넣고 대보름날 전날인 열나흗날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막는다.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문 밖으로 몰려와서 제웅을 내어 달라고 한다. 그것을 얻으면 머리 부분을 다투어 파헤쳐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다 내동댕이친다. 이것을 타추희(打芻戲, 제웅치기)라고 한다.
> 처용의 명칭은 신라 헌강왕 때 동해 용왕 아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장악원(掌樂院) 향악부(鄕樂部)에 나오는 처용무(處容舞)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추령이란 처용에서 빌려 온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제웅의 본디 이름은 추령이었다. 그리고 이 추령은 처용에서 빌려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 이외에 신라시대 처용 관련 문화요소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시대의 처용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면서 역신을 쫓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향가 〈처용가〉의 배경담에 보이듯 그는 귀신을 제압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벽사(辟邪)의 상징적 인물로 거듭난다. 그러나 이러한 면이 제웅의 액운 퇴치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제웅은 조선시대에 나후직성의 액운을 거두어내는 주술적 도구였다. 이 시대에는 별을 통해 운수를 살피고 액운을 물리치려 한 풍속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형태 제웅은 짚을 재료로 만든 높이 20~30㎝ 크기의 인형이다. 크기나 모양은 만든 사람에 따라 일정치 않지만 사람의 형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제웅의 모양이 만든 사람에 따라 다르듯 제웅에 부착하는 사물도 조금씩 다르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짚으로 만든 제웅 안에 동전을 넣는 것이다. 조선시대 여러 세시기에서는 엽전 몇 닢을 제웅의 머리 또는 배 부위에 넣는다고 적고 있다.

동전을 넣는 것 외에 장식이 따르는 예도 있다. 『세시기』에 따르면 제웅에 '옷을 입힌다.'라고 한다. 누구의 옷을 입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액운이 든 인물의 옷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제웅을 통한 액막이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특정인이 나후직성의 액운이 든 경우 해당 인물의 속옷을 제웅에 입히는 일이 다수 발견된다.

이 밖에 나후직성에 든 인물의 사주를 제웅에 부착하는 예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웅과 액운이 든 인물을 동일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제웅에 액운이 든 인물의 옷을 입히고 사주를 넣어 둠으로써 해당 인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사람의 운수가 별자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념이 전한다.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해의 운수를 맡아보는 직성은 토직성(土直星)을 비롯해 수직성(水直星), 금직성(金直星), 일직성(日直星), 화직성(火直星), 계도직성(計都直星), 월직성(月直星), 목직성(木直性), 나후직성(羅睺直星) 등으로 모두 아홉이다. 이들 직성 가운데 나후직성은 처용직성 또는 제웅직성으로 불린다. 나후직성에 든 사람은 그해에 액운을 맞이한다고 하여 불길하게 여긴다. 이에 따라 액운을 거두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제웅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람이 처음 나후직성에 드는 나이는 남자 10세, 여자 11세이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9년을 주기로 나후직성의 해가 반복된다. 따라서 이해에는 나후직성의 액운을 거두어 내기 위해 제웅을 만들었다.



길가에 버려진 제웅
충남 연기군 남면 용암리
2002.1.14(음)
강성복

조선시대에는 제웅의 머리에 동전을 넣어 길가에 버리는 주술적 행위로 액운을 쫓으려 하였다. 이와 같은 풍속은 매년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처럼 아이들이 제웅을 만든 집 문 앞에 와서 제웅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일반화된 풍속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에 연유하여 제웅치기라고 불리는 타추희가 유래하였다. 조선시대의 각종 세시기를 보면 당시 제웅을 통한 액운 거두기가 얼마나 흥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예로 19세기 초 조운종(趙雲從)의 『세시기속』에는 "직성 든 재앙 물리치기 위한 방법 / 아이들이 문 앞에서 처용을 요구하네 / 동전 몇 닢 넣어서 짚 인형을 내놓으면 / 밤새도록 온 거리에 채찍소리 요란하네(災直星宮禳是謀 / 踵門童隊處容求 / 持錢數葉藁人出 / 竟夜鞭聲九陌頭)"라는 칠언시가 있다. 이 시는 당시 정월 열나흗날 밤의 제웅치기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해 놓았다. 특히 "밤새도록 온 거리에 채찍소리가 요란하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제웅을 통한 액막이의 믿음을 읽을 수 있다.

타추희는 어휘 그대로 제웅[芻]을 치[打]는 놀이이다. 『해동죽지』에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나후직성을 타고난 사람의 생년월일을 써 놓으면 아이들이 구걸하면서 인형을 때린다. 이것을 타제용(打祭俑)이라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곧 제사 지낸 허수아비 '제용'을 치는 것이 당시 아이들의 제웅치기 놀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양세시기』에는 제웅에 대해 "처용이라 하며, 아이들이 대문에 늘어서서 문을 치며 외치기를 '처용 내놓아라.'라고 한다. 처용을 내놓으면 처용의 속을 뒤져서 동전을 꺼내간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집안은 그해에 재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

『해동죽지』의 기록은 제웅치기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제웅의 명칭 유래에 대한 단서도 제공한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이 무렵 제웅은 '제사용 허수아비'인 제용(祭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용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음운변화를 겪어 오늘날과 같은 제웅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양세시기』의 기록에는 액을 막음으로써 "그해에 재산을 보존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나후직성이 든 해에는 구설수가 있고 재수가 없다는 포괄적 불행이 제시되는데 여기에서는

제웅 매달기 경남 밀양시 가곡동 먼실마을, 1980.7.30, 배도식





구체적인 재산의 보존을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제웅을 통한 액막이는 남성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양세시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허수아비 대신 종이에다 당사자의 얼굴을 그려 돈을 넣고 싸서 길이나 개천에 버려 액을 막는다."라고 적혀 있다.

197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제웅을 통한 액막이가 전국의 곳곳에서 전승되었다. 당시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면 길가에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하는 성인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비손을 마치면 떡 시루 옆에 놓아둔 제웅을 불태우거나 길가에 던졌다. 그러면 이튿날 아침에 청소년들이 삼거리 길가에 가서 제웅을 거두고 제웅의 몸 안에서 동전을 빼냈다. 2010년대인 지금은 제웅을 통한 액막이 풍속이 크게 쇠락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고 농어촌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에서는 정월대보름 저녁에 제웅을 불태웠다. 정월대보름 이전에 가족의 신수를 보아서 그해에 운이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제웅을 만든다. 제웅은 사람 모양의 짚으로 만든 인형이다. 제웅 속에는 운이 나쁜 사람의 나이만큼 십 원짜리 동전을 넣는다.

다 만든 제웅을 가지고 대보름날 저녁에 삼거리에 나간다. 북어나 떡, 과일 등 준비한 제물을 길가에 놓고 그 옆에 제웅을 놓은 뒤 비손을 한다. 빌기를 마치면 제웅을 불태웠다. 이렇게 제웅을 태우는 것을 '액맥이 태운다.'라고 하였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서도 정월대보름 저녁에 제웅을 만들었다. 이 마을에서는 이것을 '지웅'이라고 하였다. 지웅 안에는 돈을 넣었다. 이 지웅은 그해 운수가 나쁜 가족의 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가정의 주부가 주로 이 액막이를 하며, 지웅을 '액땜한다.'라고 하면서 물에다 빠뜨린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초미동마을에서는 정초에 신수를 보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정월 열나흗날에 거리제를 지내준다. 거리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에 지낸다. 제물로는 잡곡밥이나 쌀밥 세 그릇, 나물 세 가지를 준비한다. 이 밖에 허수아비도 준비하여 사거리로 나간다. 사거리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고사를 지내고나면 제물을 사방에 던진다. 허수아비는 막대기에 짚을 엮어 사람 형태를 만든 것이다. 안에는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의 나이 수대로 동전을 넣어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속옷]을 입혀서 길거리에 세워두거나 고사가 끝나면 태워 없앤다. 거리제를 지낸 음식은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고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집어먹었다.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가라티마을에서는 그해에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거리제를 지낸다. 안택하는 날에 지내기도 하고 정월 열나흗날에 따로 지내기도 한다. 정월 열나흗날은 모든 액운이 없어진다고 하여 재액을 풀어내는 날로 여기고 있다. 거리제를 지낼 때 가족 가운데 살이 낀 사람을 위해 무당을 불러 살풀이를 하기도 하고, 운수가 나쁜 사람을 위해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액땜을 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인형은 불태운다.

연기군 금남면 금천1리 원금천마을에서는 가족의 신수를 보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정월 열나흗날에 거리제를 지낸다. 주부 홀로 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하기도 한다. 무당을 부르면 자연스레 큰 정성이 된다.

제물로 떡, 삼색실과, 술 등을 준비한다. 시루떡은 3켜나 5켜로 하되 짝수 켜로 하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지면 삼거리나 사거리로 나가서 짚을 열십자로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 동전도 올린다. 술 한 잔을 붓고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절을 한다. 이때 절은 세 번 이상 한다. 죽을 운이 든 사람을 위해서는 허수깨비(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 대수대명(代壽代命)을 해 주기 위하여 허수깨비에게 그 사람의 속옷을 입히고 짚으로 일곱 매듭을 묶어서 불사른다.

치성을 마치면 제물을 사방에 던지고 짚 위에 떡을 듬뿍 떼어 놓은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서로 주워 먹는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記, 歲時記俗, 漢陽歲時記, 海東竹枝, 광주시지(경기도 광주시사편찬위, 2010), 조선대세시기 1(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민속놀이의 연구(최상수, 성문각, 1985),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풍속-상(문화재관리국, 1970),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박종익(朴鍾翼)

제웅버리기

상호참조 제웅(580쪽)

정의 정월대보름 무렵에 한 해 나쁜 운[羅睺直星]이 든 사람의 형상을 제웅으로 만들어 길 등지에 버리는 가정신앙. '버리기'라는 용어 대신 '치기'를 붙여 '제웅치기', 제웅을 허수아비 또는 허제비로 보고 이를 앞에 두고 '허제비(허수아비)버리기'라고도 부른다. 짚으로 만든 제웅의 몸 안에 쌀이나 돈 등을 넣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버림으로써 나쁜 운이 든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한다.

내용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주기(週期)에 따라 인간의 운세나 한 해의 운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특히 개별 연령을 관여하는 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해마다 그 운과 기운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여러 개의 별 가운데 직성(直星)이라는 별이 인간의 연운(年運)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인간의 운세 등을 관여하는 이 직성은 모두 아홉 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웅버리기와 관련 있는 제웅직성[凶]을 비롯해 토직성[半吉半凶, 남 12세, 여 13세부터], 수직성[吉, 남 13세, 여 14세부터], 금직성, 화직성, 목직성, 일직성, 월직성, 계도직성 등이다. 이들 직성은 모두 9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9개의 직성 가운데 제웅직성이 든 해는 운이 가장 안 좋아, 이 해 운세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제웅을 만들어 길 등지에 버렸다. 제웅직성이 드는 해는 남 · 여에 따라 각기 차이를 보인다. 남자는 10 · 19 · 28 · 37 · 46 · 55 · 64세, 여자는 11 · 20 · 29 · 38 · 47 · 56 · 65세에 제웅직성이 든다.

제웅버리기는 제웅+버리기[혹은 치기]의 합성어이다. 제웅은 짚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허제비(헛제비) · 허수아비라 부르기도 하며, 한자로 草俑 · 草偶라 쓴다. 제웅의 또 다른 명칭으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 명시된 '처용'이 있는데, 신라의 구역신(驅役神)인 처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웅의 역사가 신라시대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시시대부터 장례(葬禮) · 소재(消災) · 추병(追病) 등에서 제웅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어,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웅버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나쁜 운이 든 사람을 볏짚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인신공희(人身供犧)의 풍습이 약화된 시점부터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처럼 의례 과정에서 소와 돼지 등을 제물로 바치기 이전에 사람을 신의 제물로 바친 것이 인신공희이다. 〈심청전〉

제웅만들기 강원도 평창군, 2002.1.18, 서종원


1


2


3

에 보이는 '사람(심청이)을 바다에 빠뜨렸다'라는 내용이 인신공희와 관련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명이 중시되면서 신의 제물로 인간을 바치던 것이 점차 가축이나 동물 등으로 바뀌면서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제웅을 비롯해 목우(木偶), 토우(土偶) 등 인형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 시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제웅버리기가 행해졌음을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남녀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에 들면 제웅을 만든다. 직성은 사람의 나이를 따라 그의 운명을 맡은 9종의 별이다. 남자는 10세, 여자는 11세부터 흉한 직성인 나후직성(또는 제웅직성)이 먼저 든다. 흔히 '직성이 풀린다'는 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져 마음이 후련하고 흡족하다는 뜻이 된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에는 다음의 기록이 보인다.

>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晝永編)』에 의하면 정월 열나흗날 여염에서는 고초[짚]로 인형을 만들어 그 속에 돈을 조금 넣고 혹은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의 옷을 입혀 처용이라 했는데 이는 액(厄)을 예방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황혼이 깃들면 아이들이 떼를 지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용의 유무를 묻는다. 처용을 만들어 둔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처용을 내어 준다. 그러면 문 밖에 있던 아이들은 짚으로 만든 처용의 사지를 찢어 그곳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낸 후 몽둥이로 땅을 치면서 처용이라 외친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듯 싶은데 시초는 알지 못하지만 원시부터 내려오는 유습으로 짐작된다.

이 기록을 보아 조선시대의 제웅버리기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제웅버리기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일부 가정에서는 볏짚으로 만든 제웅을 대신하여 그림이나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운을 대신 빌고 멀리 가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지역사례 제웅버리기는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가정 또는 개인별로 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진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웅버리기의 보편적인 양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 해 운수가 좋지 않은 경우 정월대보름 무렵에 제웅을 만들고, 제웅의 몸 안에 쌀과 돈(과거에는 엽전) 등을 넣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또는 성황당이나 하천)에 버린다. 이렇게 제웅을 대로변에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옮겨가거나 본인에게서 없어지는 것으로 믿었다. 제웅은 본인이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집안의 어른이 만들어 준다.

제웅버리기는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다. 경기도 부천지역에서는 과거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많았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많이 버렸다. 특히 마마를 앓는 사람이 주로 산 밑에 허수아비를 버렸다. 이 지역에서는 허수아비에 돈을 꽂아서 버렸지만 동네 아이들이 그 돈을 빼내 가지는 않았다. 그 돈을 가져가면 가져간 사람의 몸에 병이 옮고 재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 가난한 아이들은 그 돈을 꺼내 먹을 것을 사 먹기도 하였다. 부천지역에서 조사된 제웅버리기의 또 다른 양상은 제웅직성에 든 사람만이 허수아비를 버렸다는 것이다. 정월 열나흗날에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슴과 머리에 동전 일곱 개를 꽂아 놓고 잠을 잘 때 옆에 두고 잔다. 이튿날 삼거리에 제웅을 내다 버림으로써 제웅직성을 면한다. 간혹 동네 아이들이 "허수아비(정애비) 줍쇼." 하고 찾아오면 허수아비를 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허수아비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눈깔사탕 등을 사 먹고 허수아비는 삼거리에 버렸다고 한다.

이에 비해 시흥시 도창동 강창마을에서는 제웅버리기를 '허재비버리기'라 부르는데, 만신집에 찾아가면 만신이 그해 운세가 나쁘면 액운을 풀어내는 방법을 일러준다. 2003년만 하더라도 동네에 만신이 한 명 있었다. 운세가 나쁠 때는 "오곡 잡곡밥을 하고 짚으로 사람 모양으로 허재비를 만들어서 사거리에 내다 버리라."라고 만신이 일러준다. 그러면 운세 나쁜 사람들이 정월 초하룻날부터 초닷샛날까지 허재비를 만들어서 버린다. 이때 초나흗날은 짝이 맞는 날이어서 하지 않는다. 제웅버리기가 액운을 풀어내는 것이어서 허재비 안에다 오곡밥 말고도 사주팔자를 적은 것을 넣어서 버린다. 그 바람에 정월이면 마을은 액막이를 하고 버린 허재비투성이가 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만 오래 살면 그만이냐? 허재비는 귀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먹는 밥하고 아무 곳에나 흉측하게 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야단을 쳐서 요즘은 이런 모습이 좀 덜하다고 한다.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에서는 운수를 보아 절명(絶命)운이 들었다고 하면 이때 짚으로 허수아비(허재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땀이 밴 옷을 입힌다. 그런 다음 허수아비를 길에 묻는다. 이렇게 하면 죽을 운수인 사람은 허수아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운이 좋은 사람만 남게 된다고 믿었다. 이 지역에서는 제웅버리기를 주로 정월대보름날에 많이 했다.

전남지역에는 제웅버리기와 유사한 '허두새비버리기'가 있다. 이 의례는 허수아비 형태로 만든 허두새비를 강물에 띄우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한다. 제웅이 말을 타고 가라는 의미에서 종이에 말을 그린 것을 길에 놓고 그 위에 허수아비를 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노드놓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해 운수가 나쁜 사람을 위해 짚으로 섬이나 작은 오쟁이를 만들어서 안에 돌이나 흙을 넣되 더러 나이 수대로 돈을 넣는 의례이다. 섬이나 작은 오쟁이를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개천에 디딤돌로 놓는다. 이 일을 '다리[橋] 공 드린다'라고 한다. 이튿날 아이들이 오쟁이를 발견하면 헤치고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여러 지역에서 행해진 사례를 통해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는 제웅버리기는 지역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례를 하는 이유와 행해지는 날짜, 제웅을 버리는 (처리하는) 장소와 방법, 제웅의 몸에 넣는 물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의의 제웅버리기 이외에 여러 의례나 풍속에서 제웅이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초분을 할 때 시신 옆에 제웅을 만들어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병든 환자가 있는 집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할 때 제웅을 만들어 환자의 옷을 입혀 축문을 외고 병굿이 끝난 뒤 번화한 거리에 버린다.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해코지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제웅으로 만들어 침이나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기도 한다.

제웅버리기와 제웅이 등장하는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제웅은 인간(또는 동물)을 대신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제웅과 유사한 목우나 토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여에 볼 수 있는 목우, 신라시대 고분 등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토우 등은 인간 또는 동물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주술성이 가미된 종교적 성격의 인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운이 든 사람을 대신할 대상으로 제웅을 만드는 제웅버리기는 인간에게 있는 액을 제웅이라는 존재가 떨쳐냄으로써 그 사람이 한 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정월대보름 무렵에 제웅을 버렸다는 점에서 제웅버리기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좋지 않은 기운을 사전에 털어낸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도 있다. 그리고 제웅의 몸속에 돈과 쌀 등을 넣어 두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이 의례는 적선(積善), 공덕(功德)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세시풍속-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세시풍속-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신체로서 제웅이 지니는 상징성 연구**(서종원, 생활문물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2002),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조선상식문답**(최남선, 1948, 민속원 영인본, 1997),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1).

필자 **서종원(徐鍾源)**

조군영적지(竈君靈蹟誌)

상호참조 조왕(605쪽)

정의 조왕신앙의 실행을 독려하는 서적.

역사 도교에서는 임진왜란과 같은 내우외환으로 나라가 혼란할 때 강력한 관우신의 힘을 빌려 나라를 평정하려고 중국도교책을 번역하여 언해본 성전을 보급하였다. 이때 보급된 서적에는 『관성제군명성경(關聖帝君明聖經)』, 『각세진경(覺世眞經)』, 『경신록언석(敬信錄諺釋)』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등이 있었다. 이 서적들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하는 권선서(勸善書)의 성격을 띤다. 『경신록언석』은 조선 말에 한글판 목판 인쇄본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

조군영적지는 1881년(광서 7) 신사(辛巳)에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던 『경신록언석』의 「태상감응편」 내 경조편(敬竈篇)에 수록된 권선서이다. 이 권선서는 김진은이 인출한 것으로, 1815년 5월 20일 술시에 이곤화가 '병중에 입으로 지은 것'이다. 1819년에 김세침(金世琛)이 경찬(敬讚)하고 1881년(광서7년 신사 윤칠월)에 김진(金璡)이 개간한 것으로 순한글 번역본이다.

내용 조군영적지는 조왕신앙을 더욱 독려하는 선음즐교서(善陰櫛敎書)이다. 구성은 서(序/김진), 사명보고(司命寶誥), 던사부 발동쥬사명죠군신도(天師府 發東廚司命竈君神圖), 서(序/김세침), 가마 극는 것 긔ᄒᆞ는 날[刮鍋忌日], 가마 극는 것 길ᄒᆞᆫ 날[刮鍋吉日], 오납(五臘), 동편부억의 명가음 아ᄂᆞᆫ 구령원황정 복진군권션뷴[東廚司命九靈元皇定福眞君勸善文], 령험한 ᄉᆞ적[靈蹟], 죠신의 죠목과 규뫼[竈神條規], 영쳠(靈籤, 緣起-靈籤讚-正觀子題), 기이한 증험귀록[附錄諸同人印送奇驗] 등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조신(竈神)은 남성신이며, 성이 장씨이다. 휘는 단이고, 자는 자곽이다. 조신의 탄생일은 8월 3일이며, 부인은 8월 24일이다. 중국의 조신이 남성 또는 부부로 나타나는 반면에 〈문전본풀이〉에 보면 한국의 조왕은 여성이며 남편과 자식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사찰에서 모시는 조왕은 남성신이며 좌우에 담시역사(擔柴力士)와 조식취모(造食炊母)를 거느린다. 조왕탱화가 없는 경우에는 나무조왕대신(南無竈王大神)이라고 써서 모신다.

조왕을 동주사명(東廚司命, 동쪽 주방의 사명), 사명조군이라 하여 사명신과 같은 신령으로 보고 있다. 조왕신과 사명신은 원래 다른 신이었으나, 후대에 조왕신을 사명조군 또는 동주사명과 같은 신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엌에 사명신위(司命神位), 구천동주사명장공정복군지신위(九天東廚司命張公定福君之神位)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조왕신이 사명신 역할을 한 시기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양곤(楊堃)은 한(漢)대, 진육(陳陸)은 송(宋)대 이후로 각각 본다. 주(周)대 7대 제사 중 사명신의 지위가 제일 높고, 조왕신이 제일 낮아 제사를 가장 늦게 지냈다고 한다.

조신에 대한 제의는 팔월 초삼일, 이십사일, 매월, 섣달 이십삼일과 삼십일에 등잔이나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서 지낸다. 팔월 초삼일과 이십사일의 제의는 조왕과 조왕 부인의 탄생일이다. 매월 및 섣달의 이십삼일 자시(子時)에 조왕이 하늘로 올라가서 한 달 또는 일 년 동안 인간의 선악(善惡)을 가려 기록하여 착한 자는 복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좋게 말해 달라는 의미로 제를 지낸다. 매월 및 섣달 31일에는 조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성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매월 삭망(초하룻날과 보름)에는 등잔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조왕의 거처 공간은 부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금기가 행해진다. 금기를 지키지 않거나, 조왕신에게 불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사명신이 벌을 내리거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한다. 부엌에서 지켜야 할 금기는 다음과 같다. 가마를 두드리며 글씨 쓴 종이를 불태우고 몹쓸 말로 사람을 꾸짖고 욕하면 안된다. 생강, 파, 마늘 등을 썰어도 안된다. 닭털과 짐승의 뼈를 태우지 않는다. 더러운(부정한) 나무로 취사를 하거나 아궁이 불로 향을 피우면 안된다. 아궁이 불에 신발이나 의복을 말려서는 안되고, 발로 부엌문을 밟으면 안된다. 부뚜막 위에는 칼과 도끼 등을 올려놓으면 안된다. 부엌을 향해 비를 쓸지 않고, 소와 개고기 등을 먹으면 안된다. 조왕신 앞에서 벗은 몸으로 몹쓸 말을 하는 등 실례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보아 조왕은 까다롭고 엄격한 신령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조왕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의 하나인 가마를 걸 때는 좋은 날을 택일한다. 가마 거는 길한 날은 매월 초팔일 · 십삼일 · 이십일일 · 이십팔일이다. 또한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날인 납일은 오납으로 되어 있다. 천납은 정월 초하루, 지납은 오월 초닷새, 도덕납은 칠월 초이레, 민세납은 시월 초하루, 왕후납은 동지 셋째 술일(戌日)이다. 우리나라는 납일을 동지 뒤의 셋째 술일에 지내다가 조선 태조 이후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바꾸어 행하였다.

영험한 사적은 조왕이 인간들의 선악을 가려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거나 조왕께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아무리 시부모께 효성스러울지라도 조왕이 계시는 부엌(부뚜막) 위에 번번이 더러운 그릇이나 피묻은 옷을 놓았던 이에게는 어느 날 부엌 앞에서 세수를 하다가 뇌정, 즉 천둥과 벼락을 쳐서 부엌 앞에 무릎을 끓게 하고 벼락에 맞아 죽게 하였다. 남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자기 손으로 입을 때려서 볼이 터지고 혀를 뽑게 하는 벌을 내렸다. 출가한 왕자가 부엌(부뚜막)을 밟고 발리를 집었더니 광채를 없앴다. 밥을 할 때 더러운 것을 쓸어서 부엌(아궁이)에 넣어서 땐 사람에게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현몽하여 빰을 때렸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볼이 부어 큰 종기가 되어 농집이 터져 입으로 나오고 구역질이 나와 정성으로 조왕께 빌어 병이 나았다. 조신의 탄생일인 팔월 초삼일과 이십사일, 조모 탄생일, 매월 초하루와 보름, 납월 이십사일이 되면 정화수로 부부가 조왕께 제를 지냈더니 조왕이 장원급제하게 해주었다는 기록 등 21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조신의 조목과 규모에서 사명은 다섯 제사에 높은 곳에 거하며, 한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정성으로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모시라 한다. 조왕의 성(姓)은 장(張)씨요, 휘(諱)는 단이요, 자(字)는 자곽이다. 팔월 초삼일에 탄생하고, 부인 이씨는 팔월 이십사일에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이날 마땅히 정성으로 받들고 이튿날 오경(3~5시)에 이르러 배례하여 장수를 빌며, 매월 삼십일 자시에 조왕이 하늘에 올라 인간 선악을 기록하여 아뢰니 이십구일 저녁에 집주인은 등잔불이나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지전으로 재배하며 지송하고 달이 적으면 이십팔일에 지전을 파쇄하여 다섯 시나 일곱 시에 갈았다가 초하룻날 자시에 돌아올 때 재배하며 영접하라고 한다. 이것은 한 달을 기준한 것이다. 일 년의 경우는 매년 납월(음력 섣달) 이십사일 자시에 하늘에 올라 일 년 동안에 한 일을 다 아뢰기 때문에 이십삼일에 정성으로 제계를 받들어 누런 종이에 글을 써서 품고 한다.

영첨의 시작은 첨서의 기록 과정과 널리 알려지게 된 연유를 기록하였다. 유정이라는 사람이 꿈에 각건을 쓰고 흑의를 입은 신선[竈神]을 만나 50첨서를 듣고 적었으며, 꿈에 본 '조군 첨서'를 생시에 다시 확인함으로써 첨서를 처음 출간하여 널리 배포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1첨부터 50첨까지가 있는데, 이 영첨은 5단계(샹샹, 샹즁, 즁평, 즁하, 하하)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인출하여 기이한 증험기록이라'는 것으로 보아 권선문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출로 인한 기록의 부수가 총 10,740권이다. 책의 인출한 숫자를 밝힘으로서 영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의의 조군영적지의 조왕과 한국 사람들이 모시는 조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격에 있어서 조군영적지의 조왕이 남성이고 부인이 있는 반면, 한국의 조왕은 여성이고 남편과 자식이 있다. 단 거처하는 공간은 조군영적지와 한국의 조왕 둘 다 부엌이다. 부엌은 이 신령이 있는 공간이므로 여러 가지 금기를 행한다. 금기를 지키지 않거나 조왕에게 불충한 일을 행하면 조군영적지의 조왕은 사명신(司命神)으로서 벌을 내리거나 생명을 빼앗고, 한국의 조왕은 조왕 동티를 나게 하여 조왕이 거처하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한다. 조왕을 모시는 목적은 치병(治病), 기자(祈子), 집안의 안과태평 등으로 유사하다. 제일(祭日)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날과 비일상적인 날 모두 제를 지내는 반면에 조군영적지에서는 비일상적인 날에만 제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왕의 승천에 관한 풍속과 가마솥 거는 날에 대한 택일 및 금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조왕과 조군영적지의 조왕은 거처 공간, 성격, 모시는 목적, 풍속 등이 유사하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의 조왕은 조군영적지, 나아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조군영적지-문헌자료**(최인학, 비교민속학 5, 비교민속학회, 1989), **조왕신앙연구**(신영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중국의 가정신앙**(정연학,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한국의 경문 경책 문화와 역사**(구중회, 민속원, 2009).

필자 **신영순(申永順)**

조기심리

상호참조 천신(650쪽)

정의 조기를 잡는 어민들이 그해 맨 처음 잡아 올린 조기를 조상님께 바치는 제의. 주로 한식 무렵에 행하는 천신적(薦新的) 성격이 강한 어촌지역의 가정신앙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기신미(심니), 조기의 방언인 조구라는 명칭을 붙인 조구심리(신미 · 심니) 등으로 부른다.

내용 조기심리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기라는 어종과 관련된 의례이다. 회유성 어류인 조기는 봄철이면 산란을 목적으로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 북상한다. 조기어업이 활발하던 시절에 북상하던 조기가 서해안의 주요 어장(漁場)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조기 어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첫 출어에서 잡아 올린 조기 가운데에서 가장 씨알이 굵고 보기 좋은 조기를 선별하여 조상님께 올리는 의례가 바로 조기심리이다.

어촌지역의 조기심리는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올벼심리(첫 수확한 벼를 조상님께 바치는 의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다는 점에서 조상숭배와 관련 있는 가정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농촌지역의 올벼심리가 추수 무렵인 가을철에 행하는 의례인 데 비해 조기심리가 본격적으로 조기어업이 시작되는 봄철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조기심리는 잡은 조기를 조상님께 올리는 풍속이라는 점에서 보면 천신의례와도 관련이 있다. 천신의례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례는 조선시대에 사대부 집안에서 조상님께 청어를 올리는 청어천신(靑魚薦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기 어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혔다. 이 일대에서 조기 어업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조기 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음을 이 시기의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기심리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 조기심리를 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천신할 물품의 하나로 청어 이외에 조기가 등장했다는 사례를 통해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서민들이 조기를 천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조기천신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보면 늦어도 이 무렵에는 조기를 조상님께 올리는 조기심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은 고종 28년(1891, 광서 17) 황해감사 오준영(吳駿泳)의 장계에 "천신하는 생석수어(生石首魚, 생조기)를 아직 잡지 못한 관계로 기한 안에 봉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라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 당시에는 천신할 만한 좋은 어종을 잡는 일도 중요했지만 동해안의 명태와 더불어 조기가 서해안 전 지역에서 많이 잡혔음에도 냉동시설 등이 부족한 시절에 싱싱한 생석수어를 구해 한양(서울)까지 가져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헌 자료의 부족 등으로 조선시대 서민들의 풍속에서 조기심리가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조기심리가 행해진 사실을 구술 자료에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기어업의 중심지이던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과거에 조기심리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현지조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들 지역의 조기심리는 첫 출어 또는 출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기를 잡으면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윤기가 흐르는 조기를 골라 찌거나 말려서 조상님께 올리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의례는 개인에 따라 진행과정이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기어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조기를 잡는 어민 대부분이 조기심리를 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행해진 조기심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기어업이 쇠퇴하면서 차츰 소멸되었고,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지역사례 오늘날 조기심리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의례는 조기어업이 쇠퇴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서해안을 비롯해 서남해안 여러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

조기심리의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목포시 온무동 다순구미마을, 무안군 운남면,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와 백수읍 지산리 및 법성면 법성리에서 조기심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북에서는 군



조기
전북 부안군 위도
2007.9.24
서종원

배고사(조기심리) 전북 부안군 위도, 2001.1.23, 서종원





산시 경암동,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와 상서면 용서리 등지에서 조기심리가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지역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조기를 가장 귀한 제물로 여겨, 음력 2~3월에 잡힌 가장 좋은 조기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배고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삼아 조기심리를 했다. 전북 군산지역에서는 사월에 새 조기가 나오면 조상님께 먼저 올린다는 의미에서 성주께 조기를 올리고 밥을 차려 놓았다. 주민들은 이것을 '조구심리(조기심리)'라고 불렀다.

이밖에 서해안과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조기심리가 많이 행해졌음을 기타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조기 어업이 활발하던 위도와 영광군을 포함한 전라도 해안 일대와 연평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충청도 해안 지역에서 조기심리가 행해졌음이 확인되었다.

전북 부안군 위도지역에서는 옛날 조기잡이로 성시(盛市)를 이루던 칠산어장이 있어 유명하다. 이 어장에서 맨 처음 잡힌 조기를 조상에게 먼저 올리는 것을 '조기신미'라고 한다. 첫 출어에서 조기를 잡지 못하는 집에서는 조기를 사서라도 집안의 조상님께 조기를 올렸다고 한다. 조기신미는 기제사 때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제를 모시는 것이 아니다. 조기를 구하는 즉시 굽거나 찌거나 하여 아침 · 점심 또는 저녁 아무 때나 밥상에 올려서 방 윗목에다 차리고 조상님께 올린다. 제의 형식은 아주 간단하다. 집안의 부인이 두 번 절하면 끝난다. 이 지역에서 조기신미를 하는 이유는 조기가 깨끗하고 옛날부터 좋은 생선으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철따라 잡히며, 칠산어장의 명물로서 어민들의 일 년 농사와 같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기가 잘 잡히도록 비는 뜻도 있다고 한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운리마을에서는 한식 전후나 보름 무렵에 조기심리를 한다. 그해 처음으로 잡힌 고기(조기)가 판매될 때면 영광읍에서 열리는 5일장에서 생조기를 사다가 고사리를 넣어 지지고 밥과 나물을 준비해 선영께 바친 뒤 집안 어르신을 모셔다가 조기 맛을 보게 해드리는 것이 이 지역의 조기심리이다. 조기심리를 하기 전에는 남의 집에 가더라도 조기를 먹지 못했다. 조기가 상어처럼 제사와 명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귀한 고기이자 특산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 잡힌 음식(조기)을 집안의 조상과 어른들께 먼저 드리는 미풍양속인 이유가 가장 크다. 이 마을의 다른 집안에서도 선영에 항상 조구심리와 오리심리를 했다. 이 지역 운암동의 동산댁 역시 친정에서 극진히 조기심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컸다. 그러다가 시집 와서 새댁 때 몇 차례 조기심리를 했을 뿐 그 뒤 조기심리는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 조기심리 의례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조기심리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소개한 두 지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첫 조업에서 잡아 올린 조기를 조상님께 바쳤다는 내용이다. 인천시 옹진군에 속한 덕적도에서도 맨 먼저 잡은 조기를 배에 잘 보관해 뒀다가 집으로 가져 와서 조상님께 바쳤다. 조상님께 올릴 조기는 생조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공(굽거나 쪘다)을 했다고 한다.

한편 조기심리는 군산지역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배고사와 맞물려 진행되기도 한다. 특별한 날을 잡아 별도로 조기심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조기심리 의례를 행한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마을에서는 조기심리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마다 3월 중에 배고사를 지낼 때 조기를 7~9마리를 쪄서 조상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의의 조기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봄철에 조기심리를 한 연유는 조기심리의 또 다른 명칭인 조기신미(新味)에서 알 수 있듯 조상님께 새 조기를 맛보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추수감사제와 같이 수확한 작물을 조상님께 가장 먼저 맛보게 함으로써 조상님 덕에 한 해 좋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의미이다. 실제로 서해안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민이 조기심리를 한 연유는 조기라는 어류가 옛날부터 귀한 대접을 받은 어류여서 처음 잡아 올린 조기를 조상님께 바침으로써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기심리는 과거 농촌지역에서 추수무렵에 행한 '올벼심리'라는 풍속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물론 이런 사례가 올벼와 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외에 첫 수확한 햇과일을 바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첫 월급을 타면 부모에게 속옷을 사드리는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과 맞물려 행해진 의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조기심리는 이러한 의미 외에 조상님께 조기를 바침으로써 조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는 물론 한 해의 풍어를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올벼심리와 달리 첫 출어에서 잡아 올린 조기를 조상님께 바쳤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조기어업 과정에서 더욱 많은 양의 조기를 잡을 수 있도록 조상님께서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의례로 보인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承政院日記**, **위도의 민속지**(박환용, 향토문화연구 4,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87),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구심리를 행하는 마을-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운리**(문화관광부, 1998),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서종원(徐鍾源)

조상(祖上)

상호참조 귀신종이(72쪽), 귀신종이모시기(75쪽), 신줏단지(359쪽), 조상단지(592쪽), 조상모시기(594쪽)

정의 가정신앙에서 모시는 가신(家神)의 하나. 조상 숭배를 위해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祖上)은 무속의 조상과 유교 이념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 다르다. 굿에서 모시는 조상은 어린 나이에 죽거나 미혼으로 죽는 등 억울하게 죽은 사령(死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은 직계존속이란 측면에서 유교의 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에 가깝지만 혈연보다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역사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조에 따르면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가족의 죽음을 상례로 처리하고 죽은 조상의 영혼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알지(金閼智)신화〉에 나오는 황금궤 역시 조상 숭배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상은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인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상 숭배의 전통은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무속, 마을신앙, 가정신앙 등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조상이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위호(衛護)라 하여 가정신으로서 조령을 모셨다. 조선시대가 되면 지전(紙錢)의 폐백(幣帛) 형태로 섬기거나 무당에게 위탁하여 조령을 섬기는 등 신격과 신명은 고려시대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으면서 여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법에 따른 조상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조상은 유교식 조상과 융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형태 숭배의 대상인 조상의 영혼은 형태가 없지만 가정신앙에서는 조상단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교에서는 신주(神主)로 형상화되어 있고, 사당(祠堂)이라는 신성공간을 만들어 모신다.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의 신체(神體)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영남지방에서는 세존단지 또는 조상당세기, 호남지방에서는 제석오가리, 경기도지역에서는 제석주머니, 제주도지역에서는 마을의 본향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의 구신당세기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발견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항아리나 단지, 상자나 주머니 형태이다. 경상도 동해안지역에서는 귀신단지, 귀신동이, 귀신종이, 조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단지 · 항아리 · 종이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용 가정신앙에서 모시는 조상은 유교의 조상 범위와 거의 같다. 그래서 가정신앙의 조상 역시 유교의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대 봉사는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서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조상을 직접 모셔야 하는 당사자 역시 장남 또는 종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교에서 장남만이 조상의 신체를 모실 수 있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宗)을 이루지 못할 경우 조상을 모실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단지 조선시대 또는 최근까지도 존재했던 윤회 봉사, 제사 분할상속에 따라 형제가 나누어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만 차남 이하도 직접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조상의 봉안은 상례를 치른 후에 하기도 하고 첫 기일(忌日)을 맞이하여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 대물림이거나 현몽, 점쟁이나 무당의 권유에 따라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둘째 아들 이하가 분가할 때 무당이 조상을 모실 것을 권하면서 모시기도 한다. 이는 조상이 집안의 수호신으로서 기능함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가정신앙에서 모시는 조상에 대한 제의는 무속의 굿이나 유교의 제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단지 또는 항아리, 고리에 쌀이나 한지를 넣고 일 년에 한 번 갈아 넣는다. 그리고 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여겼다. 쌀이나 종이를 갈아 넣을 때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석굿, 안택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명절이 되면 먼저 신체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제사를 올린다. 이처럼 조상은 지역에 따라 성주보다 더 높은 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의의 가정신앙의 조상은 무속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령과는 관련이 없는 조상이다. 가정신앙의 조상은 유교식 조상과 융화되어 조상 숭배를 문화적 전통으로 전승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조상은 단순히 선조(先祖)라는 개념 이상으로 종교적 기능도 지닌다. 가신으로서 조상은 혈연적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 모시는 유교적 조상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은 물론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신앙의 조상은 무속이나 유교의 신과 구별되며 웃어른으로서 혈연적 관계는 물론 초월적 힘을 가진 영적 존재로 믿어지는 신앙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신이다.

참고문헌 家禮, 三國志, 三國遺事, 禮記, 後漢書, 무속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8,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영남지방의 민간신앙과 김알지 신화(장주근, 문화재 3, 문화재청, 1967), 한국 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의 가정신앙-상·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고대종교사상(리은봉, 집문당, 1984),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하여(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전북(문화재관리국, 1969~1970),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 민속학 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일조각, 2004),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75).

필자 김시덕(金時德)

조상단지

상호참조 조상(591쪽)

정의 가정신앙에서 조상숭배를 위하여 모시는 조상신의 신체.

역사 조상단지가 언제부터 조상신의 신체로 기능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조에 나오는 장사습속에서 조상단지의 기원형을 찾을 수 있다. 동옥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였다가 육탈한 뼈만 추려 길이가 10여 길이나 되는 나무상자에 넣는다. 온 가족의 뼈를 이곳에 함께 넣어 모시고, 거기에 나무로 사람 모양을 새겨 꽂아서 그 수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한다. 또 기와로 만든 솥을 덧널 끝에 매달고 솥 안에 쌀을 넣어 둔다고 하였다.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과 기와로 만든 솥 안에 쌀을 넣는다는 사실에서 조상단지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김알지(金閼智)신화〉에 나오는 황금궤



조상단지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동마을, 2004.7.21
서해숙



조상단지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 2002
서해숙



조상단지
전남 신안군 장산도
1995
서해숙

역시 김씨 집안 조상단지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조선시대가 되면 지전(紙錢)이나 폐백(幣帛)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 역시 조상의 형상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때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신주(神主)가 조상신의 신체이자 상징으로 기능하게 되지만 신주를 모시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여전히 조상단지를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조상단지를 장남의 집에서만 모신다는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골맥이 할배와 할매에서 민속신앙의 조상숭배 기원을 읽을 수 있다.

형태 조상단지의 형태와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영남지역에서는 조상단지, 세존단지, 조상당세기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해안지역에서는 토방구리, 귀신종이, 귀신당세기, 선대할매할배당세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지나 당세기 안에는 쌀을 넣는다. 쌀은 햇곡식이 나면 햅쌀로 바꾸어 넣는다. 이러한 형태의 것은 비교적 널리 분포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해안의 경우 쌀 대신 종이나 명주 깁을 넣고 이를 귀신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보이는 폐백의 잔재형으로도 볼 수 있다.

충남 해안지역에서는 단지 안에 엽전을 넣고 봉하는 형태, 곡식 석 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에 쌀을 가득 넣어 안방 벽에 걸어 놓는 형태가 발견된다. 이 주머니를 경기지역에서는 제석주머니라 하기도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제석오가리와 신줏단지(몸오가리)를 함께 모시거나 석짝(뚜껑이 있는 대바구니) 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명을 기록한 한지를 넣어 성주머리(안방 시렁 위)에 안치하기도 한다.

내용 조상숭배를 위해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신(祖上神)의 신체 명칭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그 가운데 조상단지는 지역별로 다양한 명칭을 아우르는 용어의 성격이 강하다. 조상단지라는 명칭의 발생은 항아리에 쌀이나 종이 등을 넣고 이를 조상신을 상징하는 신체로 여기는 데서 나타났다.

조상단지는 조상신의 상징으로 장손의 집에서 하나만 모신다. 집안에 따라 조상단지 옆에다 신줏단지 또는 몸오가리, 제석오가리, 석짝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한 개에서 여덟 개까지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는 4대 봉사로서 부부를 합설(合設)로 모시면 네 개가 되고 단설(單設)로 모시면 여덟 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2대를 봉사하는 장자라면 두 개 또는 네 개가 되는 셈이다. 조상단지 외에 신줏단지, 석짝 등의 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식 4대 봉사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장손의 집안이라고 해서 모두 사당을 짓고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벽감이라고 하여 벽장에 신주를 모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주를 모시지 못할 경우 지방으로 대신하고, 감모여재도(感慕如



조상단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송락마을, 1998.7, 서해숙



조상단지
전남 화순군 동암면 동두산마을, 1998.7, 서해숙



조상단지 곡식 갈기
대전시 동구 효평동, 1988.1.8, 박종익

在圖)에 지방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조상단지와 신줏단지 형태로 모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조상단지가 조상신 전체를 상징하는 좀 더 복합적인 개념의 조상이라면 신줏단지 형태는 개별 조상의 신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상단지와 신줏단지를 모시는 장소는 흔히 마루 또는 안방의 시렁이다. 조상단지를 모시는 장소로 보아 조상신은 유교식 조상숭배의 기능에 신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낳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제삿날 등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조상단지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신앙적 기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상단지의 기능은 조상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신, 곡령신, 삼신 등 다양한 신앙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앙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둘째 아들 이하가 분가를 하면 조상단지를 모시게 하는 사례이다.

제의를 행하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봄가을, 칠월칠석, 음력 시월에 날을 잡아 쌀을 갈아 넣는다. 제사를 지낼 때 차리는 음식은 메, 과일, 조기, 채소 등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역국을 바치기도 한다. 이때 조상단지 안에 있는 쌀의 상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조상단지의 묵은쌀은 밥을 지어 반드시 식구끼리만 먹는다. 종이를 넣을 경우 한 번 넣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몇 대를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의를 '세존공들인다'고도 한다.

의의 조상단지는 조상신 숭배의 신체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용어가 나타나고 형태 역시 다양하여 유교의 조상숭배를 위한 신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상단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조상숭배이지만 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합적인 신앙대상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三國遺事, 禮記, 後漢書, 무속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8,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영남지방의 민간신앙과 김알지신화**(장주근, 문화재 3, 국립문화재연구소, 1967), **증보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 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고대종교사상**(이은봉, 집문당, 1984),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하여**(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전북**(문화재관리국, 1969~1970),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일조각, 2004),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김시덕(金時德)**

조상모시기

상호참조 조상(591쪽)

정의 가정의 안과태평과 자식들의 소원성취 및 복록을 기원하기 위해 조상신령을 가신으로 모시는 의례. 주부가 주관한다.

역사 조상모시기는 크게 유교식 조상모시기와 민속신앙으로서의 조령 모시기로 나눌 수 있다. 유교식 조상모시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제8 신문왕조에 따르면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치하고 6년에 당으로부터 『예기(禮記)』가 들어옴으로써 조상모시기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권95 열전권 제8 최윤의(崔允儀)조와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권11 서(序) 신서상정예문발미(新序詳定禮文跋尾)조에 따르면 인종의 명을 받아 최윤의 등 17명이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 50권을 내었고, 후기에는 안향(安珦)이 중국에서 성리학을 유입하였다. 『고려사』 118 열전권 제31 조준조에 따르면 집이 있는 자들은 모두 반드시 신사(神祠)를 세워놓고 이것을 위호(衛護)라 하였다. 위호는 조상의 신위를 무당에게 맡기고 노비와 재물을 주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고려사』 63 지권 제17 예5 대부사서인제례(大夫士庶人祭禮)조와 『고려사』 117 열전권 제30 정몽주조에 따르면 공양왕 2년 2월에 정몽주가 비로소 일반 양반이나 서민들로 하여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사드리게 건의하였으며, 동왕 3년 6월 기사일에 가묘에 관한 법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즉 대부 이상은 위로 3대, 6품 이상은 위로 2대, 7품 이하 서인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모만을 각각 제사하도록 하였다. 1485년(조선 성종 16)에 나온 『경국대전(經國大典)』 권지3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부모만 각각 제사하게 하였다. 그 후 『주자가례』가 널리 보급되자 그에 따라 명종조 이후에는 서인에 이르기까지 4대조 봉사나 3대조 봉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때부터 조상모시기는 종손으로 계승되었다. 사당도 종손 집에 세워 감실에 4대 또는 3대 신주를 모셨다. 살림이 빈곤한 가정에서는 벽감(壁龕)을 만들어 신주를 모셨다. 그러나 조선사회는 반상의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인은 사당이나 벽감을 만들 수 없어서 조상당세기나 귀신종이로 대체하여 모셨다. 벽감마저 만들 수 없는 서인의 가정에서는 안방의 시렁이나 안방의 한 구석의 높은 곳에 판을 만들어 대수(代數)에 따라 고비합사(考妣合祀)로 4개, 고비별로 8개의 조상당세기(귀신당세기) 또는 귀신동이를 얹어 놓거나 귀신종이(조상종이)를 조상 수대로 벽에 붙여 두었다. 귀신당세기에는 조상의 신위를 쓴 종이 또는 한지를 몇 겹으로 접어 넣거나 천 조각, 삼오라기, 면화 뭉치 등을 넣어 두었다. 귀신동이에는 쌀과 그 위에 지방(紙榜)을 쓴 종이나 아무런 글씨도 쓰지 않은 종이를 넣어서 한지로 동이를 봉하고 왼새끼나 실타래로 둘러 묶은 다음 뚜껑을 덮어 두었다. 의례는 설, 추석, 동짓날, 정월대보름날에 간단하게 제물을 차려 위하였다. 조상 기일에는 제물을 풍부하게 차려 제사를 치렀다. 이는 유교식 4대 봉사가 민속신앙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 민속신앙상의 조상모시기는 장주근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조상숭배에서 "유교제례의 사당 신주격인 조상당세기와 세존단지가 가지는 삼국시대·고려시대의 불교적인 성격 그리고 조상신·여신·농신성을 겸한 보다 원초적인 관념들로 조상숭배 형태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신앙형태로 전승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지금까지 보고자료도 거의 없다."라고 언급하였듯이, 문헌상 민속신앙에서 조상모시기의 보고자료는 없다고 하겠다.

민속신앙에서 모셔지는 조상은 종가에서만 모셔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가정에 따라 신체(神體), 명칭, 모시게 된 동기나 연유도 다르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자식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당이나 점바치(점쟁이) 또는 승려에게 가서 물어보면 자식 없이 죽은 몇 대의 조상,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조상, 한 많게 죽은 떠돌이 조상, 집안을 위해 헌신한 조상, 소생 없이 일찍 죽은 전처를 조령으로 모시면 좋을 것이라 하여 조상모시기를 한다. 그 조상을 주부가 주관하여 단지나 바가지를 마련하여 햅쌀을 넣고 모시는 단지(동이)류나 바가지류가 있다. 주로 시월상달의 길



조상당세기
경북 포항시 대보면 강사 2리 새기마을, 2002.9.25, 김승찬

일이나 섣달그믐쯤 주부가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 단지에 묵은쌀을 햅쌀로 갈아 넣은 다음 제상에 메, 나물 세 가지, 정화수를 단지 앞에 차리고 비손을 한다. 그리고 묵은쌀로 밥을 지어 집안 식구끼리만 먹고 남에게는 주지 않는다. 단지나 바가지를 없앨 때는 무당이나 점바치에게 문복하여 시키는 대로 하거나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에 버린다. 단지를 모시던 주부가 죽으면 상여 뒤에 달고 가다가 깨뜨리거나 바가지의 경우 밟아서 부순다.

지역사례 함경도지역에서는 집안의 성줏단지 옆에 귀신동이(조상단지)를 여러 개 늘어놓는다. 귀신동이는 4대조 이하의 조상을 의미한다. 부엌이나 고방에 선반을 매고 여러 개의 귀신동이를 모신다. 신체인 귀신동이 안에는 삼베 한 필을 담아 놓는다. 평상시에도 옷감을 사오면 가로 2㎝, 세로 5㎝ 정도로 오려서 넣는다. 제일(祭日)은 일정하지 않지만 보통 정월대보름, 유월유두, 칠월칠석, 팔월 한가위이다. 제사는 주부가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메, 떡, 과일, 나물, 생선, 술 등 제물을 동이 앞에 진설하고 비손으로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축원한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의 한 가정에서는 조상단지를 신체로 모신다. 이는 집안에 탈이 나서 점을 치거나 물었을 때 "집안 조상 중에 누가 모셔주기를 바란다."라고 할 경우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고 단지를 모신다. 단지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곳에 두며, 그 안에는 쌀을 넣어둔다. 밖에서 음식이나 돈이 들어오면 단지 앞에 먼저 가져다 두고 아뢴 다음 가족들이 가져다 쓴다. 천이 들어오는 경우 천을 조금 잘라서 단지 안에 넣고 사용한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먼저 밥을 가져다 두고 위한다.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방복례(여, 1936년생) 씨 댁에서는 벼슬대감을 모신다. 과거에 벼슬한 조상이 좌정한 신령이다. 벙거지와 쾌자를 각각 한지로 싸서 포개어 대청의 왼쪽 벽 상단에 선반을 매고 그 위에 올려놓았다. 주부가 9월 가을고사 때 시루떡, 돼지머리, 무나물, 술을 제상에 차려 지낸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모시는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펴주는 신이다. 자리는 안방의 윗목 벽 밑이다. 대체로 신체가 없는 조상이다. 그러나 금당골의 이기순(여, 1940년생) 씨 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상달고사에 차린 조상상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05.10.3(음) 강성복

안방 다락 안에 오지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쌀과 그 위에 흰 명주 두루마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놓았다. 이것이 조상의 신체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리걷이'를 하면서 태워없앴다고 한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1리 윤순이(여, 1921년생) 씨 댁에는 안방 시렁에 신체로서 조상당세기 두 개가 옆으로 나란히 얹혀 있다. 왼쪽 당세기에는 시조부모, 오른쪽 당세기에는 시부모와 남편을 각각 모셨다. 두 당세기 위에는 접은 광목이 켜켜이 얹혀 있다. 이는 후손이 결혼할 때 예단으로 천을 끊어 얹은 것이다. 상을 당하면 당세기를 구입하여 무당을 불러 조상을 앉혔다. 이때 당세기 안에는 죽은 이의 성명과 생몰연월일을 한지에 기록하여 넣고, 제물을 간단히 차려 제사를 지냈다. 그 뒤 특별히 위하는 일은 없고 제삿날과 명절에만 메와 탕, 나물, 고기자반 등을 차려 올릴 뿐이다.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지사마을의 김오분(여, 1924년생) 씨 댁에서는 조상단지를 '시주할매단지'라고 한다. 10월 초순의 길일을 택해 단지에 햅쌀을 갈아 넣는다. 단지에 있던 묵은 쌀로 밥을 해먹을 때는 육고기나 물고기 같은 비린 반찬은 하지 않고 김치, 나물, 된장으로 찬을 해서 먹는다. 김씨 할머니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면 먼저 단지에게 "시주할매, 우야든지 아들 건강하고 재수 소망 있게 해 주이소. 나 어디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령수를 한다. 설에는 떡국 한 그릇과 술 한 잔으로 상을 차리고 "일 년 열두 달 잘 넘어가고 자손들 건강하고 명 길게 해 주이소."라고 이령수를 한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단지 앞에 놓고 고한다. 그밖에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하더라도 단지 앞에 차려놓고 고한 다음 먹는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중촌마을의 김수조(여, 1931년생) 씨 댁에서는 조상단지를 모시고 가정의 안과태평과 자녀들의 소원성취 및 풍요를 위한다. 신체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조령으로 봉안한 것으로, 안방 장롱 위에 모셔두었다. 이 댁에서 조상단지를 모시게 된 연유는 김씨 할머니가 시집온 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시어머니가 무당을 찾아 점을 보니 시할머니를 조상단지에 모셔 섬기면 집안이 편안해질 것이라 해서 모시게 된 것이다. 그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할머니와 함께 모셨다고 한다. 조상단지에 대한 의례는 매년 시월의 길일을 택해 단지 안의 쌀을 교체할 때 간단하게 정화수만 떠놓고 절을 서너 차례 올린 뒤 비손을 한다. 소지는 하지 않는다. 단지에서 꺼낸 묵은쌀은 밥을 지어 식구들끼리 먹고 남에게는 주지 않는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죽은 시어머니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건넌방의 오른쪽 벽면에 선반을 매고 그 위에 그릇 셋을 가로로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왼쪽으로부터 실타래 그릇 · 정화수 그릇, 쌀 사발을 신체로 하고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화수를 갈아놓고 촛불을 밝힌다. 과일이나 특별한 음식을 사오면 먹기 전에 미리 이곳에 올려두었다가 먹는다. 돈이 들어오면 이곳에 놓고 재배한 뒤에 쓴다.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때에는 집안의 조상을 비롯하여 성주와 시어머니 조상을 함께 위한다. 다른 날에는 제사를 지내듯 제물을 장만하지만 동짓날에는 정화수만 떠놓는다. 이렇게 조상을 위하면 자식들이 편하고 좋아진다고 한다. 보령시 삽시도의 일부 가정에서는 웃줄할아버지를 모신다. 집안의 안과태평과 자손의 수명장수를 위해 모신다. 신체는 조그마한 상자 안에 남자 한복 한 벌을 넣고 봉한 것이다. 이 상자를 안방의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다른 사람은 일절 열어보지 못한다. 웃줄할아버지의 생신이 음력 시월이라 하여 이 달 중에 택일하여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자손들 잘되라고 비손한다.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준다. 안택할 때나 명절 때도 웃줄할아버지상을 따로 차린다.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상동마을에서는 주로 젊었을 때 죽은 조상이 집안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그만 단지를 마련하여 모시고 있다. 단지의 쌀을 갈 때는 떡을 하고 묵을 쒀서 집안 사방에 놓아둔 다음 쌀을 간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대곡마을에 사는 김상례(여, 1930년생) 씨 댁에서는 조왕산기라 하는 석짝(고리)을 안방의 시렁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조상들의 이름을 써서 담아 두었다.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조양마을에 사는 김낭례(여, 1923년생) 씨 댁에서는 신

경남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 복동마을, 2001.12.18, 코리아루트



조상단지



조상단지에 비손

줏단지라 하면서 단지가 아니라 한지로 만든 네모 곽(상자)을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쌀을 세 주먹만 넣고 그 위에 시증조부모의 이름을 적은 지방을 얹어 두었다. 원래 시할머니가 모시던 것을 시어머니가 이어받아 모셨다. 그러다가 이사 갈 때 신줏단지를 태웠다.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장동마을에 사는 위포남(여, 1933년생) 씨 댁에서는 지왕오가리를 모신다. 지왕오가리는 쌀 두 되 반이 들어가는 크기의 옹기이다. 매년 농사를 지어서 쌀을 찧으면 초열흗날이나 스무날 등 손이 없는 좋은 날을 받아 새 쌀을 지왕오가리에 담는다. 지왕오가리에 들어 있는 쌀은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여름에 양식이 없어 곤란할 때는 깨끗한 날에 꺼내 밥을 지어 시부모를 공양한다. 오가리에서 쌀을 내어 해먹다가도 마을에 초상이 나면 중단한다. 공을 드린 쌀은 시장에다 내다 팔면 안 되고 집에서만 해먹어야 한다.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을 때 삼년 복을 입은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가 지왕오가리를 모시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재취(再娶)로 시집을 왔는데 전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재취로 온 시어머니가 살다가 어느 날 점을 보니 '전처가 너무 일찍 죽어 억울하니 위해주라'는 괘가 나왔다. 그때부터 지왕오가리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지왕오가리에는 쌀 외에 다른 것을 넣지 않는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의 심방이 구송하는 〈이만경본풀이〉에 따르면 성주 이씨의 집안에서는 수호신격으로 조상 이만경을 위하고 있고, 〈윤대장본풀이〉에 따르면 파평 윤씨의 집안에서는 수호신격으로 조상 윤대정을 섬기고 있다. 심방이 구송하는 〈양이목ᄉᆞ본풀이〉에 따르면 제주 양씨 가운데 명월파 집안에서는 불운하게 죽은 조상 양목사를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조상신 구슬할망본풀이〉에 따르면 나주 김씨의 어느 선조로부터 부신(富神)적 성격의 조상에 구슬할망신을 모신다. 구슬할망이 죽을 때 딸 아홉에게 "너희들은 명절이나 기일제사 때 고팡에 상을 차리고 나를 위해주면 잘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 딸들은 아홉 마을에 시집가서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고팡에 상을 차려 위하게 되었고, 점차 딸 자손의 줄이 뻗어갔다. 이 구슬할망은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는 조상신이 된 것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예촌(신례리와 하례리)의 양씨 댁에는 처녀의 몸으로 죽은 조령(祖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三國史記, 강화의 가정신앙 1·2(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남도민속학**(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위도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87),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제주사람**(김영돈, 민속원, 2000), **창포마을의 가정신앙**(김명자, 농사짓다 고기잡는 창포마을의 민속,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원, 2008),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명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김승찬(金承璨)

조상종이

표제어 귀신종이(72쪽)

조선(朝鮮)

정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월간지. 여기에 수록된 민속관련 논문들은 가정신앙 등 초기 민속연구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역사 『조선』이란 이름으로 내기 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報)』(1911.6~1915.2), 『조선휘보(朝鮮彙報)』(1915.~1920.6)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발행하다가 1920년 7월호부터 『조선(朝鮮)』으로 개명해 발행하였다. 『조선』은 일문판과 국문판 두 가지가 있다. 그 동안의 통념과 다르게 발행 시기는 물론 내용도 별개이다. 일문판 원본은 현재 1920년 7월호(66호)부터 1944년 11·12월 합병호(353호)까지의 것만 일본 국회도서관과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국문판의 원본은 현재 1924년 1월호(76호)부터 1934년 3월호(197호, 이 가운데에서 82~92호는 결본)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것 중에서 1920년 12월호(39호), 1921년 12월호(51호), 1923년 2월호(65호)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문판 『조선』은 1986년에 고려서림에서 출판한 영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등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문판 『조선』은 그 문에 관련 자료만 발췌해 1999년 무렵에 도서출판 서광에서 영인본으로 출판한 것이 전부이다.

내용 『조선』에는 최남선·안확·이능화 등 저명한 국학자들의 민속 관련 글들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정신앙과 관련된 것은 일본어판 제280호(1938.9)에 실린, 장승두의 「조선 고대사회의 배화사상과 혼인제도의 연원에 관한 고찰」이다. 이 글에서 장승두는 가정신앙으로서 불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씨불 및 씨불지킴이의 존재로 입증해 보였다. 혼인의례에서의 횃불싸움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도 신랑 집과 신부 집 사이에 씨불을 놓고 벌어지는 모의쟁탈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한반도 민족이 가장 경이를 느낀 것은 '불'의 신비였다. '불'은 생물을 익게 하고 모든 오물을 태워서 없애는 정화력이 있으며, 게다가 항상 붉고 신비한 빛을 발하여 밤의 어두움을 몰아낸다. 그래서 고대인은 집집마다 가문 보존을 위한 신성물인 '씨불'을 두고 그것을 정성껏 받들었다. 불단지는 부루단지 또는 업주가리라고 일컬어져 농촌에서 집집마다 재신(財神)으로 모시고 있다. '부루단지'의 연원은 고대의 씨불 지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루단지의 '부루'는 불이 변한 것으로, '불〔火〕'과 같은 의미이며, 부루단지는 씨불을 넣기 위해 설치된 도기(陶器)였다. 고대인은 불의 신이 오곡을 결실시키고 잘 익게 한다고 믿었다. 집의 재산도 불신〔火神〕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단지에다 곡물이 잘 열리고 풍년이 지속되고 재산이 늘어 집안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것이 후대에 이르러 불단지를 단지 재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불신 숭배관념이 약해지면서 씨불 대신 오곡을 넣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火〕은 생물을 익히고 그것의 수를 불어나게 하기 때문에 불, 부루에 '증식(增殖)'의 의미가 생긴 모양이다.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반드시 가신으로 모시는 부루단지가 있다. 씨불은 가문 보존의 성화(聖火)로서 집집마다 불단지인 도기를 두어 그 안에 숯불을 피워서 하루종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가문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씨불이 꺼지면 집안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불이 붙어 있게끔 식구들이 조심해서 그것을 지켰다. 불을 지피는 유일한 방법은 부싯돌을 서로 마찰시켜 이것을 쑥에 붙이는 것이었다. 식구 모두가 씨불을 지키는 것을 씨불지킴이라고 했다. 이 씨불은 고대 한반도 민족에게는 가신(家神)의 일종이며, 어느 집에든 씨불을 묻은 불단지가 있었다. 일본에도 이 같은 민속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씨불지킴 풍속은 고대 조선과 일본의 공통적인 민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씨불을 가신으로 받든 고대 한반도 민족은 불의 신을 모신 부엌을 아주 소중히 여겨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당시에 조왕(竈王) 숭배의 풍속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빛은 즉 행복이며, 집안을 밝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서 명절마다 붉이라는 횃불을 켜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밝히는 관습을 낳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씨불은 사회 일반의 신으로 숭배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차원에서만 예배받는 데 머물렀다는 점이다. 즉 신앙이 가족적인 것이라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가족 결합의 근본 원리를 구성한 것은 실로 이 씨불이며 이것을 가신으로 대대로 전승함으로써 가족제도의 영속성이 유지된 것이다. 고대 가족제도에서 일가단란(一家團欒)이라는 것은 늘 씨불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가족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씨불에서 크게 힘을 얻었다. 이러한 가족제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화인 씨불을 지키는 사람이다. 물론 씨불은 식구 모두가 지키는 것이지만 특히 이 씨불에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는 일 외에 여타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람이 필요하였다.

고대에 이 씨불을 모시는 일은 여자가 맡았다. 여자는 음식을 요리할 때 불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성화를 모실 만한 아름다움과 청결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일종의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을 취급하는 임무를 맡은 여자를 알, 아로, 알영이라고 불렀다. '알'은 한자로 阿老(아로)·阿利英(아리영)·閼英(알영) 등으로 한역되었다. 신라 사회에서

는 월신(月神)·일신(日神)을 모시는 국가적 제사도 오로지 이 '알'에 의해 행해졌다. 이 '알[阿老]'의 어원을 찾으면 알은 '얼'과 동의어이며 '혼(魂)'을 의미한다. 즉 어원적으로 보면 알은 '영혼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가 된다. 현재 '모(母)'를 엄마, '자(雌)'를 암이라고 하는데 이 '엄·암'은 '얼·알·얼'이 변한 것으로, 고대의 여성 신성 관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에서 '친(親)'을 '어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의 동어이다. 고대 모권사회(母權社會)에서 '친(親)'은 '가장이자 제사장인 여성'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 '알'이 맡은 가장 큰 임무는 씨불을 지키고 이것에 기도드리는 일이었다. 이 밖에도 고사를 지내는 임무가 있었다. 고사는 매달 씨불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소규모의 가족적 제사이다. 그때 알은 씨불 주위에 금줄을 치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기도를 하였다. 이 고사야말로 고대 조선의 모든 집에서 가장 신성한 행사로 행해졌다. 오늘날에는 형태가 약간 변했지만 민간의 가족적 제사라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일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의 직무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며느리로부터 다음 며느리에게 전해졌다. 고대의 혼인 제도를 낳은 주요 원인은 이 씨불을 계승하기 위해 '알'을 맞아들이는 것에 있었다. '알'이 끊어지면 그 집 씨불은 사제자가 없는 씨불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바로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였다. 그 '알'을 받아들여 씨불지킴이라는 성직(聖職)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이란 제도가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결합이 씨불을 근본으로 하는 것과 같이 혼인 제도의 발생도 이 씨불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대사회에서 혼인은 가장 신성한 행사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시되었다. 하나는 제사장인 알을 받아들이기 위해,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아 또 다른 후계의 '알'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혼인은 가문의 최고 중대사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의식도 신성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씨불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혼인의식에서 가장 특이한 행사는 횃불싸움이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신랑과 신부의 집 사이에서 횃불 모의(模擬)투쟁이 벌어진다. 결국 신부 쪽에서 지는 척하고 퇴각하면 신랑 쪽이 이 기세를 타고 신부 집의 불단지를 훔쳐간다. 그 후에 신부 집 쪽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것을 되찾는다. 이것은 신성한 종교적 의식이다. 혼인의 의미는 다른 집 씨불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를 신랑이 맞아들여 자기 집의 씨불과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 집의 씨불과 신랑 집 씨불 사이의 모의투쟁이 행해져, 마침내 신부 집 씨불이 패배하고 도둑을 맞는다. 이는 신부가 자기 집 씨불에서 떠나 다른 집의 씨불과 결합될 때까지의 과정을 상징한 것이다. 횃불싸움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간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갈 때는 문 앞에 반드시 불을 피워 신랑 신부가 탄 가마는 꼭 이 불 위를 통과해야 했다. 이것은 불이 지닌 정화력으로 가마에 붙은 사악하고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한 몸으로 씨불과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경북 경주에서는 짚을 태워 이것을 행하며, 충청도에서는 문굿[門神祀]을 하는데, 그때도 문 앞에서 불을 피운다. 이런 의식을 마치면 신부는 청결한 몸으로 씨불 앞에 인도되어 먼저 씨불에게 절을 한다.

서북지방에서는 신랑 집 마당에서 헛절이라는 무의미한 절을 한다. 이는 고대에 씨불 앞에서 하던 절이며, 현재는 그 대상인 씨불이 없어져서 단지 헛절이라는 흔적만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절이 끝나면 씨불 앞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려 신랑신부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한다. 이 공동 회식의 관습은 최근에도 성대하게 행해진다. 특히 서북지방에서 현저하다. 혼인식은 이 공동 회식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신부가 앞으로 알로서 씨불지킴의 중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시험하는 일이다. 신부는 혼인날 밤중 내내 씨불을 계속 지켜야 하며 씨불이 온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식구들은 옥외에서 옥내에 있는 신부가 어떻게 씨불지킴을 하는가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사제자인 신부가 씨불지킴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한다. 이날 밤의 시험에서 신부가 '알'로서의 중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신부는 '알'의 직임을 이을 수 없게 되어, 혼인은 무산된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신방지킴의 관습은 이같이 오랜 연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방이란 결혼한 날의 신랑신부 침실을 말한다. 그날 밤 미닫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교대로 들여다본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결코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니다. 이 '신방지킴'에서 무사히 합격하면 그때부터 신부는 시어머니로부터 '알'직을 물려받아 가문의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이로써 혼인식은 끝난다. 고대의 혼인은 단순한 성적 관계나 일시적 애정의 결과가 아니라 씨불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과 제사(祭祀)라고 하는 강한 결속력에 의한 합일이었다. 이런 혼인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낮보다 밤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이런 이유로 고대의 혼인은 대개 밤에 행해졌다. 경기도 송도(개성)나 평안도에서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저녁 무렵[昏]에 행해지는데, 이것도 같은 유래에서 나온 것이다.

의의 『조선』에는 그 전신인 『조선총독부월보』와 『조선휘보』와는 달리 민속 및 국학 전반에 관련한 연구 성과가 상당수 실려 있어 주목된다. 민속학을 비롯한 우리 국학 연구의 시작을 1920년대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에 수록된 민속 관련 논문들은 초기(제1기)의 연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위에서 소개한 가정신앙 관련 논문은 물론 「주몽신화의 민속학적 고찰」, 「단군전설의 민속학적 고찰」 등 장승두가 쓴 민속 관계 논문이 이 잡지에 실려 있다. 그러나 최남선의 선구적인 업적에 바로 이어서 나온 논문들임에도 아직 연구사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장승두를 비롯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의 논문 외에 최남선·안확·이능화 같은 저명한 초기 국학자의 논문도 여러 편 들어 있다. 이마니시 류(今西龍),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등 일본인 학자의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단행본으로 낸 책들의 대부분이 이 『조선』에 먼저 게재되었던 논문을 한데 모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조선』지는 초기의 민속 혹은 국학 연구의 상황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잡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지에 실린 논문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의미의 민속연구나 민속연구사의 서술은 기대하기 어려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조선』지에 실린 글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인권환의 『한국민속학사』(1978), 이가원의 「한문학의 발달」, 『한국학연구입문』(1981), 최인학의 『한국민속학문헌총목록』(1986), 소재영의 『한국고전문학관계 연구논저총목록』(1993) 등에서 『조선』지에 발표된 일부 논문의 제목 소개가 이루어졌지만 원문 내용의 전모를 접할 기회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국문판 『조선』지에 발표된 민속·국문학 관계 논문은 그것대로 소중하다. 김지원의 민요 관련 논저와 민요 채록 자료를 비롯하여 김백당의 동요 채록 자료와 이원규의 고전시가 관련 논문은 초기 연구 성과로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국문학자료 (이복규·김기서, 민속원, 2004).

필자 이복규(李福揆)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정의 이능화(李能和)가 한국 무속 자료를 집대성하여 1927년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 기관지 『계명(啓明)』 제19호에 발표한 글.

역사 『조선무속고』는 몇 번에 걸쳐 한국어 번역본이 발간되었는데, 1976년 이재곤 완역본, 같은 해 김열규 부분역본, 1986년 김택규 완역본이 있다. 그리고 위 세 번의 번역에서 빚어진 본문의 오자, 오기, 오용, 오해 곡해, 속단 등을 보완한 2009년 서영대 역주본이 있다.

내용 『조선무속고』는 전체 20장 1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선무속지유래(朝鮮巫俗之由來)
제2장 고구려무속(高句麗巫俗)
제3장 백제무속(百濟巫俗)
제4장 신라무속(新羅巫俗)
제5장 고려무풍(高麗巫風)
제6장 이조무속(李朝巫俗)
제7장 궁중호무(宮中好巫)
제8장 무격지소속지관서(巫覡之所屬之官署)
제9장 무업세급신세포(巫業稅及神稅布)
제10장 무병지제(巫兵之制)

제11장 금요무급음사(禁妖巫及淫祀)
제12장 출무성외(黜巫城外)
제13장 무격술법(巫覡術法)
제14장 무고(巫蠱)
제15장 무축지사급의식(巫祝之辭及儀式)
제16장 무행신사명목(巫行神祀名目)
제17장 성황(城隍)
제18장 경성무풍급신사(京城巫風及神祠)
제19장 지방무풍급신사(地方巫風及神祠)
제20장 부(附) 지나무사대략(支那巫史大略)

무속은 신앙 그 자체이며 이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존속되는 지극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체계의 종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은 연구자에 따라 두 갈래가 될 수 있다. 하나는 무속을 역사 문화로 이해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종교로써 바라보는 연구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초월해 역사 문화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이능화는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자이다. 이는 본문에서 보듯이 이능화가 무신 존재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능화의 이러한 입장에도 『조선무속고』는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일제의 문화동화정책에 맞서 민족문화의 뿌리를 고찰하는 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증거물로서의 연구서로 평가된다.

버려진 문화를 옥석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무속을 연구하면서 실증주의를 초월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궁핍한 유형 자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면적 현상에만 치중하여도 온전한 뎡어리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살아 있는 전승현장은 간헐적이지만 기록되고 문서화된 사료와의 호혜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이 건실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논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민중의 무속은 20세기 초 이능화를 통해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우리 것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현장을 살리는 민속 조사는 과학적이다. 그리고 참여관찰에 의한 현장 조사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술면담은 자료 제공자들과의 비교 검증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질문이나 한두 번의 참관으로는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다. 문헌고증학의 한계를 모르지는 않지만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의의 『조선무속고』 출간 시기는 '민족신앙 다루기'의 정점이었다. 이는 20세기 인문학자들이 추구해 온 서구 중심의 지배담론을 명문화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민중 문화에 비문명적이라는 멍에를 씌운 편협한 지식층의 문화보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민중 신앙, 정신, 얼이 함께 어우러진 '무속'은 논의 그 자체로서 '민족 문화 바로 세우기'의 필연적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식자들의 보편적 인식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무속을 밖에서 유입된 외래 종교들과 달리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라온 민족종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사와 종교 문화의 독창성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이능화는 최남선, 손진태, 송석하, 임석재 등과 함께 한국 민속학을 태동시키는 데 선두주자로 활동하면서 문화민족주의적 입장에서의 무속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고로 민족 문화 기원에 관한 서술은 역사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식자들은 산발적으로 남겨진 기록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 실증주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민족 문화의 틀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한국 무속이 처음으로 학문적 대상이 된 것은 식민지 지배담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의 연구에서이다. 그러나 『조선무속고』는 『살만교차기(薩滿敎箚記)』와 함께 문헌고증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능화는 민족 문화 계몽 및 교육 분야에 활약하면서 큰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학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민족신앙 무속을 위시하여 역사, 불교, 여성, 민속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명실 공히 민족학 연구의 금자탑을 마련하였다. 특히 1927년에 발간한 『조선무속고』는 민족 고유 신앙 및 종교 관련의 문헌적 기록과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한국 무속학의 초석을 다지는데 한몫 하였다. 한편 이능화의 무속 연구는 1915년에 발표된 『조선인과 각 종교』, 1918년에 저술된 『조선불교통사』 하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민족신앙 및 종교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고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무속고』는 근거 문헌의 원문 제시, 서두 개괄, 출전, 주명, 주해와 세주, 안설(按說)이 곁들어져 있어서 사료 모음집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한국 종교의 근원과 전래 과정 및 정체를 밝히고 있는 일종의 한국 종교사 백과사전과도 같은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서평-오리엔탈리즘 해체와 벗어나기,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양종승,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8. 11. 8),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대하여**(서영대, 이능화 연구, 집문당, 1994),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최석영, 서경문화사, 1999),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이해준, 조선무속고,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필자 양종승(梁鍾承)

조선의귀신(朝鮮の鬼神)

정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29년(소화 4)에 조선총독부 편으로 발간한 조사보고서.

내용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귀신』은 저자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의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힌 민중들의 신앙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출판 사업에는 분명 식민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목적이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귀신』은 일본 식민지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어서 그 내용 또한 민속현상을 분류하거나 나열한 것에 머물러 있다. 고로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료 채집도 인위적으로 동원된 각지의 경찰 관리들이 수행한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귀신』을 비롯한 조선 민속 관련 논저들에 대한 평가는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다. 일본인에 의한 평가는 식민지 정책 활용에 대한 자료에 가치를 둔 긍정적 평가이지만 한국 민속학 및 인류학 연구자들에 의한 평가는 달랐다. 손진태는 특히 무라야마 지준의 현지조사 방법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하여 지역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자료를 채집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자료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정확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학술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이 책에 대한 한국의 신진 민속학 연구자들도 조사 방법론과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목적성 때문에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평가자들은 무라야마 지준이 생각하였던 '민간신앙론'에 주목하였다. 즉, 조선의 사회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기반이 되고 있는 저급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된 '입론'이 적용되어 조사되었던 것이다. 민간인의 주요 신앙은 귀신신앙이고, 이는 미개-야만-저급과 맞물려 이른바 낙후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급의 비문명을 고급의 문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본 식민지 정책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지준 논저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귀신』은 두 번에 걸쳐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참고·인용되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최길성은 무엇보다도 이 책이 조선 귀신론을 비롯하여 이익, 김시습, 장계이, 정도전, 서거정, 문종 등의 귀신학설 및 민중의 귀신관 서술과 더불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귀신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전통사회에서의 한국인 신관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또한 20세기 초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신앙의 한 면을 알게 하는 중요한 시대 자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보았을 때, 이 책은 구한말에서 개화기를 연결하는 시대적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이 책에 대해 비판할 것은 하되 총체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학문세계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조선의 귀신』은 저자 무라야마 지준 서문과 함께 제1부 귀신편(鬼神編)과 제2부 양귀편(禳鬼編)으로 되어 꾸며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문
제1부 귀신
제1장 귀신설화
제2장 귀신의 관념
제3장 귀신의 종류
제2부 양귀(禳鬼)
제1장 방귀퇴귀(防鬼退鬼)
제2장 구타법(毆打法)
제3장 경압법(驚壓法)
제4장 화기법(火氣法)
제5장 자상법(刺傷法)
제6장 봉박법(封縛法)
제7장 공물법(供物法)
제8장 공순법(恭順法)
제9장 부적법(符籍法)
제10장 차력법(借力法)
제11장 음식법(藥物法)
제12장 고묘법(顧墓法)
제13장 오감법(五感法)
제14장 접촉법과 차단법
제15장 음양법
제16장 기타의 방법

제1부 귀신편에서는 유교의 조상 숭배가 유입되기 이전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에 대한 내용, 관념, 종류, 조상 등에 대해 문헌사료와 유학자들이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피고 있다. 후반부인 제2부 양귀편에서는 귀신의 영향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저자는 귀신신앙의 존재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발달한 것이며, 이는 삶에 대한 욕구가 왕성할수록 귀신 활동 역시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저자는 한국인 고유 사상의 핵심에 무속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귀신의 존재를 사회적 존재의 견고함과 생활 문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서 일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사상보다는 저급스럽게 여겨지겠지만 오히려 대중에게는 유일한 신조로서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조선의 귀신관과 풍습은 당시를 사는 많은 민중에게 뿌리 깊게 퍼져있으며, 그들에 의해 존재 가치가 확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귀신은 사람들에게 행복보다 재앙을 주는 일이 많고 해로운 일들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퇴치하기 위한 양귀법(禳鬼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의의 일제는 대한 제국을 강점한 후 식민지 문화에 대한 현지 조사보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촉탁(오늘날 문화재청 상근 문화재전문위원 직급)으로 임명하여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토록 하였다. 동경제국대학(現 도쿄대학교) 철학과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무라야마 지준은 1919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인연을 맺고 상근 촉탁으로 임용되었다. 그는 전국의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조선의 여러 민속문화 현장을 관찰 조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는 1941년 일본 내 조선장학회(朝鮮奬學會) 주사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정열적으로 조선 민속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물로 1929년 『조선의 귀신』을 비롯해 총 11종의 보고서를 냈다.

『조선의 귀신』은 기록으로 남겨진 것과 전승 현장에서 얻은 민속자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현장자료, 그리고 당시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언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석된 한국 근대의 민속문화에 관한 일종의 자료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자 자신의 견해도 피력되어 있지만 대체적인 맥락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설화 또는 야사 등을 포함한 기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승 자료 등과 접목하여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시대적, 지역적, 상황적으로 정리된 일종의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書評- 村山智順氏の民間信仰四部作を読みて**(손진태, 民俗学, 1933), **일제의 동화 이데올로기의 창출**(최석영, 서경문화사, 1997),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노성환 역, 민음사, 1990),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희경 역, 동문선, 1993), **한국 근대 민속 인류학 자료대계 1-조선의 귀신**(최석영, 민속원, 2008).

필자 **양종승(梁鍾承)**

조왕(竈王)

상호참조 솥(336쪽), 조군영적지(586쪽), 조왕고사(611쪽), 조왕중발(616쪽)

정의 불신[火神]으로, 부엌에서 모셔지는 신령.

유래 조왕의 연원(淵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불을 다루는 데서 유래되어 불을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앙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사람들은 집안의 홍망성쇠, 가족의 안녕, 가정의 길흉화복 등과 동일시하여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불씨를 꺼뜨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주부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불씨가 담긴 화로를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물려주었으며,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맏아들이 불씨가 담긴 화로나 솥을 제일 먼저 들고 새집에 들어갔다. 이사할 때도 집에서 쓰던 화로나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거나 택일한 길일 길시에 남이 먼저 들어가 불을 붙인 뒤에 짐을 옮겼다.

『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魏書東夷傳)」변진조에 따르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르나 문의 서쪽에 모두들 부엌신[조신(竈神)]을 모신다.'라고 하여 기원전부터 조왕을 모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왕
전남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산치마을, 1995
서해숙



조왕
전남 무안군 몽탄면, 2000.7. 서해숙

한 조왕을 모시는 방법은 근래처럼 집집마다 다르지만 조왕을 모시는 장소는 동일하게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신이 중국 『전국책(戰國策)』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전국시대인 기원전 5~3세기에 조왕이 알려지게 되었고, 신앙은 한대 이후에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서에서는 조왕을 염제, 황제, 오, 축융, 괄, 별신, 송무기, 소길리, 선, 장단, 외, 장자곽 등으로 보고 있다. 염제는 태양신이자 조왕신, 염제와 축융은 반인반금(伴人半禽), 축융과 소길리는 같은 인물로 각각 묘사되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조신은 노부인 또는 적의를 입은 미녀 등 여신, 부인과 여섯 딸이 있는 남신 또는 부부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조왕신, 조왕보살, 조군, 동주사명, 취사명, 사명조군, 호택천존, 정복신군 등으로 불리면서 천존·신·왕·군 등 최고의 신명에서 사명과 같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명을 행하는 신령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신의 생일은 8월 3일이고 부인의 생일은 8월 24일이라 하며, 섣달그믐날에 하늘에 올라가 인간들의 선악을 옥황상제께 고하는 사명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궁이에 술, 엿, 탕원보(쌀과 설탕을 반죽하여 만듦), 사조단 등을 붙인다.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서는 조왕신을 '가마도[竈, 부뚜막]신'이라 하며, 집을 수호하는 신으로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왕의 기원이 단군의 신시, 임동권은 중국에서 각각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조왕의 명칭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조왕이 기원전 6~5세기에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기원 전후의 기록은 있지만 불의 사용과 함께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화(發火)가 어려운 전통사회에서는 불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여 부뚜막 옆에 불씨 보호장치를 두었다. 강원도의 화투, 제주도의 봉덕과 화로 등이 그것이다. 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에서도 불씨 저장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단양 수양개의 주거지인 초기철기 유적지에서는 발화석과 발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허준(許浚)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발화법, 홍만선(洪萬選)은 『산림경제(山林經濟)』「잡방(雜方)」에서 불씨의 보관방법을 각각 소개하였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의 불씨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새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불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다. 이는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관념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지키려 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부(며느리)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불씨를 간수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동원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화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돌고개 전설〉, 〈며느리의 혼불〉, 〈불씨의 복〉, 〈불씨와 동삼〉 등이 그것이다.

불씨는 집안 계승의 상징이어서 주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전승된다. 또한 불씨를 잘 관리하면 상(은항아리, 동삼)을 받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댁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엄청난 체벌을 감당해야 했다. 전통사회에서 불이 꺼져 이웃에 불씨를 얻으러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남 영광군의 영월 신씨 종가에서는 500여 년 동안 불씨를 이어왔다고 한다.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에 의하면 남선비를 중심으로 조왕신과 측신(변소신)의 처첩관계, 주목지신과 오방토신 등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조왕신의 내력담을 찾을 수 있다.

옛날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일곱 형제를 낳고 살았는데 살림이 어려워 남선비가 무곡(貿穀)장사를 하러 갔다가 간악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만나 돈도 탕진하고 봉사가 되었다. 이때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으러 왔다가 귀일의 딸의 꾐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귀일의 딸이 본부인 행세를 하며 본가로 돌아와 재물을 다 빼앗기 위해 일곱 형제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 흉계가 드러나자 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측간신인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되고 남선비는 달아나다 정낭에 목이 걸려 주목지신(柱木之神)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 꽃밭에 가서 환생화를 얻어다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모시고, 일곱 형제는 사방(四方)신과 뒷문전, 일문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들의 이름은 심방(무당)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조왕은 여신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무가〉에서는 조왕할아버지 또는 조왕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로 나타난다. 경북 안동지역 무가의 '성주드리는 말문'에서는 조왕이 성주의 아내가 되는 신화가 전한다. 성주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 땅에 내려와 터를 잡고 집을 지어 온갖 치장을 다하고 장가를 들어 양위분이 될 수 있었다. 이때 하늘에서 옥녀 세 명이 지상으로 유배되어 성주를 찾아온다. 성주는 한 분은 삼신할머니, 한 분은 제석님, 나머지 한 분은 조왕님으로 모셨다. 조왕은 베를 짜서 성주님의 도포를 짓는 등 부지런히 살림을 하는 현모양처로 묘사되기도 하고 성주 부모의 의례 대상인 '조왕세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에서는 차사인 강님이 염라대왕을 잡으러 갈 때 길을 안내해 주는 신령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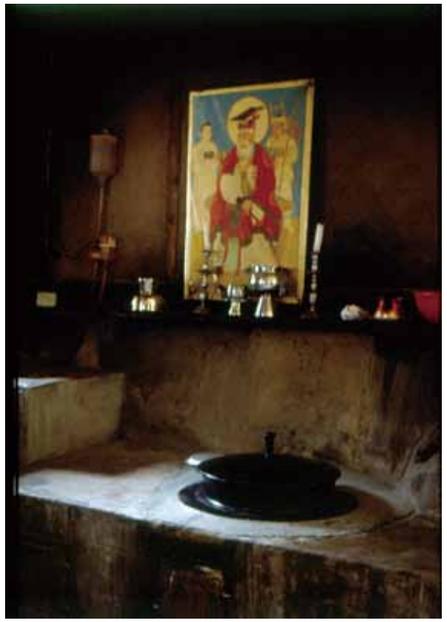
이처럼 조왕은 불신앙과 더불어 오랜 역사, 신화, 전설, 무가 등을 통해 내력을 지닌 신령으로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조왕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황현만





조왕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황현만



내용 부엌은 주부가 관할하는 곳이므로 조왕은 주부, 즉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모시는 신령이다. 민간에서는 이 신령을 조왕각시, 조왕할매, 조왕대신, 정지각시, 삼덕할망과 같이 여성 신격으로 모신다. 그러나 무가나 불교계에서는 부부 또는 남성 신격으로 모시고 있다. 이 신령은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 중에서 성주, 조상과 함께 상위에 위치한다.

혼인이나 분가 등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 조왕을 모시게 된다. 이때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며느리가 물려받는다. 이 신령은 성주나 삼신처럼 잘못 모신 경우, 집안이 불안한 경우, 집을 떠난 경우 등에 다시 받아서 모시는 성격의 신이 아니다.

조왕은 부엌에 좌정하여 집안의 길흉화복과 자손들의 안녕과 건강 등을 기원하는 신령이다. 조왕은 '竈'자와 '王'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유사어로는 조신(竈神), 조군(竈君) 등이 있다. '조(竈)'자는 '구멍 혈(穴)'자에 '맹꽁이 맹(黽)'자를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로, 집 또는 구멍 속에 맹꽁이가 있는 형상이다. '조(竈)'는 아궁이, 부뚜막, 부엌, 부엌귀신을 의미한다. 즉 한자 자체가 부엌에서 모시는 신령을 의미한다. 여기에 '왕(王)'이 결합된다. 왕은 임금 또는 군주를 의미하는 용어로, 여러 중의 으뜸을 나타낸다.

조왕은 조왕, 지앙, 조왕공, 조왕(주왕)각시, 조왕할매, 정지조왕, 정지각시, 삼덕할망, 조왕중발, 조왕보시기, 조왕단지 등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조왕이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다. 강원도와 경남지역에서 성주와 조왕을 함께 부엌에서 모시면서 '성주조왕'이라고 한다. 경남지역에서는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고 그 위에 '성주조왕'이라는 신명을 기입하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조왕을 대조왕과 소조왕으로 구분하여 대조왕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 소조왕은 부뚜막 벽에 각각 모신다. 조왕은 인격화로 정지각시, 조왕님네, 조왕할매, 주왕(조왕)각시, 삼덕할망 등과 같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왕은 각시와 할매(할망), 즉 젊고 아리따운 새색시와 늙은 여자로 동시에 불린다. 반면에 남성 신격으로 인식되어 조왕(주왕)대감, 조상대감 등으로 불리는 지역도 있지만 소수이다.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무가〉에도 조왕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조왕할아버지 또는 조왕할머니 부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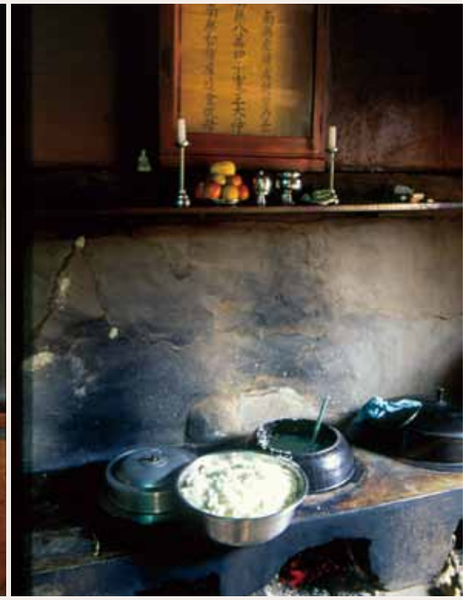


조왕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6리 양리마을, 2006.1, 코리아루트

조왕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황헌만



전남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태안사, 황헌만

나타나기도 한다.

조왕의 신체(神體)는 지역 또는 가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물을 담은 종지 · 주발 · 중발 · 보시기 · 뚝배기 · 옹기그릇 · 항아리 · 바가지 · 상자 등 용기 형태, 문종이에 '나무조왕 삼왕대신'이라 쓴 종이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헝겊이나 백지를 붙이거나 창호지와 마른 명태를 걸어 놓는 부적 형태, 방석 모양으로 접은 부적과 명태와 독을 동시에 모시는 복합 형태도 나타난다. 이외에 부뚜막의 솥과 솥뚜껑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신체가 없는 것을 건궁조왕이라 한다. 평상시에는 치성을 드리지 않지만 조왕 자리는 항상 조심한다. 제일에는 떡과 제물을 준비하여 제의를 올린다.

조왕의 용기에는 정화수, 쌀, 삼베 등을 넣는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물(정화수)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내리는 비(물)와 타고 있는 불 그 자체 모양에서 경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성, 엄청나게 불어나는 풍요성, 더러움이나 잡귀의 침입을 막는 정화력 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과 물이 생활상의 필수품이라는 점과 생활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위압감을 느끼는 한편 이것들의 전화, 신성, 풍요, 제액초복 등을 신의 상징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벼(쌀)는 다산을 의미하는 식물이다. 다산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에도 관계되는 것이며, 다산 소망이 곡식을 통해 조왕의 신체로 모셔진 것이다. 쌀을 제물로 쓴 곳은 서울, 강원, 충북, 경남지역이다. 쌀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왕의 신체로 사용하였지만 근래에는 정화수나 건궁으로 모신다.

이 밖에 조왕의 신체처럼 모셔지는 것들로 솥과 솥뚜껑, 부뚜막과 아궁이가 있다. 솥은 단순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용기만이 아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종교적 의기, 사자(死者)의 식량 용기 등 고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부뚜막과 아궁이는 단순히 취사와 난방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늘, 사계절, 십이시(十二時), 태양과 달과 바람 등을 나타내는 우주를 상징한다. 이 때문에 부뚜막과 아궁이의 설치 위치, 방향, 설치일, 수리일 등도 음행오행설에 의해 정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민속상 혼례, 상례, 민간용법 등에서도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혼례를 마치고 신행을 갔을 때 신랑이 부엌에 들어가 부뚜막에 다리를 올려놓고 국수를 먹거나 어린아이의 아명을 '부뚜막'으로 붙이는 것 등은 오래 살라는 의미로 보인다. 장례 때 관이 나가면 곧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관습은 시신이 있던 자리의 습기를 제거하고 소독할 뿐만 아니라 시신의 부정을 정화하기 위해 행해졌다. 그리고 민간에서 두드러기 등을 부뚜막 위에서 치료하였다. 이는 부뚜막이 질병을 치료하는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잣집 흙을 파와 자기 집 부뚜막에 바르면 그 복이 전해져 잘 살게 된다고 하여 '복토 훔치기'라는 민속이 있었다. 이는 부뚜막과 아궁이가 불을 조절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조왕이 내재해 있다는 인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조왕을 모시는 공간은 부엌이다.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신령이 내재한 신성공간이며 부정을 씻는 정화의 장소이다. 『민택삼요(民宅三要)』에 의하면 부엌의 방향은 대문, 안방 다음으로 고려되었다. 일반적으로 동향이나 동남향을 길향으로 쳤고, 동북향이나 서남향은 귀문사상에 의해 흉하다고 하였다. 또 우물 앞이나 대청 뒤 또는 대문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을 꺼렸다. 흙도 우물을 판 흙을 사용하지 않았다. 부엌을 만들거나 수리할 때에도 음양오행설에 의해 택일하였으며, 만통화성흉일(萬通火星凶日)을 피하였다. 만통화성흉일에 부엌을 비롯하여 방이나 대청 등 건물을 건조 및 수리를 하거나 이엉을 올리면 화재를 당한다고 한다.



조왕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내북동마을, 2002.1.29, 코리아루트

부엌에는 조왕을 비롯하여 성주, 업, 조상, 제석, 구능, 걸립, 영등할머니 등 거의 모든 가택신령이 모셔진다. 아키바 다카시에 따르면 서부지방과 북부지방에서는 고방 또는 부엌 선반에 신단지와 신고리를 설치해 놓고 제석단지, 칠성행리(七星行李), 조상단지, 조상마을, 원귀를 모시고 있다. 또한 그 집의 주부는 부엌에 모셔진 신령들의 각 제일에 맞추어 정성을 들인다. 정성 들이는 날 이외에 오월 진일에 돼지머리로 부엌에서 제를 지내면 재산이 만 배, 사월 정사일에 제를 지내면 재산이 백 배 늘어난다고 한다. 정월 기축일

조왕 강원도 삼척시, 1998, 코리아루트



조왕부적



조왕사발



조왕
전남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 2001.11.22, 코리아루트

에 백계(白鷄)로 제를 지내면 누에가 잘 자란다고 한다. 그러나 개로 제사를 지내면 흉패(凶敗)하고, 여자가 부엌에 제사를 지내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엌에서 거의 모든 가택신령을 모시는 것은 민간에서 특히 신성한 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과의례, 즉 혼례·상례·출산 의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엌은 중요한 장소로 이용된다. 혼례를 마친 후 신행 때 신랑이 신부보다 앞서 집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린 뒤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에 국수를 담아 주걱으로 떠먹고(경기도), 신행 온 지 사흘 만에 '입주(入廚)'라 하여 신부가 처음 부엌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신부는 먼저 부엌에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시작한다. 신부의 입주는 새 삶을 시작하는 뜻이며, 따라서 부엌의 주신인 조왕께 먼저 아뢴다는 의미로 보인다. 예전에 상가(喪家)에 갔다 오거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우선 부엌부터 먼저 들렀다가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는 상가나 긴 여행에서 묻어왔을지도 모르는 잡귀나 부정스러운 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엌에는 부정을 씻는 정화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기의 첫 외출 때에도 부엌을 먼저 거쳐 가야 길하다고 한다.

또한 신축한 집에서는 방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엌(정지)에서 짚을 깔고 낳는다. 집안에 임부가 있으면 부엌이나 변소를 치우지 않고, 산중(産中)에 부엌이나 굴뚝을 고치면 나쁘며, 산달에 문을 바르면 난산을 한다고 한다. 이는 부엌이나 굴뚝, 문 등을 산도(産道)와 동일시하여 산도에 상처를 내거나 막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왕은 특정일이나 굿의 과정에서 모셔지는 여느 가신들과 달리 특정일뿐만 아니라 매일 모셔진다. 주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들이 먼저 물을 떠가기 전에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물을 떠와 정화수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수도를 사용함으로써 새벽 또는 밥짓기 전에 수돗물을 깨끗하게 받아서 싱크대(예전에는 부뚜막)에 올려놓고 빈다. 매월 삭망(초하루, 보름)과 유두, 백중, 추석, 섣달그믐, 칠석, 양날, 범날, 소날, 부모 제삿날, 가족 생일, 집 신축일, 가족 중에 출타한 사람이 있을 때 조왕에 정화를 올리고 빈다. 이는 집집마다 다르다. 이 밖에도 안택이나 집안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 다른 신령들과 같이 모신다.

조왕은 집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집안의 길흉화복을 빌고, 가장(家長)과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모신다. 특히 가족 중에 객지에 출타하거나 군대 간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매우 지성으로 모신다. 이 밖에 기자(祈子), 해산, 육아 등을 위해서도 모신다.

의의 조왕의 연원은 알 수 없지만 불의 사용과 함께 모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불씨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등 불이 지니는 상징성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인격화되면서 조왕이라는 가정 신령으로 모셔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왕은 불신으로 모셔지다가 중국의 체계화된 조신이 전래됨으로써 조왕의 불신으로서의 순수한 형태는 사라지고 중국 계통의 조왕신인 부엌신, 부뚜막신으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에 와서 발화법의 간편화, 수도의 보급, 난방과 음식 조리의 장소 분리, 화장실 위치의 이동 등 집안 구조의 변화, 입식부엌 사용(부뚜막에서 싱크대 사용)으로 인하여 조왕의 중요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무속신화를 통해 본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불과 조왕신앙**(신영순, 불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6),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조왕신 양연구**(신영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조왕의 성격과 전승양상**(최숙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중국의 가정신앙**(정연학,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필자 **신영순(申永順)**

조왕고사(竈王告祀)

상호참조 솥(336쪽), 조왕(605쪽), 조왕중발(616쪽)

정의 부엌에 좌정하고 있는 조왕신에게 지내는 제의. 모시는 제일, 제물, 목적 등이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의는 주부, 즉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가 지낸다. 평소에는 새벽에 목욕재계 또는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다가 바치고 빈다. 특정일에는 다른 집안의 신령들과 함께 모셔지거나 단독으로 모신다. 단독 제의는 제주도, 울릉도, 경남 함양·밀양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다.

유래 조왕신앙의 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魏書東夷傳)」 변진조에 따르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르나 문의 서쪽에서 모두들 부엌신[조신(竈神)]을 모신다.(祠祭鬼神有異 施灶皆在戶西)"라고 하였고, 『책부원귀(册府元龜)』 권 959 외신부(外臣部) 변진국(弁辰國)에 따르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조왕을 모실 때에 공손함이 있으며 모두 문의 서쪽에 있다.(祠祭鬼神 有巽施竈 皆在戶西)"라고 하여 기원전부터 조왕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왕을 모시는 방법이 근래처럼 집집마다 다르지만 제를 지내는 장소는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를 지내는 주체가 누구이고, 언제 어떠한 형태로 모셔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고려사(高麗史)』「지(志)」에 따르면 "조왕은 7사 신위 중 한 신위로 모셔진다. 사명신(司命神), 호신(戶神), 조왕신(竈王神), 중류신(中霤神), 문신(門神), 여신(厲神), 행신(行神)이 그것이다. 봄철에는 사명신과 호신, 여름에는 조왕신, 6월에는 중류신, 가을에는 문신과 여신, 겨울에는 행신에게 제를 지낸다. 납일[臘享]에는 전부 제를 지낸다.(春祀司命戶夏祀竈季夏祀中霤秋祀門厲冬祀行臘享遍祭)"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128 오례, 길계 서례, 신위조에 의하면 '칠사(七祀)는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에 제사지내고, 여름에 조(竈)에 제사지내고, 가을에 문(門)과 여(厲)에 제사지내고, 겨울에 행(行)에 제사지내고,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는 별도로 중류에 제사지낸다. 협사의 제향과 납일(臘日)의 제향에는 두루 제사지내는데, 신위를 묘정(廟庭)의 서쪽에 동향(東向)하여 설치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七祀, 春祀司命戶 夏祀竈 秋祀門厲 冬祀行 季夏土旺日別祀中霤 祫享臘享則遍祭 設位於廟庭之西東向北上 席皆以莞)'라고 하였다.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속주(續註)에 "사명(司命)은 궁중(宮中)의 소신문(小神門)이요, 호는 출입(出入)을 주관한 것이요, 행은 도로의 행작(行作)을 주관한 것이요, 여(厲)는 공려(公厲)를 이름[謂]이니, 옛날 제후(諸侯)들의 무후(無後)한 사람이요, 조(竈)는 음식(飮食)의 일을 주관한 것이요, 중류는 당실(堂室)의 거처(居處)를 주관한 것이라.(司命 宮中小神 門戶 主出入 行主道路行作 厲謂公厲 古諸侯之無後者 竈主飮食之事 中主堂室居處)"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보다 조선에서 조왕의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예기(禮記)』「제법(祭法)」에는 "왕에게 여러 명의 왕비[女神]가 있어 7사(祀)로 모신다. 사명(司命), 중류(中霤), 국문(國門), 국행(國行), 태려(泰厲), 호(戶), 조(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및 조선시대에 모신 7사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의 "부엌의 가마솥 뒤에 놓인 조왕신부적, 알아볼 수 없는 문자나 부호를 종이에 써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악귀나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붙인다. 붉은색으로 쓴다."를 통해 조선시대 전기의 민가(民家)에서도 조왕이 부엌의 가마솥, 즉 조왕솥 뒤에 모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李晬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범지능제조사(范至能祭竈祠)」에서 "남자들이 조왕제를 지낸다. 조신(竈神)은 그믐날 하늘에 올라가 사람의 죄상을 아뢴다. 기축일(己丑日) 묘시(卯時)에 제사(祭祀) 지내면

조왕고사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2002.1.29, 코리아루트



조왕과 조왕중발



조왕고사 준비



조왕고사 준비



조왕에게 비손하기



조왕에게 비손하기



조왕중발

복(福)을 얻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자(朱子)가 부엌신께 제사 지낸 글이 가례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모방하여 행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능화(李能和)는 "이지봉은 모든 신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모두 배척하여 좋지 않은 일로 삼았다. 조왕신만은 조선중기 때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주자도 제사[祭] 지내니 고로 당연히 모방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중기에는 일반 백성들과 양반계층에서 조왕제를 지내고, 조왕이 사명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0년대의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실학자들의 세시류를 통해 민간에서도 조왕을 신앙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왕은 새집이나 이사 후 부뚜막에 솥을 거는 것으로 살림살이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살림살이의 시작과 함께 모셔진다. 전남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에는 "너도 부뚜막에 조왕 갈 만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가를 들어서 새로 가정을 꾸릴 만하다는 덕담이다. 이처럼 혼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든 새로 모시든 모시기 시작한 것이 조왕이다.

조왕에 대한 제의는 평상시에 모시는 제의와 특별한 날에 모시는 고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신들은 특정일이나 굿의 과정에서만 모셔진다. 그러나 조왕은 주부가 매일 새벽에 남들이 물을 떠가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깨끗이 물을 떠다가 조왕중발에 정화수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제의는 다른 어떠한 제의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수도의 보급과 부엌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밥을 하기 전에 중발에 물을 떠서 정화수를 올린다.

특정한 날에 모시는 제의는 집집마다 다르다. 매달 초하루, 초사흘과 보름, 유두, 백중, 추석, 섣달그믐의 명절과 24절기, 부모의 제삿날, 가족의 생일, 집 신축일, 가족 중에 군대나 타지 등에 출타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조왕에게 제를 올린다. 이 밖에 정초와 조왕 부정, 곧 집안에 사고 또는 병자가 있는 등 집안에 우환이나 급한 일 또는 재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의를 올린다. 진도지역에서는 단골이나 신도의 가정에 햇머리, 생일, 명절, 매달 초하루, 천액(天厄)이 들었을 때 조왕굿을 한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서는 아이가 단명(短命)을 한다고 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새벽에 일어나 조왕공에 정화수를 올리고 저녁에도 정화수를 올리며 하루에 두 번 조왕에 비손을 했더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고 한다.

제는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주부나 며느리가 지낸다. 평소에는 새벽 3~4시에 일어나 목욕재계나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길으러 간다. 목욕재계 등은 여름에 찬물로, 겨울에 물을 데워서 한다. 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는다. 특정일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목욕재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음식을 진설하고, 밤새도록 절을 하며 기원하기도 한다. 특히 명절과 매월 초하룻날에는 남편과 동침도 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제물로 새벽에 떠온 깨끗한 정화수를 올린다. 올린 정화수는 주부가 먹거나 부뚜막, 솥뚜껑, 아궁이, 물 항아리 등 깨끗한 곳에 버린다. 반면에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버리기도 한다. 특정한 날인 정월대보름, 유두, 백중, 추석, 섣달그믐의 명절 및 24절기와 부모 제삿날 등에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한다. 굿을 하는 경우에는 무당이나 심방이 미리 일러준 대로 준비한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밥솥), 나물류, 떡, 과자 등을 올린다. 이뿐만 아니라 절기나 명절에는 그 절기에 차리는 음식을 올린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찰밥, 동짓날에는 팥죽 등이다.

밥은 솥에 지은 채로 솥뚜껑을 반쯤 열고 밥 위에 열십자를 그어 가운데에 밥주걱이나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고, 솥뚜껑 위에는 광목을 걸쳐 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왕이 흠향한다고 한다. 이때 조왕이 비린내 나는 음식을 꺼리기 때문에 부엌에서 육류나 생선류 등은 일절 만질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생것도 일절 올리지 않는다.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비리지 않은 맑은 것을 올린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어물이나 고기를 올리지 않고, 전남 영암지역에서는 개고기같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꺼린다. 이는 제주도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조왕이 시앗인 측신의 해침을 당해 물속에 빠져서 고생할 때 물고기들이 육신을 뜯어먹히는 곤욕을 치러 조왕의 잡식에는 물고기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기록에서 원인을 엿볼 수 있다. 나물은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무채, 시금치 등을 쓴다. 이 가운데에서 미나리무침을 가장 중시한다. 떡은 흰무리를 올린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돌레떡(도래떡)과 보시떡을 쓰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삼덕자 조왕을 모시기 때문에 음식을 세 개씩을 올린다. 제물은 상없이 솥과 솥 사이 또는 바닥에 차린다.

조왕에 대한 제의는 지역 및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의 방식이나 금기는 대동소이하다. 매월 초사흗날과 명절에는 목욕재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물이나 떡을 진설한 다음 밤새도록 절을 하며 빈다. 안택을 할 때는 성주나 삼신보다 먼저 조왕에게 빈다.

조왕고사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2001.11.21, 코리아루트



정화수 준비하기



조왕에게 비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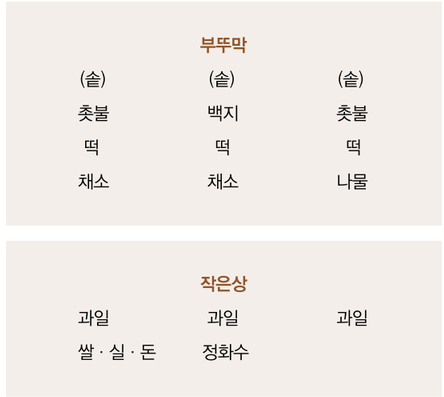
지역사례 일상적인 조왕에 대한 정성드리기 외에 명절이나 그 밖의 특정 기일(期日)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조왕제도 있었다.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조왕제는 충남(대덕군), 충북(청주군), 경북(영덕군), 평북(철산군), 전남(장성군)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조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서는 제주도에서 조왕고사를 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005~2008년에 조사한 『한국의 가정신앙』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울릉도, 경남 함양·밀양 등지에서도 조왕고사가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조왕제를 지냈다. 이때에는 "유세차 경술 정월 병오 13일 무오 집주인 참봉 ○○○은 감히 조왕대성신님께 고하나이다. 새로 정월을 맞이하여 복길일(卜吉日)에 여러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목욕재계하여 이같이 잘 차려놓고 우리 집이 편안하기를 정성 다해 머리 조아려 공손히 절을 올리고 돌아보니, 엄숙하게 지신(地神)이 삼가고 두려워하니 오셔서 흠향하소서."라고 축문도 읽었다.

경북 봉화지역에서는 부뚜막에 조왕이 깃들어 있다고 여긴다. 조왕은 집안의 화목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건궁조왕으로 모셔진다. 의례는 정월 열나흗날에 간단하게 행해진다. 시루떡이나 백편을 정성껏 만들어 부뚜막의 솥과 솥 사이에 놓고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울릉군 도동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경문쟁이를 불러 조왕제를 지낸다. 밥을 한 솥 해서 솥뚜껑만 열고 숟가락을 꽂은 뒤 부뚜막 위에 간단하게 나물과 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한다. 절은 경문쟁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조왕을 정지(부엌) 솥덕에 좌정한 신으로 여겨서 솥할망, 조왕토신이라고도 한다. 제의는 사제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무식(巫式), 불교식(佛敎式), 독경식(讀經式) 조왕제로 분류된다. 무교식은 심방, 불교식은 스님이나 보살, 독경식은 독경쟁이가 된다. 독경쟁이는 도포를 차려입고 한다. 독경식은 조왕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를 행한다. 조왕에 대한 제의는 정초, 조왕에게 부정이 있거나 집에 우환이 있고 가족이 아플 때 지낸다. 근래에는 큰굿을 할 때 조왕제를 지낸다. 조왕제만을 위해서 심방을 부르는 경우는 없다. 토신제와 함께 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토신제는 제관, 조왕제는 심방이 각각 주관한다. 조왕에게 동티가 나면 조왕에 불을 밝혀 놓기도 한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택일을 한다. 정월대보름날부터 3월 사이에 좋은 날을 택하여 지낸다. 2월은 썩은 달이라고 해서 지내지 않고, 사월부터는 제를 지내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이 때문에 제지내는 시기를 놓치면 대개 이듬해에 지낸다. 택일은 가장을 중심으로 집안 식구들의 생기에 맞추어 정해진다. 제일이 결정되면 제를 행하기 일주일 전 또는 사흘 전부터 정성을 들인다. 이때는 집안을 청결히 한다. 특히 부엌에서는 육류나 어류 등을 일절 만질 수 없다. 그리고 대문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과 부정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 기간에는 고기음식도 일절 먹지 않는다. 제를 지내기 전에 짐승의 시체를 본다든지 주부가 월경중일 때 또는 상을 당하거나 해산하는 일 등 마을 전체적으로 비린(부정한) 일이 생기면 새로 택일하여 지낸다.



〈조왕제 진설도〉

이 제에 남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물은 심방이 미리 일러준다. 종류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메(밥솥), 나물, 과일을 올린다. 나물은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무채, 미역채, 시금치 등이다. 미나리무침을 가장 중시한다. 과일은 사과, 배, 귤 등 삼종 또는 오종·칠종을 쓴다.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배나 유자 한 가지만 올리기도 한다. 떡(돌레떡과 보시떡), 감주(음료수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다), 지전 한 권, 명태(또는 동태), 실, 양초, 백지 등이 함께 진설된다. 주부에 따라서는 과자를 준비하기도 한다. 제숙은 솔라니(옥돔)를 쓴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생것은 일절 올리지 않는다. 한편 몸이 아프거나 동티가 났을 때에는 흰쌀 한 그릇, 찬물, 사과 등을 올린다. 다른 가택신과 함께 제의를 치를 때는 문전신의 음식 제의가 끝난 뒤에 부엌의 조왕 앞에 가서 지낸다(북제주군). 제물은 막은 방(막힌 방위)을 피해 부엌 바닥에 차렸으나 근래에는 싱크대 위에 차린다. 조왕제는 삼덕자 조왕을 모시기 때문에 음식은 모두세 개씩 올린다.

제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저녁에 행해진다. 제물 진설에 있어서 메는 가마솥에 밥을 해서 뚜껑을 반쯤 열어 밥 위에 열십자를 그은 다음 가운데에 밥자(주걱 또는 숟가락)를 꽂아 놓는다. 솥뚜껑 위에는 광목을 걸쳐 놓는다. 심방은 흰색의 한복을 입는다. 이때 악기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제를 진행할 때는 부뚜막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심방이 오늘을 택하여 제를 지내는 이유를 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오늘 제를 지내는 집이 어느 나라 어느 고을 누구네 집이라는 것을 알린다. 이를 국섬긴다(국가른다)고 한다. 심방은 간곡한 축원을 하고, 상에 올린 정화수 그릇을 들고는 마당과 부엌 구석구석에 조금씩 뿌린다. 이는 지금까지 불러들인 신들 가운데 부정한 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갠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심방은 제자리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서 〈문전본풀이〉를 구송한다. 〈문전본풀이〉의 구송이 끝나면 상위에 올린 소지를 불사른다. 이는 귀신의 노자(路資)가 된다고 한다. 스님이 할 경우에는 북쪽으로 앉아서 조왕경을 읽는다.

조왕고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이와 같이 조왕제에 참석한 모든 신에게는 충분히 대접을 한다. 이때 심방은 신에 의탁하여 점을 친다. 이 점은 상 위에 올린 쌀그릇에서 심방의 임의대로 쌀알을 집어 50㎝ 정도의 높이로 올린 다음 다시 받고, 손에 잡힌 쌀알의 수를 보아 앞으로 있을 길흉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에 잡힌 쌀알의 수가 길(吉)을 나타내면 쌀알을 주부에게 주어 꼭꼭 씹어 삼키게 한다. 흉(凶)을 나타내는 쌀점인 경우 심방은 주부에게 그 예방책을 일러 준다. 또는 심방이 멩두칼을 가지고 와서 날선ᄃᆞ리를 놓고 운수를 점친다. 이때 노단ᄃᆞ리가 가장 좋고 왼ᄃᆞ리가 다음으로 좋다고 한다. 합친ᄃᆞ리나 칼선ᄃᆞ리는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난다. 소요되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다.

심방이 상 위에 올린 제물을 내리면 주부는 이 음식들을 심방과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도록 한다. 조왕제에 쓰인 제물은 일절 다른 집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심방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제에 쓰인 쌀, 실, 돈, 광목 등은 사흘 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제사 때에는 문전신과 똑같이 조왕할망상을 차린다. 이를 '안내상'이라고 한다. 조왕할망에 불을 밝히고 부엌에서 ᄀᆞᄉᆞ[고사]를 한 뒤 버린다. 옛날에는 고팡에 차렸다. 그러나 지금은 방이나 부엌에 안내상을 차린다. 방에 차리는 경우에는 신의 입장에서 지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차린다. 조왕할망상에 불을 밝혀서 제를 지낸 뒤에 잡식을 하고, 잡식이 끝나면 부엌에 버린다. 요즘은 모두 싱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잡식한 음식을 버릴 때가 없어 따로 '잡식버리는 곳'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함부로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다. 또는 지붕 위에 뿌린다. 닭이나 고양이가 올라가서 먹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즘은 현대식 주택이어서 지붕 위에 뿌릴 수 없어 비닐봉지에 담아 옆에 놔둔다. 근래에는 신과세제(新過歲祭, 문전제)에서 문전신과 함께 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문전에 잡순 것을 잡식해서 조왕에 두기도 한다.

조왕제를 지내면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의 안녕을 믿게 된다. 이런 제의는 집안에 우환이 닥쳐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의의 조왕은 특정일이나 일상적인 날에도 주부에 의해 모셔질 뿐만 아니라 단독 제의로 모셔진다. 조선총독부의 보고에 따르면, 조왕, 터주, 성주 등 가택신들도 단독의 제의로 모셔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 울릉도, 경남 함양, 밀양에 조왕제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 이는 조왕이 가택신령들 가운데에 비중이 높은 신령으로 모셔졌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무속신화를 통해 본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상, 2005, 민속원),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조왕신앙연구**(신영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중국의 가정신앙**(정연학, 한국의 가정신앙-상, 2005, 민속원),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무경 경책 문화와 역사**(구중회, 민속원, 2009), **한국의 부엌**(김광언, 대원사, 1998).

필자 **신영순(申永順)**

조왕중발

상호참조 조왕(605쪽)

정의 부엌을 관장하는 가신인 조왕의 신체로 모시는 작은 물그릇.

역사 조왕의 신체로 바리나 단지를 모신 풍속은 부뚜막 시설이 처음 등장한 기원전 1세기 이후 삼한의 주거유적으로부터 확인된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KC 38호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 왼쪽 뒤에서 점토로 만든 작은 단이 확인되었고 그 위에서 목이 짧은 단지 한 점이 출토되었다. 토기 한 점만 따로 단 위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조리용보다 부뚜막신에 대한 제의에 사용



조왕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 용정마을
2003.7.11
서해숙



조왕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하한마을
2003.7.11
서해숙

된 조왕중발과 같은 성격의 단지로 판단된다. 전남 곡성 오지리 철 10호 주거지 유적에서도 부뚜막 위 뒤쪽에서 너비 12.6㎝, 높이 4.9㎝의 적갈색 완(盌, 주발)형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역시 조왕의 신체로 모셔진 조왕중발의 예로 이해된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삼국시대 15호 수혈건물지의 부뚜막 시설 오른쪽 벽면에서는 마치 감(龕)과 같이 벽체를 판 좁은 공간이 확인되었다. 그 속에서는 깨어진 발(鉢, 바리)형 토기 한 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부뚜막과 인접한 벽에 설치된 조리대와 유사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감의 구조라는 점과 거기서 바리 한 점만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제의적 성격의 조왕중발과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삼한과 삼국시대의 부뚜막 유적에서 조왕중발(단지)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는 『삼국지(三國志)』「동이전」 한(韓)조의 "조(竈)를 호(戶)의 서쪽에 둔다."라는 기록과도 연결된다. 이 기록의 '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뚜막 시설로 보는 견해와 부뚜막신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한의 주거지에서 부뚜막 시설과 함께 부뚜막신앙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이 기록의 '조'는 단순히 부뚜막 시설뿐만 아니라 부뚜막신인 조왕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한과 삼국시대의 부뚜막 시설은 5세기 이후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에 전파됐으며, 이때 조왕중발을 신체로 모시던 풍속도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지바(千葉) 현 시바야마(芝山) 쇼자쿠(壓作) 유적의 58호 수혈건물지에서 8세기 초의 적색 하지키(土師器)가 출토되었으며 토기 바닥 바깥쪽에 '조신(竈神)'이라고 먹으로 쓴 글씨[墨書]가 확인되었다. 지바 현 도가네(東金) 구가다이(久我台) 유적의 주거지에서도 토기 벽 바깥쪽에 '조(竈)'라고 묵서된 하지키가 출토되었다. 도치기(栃木) 현 가미노카와(上三川) 다코미나미하라(多功南原) 유적과 도야마(富山)시 미즈하시아라마치(水橋荒町) 유적에서도 '조신(竈神)'이라고 묵서된 스에키(須惠器)의 저부(底部)와 뚜껑이 출토되었다. 이 묵서토기들의 성격은 조신을 제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부뚜막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전파되면서 조왕의 신체로 토기를 모시던 풍속까지 함께 전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바 현 쇼자쿠 유적에서 출토된 '조신(竈神)'명 토기는 너비 12㎝, 높이 4㎝의 규모나 형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유적의 완형 토기와 유사하여 전형적인 조왕중발의 고례(古例)로 주목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조왕중발의 예는 조왕의 신체로 위패나 부적을 모시는 중국의 예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조왕의 신체는 전국적으로 '건궁'이라 하여 형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조왕중발을 많이 모신다. 조왕중발은 특히 전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개 부뚜막 뒤 벽 아래쪽에 흙으로 조그만 단(돈대)을 세우고 거기에 정화수를 담은 중발을 얹어 놓는다. 정화수는 매일 새벽에 갈아 넣기도 하고 삭망에만 갈기도 하며, 정초 · 한식 · 추석 같은 명절에만 갈아 넣기도 한다. 이는 조왕을 모시는 주부의 정성에 따라 일정치 않다. 밥그릇인 바리(중발) 대신 반찬 그릇인 작은 보시기(조왕보시기)를 사용하기도 하며, 강원도와 서울에서는 작은 항아리에 쌀을 담은 '조왕단지'를 신체로 모시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조왕의 신체는 조왕중발인 경우(전라 · 충청), 신격 위패인 경우(경남), 솥뚜껑을 엎어 놓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리는 경우(경북), 부뚜막 위에 한지와 마른 명태를 걸어 놓거나 조그만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는 경우(강원), 바가지에 삼베 조각을 넣어 선반에 두거나 벽에 벽지나 헝겊을 붙여 놓는 경우(경기), 항아리에 쌀을 넣는 경우(서울), 특별한 신체 없이 '건궁'으로 모시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조왕중발의 형태가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조왕
전남 화순군 청풍면 대비동마을, 1998.7.3, 서해숙

조왕의 신체로 모시는 물그릇은 크기에 따라 조왕보시기나 조왕단지 또는 조왕그릇(조왕물그릇)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종지, 사발, 바가지, 옹자배기, 대접, 뚝배기 등도 조왕을 모시는 물그릇으로 쓰이기도 한다. 조왕중발에 담긴 물은 가족의 역병과 재액을 막고 씻어내는 정화력을 상징한다. 부엌에서 불을 관장하는 조왕에게 물을 올리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물과 불은 정화라는 공통적인 상징성을 지니기도 하며, 아울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과 물을 함께 모신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지역사례 근대까지 각 지역에 남아 있던 조왕중발의 민속을 살펴보면 전남 여수시 거문도의 민가에서는 부뚜막 위 중앙 정면 벽에 흙으로 조그만 단을 빚어 붙이고 그 위에 조그만 중발을 놓고 있는 사례가 많다. 중발 안에는 물이 들어 있고 뚜껑이 덮여 있기도 했다. '조왕물그릇'이라 하여 집안에 탈이 없으라고 모시는 것이었다. 특히 정월대보름, 유두, 백중, 추석, 섣달그믐 등 명절과 부모 제삿날 등에 주로 주부가 밥·반찬·술 등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새벽에 우물물을 떠서 갈아 넣되 초상 같은 유고시에는 물을 갈지 않는다고 한다. 여수시 초도에서도 조왕중발을 비슷하게 모신다. 다만 조그만 나무상자를 짜서 그 안에 조왕그릇을 넣고 부뚜막 뒤 벽 중앙에 걸어 놓는다.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에서는 남편의 밥그릇을 조왕의 신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부뚜막 솥 사이에 높이 15㎝의 작은 돈대(평지보다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대)를 흙으로 빚어 만들고 중간 크기의 보시기에 냉수를 떠 놓는다. 충청도지역에서도 전라도와 같이 부뚜막 뒤에 조왕중발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집을 떠나 객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과 끼니를 위해 주부가 부뚜막 한 곳에 제장을 마련하고 집 떠난 식구의 밥사발에 정화수를 떠 놓는 사례도 확인된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에서는 군대에 간 아들의 밥그릇에 매일 아침에 밥 반 공기 정도를 떠 두었다가 이튿날에 새 밥으로 갈아주는 곳도 있다. 전날 조왕에게 올린 밥은 점심 때 가족이 먹는다. 이는 조왕이 군대에 간 아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4리 대무마을에서는 조왕단지 옆에 찻독그릇(좀도리를 위해 마련한 그릇, 여기서 좀도리란 절미[節米]의 전라도 방언임)을 두었다가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주먹씩을 따로 담아두기도 한다.

조왕의 신체로 모셔지는 조왕중발은 일찍이 기원전 1세기 삼한의 부뚜막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래가 오래된 민속 유물이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조왕을 모시는 신앙이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민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장주근, 한국 민속의 세계 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墨書土器の研究**(平川南, 吉川弘文館, 2000), **삼한의 납일제사와 부뚜막신앙**(박대재,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竈神と竈の祭祀**(内田律雄, 季刊 考古學 87-特集-古代祭祀の世界, 吉川弘文館, 2004), **조왕의 성격과 전승양상**(최숙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2009), **주거와 조왕신앙**(박대재, 한국역사민속학강의 1, 역사문화학회, 민속원, 2010),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부엌**(김광언, 대원사, 1997).

필자 박대재(朴大在)

좀도리

정의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덜어 모아두는 단지.

내용 좀도리는 전라도 방언으로, 절미(節米)라고도 한다. 쌀독에서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 한 움큼씩 덜어 조그만 단지나 항아리에 모아둔다. 쌀을 모아 두는 이 항아리를 일러 '좀도리 항아리', '절미단지'라고 부르며, 경남지역에서는 '종도리'라 부른다. 이 항아리는 주로 부엌 구석에 놓아둔다.

전북 진안에서는 매끼 밥을 하기 위하여 쌀을 가져오면 세 주먹 반을 따로 모아 놓는다. 이렇게 모인 쌀이 한 달이 되면 단지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는데, 이 쌀은 절에 가지고 가거나 제사를 모실 때 사용한다. 이 쌀은 정성이 들어가 있어 복 받은 쌀이라고도 한다. 또한 전북 임실에서는 매끼 쌀을 가져와 밥을 지을 때 식구 1인당 한 숟가락씩 덜어서 좀도리에 모아둔다. 이 쌀을 일러 '성미쌀'이라 부르는데, 쌀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천도교에 가지고 가서 바치기도 한다. 이렇듯 정성을 다하는 것은 곧 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남 광양에서는 일찍이 집안에 모시던 조상단지를 더 이상 모시지 않게 되자 이후로 '좀도리'를 모셨다고 한다. 좀도리는 아궁이 옆에 단지를 놓아두고 매일 아침 밥하기 전에 쌀을 한 줌씩 쥐어 단지 안에 넣어두었다. 이 쌀을 '좀도리쌀'이라고 하는데, 단지가 가득 차면 그 쌀을 팔아서 긴요하게 사용하였다. 영광에서는 조왕단지 옆에 찻독을 놔두는데, 이를 '좀드리쌀'이라 하여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주먹씩 따로 내어 담아 놓는다고 한다.

이러한 좀도리는 여느 가신에게 올리는 의례라기보다는 부녀자들 스스로 근검하며 절약하는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날 매끼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쌀로 밥을 하면서, 그런 쌀을 한 움큼씩 덜어서 저장해 두는 것은 강한 인내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모인 쌀은 정성이 많이 담긴 것이라 믿으며,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요긴하게 사용하거나 남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이처럼 좀도리를 통해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서해숙(徐海淑)

종이성주

성호참조 성주(307쪽)

정의 집(가옥) 안에서 종이로 만들어 모시는 성주신(城主神)의 신체.

형태 성주신은 태고적에 사람에게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신으로 집안에 모시는 여러 가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성주신을 모시는 형태는 종이에 모시는 형태와 단지에 모시는 형태가 있는데, 종이에다 모시는 성주는 종이성주, 단지에다 모시는 성주는 성줏단지라고 한다. 종이성주는 한지를 여러 겹 접어 실타래로 묶었고, 성줏단지(조상단지·신줏단지)는 성주신을 모셔놓은 단지다.

종이성주는 한지(흰종이) 전지를 가로 10㎝, 세로 30㎝ 정도로 여러 겹 접어 장방형(長方形)으로 만들어서 그 상단부에다 실타래로 묶는다. 모양은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다소 다르다. 한지만 접어서 모시기도 하고, 마른 명태에다 실타래만 묶어서 모시기도 한다. 흰 종이는 신을 불러 모으고, 실은 자손들의 장수를 기원한다. 신은 붉은색은 두려워하여 기피하지만 흰색은 좋아해서 멀리서 보고 모여 들어 그곳에다 안식처를 정해 좌정한다. 또 실은 질기고 길어서 자손들의 수명이 실처럼 질기고 길게 장수하여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성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2리, 2011.4.29, 김기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3리, 2011.5.20, 김기설



성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1999.11.28, 강성복

성줏단지는 단지를 대청이나 안방 또는 부엌에 모시는 데, 주로 안방 윗목 구석에다 모신다. 나무판자로 만든 선반이나 통나무로 만든 시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부엌의 천장 안쪽 모서리에 공간을 만들어 올려놓기도 한다. 이때 곡식을 가득 채워 한지로 덮고 무명실로 묶는다.

내용 종이성주의 신체는 흰색 한지를 여러 겹 접어서 실타래로 묶어 안방이나 대청마루 또는 부엌에다 모신다. 성주신은 가택신으로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머물고 있다. 집 안에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주신이 으뜸이 되고, 집안의 제일 어른인 가장을 수호해 준다.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신이 머무는 공간은 집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대청마루의 상량 위, 또는 안방이나 부엌에 있는 대들보 위 동자기둥이다. 특히 대청마루는 제사, 장례, 혼례, 생일잔치, 굿 등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행사를 치르는 중요하고도 신성한 공간이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이성주를 배에다 모시는데, 배에 모시는 성주는 배성주, 배서낭이라고 한다. 신체는 한지나 청실홍실을 기관실에 모시거나 배에 세운 깃발 또는 쌀을 넣은 단지 등에 모신다. 배의 기관실은 배의 심장에 해당되는 중요한 곳으로 이곳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배는 표류한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배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이성주를 모시는데, 종이성주는 보통 처음에 매단 것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매년 새로 갈기도 한다.

성주신을 『신단실기(神壇實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등에서는 성조(成造)라고도 한다. 성주신은 집안(집터)에 있는 터주신, 제석신(帝釋神), 측신(廁神), 지신(地神), 업신, 칠성신(七星神), 조왕신(竈王神), 삼신(三神) 등 여러 가신(家神)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으뜸이 되는 신이다.

서사무가인 〈성주굿〉에 보면 성주신을 모시는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옛날 경상도 안동(안동시 이천동 연응사 일대)에서 태어난 성주는 집짓기가 소원이어서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다가 심고, 집안에 터전을 잡은 다음 각도(各道)의 대목들을 부른다. 대목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계곡을 넘나들며 재목으로 쓸 좋은 나무를 벤다. 하지만 나무를 베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서 도끼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주위에서 돈을 받아 산신제를 지낸 다음 다시 톱질을 하여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 여럿이 톱질을 하다 보니 그만 톱니가 빠져 못 쓰게 되었다. 역시 주위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톱날을 벼르고, 나무를 베어 집을 반듯하게 짓는다. 네 귀에 주춧돌이 반듯한 큰 집을 짓고 나니 온갖 세간이 불어나고, 곳간도 가득히 채워져 잘살게 되었다고 한다.

성주의 신체를 봉안하는 것을 '성주 옷 입힌다.', '성주 맨다.'라고 하는데 봉안은 아무 때나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다. 성주신은 집안에서 가장 높고, 가장 먼저 모시는 신이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거나, 살림이 나서 새로 가정을 이뤄 새 집으로 갈 때, 또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집안에 우환이 자주 끼면 모시던 성주를 없애고, 새로운 성주를 만들어 모시기도 한다. 또 마을에서 별신굿이나 풍어제를 지낼 때는 굿을 할 때마다 한지로 성주신을 새로 만들어 붙인다. 이때 서낭당에서 굿을 하면 서낭당에다 붙이고, 마을회관에서 굿을 하면 마을회관에다 붙인다.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상량고사를 지낸 뒤에 집주인이 종이에 실타래를 묶어 대들보에 매단다. 이때 축문(상량축문)은 읽고 태운다. 상량식 때는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고 나서 모신다. 고사는 무격이나 무꾸리(점바치)를 모셔 지내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제주(祭主)가 되어 비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격을 불러 굿을 할 때는 집을 지은 목수도 함께 불러 무격과 지경을 다지는 흉내를 내면서 성주풀이를 부른다. 한지는 대들보 위 기둥에 매달고 쌀독은 마루나 안방에 둔다. 이때 한지나 쌀독은 성주의 신체를 상징한다.

성주신을 모실 때는 집주인의 나이가 대체로 홀수일 때 모시는데, 특히 27살, 37살, 47살, 57살, 67살일 때 모신다. 27살 때는 2년 성주, 37살 때는 3년 성주, 47살 때는 4년 성주, 57살 때는 5년 성주, 67살 때는 6년 성주를 모신다. 이렇게 성주신을 모셔놓고 풀지 않고 그대로 모셔두었다가 집주인의 나이가 홀수에 드는 해, 특히 10년 주기가 되는 해에 다시 만들어 모신다.

이사할 때 종이성주는 산 속에다 매달아 놓고 간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에 태워 땅 속에 묻기도 한다. 또 집주인이 죽으면 땅에 묻어 없애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고 대우를 하지 않아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태운다. 종이성주는 아궁이에 넣지 않고 바깥에 나가 태우는데, 아궁이에다 태우면 며느리나 딸이



성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1999.11.30 강성복



성주를 받을 때 봉안한 쌀 · 동전 · 숯 · 나뭇가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1999.11.26, 강성복

아기를 가졌을 때 성주신이 벌을 줘 어린아이에게 해가 끼쳐 소아마비에 걸린다고 한다.

종이성주를 태울 때는 손이 없는 방향으로 태운다. 1일과 2일에는 동쪽을 제외한 다른 방향, 3일과 4일에는 남쪽을 제외한 다른 방향, 5일과 6일에는 서쪽을 제외한 다른 방향, 7일과 8일에는 북쪽을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각각 태운다. 9일과 10일에는 어느 쪽에도 손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태워도 괜찮다.

안택고사는 정초나 시월에 성주신을 모셔 놓고 지내는데,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 달라고 지낸다. 정월 고사는 해가 바뀌어 한 해가 시작되는 정초에 지내는데, 이르면 설을 쇠고 그 이튿날(음력 1월 2일)에 지내고, 늦으면 정월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에 지낸다. 또 가을 고사는 추수를 끝내고 시월상달에 지낸다.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고, 시월상달은 한 해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다. 정월 고사는 한 해 동안 집안에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도록 기원하고,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에 풍년이 들길 기원한다. 시월 고사는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치고 추수를 하여 결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지낸다.

고사 일시는 집주인의 생기를 보고 받기 때문에 집안에 따라 다르다. 안택고사를 지내기 위해 날을 받으면 집주인은 대문 앞 양쪽으로 붉은 흙을 여러 무더기 뿌리고, 왼쪽으로 꼰 새끼에 한지를 끼워 대문에다 금줄을 친다. 금줄을 쳐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외부의 잡귀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집주인은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나들이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고

사는 해가 지면 종이성주가 있는 곳에서 지낸다. 종이성주는 집안이나 지역에 따라 좌정하는 위치가 다른데, 주로 대청, 안방, 부엌에 좌정한다. 종이성주 밑에다 제단을 차리고 제사상 위에 촛불을 밝힌 다음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술, 삼실과(대추 · 밤 · 감), 삼색 나물(시금치 · 도라지 · 고사리), 삼탕(어탕 · 소탕 · 육탕), 메, 국, 어물 또는 육고기, 백설기 등이다. 제주(祭主)는 집주인 또는 안주인이 되기도 하고, 치성을 드려주는 직업적인 사람인 무꾸리나 점바치가 되기도 하고, 무격(巫覡)이 되기도 한다.

집주인이 제주가 되어 지내는 고사에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을 한다. 비손을 하면서 가족수 대로 소지를 올린다. 성주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비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꾸리나 점바치를 불러 지내는 고사에서는 무꾸리는 징을 치며 경을 읊고, 무격은 사설을 읊으며 굿을 한다. 이들은 가정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성주신께 가족들에게 끼는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이 깃들도록 빈다. 또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성주신을 모시고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데, 사업이 잘될 때는 매년 같은 성주신을 모시고 가서 치성을 드리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성주신을 새로 바꿔서 치성을 드렸다. 그렇게 했더니 운수 사업이 계속 잘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는 풍년, 어촌지역에서는 풍어, 상가에서는 사업의 흥성을 각각 기원한다.

지역사례 종이성주는 집을 짓고 상량식을 할 때 한지를 명주실에 묶어 상량에 매달아 놓는 것이 보통이다. 신체를 모시는 장소와 방법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소 다른데, 서울지역에서는 한지에 동전을 싸서 접은 다음 깨끗한 물을 부어 대들보에 붙여 놓고 마르기 전에 흰 쌀을 던져 그 위에 붙도록 한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지으면 한지를 한 장 접어 실로 묶고 마루 기둥에 매단다. 대청의 기둥이나 대청의 안방쪽 벽에 한지를 장방형으로 접어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깎아 만든 못으로 네 귀에 꽂고 무명실로 고정시킨다.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에서는 성줏단지에 쌀 또는 보리쌀을 넣어 마루 한 구석에 놓거나 마루 천장의 중보와 마룻대 사이 대공에 한지를 접어 붙인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안방 마루의 문 위나 대들보 위



성주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6.12.13
강성복

에 한지를 접어서 흰 실로 매달기도 하고 집안의 한가운데 있는 상기둥[上柱]에 붙이기도 한다. 중부지역이나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접은 한지 안에 동전을 넣기도 하고, 한지 위에 낟알을 물에 적셔 붙이기도 한다.

강원도 영서지역에서는 상기둥에 한지를 장방형으로 접어 붙인다. 성주 봉안의식에서 사용한 한지를 장방형으로 접어 물에 적셔 대청의 상기둥이나 부엌의 중심이 되는 기둥에 붙인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성주를 받을 때 쓴 한지를 길게 접어 가운데에다 실타래로 묶어서 부엌의 중심이 되는 기둥 윗부분에 걸어둔다. 강원도 영동지역인 강릉에서는 종이성주를 부엌 대들보 위에 있는 동자(동개)기둥에 매달거나, 부뚜막 앞에 있는 기둥에 매달기도 한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의 어떤 집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명태를 성주신으로 모시는데, 명태성주는 거실이나 현관문 위에 매단다. 또 강릉시 구정면 언별리의 어떤 집에서는 단지성주를 모시는데, 성줏단지는 안방에 있는 선반 위나 부엌 천장의 대들보 옆에 있는 벽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바닷가지역에서는 종이성주를 마을회관에 모시기도 하고, 경상도 동해안 바닷가 일부 지역에서는 서낭당에다 모시기도 한다. 동해안에서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의 기관실에다 모신다.

경기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에서는 대청의 대들보 밑에 한지를 반구형(半球形)으로 만들어 붙인다. 성주 봉안의식에서 성줏대에 걸었던 한지에 실과 돈을 넣고 접어서 깨끗한 물이나 막걸리로 적시어 둥글게 뭉친 다음 대청의 대들보 밑이나 안방 윗목에 있는 벽 윗부분에다 붙인다.

평안도지역이나 함경도지역에서는 종이성주 대신에 쌀을 항아리에 담아 대들보에다 봉안한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강릉시, 2008),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백록출판사, 1976), **한국의 가정신앙-상**(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94).

필자 **김기설(金起卨)**

주당풀이

정의 주당을 맞아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주술적으로 치료하여 살려내는 민간의료.

내용 주당풀이는 '주장풀이', '주당맥이', '주장맥이' 등 다양하게 불린다. 주당과 주장은 구개음화로 인한 지역별 차이로 보이다. 무속에서는 풀이, 민간에서는 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풀이든 맥이든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 환자가 생겨서 주당을 맞았다고 진단되면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주당을 풀거나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마을에서 흔히 있는 일종의 주술적 민간의료였다.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증세에 따라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게 된다. 주당을 맞은 사람은 다른 경우와 달리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거나 흑색으로 변하며 정신이 혼몽해진다. 이런 환자가 생기면 주변에서 '주당풀이' 또는 '주당맥이'를 할 준비를 서두른다.

주당을 맞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상가나 혼인집 또는 어떤 잔칫집에 다녀와서 맞는 경우도 있고 집 밖에서 들이나 산 등지를 다니다가 맞는 경우도 있다. 주당을 화장실의 신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어서 주당살을 맞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주당맥이 방법은 마치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마당에 멍석이나 짚을 깔고 환자를 가마니나 이불로 싼 다음 왼새끼로 일곱 매듭을 묶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신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한 환자를 사다리에 태워 마을 사람들은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당에 눕힌다. 풍물을 함께 치는 마을도 있다. 사람들은 눕혀놓은 환자의 주위를 왼쪽으로 돌면서 연장으로 흙을 퍼 끼얹는 시늉을 한다. 무덤을 쓰는 것이다. 이때 환자의 가족들은 절굿공이를 들고 땅을 다지면서 뒤를 따른다. 마치 무덤을 쓸 때 다구질을 하는 형상이다.

환자가 정신이 들면 이것을 그치고 방에 옮겨 눕힌다. 마치 깊은 잠에서 방금 깨어난 것처럼 즉석에서 일어나 걷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주당맥이가 끝나면 가족들은 수고를 해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술상을 차려서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이 아닌 무속인을 불러 주당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속인들은 대명대수(代命代壽)라고 하여 환자를 대신할 영대(靈代)를 만들어 사용한다. 환자의 옷가지에 환자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넣고 명태 한 마리에 둘둘 만다. 안에는 환자의 생년월일을 쓰고 끝에 대명대수라고 써서 넣은 다음 일곱 매듭을 묶는다. 또 약간의 제물을 장만한다. 일곱 접시의 나물과 밥을 마련한다. 이는 생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을 모시는 뜻이다. 무당은 이것들을 가지고 삼거리로 나가서 주당살을 풀어달라고 축원을 하며 주당풀이경을 읊는다. 이것이 끝나면 명태를 싼 옷가지를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주위에 뿌린 뒤 그릇이나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돌아온다. 무속에서 사용하는 주당풀이경은 다음과 같다.

옥황정기에 만물주당 나라땅에 어전주당
하늘에는 벼락주당 청왕씨에 설법주당
지황씨에 베포주당 각마을 각신시에 모시던 주당
신령님전 닿은주당 곡성수에 상문주당
백년해로에 혼인주당 원방타방에 이사주당
안장이장에 두엄주당 삼살방에 팔문주당
부근도당에 군웅주당 인간부정에 왕래주당
거리왕레에 선황주당 산신벌전에 산신주당
삼신벌전에 삼신주당 수백부정에 용궁주당
신령님전에 급살주당 오행육갑에 악살주당
선길화합으로 돌려 내어 주당살을 내시어 설설히도 풀어 내가 봅시다.

주당풀이 광주시 남구 칠석동, 1970년대, 지춘상



마당에 환자를 눕히고 주위를 돌면서 다구질소리하기



환자를 사다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돌기

가정팔신에 닿은주당 안방에는 대감주당
대청에는 성주주당 부엌에는 조왕주당
마당에는 지신주당 터전에는 명당주당
처마밑에는 제주주당 마루끝에는 봉당주당
앞문에는 수문장주당 뒷문에는 화주주당
뒷간에는 손각시주당 우물에는 수맥주당
인간에게로 닿은주당도 설설히도 풀어갑시다.
시아버지에 닿은주당 시어머니에 닿은주당
형제간에 닿은주당 신랑신부에 닿은주당
자손궁에 닿은주당 잔치상에 닿은주당
대마우마에 닿은주당 만신몸주에 닿은주당
내상문에 들은주당 사자상문에 처진주당
노중수비가 따른 주당 부정일체를 소제하고 주당살을 풀어 주소사.

동방 청제주당 남방 적제주당 서방 백제주당 북방 흑제주당 중앙 황제주당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중앙 삼백팔십사문에 드는 주당살을 풀어낼제
외주당 잠겨놓고 내주당 잠겨놓고 설설히도 풀어갑시다.

옴 급급 여률령 사바하

민간에서 하는 주당맥이는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간단한 모의 장상례 또는 가매장을 한다. 이에 비해 무속인이 하는 주당풀이는 이른바 영대를 이용한 대명대수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주당을 맞은 사람은 일단 죽음에 이르렀다는 진단은 동일하다. 즉 주당을 맞으면 사람의 육신에 있던 혼령이 나간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가매장해서 혼을 다시 맞아들이거나 대신 죽어나갈 영적인 장치물을 마련하여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지역사례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1구에서는 주장맥이(주당막이)라고 부른다. 주장맥이는 상가, 혼인집, 회갑연, 제삿집에 가서 지골을 맞게 되었을 때 한다. 운이 나쁘면 산에 가서도 맞게 된다. 특히 혼인집에 갔을 때 굴뚝 옆에 서 있다가 '가매살'을 맞을 수도 있다. 지벌을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장맥이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결국 낫지 않을 경우 점쟁이에게 문복하여 하기도 한다.

주장맥이는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되 약식으로 준비한다. 간단히 사자상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맥이를 한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환자를 홑이불로 감싼 다음 왼새끼로 일곱 매듭을 묶는다. 왼새끼는 삼 껍질로 꼰다. 이것이 없으면 짚으로 대신한다. 그 위에 깨끗한 떼를 세 장 떠다가 올려놓는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괭이, 삽, 쇠스랑 등 연장을 가져와 환자 주위를 왼쪽으로 세 바퀴, 때론 다섯 바퀴나 일곱 바퀴를 돌면서 흙을 파 덮는 시늉을 한다. 또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상주로 가장하여 절굿대(절굿공이)를 들고 땅을 찧으면서 울며 따른다. 이때 달구질소리를 한다.

일단 이것이 끝나면 재빨리 환자를 방으로 옮기고 환자 대신 삼대나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쓴다. 사자밥을 집 주위에 뿌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이 허수아비와 사자상에 놓아둔 닭을 들고 삼거리로 나간다. 삼거리에서 허수아비는 불에 태우고, 닭은 머리만 잘라 길옆에 묻는다. 이것이 다 끝나면 환자의 집에서는 간단히 음식을 장만하여 주장맥이를 한 사람들을 대접한다.

지금도 마을에 지골을 맞아 환자가 생기면 주장맥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주장맥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며 시신은 멍이 든 것처럼 시퍼렇다고 한다. 주장맥이 소리는 아래와 같다.

〈 앞소리 〉	〈 뒷소리 〉
오헤이 달구	오헤이 달구
이제 가시면 어느 때 나오실라요	오헤이 달구
오실 날짜나 일러를 줍소서	오헤이 달구
오시마 오시마 오시마드니	오헤이 달구
명년 요때는 또다시 오시마드니	오헤이 달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성남마을에서는 갑자기 아파서 앓아누운 사람이 있을 때 주당맥이를 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아픈 사람을 이미 죽었다고 가장하여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주장맥이를 하게 되면 먼저 굿을 칠 사람들이 환자가 있는 집으로 이동한다. 환자의 집에 도착하면 먼저 짚을 준비해 일곱 개의 왼새끼를 꼰다. 왼새끼 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짚을 얹는다. 그러면 방안에 있는 환자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 눕히고 바닥에 깔아놓은 왼새끼줄로 일곱 매듭을 묶는다. 환자를 묶으면 굿꾼들이 환자 주위를 돌면서 주장맥이굿을 친다. 치배들이 주장맥이굿을 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쇠스랑을 가지고 환자를 끌어당긴다. 쇠스랑으로 새끼줄에 끼워 이쪽 저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주장매자, 주장매자."하고 외친다. 한참동안 주장맥이굿을 치다가 삼채굿으로 가락을 넘겨 맺는다. 굿을 맺으면 한 사람이 칼을 가져온다. 칼을 든 사람은 환자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서서 대문을 향해 칼을 던진다. 이렇게 하면 주장맥이가 끝난다. 주장맥이가 끝나면 새끼줄을 풀고 환자를 방으로 옮긴다. 환자를 묶은 새끼줄은 집 밖으로 가져가서 태운다.

참고문헌 **고창의 마을굿**(고창농악보존회, 나무한그루, 2010), **전남 지방의 주당맥이 고찰**(나경수,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1988), **주당풀이와 경문**(blog.daum.net/kos8496/16175959).

필자 **나경수(羅景洙)**

주부(主婦)

상호참조 대주(131쪽)

정의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을 가리키며, 가정신앙과 관련해 의례를 주관하고 직접 의례 수행자가 되는 한 집안의 핵심 여성을 일컫는 말.

내용 유교식 제사 의례와 관련해서는 주제지인(主祭之人)의 처, 즉 제사를 주관하는 남성의 아내를 뜻하기도 한다. 전통적 종교의례의 대표인 제례의 경우 주제자(主祭者)는 주인(主人)으로 표현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주인은 종자로서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主人謂宗子主此堂之祭者)로 풀이되어 있으며, 주부는 주인의 처를 일컫는다(凡主婦謂主人之妻). 여기서 종자(宗子)는 대종 뿐만 아니라 소종의 직계장



제물을 준비하는 주부
국립민속박물관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질서의 준거로 작용한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는 성(性)에 대한 차별적 가치 부여와 성별(性別)에 의한 역할 구분이다. 특히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음양의 논리에 입각해 남녀 관계를 내외의 사회적 공간 구분 속에 가두고 활동의 장을 구별해왔다. 이에 따라 제사를 지낼 때도 주부는 서쪽에, 주인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서며, 각각 맡은 역할이 있다. 제사 의례의 절차상에서도 주부가 맡은 역할이 있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시켜 보아도 주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가정신앙에서의 주부 역할 역시 이러한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바깥일을 담당하는 가장과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로 가정 내 역할이 나뉜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신앙 활동으로서 가정신앙의 주관자는 대체로 주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다양한 양태와 범주를 고려해보면 의례의 주관자가 반드시 주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시적 시간 인식과 연결되어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안택고사 등은 일반적으로 주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축원이나 의례 방식 등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의례 지식이 요구되는 비주기적 의례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제의를 받는 신의 성격, 의례 방식,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주나 터주, 때로는 조왕신을 중심으로 가장이 의례를 행하는 사례도 많으며, 전문 사제자인 무당이 의례를 주관하고 주부는 보조적 입장에서 움직이기도 한다. 식구로만 수행되는 고사 형식의 의례에서도 주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 가장 연만(年滿)한 부인, 즉 주부의 시어머니들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이 일에 익숙해지고, 부엌일을 통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신앙 의례나 축원의 말도 축적된 경험 속에서 풍부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가를 만들어낸다.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이 근대적 교육과 가치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적 의례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잃은 것과는 반대이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신앙에 있어서 여성 중심적 편향을 만들어낸 원인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속 상에서 가정신앙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을 '기주(祈主)'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로 무당이나 만신, 독경쟁이 등 전문적 사제자가 자신에게 제의를 의뢰한 집의 주부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그 집안의 주장이 되는 남자를 대주(大主)라 부르는 것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지역과 제보자에 따라서는 이 말이 지주, 계주 등으로 달리 불리어 조사자의 오해를 낳는 수도 있지만 발음상의 변이일 뿐이다.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제의가 기원을 담고 있는 의례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비록 전문 사제자가 개입하지만 기원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가정의 주부임을 강조하는 말로 보인다.

참고문헌 **朱文公家禮, 가정신앙에서 남 · 여성의 의례적 위치**(안혜경, 실천민속학연구 7, 실천민속학회, 2005), **성주신앙의 지역별 양상과 그 의의**(임승범,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안혜경(安惠敬)**

죽산이

표제어 올레신(500쪽)

중구차례(重九茶禮)

정의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차례(茶禮). 설,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동지 등과 함께 명절에 지내는 절사(節祀) 가운데 하나이다. 구일차례(九日茶禮) 또는 중구제사(重九祭祀)라고도 한다.

내용 중구차례(重九茶禮)는 첫째로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의 성격을 지닌다. 추석차례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작물의 작황과 추수의 시기에 따라 수확이 미루어지는 경우 음력 9월 9일 중구차례로 대체하였다.

둘째로 추석차례를 지내려고 할 때 집안에 부정이 끼게 되어 중구(重九)로 미루는 경우이다. 민속신앙에서 부정은 재앙이나 질병을 유발하고, 악귀를 자극하거나 신령의 노여움을 촉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양수가 겹친 중구에 차례를 지낸다.

셋째로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중구에 무연고의 조상이나 무사귀신(無祀鬼神)에게 차례를 지낸다. 조상으로 좌정한 신들은 추석차례에서 대접을 받지만 그 밖의 귀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전염병이 돌 때 무사귀신과 역신(疫神)에게 제사한 여제(厲祭)의 기록이 곳곳에 나타난다. 무사귀신은 인간에게 탈을 주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구에 차례를 지낸다.

넷째로 특정 조상을 위해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의 진병돈 씨 일가에서는 4대조인 위정과 3대조인 화잠 내외의 차례를 중구에 지낸다. 대체로 가을에 신곡(新穀)을 수확하면 조상에게 천신하기 위하여 차례나 시제(時祭)를 지낸다. 문중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시기가 일정치 않으나 추수가 끝난 뒤에 날을 골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음력 시월에 모시지만 그밖에 한식, 삼짇날, 중구 등에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경북지역에서는 추석에 신곡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거나 출산 또는 초상을 치르게 되어 미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고령, 청도지역에서는 중구에 주인 없는 귀신의 제사를 지내면 좋다고 하여 지내는 집안이 있다. 영일(포항시)지역에서는 이날 방 구석 시렁의 재미단지에 신곡을 넣어둔다. 안동, 달성, 영일, 월성(현 경주시), 영덕, 금릉(현 김천시) 등 지역에서는 이날 양수가 겹치는 날이라 하여 무슨 일이든 마음 놓고 한다.

인접한 충북지역에서도 추석에 햇곡식이 나지 않거나 차례를 지내지 못한 집안은 보편적으로 중구에 차례를 지낸다.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에서는 이날 후손이 없어 추석에 차례를 드리지 못한 마을의 산소에 시사(時祀)를 지낸다.

전남의 강진, 영암, 무안 등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구에 떡을 하고 성주에게 밥을 올려 차례를 지냈다. 고흥과 완도지역에서는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귀신의 제사라 하여 제물을 차려놓는 가정도 있다.

함남지역에서도 기후 악화로 음력 팔월에 햇곡식이 나지 않은 때에는 중구에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황해도지역에서는 이날 산신의 탄신일이라고 하여 마을의 산신당에서 당제를 지냈다. 이때 친척 가운데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문경민속지 세시풍속**(문경새재박물관 외, 민속원, 2006), **충남 연기군의 가정신앙 구일차례 고찰**(윤동환,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문화재관리국, 198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도 · 평안남북도**(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

필자 **윤동환(尹東煥)**

지붕신

정의 지붕을 튼튼하게 받들어 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잡귀와 부정을 막는 동시에 복을 깃들게 하는 가정신앙 신격의 하나. 지붕신에게 올리는 특별한 의례는 전해지지 않는다. 지붕의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 끝에 바래기기와(망와 또는 망새)를 장치하거나 지붕에 주물(呪物)을 장치하여 지붕신앙을 표현할 뿐이다.



용두형 용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구미시 도리사 선방, 2007.2.24, 이영진



용트림을 문양한 용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안동시 오천면 군자리 탁청정 종가, 2007.6.15, 이영진



용면와를 안치한 용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안동시 오천면 군자리 침락정, 2007.6.15, 이영진

역사 언제부터 지붕에 지붕신을 안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지붕신으로 믿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바래기기와나 귀면와(鬼面瓦)를 사용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불교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념비적 건물 지붕에 각종 문양을 새긴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발굴유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잡귀를 물리친다는 벽사(辟邪) 또는 축귀(逐鬼)에 대한 관념이 불교를 통하여 전파되었고, 실제로 불교사찰의 지붕을 비롯한 곳곳에 벽사를 위한 장식이 많았던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삼국시대에 이미 지붕신 신앙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집터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고구려시대에는 지붕의 내림마루 끝에 바래기기와를 달았다. 또 바래기기와를 비롯해 수막새와 반와당(半瓦當), 지붕마루의 차꼬막이 위에 이중으로 얹은 부고 등에 귀면와를 사용하였다. 백제시대에는 서까래 막새기와에 귀면와를 사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기와지붕의 내림마루와 귀마루 끝에 바래기기와를 붙였으며, 많은 경우 귀면와를 사용하였다. 이런 추세는 고려와 조선시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지붕을 중요시한 나머지 벽사를 위해 지붕에 바래기기와나 주물을 안치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지붕신 신앙은 잡귀와 부정을 막고[辟邪] 복을 깃들게 하기 위해 바래기기와를 지붕의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 끝에 붙이는 방법과 바래기기와 외에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 주물을 지붕의 일정한 곳에 안치하여 잡귀와 부정을 막는 방법 등으로 나타난다.

바래기기와는 망와, 망새, 망새기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붕의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 끝에 붙이는 기와를 특별히 바래기기와라고 부른다. '바래기기와'라는 말의 '바래기'와 바래기기와의 또 다른 이름인 '망와'와 '망새기와'에 들어가는 한자어 '망(望)'은 '멀리 바라보다.'라는 뜻이다. '망본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쓴다. 실제로 바래기기와는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인 용마루 양 끝과 지붕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팔방을 망보듯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바래기기와는 일반적인 기와라기보다 망보듯이 지키면서 집(건물)으로 들어오는 잡귀와 부정을 막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불어넣은 상징물이다. 지붕의 사방팔방에 바래기기와를 위치시킨 것은 잡귀와 부정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도이다.

바래기기와는 암키와를 뒤집어 붙이거나 반기와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궁궐, 사찰, 양반 사대부가, 향교, 재실 등 기념비적 건물에는 특수한 모양으로 제작하거나 특별한 문양을 새긴 바래기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바래기기와의 특수한 사례를 보면 용마루 양 끝에 붙이는 바래기기와의 경우 모양에 따라 치미(鴟尾), 취두(鷲頭), 용두(龍頭)라고 부른다. 치미는 상상의 날짐승 꽁지 모양을 특별하게 제작한 기와이다. 이것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중기까지 성행하다가 취두가 도입되면서부터 점차 쇠퇴하여 조선시대의 지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북 경주 황룡사지에서 발굴된 치미는 높이가 2m가 넘는 대규모의 것이고, 경주 기림사에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치미가 보존되어 있다. 취두라 부르는 바래기기와는 독수리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기와로서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기념비적 건물의 취두에는 금박을 입히고 제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독수리와 같은 새의 꽁지와 머리 모양의 바래기기와를 장식한 이유는 새가 둥지를 수호하듯 부정과 화재 등을 막아 달라는 뜻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용마루 바래기기와에 용머리, 즉 용두가 추가되었다. 이 또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용으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민간의식의 산물이다.



쌍용문 기와를 용마루에 장식한 바래기기와
경북 안동시 오천면 군자리 광산김씨 재사
2007.6.15
이영진



탑형 용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영덕군 괴시리
2007.2.5
이영진

지붕의 내림마루와 귀마루 끝에 붙이는 바래기기와는 일반적으로 암키와와 반기와를 사용하였지만 특별한 문양을 넣은 기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형을 보면, 이른바 귀면와라고 하여 용의 안면(顔面)이나 용의 몸체를 새긴 용 문양, 봉황과 같은 서조(瑞鳥) 문양, 천마와 같은 서수(瑞獸) 문양, 기하학적 문양을 새긴 기하 문양, 명문이나 '복(福)'자, '수(壽)'자와 같은 문자 문양, 사람의 얼굴을 새긴 인면 문양, 불교사찰에 많이 보이는 불교 관련 문양 등을 새긴 바래기기와가 보인다. 이 모두가 초자연적인 힘을 불어넣어 집을 수호하려는 의도이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널리 알려진 사례는 귀면와이다. 귀면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귀신 얼굴을 새긴 기와라는 뜻이다. 지금 학계에서는 귀면와의 문양이 귀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용이라는 주장과 도깨비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용면형 귀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안동시 군자리, 2007.6.15, 이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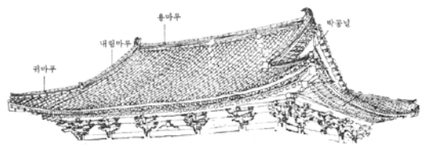


탑형 귀마루 바래기기와
경북 영덕군 괴시리 괴시파 종택, 2007.2.5, 이영진

바래기기와 외에 지붕에 주물을 장치하여 지붕을 신앙하는 방법도 많이 보인다. 잘 알려진 사례로 잡상(雜像), 일월기(日月旗), 지네철 등을 들 수 있다.

잡상은 지붕 내림마루의 등에 안치하는 상징물로서 잡귀와 부정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안치한 벽사용 상징물이다. 잡상은 중국소설 『서유기(西遊記)』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신[土神]을 형상화한 모형을 기와처럼 구운 것이다. 잡상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지신은 대당사부(大唐師傅, 삼장법사), 손행자(孫行者, 손오공), 저팔계(豬八戒), 사화상(沙和尙, 사오정), 마화상(麻和尙), 삼살보살(三煞菩薩), 이구룡(二口龍), 천산갑(穿山甲), 이귀박(二鬼朴), 나토두(羅土頭) 등이다. 일반 주택에는 잡상이 보이지 않는다. 궁궐의 전각이나 행궁, 성문, 능(陵)의 정자각 등 기념비적 건물에 잡상을 안치하였다.

일월기는 지붕 용마루 양 끝에 꽂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깃발을 말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중반



지붕구조도

에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나온다. 여기에는 "해와 달로부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을 오려서 나무에 매달아 지붕 용마루에 꽂아 액운을 막는다."라고 적혀 있다. 기록대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일월기를 만들어 지붕에 꽂고 한 해 동안 두는 풍속이 있었다. 일월기를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 원을 그린 뒤 나뭇가지에 오려 붙이는 방법, 달을 상징하는 검은색 원을 그려 나뭇가지에 오려 붙이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정방형의 한지를 두 장 오려 하나에는 한자로 '일(日)'자를 쓰거나 원을 그린다. 다른 한 장에는 한자로 '월(月)'자를 쓰거나 공간에 검은 칠을 한 원을 그린다. 지붕에 일월기를 꽂는 이유는 음양의 기를 조화시켜 액운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지네철은 지네 모양으로 제작된 목재 고정용 철물이다. 기와지붕의 한 형태인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의 합각에 지네철이 많이 보인다. 합각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용마루 밑에 설치된 삼각형의 벽면을 말한다. 이 삼각 벽면의 가장자리를 보면 두 개의 박공널을 '인(人)'자 모양으로 세운 뒤 맞붙는 자리를 흔히 지네철로 고정시켰다. 지네철은 두 개의 박공널을 고정시키는 실용성도 있지만, 화재를 방지하고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네는 많은 발을 달고 있으며, 습지에서 서식한다. 이에 따라 민속에서는 지네의 많은 발처럼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한편 지네가 습지, 즉 물을 좋아하듯 화재를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지붕에 지네철을 부착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지역사례 대부분의 기와지붕에는 바래기기와를 장식하여 왔다. 일반적으로는 암키와나 반기와를 사용하였지만 궁궐, 사찰, 양반 사대부가 등에는 특수한 모양의 바래기기와를 장식하였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 대웅전과 경북 구미시 도리사 선원 등에는 용마루에 용머리형 바래기기와를 장식하였다.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에는 용마루에 보주를 얹은 용면와를 얹었다. 구미시 도리사 극락전과 서울의 경복궁, 남대문 용마루에는 치미형 바래기기와를 얹었다. 경북 안동시 군자리 광산 김씨 고택에는 용마루, 귀마루, 내림마루에 용면와나 용틀임 와당을 바래기기와로 사용하였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와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서는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에 암키와와 수키와로 탑을 쌓은 뒤 기와를 세우는 탑형 바래기기와를 안치하였다.

주술형 지붕신격인 잡상은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궁궐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경복궁의 경우 임금이 머물던 근정전에 7개, 연회를 하던 경회루에 11개, 세자가 머물던 자선당에 9개, 수정전에 6개, 협길당에 5개, 자경전에 4개, 청연루에 3개의 잡상이 얹혀 있다. 덕수궁 중화전에는 10개, 창경궁 명정전에는 5개의 잡상이 있다. 덕흥대원군묘를 관리하던 흥국사의 대웅전, 만월보전, 영산전에도 잡상이 있다. 덕흥대원군은 조선 선조의 아버지이다.



내림마루 끝에 용면와를 바래기기와로 안치
경북 안동시 오천면 군자리 침락정
2007.6.15
이영진



지네철
대구시 달성군 묘골마을
2007.6.16
이영진

충남지역의 무속에서는 지붕신을 용마장군 또는 용마신장이라고 부른다. 무속에서 용마장군은 천상계를 지키는 신장의 하나이다. 용마장군은 무신도에도 보인다. 무신도에서 용머리는 한 말을 타고 활을 높이 치켜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의의 지붕에 신격을 안치하고 신앙하는 이유는 건축 구조상 지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붕은 가옥의 꼭대기 부분을 덮어 비나 눈, 햇볕, 이슬 등을 막는다. 지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건축술이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지붕을 하늘이나 인체의 머리에 비유할 정도로 중요시해 왔다. 집의 기단부를 땅, 지붕을 하늘, 기둥과 벽채를 사람에 각각 비유하였다. 사람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살듯 집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여긴 것이다. 민간에서 초가지붕 용마루에 성주신의 상투를 상징하는 '유지기'를 만들어 세우듯 지붕은 성주신의 머리, 기둥은 성주신의 몸통, 기단은 성주신의 다리라고 믿기도 한다.

민간에서 지붕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상서로운 기운, 악운, 죽은 자의 영혼 등이 지붕을 통하여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북 남원지역에서는 하늘의 복이 들어오라고 지붕 용마루 한가운데에 수키와 두 장을 '팔(八)'자로 세운다. 이것을 복문(福門)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높듯 지붕도 높은 곳이다. 민간에서는 높은 곳을 신성시하였다. 높은 곳은 신성한 하늘과 맞닿아 서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붕 또한 하늘과 맞닿아 서로 통하는 곳으로 믿어 왔다. 이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흉화복(吉凶禍福)도 지붕을 통하여 드나든다고 믿는다. 지붕을 신성시하고 신격과 주물을 안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신성한 지붕에 지붕신을 안치하여 지붕을 튼튼하게 받들어 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잡귀와 부정을 막는 동시에 복이 깃들도록 기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조사연구입문**(이영진, 학문사, 2000), **신라와당**(국립경주박물관, 2000),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사, 1992),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집지킴이**(김광언, 다락방, 2000), **와당과 망와**(최민정, vmspace.com/kor).

필자 **이영진(李榮鎭)**

지신(地神)

상호참조 지신제(634쪽), 터주(707쪽)

정의 집터와 집안 대지를 지키고 관장하는 신.

내용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 지신의 관념은 각종 시조신화(始祖神話)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국가 창건주의 배우자인 여성은 모두 지상에 출생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삼성혈(三姓穴) 신화〉에서는 남성으로서의 천신(天神)에 종속적이지 않은 지모신(地母神) 관념의 흔적도 발견된다. 이는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라는 천부지모(天父地母)라는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지배이념을 반영하는 국가적 의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례인 길례(吉禮)에서 천신에 대한 의례로 환구(圜丘), 지신에 대한 제사로 사직(社稷)이 각각 거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천자만이 지내는 천제(天祭)를 제후의 나라에서 지낼 수 없다고 하여 천신에 대한 제사가 공식적으로는 사라지지만 천부지모의 인식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민간신앙 대상으로서의 지신은 마을공동체의 수호신 역할, 한 가정의 복락과 연관된 가신 역할을 한다. 제주도지역에서 본향신인 토주관(土主官)이나 지신밟기에서의 지신은 마을공동체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각종 세시명절에서나 필요에 따라 지내는 고사(告祀) 또는 안택(安宅)의 대상으로서의 지신은 가신 역할을 한다. 마당밟이 · 뜰밟기 · 매귀(埋鬼) · 걸궁 등으로 불리는 지신밟기는 정초에 마을과 가정의 안녕과 농사의 풍작을 위해 주산(主山) 지신, 당산(堂山) 지신, 각 가정의 지신을 밟는 마을공동체의 축제이다.

이 중 가신(家神)으로서의 지신은 집안 대지를 지켜주는 신이다. 명칭으로는 지역에 따라 철륭, 터주, 토주, 터줏대감, 텃대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명칭은 자칫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모두 집터를 관장하는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 모시는 장소는 집 뒤란이나 집 옆에 위치한 장독대, 집 뒤 담장 근처이다. 집전하는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다.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주체가 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의례를 수행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는 남성들의 협조로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제주도지역에서는 남성들의 주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지신에 대한 의례는 쌀을 봉안하는 양상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벼, 쌀, 볍씨 등을 담은 단지를 모시고서 매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지를 모시지 않는 대신 명절이나 특정일에 지신이 좌정한 곳에 상을 차려놓고 비손하는 곳도 있다. 안택을 하거나 텃고사를 지낼 때 지신이 좌정했다고 믿는 곳에 상을 차려놓거나 풍물을 치기도 한다. 이 밖에 집안에 유고가 있거나 큰일을 앞두었을 때 지신 앞에 물동이나 물 한 그릇을 받쳐놓은 채 비손하는 경우도 있다.

지신은 집집마다 모두 모시는 것이 아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집터가 센 경우나 산자락 아래에 집이 있는 경우 모시는 신으로 인식한다. 이에 반해 충청도와 경기도지역에서는 집터를 관장하고 액운을 걷어주며 재복을 주는 신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다. 지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성주보다 지신이 더 크고 무서운 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북지역에서는 지신에게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공을 드리지는 않는다. 매년 정월이 되면 땅을 돋우고 독경을 하는 것으로 지신을 위해준다. 잘사는 집에서는 무당이나 걸립패를 불러들여 굿을 치기도 한다.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지신을 잘 달래야 하기 때문에 집터를 다질 때와 새집을 지은 다음에 독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굿을 치는 것으로 지신을 위한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의 박옥남 씨는 시어머니 때부터 지신을 모시던 것을 이어서 모신다고 한다. 매년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지 등 일 년의 네 번 명절에 장만한 음식 그대로 토방의 지신을 위해 차려놓는다. 이를 '지신밥'이라고 한다. "내가 발 벗고 밖에 지신 땅을 디디면 (음식) 잡순 양반이 도와주신대. 그 공이 철륭공보다 더 크다 그래. 근게 지신밥이 내가 흙밭을 딛고 댕기니께 그곳에 차려놓는 거야. 보름에는 오곡밥을 해갖고 오곡밥을 갖고 댕기면서 다 흐치레는 거야. 집터에다가." 그러면서 박옥남 씨는 지금도 대보름 때 날새기 전에 밥을 해서 지신밥을 뿌려놓는다. 토방에 차려놓는 밥은 조금 덜어내 밖에 버리고, 뿌리는 밥은 따로 담아놓고 토방에 차린 밥과 섞어서 뿌린다. 한편 집터가 세면 토방에 밥을 일찍 담아두었다가 첫닭이 울 때 지신밥을 뿌린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하여 밤을 지새우고 있다가 첫닭이 울면 지신밥을 뿌리기도 한다. 지신밥을 뿌린 뒤에 잡신을 몰아내기 위해 "진 것 가리자! 진 것 가리자!"라고 말하며 소금물을 뿌리기도 한다. 이처럼 지신을 모시는 행위가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 동면지역에서는 지신, 터주를 모시거나 공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집안 식구가 탈이 날 때 맥이 형태로 나타난다. 탈이 난 것을 '동티', '동정'이라 한다. 집안의 흙을 함부로 파거나 나무를 베거나 좋지 않은 물건을 집안으로 가지고 오거나 물건을 옮길 때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군가 탈이 생긴 것이다. 이때 약을 써도 낫지 않으며, 심한 경우 죽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처럼 동티가 나는 것은 집터가 세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탈을 막기 위해 '동정잽이'를 한다.

화순군 도암면지역에서는 집터가 너무 세면 옛날부터 호랑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다가 돌아간다고 한다. 이러한 방지책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엄나무 가시를 걸어두거나 흰 개를 키우기도 한다. 집터가 세서 탈이 날 경우 집안 식구가 아프며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한 마을 사람이 집안의 살구나무를 베었더니 아들 오형제 가운데 셋째 아들이 병이 나서 동정잽이를 백 번이나 했지만 낫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 또한 소태나무 껍질은 무척 쓰기 때문에 아이들 젖 떼는 데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젖을 떼기 위해 집 뒤란에 있는 소태나무 껍질을 베었다가 동티가 나는 바람에 고생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집 안의 나무를 벨 때는 특히 조심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동티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베면 땅에 묻혀있는 끌텅에 못을 세 군데 박거나 열십자를 긋거나 쑥불을 피우고 고추나무를 심는다. 이처럼 동정잽이는 동정난 곳에서 하며, 미리 대문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금줄에는 한지를 달아 높이 매단다. 이는 물동이나 나무를 지고 갈 때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정이 나면 성주에 밥을 차리고 비손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흙으로 인해 동정이 나면 삽을 엎어놓고 호미 뒷부분을 두드리면서 경을 읽고, 나무를 베어서 동정이 나면 도끼를 놓아두고 자귀를 두드리면서 경을 읽는다. 경을 읽을 때는 단골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가 외면서 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동정잽이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 경을 읽게 하기도 한다.

전남 장흥군 부산면지역의 경우 집터가 넓은 집에서는 으레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보리, 쌀, 콩, 수수, 녹두 등을 한데 섞어 양푼에 담아 집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흩뿌린다. 이를 '텃밥 주기'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요즘도 계속한다. 텃밥 주기는 명절이나 제사 때는 하지 않고 주로 정월대보름에 한다. 집터를 관장하는 지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한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지역에서는 명절 때 텃밥을 주는 것으로 지신을 모시고 있다. 명절 때 차례를 지낸 뒤에 집 뒤란과 앞마당, 행랑채를 돌면서 밥을 숟가락으로 뿌리고 다닌다. 밥을 뿌릴 때 "텃밥 주자, 텃밥 주자, 진대밥 주자, 진대밥 주자." 하고 읊조린다. 박매실 씨의 시어머니는 밥을 뿌리지 않고 그 대신 집 뒤란의 다섯 군데에 밥, 떡, 나물 등을 차려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네가 깨끗하지 않거나 궂은 데를 다녀오면 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신에 대한 특별한 신앙 행위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집터를 누르기 위해 정월에 단골을 불러 액막이를 한다. 그리고 집 안에서 오리나 개를 키우면 짐승 소리가 집터를 누를 수 있다 하여 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를 가장 깨끗한 곳으로 여기고 여기에 터주와 지신을 모신다. 터주와 지신은 성격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집터를 관장하는 신령이다. 이 지역에서는 '터줏단지'를 모신다. 작은 항아리에 쌀, 벼를 담고 그 위에 일종의 보호구로서 볏짚으로 만든 주저리를 씌운 형태가 일반적이다. 초여름과 늦가을에 각각 햇보리와 햅쌀이 나게 되면 묵은 나락이나 곡식을 덜어내고 신곡으로 갈아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 년에 한 차례만 햇나락이나 햅쌀을 교환해준다. 시월상달에는 짚주저리도 새것으로 깨끗하게 씌워준다. 터줏단지를 모시는 것을 대신하여 특정일에 음식을 차려놓기도 한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남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지역에서 터주는 집의 터, 집안의 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성주가 남성 주인인 대주의 보호신이라면 터주는 여성 주인인 주부의 보호신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터주는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쌀이나 벼를 담은 작은 단지에 짚으로 엮은 주저리를 덮어두는 형태로 모신다. 그리고 명절이나 가을고사를 지낼 때 으레 터주 앞에 떡을 바치거나 음식을 차려놓는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성주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성주보다 지신의 성격을 포함한 터주가 훨씬 강하게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터주는 집터를 관장하고 액운을 걷어주고 재복을 주는 신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다. 터주는 집 뒤란이나 장독대에 모신다. 쌀 봉안 양상은 벼, 쌀, 볍씨, 돈 등을 담은 단지 위에 짚주저리를 씌워놓는 '터줏단지형', 단지를 대신하여 막대기나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씌워놓는 '터줏가리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터줏가리형은 터줏단지형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간소화 경향에 따른 변이형으로 이해된다. 터주는 집 뒤뜰이나 집 뒤뜰의 장독대 근처에 쌀 담은 단지를 놓아둔다. 가정에 따라서는 한 개 또는 두 개를 모시기도 한다. 특히 여느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은 터주를 업(업양)과 함께 모시고 있고 신체 또한 같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가을고사를 지낼 때 으레 터주 앞에 떡을 바치거나 음식을 차려놓는 점은 전국적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터주를 '오방지신'이라고 부르면서 텃고사를 지낼 때 성주 다음으로 오방지신을 모신다. 텃고사는 집안과 자손의 평안, 생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정기적 의례이지만 주로 정월이나 시월에 많이 모신다. 명칭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로 텃고사, 안택으로 부른다. 안택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명칭인 데 반해 텃고사는 이 지역의 독특한 명칭이다. 텃고사에서 모시는 신격은 성주, 조왕, 오방지신(또는 터주지신), 조상, 우마신 등이다. 지역에 따라 삼신, 제석, 칠성을 함께 모시기도 한다. 강원도지역은 일반적으로 텃고사를 남자인 대주가 주관한다. 고성지역처럼 여자가 주재하는 곳도 있지만 대주 중심의 텃고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경북지역은 성주와 용단지의 신앙이 강한 반면에 지신과 터주 신앙은 약한 편이다. 이 지역 터주도 땅의 신으로서 집안의 액운을 걷어주고 집터를 맡아 재복을 준다. 모시는 양상은 쌀 담은 단지를 모시는 형태, 단지를 모시지 않은 대신 정기적 또는 한시적으로 상

을 차려놓는 형태, 아예 모시지 않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영덕, 영양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터제를 모신다. 반면에 청송, 포항지역에서는 집에 우환이 있거나 집터가 세서 탈이 나면 한시적으로 터주상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린다.

경북지역에 비해 경남지역에서는 더 약화되어 집안의 터를 지켜주며 관장하는 신령으로만 인식된다. 이에 따라 터주를 모시는 단지도 없으며, 터주에 대해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의례 또한 보이지 않는다. 집을 짓기 전이나 땅을 파기 전에 터신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집터가 셀 경우 지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하여 명절 차례 후에 마당 한쪽에 제물을 차려두고 비손하는 정도이다. 경남 사천지역에서는 터가 센 집에 '밥구디'를 만들어 둔다. 이는 사립문 앞에 놓인 넓적한 돌을 말한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돌 위에 밥과 나물을 올려놓는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집터를 주관하는 신을 '토신' 또는 '텃신', 토신에게 지내는 제의를 '토신제'라 한다. 정월에 격식을 갖추어 신을 맞이하는 의례여서 '정월대위'라고도 부른다. 토신제에서는 가족의 안녕과 후손 발복을 기원한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토신제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 제의 양상이 다르다. 대체로 일 년 또는 삼 년마다 제를 지낸다. 제는 집안 마당이나 집 뒤 깨끗한 곳에 모신다. 설을 지내고 나서 집안사람들의 생기복덕에 맞추어 택일을 한다. 이때 제를 올릴 사람도 함께 구하면서 스님 또는 심방을 모신다. 가정집에서는 축문을 써서 유교식으로 치르기도 한다. 마을 또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지만 심방을 불러 할 경우 제물로 도래떡을 만들고, 잘 차리려면 시루떡 대신 가루를 보시기에 꼭꼭 담아 엎어 놓고 찐 보시떡을 올리기도 했다. 또 문전과 조왕께 제숙, 나물, 메를 올린다. 스님을 청해 토신제를 할 경우 심방이 하는 방식과 달리 태세라고 하여 조왕과 문전을 위하면서 제에 함께 따라온 잡신을 위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한다.

이처럼 제주도지역에서는 여느 지역과 다르게 제의가 세분화, 정형화되어 있으며 자세하다. 또한 무속, 불교, 유교 등의 습합 양상이 분명하다. 특히 남성이 주도하며 제의 절차가 유교식으로 엄격하게 거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터주신앙은 유교문화 유입 이후에 무속적인 성격과 불교적인 성격이 적절하게 융합 발전한 후대적 제의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지신에 대한 신앙은 궁극적으로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자연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땅 위에 집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이 터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이 신을 위해 다양한 신앙적 행위를 수행한다. 지신과 터주가 있는 곳에 쌀을 담은 단지를 올리거나 특정일에 상을 차려 올리는 등 나름대로 엄격한 격식을 갖추고 자신들의 신심을 표현한다. 따라서 지신은 자신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 우리 민족의 땅에 대한 인식, 집터에 대한 종교적 관념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정신과 가정신앙**(서해숙,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화순군, 1998), **경기지역의 터주신앙**(김명자,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상 · 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필자 **서해숙(徐海淑)**

지신밟기

표제어 터밟기(703쪽)

지신제(地神祭)

상호참조 지신(631쪽)

정의 음력 정월이나 시월상달에 집터를 맡아보는 지신에게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내용 지신은 터주신과 혼효(混淆)되어 토주지신, 당산, 후토당산 등으로도 불린다. 따라 지신은 터주신과 사실상 동일한 신격을 지닌 가신(家神)으로 치성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터주와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터주신은 터줏단지, 터줏대감, 터주고사 등



지신제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6.1.1(음)
강성복

에서 알 수 있듯이 항아리나 단지에 쌀 · 벼 · 팥 따위를 넣고 주저리를 씌운 신체(神體)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신제의 대상으로 치성을 받는 지신은 별도로 모신 신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신제란 명칭은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서산, 당진, 태안 등 주로 내포지역에서 사용되는 민속어휘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신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터주신에 대한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 이와는 반대로 공주, 대전, 금산, 논산, 천안, 연기, 아산 등 지역에서는 지신이란 관념은 생소하고 터주 · 터줏대감이란 용어가 폭넓게 사용된다.

그런가 하면 호남지역에서 지신과 터주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지신과 유사한 성격을 띠면서도 구분되는 신령으로서 철륭신이 등장한다. 즉 호남지역에서 지신은 집터 전체를 관장하는 존재로서 '터주' 또는 '텃신'으로 불리지만 철륭은 단지 집 뒤의 뒤란을 맡아보는 신령으로 관념된다. 이뿐만 아니라 철륭은 오가리(항아리) 안에 쌀을 넣은 신체를 집안에 봉안하고 반드시 정기적인 의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신보다 가신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다.

지역사례 지신제는 지난날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 내포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된 대표적인 가정신앙이다. 예를 들어 당진에서 지신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터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지신을 잘 위해야 집안에 탈이 없고 편안하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정초에 안택을 할 때는 지신을 함께 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령 무당을 부르지 못할 경우에는 주부가 반드시 지신제를 지내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지신제는 주로 정월 초이튿날이나 초이렛날 또는 말날[午日]과 범날[寅日]에 지낸다. 이날 지신제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백무리(백설기)로 '지신떡'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주부는 일주일 동안 부정을 가리고, 당일 아침에는 대문 앞에 황토를 펴서 부정한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지신제를 앞두고 초상이 나거나 가족 가운데 달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을 연기한다. 또 지신제를 지내는 날에는 성주시루와 서낭시루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지신과 더불어 치성을 드린다.

서산, 태안, 예산 등 지역에서는 집안의 뒤꼍에 지신이 깃들어 있다하여 극진하게 위한다. 정초에 지신제를 잘 모시면 집안에 드는 일 년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는 지신을 성주

신체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2005.11, 강성복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1999.12.25, 강성복



지신제 상차림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골내미, 2006.10, 강성복

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신으로 받들기도 한다. 성주는 가신 가운데 최고 어른이지만 지신은 집터의 주인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지신제를 주관하는 주부는 안택을 할 때보다 더 엄격히 부정을 가렸다.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도 미리 단속하여 행여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특히 떡을 찔 때 부정이 들면 설익기 때문에 도중에 오줌을 누는 일을 피하고, 임신부나 궂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문 앞에 깨끗한 황토를 편다.

지신제는 정월 초사흘이나 초이레, 정월 열나흗날에 지내는 가정이 가장 많다. 택일할 경우 돼지날[亥日]을 길일로 여긴다. 제물은 백무리와 청수가 일반적이다. 집안에 따라 삼색실과, 포, 메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지신제의 절차는 당일 저녁 장독대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불밝이쌀에 불을 밝히고 사방에 절을 올린 다음 대주부터 차례로 가족의 소지를 올리면서 무탈하기를 기원한다. 정월에 경쟁이를 불러서 안택을 할 경우 먼저 부엌에서 조왕경을 읽은 다음 안방으로 옮겨 성주에게 축원을 드린 뒤 따로 시루를 내어 지신제를 지낸다. 이때 지신에게 올린 떡은 안택과 달리 집안 곳곳에 떼어놓지 않는다.

전남지역에서 행해지는 지신에 대한 의례는 주로 집터에 깃든 잡귀를 풀어먹이는 주술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곡성지역에서는 '장터자리'에 집이 들어서서 집터가 매우 세면 철륭과는 별도로 지신을 위해 고사를 지낸다. 정월대보름과 추석에 '허전밥'을 해서 바가지에 가득 담아 마당 구석구석에 던져놓는다. 대보름에는 잡곡밥을 하고 추석에는 쌀밥을 해서 마당에 뿌리듯이 던져놓는다. 영광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오곡밥을 그릇에 담아 물을 넣어 집터에 뿌린다. 이를 '텃밥주기'라고 한다. 밥을 뿌릴 때는 "텃밥 주자, 술밥 주자."라고 외치면서 뿌린다. 이는 잡귀가 먹고 물러나라는 의미이다. 광양지역에서는 지신이 집터를 지켜준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지신을 다스리고 터를 '우리준다(위해준다)'고 하여 지신경을 읽어준다. 지신을 위하는 것은 지신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의미이다. 또 지신은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한 차례 지신경을 읽어주고 터제를 지내줘야 좋다고 한다. 지신은 성주와 조왕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잘 위해준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신을 위해 정기적인 의례는 베풀지 않고 새로 집을 짓거나 지신밟기를 할 때 간단하게 상을 차린다. 남원지역의 경우 집터를 지켜주는 신을 지신 또는 터주라고 한다. 따로 치성을 드리지는 않지만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면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다. 지신을 위한 고사는 새벽에 마당 한가운데에 상을 차려놓고 집안의 안녕을 축원한다. 또 정월대보름날에 지신밟기를 할 때도 마당에다 상을 차린다.

무주지역에서는 성주고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지신을 달랜다. 또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지신을 위한 지경다지기를 한다. 상복을 대들보에 걸쳐놓고 동아줄



지신제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1998.1.15(음)
강성복



지신제
대전시 대덕구 이현동 1997.10
강성복

로 단단하게 맨 지경돌을 사방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면서 땅을 다진다. 이러한 지경다지기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지신 달래기의 하나이다. 한편 부안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이나 추석 등에 지신을 위해 마루 구석에다 지신밥을 담아놓기도 한다. 지신을 별도로 위하는 일은 없지만 가족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까닭에 잘 위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서산민속지-상 · 하**(김태곤 외, 서산문화원, 1987), **서산 초록리**(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민속원, 2010),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강성복(姜成福)**

지앙

표제어 삼신(254쪽)

짐승뼈

정의 집이나 마을에 침입할지도 모르는 악귀 또는 역귀를 위협해 미리 물리치고자 대문, 당산나무, 장승, 바위 등에 매달아두는 짐승의 뼈.

내용 뼈는 동물의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어서 의학적인 해부나 수술을 통하지 않고는 평소에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뼈를 발라내어 눈으로 본다면 이미 그 동물은 죽은 상태이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뼈는 죽음을 상징한다. 민속신앙에서 대문이나 마을 어귀를 지키는 당산나무 또는 장승에 뼈를 매다는 것에는 악귀, 역질 등이 침입하면 너도 죽어서 이처럼 백골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다.

뼈를 매다는 장소는 집의 대문 위나 문설주의 상단부, 즉 귀신이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쇠코뚜레, 가시달린 엄나무 가지, 마른 쑥 묶음 등을 대문에 매다는 것도 뼈를 매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뼈를 당산나무에 매다는 것은 마을에 침입할지도 모르는 악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산나무는 대개 마을의 입구나 중앙에 위치하여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신목(神木)으로 믿는다. 뼈를 장승에 매다는 이치도 이와 같다. 장승은 대체로 마을의 입구나 마을로 들어서는 고갯마루 등지에 서 있다. 여기에 무서운 짐승의 뼈를 매달아 놓음으로써 마을

운조루의 뼈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운조루, 2011.4.4, 배도식







운조루 대문 위의 뼈와 코뚜레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운조루, 2010.5.27, 배도식

로 들어오려는 악귀들이 감히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위에 금줄을 치고 붉은 살점이 붙은 뼈를 큼직하게 매달아 두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지역사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운조루라는 큰 집이 있다. 이 집 대문 위에는 높다랗게 짐승의 뼈 두 조각이 걸려 있다. 이 집은 조선시대 후기 영조 대에 평북병마절도사를 지낸 유이주(柳爾胄)가 지었으며,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유이주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다. 그는 절도사로 부임하러 평안도로 가는 도중에 묘향산에서 만난 호랑이를 채찍으로 때려잡아 호피는 영조대왕에게 바치고 호랑이의 뼈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퇴임한 뒤에 고향으로 가져왔다. 그는 금환낙지(金環落地)의 명당자리인 이곳에다 운조루를 짓고 악귀의 침범을 막고자 대문 위에 호랑이 뼈를 매달았다. 그래서 그런지 운조루에 사는 그는 집안이 흥하여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집 앞에다 쌀이 나오는 뒤주를 마련해 놓고 가난한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구휼하는 온정을 베풀기도 했다고 전한다.

주인 유홍수(남, 1954년생) 씨의 말에 따르면 입향조인 유이주가 호랑이 뼈를 통째로 매달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고 했다. 호랑이 뼈는 만병통치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집에 걸면 잡귀의 범접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람들이 밤에 몰래 떼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달랑 뼈 두 개만 매달려 있다. 지난 40년 동안 도둑이 17차례나 들어와 여러 유물을 가져가면서 호랑이 뼈도 가져갔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딸만 12명을 낳았다는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호랑이 뼈를 지니면 득남할 수 있다고 애걸하여 조금 떼 를 매달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유홍수 씨에게 확인했더니 호랑이 뼈가 맞다고 단언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경기도 세시풍속』을 보면 경기도 시흥시 포동 새우개마을에서는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 위에 큰 가시가 많은 엄나무를 꺾어다가 왼새끼로 묶어놓기도 하고, 짐승의 뼈를 풀에 싸서 왼새끼로 묶어 두기도 한다. 이는 악귀의 침범을 막기 위해 쇠뼈를 매달아 둔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하동마을에서는 정초에 엄나무와 소 턱뼈를 묶어서 대문에 걸어두면 한 해 운수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엄나무는 가시가 많아 그것을 걸어두면 잡귀잡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상구산마을에서는 정초에 엄나무를 대문에 건다. 엄나무를 걸어두어야 그 집 안으로 사악한 귀신이 일 년 내내 들어오지 못한다. 다른 마을에서는 소 턱뼈를 걸어둔다. 이 마을에서는 이사 갈 때만 방문 위에 쇠코뚜레를 건다. 이는 이사 갈 집에 잡귀가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먼저 들어가서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엄나무, 소의 턱뼈, 쇠코뚜레를 달아 잡귀의 범접을 막으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세등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마을 앞 당산나무에 쇠뼈를 매단 짐대를 세운다. 대보름날 밤에 미륵바위를 모신 마을 제당에 가서 동제를 지낸 뒤 당산나무가 있는 짐대로 와 짐대제



당산나무와 솟대와 뼈
전남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2011.4.4
배도식

당산나무에 뼈와 명태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011.2.19
배도식



를 지낸다. 이 제사를 거리에서 지낸다고 하여 '거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물에는 반드시 주과포혜(酒果脯醯)와 쇠머리를 준비한다. 먼저 짐대를 준비하여 당산나무 앞에 갖다 놓고 큰 명태 한 마리를 하얀 참종이에 싸둔 다음 무섭게 생긴 아주 큰 소의 턱뼈를 명태와 함께 묶어 짐대의 윗부분에 매단다. 이를 세워 넘어지지 않도록 당산나무의 둥치에 고정시킨 뒤 짐대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명태는 당산에 바치는 제물이지만 소의 턱뼈는 강한 힘으로 악귀를 쓸어버리겠다는 위협용 장치물이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서도 당산나무에 짐승의 뼈를 매단다. 이곳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마을의 뒷산 중턱에 있는 할배당에서 제사를 지낸 뒤 제당 앞에 있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의 중간 허리에 붉은 살이 달린 큼직한 돼지고기를 뼈째로 매단다. 고깃덩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유독 붉은 살이 달린 뼈를 매단 이유는 붉은색을 보고 잡귀잡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뼈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효과까지 생각한 것이다. 고기의 살점을 묶어 제공하는 것은 몰려든 잡귀잡신이 이 고기를 흠향하고 해코지 없이 물러가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당산나무에 매단 뼈에는 이 마을에 침입하는 악귀를 막아주고 마을 개개인의 가정이 무사태평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

가정신앙을 다루는 자리에 당산나무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공동체 신앙을 예시로 든 것이 적절치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 신앙이라고는 해도 마을 구성원 개개인의 가정신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산제가 마을 제사이기는 하지만 마을 제사에서도 개개인의 바람을 빈다.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당산에 가서 절하며 안녕과 무사함을 빌고, 돌아와서는 무사히 돌아온 것을 당산신에게 감사드린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밤중에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당산에 와서 여러 번 절을 하며 자신의 소원성취를 빌기도 한다. 이러한 예거는 공동체 신앙의 대상이 가정이나 개인의 신앙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경남 남해군의 여러 곳에서는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제물을 당산에 갖다놓고 가정의 평안과 번성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그런 뒤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당산제를 지낸다. 이처럼 당산나무와 장승과 바위에 뼈를 매다는 것은 공동체 신앙이자 가정신앙 또는 개인신앙의 대상이 된다.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내산마을에서도 당산나무에 쇠뼈를 매다는 신앙이 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으로 동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을 뿐이다. 마을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

뼈 매달기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내산마을, 2011.4.6, 배도식





당산나무의 뼈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마을, 2011.4.6, 배도식





었지만 지금은 폐교가 되었다. 그 앞에 당산나무, 밥무덤, 돌탑 등이 있는 작은 숲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숲거리 또는 숲당산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음력 시월 열나흗날 밤 12시에 동제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은 동제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집 대청마루에서 숲당산을 향하여 두 번 절한다. 그런 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산제를 지내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집에 남아 자기 일을 보기도 한다. 또한 동제를 지내고 나서는 악귀의 범접을 막고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고자 당산나무에 큼직한 쇠뼈를 매달아 놓는다. 동제를 잘 지내도 쇠뼈를 걸어두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한다. 이 마을의 쇠뼈 걸기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이를 걸지 않으면 마을에 탈이 생긴다고 한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마을에서도 동제를 지낸 뒤 당산나무에 큼직한 소의 넓적다리뼈를 매단다. 대지포는 물건리에서 미조리로 가는 국도 중간 지점의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포구 마을이다. 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마을 들머리에 당산이 있다. 이곳에는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 당산목과 그 아래 큰 밥무덤이 있다. 반원형을 이루는 당산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 당산의 왼쪽에는 당산목이 서 있고, 가운데에는 밥무덤이 있다. 둘레에는 야트막한 돌담이 쳐져 있다. 성대히 제수를 마련하여 음력 시월 열나흗날 자정에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낸 뒤 밥무덤에 메를 묻고 나서 소의 넓적다리뼈를 당산나무에 매단다. 쇠뼈를 매달아야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여 마을에 아무런 탈이 없고, 가정이 평안하며, 바다에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했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포마을에서도 당산제를 지내고 쇠뼈를 매단다. 이 마을은 미조리에서 상주리로 가는 중간쯤 바닷가의 경사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전형적인 어촌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관련된 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당산은 해변도로의 위쪽 언덕에 있다. 당산에는 크지 않지만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음력 시월 열나흗날 밤 12시에 당산제를 지낸 뒤 당산나무 허리에 왼새끼를 감고 거기에 소의 넓적다리뼈를 매달아 놓았다. 뼈에 대한 신앙심은 다른 마을의 사례와 같다.

이 밖에 남해군 상주리와 남해읍 서변리에서도 과거에는 쇠뼈를 매달았지만 요즘은 매달지 않는다. 남해군 서면 노구리의 노구마을에서는 동제를 지낸 뒤 제단 앞에서 쇠뼈를 불에 태운다. 이는 뼈를 태우는 고약한 냄새를 맡고 악귀나 잡귀잡신이 멀리 달아나라는 이유에서이다.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수곡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지낸 뒤 닭을 한 마리 잡아 털을 뽑아서



진살등 아래에 놓인 뼈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2011.4.4
배도식

바닷가 바위의 짐승뼈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011.2.19
배도식



나무에다 매달아 둔다. 잡귀잡신이나 역신이 이 마을에 함부로 침입하면 닭처럼 털이 뽑혀 죽는다는 위협의 뜻이 있다고 한다. 요새는 쇠뼈 태우기도 닭 매달기도 하지 않는다.

대전시 중구 금동에서도 거리제를 마치고 당산나무에 소의 턱뼈를 매달아 놓는다. 쇠머리의 절반은 산제당에 바치고, 나머지 반은 턱뼈를 발라 당산나무에 줄을 쳐서 매달아 둔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서는 마을 어귀 양쪽에 서까래 굵기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금줄로 연결시켜 짐승의 뼈를 매달았다고 한다. 이 뼈가 어떤 짐승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쇠뼈일 가능성이 높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마을에는 서북쪽 당막개 갯가에서 진살등이라는 둔덕을 지나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나 있다. 이곳 진살등에 외부로부터 들어올지도 모르는 나쁜 악귀를 막기 위해 2기의 돌장승을 세워놨다. 남장승의 앞면에는 한자로 대장군, 여장승에는 진살등이라고 각각 새겨 놓았다. '진살등'이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쁜 살기를 진압하여 박살낸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승들에 무척 크고 이빨이 선명히 드러나는 소의 턱뼈를 왼새끼로 묶어서 매달았다. 옛날에는 붉은 살점이 붙은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한다. 그리고 좀 더 무시무시하도록 장승과 턱뼈에 소의 피까지 뿌려 악귀나 역귀는 얼씬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동제와 장승제를 지내고 장승의 목에 소의 턱뼈를 매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승 앞에서 짚단에 불을 붙여 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추며 이 불을 넘었다. 이를 '불넘기'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그해 모든 액운이 사라진다고 여겼다.

바위에 금줄을 치고 뼈를 매단 사례도 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바다에서 용왕제를 지내고 붉은 살점이 붙은 돼지뼈를 바닷가 바위에 왼새끼로 동여 매달아 두었다.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어촌인 이 마을에서는, 바다의 들머리에 있는 바위에 고기와 뼈를 매단다. 이는 고기잡이 하는 데 잡귀잡신의 범접을 막아 풍어를 기약하고 어민들의 안전과 무사태평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마을에서 만난 김상지(여, 1930년생) 씨는 "우리 마을의 이 당산은 참 영검이 많습니다. 이 앞을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경건히 지나갑니다. 절대로 침을 뱉지 않으며, 말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당산할배신을 숭앙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로 출타할 때, 고기잡이 나갈 때, 시험 치러 갈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고기가 잘 안 잡힐 때, 우환이 있을 때, 아이가 생기지

당산나무의 뼈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포마을, 2011.4.6, 배도식





여장군 진살등 목의 뼈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2011.4.4, 배도식





집들이고사

표제어 입택고사(545쪽)

짚신이바지

정의 짚신에다 먹다 남은 밥과 반찬, 된장, 소금, 고추 등을 담아 객귀를 풀어먹인 뒤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는 위협적 주문(呪文)과 함께 짚신을 태우거나 내버려서 급환(急患)을 유발한 객귀(客鬼)를 물리치는 가정의 치병(治病) 의례. 외출을 했다가 귀가한 뒤에 갑자기 병이 나면 객귀의 소행으로 여기고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잔밥먹이기'를 하여 객귀가 병의 원인으로 확정되어야 짚신이바지를 한다.

내용 '짚신이바지'란 호칭은 서로 격(格)이 어울리지 않는 '짚신'과 '이바지'라는 두개의 낱말로 구성된다. 짚신이란 하찮고 흔한 신발에 정성들여 만든 음식인 이바지를 담을 수는 없다. 실제상으로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을 이바지라고 격상시키고, 그것을 객귀의 분수에 맞는 동시에 멸시(蔑視)의 의도가 담긴 짚신에다 담은 것이다.

흔히 실제로는 짚신이 아니라 고무신 · 운동화 · 구두 등 헌 신발을 쓰지만 일상적으로 '짚신이바지'라고 부른다. 짚신을 신던 시절에 형성된 용어가 현재까지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 논산지역에서는 잔밥을 환부(患部)에 문지르다가 쌀 됫박에서 잡귀가 먹는 것처럼 "찰각찰각" 소리가 나면 곧바로 짚신이바지를 행한다.

먼저 왕겨를 가득 담은 짚신 한 짝, 아궁이에서 긁어 낸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재, 됫박의 움푹 파인 부분에서 걷어 낸 쌀을 준비한다. 바가지에 담은 된장국과 고추도 잊지 않고 챙긴다. 이것들을 가지고 환자가 귀가한 길을 따라 동구 밖까지 나가 길 위에 펼쳐 놓는다. 왕겨를 담은 짚신에 재에 남아있는 불씨로 불을 지핀다.

짚신이바지를 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주언(呪言)을 크게 외친다.

"짚신이바지 거룩하게 차려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오던 길로 썩 물러나야지 만약 그러지 않으면 대칼로 목을 찔러 한강에 던지면 국 냄새 장 냄새도 못 맡을 테니 이바지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어흠 그큼 싸파세!"

동구 바깥으로 된장국과 고추를 뿌려서 객귀를 물린 다음에는 부엌칼을 몇 번이고 던져서 칼끝이 동구 바깥을 향하도록 한다. 부엌칼은 짚신이바지를 향하여 던진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왼발을 세 번 구르고, 침을 세 번 뱉기도 한다.

전북 군산지역에서는 잔밥각시에 대한 주문을 왼다음 밥, 된장, 소금, 쌀 스물한 알을 됫박에 넣고 이것으로 병자의 머리 위 좌우를 각각 여러 차례씩 돌린다. 됫박에 환자의 머리카락을 뜯어서 넣고 침도 뱉게 한다. 이 됫박을 대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그날 손이 없는 쪽으로 내다 버린다. 이때 헌 짚신에다 겨를 가득 담아서 태워 버린다.

대개의 경우 짚신은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만 사용한다. 이 안에는 된장 한 덩이와 잔밥먹이기 과정에서 확인된 됫박의 움푹 파여 들어간 부분의 쌀 등을 함께 넣는다. 이렇게 짚신을 내다 버리거나 태우면 객귀들이 짚신이바지를 먹고 지체 없이 멀리 떠나간다고 한다.

짚신이바지를 하는 장소는 대개 집 마당, 대문 밖, 동구, 삼거리나 사거리 등지이다.

짚신을 짚신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짚신이바지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의례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곧 잔밥먹이기 의례의 후반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급환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의례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신던 짚신에다 아궁이의 재, 콩, 고추 등과 환자의 침 및 머리카락 등을 넣어서 아침 일찍 삼거리에 갖다 놓는다. 삽짝에 짚신을 매달아 놓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차도가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놀뫼의 민속**(양인식, 논산문화원, 1987),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이필영,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짚주저리

정의 가정에서 모시는 터주, 철륭, 업, 칠성신 등 신령을 집 뒤꼍이나 장독에 모셔서 신령의 신체(神體)가 비나 바람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볏짚으로 덮어 놓은 것. 또는 이들의 신체.

형태 볏단으로 쌓은 통가리는 구조적으로 이엉(지붕), 가리(몸통), 받침으로 이루어진다. 이엉은 다시 주저리, 용마루, 추녀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주저리는 이엉의 맨 윗부분으로, 짚가리 속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마루 위에 얹는 것이다. 용마루보다 경사가 급하며, 지역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주저리는 집 뒤란이나 장독대에 모셔 둔 터주를 비롯하여 각종 신령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도 만들어진다. 이를 이르는 명칭이나 세부적인 형태 및 크기는 지역과 감싼 신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형태는 터줏단지나 업항아리 또는 나무막대를 세워서 몸체를 짚으로 이엉을 엮어 둘러싼 뒤 흐트러지지 않게 왼새끼로 두르고 맨 위에 짚주저리를 모자처럼 만들어 씌웠다. 짚가리 가운데 허리를 두른 왼새끼는 오른쪽으로 꼰 일상적인 새끼줄과 달리 '신성한 줄'이라는 의미이다.

형태는 윗부분을 틀어서 도롱이처럼 세운 것과 몸체 및 지붕, 모자 형태의 윗부분으로 나뉜 것이 있다. 즉 짚을 이용하여 몸체를 원통형으로 세운 형태와 짚을 이엉 엮듯 엮어 세워서 그 위에 원추형 갓을 씌운

형태이다.

짚주저리 만드는 과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이○옥 씨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짚단의 4분의 1 지점과 중간 부분을 짚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이 때 중간에 묶은 짚을 왼쪽으로 돌려가며 마름모꼴로 지붕을 만든다. 왼쪽으로 돌려 지붕을 만드는 것을 '휘갑한다', 지붕 모양을 '대감벙거지'라고 한다. 대감벙거지가 만들어지면 꼭대기 부분을 왼새끼로 꼬아서 풀어지지 않게 동여맨다. 이것을 '상투 튼다'라고 한다. 터줏가리가 완성되면 아래쪽에 손바닥 크기의 한지를 접어서 꽂아둔다. 새로운 터줏가리가 완성되면 이전에 세워 둔 터줏가리와 교체한다. 새로운 터줏가리는 60~70㎝ 길이의 작대기에 고정시킨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김○이 씨 댁에서 터주를 덮어씌우기 위해 만든 주저리는 특별히 깨끗한 짚으로 만든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석꾼 부자이던 '경국이네'는 쌀 항아리에 씌울 주저리를 틀 때 우○웅 씨 댁의 짚이 깨끗하다고 하여 가져와 사용했다고 한다. 우씨 댁에서는 짚을 깨끗하게 추려서 말려 두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우씨네 짚을 썼다는 것이다. 당시에 노인들은 똑같은 볏짚이라도 '깨끗한 집의 짚'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작 방법 외에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업가리를 터줏가리 모양과 같이 짚가리로 만들어 씌운다. 이때 솔가지를 쌓아 놓거나 솔가지를 쌓은 것에 짚주저리를 얹어 만들기도 했다.

크기는 높이가 40~70㎝로 가정이나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강화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2~2m 크기로 제작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짚주저리는 가을걷이가 끝난 뒤 가을고사를 지내거나, 단지의 나락, 쌀, 콩 등을 새것으로 갈아줄 때 함께 갈아준다. 일부 가정에서는 정월대보름 또는 정초에 안택고사를 지내거나 특별히 터주 등을 위하면서 갈아준다. 이 밖에도 짚주저리가 훼손되거나 썩으면 갈아주는 예도 있다. 그러나 터주 등을 더 이상 모시지 않거나 짚주저리를 제작할 사람이 없으면 갈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짚주저리는 새것으로 갈고 기존의 짚주저리는 태우거나 버린다. 일부 가정에서는 짚주저리 위에 새 짚을 덮는 형태로 갈아주는 예도 있다.

강화도에서는 새로 만든 터줏가리를 금빛이 난다 하여 '금주저리', 이전에 세워놓은 것은 은빛이 난다고 하여 '은주저리'라고 각각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갈아주는 것을 이르는 명칭 또한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새 옷 입히기' 또는 '옷 해 입힌다'라 하며, 제주도지역에서는 '철갈이'라 하여 일 년에 한 번 갈아서 덮어준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상봉마을에서는 터주항아리에 주저리를 씌우는 것을 '터주 모시는 것'이라 한다. 터주항아리는 짚 한 단으로 머리 부분을 묶어서 덮는다. 이것을 '짚으로 씌우는 것', '유두 튼다', '업가리 씌운다.'라고 한다.

짚주저리를 갈면서 벗겨낸 짚주저리는 대부분 태운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깨끗한 곳에 버려 썩어 없어지게 하거나 거름 더미에 던져 거름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벗겨낸 것을 태워 그 재를 물에 띄우는 사례도 있다. 헌 짚주저리 처리 형태를 보면 짚주저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는 가정에서는 대개 태워 없애지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싼 단순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정에서는 거름 더미에 버리거나 아무 곳에나 치웠음을 알 수 있다.

짚주저리는 일반적으로 집의 대주가 만든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웃집 노인에게 부탁해 만들기도 한다. 복재나 보살을 불러 고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초빙되어온 복재가 만들어 갈아주는 예도 있다.

짚주저리로 덮어둔 것은 일반적으로 쌀, 나락, 콩 등을 넣은 터줏단지나 업단지이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쌀이나 나락을 담은 철륭단지를 덮어둔다. 충북 단양지역에서는 돌을 놓고 짚주저리를 씌워 터주로 모신 사례도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단지를 대신하여 막대기나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씌워놓는 형태도 있다. 이때 밤나무나 참나무 막대기를 주로 이용한다. 남양주지역에서는 생솔가지를 세우고 짚가리를 덮는다. 인천시 강화도지역에서 벙거지와 쾌자를 모실 경우 주저리를 엮어 그 안에 봉안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터주나 업항아리 없이 짚주저리만 세워두고 이를 터줏가리라 이르는 곳도 있다.

짚주저리를 세워 두는 곳은 대부분 집 뒤란이나 장독대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담벽에 기대어 두거나 광 구석에 모셔두기도 한다. 충남 부여, 서천, 청양 등 지

짚주저리
전북 부안군 상서면 장동리 분장마을
2010.2.17
김도현



역에서는 당산에 모신다고 한다. 이는 철륭을 산신 좌정처인 당산에 모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당산은 장독대나 집 뒤란을 이른다. 쌀 담은 단지를 짚으로 짠 덮개로 덮어 안방에 모신 가정도 있다. 원래 밖에 모셨지만 안방으로 옮겨 모시면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짚주저리를 터주의 신체 일부로 인식하는 사례이다.

짚주저리를 씌운 터주나 업은 성주와 마찬가지로 집을 새로 지으면서 무속인들이 정해준 자리에 모시는 예가 많다. 이에 따라 집의 좌향에 따라 터주를 모시는 자리가 다르다.

짚주저리는 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건궁터주를 모시거나 더 이상 터주 또는 업을 모시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짚주저리를 만들어 씌우지 않게 된다. 이때는 터주나 업항아리만을 신체로 모시거나 한지만 새것으로 갈아주기도 한다.

내용 짚주저리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터줏가리'라고 부른다. 이는 짚으로 엮은 가리란 뜻에서 붙여졌다. 터주신을 씌우기에 '터줏가리'라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진도에서는 유지지, 전북 익산에서는 유지배기라고 한다. 충남 공주, 충북 영동, 경북 문경에서는 유두지라고 일컫는다. 충남 금산에서는 유두저리, 논산 · 천안 · 연기 · 청양 등과 경기도에서는 주저리 또는 짚주저리라고 한다. 충북 옥천에서는 업가리, 제천 · 청원 · 충주와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는 짚가리로 불린다. 충북 진천에서는 유두 또는 망, 경남에서는 고깔, 경북에서는 용마람, 제주에서는 유지뱅이라고 부른다.

비록 지역이나 가정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주저리를 씌우는 이유는 모시는 신령의 신체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신령은 대부분 터주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령을 상징하는 신체를 짚주저리로 씌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주로 뒤란이나 장독대에 모신 신령 등 집 밖에 모신 신령의 신체에 씌운다. 지역에 따라 터주신의 명칭이 다양하고, 터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 또한 다양하다. 즉 진도 · 익산 · 장수를 비롯한 전라도지역에서는 철륭을 모신다. 지역에 따라 철륭할마이, 천륭단지 또는 천룡을 상징하는 단지에 주저리를 씌워 모신다. 함경도지역에서는 토세를 후토신(后土神)이라고 표기하여 집의 뒤란 중앙에 곡식을 넣은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 짚을 덮은 형태의 신체를 모신다.

제주에서 밧칠성 또는 뒷할망(구실할망)을 모시는 가정들이 있다. 기왓장을 깔아 오곡의 씨를 놓고 그 위에 기왓장을 덮어서 빗물이 들지 않도록 '주젱이'를 위로 씌워 모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주젱이만 두고 위하기도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마을 뒤란에 터주를 비롯하여 긴대업 · 족제비업을 비롯한 각종 업, 독갑대감 · 살륭대감 등을 상징하는 신령을 모신 사례가 많다. 집의 뒤란이나 장독대 등에 모시는 신령들이 비를 맞지 말라는 의미에서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다. 경기도 용인지역에는 집 뒤란의 산신에 말뚝터주라고 하여 말뚝을 박아 두었다. 터주에는 쌀 항아리를 넣어두고 매년 쌀을 갈아준다. 두 개의 쌀 항아리에는 나란히 짚주저리를 씌워두었다.

인천시 강화지역에는 긴대업(집의 재물을 지키는 긴 짐승. 즉 뱀을 의미), 족제비업, 살륭대감(집안의 재물 관장) 등을 주저리로 만들어 모신다.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의 방○례 씨 댁에서는 터주와 함께 거북도초(집안에 복을 주는 신령), 긴대업주, 도티업주를

집 뒤에 주저리 형태로 나란히 세워 모셨다. 이 밖에도 천신대감(집안의 재물 관장)이나 호서낭(호랑이가 사람이나 소를 물어간 집에서 모시는 신격)을 집 뒤 장독대 옆에 터줏가리 형태로 모신 가정이 있다.

짚주저리를 신체를 감싸는 단순한 제구(祭具)로 볼 것인지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사례를 보면 '터줏가리'를 짚으로 엮은 '가리'란 의미로 여기며, '터주신'을 씌우기에 그 신체 이름대로 '터줏가리'라고도 한다. 이런 경우 신체로 볼 수 있다. 충남 금산에서는 단지에 나락을 넣고 유두저리(짚주저리)를 틀어서 씌워두면서 이를 '터줏단지'라고 한다. 이 사례 또한 짚주저리를 신체의 일부로 여기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강화도 일부 가정에서는 재물을 관장하는 업주를 장독대 옆에 주저리로 모셨다. 주저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주저리 안에 아무것도 없이 주저리 자체를 모신 사례도 주저리를 신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짚주저리를 일 년에 한 번 갈면서 헌 주저리를 거름으로 쓴다거나 아무 데나 버리는 가정에서는 이를 신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짚주저리는 가정에 따라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신체로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신체를 보호해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

지역사례 가정에서 모시는 신령 가운데에서 집 뒤란 또는 장독에 모시는 신령이 비, 바람 등에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체를 짚주저리로 덮거나 짚주저리 자체를 신령으로 여기는 사례를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서귀포지역에는 집 안 뒤쪽 깨끗한 곳에 돌 하나를 놓고 '주젱이'라고 하여 눌(짚이나 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 올린 것)을 만들어 세울 때 비에 맞지 않도록 짚을 재료로 고깔같이 만들어 덮은 밧칠성을 모시는 가정들이 있다. 주젱이는 일 년에 한 번 철갈이라 하여 갈아 덮어준다.

충남 논산지역에서는 단지 안에 쌀을 담아 백지로 덮고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서 단지 위에 씌우고 당산(장독대)의 한 귀퉁이에 보관한다. 모시는 위치는 대를 잡아서 정한다. 단지 안의 쌀을 햇곡식으로 갈아주고 난 뒤 헌 주저리는 불태우고 새 주저리를 틀어 다시 씌운다.

인천시 강화지역에서는 집 오른쪽의 바깥 터에 텃대감이라고 부르는 터줏대감을 모신다. 터줏대감은 처음 만들 때 바닥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짚을 얹어 둔 다음 가운데에 한지(길지)를 묶어 두었다. 남편 사망 전에는 매년 짚을 갈아 주었지만 현재는 짚주저리를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 한지(길지)만 새것으로 갈고 있다.

강화군 양사면 북성1리에 거주하는 전○림 씨 댁에서는 터주, 호서낭, 천신대감을 짚주저리를 씌워서 집 뒤란에 모신다. 터주의 신체는 터줏가리로 모신다. 짚을 한 단 준비하여 짚단의 허리를 묶고 위를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다. 터줏가리 안에는 한지에 싼 벙거지를 넣는다. 호서낭의 신체는 집 바깥에서 주로 모신다. 터줏가리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일반 터줏가리보다 크다. 천신대감은 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모시는 신이다. 신체는 집 밖에서 모신다. 짚을 엮어서 큰 터줏가리와 비슷하게 만들어 모신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사정리마을의 철륭할마이는 집 뒤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담 안쪽으로 오가리를 묻는다. 쌀과 종이를 넣은 오가리 몸체는 묻으며, 아가리는 지상에 내어 놓고 접시로 덮은 뒤 주저리를 씌운다.

충북 제천지역에는 시월상달에 벼 한 말들이 항아리에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워 모신 가정들이 있다. 짚주저리는 매년 가을에 벼를 갈아 넣을 때 새로 만들어서 갈아 씌운다. 이전에 사용한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앤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 1 · 2(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강화의 가정신앙 연구**(김명자 외, 민속원, 2011), **경기도 민속지 2**(김명자 · 김지욱,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지역의 터주신앙**(김명자,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6),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가정신앙**(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 · 평남 · 평북 · 함남 · 함북**(문화재관리국, 1980~1981),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4~2006), **한국의 짚가리**(최영준, 한길사, 2002),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김도현(金道賢)**





찰밥
참봉고사
천신
철륭
철륭제
체
춘첩
출어고사
측신
측신모시기
칠석고사
칠성
칠성고사
칠성단지

제의
참봉고사
천신
철륭제
출어고사
측신모시기
칠석고사
칠성고사

신격
철륭
측신
칠성

신체
칠성단지

제구
체
춘첩

제물
찰밥

찰밥

표제어 오곡밥(486쪽)

참봉고사

표제어 도깨비고사(134쪽)

천신(薦新)

상호참조 대구심리(130쪽), 유두고사(537쪽), 조기심리(588쪽)

정의 첫 수확을 끝내고 햇곡식으로 집안의 신을 위하는 제의. 제물의 종류에 따라 밀천신, 배천신, 햇밥천신, 햇곡천신, 올벼천신, 떡국천신, 앵두천신, 참외천신, 청어천신, 조기천신 등으로 부르며 제의시기에 따라 유두천신(流頭薦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용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지니는 제의로, 가을에 타작을 하면 처음 타작한 햅쌀로 밥을 지어 집안의 여러 신령을 위한다. 제의 시기는 추석 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석 때 차례로 지내기도 한다. 제의 장소는 주로 장광(장독대)로 한정된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 가정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집안 곳곳에 위하는 신령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신령이 있는 곳에서 행하기도 한다. 제물은 나물과 청수를 올리는 것으로 간단한 곳이 있는가하면 햇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벼가 채 익기도 전에 벼를 베어 제의를 올리는 것을 올벼천신이라고 한다. 그 외 7월에 새로 밀을 수확하여 부침개를 부쳐 삼신과 터주에 올리는 밀 천신, 유두날 새로 난 과일과 몇 가지 곡식을 음식과 함께 장만하여 조상에게 올리는 유두천신, 음력 5월 단오절을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열매를 제물로 바치는 앵두천신, 겨울과 봄에 새로 난 청어(靑魚)를 조상에게 올리는 청어천신 등이 있다.

지역사례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는 '햇밥천신'이라고 하여 가을에 타작하면 처음 타작한 햅쌀로 밥을 지어 집안의 여러 신령을 위한다. 제일(祭日)은 타작을 하고 난 뒤 좋은 날을 골라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햇밥을 지었을 때 행한다. 아침에 행한다면 식전에 한다. 제물은 밥, 미역국, 호박나물만 마련한다. 청수는 올리지 않는다. 제물은 장광의 큰 장독대 뚜껑에 제물을 차린다. 절을 하거나 비손은 하지 않고 잠시 두었다가 거두어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천신을 하는 날에는 별도로 성주를 위하거나 친척을 불러 나누어 먹지 않는다.

공주시 유구읍 백교1리 흰다리마을에서도 이를 '햇밥천신(올벼천신)'이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쌀이 부족하여 벼가 채 익기도 전에 베어다가 밥을 지어 먹었다. 아직 여물지 않은 벼를 찧어 밥을 지으면 식구들이 먹기 전에 먼저 집안 신령을 위한다. 벼는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베어온다. 벼는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홀태로 훑어서 마당에 널어 말린다. 이것을 절구에 넣고 찧어서 아침 일찍 밥을 한다. 밥은 대주 밥그릇에 담아 호박나물, 청수와 함께 장광에 올린다. 이때 가장 큰 장독 위에 올린다. 대주가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대주 밥그릇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대주가 좋다고 한다. 대주가 좋으면 집안 식구 모두가 좋은 것이므로 반드시 대주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 올린다. 장광에 밥을 올린 후에는 성주에게도 별도로 한몫을 마련하여 올린다. 이때는 특별히 비손이나 절을 하지 않고 잠깐 올려두었다가 곧 거두어서 먹는다. 점심에 햇밥을 했다면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을 불러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한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압수마을에서는 '올개심이'라고 하여 첫 벼를 타작하면 날을 정해 그 햅쌀로 아침밥을 지어 조왕, 성주, 터주에게 각기 한 그릇씩 떠서 올린다. 이때 청수도 한 그릇씩 같이 올린다. 그러나 특별히 절을 하지 않는다. 올개심이를 한 밥은 식구끼리만 먹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사는 친지들을 불러 함께 먹는다.

논산시 양촌면 양촌1리 탑안이마을에서는 처음 타작한 쌀을 '수티쌀'이라고 한다. 이 쌀로 밥을 지어 집안의 신령들에게 천신한다. 이를 '첫쌀밥'이라고 한다. 첫쌀밥(올개심이)은 추석 전에 한다. 벼를 지게로 한 짐 정도 베어다가 탈곡 하면 두 말 정도 된다. 이를 멍석에 널어 말린다. 밥은 식구들이 나누어 먹을 분량만큼만 한다. 수티쌀을 방앗간에서 찧었다고 해도 수티쌀로는 삯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 타작 할 때 함께 계산한다. 수티쌀로 밥을 할 때에는 조기, 나물, 미역국, 포 등을 반찬으로 준비한다. 밥은 먼저 조상에게 올리고 이어 성주, 당산, 삼신에도 놓는다. 첫쌀밥을 해먹은 뒤에는 안방에 걸린 삼신짚도 새것으로 갈아준다. 헌 삼신짚은 불에 태운다.

논산시 상월면 대명1리에서도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품바심한 쌀로 밥을 지어 가신(家神)을 위한다. 이를 '햇밥천신'이라고 한다. 보통 5~6단을 베어다가 나락홀태로 훑으면 쌀이 다섯 되 정도 나온다. 햇밥천신을 하는 시기는 윤달의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윤달이 든 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빠르기 때문에 음력 8월에 한다. 그러나 윤달이 들지 않으면 음력 9월에 한다. 제물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안방의 조상께 고하고 이어 성주와 삼신을 위한다. 조상상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위해 밥과 술은 각기 여섯 그릇을 올린다. 여기에 미역국, 청수, 조기 두세 마리를 추가한다. 햇밥천신을 할 때 김치는 올리지 않는다. 명절 때처럼 차례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도 생략한다. 미역국은 고기를 넣어 끓여도 상관없다.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일반적으로 고기를 넣지 못하였다. 신심이 깊은 집에서는 조상상 앞에서 대주가 단잔(單盞) 단배(單拜)를 올리기도 한다. 성주에게는 밥과 청수만 올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그 후 당산(장광)으로 나가 장광 위나 그 앞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밥, 미역국, 청수를 올린다. 다음으로 주부가 그 앞에 나아가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비손한다. 당산까지 위하고 나서 밥, 미역국, 청수를 올리고 조왕을 위한다. 이렇게 하여 천신이 끝나면 햇밥을 거두어서 박나물과 같은 햇나물을 반찬 삼아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밥이 남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줘도 상관이 없다. 최근에는 햇밥천신을 하는 집이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히고 있다.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마을에서는 올벼로 처음 밥을 지으면 집안의 신령들에게 '햇벼천신'을 한다. 음력 8월 보름 안에 올벼를 추수하기 때문에 추석에 천신을 한다. 벼 5~6토메(단)를 베어다가 수수깡을 반으로 구부려서 이삭을 훑는다. 그 이삭을 절구로 찧어 말려서 밥을 짓는다. 올벼의 양이 적으면 집 안에 있는 쌀과 섞기도 한다. 천신할 때는 밥, 나물, 국, 청수 등을 제물로 준비한다. 예전에는 식량이 넉넉지 않아 밥은 한두 되만을 하느라 식구들이 먹기에도 부족하였다. 국은 당시에 즐겨 먹던 시래깃국으로 한다. 제물이 마련되면 조왕, 당산, 성주, 조상의 순으로 가져다 놓는다. 수저는 성주, 조왕, 당산에 올리지 않는다. 조상에게는 집에서 모시는 조상의 숫자만큼 놓는다. 이때 나머지 방과 집 안의 곳곳에도 제물을 조금씩 가져다 놓는다. 굴뚝도 빠뜨리면 안 된다. 굴뚝에는 집 안에 불이 잘 들고 불도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놓는다. 올벼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절식으로 만드는 송편은 올벼로 하지 않고 묵은쌀로 만든다. 때문에 송편은 천신에 사용하지 않고 차례에만 올린다. 이외에 '햇곡맞이'라고 하여 음력 10월이나 동짓달에 햇곡식과 초를 가지고 무당이나 법사에게 가서 가족이 축원을 하기도 한다.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가라티마을에서는 8월 보름날 아침에 풋바심한 찌갱이쌀로 밥을 지어 성주께 한 그릇 올리고 조상도 위한다. 차례를 지낼 때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4대조까지 위하고 있어 이때도 밥 네 그릇을 마련해 올린다. 차례와 달리 특별히 제물을 많이 장만하지 않고 간단하게 무나물과 밥을 지어 올린다. 성주와 조상에게 올린 밥은 양이 많지 않아서 식구끼리 나누어 먹는다. 남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부여군 내산면 지티2리 괴목정마을에서는 첫 곡식이 나면 그것으로 햅쌀밥을 지어 조상께 천신한다. 보통 8월 추석에 행하였다. 이때에는 벼가 아직 익지 않아 조금만 베어서 짓는다. 먼저 당산에 밥 세 그릇, 청수 한 단지, 국 한 그릇, 과일 약간을 올린다. 특별히 치성을 드리지는 않고 제물만 올린다. 그러고 나서 방 안의 성주와 조상에게 햅쌀밥을 마련하여 올린다. 이때도 특별한 비손을 하지 않고 그저 잠깐 두었다가 먹는다.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 서원마을에서는 '오려천신'을 한다. 오려(이른 벼)는 보통 벼 보다 20일 정도 일찍 나오므로 오려를 첫 수확한 날에 햅쌀로 천신을 한다. 오려로 송편을 빚거나 밥을 해서 성주, 당산, 샘, 대문 등에 한 그릇씩 가져다 둔다. 당산에는 숙주나물, 호박나물, 물 등을 함께 놓고 방 안의 성주 앞에는 조기도 구워 올리는 등 푸짐하게 마련해 올린다. 천신할 때는 성주께 상을 먼저 올리고 이어 당산에 올린다. 오려가 추

석 즈음에 나면 오려로 추석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에서도 첫 농사를 짓고 쌀로 밥을 지어 집안의 신령들을 위한다. 이를 '올해천신'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다. 특히 보리마저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때에는 지내기가 힘들었다. 음력 8월 추석이 되면 벼가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지만 홀태로 훑어서 밥을 해먹었다. 햅쌀을 수확한 셈이 되니 천신을 한다. 쌀이 덜 여물었기 때문에 타작한 뒤 햇볕에 말려서 솥에 쪄낸다. 이때는 특별히 별도의 제물을 마련하지 않고 제철 음식인 호박나물만을 볶아 놓는다. 먼저 밥 한 그릇, 물 한 동이, 나물 한 접시를 장광에 올린다. 제물은 장광에서 가장 큰 장독대를 깨끗하게 닦고 그 위에 진설한다. 그 후 안방의 성주께 제물을 가져다 놓는다. 안방의 윗목은 성주께로 불린다. 성주 앞에 상을 놓고 제물을 올리는데, 이곳에는 장광과 달리 대주 밥그릇을 제기(祭器)로 쓴다. 삼신께는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는 절은 하지 않으며 잠시 뒤에 제물을 내려서 식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산시 신창면 황산2리 오산말에서는 바심(타작)을 해서 첫 벼가 나면 일 년 농사를 잘 짓도록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햇밥을 지어 집안의 신령을 위한다. 먼저 부뚜막 위에 밥과 물을 한 그릇씩 올린다. 뒤란의 가장 큰 장독 위에도 동일하게 마련하여 올린다. 방안에는 쟁반이나 상에 밥과 물을 성주에게 가져다 놓는다. 성주에게 올린 물은 재수가 있으라고 가족들이 나누어 마신다. 뒤란에 올린 물은 장독대에 붓고 조왕에게 올린 물은 부뚜막에 붓는다.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에서는 햇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한다. 벼가 익기 시작하면 메뚜기를 잡는다며 남의 논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삭을 한 바가지 훑어다가 말린 뒤 쪄서 밥을 짓는다. 특히 칠성과 산신에게 밥을 지어 올린다.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방죽말에서도 햇곡식이 나면 우선 집안 조상들에게 천신 한 후에 밥을 해 먹는다. 햇곡으로 처음 밥을 짓게 되면 우선 장광과 성주 앞에 청수와 함께 메를 떠 놓는다. 수저는 놓지 않는다. 조왕에게는 따로 밥을 차리지 않는다. 밥을 하는 와중에 조왕님은 이미 밥 냄새를 맡았으니 굳이 다시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사가 아니므로 황토를 펴거나 부정을 가리진 않는다. 잠시 메를 차려 놓은 후에 이를 내어서 식구끼리 저녁식사를 한다. 이때 성주 앞에 놓은 밥은 대체로 그 집 대주인 가장이 먹는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6구 개목이마을에서는 추석 즈음이 되면 알곡이 난 첫 벼를 베어다 밥을 지어 성주, 터주, 조왕을 위하는데 이를 '올벼천신'이라고 한다. 아직 벼가 온전히 여물지 않아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홀태로 훑어 멍석에 사나흘 동안 말린다. 이렇게 쌀을 마련하여 밥을 짓는다. 때때로 비가 와서 벼가 잘 마르지 않으면 볶아서 죽을 쑤기도 한다. 저녁밥을 지어 먹기 이전에 청수 한 그릇과 함께 성주, 터주, 조왕께 한 몫씩 가져다 놓는다. 밥만 올릴 뿐 그 앞에서 특별히 치성을 드리지는 않는다. 올벼천신한 밥은 양이 적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어 먹지 못하고 식구끼리 먹는다.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안새울마을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 가면 집안의 신령께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음을 고하기 위해 천신을 한다. 완전히 여물지 않은 벼를 미리 베어다가 홀태로 훑어 밥을 짓는다. 이를 '햇곡천신'이라고 하며, 추석날 먹을 것까지 미리 쌀 한 말 분량을 한꺼번에 베어 온다. 추석 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석 때 차례로 지내기도 한다. 햇곡천신을 따로 할 경우에는 벼를 베어다가 추석 때 쓸 몫을 남겨 놓고 아침에 밥을 지어 당산, 성주, 집안의 수돗가(요왕) 등에 청수와 함께 가져다 놓는다. 추석날에 천신할 경우에는 햇곡으로 밥을 지어 방 안의 조상께 먼저 올리고 당산과 성주 등에 한 그릇씩 올린다. 햇곡천신을 했다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어서 예전에는 이웃과 매우 친밀하게 정을 쌓으며 지냈다고 한다.

청양군 남양면 홍산1구 새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행한다. 첫벼 바심한 것으로 밥을 지어 당산, 성주, 조상에게 각기 밥 한 그릇과 청수를 올린다. 집의 가장 큰 어른이 당산이므로 먼저 당산에 올린다. 이때는 짚을 깔거나 절을 하지 않고 제물만 올린다. 밥은 식구끼리 나누어 먹고, 청수도 거두어 마신다. 이 물을 마시면 제사 지낸 물과 마찬가지로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서는 '조기천신(제숙 올리기)'을 한다. 조기는 4~5월에 주로 잡힌다. 그해 처음 잡은 조기를 성주, 조상, 수부에 한 마리씩 꿰어 단다. 넉넉하게 잡히면 신령마다 세 마리를 짚에 꿰어서 바치기도 한다. 이때 신령들에게 올리는 조기를 '제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었다가 음력 5월이 지나면 반찬으로 먹는다. 한 달 이상 꿰어 달아 놓기 때문에 바짝 말려진 조기가 된다.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2구에서는 추석에 햅쌀로 메를 짓고 미역국을 끓여서 조상에게 햅쌀천신을 한다. 이때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령도 함께 위한다. 집안 신령에게 올리는 제물은 조상 차례를 지내기 전에 모두 차려 놓는다. 성주가 있는 대청 앞에는 조상 차례상과 마찬가지로 메, 미역, 국, 술, 조기, 탕을 모두 올린다. 수저 한 벌도 놓아서 성주님이 흠향하시도록 한다. 한편 조왕, 지신과 광에는 메를 한 그릇씩 올려 준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2리에서는 7월에 새로 밀을 수확하여 밀가루로 빻아오면 이것으로 부침개를 부쳐서 집에 모신 삼신과 터주에게 먼저 올린 후에 먹는다. 이를 '밀천신'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새 곡식이 나면 먼저 올리고 나서 먹는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아랫말과 새터골에서는 참외를 심어서 여름철 첫 수확을 하면 집으로 가져와서 먼저 집안 신령에게 고한다. 이를 '참외천신'이라고 한다.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2리 석지마을의 한 가정에서도 참외농사를 지어서 그해 처음 참외를 수확하면 농사 지은 것의 첫 수확이라 하여 시준단지 앞에 천신한다.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지사마을에서는 설에 떡국을 끓이면 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성주에게 한 그릇 놓았다가 먹고 제사를 지낸다. 이를 '떡국천신'이라고 한다. 밥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조상에게도 떡국을 떠 놓지만 떡국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조상에게는 놓지 않고 성주에게만 차린다. 어느 한 가정에서는 집에 조상단지를 모시고 설에 떡국차례를 지낸다. 새벽에 떡국을 끓이면 방안에 떡국 한 그릇, 술, 어리[한과]를 차려 놓는다. 이때 마루에는 떡국 한 그릇, 적, 갖가지 음식을 차린다.

참고문헌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지욱(金志昱)**

철륭

상호참조 장독신(558쪽), 철륭제(657쪽)

정의 뒤란 또는 장독대에 있다고 하는 가신(家神). 주로 전라도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다. 명칭은 청룡(靑龍)의 와음(訛音)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터주신, 장독신, 산신, 용신 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가내 평안과 자식의 안녕을 위해 모신다.

이 신격의 수호 영역은 집터이지만 특히 장독대가 위치한 뒤란이 중심 영역이다. 그래서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서 주로 철륭을 모신다. 철륭의 성별은 뒤꼍각씨(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와 같은 표현이 있어 여성성이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에서처럼 남신(男神)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설 · 정월대보름 · 추석 등 명절 아침에 집 뒤란 또는 뒤란의 장독대에 상을 차려서 떡, 밥, 나물, 어물, 과일 등을 진설한 다음 비손을 한다. 지역에 따라 철륭신, 천룡신(天龍神), 철령할마이, 뒤꼍각시, 철륭지신, 지신 등으로 불린다.

내용 철륭을 모시는 곳은 집 뒤란 또는 장독대이다. 장독대가 흔히 집 뒤란에 있어 이런 관념이 형성되었다. 철륭은 집 뒤란이 산자락과 바로 접해 있거나 집터가 센 집에서 주로 모신다.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성암마을에서는 안방의 뒷문을 열어서 바로 보이는 곳을 철륭이라고 한다.



철륭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002.4.21, 김태우



치성드리기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1990.8.20, 배도식

철륭의 신체는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과 오가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오가리형은 오가리에 주저리를 씌워 뒤란에 두거나 땅에 묻은 형태이다. 이 신체를 '철륭단지'(전북 무주군)라고 일컫기도 한다. 단지 속에는 쌀(또는 벼. 그 밖에 콩, 팥, 조, 메밀, 옥수수 등 오곡)을 넣어 둔다. 매년 가을에 이 쌀을 갈아 넣는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한 벼를 찧어서 오가리 속에 가득 넣고 한지(韓紙)로 그 위를 막은 후 뚜껑을 덮고 주저리를 씌운다. 묵은쌀은 이튿날 가족들이 밥을 해 먹는다. 부안군 계화면 상리 계상마을에서는 이 항아리 속에 깨끗한 물을 가득 넣어 두기도 한다.

의례 일시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 명절 아침에 가장 많이 행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월유두, 칠월칠석, 매월 초이렛날 등을 비롯해 삼월삼짇날, 구월중구일, 시월 모일, 동지, 매일, 매월 초사흘, 기제사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행하기도 한다.

상을 차리는 방법도 다양하다. 제물은 밥 · 떡 · 나물 등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술, 생선, 물 등을 차리고 촛불을 켜 놓는 곳도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 한 그릇이나 밥만 떠 놓는 곳도 있다. 장독대에서 깨끗한 곳을 택하여 짚을 깐 후 그 위에 상이나 채반을 놓고 제물을 차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짚만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리는 곳도 있다.

제물을 차리고 나면 간단히 비손을 하면서 가족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원덕신마을에서는 새벽 일찍 머리를 감은 뒤 물을 길어 와 항아리의 물을 갈아 주고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식이 잘되라고 기원한다. 떠 놓은 물 위에 짚을 열십(十)자 형태로 놓고 그 위에 돈을 놓은 다음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면서 공을 드리는 집도 있다. 철륭 앞에 차린 음식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여자가 먹으면 사나워지기 때문에 남자들만 먹는다는 곳(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암치마을)도 있다.

철륭은 성주, 조왕 등 다른 가신들과 함께 섬겨지면서 가신 가운데 기(氣)가 가장 센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모시기 시작하면 계속 모셔야지 중단하면 큰일이 난다고 한다.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서는 '자주 섬기면 귀신이 달라붙으므로 대충 섬겨야지 자꾸 공을 드리면 풀에도 귀신이 붙는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심지어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원덕신리 마을에서는 철륭에게 공을 잘못 드려 정신 이상이 생겼다는 말도 있다.

철륭이 있는 곳은 신성 공간이어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면 큰 탈이 생긴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북상마을에서는 어떤 아이가 철륭을 들여다본 후 눈이 빠지게 아파서 고생하다가 아이의 부모가 제물을 차려서 빌고 난 뒤에야 나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또 집 뒤란에 큰 나무가 있으면 흔히 그 아래에 철륭을 모신다. 이런 나무에 대하여는 금기가 철저한 편이다. 어떤 사람이 철륭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가 미치고 그 집도 망했다고 하는 구비전승이 있다. 일반적으로 철륭을 모시는 집에서는 개고기도 먹지 않으며, 평소에도 근신한다.

함평군 나산면 나산2구 방하마을에서는 철륭 아래에 있는 나무를 부득이 베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베고 난 뒤에 고추를 태워 예방했다고 한다. 또 함평군 손불



철륭단지
전남 장흥군 부산면 춘정마을, 2002
서해숙

철륭단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황헌만



면 대전리 수문마을에서는 철륭이 있는 나무를 꼭 베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나무 앞에서 빌거나 여자의 속옷을 걸어 놓고 사흘 정도 지난 후에 베면 뒤탈이 없다고 한다. 역시 이 마을의 강갑순 씨는 시숙이 장독대 위의 참나무를 벤 뒤로 다리가 매우 아파서 점을 쳐 보았더니 나무를 베어서 탈이 생긴 것이라고 하여 굿을 세 번이나 하고 나서야 나았다고 한다.

지역사례 집터를 관장하는 가신을 철륭 · 터주, 이에 대한 의례를 천륭제 · 텃고사 · 터신제라고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집터가 세거나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집에서 철륭신을 모신다. 충청 · 경기도지역에서는 터주신을 모시는 가정이 많다. 이 지역의 터주신은 집 뒤란이나 장독대에 쌀을 담은 단지를 놓고 짚으로 만든 터줏가리를 씌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라도지역과 충청 · 경기도지역에서는 터주신을 성주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신으로 알고 있어 신역 주변의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땅을 파는 일 등을 엄격히 금한다. 경상도 지역은 터주신앙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이 지역에서는 정초나 가을에 텃고사 또는 텃제를 간단히 지낸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남자들 중심으로 유교식 터신제를 지낸다. 이는 여성 중심으로 의례를 행하는 육지와 매우 다른 점이다.

철륭의 주 전승지인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사례를 제시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에서는 철륭신을 매우 무섭게 여긴다. 철륭신을 잘못 섬기면 삼 년 안에 미친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딴집에 살면서 철륭을 모시는 사람이 며느리의 실수로 철륭나무를 베어낸 뒤 그 며느리가 미치고 집안도 망했다고 한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생기면 삼거리에 나가 굿을 하기도 한다. 철륭을 모시는 집에서는 평소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 여러모로 금기를 행한다. 마을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까봐 철륭을 잘 모시지 않는다. 마을과 좀 떨어진 집에 사는 사람이 집 뒤쪽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철륭을 모신다. 철륭을 모실 때는 옹기그릇을 사용한다. 옹기 안에 쌀을 담고 짚으로 삿갓 모양의 유지지를 만들어 덮은 다음 큰 나무 밑에 모셔 둔다.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2구 용골마을에서는 집의 뒤란을 철륭이라고 한다. 보통 집의 뒤란에는 장독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장독대를 철륭이라 하는 경우도 많다. 옛날에 지은 집은 일반적으로 집 뒤란에 장독을 두었지만 요즘 새로 짓는 집은 뒤란이 좁아 장독대를 옥상에 많이 둔다. 이런 집에서는 옥상을 철륭이라고 하기도 한다. 집의 철륭이 세다고 여겨지면 철륭에 공을 드려야 한다. 철륭에 대한 공은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월대보름에 한 번 상을 차려놓는다. 이것만으로도 한 해의 공을 다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전에는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했다. 이때 철륭에 가서도 굿을 쳐 주었다.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월산마을에서는 자손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집에서 주로 철륭을 모신다. 때로는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철륭공을 드려야 한다는 점괘가 나오면 철륭을 모시기도 한다. 철륭을 모시는 곳은 집 뒤란이다. 철륭을 처음 모실 때는 항아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그 속에다 그해에 추수한 벼를 찧어 넣고 뚜껑을 덮어 둔다. 이 쌀은 지앙동우의 쌀과 달리 매년 갈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를 '철륭오가리'라고 한다. 철륭공을 드릴 때는 오가리 옆에다 깨끗한 물 한 그릇(보시기)을 담아 접시에 받쳐 놓는다. 철륭오가리를 없애려고 하면 좋은 날을 받아서 강이나 내에다 띄워 보낸다.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구만마을에서는 철륭에 대한 금기가 철저한 편이다. 이 지역 역시 집의 뒤란을 철륭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철륭이 있는 뒤란을 매우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 더러운 물건을 그곳에다 쌓아 두거나 동티가 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철륭에 있는 나무를 베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하여 절대 금한다. 부득이 이 나무를 베어야 한다면 이 나무와 다른 깨끗한 나무를 왼새끼로 연결하고 '나무신님 저리 건너가시라'고 입성수를 하거나 소금을 뿌린 후에 베어야 뒤탈이 없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무를 베면 반드시 탈이 생긴다 하여 매우 꺼린다. 특히 살구나무를 베면 탈이 가장 잘 생긴다고 믿고 있다. 철륭에 있는 나무를 잘못 베어서 탈이 나면 철륭에 상을 차려 놓고 빌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평소에 철륭에 대하여 상을 차리거나 섬기는 일은 없다.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2구 중촌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금기가 있다. 이곳에서도 철륭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베어야 한다면 '일 년의 막 가는 날'이라 하여 섣달그믐날에 베거나 공달인 윤달에 간단히 예방을 하고 벤다. 예방 방법은 이 나무와 근처의 작은 나무에 실을 걸어 둔 다음 나무를 베는 것이다. 나무를 베고 나서는 큰 못을 박고 통고추를 놓아 고추 불을 피운다. 과거에는 목화씨로 불을 피우기도 했다고 한다. 불을 피워 연기가 나면 매어 놓은 실에 옮겨 붙도록 하고, 이 연기가 실을 따라 작은 나무로 옮겨 가게 한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내창마을에서도 집 뒤란의 장독대를 철륭이라고 한다. 이 지역 역시 주로 집터가 센 집에서 철륭을 모시는데 특별한 신체는 없다. 철륭을 모시는 시기는 설, 정월대보름, 추석이다. 제의 공간은 장독대이다. 장독대에다 명절 음식을 그대로 차린 철륭상에 술 한 잔을 부어 놓는다. 철륭상은 반드시 성주상, 지앙상, 조상상 순으로 차리고 나서 차려야 한다. 철륭상 앞에선 절은 하지 않고 간단히 비손만 한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서는 집 뒤란이나 장독대를 철륭이라고 한다. 철륭에 따로 공을 드리는 일은 없다. 다만 시월 모날에 방안에다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으로 상을 차리는 정도이다. 옛날에는 명절마다 방, 마루, 뒤란 등에 밥을 많이 차렸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차린다.



철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축동리
황헌만

주천면 장안리 외평마을에서는 집의 뒤란 또는 윗목, 특히 집 안의 뒷목에 있는 성주의 위쪽을 철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장독이 있는 곳을 철륭이라고 한다. 철륭을 장독대로 여기는 사람들은 동지가 되면 장독대 위에 죽을 떠 놓고 빈다. 동지팥죽을 올릴 때는 일반적으로 한 양푼을 떠 놓는데 이 경우 숟가락은 함께 놓지 않는다. 철륭에 올려놓은 동지팥죽은 나중에 가져 와서 가족들이 나눠 먹는다. 철륭은 당산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짓날에 당산할머니와 당산할아버지에게도 동지팥죽을 떠다 놓는다. 철륭에게 비는 목적은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는 장독에 철륭을 모신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쌀을 단지에 가득 넣고 한지로 봉한 다음 뚜껑을 덮는다. 이를 철륭단지라고 한다. 그 위에 짚으로 엮어 만든 지붕을 덮는다. 이것을 장독대 가운데 갖다 놓고 철륭으로 모신다. 설과 추석이 되면 철륭단지 앞에다 술과 떡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또 가을 농사가 끝나는 시월에 도신을 지낸다. 이때도 철륭에 고사를 올린다. 철륭단지 속의 쌀을 바꿀 때는 안에 있던 묵은쌀로 밥을 해서 가족들이 나눠 먹는다.

부안군 계화면 상리 계상마을에서는 집 뒤란을 철륭이라고 한다. 철륭에 공을 드리는 목적은 자식,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들이 잘되도록 빌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마을의 이순애 씨는 아들 둘을 위해 항아리 두 개를 마련해 철륭공을 드렸다고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항아리에다 각각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뚜껑을 덮어 뒤란에 놓아둔다. 그리고 철륭공을 드릴 때는 조왕공을 드릴 때와 같이 매일 새벽 일찍 머리를 감고 남이 다니지 않을 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의 물을 갈아 주었다고 한다. 물을 갈아 준 뒤에는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군대 가면 잘되어 가지고 오라."라고 빌었다. 아들이 군에 갔을 때는 물론 대학 시험을 볼 때도 철륭공을 드렸다고 한다.

정읍시 금붕동 대성마을에서도 집 뒤란을 철륭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집 뒤에 장독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곧 철륭이란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요즘도 철륭을 모시는 사람들은 명절에 철륭상을 차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을 차리지 않는다. 철륭상의 제물은 기제사(忌祭祀) 상처럼 차리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만든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조그만 상에 올려놓는다. 어떤 집에서는 그냥 커다란 바가지에 밥을 가득 떠서 놓기도 한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객귀를 위해 마루에 밥을 떠 놓고 철륭에도 상을 차려 놓는다는 것이다. 방 안에서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을 거두어 철륭상에 차린다. 이 밖에 지앙님, 시앙님에도 상을 차린다. 철륭의 밥은 터신이 먹으라는 의미에서 차린다는 사람도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민간신앙 1, 민속원, 2008), **한국민속대관 3–민간신앙 · 종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북**(문화재관리국, 197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상**(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 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호남지역 철륭신의 성격**(김명자,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필자 **류종목(柳鍾穆)**

철륭제

상호참조 철륭(653쪽)

정의 집과 마을의 터를 눌러주고 지켜 주는 수호신인 철륭에게 지내는 제의. 철륭은 전라도지역에서 불리는 터주의 명칭이다. 터주는 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이다.

유래 터주신은 마을의 생성과 함께 시작한다. 처음 집을 짓기 전에 터를 닦고 지신제(地神祭)를 지내면서 터주신을 모시게 된다. 각 집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듯이 집 터주가 모이면 마을 터주가 된다. 마을 터주는 마을 전체의 터를 관장하면서 평안하게 보호해 주는 마을수호신이요, 집 터주는 집안의 터를 관장하면서 집안을 평온하게 보호해 주는 가정수호신이다. 터주신으로는 집 터주도 있고 마을 터주도 있다. 마을 터주는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터를 품고 있는 주산에 위치하고, 집 터주는 집의 뒤란 담 안쪽에 각각 위치한다.

이러한 터주신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강남지방에서는 마을의 제당에 토지신을 모시는 전각과 신단이 있다. 마을제당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신이 봉안되어 있는데, 마을 전체의 터 또는 토지를 보호해 주는 토지신이 배향되어 있다. 중국의 토지신은 마을제당 안에 배향되어 토지공(土地公), 토지파(土地婆), 토지할아버지[土地爺], 토지할머니[土地奶奶]라고 불린다. 문헌에는 후토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강남지방의 마을에서는 마을 터주를 모시는 민속이 강하다. 반면에 양자강 이북인 허베이 성과 산둥성 등 강북지역에서는 마을 터주보다 집안에 토지신을 모시는 집 터주를 모시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터주신과 중국의 터주신을 모시는 방식에서 집안과 마을에 터주신을 모시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인격화된 터주신을 모시는 반면에 한국은 자연신으로서 터주신을 모신다. 중국의 터주신앙이 불교문화의 전파로 한반도에 건너왔으며, 민속신앙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찰의 호법선신인 철륭팔부와 풍수지리가 결합된 천룡신앙이 한국민속에 철륭신앙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터주는 집안의 지신을 가리키며, 전국적으로 집안의 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전라도지역에서 터주는 터주, 철륭, 당산, 철륭당산, 철룡, 천룡 등으로 불린다. 철륭은 천룡(天龍)의 자음동화 현상으로 생겨난 민속어이다. 전라도지역에서 집 터

주와 마을 터주에 모셔지는 신은 천룡이다. 천룡은 '하늘의 용'을 이르는 불교의 호법선신인 천룡팔부(天龍八部)에서 차용되었다.

천룡제(天龍祭)는 동제(洞祭)로서의 천룡제와 가정신앙으로서의 천룡제가 있다. 마을에서 행하는 천룡제는 마을의 뒤쪽 주산(主山)에 위치한 천룡당에서 지내는 정월대보름의 동제를 말하며, 가정에서 행하는 천룡제는 집의 뒤꼍에 위치한 천룡단에서 지내는 고사를 각각 말한다. 마을의 천룡당이 마을 전체의 터를 관장하듯이 집의 천룡단도 울 안의 집터를 관장한다. 마을의 천룡당은 천룡이 강림한 곳으로 마을의 터주가 된다. 집의 천룡단은 마을의 천룡당에서 지맥이 집으로 내려온 곳에 조성한 터주, 당산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천룡은 산 밑에 집터를 잡은 집이나 집터가 센 집에서 모신다. 그러나 전통마을의 집터가 주산 아래 남향을 향한 경사진 면에 조성되는 경향이어서 대체로 집집마다 천룡을 모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을 주산의 천룡이 집터에 내용(來龍)하여 집의 당산에 천룡단을 조성하였다는 풍수 관념에서 천룡신앙이 싹튼 것이다.

처음에는 집터를 닦고 집을 지을 때 지신제를 지내고 터주를 모셨다. 그러다가 풍수지리와 불교신앙이 마을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교의 호법신앙이 차용되어 천룡신앙이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마을의 취락 형성은 배산임수를 보고 야트막한 경사면에 조성되는 경향이었으며, 벼농사 중심의 촌락사회에서 천룡숭배가 강렬한 것이 마을과 집에 천룡을 모시게 된 동기였다.

마을의 천룡제는 정월 열나흗날에 동제를 주관하는 제관이 천룡당에 올라가서 지내는 제사이다. 집의 천룡제는 정월 초에 장독대 앞에 짚을 깔고 명절음식을 차린 철륭상을 차려 놓고 간단히 비손을 하는 방식이다. 동짓날 터주를 위하면서 집안의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동지팥죽을 사방에 뿌리기도 한다. 집터의 기운이 세면 정월 열나흗날 밤에 콩, 팥, 보리, 수수, 녹두 등을 넣은 오곡잡곡밥을 지어서 집의 사방에 뿌리기도 한다. 농악대가 지신밟기를 하며 장독대 앞에서 지신을 밟아 주는 축원굿의 형식이다. 그러나 집의 천룡제는 주부가 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 명절마다 촛불을 밝히고 정화수를 떠 놓고 비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정월 초에 거행되는 지신밟기는 마을의 터주와 집의 터주를 밟아주어 평안을 기원하는 신년의례라 할 수 있다.

철륭은 처음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닦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터주로 자리 잡게 된다. 터주는 집안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비는 대상이며, 가장 높은 가신의 신격을 지니고 있다. 지신밟기에서 철륭굿은 터주가 집의 터를 잘 눌러 주어 가내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축원굿이다. 철륭은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과 신격을 지닌다.

경기도지역에서 철륭은 터주, 텃대감, 토주(土主), 터줏대감 등으로 불린다. 강원도지역에서는 터주, 터주지신, 용단지라 한다. 터주에 대한 고사는 토지지신제, 텃고사, 지신제라고 불린다. 강원도지역의 용단지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을 모신 단지'로서 터주와는 다른 가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터주를 용단지로 부르는 사례가 많다. 충청도지역에서는 터주, 당산, 터주당산, 당산신령님, 철륭당산, 토주, 토주대왕, 오방토주지신, 터줏대감 등으로 불린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철륭, 터주, 당산으로 불린다. 터주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가신의 명칭이지만 대체로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서 철륭, 당산으로 불리고 있다.

철륭은 터주신으로서 텃대감, 터줏대감, 후토주임과 같은 남성의 신격이다. 그러나 뒤꼍각시, 철륭할마이라는 여성의 신격도 지니고 있다. 안동지역에는 집안에 용단지가 두 개 있는데, 마누라를 상징하는 쌀용은 부엌, 남편을 상징하는 꺼칠용은 뒤꼍에 각각 두는 풍속이 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주저리를 씌운 항아리가 두 개일 경우 하나는 '영감', 다른 하나는 '영감마누라'라고 각각 부른다. 충청도지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철륭의 부부 명칭은 중국 토지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터주는 '터의 지신'이다. 신체는 항상 조그만 단지에 쌀 또는 나락을 넣고 볏짚주저리를 씌워서 집의 뒤꼍 당산, 철륭에 단을 만들어 놓거나 묻어 놓는 방식이다. 곡식은 가을에 햇곡식으로 갈아 넣고 햇짚으로 주저리를 틀어서 갈아 씌운다. 볏짚으로 원뿔형의 주저리를 씌워 놓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공통이다. 터줏가리는 장독대 옆에 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광방, 부엌에 모셔 두기도 한다. 대체로 집의 뒤꼍 장독대가 위치하는 곳이 집의 당산이며 이곳에 천룡단이 위치한다. 천룡단에 신체로 봉안되는 단지는 터줏단지 · 천륭단지 · 용단지로 불린다. 경기도지역에서는 터주를 터줏가리 · 터주항아리 · 토주항아리 등으로 부른다. 터줏가리는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씌우는 방식이다. 터주항아리는 작은 질그릇 단지 안에 벼를 넣고 볏짚으로 주저리를 씌운 다음 왼새끼로 두르는 방식이다. 천륭의 신체로는 나락을 넣은 항아리에 볏짚으로 만든 주저리를 씌우는 낟가리형과 주저리를 씌우지 않고 항아리만 봉안하는 항아리형이 있다. 전라도지역의 철륭은 주로 낟가리형으로, 나락을 담은 항아리에 볏짚주저리를 씌워 놓는 방식을 취한다. 천룡단은 장독대 옆과 뒤에 돌 받침으로 단을 만들어 나락을 넣은 볏짚주저리를 올려놓는 방식이다. 전라도지역에서는 10월 말날에 천륭단지에 햇곡식으로 갈아 넣는다.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유월유두, 칠월칠석에 간단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집의 천룡제는 정월 초에 지신밟기를 할 때 청수를 떠 놓고 촛불을 밝혀 놓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제물을 차린다. 제물로는 청수, 떡, 무나물을 올린다. 술과 생선은 쓰지 않는다. 가을에 햇곡식을 수확하면 터줏단지에 햇곡식으로 갈아 넣고 덜어낸 나락으로 밥을 지어 청수와 함께 터주에게 올리기도 한다. 햇곡식을 갈아 넣는 것은 1년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었다고 터주신에게 아뢰는 의미이다. 텃고사를 지낼 때에는 제물이 풍성해진다. 제물로는 팥 시루떡과 북어, 돼지머리, 삼색실과, 무나물, 막걸리를 제물로 올린다. 전라도지역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사방에 뿌린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콩, 팥, 수수, 보리, 녹두 등을 넣은 잡곡밥을 집터 사방에다 뿌리기도 한다. 명절 때에는 명절음식을 장만하여 철륭상을 차려 놓기도 한다.

의의 철륭신은 집안 최고의 가신이다. 철륭신은 풍수지리적으로 집과 집안을 수호하는 용신(龍神)이라 할 수 있다. 용왕제, 업신 등 용사(龍蛇)신앙과 관련된 민간신앙이 있지만 철륭신은 가정신앙에서 집터를 관장하는 가장 높은 신격을 지닌다. 가신은 마을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은 마을의 소우주로서 마을이 지닌 공간성과 신앙성을 그대로 집안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집의 터주를 철륭, 당산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다. 마을의 철륭제가 마을을 대우주 공간으로 성역화하는 것이라면 집안의 철륭제는 집을 소우주 공간으로 성역화한 종교적 장치이다. 천룡은 하늘에서 비바람의 조화를 일으키는 용이 마을의 주산으로 내려와 마을수호신이 되고, 다시 천룡당의 지맥이 집에까지 뻗어 내려와 집터의 수호신이 된다. 천룡제는 정월 초에 마을과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인 천룡에게 집안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신년의례이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에서 영등제와 철륭제(송화섭,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경기지역의 터주신앙(김명자,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문화재 26, 문화재관리국, 1993),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중 가신신앙의 비교(정연학,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향토문화와 민속(김형주, 선명출판사, 1999).

필자 송화섭(宋華燮)

체

정의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걸러 받아내는 기구로서 민속에서는 쳇불에 나 있는 촘촘한 구멍으로 야광귀(夜光鬼)를 쫓는 도구.

역사 앙괭이, 앙광이, 야유광, 야광신 등으로도 불리는 야광귀는 설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쳐간다고 한다. 신발을 잃은 사람은 그해 재수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야광귀를 쫓기 위해 체를 문 앞이나 섬돌과 뜰 사이에 두고 잠자리에 드는 풍속이 있다. 야광귀가 체를 보고 구멍을 세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각종 세시기(歲時記)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야광이라는 귀신이 있다. 밤에 사람의 집에 찾아와 신발 훔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신을 잃은 사람은 일 년 신수가 불길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신발

체 국립민속박물관





을 숨겨놓고 야광귀가 오기 전에 일찍 잠을 잔다. 야광귀를 막기 위해 장대 등에 체를 걸어둔다. 야광귀가 찾아와 체를 보고는 구멍을 세다가 순서를 잊어 다시 세면서 결국 다 세지 못하고 새벽에 닭이 울면 도망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름이 야광인 귀신이 이날 밤 민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두루 신어 보다가 발 모양이 딱 들어맞는 것을 신고 가면 그 신발의 주인은 불길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이 무서워 모두 신발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잔다. 그리고 체를 대청 벽이나 섬돌과 뜰 사이에 걸어 둔다. 야광귀가 체의 구멍을 세어 보다가 다 세지 못하여 신발 신는 것을 잊고는 닭이 울면 돌아가기 때문이다. 야광이 어떤 귀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약왕(藥王)의 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여겨진다. 약왕의 모습이 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 무서워 떤다."라고 하였다.

체를 이용하여 야광귀로부터의 재앙을 방지하던 구체적인 민간의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문헌상으로는 주로 정월 초하룻날 밤에 행하는 세시풍속으로 전해올 뿐이다. 나름대로의 축귀의례(逐鬼儀禮)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실제 전승양상은 주로 정월 열엿새인 귀신날에 행하는 예가 많다.

형태 체는 쳇바퀴와 쳇불로 이루어져 있다. 쳇불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어레미, 중거리, 가루체(또는 고운체) 등으로 구분된다. 야광귀를 쫓는 데는 쳇불 구멍이 가장 촘촘한 가루체를 이용한다.

가루체의 쳇불은 전통적으로 말총, 명주실, 철사 등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나일론 사, 합성 섬유사 등으로도 만든다. 촘촘함의 정도가 지름 0.5㎜ 이하이기 때문에 쳇불의 구멍은 사실상 헤아리기 어렵다. 이 구멍들은 야광귀의 관점에서 모두 눈으로 여겨져 가루체가 수많은 눈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내용 야광귀로부터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체를 걸어두는 풍속은 눈이 많은 것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민간신앙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례 등에서 네 개의 눈을 지닌 방상시[方相氏]의 악귀를 쫓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광귀는 구멍이 많은 체를 직면하면 그것이 수많은 눈을 지닌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여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눈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여 신발을 훔칠 생각도 잊고 쳇불 구멍을 일일이 센다. 그러나 쳇불 구멍을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워 어디까지 셌는지를 쉽게 잊고 다시 세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에 닭이 울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체가 귀신을 쫓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사례 체를 문 밖에 걸어두어 축귀의 수단으로 이용한 풍속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나타난다. 서해안 지역보다는 동해 내륙지역에서 전승력이 좀 더 강한 편이다. 문헌상으로는 설날인 정월 초하룻날 밤에 행하는 풍속으로 전해지나 실제 현지전승양상은 정월 열엿샛날인 귀신날에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귀신날과 야광귀의 출몰일을 상치시킨 것이라 하겠다.

경북 안동, 예천 등지에서는 정월 열엿샛날을 귀신날 혹은 귀신달개날이라고 하여 이날 밤 귀신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맞는 것이 있으면 신고 간다는 믿음이 있다. 신발을 잃은 사람은 그 해 액운이 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 놓는 풍습이 있다. 그리고 삽짝이나 대문, 혹은 문고리 등에 체를 걸어두어 귀신을 막고자 한다. 귀신이 체의 구멍을 세어보느라 밤을 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짚이나 왕겨, 무명씨나 고추씨, 혹은 개똥 등을 태워 독한 냄새가 나는 불을 대문 앞에 피워 귀신의 접근을 막는 사례들도 있다. 곳에 따라서는 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태우기도 한다.

의의 설날인 정월 초하룻날 밤에 문 밖이나 대문간에 발이 고운체를 걸어두는 풍습은 형식상으로 야광귀를 쫓는 축귀의 수단이지만 실제로 일 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 밤에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는 이물질을 골라내고 좋은 것을 정선(精選)하는 기능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체를 문 밖이나 대문간에 걸어 둠으로써 액운은 막아내고 행운만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는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키를 씌워 이웃집에 소금을 꾸러 보내는 것과 흡사하다. 키질을 통해 실한 곡식을 골라내듯 그런 실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처럼 체가 지닌 선곡(選穀) 및 정선의 기능을 주술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크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야광귀쫓기**(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세시풍속 1**(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세시풍속 2**(김명자, 민속원, 2007).

필자 **김재호(金在浩)**

춘첩(春帖)

정의 입춘 때 집안 곳곳에 경축과 벽사의 의미를 기원하며 붙인 문구.

역사 춘첩(春帖)은 봄에 붙이기에 얻어진 명칭이다. 대구(對句)를 이룬 문구를 붙이기에 춘련(春聯) 또는 대련(對聯), 입춘에 붙이기에 '입춘첩'이라고도 부른다. 문에 붙이기 때문에 '문련(門聯)', 문기둥에 붙이기에 '영련(楹聯)', 일정한 크기에 표제(標題)를 적기에 '첩자(帖子)'라고도 한다.

한편 조선시대 후기 문집에서는 '춘첩'과 '첩자'를 구분하였다. 춘첩은 입춘날 대문이나 집안 기둥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같은 글귀를 써 붙이는 것이다. 한 해의 무사태평과 풍농을 기원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을 담은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첩자는 섣달그믐날에 붉은색 종이에다 좋은 의미의 구절을 짝이 맞게 대구로 써서 문 위에 붙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대련, 문첩(門帖)이라고 한다. 문 앞에 신도(神荼)와 울루(鬱壘), 두 문신(門神)을 그린 판자를 세운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춘첩과 첩자는 붙이는 시기와 목적이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춘첩과 첩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이고, 붙이는 시기가 한국과 중국이 다름에서 온 차이로 구분했다. 동아일보 1926년 2월 13일자에서는 춘첩을 우리는 입춘에 붙이지만 중국 화교들은 설에 붙이고, 춘첩을 쓰는 종이의 색깔이 우리는 흰 종이이지만 중국은 붉은 종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우리는 입춘에 문구를 문에 붙이기에 '춘첩', '입춘첩'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설에 문에 붙이기에 문첩, 문장이 대구를 이루기에 대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첩자는 춘첩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서는 첩자가 시기에 따라 입춘에는 입춘첩자, 설날에는 연상첩자, 단오에는 단오첩자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입춘 붙인다.'라는 것은 입춘에 문짝과 기둥에 백성들이 축원하는 첩자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춘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2011.2.27, 배도식



조선시대에는 춘첩을 임금에게 바치기도 하고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춘첩 짓는 것은 예문관에서 담당했고, 왕에게 춘첩을 바친 것은 오래된 습속이다. 내용도 다양하여 만물에 새싹이 나는 봄에 대한 찬양과 임금의 은덕, 오복(五福) 등을 표현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춘첩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당시에 문인들이 분주하게 붓을 놀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도 있다. 자신을 위해 춘첩을 짓기도 했다. 이렇듯 이웃에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주로 춘첩을 썼다.

궁궐에서는 설날 며칠 전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인 대제학(大提學)을 불러 신하 가운데 글을 잘 짓는 이들을 뽑아 그들에게 연상시(延祥詩)를 짓게 하고, 그 가운데 합격한 것을 대궐의 문미(門楣)에 붙였다. 이는 춘첩 짓는 것을 학문의 평가 잣대로 삼은 것이다. 민간에서도 문에 붙인 춘첩을 통해 그 집안의 학문 실력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궁궐의 춘첩 내용은 임금의 대전(大殿), 대왕대비의 대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글자 수도 오언, 칠언 등 다양하다. 유세명(柳世鳴)의 〈계축입춘일침실첩자삼수진퇴격(癸丑立春日寢室帖子三首進退格)〉이란 시는 침실에도 입춘 첩자를 붙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어유봉(魚有鳳)의 〈십구일입춘희제춘첩(十九日立春戲題春帖)〉은 19수에 이르는 긴 춘첩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내용 조선시대 이덕무(李德懋)의 시 〈세시잡영(歲時雜詠)〉에서는 당시 춘첩의 문구를 두보(杜甫)의 시를 비롯한 당시(唐詩)에서 인용하였다고 한다. 묵은해에 붙인 춘첩의 문구는 새해에도 변화가 없다고 적었다. 그의 말대로 춘첩의 문구나 붙인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당시 사서삼경 등의 시구 일부를 취해 춘첩의 문구로 삼는 것은 현재 우리보다 중국이 그러하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의 경우 『논어』, 『시경』, 『주역』의 내용 일부를 따와 춘첩을 지은 집이 많이 보인다.

조선시대 상점에서도 춘첩은 돈을 들여서라도 명필가에게 글을 받아 문 밖 기둥에 붙였다. 이는 가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문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한 해 상서롭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춘첩과 관련해서는 홍석모(洪錫謨)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다. 한편 『동국세시기』의 내용은 먼저 발간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와 같은 것으로 보아 홍석모가 『경도잡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석모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춘(宜春)'이란 두 자를 문에다 붙인다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춘련이 여기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의춘은 '비바람이 고른 봄'을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의 지방지(地方志)를 보면 광복 이후에도 이 두 글자를 문에 붙였다고 한다.

『경도잡지』와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춘첩을 보면 벽사, 평안, 풍년, 경축, 초복, 장수 등을 기원하는

주제	원문	의미
벽사	문신호령(門神戶靈) 가금불상(呵禁不祥)	집에 깃든 신령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평안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니 집집마다 넉넉하다.
	요지일월(堯之日月) 순지건곤(舜之乾坤)	요임금 세월, 순임금 세상처럼 태평성대하길 바란다.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부모님 오래 사시고 자손만대 번영하라.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 사방무일사(四方無一事)	천하는 태평한 봄이고 사방에 아무 일 없다.
	국유풍운경(國有風雲慶) 가무계옥수(家無桂玉愁)	나라에 풍운의 경사 있고 집안에 땔거리 먹을거리 걱정 없으라.
	재종춘설소(災從春雪消) 복축하운흥(福逐夏雲興)	재난은 봄눈처럼 사라지고 복은 여름구름처럼 일어나라.
	계명신세덕(鷄鳴新歲德) 견폐구년재(犬吠舊年災)	닭 울음소리에 새해 덕이 들어오고 개 짖는 소리에 묵은해 재앙이 나간다.
	봉명남산월(鳳鳴南山月) 인유북악풍(麟遊北嶽風)	봉황은 남산 달 아래서 울고 기린은 북악산 바람을 따라 노닌다.
풍년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연풍(時和年豐)	비바람이 순조로워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오라.
	애군희도태(愛君希道泰) 우국원연풍(憂國願年豐)	임금을 섬겨 큰 정치 희망하고 나라를 염려하며 풍년을 기원한다.
초복	천상삼양근(天上三陽近) 인간오복래(人間五福來)	하늘은 정월 봄이 되었으니 인간세계에 오복이 온다.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백복래(開門百福來)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
	문영춘하추동복 (門迎春夏秋冬福) 호납동서남북재 (戶納東西南北財)	대문으로는 사계절의 복을 맞이하고 방문으로는 사방의 재물을 받아들인다.
	거천재(去天災) 내백복(來百福)	온갖 재앙은 가고 모든 복은 오라.
경축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에 대길하고 계절 따라 다경하라.
장수	천증세월인증수 (天增歲月人增壽) 춘만건곤복만가 (春滿乾坤福滿家)	세월이 감에 인간 수명이 더해지고 봄이 천지에 가득함에 집안에 복이 가득하다.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수명은 산같이, 재물은 바다같이 되라.
	북당훤초록(北堂萱草綠) 남극수성명(南極壽星明)	어머님 근력 푸른 풀처럼 좋으시고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라.
	육오배헌남산수 (六鰲拜獻南山壽) 구룡재수사해진 (九龍載輸四海珍)	여섯 마리의 자라는 만수를 바치고 아홉 마리 용은 사해의 재물을 실어 온다.

〈동국세시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춘첩 내용〉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문장은 옛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지만 상당수 춘첩의 문구는 출처를 알기 힘들다. 예를 들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몽양록(夢梁錄)』, 가급인족(家給人足)은 『회남자(淮南子)』에서 각각 문구를 취하는 등 모두 옛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였다. '문신호령 가금불상(門神戶靈 呵禁不祥)' 내용 가운데에는 '가금불상'만 『전당서(全唐書)』의 내용을 취한 것으로, 대구 가운데 하나만 옛 문헌을 참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옛 문헌의 내용을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육도(六韜)』에 나오는 풍조우순(風調雨順)을 우순풍조(雨順風調)로 단어 위치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수많은 춘첩의 문구 출처는 대부분 밝히기가 어렵다. 이것은 춘첩의 내용이 글 쓰는 사람이나 집안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고, 여기저기 선현의 기록 일부를 취해 의뢰한 사람에 의해 다시 재편집되었기 때문이다. 춘첩 대부분의 내용이 집집마다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춘첩이 일부 사람을 중심으로 쓰이지고, 일부는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문장의 다양함을 엿볼 수 없다. 흔히 보이는 입춘첩 문구가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이다. 이들 문구는 대문 좌우에 붙이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구 공고란에 붙이기도 하였다. 현 세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춘련은 대구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첩(單帖)도 있다.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단첩은 다음과 같다.

> 춘도문전증부귀(春到門前增富貴) : 봄이 문 앞에 오니 부귀가 늘어난다.
> 춘광선도길인가(春光先到吉人家) : 봄빛은 길한 사람 집에 먼저 온다.
> 상유호조상화명(上有好鳥相和鳴) : 하늘에는 길한 새들이 서로 조화롭게 운다.
> 일춘화기만문미(一春和氣滿門楣) : 봄날의 화기가 문 위에 가득하다.
> 일진고명만제도(一振高名滿帝都) : 이름을 높이 떨쳐 장안에 가득하라.

지역사례 오늘날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을 비롯한 몇몇 반가를 제외하고는 춘첩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 안동의 경우 하회마을 양진당과 류성룡 선생



춘첩
경남 밀양시 가곡동
먼실, 2011.4.3
배도식

의 종택인 충효당, 도산면 퇴계 이황 선생의 종택(宗宅) 등에서 비교적 완전한 춘첩을 볼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김정회(金正會) 고가(古家)에서 춘첩 풍속을 엿볼 수 있지만 전주시 한옥마을에서는 춘첩을 붙인 집을 거의 볼 수 없다. 과거 반가에서는 춘첩의 문구로 학문의 높고 낮음을 따졌고, 어린 손자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여 학문 실력을 남들에게 보이기도 하였다. 어느 가문에서는 춘첩의 문구를 적은 첩자를 별도로 보관하기도 하였다.

하회마을 각 집의 춘첩 내용은 차이를 보이며, 내용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집안 주인 가운데 한학(漢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구의 내용이 변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기존의 춘첩 내용을 보고 베껴서 그 자리에 붙인다. 이것도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한국과 중국 춘첩 내용은 많은 문구가 고서의 내용 일부를 취해 조합한 것이어서 출처를 알아보려고 해도 모두 찾기가 무척 어렵다.

조운종(趙雲從)은 조선시대 민가의 대문에 '문의 신령께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꾸짖어 물리치네(門神戶靈 呵禁不祥)'라는 첩자를 많이 붙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지적대로 문신호령(門神戶靈), 가금불상(呵禁不祥) 등의 춘첩 문구는 오늘날 문에서도 보이지만 그리 일반적이지가 않다.

하회마을 양진당 대문에는 '성인을 두려워하고 어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의 '외성인 문장자(畏聖人 聞長者)'라고 쓴 대련을 붙였다. 외성인이라는 문구는 공자가 말한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논어(論語)』에 나온다. 충효당 대문에는 '해마다 화평하고 풍년이라,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세화연풍 국태민안



춘첩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부리, 2011.4.18
배도식

(歲和年豊 國泰民安)' 춘첩을 붙였다. 귀촌종택의 경우는 대문에 '막힘은 가고 태평함이 오라.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라는 뜻의 '부왕태래 거구취신(否往泰來 去舊就新)' 대련을 붙였다. 주인의 개혁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하회탈 전문점인 승고재의 대문에는 '요임금과 순임금 때처럼 태평성대하길 바란다.'라는 뜻의 '요지일월 순지건곤(堯之日月 舜之乾坤)' 대련을 붙였다. 집안이 태평성대해지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 문구는 『동국세시기』에도 보인다. 이 밖에 '만세를 누리고 복이 끝이 없어라.'라는 내용의 '수무당 복무극(壽無堂 福無極)', '하늘과 같이 끝이 없고, 더욱 만수무강하라.'라는 '여천무극 연년만수(與天無極 延年萬壽)', '마음은 후회가 없어야 하고, 얼굴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의 '심불참 면불괴(心不懺 面不愧)', '온갖 상서로움이 들어오다.'의 '납백상(納百祥)' 등의 문구를 붙였다.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한 퇴계 이황 종택의 대문에는 '천리를 받들고 스스로 깨달아 연다.'라는 뜻의 '봉천리 계오생(奉天理 啓吾生)' 문구를 붙였다. 이 문구는 대문뿐만 아니라 정자(亭子) 출입구에도 '나 오(吾)'자 대신 '백성 민(民)'자로 바꾸어 붙였다. 퇴계 종택은 1929년 13대손인 하정공(霞汀公) 이충호(李忠鎬) 씨가 새로 지은 집으로, 문과 문기둥 곳곳에 대련이 붙여져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문을 비롯한 일반 문의 대련이 4글자인 반면에 방문과 방문 사이 기둥의 대련은 7글자로 통일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주인의 생각에 따라 대련의 문구가 바뀌었음을 2010년에 쓴 춘첩의 문구에서 엿볼 수 있다. 춘첩의 문구는 교장 출신인 종손 이근필 씨가 쓴 것으로, 예전부터 집안에서 사용한 춘첩 문구이다.

퇴계 종택 춘첩은 '건양다경'의 '기쁠 경(慶)'자 대신 '경치 경(景)'자를 썼다. 이것은 고조부의 이름에 경(景)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퇴계 종택 사당 정문과 부엌문에는 일반 고택과 달리 네 개의 춘첩을 붙였다. 중문에는 문신인 신도와 울루 이름을 써 붙였다. 옛 기록처럼 우리 대문에 두 문신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김정회 고택 대문에는 '용과 호랑이가 집을 지킨다.'는 뜻으로 '용호수성 풍운호영(龍虎守城 風雲護營)'이라는 문구를 붙인다. 집을 성과 군영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본래 용과 호랑이는 세화(歲畫)이다. 이것으로 춘첩을 만든 것이다. 노모(老母)가 거주하는 방 위에는 노모의 호인 유정(裕庭)을 따와 장수를 기원한 문구를 붙인 것도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춘첩이다.

위치	내용	의미
사랑채 대문좌우	畏聖人 (외성인) 聞長者 (문장자)	성인을 경외하고 어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사랑채 대문좌	瑞日祥雲 (서일상운)	상서로운 태양과 구름처럼 좋은 것이 깃들라.
안채 마루	學優登仕 (학우등사)	학문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하라.
조모방 뒤	以友輔仁 (이우보인)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안채 대중문	三陽泰回 (삼양태회) 百福鼎臻 (백복정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가라. 모든 복이 모이도다.
	立春大吉 (입춘대길) 建陽多慶 (건양다경)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안채 찬방	財數大通 (재수대통)	좋은 일을 만나 운수가 크게 트이다.
안채 고방	降福洋洋 (강복양양)	복을 내림이 바다(가득함)와 같도다.
안채 부엌	龍輸五福 (용수오복) 虎逐三災 (호축삼재)	용은 오복을 들여오고, 호랑이는 재앙을 쫓아낸다.
안채 부엌	薪水自足 (신수자족)	봉양이 이로부터 시작된다.
사당 쪽문	統之有宗 (통지유종) 會之有元 (회지유원)	아우르면 중심[宗]이 있고, 모으면 시작[元]이 있다.

양진당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위치	내용	의미
솟을대문 좌우	歲和年豐(세화연풍) 國泰民安(국태민안)	해마다 화평하고 풍년이어라,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여라.
중문 좌우	三陽泰回(삼양태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가라.
고방문	取之無禁(취지무금)	취하되 금하는 이가 없다.
	充隘露積(충애노적)	가득 쌓이도다.
통방문	敬天愛人(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문 좌우	靜坐看書一昧長 (정좌간서일매장)	조용히 앉아 오랜 시간 책을 본다.
	忠孝之外無事業 (충효지외무사업)	충효 이외에 다른 사업은 따로 없도다.
우측 사랑방문	以文會友(이문회우) 學優登仕(학우등사)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학문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학문하라.
사당문	敢告己未立春(감고기미입춘)	감히 기미년 입춘에 고하나이다.
조모 우좌	萬壽無疆(만수무강) 財數大通(재수대통)	만세를 누리고, 좋은 일을 만나 운수가 크게 트이다.
조모 후문	笑門萬福來(소문만복래)	웃음소리에 문으로 만복이 들어오다.
신부방 앞문	萬事如意(만사여의)	온갖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신부방 뒷문	靜坐看書一昧長 (정좌간서일매장)	조용히 앉아 오랜 시간 책을 본다.
조모방 다락문	金帛陳陳(금백진진)	금과 비단(재물)이 가득하도다.
안방 옆문	降福洋洋(강복양양)	복을 내림이 바다(가득함)와 같도다.
안방 옆문 중앙	萬堂和氣(만당화기)	만당에 화기가 돈다.
안방문 우좌	笑門萬福來(소문만복래)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웃음소리에 문으로 만복이 들어오고, 집안에 온갖 일이 이루어지다.
부엌문 우좌	瑞雲祥日(서운상일) 建陽多慶(건양다경)	상서로운 구름과 햇빛.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장광문	甘且旨(감차지)	달고도 맛있다.
도장문	充於內(충어내)	집안에 가득하다.
안문 우좌	時和年豐(시화연풍)	언제나 화평하고 풍성한 세월이 되어라.
안방 다락문	酒肴陳陳(주효진진)	술과 안주가 가득 하도다.
곳간문	用之不竭(용지불갈)	써도 다함이 없다.
	立春大吉(입춘대길) 國泰民安(국태민안)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여라.

충효당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귀촌종택	대문좌우	否往泰來(부왕태래) 去舊就新(거구취신)	막힘은 가고 태평함이 오라.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
승고재	대문좌우	堯之日月(요지일월) 舜之乾坤(순지건곤)	요임금과 순임금 때처럼 태평성대롭길 바란다.
기타 가옥		壽無堂(수무당) 福無極(복무극)	만세를 누리고 복은 끝이 없어라.
		納百祥(납백상)	온갖 상서로움이 들어오다.
		祛三災(거삼재)	삼재를 없애다.
		心不懺(심불참) 面不愧(면불괴)	마음은 후회가 없어야 하고, 얼굴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虎(호) 龍(용)	호랑이와 용.
		與天無極(여천무극) 延年萬壽(연년만수)	하늘과 같이 끝이 없고, 더욱 만수무강하라.

하회마을의 대문

위치	내용	의미
대문	奉天理(봉천리) 啓吾生(계오생)	천리를 받들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 연다.
정자 정문	奉天理(봉천리) 啓民生(계민생)	천리를 받들고 백성이 스스로 깨달아 연다.
사당 정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景(건양다경) 門神戶靈(문신호령) 呵禁不祥(가금불상)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집에 깃든 신령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사랑채 툇마루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景(건양다경)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중문	神荼(신도) 鬱壘(울루) 門神戶靈(문신호령) 呵禁不祥(가금불상)	신도와 울루. 집에 깃든 신령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부엌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景(건양다경) 門神戶靈(문신호령) 呵禁不祥(가금불상)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집에 깃든 신령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마루 창살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景(건양다경)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北陸擬陰盡(북육의음진) 千門淑色新(천문숙색신)	북쪽 땅의 음지가 다해서 녹으니 문마다 맑은 기운이 새롭다.
샛문	正自啓自(정자계자)	스스로 바르게 함으로 자신을 깨우쳐라.
안채 곳간문	禍福無門(화복무문) 惟人所召(유인소소)	화와 복은 따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정자 창고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景(건양다경)	입춘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퇴계 종택

위치	내용	의미
노모의 방문	裕庭康寧(유정강녕) 門照老人星(문조노인성) 子孫和平(자손화평)	유정(노모)이 강녕하다. 문에 노인성(老人星)이 비친다. 자손이 평안하다.
부엌문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慶(건양다경)	입춘이니 크게 길하다. 양기가 일어나니 경사가 많도다.
곳간	時和年豊(시화연풍) 乃積乃倉(내적내창) 立春大吉(입춘대길)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온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 입춘이니 크게 길하다.
곳간	立春(입춘) 大吉(대길)	입춘 대길
사랑채 앞문	立春(입춘) 孝子入則孝(효자입칙효)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입춘 효자가 집으로 돌아와 효를 행한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대문	龍虎守城(용호수성) 風雲護營(풍운호영)	용과 호랑이가 성을 지키다. 바람과 구름이 진영을 지키다.

김정희(金正會) 고가(古家)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가옥	위치	내용	의미
괴헌 고택 (경북 영주)	문 안쪽	掃地黃金出(소지황금출) 開門萬福來(개문만복래)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광	陳陳紅腐(진진흥부) 乃積乃倉(내적내창)	붉은 두부가 넓게 깔려 있고 곳간에 쌓여라
	방문	子孫萬世榮(자손만세영)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父母千年壽(부모천년수)	자손 만만대 영화로워라 집안이 평화롭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부모가 천년 장수하시라
경주최씨종가 (경북 대구)	곳간	綽有餘裕(작유여유) 量八爲出(양팔위출)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많은 양이 생산되어라.
	광	以齊以整(이제이정) 百具在是(백구재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옳은 일을 하다.
	부엌	而樵而汲(이초이급) 日用飮食(일용음식)	나무와 물로 매일 먹을 음식을 만들다.
	중문	瑞氣集門(서기집문) 和風瑞雲(화풍서운)	상서로운 기운이 문으로 모이고, 따스한 바람에 상서로운 구름이 온다.

기타 지역

춘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 2011.2.27, 배도식



충남 연기군 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신씨 종가(전남민속자료 26호) 대문에는 500년이 된 종가임을 알리는 춘첩을 대문 기둥에 새겨두었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김씨의 곳간에는 '한지태창 진지태창(漢之太倉 秦之太倉)'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나라와 진나라의 큰 곳간처럼 곡식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춘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의 춘첩은 대문 이외에도 집안 곳곳에 붙이기도 하는데, 공간과 기능에 따라 다른 내용의 춘첩을 붙인다. 예를 들어 외양간에는 가축이 흥성하기를 기원하는 춘첩을 붙이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글로 써서 붙인다.

우리나라 춘첩 가운데 '입춘대길 건양다경' 문구가 흔하게 보이지만 그 밖의 춘첩은 개인의 가풍과 원망(願望)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조선후기 문집**(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국립민속박물관, 2003~2005).

필자 **정연학(鄭然鶴)**

출어고사(出漁告祀)

상호참조 배고사(197쪽)

정의 첫 출어 시에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빌기 위해 지내는 제의. 출어고사는 출어할 때마다 지낸다기보다 새해 첫 번째 출어할 때 지내는 고사라는 뜻이다. 고사를 지내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출어고사, 명절고사, 진수고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출어고사를 가장 큰 규모로 지낸다.

역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로와 교역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풍어와 항해의 안전을 비는 배고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배고사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승돼 왔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 〈심청가〉를 보면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바다에서 항해의 안전을 비는 것을 보면 출어고사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사공 영좌 이하 황황급급허여 고사지계(告祀之計)를 차릴 제 섬쌀로 밥짓고 온소잡고 동우술 오색탕수 삼색실과를 방위 찾어 갈라놓고…… 도사공 거동을 보아라 의관을 정제하고 북채를 양손에 갈라 쥐고…… 돛대 우에 봉기 꽂고 봉기 우에 연화 받게 점지허여 주옵소서 고시래." 〈심청가〉에 나오는 배의 성격으로 본다면 강남 상인들이 부리는 상선(商船)에 해당하지만 "돛대 우에 봉기 꽂고 봉기 우에 연화 받게 점지해 주옵소서."라는 내용은 서해안의 조기잡이 배들이 출어고사 때 축원하는 내용 그대로다. 배고사는 선주나 선원들이 간단하게 지내는 형태이지만 경우에 따라 무당이 주재하는 굿과 결합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내용 배고사는 배서낭 또는 용왕에게 배와 어로의 안전, 선원들의 무탈함과 풍어를 비는 제의이다. 배고사는 처음 배를 진수했을 때 지내는 진수고사, 정초나 대보름 · 추석 등 주요 명절에 지내는 명절고사, 출어하면서 지내는 출어고사 등이 있다. 이밖에도 배를 수리하고 어망을 구입했을 때, 고기가 안 잡힐 때 등에도 배고사를 지낸다. 각 상황에 따라 배고사를 지내는 것은 그만큼 바다일이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바다의 상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탁해서 원만하게 어로 활동을 하기 위하는 데 있다. 출어고사의 경우 새해 첫 출어를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정성을 기울여 지낸다. 경우에 따라 무당을 불러 큰 규모로 치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각 가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어고사를 지냄으로써 포구에는 동시에 출어고사를 지내는 어선이 많다.

특징 배고사는 배를 소유한 집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가정신앙이다. 그 성격으로 보면 고기잡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어로신앙 또는 해양신앙이다. 배고사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환경에 적응된 형태로 전승된다. 배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예외 없이 들물 때나 만조 때이다. 이처럼 제의 시간을 고정하여 지키는 것은 물이 밀려들어 가득 들어찬 현상처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복이 밀려들어 오라는 유감주술적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군산이나 여수, 목포 등지처럼 큰 항구에서는 출어고사를 지낼 때 인근 선주들의 출신 지역이나 선산이 보이는 바다에 가서 배고사를 지낸다. 이것을 "선산에 가서 고사 지낸다."라고 말한다. 이는 고향을 떠나 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향 앞바다에서 고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대하는 민간신앙적 발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고향 어른과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친교하는 사회적 기능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서는 출어할 때 가장 큰 배고사를 지낸다. 정월 초하루와 대보름 등에도 지내고 연평도에 갔을 때 임경업 장군당에서도 배고사를 지내지만 출어고사를 특별하게 지냈다. 이때는 선주 집 앞에 금줄과 황토를 놓고 선주 부부와 선원들도 목욕재계를 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 돈이 많은 선주이거나 특히 황해도에서 내려온 선주의 경우 무당을 불러다가 큰굿을 하였다. 제물 준비는 선주 부인, 제물 운반은 선원들이 각각 한다. 이때 선주는 배에 오르지 않는다. 그 대신 선장이 제의를 주관한다. 백설기와 과일은 집에서 준비해 온다. 메를 짓는 것은 화장(주방장)이 목욕재계를 하고 난 뒤에 준비하며, 제육을 삶고 조기를 굽는 것도 배에서 한다. 제물은 기관실 · 선장실 · 군간(고기를 잡아 놓는 곳) · 이물 등에 차린다. 제물은 삼색실과와 잔조기 등이다. 메를 지은 솥 위에는 백설기를 올려놓는다. 돼지머리는 선장실에만 올리며, 다른 곳에는 돼지머리 대신 돼지다리나 갈비 등을 놓는다. 선장실에서는 선장이 절을 하고 축원한다. 기관실에서는 기관장, 군간에서는 선원, 이물

에서는 이물사공이 각각 맡아 한다. 절이 끝나면 돼지고기, 메, 편 등을 모아서 선장이 바다에 고수레를 한다. 이를 "용왕님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음복은 먼저 각 상에서 간단히 한다. 이로써 고사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까지 배로 불러 음복을 한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는 양력 2월과 3월 사이에 첫 출어를 할 때 배고사를 지낸다. 마음과 정성에 따라 수시로 배고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첫 출어 때 더 정성을 들인다. 고사를 지내기 전날 선주 집 문 앞에 황토를 세 곳에 뿌려 놓는다. 부정(不淨)이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배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주로 저녁 들물 때이다. 썰물 때는 지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무당을 부르고 풍장을 울리며 성대하게 치렀으나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정성껏 지낸다. 제물은 선주 · 선장실 · 기관실에 진설한다. 선장실은 성주가 계시는 곳으로 인식하여 제물을 올리는 것이고, 기관실은 기관 작동이 원활 하라는 의미에서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사과 · 배 등 과일, 백설기 등을 준비한다. 제물 준비는 선장이 직접 하며, 백설기 등은 집에서 부인이 준비한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배고사를 지낸다. 주로 2월과 3월 첫 출어시를 물때로 보아 서무날(음력 11일, 26일)에 지낸다. 이 무렵에 마을에서 무당을 청해서 용왕제를 모시는데, 이때 배고사도 같이 모신다. 용왕제를 지낼 때 청한 무당을 개인이 다시 청해서 배고사를 함께 지낸다. 고사는 든물에 배가 뜨기 시작할 때 지낸다. 제물은 마장(함판) · 조타실 · 기관방의 순으로 진설한다.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쇠고기를 쓰는데 부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상어포와 과일은 태안시장에서 구입한다. 떡시루는 백설기와 팥시루 등 집집마다 차이가 있다. 제물은 선주가 마련하여 운반하며, 진설도 선주가 직접 한다. 선장이 제주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선장이나 선원을 구하기 어렵고 선주가 곧 선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뀐 것이라고 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소지는 올리지 않고 동서남북에 고기나 과일 등을 조금씩 떼어서 고수레를 한다. 고수레를 할 때에는 "참봉어른요. 참외 잘되게 해주시고 간디기 잘되게 해주시오."라고 축원한다. 참외는 만조를 말한다. 고사를 지내고 나서 음복은 배에서 하며, 음식을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 무당을 불러 배고사를 지낼 때에는 먼저 집에서 성주고사를 한다. 성주고사 상에는 떡시루 · 초 · 잔 · 실 등을 올린다. 성주고사가 끝나면 바닷가로 가서 30분 정도 용왕제를 지내고 배고사를 지낸다. 배에 올라서는 선주가 절을 하면 무당이 30분 정도 축원을 해준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첫 출어 시나 주요 명절에 배고사를 지낸다. 제주 역할을 하는 선주와 그 가족들은 몇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 제주의 구성원 중 임신 · 출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제주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개고기나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상가(喪家) 출입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기를 어기면 부정을 타게 되어 상처투성이 고기만 잡히는 등 불길한 일이 연속되고 불운이 따른다고 한다. 제주의 집에서 장만하는 제물로 메와 술을 준비한다. 육류는 돼지머리나 닭, 해물로는 보구치 · 민어 등, 나물류로는 콩나물 · 녹두나물 · 도라지 · 더덕 · 고사리 등이 준비된다. 제물 중에서 바다고기는 출어 후 처음 잡힌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배 안이나 집에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사용한다. 바다고기 가운데 장어나 갈치는 절대로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고기들은 비늘이 없고 몸이 뱀처럼 생겨서 여느 물고기에 비해 비정상적이고 불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고사는 낮에 밀물이 들어찬 만조 때 지낸다. 밀물처럼 복이 밀려와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제주는 고사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큰 배인 경우 화장이 제상을 배 위의 서낭 앞, 기관실, 이물 순으로 세 곳에 차린다. 진설 후에 제주는 헌작 · 재배하고 "서낭님 아무튼 우리 배 무사하게 해 주시옵고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배서낭 앞에서 고사가 끝나면 쌀을 바다에 뿌리면서 "유왕님(용왕님) 물묻은 쪽박에 깨 들러붙듯이 고기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축(口祝)으로 바다 용왕에게 축원한다. 남은 제물은 약간씩 떼어 육지에 놔둔다. 주민들은 이런 헌식(獻食)에 대해, 개나 돼지가 먹으면 바다 사정이 좋고 풍어를 이루게 된다고 믿는다.

신안군 자은도에서는 음력 2월에 출어고사를 지낸다. 겨울 동안 휴지기를 보내고 새해 첫 출어를 하는 때이므로 풍어를 빌기 위해 성대하게 지낸다. 정초나 대보름날에 지내는 명절고사는 선주가 주관하지만 출어고사는 통상 단골과 보살이라고 불리는 무격이 주관한다. 단골과 보살 두 명이 고사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정에 따라 보살 혼자 하기도 한다. 선주가 주관하는 여타의 고사는 해당하는 달의 서무새날(음력 12일, 27일)에 행해진다. 이때의 고사는 따로 택일한다. 그러나 어떤 고사이건 간에 그날 낮 밀물 때에서 만조 때 사이에 행해진다. 이렇듯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이 가득 차듯 좋은 운세가 들어오라는 의도이다. 선주의 집에서 메 · 주(酒) · 시루떡 · 고사리 · 더덕 · 콩나물 · 녹두나물 · 돼지머리 등 제물을 준비한다. 이 음식을 선주 부인이 이물, 선장실(배서낭 앞), 기관실 앞에 진설한다. 진설이 다 되면 단골이나 보살 중에서 한 명이 배 주위에 소금을 뿌려서 부정을 물린다. 부정이 심하면 쑥과 고춧가루를 범벅하여 뿌린다. 여느 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어고사에서도 최근 개고기나 뱀고기를 먹은 사람, 가정에 출산이나 초상이 있는 사람 등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다. 보살과 단골이 출어고사에서 하는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보살이 배에 올라 선장실에서 징을 치며 경을 읽을 때 단골은 선장실 밖에서 고풀이를 한다. 고풀이는 일곱 자 일곱 치 크기의 흰 무명천을 매듭지어 만든 고를 푸는 절차이다. 먼저 일곱 개의 고를 매듭지어 풀고, 이어 다섯 개 · 세 개 순으로 묶고 푼다. 이렇듯 고는 항상 홀수로 묶는다. 고가 잘 풀리면 그해 조업이 잘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며, 잘 풀리지 않으면 그만큼 불운하다고 여긴다. 보살은 선장실에서 독경을 마치면 이물, 기관실 순으로 이동하면서 경을 읽는다. 이때 단골은 보살의 뒤를 따르며 고풀이를 한다. 마지막으로 근해의 어장으로 가서 '용왕사자밥'이란 이름의 제물을 용왕에게 헌식한다. 여기서 보살은 풍어를 기원하는 경을 읽고 단골은 고사 때 남은 제물을 조금씩 떼어 따로 장만한 밥과 섞어 바다에 뿌린다. 이상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선주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남은 음식과 술 등을 대접한다.

영광군 낙월도에서는 '멍텅구리배'라고 부르는 무동력선을 이용해 새우를 잡았다. 이곳에서는 음력 정월과 이월 사이의 첫 출어 시에 출어고사를 지낸다. 이를 '턱고사'라고 부른다. 출어 전날 멍텅구리배에 금줄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특히 출산한 가정의 사람들이나 여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배의 선주와 선원 다섯 명은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이 한다. 선주 집에서 준비한 시루떡, 멥쌀, 막걸리 등 제물을 선원들과 들고 작은 배(돛마)를 이용해 멍텅구리배에 오른다. 진설은 시청(선수), 이물, 도리 등 7~8곳에 한다. 그리고 중앙에 차린 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올해도 고기가 잘 잡히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목포에서는 새해 첫 출항 시에 선산(先山)에 가서 출어고사를 지낸다. 다른 고사는 배가 정박한 항구에서 지내지만 출어고사는 선산이 바라다 보이는 바다에서 지낸 뒤 포구에 배를 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한다. 선주는 어장에 가서 조업을 하지 않지만 배고사를 지낼 때까지 동행한다. 목포의 주력 어선인 안강망 배의 선주 중에서 70% 가량이 진도 조도 출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도 사람이 많다. 이들은 대개 조도 부근 바다에서 출어고사를 지낸다. 출어하는 어장이 선산 쪽과 다른 방향이라면 항해를 하면서 약식으로 배고사를 지낸다. 이 때는 항해 중이기 때문에 본당과 기관실에 상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 후 헌식을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배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밀물 때이다.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첫 출어 때 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내고 '부정쓸기'를 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에서는 출어 2~3일 전부터 선주 집 대문에 작대기나 선왕(船王) 깃대를 세워 놓는다.

제주도에서는 선왕 도깨비신을 대상으로 고사를 지낸다. 가정신앙으로서의 배고사로는 배를 신축했을 때 강태공뱃목시를 청하여 하는 '연신맞이 배고사',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하는 삭망제로서 배고사가 있다. 굿으로 하는 경우는 연신맞이 · 선왕굿이고, 유교식 제사로 하면 그물고사 · 선왕고사가 된다. 선왕고사는 매년 초하루와 보름에 배에서 지낸다. 선장실 · 기관방 · 고물 · 이물 · 화장실(주방) 등에 제물을 진설한 뒤 술을 올려 배례를 하고 나서 간단히 제를 지낸다. 어떤 배에서는 따로 제물을 차리지 않고 이물에다 모두 진설하여 지내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서는 배고사를 배성주제라고 한다. 성주에게 치성을 올리는 시기는 배를 새로 만들었을 때, 마을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확시, 흉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 무렵 등이다. 제의 형식은 개인 고사 형태로 진행된다. 보편적으로 무당을 청해 고축을 한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선주들이 먼저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잡은 생선과 메 · 떡 ·

술 등을 차려 놓고 절을 하며 축원한다. 그리고 배성주의 신체에 해당하는 한지를 건다. 이미 있던 신체는 불태운다.

동해시 묵호동에서도 배고사를 배성주제라고 한다. 배서낭을 배성주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배성주에는 배 진수식을 할 때 한지와 실타래를 묶어서 걸고 빈다. 배성주는 여성주와 남성주가 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배성주를 다시 청하여 모신다. 이때 술과 포를 가지고 가서 빌거나 돼지머리, 어물 등을 장만하여 무당을 대동하여 빈다. 그리고 2월 초하룻날을 '영등달'이라고 하여 시루떡을 해놓고 정성껏 빈다.

참고문헌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신안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어촌민속지-경기도 · 충남**(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통한선과 어로민속**(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97), **한국의 판소리**(정병욱, 집문당, 1987), **한국의 해양문화-서해해역**(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제주해역**(해양수산부, 2002).

필자 **이경엽(李京燁)**

측신(厠神)

상호참조 똥떡먹이기(154쪽), 측신모시기(675쪽)

정의 뒷간, 변소에 있는 가신(家神). 측간신, 뒷간귀신, 측도부인, 측신각시, 치귀, 정낭각시, 부출각시, 통시각시, 구릉장군, 똥장군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측신은 머리가 쉰댓 자나 되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여신(女神)으로, 신체가 없는 건궁이다.

내용 성정(性情)이 사납다는 측신의 유래담은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에 나온다. 〈문전본풀이〉는 제주도 무당굿에서 심방(무당)이 노래하는 문신(門神)의 신화 또는 그 신화를 노래하고 문신에게 기원하는 제차(祭次)를 일컫는다. 제주도지역의 집안에서 하는 굿에는 반드시 이 〈문전본풀이〉가 들어간다. 이는 문신의 내력담일 뿐만 아니라 조왕, 측간신, 주목지신, 오방토신 등의 내력담이기도 하다. 이들 신 중 문신이 가장 상위의 신이어서 〈문전본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옛날에 남선고을의 남선비와 여산고을의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이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이 일곱형제나 태어났다. 여산부인은 살아갈 궁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무곡(貿穀) 장사를 하도록 권했다. 남선비는 부인의 말대로 배 한 척을 마련하고 남선고을을 떠났다. 배는 오동나라에 닿았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는 간악하기로 소문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었다. 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소식을 듣고 선창가로 달려와 남선비를 유혹했다. 홀림에 빠진 남선비는 장기관을 벌여놓고 내기를 시작했다. 결국 남선비는 배도 팔고 쌀을 살 돈도 모조리 빼앗겼다. 오도 가도 못한 남선비는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끼니를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 집에서 남선비는 첩이 끓여준 겨죽을 먹으며 연명하다 눈마저 어두워졌다.

한편 여산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렀다. 그러고는 배를 한 척 지어주면 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아들들이 배를 지어 내놓자 이 배를 타고 남선고을을 떠났다. 배가 오동나라에 닿자 여산부인은 오동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기장밭에서 새 쫓는 아이의 도움으로 남편을 찾을 수 있었다. 남편은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에 앉아 겨죽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여산부인이 사정을 하여 들어갔으나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겨우 허락을 받아 들어간 여산부인은 겨죽이 눌어붙은 솥을 씻고 쌀밥을 지어 남선비에게 들고 갔다. 남선비는 첫술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찾아왔음을 겨우 안 남선비는 부인의 손목을 잡고 만단정화를 나누었다.

이윽고 귀일의 딸이 들어와서 야단을 치다가 본처가 찾아온 것을 알고는 어리광을 부려가며 큰부인으로 대접하였다. 그러면서 우선 더운데 목욕이나 하고 와서 놀자고 꼬드겼다.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과 목욕하러 가서 등을 밀어주는 척하다가 여산부인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 죽였다. 그러고는 남선비에게 돌아와 큰부인인 체하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행실이 괘씸하기에 죽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곧이들은 남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남선비와 귀일의 딸은 남선고을로 향했다. 일곱형제가 마중나와서 보니 아무래도 친어머니 같지가 않았다. 앞장서서 가는 어머니는 길을 몰라 이리저리

측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2리, 2002.4.28, 김태우





헤매고, 집에 와서도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들들의 의심은 날로 깊어갔다. 눈치를 챈 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죽일 계략을 꾸몄다. 우선 배가 아파 죽어가는 시늉을 하면서 당황해하는 남편에게 점을 쳐 보도록 했다. 남편이 점을 치러 나가니 귀일의 딸은 지름길로 달려가 점쟁이인 척하면서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일곱 형제의 간을 먹어야 낫겠다고 말했다.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들이야 다시 낳으면 된다."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칼을 갈았다. 이것을 알아차린 똑똑한 막내아들이 아버지 대신 형들의 간을 내어 오겠다고 하고는 갈고 있는 칼을 받아서 형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도중에 지쳐 잠을 자는데 어머니 영혼이 꿈에 나타나 노루의 간을 내어 가라고 일러 주었다. 잠을 깨니 과연 노루새끼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노루는 산돼지의 간이 낫다면서 일러주고 꼬리를 끊어 형제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윽고 나타난 산돼지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고 계모에게 가져갔다. 계모는 먹는 체하며 간을 자리 밑에 숨겼다. 문틈으로 엿보던 막내아들이 들어가 자리를 걷어치우자 형들도 왈칵 달려들었다.

흉계가 드러나자 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매어 죽어 측간신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되고, 남선비는 달아나다 정낭(집의 출입구에 대문 대신 걸쳐 놓은 굵은 막대기)에 목이 걸려 숨져 주목지신(柱木之神)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 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가 물에 빠져 숨진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앉혔다. 그런 뒤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이 되었다. 첫째는 동방 청대장군, 둘째는 서방 백대장군, 셋째는 남방 적대장군, 넷째는 북방 흑대장군, 다섯째는 중앙 황대장군, 여섯째는 뒷문전(뒷문의 신), 영리한 막내는 일문전(앞쪽 문신)이 되었다.

이 신화에서 정실부인은 착하고 지혜로운 일곱 아들의 힘으로 살아나 부엌신인 조왕신으로 앉게 되었다. 그러나 첩은 어둡고 냄새나는 변소신인 측신이 되었다. 측신을 정낭각시라고도 하는 것은 〈문전본풀이〉 신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낭은 제주도지역에서 집의 출입구에 대문 대신 걸쳐 놓은 굵은 막대기를 말하는데 남선비가 정낭에 목이 걸려 숨진다는 이야기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의 다른 무속신화에는 첩이 변소로 도망가 겁에 질려 죽고 아비(남선비)도 겁이 나 도망치다가 올내청의 기둥에 걸려 죽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 신화에서 아들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팔을 빼서 올내청의 쌀주머니를 만들고, 다리는 디딜방아를 만들고, 이빨은 주발을 만들고, 몸뚱이는 찢어서 바람에 날리게 하는 등 온몸을 해체한다. 귀일의 딸에게 살해된 어머니를 환생시키고 큰아들은 상정주(정주는 부엌), 둘째는 중정주, 셋째는 하정주, 넷째는 처신, 다섯째와 여섯째는 오방신장, 일곱째는 문전을 각각 차지한다. 환생한 어미(여산부인)는 조왕할망(조왕할멈)이 된다.

본풀이에서 신의 이름은 심방(무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신의 이야기에도 막내아들이 문신(일문전)

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심방은 아버지가 문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아버지는 문전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신, 본부인은 부엌신, 일곱 아들은 칠성이 각각 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측신은 유래담에 나타나듯 악한 신이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제5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측신이 인간에게 화(禍)를 주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 도성(都城) 안에 명통사(明通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맹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들은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모여 독경과 축수를 일삼았다. 그 중 높은 사람은 당 안에 들어가고 낮은 사람은 문을 지킨다. 여러 문에 창을 벌여 놓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
> 한 서생이 몸을 솟구쳐 넘어 들어가서 대들보에 올라앉았다. 맹인이 조그만 종을 치는 것을 보고 서생이 종을 끌어올려 버리니 맹인은 종치는 방망이를 휘둘러 허공을 친다. 그런 뒤에 다시 종을 내려놓았다. 맹인이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 거듭하니 맹인이 말하기를 "당 안의 작은 종이 무엇인가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였다. 여러 맹인이 둘러앉아서 점을 쳤다. 한 맹인이 "이것은 벽 사이에 박쥐가 붙어서 그렇게 한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일어나서 벽을 만져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또 한 맹인이 "이것은 틀림없이 저녁 닭이 대들보 위에 앉아서 그런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맹인이 앞다투어 길다란 막대기로 대들보 위를 두들겼다. 서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땅에 떨어졌다. 맹인들이 서생을 묶고 매질을 하였으므로 서생은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다.
>
> 이튿날 서생이 삼노끈 두어 가닥을 갖고 절에 가서 측간에 숨어 있으니 주맹인이 변소에 와서 웅크리고 앉는 것이었다. 서생이 갑자기 노끈으로 맹인의 양근(陽根)을 매어 당기니 맹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구원을 청했다. 여러 맹인이 앞다투어 와서 축원을 했다. "주사(主師)가 측귀에게 화를 입게 되었소."라고 하였다. 혹은 이웃을 불러 약을 구하는 자가 있고, 혹은 북을 울리며 명을 비는 자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측신이 실제로 화를 준 것이 아니라 서생이 맹인 점복자를 골탕 먹이는 것인데 맹인 점복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측신에게서 화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맹인 점복자를 대단히 폄하하고 점복을 풍자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성현이 성리학자로서 점복을 음사(陰祀)로 여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변소신을 '측귀(廁鬼)'라고 할 만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측신은 흔히 사납고 무서운 속성을 지닌 신으로 알려져 있다. 재래 변소는 어둡고 칙칙했다. 이런 곳에서 변을 당하면 살(煞)을 맞았다고 하여 불길하게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변소에 빠지거나 거름통 또는 거름밭에 빠지면 떡을 찌고 간략하게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는 측신의 노여움을 경계하는 것이며, 오물독(汚物毒)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측신을 무작정 악신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무서운 속성을 지닌 귀신이기 때문에 변소의 살을 거두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모호하며 양면성이 있다.

강원도 측신각시는 언제나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면 놀란 나머지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른다. 이때 얻은 병은 무당의 굿도 듣지 않아 결국 숨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뒷간에 가까이 갈 때에는 미리 헛기침을 해야 탈이 안 난다는 것이다. 한편 측신이 변소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6일, 16일, 26일 등 6의 날에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가능한 한 변소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도 한다. 측신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어찌됐든 측신은 분명히 악신 쪽에 해당한다.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죽어 귀신이 된 존재로서 사나운 신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

측신은 비록 집안에 거주하는 신이지만 평소에는 대우를 하여 섬기지 않는다. 차례 때나 별식이 나면 간략하게 바치는 정도이다. 특히 떡과 같은 제물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떼어서' 놓는 것이 보편적이다. 측신의 다른 명칭에 각시, 부인 등이 붙여진 것은 워낙 사나운 신이어서 해를 면하기 위해 우대하여 부르는 것이다. 또한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내용에 따라 인격화하여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출각시의 부출은 발로 디디고 앉아서 변을 보도록 변소 바닥 양쪽에 놓는 '부춘돌'에서 온 말이다.

변소에 빠지면 반드시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는 인분의 독도 예방하고 측신을 잘 대접하여 피해를 막는다는 의미이다.

지역사례 강원도지역에서는 뒷간을 지으면 날을 받아 음식을 차리고 불을 밝힌 뒤 "탈 없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빈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돼지 돌림병이 돌 때 이같이 한다. 변소를 새로 지을 때에도 날을 잡으며 부춘돌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흔히 음력 시월 상달고사 때 측신에게도 떡을 바치지만 각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떼어놓는 정도이다.

변소를 지을 때 택일하는 것은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집 수리, 특히 변소를 고치는 일을 각별히 조심했다.

흔히 똥통에 빠지면 검은 콩밥을 해 먹고, 독이 오르면 보리 가시랭이를 태워 연기를 낸다. 어린아이가 빠지는 것은 측신이 밑에서 잡아당긴 탓이라고 여긴다. 이때는 쌀가루를 송편처럼 동그랗게 빚은 떡 백 개를 아이가 들고 "똥떡이오, 똥떡이오."라고 외치며 이웃에 돌렸다. 이것은 결국 측신을 의식하기 때문이었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측신을 측도부인, 측시부인이라고도 한다. 이 신에 대한 의례는 변소에 기르는 돼지가 흉보였다거나 '변소동티'가 났다는 점괘가 내린 때가 아니라면 별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가 뒷간 바닥에 떨어지면 얼이 나갔다고 여겨서 '넋들이기'를 하였다. 부춘돌 옆에 물 한 바가지를 떠 놓고 아이 머리에 물을 찍어 발라서 두드리면 넋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호남지방에서는 6일, 16일, 26일 등 측신이 변소에 머무르고 있는 날, 변소에 가서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불경스럽게 굴면 신경질적인 측신의 비위를 건드려 주당을 맞는다고 한다. 주당은 살과 같은 것이어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측신에 의해 신벌(神罰)을 받는 것이다. 신벌을 받게 되면 갑자기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혼절하고 그대로 두면 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주당맥이굿을 한다. 왼새끼를 꼬아 환자의 몸을 일곱 매듭으로 묶어 마당의 중앙에 짚을 깔아 뉘어 놓고 풍물굿을 한다. 그리고 절구공이, 쇠스랑, 괭이 등으로 땅을 찧으면서 환자의 주변을 돈다. 이때 "주당맥이 하자, 주당귀신 물러가라."라고 주언을 한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깨어난다. 이는 무당의 병굿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신앙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지역에서는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추녀 밑에 팥떡을 꽂아 두었다. 이는 변소에 가서 넘어지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변소는 음양(陰陽)에서 음이 한층 강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귀신도 더욱 음산할 수 있다. 측신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은 무서운 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우리의 재래식 변소가 워낙 어둡고 냄새나며 꺼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울러 조심한다는 현실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남국의 전설**(진성기, 학문사, 1978), **뒷간**(김광언, 기파랑, 2009), **무속신화에 나타난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김명자, 고전작가작품의 이해, 박이정, 1998),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김형주, 민속원, 2002), **용재총화**(성현, 남만성 역, 대양출판사, 1982),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연구소, 2007),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필자 **김명자(金明子)**

측신모시기

상호참조 똥떡먹이기(154쪽), 측신(672쪽)

정의 가신(家神) 중에서 변소에 사는 측신(廁神)을 위하는 제의.

내용 뒷간귀신, 부출각시(跗出閣氏), 정낭귀신, 측도부인(제주도), 통시귀신, 인분대감, 구덕장군, 부칠각시 등으로 불리는 측신은 성격이 포악하고 노여움을 잘 타서 두려운 존재로 여겨져 왔다. 각별하게 섬기기보다는 조심해야 하는 가신으로 여겨졌다.

특히 제주도에서 측간신은 동토를 주는 아주 독한 신으로 관념되어 왔다. 머리가 쉰댓 자나 되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신으로 믿어져 왔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제5권에서도 변소신은 인간에게 화를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 외에 측신의 성격과 유래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문전본풀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남(南)선비의 첩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본부인을 죽이고 그의 일곱 아들까지 죽이려

다 흉계가 드러나 측간으로 도망가 목을 매어 죽어 측도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부인인 조왕(竈王)과 시앗인 측도부인은 원수 간이라 하여 부엌과 측간을 멀리 떨어지도록 짓는다. 측간의 돌멩이 하나, 부엌의 물건 역시 측간에 가져가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

구술에 의하면 조왕할망과 측도부인은 처와 첩의 관계이다. 첩인 측도부인이 본부인인 조왕할망을 죽이고 이것이 탄로나 본부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원수 사이라고 한다. 그래서 좌정하는 곳도 언제나 마주 보이지 않게 위치시켰다. 측도부인이 불을 지펴서 밥과 반찬을 만드는 곳인 솥덕(부뚜막)으로 조왕할망을 꾀어 물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아들들이 어머니를 솥덕에 조왕할망으로 모시고, 그 첩은 변소신으로 좌정시켰다고 한다.

측신에 대한 제의는 일반적으로 고사(告祀) 때 여러 가신과 함께 행해진다. 가신으로서 마지막으로 측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형태를 보인다. 변소에서 병을 얻거나 사고가 나는 것은 측신의 소행이라고 믿어 제의를 행한다.

측신은 따로 신체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뒷간 천장에 헝겊 또는 백지조각을 붙이거나 매달아 둔다.

아이들이 신발을 변소에 빠뜨렸거나 사람이 변소에 빠졌을 때 떡을 해 놓고 메밥과 여러 음식을 장만하여 측신에게 빈다. 그렇지 않으면 측신이 노하여 탈이 난다고 한다.

측신각시는 늘 긴 머리카락을 발밑에 감아서 세고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변소에 들어오면 깜짝 놀라 세던 머리카락을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고 한다. 머리카락에 씌어진 사람은 병을 앓게 된다. 이 측신각시는 놀라서 화가 났다 하면 무당이 굿을 하여도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측신은 늘 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6일, 16일, 26일과 같이 6자가 있는 날에만 나타난다고 하여 이날은 근신하고 금기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변소 출입 시에 밖에서 세 번 기침을 하고 한다거나 불가(佛家)에서 입측오주(入廁五呪 : 洗淨眞言, 洗手眞言, 去穢眞言, 淨身眞言, 無瓶水眞言)라 하여 다섯 가지 진언을 외는 행위는 화를 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는 변소에서 기르는 돼지가 해(害)를 입거나 변소에서 동티나 났다는 점괘가 내릴 때 측신에게 빈다. 이 밖에 별로 대접하는 일이 없다.

돗집에 있는 땔감은 절대 장지로 가져와 쓸 수 없다. 이를 쓰게 되면 동티가 나서 해를 끼친다고 믿었다. 혹 통시(뒷간)의 땔감인지 모르고 장지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하여 특히 유의하였다.

통시의 신을 따로 위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돗집에서 도새기(돼지)가 새끼를 낳아 키우려고 할 때 간혹 흉을 보는 경우 비손을 하게 된다. 돼지가 새끼를 낳은 뒤 새끼를 물어 죽게 하거나 새끼를 깔아서 죽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탈이 난 경우 돗집에 가서 메, 제숙, 채소를 준비해 놓고 마음속으로 무탈해지기를 빈다. 이때 돼지들이 와서 잘 먹어 주면 재수가 좋아진다고 여겼다. 그렇지 못하면 별도의 비념을 해서 방액을 하였다.

제주시 아라1동의 한 가정에서는 변소를 잘못 건드려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부정한 것이 달라붙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동티난다'고 한다. 이 경우 본주(本主)에게 버드나무를 해두고 동티 경을 읽어 동티가 나가도록 심방이 빠른 장단에 맞춰 북을 치면서 다스리기도 한다.

통시에 아기가 빠지면 동티가 난 것이라고 여겨 오메기떡 100개를 만들어 집집마다 나누어 준다. 이를 '똥떡'이라고 한다. 이 떡은 흐린 좁쌀로 만드는데, 보통 떡과는 달리 동글동글하고 자잘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똥떡임을 알 수 있다. 어른의 경우도 아이와 똑같이 하였다.

측간 동티가 났다고 여기면 "측간 대부인 바르고 심 바를 때에 자손들이 뭣 모르고 한거나 그자 입으로 속절 헤시난 다 풀려줍서." 하면서 빌어 준다.

통시를 지을 때 본주에게 좋을 날을 택해 평토를 하고 통시를 만들어 올렸다. 잘못하여 측간의 위치와 높이가 다른 신들보다 높으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 그럴 경우 날을 보아 평토를 다시 하여 고쳐야만 무난하다.

강원도지역에서는 변소를 지은 뒤에 아무 탈 없이 집안을 편안하게 보살펴 달라는 기원에서 길일(吉日)을 택하여 변소에 불을 밝혀 놓고 제를 지낸다. 변소에 빠진 경우 시루떡을 해먹어야 큰 탈이 없다고 여겼다. 강원도에서는 이 떡을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다.

몸이 아니라 신발 한 짝만 빠져도 측신의 노여움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빌어야 한다. 변소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시루 구녕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즉 변소에 빠진 사람을 위해 시루떡을 쪄야 한다는 말이다. 과일과 메를 함께 장만해서 변소 앞에 놓고 빌어야 빠진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변소에 빠지거나 그 안에서 혼절하게 되면 그해 죽을 운수라고 하여 매우 불길하게 여긴다. 변소에 빠지게 되면 액막이를 위해 떡을 해먹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흘 안에 떡을 먹어야 한다고도 한다. 변소에 빠진 사람에게 떡을 쥐어 주고 변소 안에서 떡을 한 입 깨물고 나오라고 한다. 변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변소각시를 달래려고 떡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나이 수대로 떡을 해서 변소에 갖다 놓고 빨리 낫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짓날 팥죽을 변소에 뿌리는데, 이는 측신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보기도 한다.

경상도지역에서는 변소에서 넘어지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점바치를 불러 주당을 벗긴다. 변소 주당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여긴다. 변소에 가서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변소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디뎌야 한다는 속신도 있다.

아이가 변소에 빠지면 정낭각시가 장난을 친 것이라 여겨 시루떡을 쪄서 변소에 둔다. 이를 똥떡이라고 한다. 똥떡으로 송편을 하는 곳도 많다. 떡을 해먹지 않으면 한 번 빠진 아이가 또 빠지고 변소귀신이 잡아간다고 여겼다.

변소에 들어가서 주당을 맞으면 사람이 뻣뻣해지고 앓게 된다. 심하면 죽는 수가 있다. 그러면 환자를 그 자리에 두고 가마니를 덮은 뒤 사람이 세 번을 타넘고 다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을 한다. 입에 물을 머금어서 채를 환자의 얼굴에 댄 채로 물을 확 뿌린다. 그러면 환자가 깨어나는 수가 있다.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 주당을 막기 위해 변소에 갈 때 입구에서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들어간다.

변소에 빠지면 똥떡으로 송편을 만들어 변소 앞에서 절을 한 뒤 '임내로(흉내로)' 자신이 마치 통시귀신이 된 것처럼 흉내를 내어 변소 안에 들어가서 먹는다. 똥떡을 해먹지 않으면 똥독이 올라 통시귀신이 된다고 여겨 꼭 똥떡을 먹어야 하였다.

평소 변소귀신이 그 안에 비단을 깔아 놓는데 사람이 엉겁결에 그 비단을 밟게 되면 변소귀신이 해코지를 한다고 여긴다. 변소귀신이 놀라면 주당살을 맞게 된다. 주당살을 맞아 쓰러지게 되면 급히 멍석으로 말아서 초상을 치르는 것처럼 주위를 돌며 곡을 한다. 똥떡을 먹어야 주당살이 예방된다고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인분대감을 특별하게 위해 주지는 않지만, 집안에 환갑잔치가 있을 때 상을 차려 놓는다. 환갑잔치를 하면 문간과 변소에 상을 먼저 차려 놓는다. 이는 손님들이 오면 탈이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상은 변소에 먼저 차린 뒤 문간에 차린다. 변소에 차려 놓은 음식은 나중에 변소에 모두 버린다.

측간고사라 하여 측간에서 낙상하면 백시루, 삼색실과, 막걸리 등을 장만하여 측간고사를 지내 준다. 측간고사를 지낸 뒤 다시는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법사나 보살을 통해 고사를 다시 지내 주기도 한다.

변소에서 쓰러지면 죽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나이만큼 새알심을 만들어서 쓰러진 사람에게 먹인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가을고사를 지낸 후 화장실 추녀 밑에 팥떡을 꽂아 두었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여겼다. 경기도지역에서는 특별히 측신을 명명하는 경우는 드물거나 '득신'이라고도 한다. 고사 때 변소에 떡을 떼어서 버리며, 노인들이 변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였다.

충남지역에서는 변소제사라 하여 환갑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가 있다. 환갑에 삼재가 들어 잔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변소제사로 대신한다. 잔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생일상은 마련하므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다.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한 접시씩 담아 변소 앞에 놓고 절을 한다. 그런 뒤 술과 떡을 변소 안에 던져 넣는다. 남은 음식은 먹지 않으며,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버리거나 땅에 묻는다. 이렇게 변소제사를 지내면 아무 탈이 없이 무고하다고 여긴다.

전남지역에서는 시댁에서 아기를 낳아 친정으로 가면 가장 먼저 아기를 안고 변소로 가서 변소간의 신에게 고한다. 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탈이 없으라고 하는 것이다.

의의 재래 변소는 어둡고 칙칙하였다. 이런 곳에서 변을 당하면 살(煞)을 맞았다고 하여 불길하게 생각하였

다. 이 때문에 변소에 빠지거나 인분에 빠지면 떡을 찌고 간략하게 고사를 지낸 것이다. 이는 측신의 노여움을 경계하는 것이며, 오물독(汚物毒)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측신을 무작정 악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무서운 속성을 지닌 신이기 때문에 변소의 살을 거두어 줄 수 있으며, 바깥에서 들여온 물건도 변소에 두었다가 들이면 액이 제거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살을 거둘 수 있다. 특히 부고장이 날아들면 먼저 변소에 걸어 두었다. 이는 변소가 모든 액운을 막아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장삿길을 다녀와도 변소에 먼저 들렀다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다른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집 안으로 들이려면 변소에 두었다가 들여야 탈이 나지 않는다.

변소를 집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거나 그 좌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동토가 나는 수가 있다. 잘못된 방위에 억지로 변소를 만들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傭齋叢話, 무속신화에 나타난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김명자, 고전작가작품의 이해, 박이정, 1998),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朝鮮の鬼神**(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29),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황경순(黃慶順)**

칠석고사(七夕告祀)

정의 칠석날인 음력 칠월 초이렛날에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 칠석고사(七夕告祀), 칠석맞이, 칠석제(七夕祭), 칠성제, 칠성고사라고도 한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칠성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주로 부녀자들이 장광, 장독대나 뒤뜰에서 자식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비손으로 의례를 행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사가 짐승들의 피해 없이 잘되게 해 달라고 전을 부쳐서 논밭에 나가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내용 칠석고사는 가정에서 행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자손들의 건강과 수명을 기원하는 정기적인 의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칠성줄을 타고난 자손이 있다거나 특별히 칠성을 모시는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칠석고사는 칠성신 또는 북두칠성, 옥황상제 등을 대상으로 칠석날 아침이나 저녁 또는 전날 밤에 뒤꼍의 장광이나 장독대에서 비손으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안의 장광은 가장 깨끗한 장소로서 칠성이 좌정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다. 가정에 따라 집안에 돌을 가져다 모신 칠성돌, 황토로 단을 쌓아 만든 칠성단 등이 있어 이곳이 칠석고사의 제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칠석 및 칠성과 연관하여 메에다 일곱 개의 숟가락을 꼽는다거나 절을 일곱 번 하기, 술 일곱 잔, 소지 일곱 장 올리기, 구멍이 일곱 개인 시루에 백설기를 찌기는 등 숫자 7과 연관되는 사례가 흔하게 보인다.

칠석고사의 제물로는 주로 쌀밥과 미역국이 많다. 이는 아이의 수명장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삼신과 연관되어 제물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삼신주머니에 봉안한 쌀로 칠석날 쌀밥을 짓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칠석날을 '쌀밥에 미역국 먹는 명절'이라 할 만큼 제물에서 쌀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쌀은 가을걷이를 하면 칠석날을 위해 미리 따로 장만해 둔다. 이 밖에도 깨끗한 물로 올리는 청수와 보통 한 되 서 홉으로 찐다는 백설기, 나물 등이 주요 제물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밀가루로 부침개를 부쳐서 고사를 지낸다. 칠성을 위한 음식에서 비린 음식을 금기하는 경우도 있다. 칠석제의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차려서 청결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금기가 다른 가정의례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석날 명다리를 걸어 놓은 가정에서는 만신을 찾아가서 자식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사찰의 칠성당에서 자식들의 명과 복을 기원하며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칠석고사를 지내기 전에 논두렁과 밭두렁의 풀을 깎아서 깨끗이 정돈한다. 이는 하늘에서 칠성 또는 옥황상제가 내려다보고 더러운 곳은 나락을 조금 맺히게 하고 깨끗한 곳은 많이 맺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편이 괜찮은 집은 떡을 해서 논밭에 갖다 놓기도 한다.

지역사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에서는 칠월칠석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길일이라 하여 치성을 드린다. 이날 삼신주머니를 매단 가정에서는 그 쌀을 꺼내어 쌀밥을 지어 먹는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도 쌀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쌀밥을 짓는다. 여름 내내 보리밥만 먹다가 칠석날에는 쌀밥을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칠석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칠석에는 당산에 칠성이 있다고 여겨 초엿샛날 저녁에 백설기를 쪄서 당산에 올린다. 백설기는 식구끼리 먹을 만큼 한 되서 홉 정도로 찐다. 벼가 달린 부분이 북쪽을 향하도록 하여 짚을 한일(一)자로 깔고 그 위에 시루와 청수를 올린다. 칠성이 일곱 명이므로 절을 일곱 번 해야 한다. 초도 일곱 개를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의 풍습대로 한다. 북쪽을 향해 절을 일곱 번 하고 동, 남, 서의 순으로 돌면서 역시 절을 한다. 이때는 정해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씩 절을 한다. 소지는 당산소지를 먼저 올리고 칠성소지를 나중에 올린다. 대주소지와 분가한 아들소지도 올린다. 미리 소지 종이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올린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그 사람은 그 해에 운이 매우 좋다고 여긴다. 반면에 소지가 잘 오르지 않고 까맣게 타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해에 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소지가 잘 오르지 않았어도 다시 올리지는 않는다. 당산에서 칠성을 위하고 나서 시루와 청수를 가지고 방 안의 성주께로 간다. 성주께 제물을 올린 뒤에는 특별히 절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잠깐 그대로 두었다가 성주 앞에서 주걱으로 떡을 떼어 놓는다. 이때 백설기 가운데 부분은 따로 떼어 대주 몫으로 둔다. 이것을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대주에게 미리 '재수 좋은 떡'이라고 말하고 건넨다. 모두 먹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먹는 시늉을 한다. 청수는 대주가 먼저 떡과 함께 마시고 식구들이 나누어 마신다. 요즘은 칠석날 당산에 나가 치성을 드리지는 않지만 백설기를 쪄서 자식들을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먹인다고 한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에서는 칠석날 칠석고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음력 칠월 초엿샛날 밤에 장독대에다 백설기를 차려 놓고 자손이 건강하고 집안이 무고하기를 기원한다. 떡은 보통 쌀 석 되 서 홉으로 한다.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몇 되를 찌더라도 반드시 서 홉은 넣어야 한다. 백설기는 시루째 놓고 청수 한 그릇을 떠 놓으며, 촛불을 밝힌 다음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동서남북 세 번씩 절을 한다.

충청도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칠석고사에서 칠석날 마당 한가운데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청수나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북두칠성에 절을 한다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칠석고사라 하여 짐승들이 논밭의 곡식을 해치지 말라는 뜻으로 밭둑이나 논둑에서 적(전)을 부쳐 고사를 지낸다. 기름 냄새를 풍기면 짐승들이 곡식에 대들지 않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다.

영월지역에서는 칠석날 칠성을 위한다고 하여 장독대에서 비손을 하거나 과일과 술 등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산속의 바위를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무당에게 수명을 걸어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칠성제를 지낸다. 이때 자손들의 명을 빌어 달라고 쌀도 올리고 국수도 삶아서 올린다. 특히 국수는 자손들의 명이 짧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아서 올린다.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에서는 칠석날이면 정월에 하는 안택처럼 마당 한복판에 깨끗한 물을 떠 놓고 "가정이 편안하고 식구들이 잘되게 해 주십소사." 하고 칠성을 위한다. 안택에서는 성주, 조왕, 오방터주지신에게 빌지만 칠석날에는 '칠성님'을 부르며 축원한다. 칠성을 위하는 사람들은 칠성에게 빌어서 자손을 본 사람들이다.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에서는 칠석날 밀 부침개를 해서 마루에 차려서 촛불을 밝혀 놓기도 한다. 칠석날 새벽에 밀떡과 청수를 떠 놓고 빌었더니 아들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다. 아이를 원하는 부인은 무명을 몇 자씩 잘라 놓고는 하루에 몇 번 단수를 먹이는데(표백작업) 이것이 칠성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 또 마을에서는 칠석고사라 하여 칠석날이면 일부 가정에서 밀가루로 부침개를 부쳐서 가루개 서낭에 가서 빈다. 가루개 서낭은 토성리에서 철원 쪽으로 나가는 고갯마루에 있다. 서낭에 올릴 제물로는 깨끗한 흰 시루떡, 과일, 청수를 쓴다. 각 가정에서는 서낭에 가서 짚을 깔고 제물을 차려 놓은 뒤에 재배하고 소지를 올려서 집안의 평안을 빈다.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에서는 칠성을 따로 모시지 않는 집에서도 칠월칠석이면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밀을 맷돌에 갈아서 호박을 넣고 지져

낸 부침개를 세 접시에 담아 성주 앞에 놓고 칠석날이라고 고한다. 칠성을 위하는 집에서는 성주보다 칠성에게 먼저 음식을 차려 놓는다. 이어서 방, 우물, 외양간, 개집, 닭장 등 집안 곳곳에 모두 차려 놓는다. 그 뒤에는 경작하는 논밭에도 차려 놓고 풍년을 기원한다. 철원의 일부지역에서는 칠석날 굳이 칠성을 믿지 않아도 이날은 집안에 기름 냄새를 풍기면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부침개 등을 해 먹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칠석날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공을 드리는 것을 '칠성공 드린다.'라고 한다. 칠성공을 드릴 때에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우물물을 길어와 그 물을 올렸다. 지역에 따라서는 밤에 마당 한가운데 제석을 깔고 그 위에 물 한 동이를 놓은 다음 간단한 제상을 마련하여 주부가 그 앞에서 동서남북을 향해 일곱 번씩 절을 하고 가족의 안녕을 빈다.

제주도지역에서도 칠석날 칠성제를 지낸다. 대상은 칠원성군(북두칠성)이다. 예전에는 칠성기도를 7일 동안 드렸으나 요즘은 3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남도의 민속문화**(최덕원, 밀알, 1994),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진순(金鎭順)**

칠성(七星)

상호참조 칠성고사(684쪽), 칠성단지(689쪽)

정의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성신(星神). 도교와 유교의 천체숭배사상과 영부(靈符)신앙이 조화된 신격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았다고 하여 칠성여래(七星如來), 칠아성군(七牙星君)이라고 한다. 주로 수명장수, 소원성취, 자녀성장, 평안무사 등을 비는 신이다. 특히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비는 대상신이다. 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이름을 '칠성'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다. 불가에서는 사찰 칠성각의 칠성신에게 공을 드리기도 한다.

사찰 내의 칠성신은 약사(藥師)신앙이 조화되어 완전히 불교적으로 토착화된 신이다. 칠성신은 불교에서 중생들의 내세에 대한 믿음을 주려는 것이고, 도교에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것이어서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신격으로 모셔질 수밖에 없었다. 사찰에서 칠성신을 모시는 칠성각을 배치한 것은 불교가 유입된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숭배한 신앙이 산신신앙과 칠성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이어서 불교의 토착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칠성신앙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속신앙을 수용하여 불교의 토착화를 꾀하기 위해 사찰의 가람 배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사찰의 중심 공간인 대웅전 뒤에 칠성각을 배치한 것은 비불자(非佛者)들이 대웅전 앞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동화되기를 바란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칠성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역사 칠성신의 연원은 중국의 도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는 노장의 도가사상과 역사상(易思想), 음양오행설, 참위설, 점복설, 원시의약술 등이 얽혀 형성되었다. 게다가 불교의 조직과 교리에 유교적 윤리사상까지 첨가되었다. 이것은 불로장생과 현세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술적 경향이 강한 다신교적 자연종교이다.

우리나라의 도교는 교의적(敎義的)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 볼 수 있듯 태초부터 애니미즘, 산악신앙, 신선신



칠성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001.9.9
김태우



칠성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2010.1.16
윤동환

앙, 무격신앙 등 도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도교는 고구려 영유왕 때 처음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의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당 부분 도가사상과 관련된 것이 일반화되어 있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신라의 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시조인 박혁거세와 그 생모인 선도성모에서부터 이미 신선신앙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혁거세는 신라시대 초기의 일월신앙(日月信仰)과도 관련이 있다. 신라 말 승려 도선의 도참사상 또한 넓은 의미에서 도교적이다. 그러다가 교의적인 종교로서 도교가 정착하게 된 시기는 고려 때라고 할 수 있다. 도교사적인 것을 토대로 하면 칠성과 관계된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김유신조에 나타난다. 여기에는 "김유신은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등에는 칠성(七星)이라는 무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칠성은 곧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신임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신앙적인 대상 신으로 역할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칠성신을 숭배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가정에서 모시는 칠성신, 가정 밖에서 모시는 칠성신, 사찰에서 모시는 칠성신, 의례와 관련된 칠성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 모시는 칠성신앙은 장독대에 대나무를 세워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거나 장독대 곁 큰 돌 위에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든지 뒤꼍에 조그마한 제단을 마련하여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고 매달 7일, 17일, 27일에 주부가 목욕재계하고 자손들을 위해 칠성님께 비손하는 등의 형태를 취한다. 가정에서 칠성고사를 드리기 위해 정화수를 올려놓게 되면 물을 칠성신의 신체(神體)로 인식했다. 아울러 물과 관련된 동물인 용이나 뱀을 칠성신의 신체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밧칠성과 안칠성이라 하여 신체가 뱀이다. 이 신체의 기능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여겨진다. 물론 육지에서도 뱀(구렁이)은 재복을 관장하는 업신(業神)으로 여기지만 제주도지역에서는 칠성신앙과 업신앙이 복합되어 칠성신의 신체로 뱀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뱀은 제주도에서만 칠성신과 관계되어 있고 그 외 지역 대부분에서는 북두칠성과 관계되어 있다.

둘째는 마을 밖 일곱 개의 바위를 칠성신의 신체로 삼고 그곳에서 칠성고사를 지내는 경우이다. 마을 주변에 있는 칠성신은 대부분 암석을 신체로 하고 있으며, 대개 고인돌을 신체로 삼고 있다. 고인돌 일곱 개를 칠성바위라고 부르는 곳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평촌마을과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삼정마을 이외에도 전남지역의 11개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순군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일곱 개의 성혈이 조식되어 있다. 이를 칠성바위라고 부른다. 운주사에서는 인공적인 암석을 북두칠성처럼 배치하여 칠성바위라고 부른다. 이처럼 암석을 칠성신의 신체로 활용하는 것은 암석이 지닌 항구성과 별이 지닌 생명성이 결합되어 칠성바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칠성바위는 주로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숭배의 대상이지만 한 생명을 점지해 준다는 생각에서 기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셋째로 사찰에 모신 칠성신을 들 수 있다. 일반적



칠성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1리, 2010.1.21, 윤동환

으로 음력 칠월 칠일을 '칠석날'이라고 한다. 이날 농가에서는 간단히 떡과 나물을 준비하여 칠성신께 가족의 명과 복을 빌었다. 명과 복을 비는 까닭은 칠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칠석날이 되면 장독대나 우물가에 제단을 만들어 공을 드리고, 불자들은 사찰의 대웅전 위쪽에 위치한 칠성각의 칠성신에게 공을 드린다.

넷째로 의례와 관련된 칠성신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칠성신의 품에서 태어나 이승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다가 다시 칠성신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여겨서 인간이 운명하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다. 죽음 의례에서 사람이 운명하여 임종이 확인되면 수시(收屍)라 하여 코와 입을 솜으로 막는다. 그리고 굳기 전에 재빨리 시신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삼끈으로 묶어 발바닥을 벽에 붙여서 주검을 바르게 하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삼끈으로 묶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서로 연결시켜 시신을 바르게 한다. 그런 다음 시신을 일곱 매듭으로 묶어서 '칠성판' 위에 올려놓는다. 칠성판은 지역에 따라 '칠성틀', '시상틀', '절우대', '지루대'라고도 부르면서 대개 대나무로 만들며, 대나무 대신 부엌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곱 매듭으로 묶는 것은 칠성신, '칠성판'이나 '칠성틀'의 '칠성'은 칠성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어서 칠성신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을 의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얼굴에 피가 묻는다든지 탯줄을 뒤집어쓰고 나오면 흔히 '액막이 한다' 하여 칠석날에 칠성신에게 공을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칠성바위에 공을 드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 이름을 '칠성(七星)'이라고 짓기도 한다. 이처럼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이면서 기자(祈子)의 대상으로서 아이를 점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도에서는 칠석날만 아니라 매달 7일이 들어 있는 7일, 17일, 27일에 정화수를 길어다 공을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양수(陽數) 중에서 아홉 외에 일곱이 가장 큰 길수(吉數)이기 때문이다.

칠성신의 신체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칠성신의 상징으로 정화수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일반적으로 칠성신이 강림하는 곳은 장독대이다. 본래 장독대는 건축 구조상 안채의 뒤쪽에 위치했다. 그러다가 후대에 안채의 옆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다시 안채



칠성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교동마을
2002.1.25
윤동환

앞으로 이동하면서 칠성신을 모시는 위치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장독대에서 칠성신을 모시고 칠성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칠성신에 대한 의례는 칠성고사와 칠성불공을 들 수 있다.

지역사례 전남지역에서 칠성신은 생사(生死)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례가 주로 칠석날 밤에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례군 광의면의 경우, 칠월칠석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칠성님이 모셔진 칠성각에서 칠성공을 드린다. 칠성공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 드리며, 시루떡을 해서 부처님 앞에 올린다. 또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아이를 타기 위해 문복을 하여 칠성공을 드린다. 보통 점쟁이가 알려준 칠성에 가서 촛불을 켜고 돈을 놓고 칠성공을 드린다고 한다.

나주시 문평면지역에서는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오랫동안 객지에 나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목욕을 한 뒤 샘에 가서 길어 온 물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아들의 무사안녕을 비는 칠성공을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담양군 금성면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잘되기를 비는 마음에 매달 초이렛날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촛불을 켜 칠성공을 드린다고 한다.

담양군 대전면지역에서 칠성은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북두칠성을 아이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일곱칠성'이라고 부르면서 점쟁이에게 문복해 그 해 아이의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북두칠성에게 칠성공을 드린다. 칠석날이 되면 가정에서 떡과 밥을 해서 칠성공을 드리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놓은 떡쌀을 가지고 절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떡을 해 공을 드리기도 한다. 마을 걸립패에게 장구 끈을 만들어 희사하기도 한다.

무안군 망운면지역에서는 자식이 군대에 가 있거나 자식이 없을 때는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 물을 떠 놓고 하느님께 빌었다. 이를 칠성공이라고 한다. 칠성공을 드릴 때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른 새벽에 집안 청소를 한 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마을 공동샘에 가서 물을 길어온다. 그런 뒤 장독대에 짚을 열십(十)자 모양으로 놓고 그 위에 상을 놓은 다음 길어온 물을 올려놓고 하늘에 축수한다.

하지만 신안군 지도면지역에서는 칠월칠석날 밤에 마당에 멍석을 펴고 그 위에 짚을 깔아서 물동이를 올려놓는다. 주로 자식들을 위해 칠성공을 드린다. 공을 드리는 주부는 물동이를 앞에 두고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절을 하며 비손한다. 남이 보면 좋지 않다고 하여 깊은 밤에 주부 혼자 빈다. 비손이 끝나면 물동이에 있는 물을 버리지 않고 집안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칠석날에 절에 가서 칠성공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의 칠성신앙은 북두칠성을 위하는 신앙이며, 신체가 없는 건궁이다. 칠성의 자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의례는 마당에서 한다. 칠성기도는 칠석날 북두칠성이 정방위에 드는 시간(자정이 넘음)에 올리며, 칠석날 못하면 이듬해 음력 정월에 길일을 잡아서 한다. 마을이나 친인척 간에 초상이 나면 날을 미루어 다시 잡는다. 기도를 앞두고 비린 음식은 삼가고 몸을 정결히 한다. 또 집 안을 깨끗이 하고 짐승들의 분뇨도 치운다. 대문에는 사흘 전부터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방문을 막는다. 특히 상주(喪主) 보는 것을 꺼린다. 반면에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제의는 북두칠성을 향해 마당에 돗자리를 깔아서 절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사주를 말하고, 가정의 화평과 무사를 축원하며, 가축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되기를 빈다. 그런 뒤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리며, 마지막으로 술을 몇 잔 올리고 비손한다.

문경지역에서는 집안의 화평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아들 낳기를 바라면서 칠성을 위하거나 모시기도 한다. 칠성 덕으로 아들을 얻게 되면 아이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짓는다.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칠석날에 제물을 마련해 장독대에 차려놓고, 집안의 운수대통을 기원했다. 지금은 불교신자들이 절에 가서 칠석불공을 드리고 있다. 절에는 수박, 돈, 쌀 등을 준비해서 간다. 법당에서 스님이 축원하면 소원을 빌고 절을 한 뒤 돌아온다고 한다.

보은지역에서도 칠석날에 고사를 지낸다. 칠성님은 안채 뒤에 좌정하고 있다. 칠석고사를 지내기 위해 실과, 나물, 초, 향 등을 미리 준비한다. 칠석날 오후에 백설기를 한 되 서 홉을 찐다. 지금은 떡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되 서 홉만 하지만 과거에는 석 되 서 홉을 하기도 했다. 떡을 할 때는 반드시 서 홉을 넣어야 한다. 음식이 준비되면 저녁을 먹은 후 인적이 드문 시간에 고사를 지낸다. 먼저 깨끗한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주로 밥, 탕, 청수, 나물, 삼실과이다.

공주지역에서는 칠성을 일곱 명으로 생각하여 밥에 숟가락을 일곱 개 꽂는다. 칠성은 오곡잡곡을 점지하고 여물게 하는 신령인 동시에 자손들의 명을 관장하는 신령이며, 사람도 북두칠성과 같아서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이 북두칠성의 일곱 개의 별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칠성님께 집안에 우환이 없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이어서 소지를 올린다. 이때 칠성 소지부터 올린 다음 식구 소지를 올린다. 식구 소지는 대주의 소지를 먼저 올린 다음 나머지 가족의 소지를 올린다.

괴산지역에서는 시월상달에 백설기를 준비하여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칠성 의례를 행한다. 장독대에 금줄을 친 다음 시루에 떡을 해서 올린다. 고사를 모실 때는 여자들만 참여한다. 고사를 지낸 뒤에 시루는 흙을 쌓아 도톰하게 만든 단 위에 짚을 깔고 엎어 둔다.

참고문헌 **남도민속학**(표인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불교토착신앙고**(한접섭, 불교학보 1, 한국불교학회, 1975), **암석의 신앙성과 서사적 의미 확장**(표인주, 용봉인문논총 3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2),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표인주(表仁柱)**

칠성고사(七星告祀)

참조참조 칠성(680쪽)

정의 무병장수와 자손 얻기를 기원하며 칠성신에게 올리는 의례.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 김유신조를 보면 "김유신 공은 칠요의 정기를 타고났기에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었으며 또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分信公 禀精七曜 故背有七星文 又多神異)."는 탄생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또 제주도 무가 〈칠성본풀이〉에서는 "불공을 드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중의 자식을 잉태하여 집에서 쫓겨나 뱀으로 변신하여 일곱 마리의 뱀을 낳았다. 그 가운데 막내딸이 부군칠성(밖칠성)이 되었고, 어머니는 쌀독으로 들어가 부자가 되게 하는 안칠성이 되었다."라고 한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보면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칠성님께 명을 받고 제석신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내 육신이 태어났다."라고 전한다.

본시 칠성은 도교에서는 칠원성군, 중국불교에서는 약사여래상으로 보고 이를 칠성여래불이라 하였다. 이 신앙은 칠성, 즉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신앙에서 비롯한다. 중국에서는 사망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를 바랄 때 기원하는 신격이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칠성신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탄생의 전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는 신격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개념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이의 탄생 및 성장과 관련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면 칠성신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래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여 자식이 성장하여도 칠성을 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집 떠난 사람(대체로 자식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떠난 가족이 있는 경우)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가족 가운데 병환이나 우환이 있는 경우에도 기원한다. 때로는 터주의 기능도 한다.

또 강원도 양양지역에서는 칠성신앙을 통하여 가정의 평안은 물론 국토의 통일마저도 기원하고 있다. 오늘날 칠성신앙은 차츰 축소되어 가고 있다.

칠성고사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2010.1.21, 윤동환



제물



소지만들기

내용 제일(祭日)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월칠석이 많다. 이 밖에 지역에 따라 칠월 초엿새, 정월 초이레,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등 명절뿐만 아니라 각기 인연 있는 날에 제를 지낸다. 심지어 날을 받아 제를 지내기도 한다. 일 년에 한 번 지내기도 하지만 여러 번 지내기도 하고, 매일같이 빌기도 한다. 시간은 부정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새벽녘을 이용하지만 한밤중에 지내기도 한다.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보아 칠성을 위하는 날짜를 결정하기도 한다. 마을이나 친인척 가운데 초상이 나면 제삿날을 다시 정한다. 전남 완도지역에서는 임신을 하거나 개를 먹은 이가 있어도 제사를 연기하였다.

명칭 또한 제일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칭을 칠성고사, 칠석고사, 칠성맞이, 칠석맞이, 칠성제, 칠석제, 칠성기도, 칠석기도, 칠성공, 칠성위하기, 칠성맞이고사, 칠석불공, 칠석불공드리기, 칠원성군제, 산신공 등 칠성과 칠석을 통용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칠석은 칠월 초(7월 6일, 7월 7일)에 행하는 제의를 주로 의미하지만 칠성은 칠성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믿음으로써 제의기간이 연중 수시가 되기 때문에 칠석과 칠성은 차이가 있다.



칠성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2009.8.26
이한길

제의 주체는 여성이 많다. 남성도 간혹 있다. 여성이 제의 주체인 경우 여성이 월경을 하면 제일이 늦춰질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하는 곳도 있다. 무당이나 비손이를 불러 진행 과정을 주재시키기도 한다.

제의 장소로 주로 이용되는 곳은 뒤뜰(장독대)이지만 앞마당에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때로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칠성바위와 같은 자연물도 제의 대상이 된다. 칠성단을 쌓아서 제를 지내거나 절의 시설(칠성각, 칠성암)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샘물, 돌탑, 칠성탑, 칠성돌, 칠성단지, 칠성항아리, 노적가리와 비슷한 주젱이, 칠성보자기, 칠성판, 명다리 등이 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당에 칠성대를 세워 놓고 그 앞에 상을 차린다.

칠성단지나 칠성항아리 안에는 돈이나 쌀을 넣기도 하고 물을 넣기도 한다. 한지로 칠성단지를 덮고, 그 위에 고깔을 씌워 덮어 두기도 한다. 안방에 선반을 매고 그 위에 쌀 한 그릇을 떠 놓고 칠성의 신체로 삼는다. 또 안방에 널빤지를 달아매고 그 위에 과일과 청수를 올리고 촛불을 밝혀 놓는다. 이를 칠성판이라고 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기도 한다. 이를 경북지역에서는 '건궁대감 모신다.'라고 표현한다. 칠성보자기는 삼베보자기에 쌀을 넣어 안방의 횃대에 매달아 둔 것이다. 제석단지 위쪽에 양쪽으로 못을 길게 박고 하얗게 창호지로 싼 칠성다리(명다리,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둔 것)를 올려둔다. 이를 칠성이라 한다. 칠성다리는 보통 천을 일곱 자 일곱 치를 끊어 깨끗하게 접어 창호지에 싸서 모신다. 밤나무 못을 벽에 박고 그 위에 명다리를 올려놓는다. 이 밖에 흰 종이에 칠성신위를 써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 칠성신위는 평소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 안방 깊숙한 곳에 모셔 놓는다. 칠성신앙을 버릴 때에는 칠성의 신체가 된 것을 태우거나 물에 띄워 보냈다. 칠성이 내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전남에서는 용왕칠성·뒤란(뒤뜰)칠성 등, 제주도지역에서는 고팡에 좌정한 안칠성과 집 뒤 깨끗한 곳에 좌정한 밧칠성(밖칠성)이란 용어를 각각 사용한다. 밧칠성은 흔히 뱀신으로 알려져 있다. 뱀이 나타나면 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젱이(짚주저리)를 덮어 주고 제의를 지낸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칠성을 위할 때 주로 산으로 많이 갔다. 냇가나 바위 근처에서 제를 지냈으며, 이는 산치성과 결합한 것이다. 경기도 여주지역에서도 산에 가 나무에 북어포와 실타래를 묶어 놓고 제의를 지냈다. 이 역시 산치성과 결합한 것이다. 충북 보은지역에서는 절에서 불공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부처님에게 일 년 동안 공을 드리는 게 칠성공에 좋다고 한다. 이처럼 칠성은 불교와 결합하기도 한다. 충북 옥천과 보은 및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는 터주는 장광(장독대), 칠성은 당산에 모신다. 이때 장독대에 단지 두 개를 놓고 터줏단지에는 팥을 넣고 칠성단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칠성단지는 세존단지와 함께 진설되기도 한다. 칠성은 산신령, 골맥이서낭과 함께 제의를 지내기도 한다. 제석은 칠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처럼 칠성신앙은 여타 신앙과 함께 비교되고 혼합되면서 믿어지기도 한다.

제수로는 비린 것을 삼간다. 칠성은 인간이 먹는 육고기나 화식(火食)을 하지 않으며 비린 것을 무척 싫어하기에 청수나 쌀(또는 떡)을 주로 놓고 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주로 쌀(밥), 나물, 떡, 과일, 실, 정화수 등이 사용되었다. 충청도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지만, 여타 지역

과는 달리 미역국이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전라도지역에서는 대체로 정화수만 떠 놓고 지내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정화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다. 또 전북지역에서는 개떡과 송편도 사용되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밀떡(밀전병)과 과일을 많이 사용하였다. 제주도지역에서는 과일, 떡(도래떡, 시루떡), 채소, 국 등을 사용하였다. 고기(육류)와 어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민어(충남 서산), 조기(충남 논산), 구운 생선 등이 사용되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청수, 과일, 쌀을 주로 올렸다. 그러나 영월지역에서는 술, 화천에서는 포도 올린 사례가 있다. 충북 음성지역에서도 칠성바위에 막걸리를 뿌렸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로 술과 포는 칠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제물이었다. 또 전국적으로 강원도 영월, 경북 문경을 비롯하여 몇 곳에서 국수를 사용하였다. 과자 역시 충북 옥천을 비롯하여 경남 밀양 등 여러 곳이 있다. 충남 논산에서는 동전도 올렸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칠성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떡을 쪄도 다른 곡식은 넣지 않고 흰쌀로만 찐다. 경남 밀양지역에서는 칠성단에 진설되어 있는 쌀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정화수는 매일 아침에 각각 새로 교체한다. 칠성단에 진설된 쌀로 지은 밥은 가족끼리만 음복하는데 이런 풍속은 밀양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 등 여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 의령지역에서는 제물의 조리를 반드시 제사 터에서만 하였다. 충북 옥천지역에서는 7월 6일에 나락을 조금 베어다가 찧어서 시루떡을 하여 제물을 장만하였다. 충남 공주지역에서는 칠성을 일곱 명으로 생각하여 밥에 숟가락 일곱 개를 꽂았다. 칠석날 밥을 해 먹기 위해 별도로 단지에 벼를 담아 보관하였다. 7월 초는 쌀이 귀한 시기이지만 칠성을 위해 쌀밥을 지어 올렸다.

제의를 지내기 전부터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한 것을 금한다. 금줄을 치기도 하고 황토를 대문간에 놓아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또한 금한다. 제물 역시 정성을 들여 장만한다. 제사에 사용할 쌀과 물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제의 시간 역시 부정이 타지 않을 조용한 시간대를 선택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의를 지낸 뒤 소지를 올린다. 이 과정에서 무당이나 비손이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후 음식을 음복함으로써 제의를 마치는데, 이 제의 과정은 지역과 가정마다



칠성고사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마을, 2007.1.23
서해숙

차이가 있다.

칠성고사는 무당을 초빙하여 칠성굿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칠성굿을 하면 안마당에서 칠성을 위한다. 칠성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상 위에 물동이를 올려놓는다. 그 위에 무명을 두르고 양끝에서 잡아당겨 팽팽하게 한다. 무명은 일곱 자 일곱 치를 사용한다. 이후 만신이 그 위에 올라가 바라를 치면서 칠성에게 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칠성에 대한 여러 속신이 있다. 칠성은 명과 복을 준다. 칠성은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과 중앙에 삼태칠성을 포함해 일곱 명이다. 칠성은 가택신이 아니지만 항시 집안에 내려와 있다. 아이들이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날 때 칠성줄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칠성줄이 없는 사람은 없다. 칠성은 원래 아무나 모시는 것이 아니다. 천지신명이 내려와서 말문이 터진 사람이 모셔야 한다. 칠성을 모시는 사람은 본디 사주가 중이나 기생이 될 나쁜 사주인 경우가 많다. 일곱 칠성은 자손을 돌봐 주고 삼신은 자손을 만들어 준다. 각 집안의 자손들은 거의 칠성줄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좋고 나쁘고 한다. 아이들이 빗나가면 칠성이 센 집이기 때문에 이를 달래려고 칠성에게 공을 들인다. 칠성은 하늘의 용궁으로, 우물 및 제석과 함께 아기를 점지해 준다. 칠석날에 아이를 낳아 칠성이란 이름을 지어 주면 명이 길다. 칠성에게 치성을 드린 뒤 자식을 보거나 빌어서 자손을 보면, 자손 대까지 칠성을 위해야 한다. 칠성을 위하는 집은 삼신을 모시지 않는다. 칠성은 다른 신보다 위하기 어려워서 며칠 기도를 해야 겨우 효험을 본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하면 큰 탈을 입는다.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이 칠성이기 때문에 북두칠성과 사람은 동일하다. 칠석날에는 하늘에서 칠성이 내려와 논과 밭을 깨끗이 매두었는지 보러 다닌다. 이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는 칠성님이 다닌다고 하여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칠석 전날에 논과 밭일을 끝내고 깨끗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논밭이 깨끗하면 칠성님이 그 논밭을 보고 복을 준다고 한다. 명복은 칠성이 주고 삼신은 아기를 만들어 준다. 삼신은 아기가 열 살이 될 때까지 돌봐 주고 칠성은 죽을 때까지 돌봐 준다. 칠성줄은 조상신으로, 어떤 이의 조상신이 굉장히 세면 칠성공을 드려야 한다. 또 칠석날에 절에 가 칠성을 위하면 좋다고 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지역에서는 칠성을 장독이나 뒤뜰 나무 아래 또는 산에 모신다. 태백, 영월지역에서도 산에 가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와 인접한 철원지역에서는 밀떡과 청수를 새벽에 떠 놓고 촛불을 밝혀 칠성을 위하였다. 아이를 원하는 부인은 무명을 몇 자씩 잘라 놓고 하루에 몇 번 단수를 먹였다(표백작업을 말함). 어떤 이는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모두 잡든 새벽에 수수쌀과 찹쌀을 자루에 넣어 장독에 파묻고 칠성을 위하였다. 양양지역에서는 읍내에 있는 칠성탑에서 제의를 지내면서 청수 올리기를 반복하였다. 청수는 인근의 신령하다고 하는 고치물에서 떠 왔다. 강릉은 단오제를 위한 국성황신을 모셔오는 날(음력 4월 15일)에 대관령 산신당과 성황당 근처에 만들어 놓은 칠성당에서 칠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차려 놓고 제를 올린다.



칠성고사 제물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1996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 광명지역에서는 집안에서 가을고사를 지낼 때 팥 시루떡을 찐다. 시루떡은 맨 위에 백설기 한 켜를 추가하여 올려서 찐다. 이 백설기가 칠성을 위하는 것이다. 경기 김포지역에서는 매년 음력 3월이면 '칠성맞이'를 하는 집도 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칠성맞이를 한다. 이때 잘 지은 노구메를 양푼에 담아 숟가락 일곱 개를 꽂아 올린다. 이 밖에 갖은 나물과 백설기를 제물로 올리며, 일곱 개의 초를 꽂아 두고 장독대에서 기원한다. 칠성께 발원하여 아이를 낳으면 명다리(소창 한 필을 접어 놓은 것)를 모셔 두고 칠성을 모신다. 명다리는 깨끗한 종이에 싸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 안에 넣어서 올려둔다. 집안에 상이 나면 부정을 피하기 위해 제석단지와 명다리를 바깥으로 치우거나 천을 덮어 둔다. 양주지역에서는 가을에 고사를 지낼 때 쟁반에 한지를 깔고 그 위에 백설기와 청수를 올려서 칠성을 위한다. 용인지역에서는 과거 칠석주머니라 하여 부엌의 솥 옆에 두고 봄부터 하루에 한 숟가락씩 쌀을 떠 넣었다. 이 쌀로 칠석날 밥을 하여 안방과 대청에 놓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포천지역에서는 밀가루만 넣고 하얗게 밀떡을 부치거나 호박을 썰어 넣어 밀떡을 부쳤다. 접시에 호박을 넣고 부친 밀떡 두 장을 아래에 놓고 맨 위에 밀가루만 넣고 부친 밀떡 한장 등 모두 총 세 장을 얹는다. 이 접시를 성주, 서낭, 터주를 위하여 세 접시씩 만들어 마당, 우물, 화장실 등에 청수 세 그릇과 함께 놓는다. 여주지역에서는 칠성을 위한다고 장광에 동그랗게 납작한 돌 세 개 정도를 쌓은 뒤 그 위에 청수를 떠 놓고 저녁마다 기원하였다. 또 장광에 칠성항아리(칠성을 모실 때 청수를 담는 그릇)를 해 놓고 매년 칠월 칠석이면 자식을 위해 문에 하얗게 종이를 매달고 백

설기를 쪄서 칠성에 치성을 드렸다. 칠석날 밤 12시에 청수, 참외, 부치기, 백설기, 물을 찰랑찰랑하게 담은 탕기를 놓고 고사를 지낸 뒤에 물이 찬 탕기를 들고 운감했는지 시험하였다. 이때 물이 찰랑찰랑한 탕기를 들고 있던 손이 대가 내리는 것처럼 떨리면 제대로 운감한 것이다.

울산시 울주지역에서는 칠석날 장독 위에 물을 떠 놓고 빈다. 이렇게 모신 칠성도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칠성이 밖으로 나가면 안택할 때 대잡이가 나무로 가서 다시 모시고 온다.

경남 밀양지역에서는 명절차례를 지낼 때 먼저 칠성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베푼 뒤 차례를 지낸다. 특별히 음식을 장만할 때나 이웃의 잔치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제단에 바친 뒤에 먹는다. 사천지역에서는 칠성단지를 모시면서 매월 초하루, 명절, 제사가 있는 날 칠성 앞에 물을 떠 놓고 촛불을 밝힌다. 밖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칠성님 앞에 두었다가 먹고, 단지 안의 쌀은 햅쌀이 나오면 교체한다.

경북 문경지역에서는 칠석날에 칠성고사를 올리고 정월대보름에 간단히 물을 한 그릇 칠성을 위하여 올린다. 영덕지역에서는 칠석날 칠성계(七星契) 계원들이 주로 절을 방문하여 법당에 음식을 올리고 칠성기도를 드린다. 영주지역에서는 칠성기도를 칠월칠석 북두칠성이 정방위에 드는 시간(자정이 넘음)에 올린다. 이날 못하면 이듬해 정월 길일을 택하여 한다. 영양지역에서는 칠성에게 아이를 판 가정은 칠성을 반드시 모셔야 한다. 가정에 따라 모시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 주로 범띠는 바위, 돼지띠는 바위에 물 나오는 곳, 개띠는 들 등에서 많이 한다.

전남 신안군지역에서는 밤에 마당에 돗자리나 덕석을 깔고 가운데 짚 한 움큼을 열십자로 놓은 다음 그 위에 물을 가득 채운 물동이를 올려놓고 칠성공을 드린다. 이때 촛불을 밝히지 않고 작은 그릇에 참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인다. 칠성공을 드릴 때는 물동이 앞에서 절을 일곱 번 하고 앉아서 소원하는 바를 빈다. 진도지역에서는 칠석날 밤에 칠성을 모신다. 미리 동이 하나를 사서 깨끗이 씻어 엎어 두고 바가지 하나를 구해 역시 한지로 싸서 준비해둔다. 밤이 되면 마당 한가운데 짚을 깔고 그 위에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를 놓은 다음 물동이 안에다 쌀을 담은 바가지를 띄운다. 바가지에는 양초 일곱 개를 꽂아 불을 붙인다.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비비면서 "어디 사는 아무개 자손 누구누구 단명하다니까 칠성님한테 명을 길게 해 달라."라는 내용의 구축(口祝)을 한다. 비는 것이 끝나면 동서남북을 향하여 일곱 번씩 모두 스물여덟 번 절을 한다. 칠성은 일 년에 한 번 칠석날에만 모신다. 함평에서는 특히 자식이 잔병치레를 하거나 먼 길을 떠나면 초 일곱 개를 밝혀서 물 한 잔을 떠 놓고 칠성에게 빈다. 담양지역에서는 칠석날이 되면 무속에서 칠성고사를 크게 지낸다.

전북 고창지역에서는 일곱 집에서 고추 일곱 개와 쌀을 얻어 도구통(절구통)에 찧어서 떡을 하였다. 이렇게 만든 떡과 고추, 밥, 삼색실과, 소지종이를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에 방앗고(방앗간)에서 준비한 음식과 물을 차려 놓고 공을 드려 아이를 낳은 적도 있다. 보름날 저녁이면 짚 한 다발을 장독대 앞에 깔아 놓는다. 그 위에 물 한 동이를 가득 채워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차례로 동서남북으로 절을 네 번 하였다. 그리고 오곡밥을 쪽박에 퍼서 짚 속에 넣어 둔 다음 새벽이 되면 집 안 사방으로 돌면서 수저로 떠서 뿌린 뒤에 이어 소금을 뿌리면서 일 년 열두 달 무사를 기원하였다. 이후 물동이의 물은 대문 밖에 쏟아내고 짚은 불살랐다. 예전에 가랫불(황덕불)을 지펴 놓을 때는 가랫불에 함께 태웠다. 무주지역에서는 아들이 군대에 간 뒤 칠성을 모셨다. 집 뒤에 물을 떠 놓고 아침저녁으로 비손하고 매월 초사흗날 밥을 올렸다. 부안지역에서는 칠성공을 드릴 때 칠성 앞에 칠성불이라 하여 초를 일곱 개 꽂아 놓았다. 밀가루를 갈아 만든 개떡 외에도 모시잎을 넣고 송편을 쪄 올리기도 하였다. 순창지역에서는 매월 7일, 17일, 27일, 칠석날에 마당 가운데 물을 한 그릇 떠 놓고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였다. 지금은 정월 7일, 초파일, 칠석날에 절을 찾아가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주도 제주지역에서는 칠성제를 정월에서 3월까지 좋은 날로 받아 심방을 단골로 정해 굿을 하였다. 보통 밤에 3일 정성 혹은 7일 정성을 드렸다. 처음에는 매년 하다가 점차 3년에 한 번 하게 되었다. 심방의 지시에 따라 과일, 떡(도래떡, 시루떡), 명태, 미나리, 무생채를 준비한다. 해어(海魚)나 적(炙)은 쓰지 않는다. 밧칠성은 남군 토산에서 모시기 때문에 뱀굿이라고도 한다. 이 신은 잘 위하면 부자가 되지만 잘못 모시면 더욱 해를 준다고 해서 선뜻 모시지 못한다. 한경면지역에서는 고팡에 들어가면 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항아리를 놓는다. 그곳에 안칠성을 모셨으며, 이를 안방이라고 하였다. 안칠성을 모시는 방법은 명절이나 제사 때 올리는 제물을 처음으로 조금씩 떼어 접시에 놓고 안방(고팡)에 있는 항아리 위에 놓는 것이다. 항아리에는 곡식이 들어 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웃제반(제상에 올린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떼어서 넣은 것)을 돌 틈에 넣는다. 한경면 저지리에서는 점차 집을 개량하고 고팡을 방으로 꾸미면서 안칠성을 모시지 않게 되었다. 칠성ᄀᆞᄉᆞ(칠성고사)는 정월에 주인의 생기에 맞는 날을 택해 일 년에 한 번 제의를 지냈다. 이때 못하면 3월에 하였다.

충남 공주지역에서 칠성은 오곡잡곡을 점지하고 여물게 하는 신령인 동시에 자손들의 명을 관장한다. 칠성은 장광에 터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장광에서 위한다. 제물로는 백무리(백설기)를 찌거나 밥과 미역국을 마련한다. 예전엔 칠성을 위하려고 따로 쌀을 조금 떼어 놓기도 하였다. 그 쌀로 칠월 초엿샛날에 떡을 쪄서 위하고, 칠석날에는 특별히 위하는 것은 없지만 미역국과 흰쌀밥을 먹었다. 금산지역에서는 칠성단지에 쌀을 서너 되 넣어 장광의 터주 옆에 모셔 두고 터주처럼 유두저리(짚주저리)를 틀어서 씌워놓는다. 유두저리는 해마다 갈아 주며, 헌 것은 아궁이에서 태운다. 가을 타작 후 도신하는 날에 단지 안의 쌀을 꺼내고 햇곡식을 넣어 둔다. 터주에게는 제물을 차려 위하고 칠성에게는 청수만 올린다. 도신이나 안택 때에는 칠성에게 청수만 올린다. 서천지역에서는 칠석날은 칠성께 쌀밥을 얻어먹는 날이라고 하여 한동안 보리밥만 지어 먹다가 이 날만큼은 쌀밥을 지어 먹고 무나물도 깨끗하게 기름질만 해서 함께 먹었다. 천안에서는 칠석날 삼신주머니를 매단 가정에서는 그 쌀을 꺼내어 쌀밥을 지어 먹는다. 홍성지역에서는 칠월 초엿샛날에 집안을 청소하고 논두렁의 풀을 깎아 정돈한 뒤 칠석날 뒤뜰에서 제사한다. 미역국은 미역, 바지락, 굴 등을 넣어 한 소끔 끓인다. 나물은 가지나물, 호박나물 등으로 준비하며 많을수록 좋다.

충북 옥천지역에서는 칠성을 터주처럼 단지에 유두지(짚주저리)를 씌워 모신다. 터주는 장광, 칠성은 당산에 각각 모셨다. 칠성고사는 칠석날에 지냈다. 당일 아침 대문 앞에 황토를 펴서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는다. 제물은 백설기와 청수뿐이다. 제물을 진설하면 촛불을 밝히고 사배를 한 다음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절을 한다. 그러고 나서 칠성소지, 터주소지, 대주부터 식구소지, 외양간 소[牛]소지를 올린다. 청원지역에서는 정월 초사흘이나 칠석날에 칠성을 위하였다. 마당에 짚을 열십 자로 깐 다음 물을 떠 놓고 백설기를 올려서 축원하였다. 가정에 따라서는 칠석날 장광에 백설기를 해서 터주와 함께 위하였다. 괴산지역에서는 시월상달이면 백설기를 준비하고 소지를 올린다. 고사는 장광에 금줄을 치고 행한다. 이날 시루떡을 하여 흙을 퍼서 도톰하게 만든 칠성단에 엎어 둔다. 고사에는 여자만 참여한다. 청원지역에서는 칠석날 또는 하루 전날 고사를 올렸다. 흰 시루떡(백설기)에 청수를 놓고 절을 한다. 이를 칠성할머니를 받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서울의 민간신앙**(이재곤, 백산출판사, 1996),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양양군지**(양양문화원, 2010),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27),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세시풍속** 1 · 2(국립민속박물관, 1997~1998).

필자 이한길(李漢吉)

칠성단지

상호참조 칠성(680쪽)

정의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안에 벼나 쌀 등 곡식을 넣어 집안의 장독대나 안방, 광 등에 두고 이를 칠성이라고 여기는 단지.

역사 칠성신은 보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자녀성장, 안과태평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칠성신은 불교에서는 칠성여래불(七星如來佛)을 말하며 도교에서는 일(日) · 월(月) · 목성(木星) · 화성(火星) · 토성(土星) · 금성(金星) · 수성(水星) 등을 칠성 혹은 칠원성군(七元星君)이라고 한다. 무속에서는 12세기에 이미 칠성이 무신(巫神)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흔히 칠성신을 북두칠성으로 여긴다. 특히 어린아이

가 7세 미만까지는 삼신이 받들어 주어서 성장하는 것이고 7세부터는 칠성신이 보살펴서 장수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칠성신은 보통 집 뒤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모시는 등 신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언제부터 단지형태로 모시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곡식을 넣은 단지를 신체로 모시게 된 연원에 대해서는 『규원사화(揆園史話)』나 『무당내력(巫黨來歷)』 등 문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규원사화』 단군기에는 "지금 사람들의 집에는 '부루단지(扶婁壇地)'라는 것이 있다. 울타리를 친 깨끗한 곳에 흙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토기에 곡식을 담아 제단 위에 놓아 볏짚으로 지붕을 이어 그것을 덮어두고 매 시월에 반드시 새로운 곡식을 올리는 것이다. 이를 '업주가리(業主嘉利)'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이는 곧 부루씨가 물을 다스리고 거처를 정하여 준 것에 보답하여 제사를 지내는 의미이다.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누르고 백성을 보호하는 신이 된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또한 『무당내력』에서는 서문에 "요임금 시절 상원 갑자 10월 3일에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강림하니 이가 바로 단군이다. 이에 신교를 창설하여 장자(長子) 부루(扶婁)에게 가르쳤다. 부루는 어질고 복이 많아 백성이 존경하고 신임하여 후일 터를 골라 단을 쌓고 토기에 벼 곡식을 담아 풀을 엮어 가려놓았다. 이를 가리켜 '부루단지' 또는 '업주가리'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규원사화』의 내용에서와 같이 단군의 장자인 부루를 기리기 위해 단지에 곡식을 넣어 모시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두 문헌의 간행 연도는 각각 1675년과 19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연도가 정확하다면 17세기부터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곡식을 넣은 단지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후 조상숭배와 곡령(穀靈)숭배가 일치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칠성단지는 이처럼 단지 안에 곡식을 넣어 신으로 모신 관습이 생겨나면서 칠성신앙과 결합하여 생겨난 신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형태 칠성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불룩한 작은 항아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다만 칠성단지를 장식하고 있는 모양에 따라 아무런 장식이 없이 항아리만 두고 모시는 기본형, 한지로 만든 고깔을 씌워 놓은 고깔형, 볏짚으로 주저리를 씌워놓은 짚주저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크기는 각기 다르지만 높이는 20㎝ 안팎이다.

내용 칠성단지는 칠성항아리 또는 칠석동이 등으로도 불린다. 단지 안에는 쌀이나 벼를 넣어 두기고 하고 물을 넣어 두기도 한다. 쌀이나 벼를 넣는 경우 돈도 함께 넣기도 한다. 아예 물도 넣지 않고 그냥 단지만 두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만 물을 부어 모셨다가 고사가 끝나면 단지를 비운다. 칠성단지는 주로 뒷마당 장독대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방에 선반을 만들어 올려놓거나 광에 두기도 한다. 칠성단지에 곡식을 넣는 경우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단지 안에 있는 묵은 곡식을 내고 햇곡식으로 갈아준다. 묵은 곡식은 떡이나 밥을 해서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주로 칠월칠석 때 칠성단지 앞에서 칠성신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는 제물은 비교적 간단하다. 청수 한 그릇과 촛불만 밝혀 놓기도 하고 밥이나 떡(백설기)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자식을 바라는 경우에도 정성을 들인다. 이때는 청수를 매일 갈아 올리고 절을 하면서 빈다.

칠성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칠성단지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담아 칠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릴



칠성단지와 떡시루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 1999.11.21
강성복

칠성단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6.12.3
강성복



때만 작은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서 빈다. 칠성다리라 하여 천을 한지에 싸서 모시는 신체도 있다. 무명천에 빌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이를 접어서 안방에다 모셔 놓는다.

이 밖에 칠성을 모시는 여러 형태가 있다.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칠성단 또는 탑, 흰 종이에 칠성신위(七星神位)를 써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은 것 등을 칠성으로 모시기도 한다. 안방에 널빤지를 달아매고 그 위에 과일과 청수를 올려서 촛불을 밝혀 칠성을 모시기도 하는데 이를 '칠성판'이라고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은모시마을에서는 굿을 할 때 안마당에서 칠성을 위한다. 칠성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상위에 물동이를 올려놓는다. 물동이 위에 무명을 두르고 양 끝에서 무명을 잡아당긴다. 이때 무명은 일곱 자 일곱 치로 한다. 무명을 잡아당기면 만신이 그 위에 올라가 바라를 치면서 칠성신에게 빈다. 칠성동이는 굿을 할 때에만 사용한다. 광명시 가학동 노리실마을에서는 집안에서 가을고사를 지낼 때 팥 시루떡을 찐다. 이때 맨 위에 백설기 한 켜를 올려서 찐다. 이렇게 찐 백설기는 정화수와 함께 장독간에 가지고 가서 자손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비손한다. 이처럼 칠성은 특별한 신체로 모시지는 않으며, 칠월칠석에 무당에게 가서 칠석맞이를 하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김포시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이나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송2리 요곡마을에서는 단지의 형태는 아니지만 벽 두 곳에 못을 길게 박고 하얗게 한지로 싼 것을 올려놓는다. 이를 칠성다리 또는 칠성이라고 부른다. 칠성다리는 보통 천 일곱 자 일곱 치를 끊어서 깨끗하게 접어 한지로 싸서 모신다. 칠성은 제석과 함께 자손들을 위하여 모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제석과 칠성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다. 명다리로 모실 경우 제석은 석 자 세 치, 칠성은 일곱 자 일곱 치이다. 칠성의 명다리에는 의뢰인의 이름, 주소, 생시를 적어 놓는다. 안방 구석에 모실 경우 제석은 아래에 두고 위쪽에 칠성을 모신다. 여주군 능서면 번도4리에서는 칠성을 위한다고 하여 장광(장독대)에 동그랗고 납작한 돌을 세 개 정도 쌓은 뒤 그 위에 청수를 놓고 저녁마다 빌었다고 한다. 이렇게 칠성발원을 하여 아들을 낳은 집에서는 장광에 칠성항아리(칠성을 모실 때 옥수를 담는 그릇)를 해 놓고 매년 칠월칠석이 되면 자식을 위하여 문에 흰 종이를 매달고 백설기를 쪄서 칠성에게 치성을 드렸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서는 칠성을 모실 때 삼베 보자기에 쌀을 넣어 안방의 횃대에 매달아 두었다. 이 보자기는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까맣게 때가 묻을 때까지 매달아 둔다.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의 이희순 보살은 뒤편 장독에 터줏단지와 칠성단지를 나란히 모셔 놓았다. 터줏단지에는 팥을 넣었고 칠성단지는 빈 단지이다. 칠성 앞에는 칠성물을 올리기 위한 그릇을 놓았고, 집안에 무엇을 고칠 일이 있으면 칠성 앞에 불을 밝혀서 칠성님이 잘 보살펴 달라고 빈다.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양지골마을에서도 칠성을 터주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단지에 유두지(짚주저리)를 씌워서 모셨다. 칠성은 칠석날 저녁에 고사를 지내서 모셨다. 제물은 백설기와 청수뿐이다. 칠성신이 천신이기 때문에 여러 제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칠성고사를 그만두게 되면 단지는 요왕님(용왕님)이 가져가라고 물에 띄워 보낸다. 이 밖에 빈 단지로 칠성을 모시기도 하고, 터주 안에 동전 일곱 개를 넣어 두기도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가을걷이를 하면 벼나 쌀을 형편에 따라서 조그만 단지나 항아리에 넣어서 모신다. 이

를 칠성단지 또는 칠석벼라고 한다. 이것을 안방 시렁 위나 장광 또는 광 한 구석에 모셔둔다. 비교적 여유가 있으면 한 섬 정도도 넣어둔다. 칠석이 되면 이 곡식을 퍼내 밥도 짓고 떡도 쪄서 치성을 드린다.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초미동마을에서는 칠성을 모실 때 단지에 서너 되가량의 쌀을 넣어 장광의 터주 옆에 둔다. 터주와 마찬가지로 유두저리(짚주저리)를 틀어서 씌워 놓는다. 유두저리는 해마다 새것으로 갈아주며, 헌것은 아궁이에서 태워 없앤다. 가을에 타작을 하고 나서 도신(상달고사)하는 날에 단지 안의 쌀을 꺼내어 햇곡식을 넣어준다. 터주에게는 제물을 차려 위하고 칠성에게는 청수만 올린다. 도신이나 안택을 할 때에도 칠성에게는 특별히 다른 제물을 차리지 않고 청수만 한 그릇 떠다 올린다.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의 고명순씨가 모시는 칠성은 검은색 옹기항아리이다. 입 지름과 높이가 각 15㎝ 정도로 몸통이 약간 불룩하다. 과거에는 논 한가운데 있는 '큰샘'에서 물을 길어와 담아 놓았으나 현재는 마을에 샘이 없어져 수돗물을 담아 놓는다. 칠성에게는 따로 제물을 준비해서 위하지는 않고 다만 가을떡을 하면 떡을 떼어둔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압수마을에서는 집안에 황토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위하기도 한다. 돌을 가져다 둔 경우 그 돌은 칠성돌, 황토로 단을 쌓아 둔 경우 칠성단이라고 한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에는 과거에 '칠석동이'가 있었다. 칠석동이는 마루의 성주동이 아래에 두었으며,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칠석동이에도 쌀을 넣었다. 물동이처럼 검은색 옹기 항아리였다. 입구는 종이를 세 갈래의 고깔모양으로 접어서 얹어 두었다. 밥 한 그릇, 청수 한 그릇을 떠서 쟁반에 받쳐 집 둘레에 빙 둘러 두었다. 이는 칠석, 지석, 주왕(조왕) 등 집안 가신을 모두 모시기 위해서이다.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서는 어떤 부인이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으려고 칠성을 모셨다. 이 부인은 돌로 탑을 쌓아 이것을 칠성의 신체로 삼고 매일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기마을의 김종순 씨에게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칠성단지가 있다. 단지는 지름 18㎝, 높이 20㎝ 정도크기이다. 안에는 쌀과 돈이 들어 있다. 한지로 단지를 덮고 그 위에 다시 한지로 고깔을 만들어 씌웠다. 지금은 자는 방에 두고 있지만 원래는 안방에 두었



칠성단지와 청수동이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2005.12.7
강성복

다. 단지 안의 쌀은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갈아주고 묵은쌀은 가족끼리 밥을 해먹는다. 매월 초하루와 명절, 제사가 있는 날에는 칠성님 앞에 물을 떠 놓고 촛불을 밝힌다. 밖에서 들어온 음식이 있으면 칠성님 앞에 두었다가 먹는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중촌마을의 최용호씨와 같이 아예 집안에 칠성 제단을 만들어 모시는 경우도 있다. 칠성단에는 쌀, 향로, 촛대 세 개, 정화수 세 그릇, 오색과자 등이 진설되어 있다. 그 옆에는 남녀 각 한 벌의 한복이 걸려 있다. 이 칠성단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점바치의 권유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오대마을에서는 흰 종이에 칠성신위(七星神位)를 써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은 것을 칠성으로 모신다.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에서는 신이 지핀 점바치들이 주로 칠성을 모신다. 안방 벽에 널빤지를 달아매고 그 위에 과일과 청수를 올려서 촛불을 밝혀 놓는다. 이는 칠성을 모신 것으로 칠성판이라고 한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내창마을에서도 칠월칠석이 되면 마당 한가운데에 열십자 형태로 지푸라기를 놓고 그 위에 물동이를 놓는다. 물동이와 지푸라기 머리가 해 뜨는 쪽인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 앞에서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린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에 사는 윤재순 무녀에 따르면 칠성에게 치성을 드릴 때 고추장 항아리 크기의 작은 항아리를 사다가 그 안에 물을 넣고 장독대에 놓는다. 그 위에 일곱 개의 촛불을 밝혀놓고 칠성신에게 절을 한다.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적거마을에서는 매년 칠월칠석에 칠성을 모신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물동이를 놓는다. 칠성에 빌 때는 물동이를 앞에 두고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며 손을 비비면서 빈다. 빌기가 끝나면 물동이에 있는 물은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쓴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양3리 당산마을에서도 칠성을 위할 때는 마당 한가운데에 짚을 열십자로 놓고 동이에 물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은 채 공을 드린다. 영광군 군남면 백양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문암댁에 따르면 칠성을 위하는 집에서는 뒷문 앞에다 칠성을 모셔놓고 날마다 물을 새로 갈아준다고 한다. 이때 모시는 칠성은 항아리에다 쌀을 반 정도 채워서 그 안에다 물 한 보시기를 떠 놓은 것이다. 물을 새벽마다 새로 갈아준다. 진도의 당골인 채정례 무녀에 따르면 칠성을 모실 때는 칠석날 밤에 마당 한가운데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를 놓는다. 이 물동이 안에다 쌀을 담은 바가지를 띄운다. 바가지 안에는 초 일곱 개를 꽂아 불을 붙인다.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비비면서 "어디 사는 아무개 자손 누구누구 단명하니까 칠성님한테 명을 길게 해 달라."라고 빈다. 빌기가 끝나면 동서남북을 향하여 일곱 번씩 총 스물여덟 번 절을 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칠성을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구분하여 모신다. 안칠성은 할머니 신격이며, 곡식을 보관하는 고팡(광)에 있다고 여긴다. 밧칠성은 집 뒤 깨끗한 곳에 좌정해 있다고 믿으며, 집안에 뱀이 나타나면 주젱이(노적가리의 일종)를 만들어 모신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는 고팡 안에 돌을 깔고 그 위에 항아리를 놓는다. 이를 '안방'이라고 하며, 이곳에 안칠성을 모셨다. 안칠성을 모실 때는 명절이나 제사 때 가장 먼저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접시에 놓고 안방(고팡)에 가서 항아리 위에 놓는다. 항아리에는 곡식이 들어있으며,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웃제반(제상에 올린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떼어 놓은 것)을 돌 틈에 넣는다.

참고문헌 **挨園史話**(북애, 고동영 역, **훈**뿌리, 2005), **巫黨來歷**(서울대학교 규장각, 민속원, 2005),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사회경제사연구**(김삼수, 박영사, 1964),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김태우(金泰佑)**



제의
터밟기
터주고사
토봉고사
토신제
풍신제

신격
터주
통시각시
풍신

신체
터줏가리

제구
키

제물
팥죽

용어
탈
택일

ㄱ ㅌ ㅍ

키

탈
택일
터밟기
터주
터주고사
터줏가리
토봉고사
토신제
통시각시

팥죽
풍신
풍신제

키

정의 곡물을 까부르는 농기구의 하나이나 일반 가정에서 하위 신령을 대접할 때, 신의(神意)를 확인하거나 부정한 요소를 가려서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구(呪具).

내용 청동기시대 이후 논농사가 본격화되면서 곡물을 말리는 도구인 키가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는 야요이[彌生] 중기의 나라 현 당고유적에서 실물 키가 발굴됐다. 오늘날에도 고르는 도구인 키는 농기구로 쓰임이 크다. 농기구의 일부는 그 쓰임새를 연상하는 차원에서 실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술·종교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낫은 부정한 것을 자르는 도구이므로 동토를 예방할 때 사용되고, 쇠코뚜레는 소의 강인함을 붙들어 매는 도구이므로 이사 간 집의 운명을 집주인의 의지로 움직이고자 할 때 집에 걸어두기도 한다. 키는 곡물을 까불러 검불을 골라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여 마을신앙이나 가정신앙에서 다양한 주구 역할을 한다.

키는 대나무나 고리버들로 만든다. 바닥 너비가 50~70㎝, 길이가 70~100㎝이다. 둘레에 얇은 버드나무 판자를 안팎으로 대고 칡덩굴이나 소나무 뿌리로 단단히 돌려 감아 고정한다. 이때 바닥의 안쪽을 움푹하게 하여 약간의 곡식이 담기게 한다. 키의 모양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후기 농서인 『해동농서(海東農書)』에서 볼 수 있다. 키는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 만든다. 남쪽지방에서는 대나무로, 북쪽지방에서는 고리버들로 각각 만든다. 바닥이 우툴두툴하기 때문에 마찰력과 비중에 의해 가벼운 것은 앞쪽, 무거운 것은 뒤쪽으로 따로 모이게 해 불순물을 가려낸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잡티를 골라내는 성질은 부정을 가리는 도구로 이용된다. 또 불확실한 것을 골라내면 확실하고 분명한 것만이 남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다.

키는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 가장 빈번하게는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농사점이나 풍년을 기대하는 주술적인 의례에 사용된다. 정월대보름날 아침식사를 마친 뒤 소에게 밥을 준다. 이때 다른 그릇이 아닌 키에 오곡밥, 나물, 목화씨, 잡곡 등을 담아 준다. 소가 무엇을 먼저 먹는가를 보고 그해의 풍흉을 예견하거나 풍년이 들 작물을 점친다. 밥과 나물은 풍흉만을 점치고, 오곡과 목화씨는 해당 작물의 풍흉을 점친다. 상(床)이나 소의 밥통인 구유가 아닌 키를 활용하는 것은 수확한 농작물을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풍흉을 점치는 용구로 이상적이다. 충남 연기지역에서는 개에게도 밥을 키에 담아 준다. 소와 달리 농사점은 치지 않는다. 이는 대보름 명절이어서 개를 예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의례적 순간에 동물에게 최상의 대접을 하기 위해 키가 활용된다.

이 밖에도 하위의 귀신인 잡귀잡신을 대접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집안의 무고(無故)와 안택(安宅)을 기원하기 위해 음력 정월에 안택굿을 한다. 방문 밖이나 마당에 하위의 신령을 위한 상을 하나 마련한다. 이를 '수비상', '객귀상', '객구밥'이라고 한다. 수비는 집안의 신령을 따라다니는 하위의 신령, 객귀는 무주고혼(無主孤魂)으로 초대받지 못한 귀신이다. 집안 식구 가운데 이러한 하위 신령에 속하는 선조가 있는 때에는 수비상이라 하지 않고 객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집 안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집 바깥에서 집 안의 신령과 다른 방식으로 대접한다.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는 키를 상으로 사용한다. 키에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제물을 골고루 올린다. 별도로 마련해 올리기도 하지만 방에서 굿을 마친 뒤에 그 제물을 조금씩 떼어다가 놓기도 한다. 키의 터진 쪽이 대문 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이는 음식을 먹고 집 안이 아닌 대문 쪽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수비상은 방 안에서 집안 신령을 위한 굿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서 내전(마당굿)할 때 가장 먼저 처리한다. 내전상이라 하여 수비상 옆에 방 안에서 사용한 상 하나를 가져와 별도로 차리기도 하지만 수비상만으로 내전하기도 한다. 내전은 수비를 포함하여 굿청에 청배된 모든 신령을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수비상과 내전상에 올린 제물은 모두 거두어 된장을 넣어 끓인 것에 섞는다. 상이나 키에 음식을 담아 올린 그릇은 모두 엎어둔다. 먹을 것이 없으니 머물지 말고 모두 속히 돌아가라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된장국을 들고 집 바깥의 세거리로 나가 내전을 한다. 들고 있는 칼을 던져 칼이 바깥으로 향하면 집으로 돌아온다.



수명장수 기원 키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01.8.23
서종원

충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거리제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리는 도구로 활용한다. 거리신령인 길대장군 또는 노중신령은 집 바깥 거리를 관장하는 신령이다. 집 안의 신령과 달리 하위의 신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을 놓고 제물을 올리지 않는다. 간소하게 짚만을 깔기도 하고 챙이[키]를 놓고 제물을 올리기도 한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에서는 식구 가운데 누군가의 신수가 나쁘거나 운수가 없을 때 집 안에 물건을 들이면 탈이 나거나 병이 난다. 점쟁이나 치성을 드리는 분을 불러 '챙이밥 내주기'를 행한다. 챙이에 소금, 메, 나물을 놓는다. 간혹 북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여기에 아픈 사람의 머리카락을 베어다 넣고, 아픈 이의 이름을 적은 옷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 제물은 버리고 옷은 태운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기도 한다. 해물리기의 일종이지만 챙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다르다. 챙이는 개나 소 등 인간에 비해 낮은 동물을 예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용물임을 고려할 때 챙이밥 역시 거리의 잡귀잡신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액막이에 키를 사용하는 것은 키가 바람을 일으켜 검불을 털어내듯 혹시라도 붙어있을지 모를 부정을 털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찰밥을 얻어먹으러 다닐 때 키를 들고 다니기도 한다. 여럿이 밥을 얻는 도구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삼태기나 키는 곡식을 담는 용구여서 풍성함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키의 또 다른 성격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부정한 요소를 가려내는 변별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의료주술 차원의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변을 보는 아이에게 키를 씌워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게 한다. 이웃집에서는 아이가 쓰고 있는 키 위에 소금을 뿌리며 나무란다. 아이에게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여 야뇨증을 없애고자 하는 심리적 치료법이다. 이 밖에도 두드러기가 생긴 아이에게 키를 씌워 부뚜막 위에 세우고 역시 소금을 뿌린다. 소금의 정화력과 키의 변별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인체에 끼었을지 모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키를 통해 가리고자 한 것이다. 이때 소금은 가려낸 부정적인 요소가 다시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 도구이다. 이로써 소금과 키의 결합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는 인체로부터 분리된다.

객귀가 들려 아픈 사람의 치병의례에도 챙이[키]를 사용한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환자에게 챙이를 씌워서 앉힌다. 바가지에 물밥을 해서 들고 칼로 환자를 위협하면서 "빨리 나와서 밥을 먹고 떨어져라."라고 외친다. 그런 뒤 칼을 던져 칼끝이 대문을 향하면 객귀가 물러갔다고 여긴다. 이 역시 환자의 몸에 쓘 객귀를 가려서 벗겨내기 위한 주구로 활용된 것이다.

동일한 차원에서 식구 가운데 살(殺)이 낀 사람을 위해 행하는 살풀이에 활용되기도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살이 낀 사람 머리 위에 까만 천을 씌우고 그 위에 바가지나 키를 씌운다. 수수팥떡에 재와 고춧가루 등을 묻혀서 살대에 끼운 뒤 그것을 키 위로 쏘아 살을



키와 군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2002.12.19, 코리아루트

푼다. 이처럼 키는 무엇인가에 쐬워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지닌 부정적인 속성을 가려 제거하는 주구이다.

키는 망자(亡子)가 죽어서 된 사후 존재를 가리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천도재를 지낼 때 마당에 차린 상 아래에 키를 놓고 그 위에 흰 밀가루를 뿌려둔다. 천도재 도중에 조상풀이를 마치고 이 밀가루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망자가 죽은 뒤에 된 존재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믿는다. 흔적을 통해 망자의 사후 존재를 확인한다. 이는 키가 무엇인가를 가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존재를 가리는 도구로 응용된 것이다.

이 밖에도 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여서 집 안에서는 함부로 키질을 하지 않는다. 특히 대문을 향하여 키질을 하면 복이 달아나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 삼간다. 키질하는 사람의 앞에 서면 키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 자신의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

한편 집에서 출산할 때 난산(難産)이라면 엎어져 있는 키를 똑바로 젖혀둔다. 키는 곡물을 담는 도구여서 젖혀져 있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는 엎어두지 않고 반드시 젖혀둔다.

이처럼 농가에서는 자신이 늘 사용하는 키가 지닌 농업기술의 상징을 활용하여 집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교적,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의의 어느 농가에나 있는 일상적인 도구인 키는 농민에게 가장 친근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 친밀함과 더불어 키가 지닌 본연의 기능으로 인해 키는 집안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구로 활용되었다. 몇 번의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는 신비함은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가려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정에서 가장 흔한 도구인 키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활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부안지방의 토속어**(김형주, 전라문화연구 1, 전북향토문화연구소, 1979),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 소나무, 2004), **충남 내포지역의 앉은굿 연구–태안지역을 중심으로**(임승범,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키**(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5), **키**(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의 농기구**(박호석 · 안승모, 어문각, 2001), **한국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2005).

필자 **김효경(金孝慶)**

탈(頃)

상호참조 동토(148쪽)

정의 가정신앙을 비롯한 민속신앙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 초자연적 존재(super-natural beings)를 자극함으로써 인간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그 결과.

내용 '탈'이 들어가는 우리말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같은 탈이라 하더라도 문제, 트집, 사고, 병, 허물, 고장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별 탈 없이 일을 마쳤다."라는 말 속의 탈은 걱정할 만한 문제를 뜻하고 "탈을 잡는다."라는 말은 핑계나 트집을 잡는다는 말과 같다. 뜻밖에 사고가 생겼거나 어떤 병이 생겼을 때 "탈이 났다."라고 말하며 기계나 기구 따위가 고장 났을 때도 같은 표현을 쓴다. 허물이나 결점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탈이 전혀 없다."라고 하기도 한다. 속담 중에는 어떤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탈이 자배기만큼 났다."라는 표현이 있다. 특별히 탈의 범위를 한정해 사용하는 용어도 있는데, 배 속 병의 총칭으로서 "배탈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어떤 사건 뒤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뒤탈이 났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앙탈, 속탈, 까탈 등 생활 속에서 탈과 관련된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가정신앙과 관련해 나타나는 탈은 대개 어떤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발생한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원인을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집안의 물건을 잘못 다루었을 때 생기는 동토(동티, 동태)의 경우 지신의 노여움을 사서 화를 입은 것이다. 출행했을 때 발생하는 살이나 주당은 잡귀의 해코지가 원인이라고 여긴다. 동토나 살, 주당의 원인이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에 있다면, 탈은 그로 인해 생기는 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그 결과를 뜻한다. 예컨대 눈병이 났을 경우 집안의 벽에 못질을 잘못했기 때문에 "동토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때 동토가 나서 생기는 눈병이 곧 탈인 것이다. 따라서 탈은 동토나 살, 주당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서, 넓은 의미로 보면 동토나 살, 주당 등의 유사 용어들을 총칭하는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탈의 원인이 초자연적 존재에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 역시 의례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탈이 남으로써 작동되는 가정신앙의 의례 행위는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탈이 남-의례를 통한 치유'라는 종교적 상징체계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가정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탈의 빌미는 가신의 신벌, 객귀의 침입, 동토(동티, 동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신의 신벌로 인해 생기는 탈은 가신에 대한 금기를 깨뜨리거나 정성을 다해 위하지 않았을 때 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을 앓게 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때는 가신의 화를 풀기 위해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여 잘못을 빌고 병이 낫기를 기원한다. 객귀의 침입이 원인인 경우에는 객귀물리기를 해서 병을 치유하려고 한다. 집안 식구가 외출했다 돌아온 뒤부터 이유 없이 병을 앓게 되면 객귀가 들었다고 여겨 객귀물리기를 한다. 대개 제물을 대문 바깥으로 내친 뒤 주문을 하면서 부엌칼을 대문 바깥으로 던진다. 이때 칼 끝이 대문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객귀가 나간 것으로 여긴다. 제물은 바가지에 보리밥과 막걸리를 담거나, 된장국에 먹다 남은 밥이나 반찬을 담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토는 일반적으로 흙을 잘못 다룸으로써 생기는 탈이지만 집안의 나무를 베었다거나 집을 고칠 때 날과 방위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등 집 전체와 관련 짓는 경우가 많다. 동토 역시 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을 앓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개 막음쟁이나 경쟁이, 보살 등을 불러 경을 하고 비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 밖에 특별히 고안된 방법으로 탈을 제거하기도 한다.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는 주당이 걸렸을 때 모의 장례를 하는 방식으로 주당을 물리는데, 이를 주장맥이(주당맥이)라고 한다. 주장은 상가, 혼가, 회갑연, 제삿집 등에 갔을 때 나쁜 액을 맞아 병이 드는 것을 말한다. 주장을 맞은 장소에 따라 산(山)주장, 질(길)주장, 집주장 등으로 나뉜다. 병세는 몸이 굳고 정신을 잃으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주장을 맞아 죽은 사람의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든 것처럼 시퍼렇다고 한다.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소 언치로 감싼 다음 왼새끼로 일곱 매듭을 묶는다. 그 다음에는 마당에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환자를 눕힌다. 마을 사람들은 삽, 괭이, 쇠스랑 등 농기구를 들고 땅을 파서 환자의 몸에 흙을 떠붓는 시늉을 하면서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돈다. 환자의 가족 중 한 사람, 특히 환자의 부인이 절굿공이로 땅을 다지는 시늉을 하면서 행렬을 뒤따른다. 이때 주장맥이 소리를 하는데, 이는 달구질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매장하는 흉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사다리 위에 환자를 눕힌 채 마치 상여를 메고 가듯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참고문헌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원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전남지방의 주당맥이 고찰**(나경수, 한국민속학학술총서 5, 민속원, 2008), **하회탈 하회탈춤**(임재해, 지식산업사, 1999).

필자 **한양명(韓陽明)**

택일(擇日)

정의 행사를 하기에 앞서 피흉추길(避凶趨吉)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 원리와 육갑 신살법 등에 의거하여 좋은 날을 가리고 나쁜 날을 피하는 일련의 행위. "길흉일을 구별하여 고르다, 가리다"라는 의미에서 '날가림', "길일을 점쳐서 골라 정하다"라는 의미에서 '복일(卜日)', "길일을 물어서 취하다"라는 의미에서 '추길(諏吉)' · '추일(諏日)'이라고도 한다.

유래 인간의 삶에서 시간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대한 행사인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미리 그 기일(期日)을 정해놓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에 따라 중대한 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혼인 · 출산 · 개업 · 이사 · 이장 · 고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들의 경우 "새 사람 들어오고 3년, 새 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라는 말처럼 결과의 좋고 나쁨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인생의 중대사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게 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피흉추길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좋은 날을 고르고 나쁜 날을 피하는 방



정월 닭날에 장 담그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2009.2.9, 김만태

법을 고안해 사용해 왔다.

사람들이 택일을 하는 동기는 좋은 날에 행해지는 일은 그날의 좋은 기운을 받아 그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좋은 결과는 더 크게 하고 나쁜 결과는 더 작게 하기 위한 조치로써 길흉일을 가려 어떤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믿음은 인류가 지닌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길흉일에 관한 풍속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대부분 문화권에서 널리 있어 왔다. 한국에서도 길흉일을 가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풍속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택일풍속이 언제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택일과 직접 관련되는 가장 초기의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에 진평왕(재위 579~632) 때 "설씨녀(薛氏女)가 혼인을 앞두고 날을 고른다[卜日]"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볼 때, 6세기 말에 이미 민가에서도 혼인을 앞두고 좋은 날을 택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신부측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연길(涓吉)·날받이 관행과 비슷하다.

> 설씨녀는 율리 마을 민가의 여자이다.…… 진평왕 때…… 설씨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갑작스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가 변방 방위에 나갔다가 교대하여돌아온 후에 날을 골라서[卜日] 예식을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일자(日者)·일관(日官)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길흉일을 가리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국사기』 열전에는 궁예(弓裔)의 출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午日)에 출생하였고……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이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했다.

중오일(重午日)의 '午'는 '五'와 통하여 단오인 5월 5일을 말한다. 이는 남송(南宋)에서도 5월 5일을 특히 흉한 날로 여겨 이날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꺼렸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택일 풍속과 관련해 당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국가나 왕실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능을 개장할 때, 기설제(祈雪祭) 등 각종 제사를 지낼 때 사천대의 일관에게 명하여 택일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밖에도 좋은 날과 방위를 가리는 관행이 널리 행해졌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국가·왕실과 민간에서 날을 가리는 풍습은 지속되고 성행하였다. 17세기 초 경상도 현풍에 살았던 곽주(郭澍)와 그 가족들이 쓴 한글 편지인 『현풍곽씨언간(玄風郭氏諺簡)』은 당시의 다양했던 택일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 없고 조용한 날(손 업고 죠용ᄒᆞᆫ 날)을 가려 말[馬]을 보내고, 십악대패일(十惡大敗日)과 천구일(天狗日)이나 책력(칙녁)과 날 받는 책(날 밧ᄂᆞᆫ 칙)을 이용하여 딸의 혼인날을 받고, 잿굿하는 날은 귀혼(鬼魂)날이니 사람이 아무나 불의(不意)에 죽게 되어 있는 날이며, 살풀이 하는 날(살 므를 날)을 가리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오월 초이튿날, 오월 열이튿날, 오월 열나흗날, 오월 스무나흗날, 오월 스무엿샛날, 유월 초엿샛날, 유월 초여드렛날, 유월 열여드렛날, 유월 스무날, 칠월 초하룻날, 칠월 초사흗날 (이날에는) 방문 밖에도 나가지 말고, 뒤(대소변)도 뒷간에 가서 보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보아라. 여기에 적힌 열한 날에는 매우매우 조심조심하여라.
>
> 김순복에게 가서 (그날 일진을) 물어 보고자 하네. …… 김순복에게 물어서 (그날이) 궂다(일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는 내가 함께 아니 데려갈 것이니 ……

곽주가 그의 둘째 부인 하씨에게 금기일과 근신일을 적어서 보낸 편지에는 생활의 크고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 모두 날짜를 가려 행한 당시의 택일 풍속이 잘 나타나 있다. 길을 나설 때조차도 그날의 일진을 뽑아 보고서 출발과 동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담장과 집, 성(城)을 수리할 때 날을 점쳐 길일을 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가 지은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의사를 구하기 좋은 날, 꺼리는 날, 약을 못 쓰는 날 등이 적혀있다. 신재효(申在孝)가 개작한 판소리 〈박타령〉의 놀부 심술을 묘사하는 대목 중에 "본명방(本命方)에 벌목하고, 잠사각(蠶糸角)에 집짓기와 오귀방(五鬼方)에 이사 권코, 삼재(三災) 든 데 혼인하기"라는 사설이 나온다. 이 사설을 미뤄 볼 때 조선시대 후기 사람들도 날짜와 관련되는 방위를 가려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놀부가 사랑 앞에 심을 때도 책력을 펴놓고 재종일(栽種日)을 가리고, 박통을 탈 때에도 책력을 펴놓고 납재일(納財日)을 가리는 대목이 나온다.



2007.9.22
미(未)시 상량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2011.5.8
김만태

장례와 관련해서도 길흉일을 가리는 풍속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장기(葬期)를 정해 장사를 치르는 게 법도였다. 그러나 신분에 따른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태어난 시가 좋으면 팔자가 좋고, 장삿날이 좋으면 자손들이 좋다'라는 믿음에 따라 길일을 택해 장사를 지내고자 너도나도 장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내용 근대에 이르러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문명화하면서 택일풍속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와 민간에서 중시하던 택일풍속은 점차 그 힘을 잃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굳이 택일을 믿어서가 아니라 좋은 게 좋으니까'라는 보험심리에서 길일이라고 알려진 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예식장이 붐비고 이삿짐 업체는 유난히 바쁘다.

일제강점기 이후 인쇄시설의 보급으로 가정보감(家庭寶鑑)류가 일반에게 많이 제공되었는데 그 안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택일항목들이 실려 있었다. 광복이후 1945년부터는 민간 출판사에서 다양한 택일관련 책자들을 발행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택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지금도 민간에서 널리 행하는 택일풍속 중의 하나로 장 담그기가 있다. 장 담그기 좋은 날[造醬吉日]로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는 정묘·병인·병오·천덕합·월덕합·만·성·개·오일을 들고 있으며, 신일(辛日)은 피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민간에서는 장 담그기 좋은 날로 대개 정월 말날[午日]

이나 닭날[酉日], 돼지날[亥日]을 꼽고 있다. 그 까닭은 "말날은 장이 맑으라고, 닭날은 장이 달으라고, 돼지날은 장이 꿀맛처럼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택일풍속의 전반적인 전승실태를 살펴보면, 혼인 · 이사 택일이 가장 성행한다. 그 다음으로 개업 · 출산 택일이 중요시된다. 장례 · 이장 · 집수리에 관한 택일은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상량 택일은 좀처럼 행해지지 않는다. 『천기대요』 등 과거 택일서에서 기조문(起造門)으로 매우 중시되던 건축 택일이 예전에는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던 출산 택일보다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라는 기성 · 공동 주택문화의 확산, 한두 명의 자녀만 낳아 잘 키우려는 저출산 등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건축 택일은 점점 사라지고 출산 택일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사일과 이장일을 정할 때도 예전에는 중상(重喪) · 복일(復日) · 중일(重日)을 모두 엄격하게 가렸지만 지금은 중상조차 가리지 않고 3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3일장이 보편화되면서 장례에 관한 택일에서도 금기사항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혼인 택일은 신랑신부의 본명생기법(本命生氣法)에 의거하거나 신랑신부의 사주로 택일 원리에 맞추어 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다. 그러나 생활주기가 1주일인 현대인들은 역학상 길일보다 하객들이 편하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공휴일을 선호한다. 여기에 길일까지 겹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금요일로 택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이사 · 혼인 · 집수리 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우리 민속에서 '손'은 날짜에 따라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인 '손님'을 줄여 부른 것이다.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동쪽,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에 있다가 나머지 이틀간(9일과 10일)동안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뒤 11일에 다시 땅에 내려와 동쪽에 나타나는 등 10일 간격으로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이나 방위에 이사 · 혼인 · 집수리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믿어왔다.

속칭 '손'을 『천기대요』에서는 태백살(太白殺)이라고 하는데 대례(大禮) 때 초례상을 차리는 방향을 피하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17세기 초 『현풍곽씨언간(玄風郭氏諺簡)』에서 말[馬]을 보내는 날을 '손 없고 조용한 날'로 꼽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행사 택일시 손 없는 날을 두루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손 없는 날에 이사 · 혼인 · 개업 · 집수리 · 장 뜨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다고 확장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손 없는 날은 순서대로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책력 없이도 쉽게 알 수 있어 민간에서 행사일을 잡는 데 널리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손 없는 날도 장 담그는 날과 비슷한 변화, 단순 · 규칙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길흉화복을 나타내는 점복 · 주술 · 금기 · 무속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문화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길흉화복에 가장 집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날의 길흉을 가리는 택일 풍속에는 한국인 고유의 신앙심과 인식구조가 꾸밈없이 함축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진솔한 삶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택일 풍속도 비록 모습이 크게 달라졌지만 지금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 없는 날 이사 모습
경북 경주시 충효동, 2011.5.12, 김만태

지역사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마을에서는 화(火)일에 초가지붕을 이면 불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날을 피해 지붕을 이었으며, 구들장을 뜯어서 안의 재를 후벼내고 구들을 새로 놓는 날은 매년 음력 7월 공망일에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 개량을 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이런 택일 풍속도 사라졌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거환경이 바뀜에 따라 택일 풍속이 소멸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전에는 담장을 고치고 벽에 황토를 바르고 못을 치는 것도 공망일에 손 없는 방향에 했는데 지금은 가리지 않는다. 마을 안에서 이사를 할 때도 대주(大主)의 사주를 넣어서 꼭 이삿날을 받아 했으며 이사방위도 반드시 가렸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샀다가도 이삿날이 나오지 않아 해를 넘겨 이사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도 초가지붕을 갈아 덮는 데는 택일을 받아서 하고, 되도록 천화일(天火日,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일)을 피하고 만약 천화일을 무시하고 지붕을 손보았다가는 집안이 화를 입게 된다는 속신이 지켜지고 있다. 10월에 '대액막이' 굿을 할 때도 택일을 받아 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택일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참고문헌 **날가림 관습으로 본 가정신앙의 역사성**(안혜경,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김만태,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 사주 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김만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국 택일 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김만태, 정신문화연구 3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필자 **김만태(金萬泰)**

터밟기

정의 집 터에 머물러 있는 지신(地神)을 달래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액운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임으로써 가족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새해 정월 초이튿날부터 열엿샛날 사이의 기간에 풍물패를 초청하여 집터의 지신에게 올리는 제의.

내용 정초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지신(地神)을 '눌린다'고 하여 터를 밟아주는데, 이를 '터밟기'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집터 곳곳에 머물러 있는 공간의 신인 지신이 심술을 부리거나 준동을 하면 가족과 가정이 편하지 않다고 하며, 이들 신에게 풍물패의 농악소리와 함께 음식을 바치는 것으로써 신을 위로하거나 심술을 달래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을 '눌린다'라고도 한다. 이 표현은 신들의 심술을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악소리와 함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님으로써 신의 심술스런 기운을 누그러뜨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터밟기는 충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신밟기, 매구치기, 풍장치기(충남), 두레놀기(경기도), 두레꽃반(경기도), 지군패(치군패), 지신굿(전북) 등이라고도 한다. 이 제의는 일 년 동안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해 주는 의미를 지닌다. 전북에서는 설달그믐쯤에 지신굿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굿을 쳐주기도 한다.

터밟기를 하는 동안 상쇠는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덕담을 해주면서 한바탕 논다. 이때 마당부터 뒤뜰, 부엌 등을 보호하는 가신(家神)들을 위한 간단한 고사(告祀)를 올리는데, 이것을 '위해준다'라고 한다. 이 제의가 끝나면 집 주인은 쌀이나 돈을 올린 음식상을 차려서 풍물패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경기도에서는 이 상을 '꽃반'이라고도 한다. 때로는 다른 마을까지 도는 경우도 있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과 곡식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지역사례 경남 김해군 가락면 대사리에서는 풍물패 우두머리로 영좌(領座) 한 명을 비롯해 그 밑에 경리 담당인 공원 한 명, 상쇠와 종쇠, 징, 호적, 장구, 북, 소고, 포수, 사대부, 사동, 각시, 기잡이 등 모두 35~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울리며 지신을 밟은 후에 간단한 제의를 행한다. 풍물패가 집 앞에 이르면 대문 밖에서 '문열이쇠'를 치고 뜰 안에 들어서면 '지신쇠'를 각각 친다. 풍물은 여기에 맞추어 20여 분 동안 지신을 밟는다. 지신을 밟는 것은 상쇠를 선두로 하여 지신패가 따라가면서 풍물소리에 맞추어 뜰 안을 밟는다. 지신을 밟는 방법으로는 모둠진법, 태극진법, 팔자진법, 덕석말이진법 등이 있다. 지신을 밟은 다음 대청에서 성주굿, 부엌에서 조왕굿, 장독대에서 철륭굿,


1. 걸립나가기


2. 걸립나가기


3. 걸립나가기


4. 걸립패 맞이하기


5. 고사상 촛불켜기


6. 풍물치기


7. 축원하기


8. 성주고사상


9. 성주고사


10. 풍물치기


11. 조왕고사


12. 조왕고사상


13. 집 안의 터를 밟는 걸립패


14. 축사 앞에서 풍물치기

터밟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1993, 국립민속박물관









우물에서 용신굿, 광에서 고방굿, 외양에서 우마굿, 변소에서 측간굿을 각각 지냈다. 이 굿은 굿석(席)마다 소반에 쌀 석 되를 부어 놓고 그 위에 대주의 밥그릇에 쌀을 채운 식기에 숟가락을 꽂고 실타래를 건다. 그리고 소반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정화수 한 대접과 실과를 진설한다. 굿상을 차리면 앞에서 상쇠와 종쇠가 서서 축원하는데 축원 사설은 상쇠가 메긴다. 철륭굿이 끝나면 주인집에서 술상을 차려냈다. 지신패는 술을 마시고 쉰 다음 다시 굿 선서를 이어간다. 굿상에 놓은 쌀과 돈은 공원이 자루에 담아가서 마을 경비에 사용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다시 다음 집으로 옮겨가면서 '길쇠'를 친다. 이로 인해 마을은 온통 꽹과리, 징, 북, 장구 등 소리로 부산하고 시끄러워진다. 이렇게 하여 동민 합동의 지신패는 정초에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들뜬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소란하게 떠들어댄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에서는 정초에 '굿바치'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터를 밟는다. 굿바치라 불리던 이들은 무업에 종사하는 무속인이 아니라 풍물을 잘 치는 마을 주민이었다. 그들이 정초에 북과 쇠를 치면서 집마다 조왕, 성주를 위해주기 때문에 굿과 비슷하다고 하여 얻은 이름이다. 한편 광복 이후에는 지서에 속한 소방대원들이 굿바치 역할을 대신하였다.

주로 정월대보름날에 터밟기를 행하였다. 터를 밟고 다니면서 얻은 수입은 그들의 활동경비로 충당하였다. 예전에는 지방의 소방대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으로 그들 옷이나 도구를 구입하였다.

굿바치들은 상쇠를 필두로 장구, 북 등 악기를 든 사람과 포수쟁이 등 익살스러운 분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이 마을을 돌게 되면 각 가정에서는 꽃반을 준비한다. 꽃반에는 쌀을 담은 그릇에 초를 꽂고 불을 밝혔다. 부잣집에서는 쌀 한 말 정도를 올려놓기도 하였다.

굿바치들이 집에 들어오면 우선 마을 앞에서 크게 풍물을 치며 축원과 덕담을 한다. 덕담은 주로 일 년 동안 이 집안에 재수가 좋으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풍물패 전원이 그 앞에서 절을 한 번 하고 나간다. 주인도 그들을 따라 성주 앞에서 절을 올린다. 꽃반 앞에서 축원이 끝나면 작은 방, 창고, 쌀독, 장독 등을 돌면서 역시 축원과 덕담을 해준다. 이를 두고 터를 눌린다고 한다. 굿바치들은 안채부터 시작하여 조왕, 장독대, 광의 순으로 돈다.

참고문헌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 · 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이기태(李淇泰)**



터줏가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2001.7.15, 김태우

터주

상호참조 지신(631쪽), 터주고사(711쪽), 터줏가리(716쪽)

정의 집의 터를 지켜주는 신(神). 집안의 평안과 특히 택지(宅地)의 안전을 관장하는 가신(神家)이다. 지역에 따라 터주신, 텃대감, 터줏대감, 텃신, 터주할매, 터신, 지신 등으로도 불린다. 매년 음력 시월 가을걷이가 끝나면, 항아리 속에 쌀이나 벼, 콩이나 수수 등 곡식을 넣어 짚가리를 쐬운 후, 뒤뜰 또는 장독대 근처에 모신다.



터주항아리
충북 제천시 오티리
2003.2.14
김태우

내용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의 신체(神體)는 '터줏가리'이며, 집 뒤뜰 또는 장독대 근처에 모신다. 가을걷이를 하고 나서 햇곡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타작한 좋은 나락(벼)을 항아리(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서 터줏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이때 햇곡식으로는 지역이나 집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곡식을 넣는다. 즉 나락 이외에도 쌀이나 콩, 수수, 팥 등 오곡(五穀)을 넣어 모시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터주항아리 안에 있는 곡식이 썩는다 하여 곡식 대신 동전을 넣어 모시는 경우도 있다. 『남양주시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김식순 씨 댁의 사례가 해당한다. 터주항아리 안의 곡식이 최근 들어 자꾸 변질되자 그 대안으로 틈틈이 모아 둔 동전을 터주항아리 안에 넣어 모시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대로 모셔오던 터주신을 지속적으로 모신다는 위안을 찾고 집안에 위급함이 있을 때 이 동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터주신앙 역시 원래 취지는 유지한 채 사회 변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터줏가리의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원뿔형이다. 짚을 한 묶음 쥐고 볏짚 윗부분을 꺾어 묶은 다음 아랫부분을 원뿔형으로 벌려 터주항아리에 덮어씌우면 완성된다. 이처럼 터주의 신체인 질그릇 항아리를 짚으로 덮어씌우는 것을 '짚주저리' 또는 '짚가리' 튼다고 한다. 한편 터줏가리 중간 주저리에는 문종이를 접어서 왼새끼로 묶어 놓는다. 이를 '예단 드린다.'라고 한다. 짚주저리 안에는 높이 30~40㎝ 되는 질그릇 항아리가

들어있고, 항아리 안에는 벼 또는 다른 곡물을 넣어 둔다. 이를 통틀어 '터줏가리'라고 한다. 짚주저리는 대개 남자들이 만든다.

원뿔 형태의 터줏가리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소 변형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소일마을의 손귀녀 씨 댁(1998년 현재)에서는 터줏가리가 원뿔형이지만 맨 위에 짚으로 모자처럼 만들어 씌웠다.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3리 김원득 씨 댁(1998년 현재)의 경우에는 터줏가리 윗부분을 똬리처럼 틀어놓아 원통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터주의 신체가 '돌'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쓴 『조선의 귀신(朝鮮の鬼神)』에는 "터주는 기주(基主)로서 일명 지주(地主), 토주(土主), 대감(大監)이라고도 한다. 이 신은 택지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모셔진다. 신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의 가정신앙』에서도 터주의 신체가 '돌'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양주시 백석면 가업리의 김옥안 씨 댁(1998년 현재)



터주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신외리, 황헌만



터주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010.1.12
윤동환

에서는 뒤꼍에 있는 바위를 '터줏대감'이라 하여 모시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최양순 씨 댁(1999년 현재)과 여주군 대신면 초현2리에서는 터주 신체가 '터주 막대기'에 주저리를 씌운 형태로 나타난다. 김포시나 인천시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는 '터줏대감' 또는 '텃대감'이라 하여 '벙거지와 쾌자'를 한지에 싸서 거실 대청마루 구석 모서리 선반에 올려놓아 봉안하거나 '대감독'이라 하여 큰 항아리 속에 넣어 대청마루 모퉁이에 봉안하기도 한다. 여기서 터줏대감은 굿을 할 때 무당이 입었던 무복(巫服)으로, 굿이 끝난 다음 무당에 의해 단골집 터주 신체로 모셔졌다.

터주는 집 뒤란 장독대나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에 따라 터주를 집 밖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 즉 터주를 '업가리'와 함께 집 밖에 있는 바깥마당에 모신다.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3리 삼산마을의 신언보 씨 댁(1998년 현재)과 고양시 덕양구 관산2동 김재경 씨 댁(1999년 현재)에서 보인다. 그렇지만 터주의 위치가 집 바깥에 있다 하여 그 집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터줏가리는 가을고사를 전후하여 일 년에 한 번 바꾼다. 헌 짚가리는 마당에서 불태운다. 이사할 때는 터주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계속 모신다. 터주를 모실 때에는 "터주님, 이 터전 이 마을에서 자손들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문을 왼다. 한편 터주항아리를 다시 위할 때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쌀로 밥이나 떡을 해 먹는다. 터주항아리 안의 곡식이 상했으면 버린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주항아리 안에 있던 곡식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반드시 식구끼리 밥이나 떡을 해 먹어야 한다.

터주신에 대한 의례는 대개 여자들이 음력 시월쯤 길일을 택해 올린다. 이를 '가을고사 지낸다.'라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으레 목욕재계를 하여 부정을 가린다. 가을고사는 터주에게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서 모시는 성주신, 조왕신, 업신, 삼신, 대감신, 칠성신 등 여러 신에게도 동시에 올린다. 지역에 따라 가신을 모시는 순서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성주신이나 조왕신을 먼저 모신 다음 터주신을 모신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 년에 두 번 터주를 위하기도 한다. 즉 가정에 따라 터주항아리 안에다 가을에는 햇벼를 넣고, 초여름인 음력 오월쯤에는 벼를 꺼내 밥을 지어 먹은 다음 보리를 넣어 모시기도 한다.

제물로는 팥 시루떡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콩시루떡을 하는 가정도 있다. 요즘도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난 뒤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쪄서 그것을 먹기 전에 장독대에 시루째 놓고 터를 위한다. 터주에게 고사를 지낼 때에는 팥 시루떡, 북어, 정화수(또는 막걸리) 등을 차린다. 만신이 와서 터주고사를 할 때에는 삼색실과 등 각종 제물을 골고루 차려 놓고 성대하게 지내기도 한다. 이 밖에도 부녀자들은 평소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화수와 메를 지어 터주에게 올려서 간단히 치성을 드린다. 또한 정초 지신밟기를 할 때 풍물패를 이끄는 상쇠가 꽹과리를 치면서 고사반(告祀盤)을 올린다.

우리 조상은 집안의 동, 서, 남, 북, 중앙 등 다섯 방위에 각각 다섯의 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터주는 북쪽의 신이라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터주는 북으로부터 시작된다. 터주에는 항상 터주항아리 놓는 돌과 떡시루 놓는 돌 두 개를 놓는다. 집안 고사 후 항상 터주에게 먼저 봉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터주는 가정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터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1리, 2005.6.22, 김태우



터주
경기도 여주군 간매리, 1998, 김명자



터주항아리 내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2리 한우재마을, 1998, 김명자



돌을 신체로 한 터줏대감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1999, 김명자





터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2리, 2002.6.1, 코리아루트

존재하지만 터주를 위하는 목적은 집터를 지키고 자손의 평안과 가정의 복을 지켜주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터주신앙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서울,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으로 '철륭'을 위하고 있다. 철륭의 신체는 짚주저리를 씌운 항아리이다. 항아리 안에 쌀과 한지 또는 한지만을 넣은 형태로 대개 뒤곁 장독대에 모셔진다. 철륭은 마을에 따라 철령, 철령할마이, 철륭단지, 뒤곁각시 등으로도 불린다. 이 지역에서는 집 뒤 자체를 '철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철륭은 터주신으로서의 신격 이외에도 산신(山神), 삼신(三神), 용신(龍神)의 기능도 한다.

경상도지역 역시 터주에 대한 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집안의 터를 지켜주며 관장하는 신령으로 인식된다. 터주를 모시는 신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의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집을 짓기 전에 터를 지키는 지신(地神)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집이 자리 잡은 터가 세기 때문에 이를 잘 모셔야 집안이 평안하다 하여 명절 차례를 지낸 뒤 마당 한쪽에 제물을 차려두고 비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터주신을 '토신(土神)'이라고 한다. '터신'이라고도 불리는 토신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를 주관하는 신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토신제를 여자가 아닌 남성들이 주관한다.

충청도지역에서는 터주에 대한 신앙의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터주', '터줏대감'이라 하여 집터의 안전과 보호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어 집안의 무사와 무병, 풍년을 기원한다. 제천지역에서는 '터줏단지', 영동지역에서는 '청룡단지'라고 각각 불린다.

터주신앙은 경기도지역에 오면 뚜렷해진다. 경기도지역에서는 많은 가신 중에서 터주가 제일 많이 보인다. 대개 '터주', '터줏대감', '지신'. '후토주임(後土主任)'으로 불린다. 신체는 작은 항아리에 쌀 등 곡식을 넣고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터줏가리를 만든 다음 뒤란에 있는 장독대나 그 부근에 모셔둔다.

터주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영·호남 등 남부지방에서는 '철륭'이나 '지신' 등 다른 형태로 존속하거나 존재가치가 미약하게 전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주신앙 역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존재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참고문헌 **강화의 가정신앙**(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경기도 민속지 1**(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도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남양주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숭실대학교박물관 외, 1998), **釋奠·祈雨·安宅**(조선총독부, 1938),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朝鮮の鬼神**(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29),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포천군·단국대학교 사학과, 1998),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호남지역 철륭신의 성격**(김명자,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필자 **이관호(李官浩)**

터주고사

상호참조 터주(707쪽), 터줏가리(716쪽)

정의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에게 집안의 평안을 위해 지내는 고사. 터주고사, 터주제, 텃고사라고도 한다. 터주는 집터를 맡고 있는 신으로서 터줏대감, 텃대감, 터전, 텃신, 지신, 토주, 기주(基主) 등 다양하게 불린다. 집터를 맡아보고 있으면서 집안의 액운을 거두어 주고 재복을 주는 신이다.

역사 터주고사의 역사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고사는 신을 향해 지내는 것이어서 우선 신의 존재와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터주에 해당되는 지신(地神)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처용가(處容歌)와 망해사(望海寺)조에 나타난다.

> 지신과 산신(山神)은 장차 나라가 망할 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경계하게 하 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상서(祥瑞)가 나타났다고 하여 탐락(耽樂)을 더욱 심하게 한 까닭에 나라가 마침내 망하였던 것이라 한다.



터주고사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05.10.3(음)
강성복

지신에 대한 이 기록은 가신(家神)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가신의 근거는 찾아볼 수 있어 터주의 오랜 역사성을 추정할 수 있다.

신이 존재한다면 으레 고사와 같은 의례가 행해진다. 이러한 의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나타난다.

192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 이어 1929년에 나온 『조선의귀신(朝鮮の鬼神)』, 1938년에 간행된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安宅)』에는 터주신앙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원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터주고사는 행해졌으리라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신과 관련된 의례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시대 자료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 칠석날 공민왕이 공주와 내정(內庭)에서 견우와 직녀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민가에서 칠석날 칠성신에게 비는 것과 관련되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 걸교(乞巧)는 민가에서 부녀자들이 칠석날 바느질 솜씨를 빈다거나 아이들의 시험운(試驗運)을 위해 색실을 자녀의 오지랖에 넣어 두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세시풍속이자 가정신앙의 범주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음력 시월 그믐날 마구간에 팥 시루떡을 차려 놓고 신에게 말의 건강을 빌었다는 내용과 시월상달에 무당을 불러다가 성주신에게 고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가신에 대한 의례 역시 유교식 제사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정신앙의 의례인 고사는 긴 역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터주고사 역시 긴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터주의 자리는 뒤뜰 장독대 옆이다. 신체(神體)는 주로 터줏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터줏가리는 서너 되들이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벼를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원추형 모양을 만들어 덮은 것이다.

터줏단지 안에 넣는 벼는 해마다 햇벼가 날 때마다 갈아 넣는다. 이때 갈아낸 묵은 벼는 남을 주지 않고 밥을 짓거나 떡을 쪄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이 담긴 신성물로서 남을 주면 복이 나가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다. 햇벼로 갈아 넣을 때

에는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터주고사를 지낼 때에는 터줏가리의 짚주저리를 갈고 왼새끼로 허리를 감은 뒤 왼새끼 사이에 한지를 꽂아 신성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옷 갈아입힌다'라고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터주를 지신이라고도 한다. 주요 가신으로 여겨 음력 정월 중 길일(吉日)을 잡아 지신제(地神祭)를 지낸다. 지신제라고는 하지만 지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신에게도 두루 의례를 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가신제(家神祭)와 마찬가지이다. 가정고사를 지신제라 할 만큼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터주의 신체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짚가리 형태이다. 짚가리는 농경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편 문헌에는 짚가리뿐만 아니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무속고』에서 터주신[土主神]의 신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쌀과 베[麻布]를 볏짚에 넣어 부엌 뒷벽에 놓아둔다. 무릇 가정에서는 비단을 한 필 사와서 그 앞부분(속명 토끗)을 잘라 신을 모신 볏짚에 매달아 두는데, 마치 국수가게의 사지(絲紙) 모양과 같다. 요즈음 풍속에 국수가게에서는 종이를 잘라 걸어 놓는데 이 사지를 초패(招牌)라 한다. 10월에 농사가 끝난 뒤 안택신사(安宅神祀)에서 무녀는 먼저 성주를 모시고, 나중에 토주를 모신다.

이 기록을 보면 터주의 신체는 볏짚에 국숫집의 사지(絲紙) 모양을 한 것을 메달아둔 것이라 했다. 이는 요즘에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짚주저리를 씌운 짚가리 형태의 신체는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할 것도 같다. 사지 모양은 소위 오늘날 터줏가리에 백지를 둘러놓은 것과 흡사할 텐데 당시는 비단을 사지 모양으로 걸었다니 역시 차이가 있다.

『조선무속고』에 이어 『조선의 귀신』에는 터주를 기주(基主)라고 하면서 신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석전 · 기우 · 안택』에서는 터주 신체를 "작은 항아리 속에 백미 또는 나락 · 수수 등의 곡물을 넣은 것을 짚가리로 씌운 것으로 뒤뜰 또는 장독대의 구석에 안치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터주 신체가 사지(絲紙) 모양을 한 것을 매달아둔 것, 단지를 짚가리로 덮은 모양, 그리고 돌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단지를 짚가리로 덮은 형태이다. '초패'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장에는 터주 신체를 돌로 모시는 예가 있다. 즉 터주의 신체가 자연석인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의 한 가정에서는 자연석을 터주의 신체로 모신다. 이를 터줏대감이라고 한다. 이 마을의 경우 돌을 터주 신체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김포시에는 벙거지와 쾌자를 한지로 싼 것을 터줏대감 또는 텃대감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료도 있다. 거실 구석 모서리의 왼쪽에 선반을 달아 그 위에 봉안했다. 이 터줏대감은 굿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무당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한다. 애초 무당이 굿을 할 때 입던 것인데 이 댁에서 터주를 모시면서 터주의 신체가 되었다. 이 경우 터주의 신체는 무복(巫服)이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다른 가정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가정의 터주 신체는 '터주막대기'에 주저리를 씌운 형태이다. 그 앞에 제단처럼 넙적한 돌을 놓아두었다. 그 자리는 뒤꼍이다. 봄과 가을에 제의를 지낸다. 봄에는 음력 이월 초하루, 가을에는 추수 후 햇곡식을 찧어 온 뒤에 길일을 잡아 고사를 지낸다. 여주지역에도 이와 흡사한 형태의 터줏가리가



터주에 올린 고사시루와 정화수
충남 연기군 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충남 연기군 남면 반곡리, 2006, 국립민속박물관



터주신체와 제물



터주에 올린 세발심지

있다. 밤나무를 깎아 만든 '말뚝'을 신체로 삼았다. 이를 '터주 막대기'라고 한다. 대주가 짚으로 상투를 틀어서 이 막대기 위에 얹어 놓는다.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주저리를 덮어 놓은 형태도 있다. 그러나 고사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터주의 자리는 예외가 있지만 대개 집 뒤꼍 장독대로, 집 안이다. 집 밖에 터주를 모신 경우도 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가정에서는 집 밖에 터줏대감을 모시고 있다. 신체는 터줏가리이다. 이 터줏가리는 할머니가 아파서 무당이 치성을 올린 뒤에 봉안한 것이다. 집 주인은 이 터줏대감을 '산'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집안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마을에 대한 고사를 먼저 지낸다. 터줏대감을 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을고사를 지낸 뒤에 집안고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주가 비록 집 밖이라고는 하지만 그 집의 범위 내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례 터주는 집터를 지켜 주고 재복을 주는 지신이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에서는 터주를 대체로 신체 없이 건궁으로 모신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 고방의 쌀독을 터줏단지라고 인식하며 위한다. 터주에 대한 의례는 성주와 마찬가지로 일 년에 한 번 햅쌀이 나는 음력 10월이다. 이때 수확한 햅쌀로 떡을 만들어 터주고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애기 잘 봐 주면 터줏단지 쌀 퍼서 밥해 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터줏단지 안에 있는 쌀을 소중히 여겼다.

경기도 여주군의 한 가정에서는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터줏가리가 뒤꼍 장독대에 있다. 신체 역시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고 위에는 모자처럼 씌운 원뿔형이다. 터줏가리의 허리에는 왼새끼를 감아 놓으며, 가리 안에는 옹기로 된 한 말들이의 아담한 터줏단지가 들어 있다. 터줏단지 안에는 벼가 가득 담겨 있다. 햇벼가 나면 새 벼로 갈고 터줏단지 안에 들어 있던 묵은 벼는 찧어 밥을 지어 먹는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시루떡과 청수(淸水)를 올린다. 터주를 비롯한 각 가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나면 떡을 조금씩 떼어서 동서남북에다 던진다. 터주에게 시루째 놓아 빌고 나서는 떡을 떼어 터줏자리에 놓는다. 빌 때에는 집안과 자손이 잘되라는 말을 한다.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을이면 터주의 짚주저리를 새 것으로 바꾼다. 짚주저리는 남편이 만든다.

여주의 다른 가정에서는 뒤꼍 감나무 옆에 터줏가리가 있다. 이를 '토주항아리'라고 한다. 토주항아리를 덮는 짚주저리는 남편이 만들며, 해마다 가을이면 짚주저리를 갈아 준다. 토주항아리는 한 말들이 옹기항아리이며, 고사를 지낼 때에는 시루떡과 청수를 올린다. 먼저 방에 떡시루를 놓고 빈 다음 마루(성주)에 올리고 다음으로 터주에 올린다. 전에는 토주항아리 안에 벼를 넣었으나 근래는 지전을 넣어 둔다.

터주안택고사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006, 황헌만


1


2


5


3


4


6


7


8


9


10


11

이 마을에서 터주항아리에 돈을 넣는 경우는 흔하다. 이는 곡물이 상하는 까닭도 있지만 벼농사가 줄어들면서 곡물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요즘 고사를 지낼 때 콩 시루떡은 터주, 팥 시루떡은 성주에게 각각 정화수와 함께 올린다. 터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고사를 지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예전처럼 정식으로 고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음력 10월이면 터줏가리 안에 들어 있는 벼를 햇벼로 갈고 물[정화수]을 떠 올려 간단하게 예를 갖춘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압수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터주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으로, 집안에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간주한다. 사시사철 터를 눌러 줌으로 집터의 기운이 세더라도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 일 년에 정월, 유두, 시월에 고사를 지낸다. 쌀을 담은 단지를 놓아두는데 빗물이 들거나 바람을 막기 위해 '유두저리'(주저리)를 틀어 씌워 놓고 터줏가리라고 한다.

장독대는 터주가 좌정하여 있는 곳이어서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긴다. 장독대에 다른 집에서 그릇을 갖다 놓으면 주부가 앓아 눕는 일이 종종 있다. '터주가 계신 깨끗한 공간'에 함부로 물건을 가져다 놓아 동티(동토)가 난 것이다. 따라서 남의 집 물건은 절대 가져다 놓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그릇이나 깨끗한 그릇은 상관이 없다.

터줏단지 안에는 3꼬대기(되) 분량의 쌀을 넣어 둔다. 유두에 터줏단지 안의 쌀을 비워 내면 시월까지 빈 항아리 그대로 둔다. 쌀을 비워 낼 때에는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목욕재계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에 청수를 올린다. 터줏단지 안에 쌀을 열어 보았을 때 바구미가 생겼으면 집안이 좋지 않다고 간주하여 청수를 떠 놓고 "인간이 어리석으므로 좋게 해 주시오."라고 일용수[비손]한다.

추수 후에 햇곡식으로 단지에 햅쌀을 채워 넣는다. 이때에도 쌀을 꺼낼 때와 마찬가지로 청수를 떠 올린다. 터주에 씌운 유두저리는 가을에 깨끗한 날을 잡아 태워 없애고 새것으로 만들어 씌운다.

아들이 큰일을 하러 타지에 나가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터주에게 보살펴 달라고 치성을 드린다. 물 두 되 정도 들어가는 옹기그릇에 물을 떠다올린다. 간혹 겨울에 터주에게 물을 떠 올리면 청수동이가 깨지기도 한다. 이는 주부의 정성이 부족해서 깨진 것이므로 터주께 사죄하고 새 그릇을 구입해 한다. 이사를 가게 되면 터주도 유두저리까지 씌워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 댁에서는 터주를 각별히 섬겨 유월유두날 고사도 터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상이전마을의 한 가정에서는 터주고사를 터제라고 한다. 그리고 터주를 터전이라 하여 자신의 집터인 마당을 위한다. 터주를 위하면서 집터나 자손들이 모두 잘되기를 기원한다. 과거에는 보살을 데려와 날을 받아 치성을 드렸지만 근래에는 내외가 간소하게 지낸다. 터전을 위할 때는 음력 시월 중에 날을 받아서 일 년에 한 번만 정성을 들인다. 일 년 중에는 날이 하루뿐이므로 잊으면 안 된다.

터주를 위할 때는 맨 먼저 청송장에 나가서 각종 제물을 구입해 온다. 특별히 황토나 금줄을 치지는 않는다. 터전, 조왕, 골목, 산신을 모두 위한다. 특이한 점은 터주를 위할 때 반드시 조왕에다 숯을 둔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엌에 아궁이가 없어서 식탁 위에 숯을 둔다. 조왕에게 올리는 제물인 밥, 나물 등을 함께 올린다. 제보자인 며느리는 그 까닭에 대해 알지 못한다. 전에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제보자가 어린 시절에는 가을이면 날을 받아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갖가지 제물, 햇곡식으로 쌀 한 말, 물 한 동이를 두고 터주를 위했다고 한다. 그러면 경쟁이가 와서 경을 하고 대주가 절을 한 뒤 소지를 올리면서 집안이 화목하기를 빌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한국여성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신신앙의 역사**(김명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886), **경기 민속지 2**(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지역의 터주신앙**(김명자,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문헌과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본 칠석세시와 전승**(김명자, 인문과학연구 9,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釋奠 · 祈雨 · 安宅**(조선총독부, 국서관행회, 1938),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朝鮮の鬼神**(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29),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한국 · 고려시대**(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명자(金明子)**

터줏가리

상호참조 터주(707쪽)

정의 터주신을 상징하는 신체.

내용 터줏가리는 일반적으로 서너 되들이의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벼를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원추형 모양의 짚을 틀어 엮어 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더러 터줏단지 안에 '토지지신(土地之神)'이라고 쓴 위패 또는 지위를 꽂아 놓거나 겉에 붙여 놓기도 한다. 보통 뒤뜰 장독대 한쪽에 놓여 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에 있는 한 터줏가리의 높이는 68㎝, 지름은 35㎝이다. 터주항아리의 높이는 20㎝, 지름은 25㎝이다. 터주항아리 안에는 벼가 들어 있으며 매년 가을 수확 이후 햇벼로 갈아 넣는다. 묵은 벼는 가을떡을 쪄서 터주고사에 올린다. 고사떡과 정화수를 진설하고 배례하는 형태이다. 이때 묵은 터줏가리는 불태우고 터줏가리를 새로 엮는다. 터줏가리를 새로 엮는 것을 '상투 튼다'라고 한다. 서운면 신촌리에 있는 한 터줏가리의 높이는 74㎝, 지름은 75㎝이다. 터주항아리의 높이는 28㎝, 지름은 23㎝이다. 터주항아리 안에는 100원, 50원, 10원 짜리 동전이 들어 있다. 원래 처음 수확한 햇벼를 넣어야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동전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역사례 터줏가리는 형태나 의례가 지역마다 거의 동일하다. 다만 터줏가리의 여러 이칭을 확인할 수 있고, 의례의 주체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지역의 경우 항아리에 쌀을 넣고 원뿔형으로 짚을 엮어 만든 터줏가리를 씌워 놓는다. 터줏가리에 한지를 꼬아 끼워 넣기도 한다. 단원구 와동 박중훈(1939년생) 씨 댁에는 크기가 작은 여러 개의 '애기터주가리'와 쌀 반가마니 정도가 들어가는 '큰항아리'를 모셔놓았다. 정월대보름과 시월상달에 정화수와 떡을 진설하고 집안의 무사평안을 기원한다. 별식을 준비하면 터줏가리 앞에 가장 먼저 음식을 바친다. 부정기적이지만 만신을 불러 발원하기도 한다. 광명지역의 경우 터줏가리 옆에 '업양가리'를 함께 모신다. 터줏가리나 업양가리나 벼를 넣어둔 항아리에 짚주저리를 씌워 놓은 형태이다. 장독대 옆에



업가리와 터줏가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1리, 1998.7.11
김명자

터줏가리와 업양가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충북 제천지역의 경우 터주의 신체를 뒤뜰의 담이나 장독대에 모신다. 이를 흔히 터줏단지라고 한다. 터주를 한자로 토주(土主) 또는 대주(垈主)라고 쓰기도 한다. 입석리의 엄선자 씨 댁에는 시월상달에 벼 한 말들이 항아리에 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워 터주를 모셔 놓았다. 짚주저리는 매년 가을에 새로이 벼를 넣을 때 갈아 씌운다.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앤다. 비워낸 벼는 방아로 찧어서 밥을 해먹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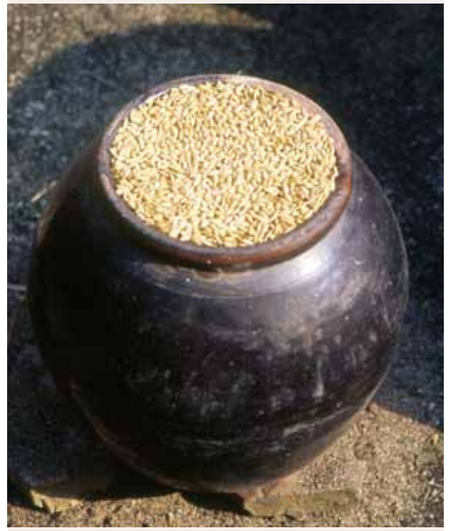
주저리를 벗긴 터줏단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읍지리, 1999.11.15
강성복

오직 식구끼리 먹는다. 봉양읍 장영식 씨 댁에는 작은 단지(터줏단지)에 곡식을 넣고 주저리를 씌워 터주를 모셔 놓았다. 그곳에 벼를 넣어 두었다가 봄에 보리를 수확하면 꺼내먹고 다시 보리를 넣어 둔다. 이를 두고 '벼를 저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북 안동지역의 경우 터주를 집안의 액운을 거둬주며 집터를 맡아 재복(財福)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긴다. 터줏가리에 매년 햅쌀을 갈아 넣는다. 이때 그냥 갈아 넣기도 하지만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간단히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무당이



붉은팥을 안치한 터줏단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7.1.20, 강성복



벼를 안치한 터줏단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006.12.13, 강성복

굿을 할 때 터줏대감을 모시는 거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당이 시루를 머리에 이고 술을 마시면서 안마당과 뒤꼍을 돌아다닌다. 터줏가리 대신 '바깥용단지'를 모시기도 한다. 경남 진주지역의 경우 터주를 '터줏대감', '터주대장',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터주를 오방(五方)에서 중앙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긴다. 시월에 날을 잡아 성주풀이를 한 다음 터주풀이를 한다. 이때 터줏가리에 담은 곡물을 새로 갈아 넣으며 묵은 곡식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족들이 먹으며 복을 빈다.

전북 김제지역의 경우 터줏가리를 '왕신단지'라고 한다. 집의 뒤꼍이나 장독대 가까이에 터줏가리를 모신다. 해마다 10월에 추수한 벼를 갈아주며, 상달고사 때는 집안굿으로 모신다. 평소에도 간단히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전남 여수지역의 경우 터줏가리에 매년 햇벼로 갈아 넣는다. 이때 갈아낸 묵은 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 반드시 가족들이 직접 먹는다. 제의는 다례 때 떡 한 접시를 바치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 ·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세시풍속**(국립민속박물관, 1997), **현지조사자료**(안성시,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이창식(李昌植)

토봉고사

정의 벌농사를 할 때 꿀이 잘 들기를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고사. 꿀이 잘 든다는 것은 꿀벌이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꿀벌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내용 토봉고사는 벌농사를 지으면서 올리게 되는 여러 고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3월쯤 처음 벌농사를 시작할 경우 벌통을 놓게 되는 산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 잔을 부어 놓고 축원을 하는 고사, 이어 음력 5월 분봉을 할 때에 제향하는 고사, 8월쯤 벌꿀을 뜰 때 올리는

고사가 있다. 벌이 많아지면 벌통이 비좁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벌통을 놓아서 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분봉이라고 한다. 벌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벌들이 집단으로 벌통 밖에 나와 뭉쳐 있게 된다. 이들을 재빨리 다른 벌통으로 안내해 주어야 이 벌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양봉인 경우 보통 하루 정도는 시간이 있지만 토봉인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분봉을 해주어야 한다. 분봉은 벌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도망가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해주어야 한다. 제물은 정화수나 술 한 잔이면 된다. 제의 절차는 간단하다. 소주나 물 한 잔을 부어놓고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 간단하게 고사상을 차리기도 한다. 제물을 진설하고 나서 절을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축원하면 된다.

지역사례 전북 남원에서는 양력 3월에 처음 산으로 올라가 벌을 준비할 때 인근 묘역에 소주를 한 잔 부어 놓고 예를 갖춘다. 해당지역에서 토봉농사를 짓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산신령에게 도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에서는 벌을 치면서 벌통을 놓은 근처 산(수리봉, 종로봉, 소이봉 순)의 산신령에게 꿀벌이 많이 들기를 기원한다.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서는 음력 5월쯤에 분봉을 한다. 이때 분봉이 잘 안 되어 벌이 나무에 달라붙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장독대에 떠 놓고 절을 하면서 벌을 벌통 안에 모이게 해달라고 빈다. 벌은 주로 오전 9~11시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한다. 반면에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에서는 벌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 마치 삼신할머니에게 빌듯 정화수를 떠 놓고 축원한다. 벌이 나무에 뭉쳐 있거나 바위 근처에 모여 있으면 벌들이 있는 곳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 고사에는 벌이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마을에서는 2004년쯤까지 이런 식으로 고사를 지냈다. 퇴곡리에서는 양력 5월 6~8일에 벌통 앞에 소주를 한 잔 부어 놓고 절을 두 번 하면서 축원했다.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서는 벌꿀을 뜰 때 고사를 지낸다. 8월 중에 날을 받아 지내는데 주로 백로(白露) 무렵이다. 지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방 안에서 맨 처음 뜬 첫 꿀을 조상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낸다. 조상님 앞에서 "꿀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뒤 올해도 꿀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하기도 한다. 고사상은 메, 삶은 계란, 고기 등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벌통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이한길

경북 군위에서는 벌을 기르던 사람이 죽으면 그 부고를 벌에게도 전한다. 부고를 써서 벌통에 붙이면 벌이 하얀 띠를 매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벌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검절약하고 자손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벌을 사람과 같이 여겨 벌에 부고를 전하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충남 천안에서는 초상집에 다녀오면 벌통에 삼베를 꽂아 두어야만 부정이 타지 않는다고 한다. 삼베를 꽂아 두면 벌이 하얀 띠를 두른 것처럼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을 타서 벌이 모두 죽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양양군지**(양양문화원, 2010),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이한길(李漢吉)**

토신제

표제어 터주고사(711쪽)

통시각시

표제어 측신(672쪽)

팥죽

상호참조 동지고사(144쪽)

정의 동지 때 가정에서 잡귀잡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안의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뿌리는 팥으로 만든 죽.

역사 중국 창장(長江)강 중류 유역 형초(荊楚)지역의 7세기경 연중세시기인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서 음력 동지에 팥죽을 쑤어 역귀(疫鬼)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 풍속이다. 『형초세시기』에 따르면 "공공씨(共工氏)에게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되어 붉은 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동짓날 붉은 팥죽을 쑤어서 그를 물리친다."라고 했다. 그러니 당초에는 동지 때 팥죽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해 기록한 알려진 문헌으로는 이색(李穡)의 『목은시고(牧隱詩藁)』에 나오는 '팥죽[豆粥]'이란 시가 가장 앞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지가 되면 시골풍속에 팥죽을 진하게 쑨다네(冬至鄕風豆粥濃), 비취 주발색으로 흘러넘쳐서 공중에 떠오르는 듯하네(盈盈翠鉢色浮空), 석청으로 맛을 내어 목구멍을 적셔 내리니(調來崖蜜流喉吻), 음흉하고 사악한 기운을 모두 씻어내고 뱃속을 살찌운다네(洗盡陰邪潤腹中)"

추정컨대 명나라 때 간행된 『형초세시기』가 고려시대 말에 전해지면서 동지에 팥죽을 먹는 풍속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동지의 팥죽은 본래 귀신을 물리치는 물건이니 사당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듯합니다(冬至豆粥 本禳鬼之物 薦廟似甚無謂)."라고 했다. 17~18세기 초반에 사람들은 동지 때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그것을 여러 그릇에 담아서 각 방과 장독간, 헛간 등 집안의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놓아두는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득공(柳得恭)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동지 때 "팥죽을 문짝에 뿌려 악을 물리친다."라고 적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 후기에 와서 동지 때 반드시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집안 곳곳의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뿌려서 악귀를 물리치는 풍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내용 팥죽은 팥을 삶아 으깨어 거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이다. 한자로는 두탕(豆湯) 또는 두탕적두(豆湯赤豆)라고 한다. 고려 말에 『형초세시기』가 전해지면서 동지 때 팥죽 먹는 풍속이 생겼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동지 때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집안의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두었다. 이와 동시에 팥죽을 대문에 뿌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뿌리는 풍속도 생겨났다. 1970년대까지도 동지 때 팥죽을 먹고 가정신이 머무는 곳에 팥죽을 두거나 뿌리는 풍속은 지방에 따라 지속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주택의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에 이러한 풍속을 보기는 어렵다.

지역사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에서는 동지 때 사당에 팥죽으로 동지차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장독대 등에 한 그릇씩 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동지 때 팥죽을 쑤어 솔가지에 적셔 집 안 대문을 비롯하여 담장이나 마당에 뿌렸다. 아울러 마을 어귀의 큰 고목에도 팥죽을 뿌려 잡귀의 동네 침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牧隱詩藁**, **寒水齋集**,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주영하(周永河)**

풍신

표제어 영등(473쪽)

풍신제

표제어 영등고사(477쪽)

학질떼기
한지
해물리기
햇곡식갈기
허궁
허재비
헌식
호구신
호서낭
호식장
홍수맥이
화재막이
횡수막이

제의
학질떼기
해물리기
햇곡식갈기
호식장
홍수맥이
화재막이
횡수막이

신격
호구신
호서낭

신체
한지

제구
허재비

용어
허궁
헌식



학질떼기

정의 모기가 옮기는 학질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적 민간요법. 학질은 지역에 따라 하루살이, 하루걸이, 초학, 초짐, 쇠할애비, 메느리심, 메느리고금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학질에 걸리면 병원충의 분열증식 주기와 일치하는 발작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앓게 된다. 옛날에는 이 병으로 죽는 일이 많아 다양한 민간요법이 전승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환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환자를 높은 절벽에 앉아 있게 하여 갑자기 등을 쳐서 놀라게 하거나 새벽에 허리띠에 물을 적셔 환자 목에 감으면서 "뱀이다!"라고 소리 지르면 놀라서 떨어진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환자를 눕게 한 다음 멍석을 말아 소 앞에 끌고 간다. "송장 밟지 마라."라는 소리를 하면서 소가 멍석 위를 껑충껑충 뛰어넘게 한다. 이렇게 세 번 또는 학질을 앓은 횟수만큼 뛰어넘으면 병이 낫는다. 소가 자기를 밟을까 봐 긴장하여 놀라서 학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두 번째로 변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변소의 발을 놓는 자리에 밥 식기를 엎어 놓았다가 이 식기에 밥을 떠서 환자에게 주면 낫는다고 한다. 또는 솥뚜껑을 쓰고 화장실에 가서 똥 누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세성받이가 쑥을 가지고 한 사람이 세 묶음씩 불을 붙여서 다 타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세 집을 다니면서 변소 앞에 있는 주춧돌을 핥는다. 첫 번째 집에서는 한 번 핥고, 두 번째 집에서는 두 번, 세 번째 집에서는 세 번 핥는다. 마지막 집에서 대변을 보고, 간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너무 더러워서 학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왼새끼를 꼬아 환자의 목에 두르고 변소에 가서 "사둔, 사둔, 사둔, 환갑이라고 하여 개 한마리를 가져왔으니 잡아 잔치하시오"라고 한 뒤에 침을 세 번 뱉는다.

세 번째로 축귀법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해가 돋을 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잘라서 세워 놓고 때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라고 세 번 외치면 낫는다고 한다.

네 번째로는 가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와 학질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다. 식전에 동구 밖에 있는 장승의 입을 맞춘 후에 간 길과 다른 길로 돌아오면 낫는다는 말도 있다. 집에 오는 길을 평소에 다니던 길로 안 오고 빙 돌아 이웃집에 가서 아침을 얻어먹고 오면 낫는다. 장가를 세 번 든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떨어진다고 한다. 무덤을 지키는 망부석과 씨름을 하고 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 역시 다른 길로 돌아서 온다.

마지막으로 주술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덤에 피는 '도둑놈 지팽이'라는 풀의 대를 자른다. 무척 독한 이 풀의 대를 한쪽 콧구멍에 꽂고 개울의 다리 세 개를 건너가면 낫는다. 비슷한 방법으로 할미꽃 잎사귀를 비벼서 콧구멍을 막고 샘으로 가서 콧구멍을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 벼락 맞은 나무를 삶아 그 물을 먹거나 절구나 방망이를 태운 재를 먹기도 한다.

지역사례 하루걸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매일 아프다. 충남지역에서는 이때 '며느리심'이 되었다고 하여 베 짜는 바디와 밥, 나물을 가지고 서낭당 덤불로 간다. 덤불 앞에 가져간 것을 내려놓고 짚에 불을 놓는다. 주부는 그 앞에 서서 "며늘아기 베 짜고 나오지 말고 그곳에 앉아 있어라!"라고 주문을 왼다. 밥과 나물은 짚 위에 쏟아 두고 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온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김치와 호박잎 등을 넣고 죽을 쑨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세 구석에서 "며늘아가! 며늘아가!"라고 외친다. 첫 번째, 두 번째 모퉁이에서는 찾아다니는 시늉만 하고 죽을 조금씩 버린다. 그리고 방의 세 번째 모퉁이에서는 "며늘아가, 여기 있구나."라면서 죽을 조금 버린다. 그러고 나서 바늘에 색실을 꿴 다음 헝겊에 꽂아 둔다. 이를 환자 머리에 두르고 덤불에 있는 덤불할매와 덤불아가씨를 찾아간다. 세 덤불을 찾아다니면서 "덤불아가씨! 덤불아가씨! 덤불아가씨!"라고 부른다. 세 번째 덤불에서는 "덤불할매! 덤불할매! 며늘아기 골무 가르쳐서 꼭 잡고 있으라."라고 외친 뒤 바늘을 꿴 헝겊은 덤불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루걸이를 치료하는 것을 '며느리볶음'이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고성지역의 기층문화(고성군 문화원, 1997),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문화재관리국, 1987),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황루시(黃縷詩)

한지(韓紙)

정의 가신(家神)으로 모셔지는 흰 종이.

형태 성주는 터주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된 명칭으로 불리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격이다. 성주의 신체는 대체로 백지, 성줏단지, 성주동이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한지로 된 것과 오지그릇으로 된 것이 있다. 한지로 된 것은 흔히 무명베, 즉 헝겊으로 된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가신 중의 '신체'를 말한다. 흔히 성주오가리, 성주독, 성줏단지와 더불어 가신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성주신'으로 이해된다. 제석오가리나 제석단지가 성주를 포함한 조상신격, 삼신신격, 불교적 신격 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데 비해 한지로 된 신체는 주된 성격이 성주신이다. 물론 성주 주머니에 고깔을 씌우는 형태 등에 대해서는 불교적 영향으로 해석하고, 석짝(뚜껑이 있는 대바구니)에 한지를 넣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상신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양자 모두 신체이면서 신격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종이성주
경북 문경 상초리
새재산장, 1981.5.11
배도식

성주신(成主神)은 집안에 있는 가신 가운데 가장 상위신으로 여긴다. 집안의 대청 대들보나 안방의 문 위에 좌정하는 성주신은 '상량신(上樑神)' 또는 '성조(成造)'등으로도 불린다. 성주는 남신(男神)으로, 집안의 대주라고도 한다. 성주를 맞이할 때는 안택굿, 성주굿을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성주는 대주를 위해 모신다고 하여 성주상을 차려놓고 대주가 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주맞이굿을 하면서 성주를 받기도 한다. 성주가 좌정한 곳은 집의 중앙부, 즉 마루이다. 일반적으로 마루의 대들보나 중심이 되는 기둥에 한지 등을 묶어서 신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종이에 쌀을 싸거나 글을 써서 마루의 한 벽면에 붙이는 방식이 전해져오고 있다. 보통은 집안고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비는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이나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신체로 기능하는 한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며져 신앙의 대상이 된다. 성주오가리 또는 성줏단지가 오지단지에 쌀을 가득 넣어 백지로 봉하고 무명실로 동여맨 것을 말하는 것에 비해 '성주 맨 것'이라고 표현되는 성주 신체는 한지를 접어 장방형이 되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것을 대청의 기둥이나 안방쪽 벽에 붙이고 대를 깎아 만든 못을 네 귀퉁이에 꽂아 종이성주를 무명실로 고정시킨 형태이다.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의 신체는 집을 처음 지을 때 상량식에서 명주실과 명태, 한지를 함께 묶어 상량목에 매달아 두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곳에 성주가 깃들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이후 해마다 새로운 성주 꾸러미로 교환한다. 새해가 되면 명태 한 마리, 명주실 한 꾸러미, 한지 등을 한데 묶어서 그 집의 가장 중심

이 되는 대들보나 대청마루의 보에 매달아 두는 것이다. 명주실은 집안 식구들의 장수를 기원한다. 한지는 명예, 즉 발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석된다. 명태는 건강을 위한 염원에서 사용한다. 한지는 지역에 따라 오지그릇을 덮는 용기 가운데 일부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지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신체들과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조령(祖靈)을 가신으로 모시는 경우에도 한지가 사용된다. 호남지역 일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석짝 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적은 한지를 넣어 안방 시렁 위에 안치하는 형태이다. 또는 곡식석 되 정도가 들어가는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에 쌀을 가득 넣은 뒤 안방 벽에 걸어 놓는다. 이때도 햅쌀이 나면 묵은쌀과 바꾸어 넣는다. 여기서의 주머니도 크게는 한지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성주의 신체는 세 가지로 나뉜다. 종이나 베를 이용한 한지형, 항아리를 쓴 단지형, 이들이 섞인 복합형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하면 성주신의 형태를 네 개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지형이다. 한지나 베에 쌀, 동전을 봉안하여 집안 대들보에 매다는 형식이다. 한지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 유역의 사례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한지를 꽃모양으로 오려서 대들보에 매다는 형태도 있다. 둘째는 충북 내륙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보고된 것이다. 한지와 질그릇 단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조상단지나 조상오가리를 한지와 함께 모시기 때문에 한지+단지 복합형이라고 한다. 셋째는 전라도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보고한 것이다. 질그릇 단지에 쌀이나 벼를 넣어서 모시는 이른바 단지형이다. 넷째는 영동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보고한 것이다. 한지를 사각형으로 접어서 매다는 또 다른 한지형이다. 그러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중첩되거나 달리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고 다른 지역들 간에도 유사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지역 특색을 보이고 있다.

한지로 된 성주 가운데 불교적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체는 소청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윗목 천장에 걸어두는 형태이다. 주머니 위에 한지로 만든 고깔을 씌우는 것이 이러한 대상이 된다. 제석은 불교적인 신이기 때문에 이 고깔은 스님의 고깔을 상징한다. 주머니 안에는 처음 수확한 벼나 쌀을 넣는다. 소청 주머니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고깔은 가을에 고사를 지낼 때마다 갈아준다. 먼저 쓰던 고깔은 앞마당에서 손 없는 방향을 향해 소각한다. 주머니가 낡아 구멍이 났을 경우에는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는 고사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낡은 주머니는 '깨끗한 것(신성하다는 뜻)'이므로 행주로도 사용하고 태우기도 한다. 주머니가 훼손되지 않고 때가 묻어 더러워진 경우에는 고사 사흘 전에 안에 들어있는 쌀을 비워내고 깨끗이 빨아 둔다. 이밖에 50~60㎝의 단지에 그해의 햅쌀이나 보리를 넣고 나무나 옹기 뚜껑으로 덮은 형태에서 한지가 속 덮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 뚜껑 위에는 성주물그릇이라는 작은 종지를 놓고 정화수를 떠서 넣기도 한다.

내용 성주의 봉안은 어느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집을 새로 지어 입주를 하는 경우, 이사를 가서 새로운 성주신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대주의 나이가 7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해에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37세, 47세, 57세 등 7의 수가 들어가는 해 10월에 날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성주신앙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북 안동은 〈성주풀이〉에서 직접 거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성주신앙의 근본 또는 성주의 본향이라고 말해진다. 한지를 포함하여 성주가 봉안되고 신앙되는 내용들을 보면 첫째 가정에서 모시는 신의 하나로서 가신 가운데 으뜸신이다. 둘째 집의 건물을 수호하고 집안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한다고 믿었다. 셋째 상량신(上樑神), 성조(成造), 성주대신이라고도 한다. 넷째 주로 대들보 밑이나 상기둥의 윗부분에 있다고 믿었다. 다섯째 신체는 한지를 접어서 실타래로 만들어 대들보 밑이나 상기둥의 윗부분에 붙였다. 같은 자리에 한지를 막걸리로 축여서 반구형(半球形)으로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직사각형의 한지를 실타래 외에 띠풀로 묶어 두기도 하였다. 여섯째 이 신체와 함께 대청마루 한 쪽에는 성줏단지나 성주독을 놓기도 하고, 성줏단지나 성주독만을 신체로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한지로 만든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상숭배는 가정신앙과 무속에서 볼 수 있다. 가정신앙에서의 조상숭배는 가신의 하나로 조상신을 모시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조상신은 안방의 윗목에 위치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제석오가리(전남), 조상단지(전북 · 경남), 세존단지(경북), 제석주머니(서울 · 경기), 조상님(충남) 등 여러 명칭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단지 · 항아리 외에 주머니와 한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 모신다. 단지나 주머니 안에는 쌀을 넣어두었다가 매년 가을에 신곡(新穀)이 나면 햅쌀로 바꿔 넣는다.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끼리만 나눠 먹고 남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단지 안에 있는 쌀의 양이 늘어나면 풍년이 들고 집안이 잘되지만 양이 줄거나 색이 변하면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조상신을 정성껏 모신다. 주머니로 만든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은 유사하다.

지역사례 성주의 신체를 한지로 하는 경우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특히 경기도와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경북 안동시 송천동의 경우 '불줄'이라는 가신을 섬기고 있다. 불줄은 '불교를 의미한다'라고 한다. 그 자리는 성주의 맞은편 벽에 한지 신체 형태로 모셔진다. 한지로 만든 주머니에 쌀을 담아 실로 잡아맨 것을 여러 개 벽에 걸어놓는 것이 그것이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이처럼 불줄을 모시는 것이다. 성주 등 여타 가신과 마찬가지로 명절에 간단히 의례를 올리고, 햇과일이 나면 밥을 지어 수지를 올린다.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도 간단히 불공을 올린다. 제의 주관은 삼신, 용단지 등과 마찬가지로 주부가 행한다.

영주시 풍기읍 금계2리 강신배(1938년생) 씨 댁의 경우 '조상 마우리'라 하여 고리짝에 무명 한 필씩을 넣어 두었다. 해마다 무명을 갈아 넣고 전에 담은 무명으로 옷을 해 입다가 무명 대신 한지를 넣는다. 그나마 근자에 들어서는 무명옷을 입지 않아 옷감 자체가 희귀하게 됨으로써 오래 묵은 무명천과 근래에 넣은 한지가 함께 담겨있다. 이 댁에서는 가신제도 유교 제례형식에 준하지만 성주제의와 마찬가지로 축문을 읽지 않고 "조상 마울님 소지올시다."라며 소지를 올림으로써 제의를 행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제석오가리를 '몸오가리'라고 호명하는 지역이 있다. 여기에도 쌀이나 한지를 넣거나 조상의 이름을 써 넣는 경우가 나타난다. 오지그릇이 귀한 곳에서는 뚜껑이 있는 대바구니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부루단지 또는 조상단지라고도 불리는 제석오가리는 질그릇으로 신체를 삼는 경우이다. 신줏단지라고도 불리는 몸오가리의 제사는 주로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에 모셨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술과 고기를 놓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 대신 음식을 바치고 나서는 농사가 잘되고 집안이 무고하며 자손들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성주신이 대성주, 무성주, 떡성주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대성주는 대나무에 성주의 신위를 한지로 오려 만들어 대청의 대들보 등지에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무성주는 한지로 만든 종이봉투에 대주의 나이만큼 동전이나 쌀 등을 넣어서 안방 출입문 위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떡성주는 한지를 막걸리에 적셔 덩어리처럼 만들어 문 위에 붙이는 방법이다. 모두 한지를 사용하여 신체를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접은 한지의 허리 부분을 실로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 성주신으로 삼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성주신을 모신 자리의 천장에만 숨을 쉬시라고 구멍을 뚫어놓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다. 전남지역은 단지에 쌀이나 조상의 이름 등을 봉안하는 형태이다. 가족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성주신에게 먼저 상을 올린 뒤 어른부터 아이에게까지 내려가는 상물림 풍습이 있었다. 함평지역에서는 일 년 동안 봉안한 성주쌀을 음력 칠월에 식구끼리 먹었다는 사례도 있다. 집안에 유고가 있으면 먹지 않고 내다 팔기도 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성주쌀에 좀이 슬거나 썩으면 집안에 좋지 않다 여겨서 먹지 않고 몰래 장에 내다 팔았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술에 백지를 넣어뒀다가 종이가 녹으면서 생긴 하얀 풀을 천장에 붙여놓은 '성주풀'을 모시기도 한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민속문화가 외래문화를 만나다, 실천민속학회, 집문당, 2003), **가정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백제의 제석신앙고**(홍윤식, 마한, 백제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송천동의 가신신앙과 세시풍속**(김명자, 안동문화 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8), **용인지역의 가신신앙**(민병근, 인문사회과학연구 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풍기의 민속종교와 신앙생활**(김명자, 민속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한국민속대관 3**(김태곤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대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3).

필자 **이윤선(李允先)**

해물리기

표제어 객귀물리기(29쪽)

햇곡식갈기

상호참조 수지(345쪽)

정의 가정신(家庭神)으로 섬겨지는 성줏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시준단지, 용단지 등에 담겨있는 나락이나 쌀을 햇곡식으로 갈아 주는 의식. 늦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나락이나 쌀 등이 이용된다. 햇곡식으로 갈아주면서 가정신에 대한 제의가 함께 실행되기도 한다.

역사 햇곡식을 추수하여 하늘에 바치는 제의는 고대 국중대회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신의 풍속과 조상신 또는 직능신에 대한 제의로서 햇곡식을 천신하는 민속은 우리 민족의 제의 전통이 다변화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마을과 가정 단위까지 성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강남농법(이앙법)이 도입되면서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벼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신에 대한 햇곡식갈기 풍속은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사라졌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내용 햇곡식갈기는 가을에 햇곡식을 수확하면 좋은 날을 받아 가신단지 안에 봉안해 놓은 곡식을 갈아주는 의식이다. 지역에 따라 '제미하기', '첫미하기', '초미하기', '제미밥 올리기', '성주단지갈기', '재미고사' 등의 용례가 나타난다.

용어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쌀을 갈아 주는 의미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용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해안 일대 마을에 나타나는 '재미고사'의 사례이다. 가정신앙의 재미와 공동체신앙의 재미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동해안지역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성주를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특정한 날을 가리지 않고 추수한 첫곡식(수지)으로 갈아 주기도 하고, 정해진 날(추석, 중구, 시월상달)이나 택일을 해서 정성스럽게 햇곡식을 갈아 주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9일 또는 10일 등 손 없는 날이나 소날(丑日) 또는 말날(午日)을 택일해 곡식을 갈아준다. 보리농사가 성행하던 시기에는 봄보리를 처음 수확했을 때 햇보리로 갈아주는 지역도 있었다. 햇곡식으로 갈아주는 가정신앙 신체로는 성줏단지, 성주섬, 성주부루, 조상단지, 부루단지, 시준(시주, 세존)단지, 용단지, 삼신단지 등이 있다.

살림이 풍요롭지 못하던 시절에는 가신단지에 담긴 곡식이 최후의 생명줄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 때 가신단지의 곡식을 꺼내어 먹고 다음번 햇곡식이 날 때 넣어 주는 형태이다. 이러한 비상식량 역할을 하는 가신단지의 곡식에는 민초들의 지혜가 담긴 속신이 자리하고 있다. '가신단지의 곡식은 가족들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인 가신단지의 곡식을 해당 가정의 가족들만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문화적 장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햇곡식을 갈아 주기 전날부터 금줄을 치기도 하고 목욕재계를 하기도 한다. 햇곡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날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으면 이듬해로 넘기기도 한다. 가신단지의 쌀을 교체하고 사흘 동안에는 설령 외지에 사는 며느리나 딸이 출산했다 해도 출산부정을 탄다 하여 찾아보지 않는 등 다양한 금기가 지켜지고 있다. 가신단지에 담긴 묵은쌀의 형태로 길흉을 점쳐 보기도 한다. 이때 단지 안의 쌀이 깨끗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쌀이 변질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우환이 생긴다고 믿는다. 단지 안의 쌀이 깨끗하지 못하면 음복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 버린다.

햇곡식으로 갈아줄 때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간단한 비손이나 비나리를 하는 형태부터 무당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굿을 행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특이한 사실은 대체로 곡식을 갈아 주며 제의를 올릴 때에는 고기나 생선과 같은 비린 음식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물은 대체로 메, 갱, 나물, 삼색실과 등이 중심을 이룬다. 지역이나 신체에 따라 조기, 북엇국, 미역국 등을 올리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의 고복순(1911년생) 씨



햇곡식갈기(성줏단지)
목포 영산호 박물관
이전 개관 전시자료
국립민속박물관

는 용단지를 두 위 모신다. 마루나 다락 위에 안용을 모시고 거기에는 해마다 음력 10월 추수를 하면 수지 쌀을 넣는다. 꺼칠용은 부엌의 어두컴컴하고 어설픈 곳에 놓는다. 이 안에는 꺾곡(겉보리 나락)을 넣는다. 안팎의 용신이 협력하여 집안에 복을 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믿는다.

구미시에서는 일 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가신에게 올린다. 성줏단지에 쌀을 넣거나 '성주섬'이라 하여 가마니에 나락을 넣어 마루에 놔둔다. 그런 다음 삼신바가지와 용단지에도 쌀을 넣는다. 이때 음식은 준비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원도 하지 않는다. 용단지는 용신으로서 집안을 평안하고 잘되게 하며, 특히 재물신 역할을 한다. 신체는 대개 단지이며, 신체명과 신명이 혼용된다. 단지 안에는 주로 쌀을 넣는다. 용단지는 주로 장고방이나 부엌에 모신다. 가정에 따라서는 별도의 신체 없이 나락뒤주에 좌정해 있다고 여긴다. 곡식이 떨어지면 용단지의 쌀을 헐어서 먹고, 시월상달에 추수하면 햇곡식을 넣는다. 동지에 팥죽을 끓여 양푼에 담아 용단지 앞이나 나락뒤주에 갖다 놓는다.

고아읍에서는 여름이 되면 밥을 할 쌀이 없어서 손 없는 날을 택해 단지 안의 쌀을 조금만 남기고 덜어내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다. 그때 "삼신할매, 쌀이 없어서 내라 먹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한다. 덜어낸 쌀은 보리 위에 얹어 밥을 하여 가족끼리만 먹는다. 10월에 추수를 하면 가장 먼저 삼신바가지와 성줏단지에 쌀을 넣는다. 쌀을 갈 때는 "쌀을 넣습니다." 하고 고하고, 절을 한 번 한다.

선산읍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오보살 집에서는 음력 9월에 햇곡식을 수확하면 가신단지의 곡식을 갈아준다. 날짜는 주로 9월 29일이나 30일을 택한다. 성주와 부귀할머니, 세존할머니, 금성님은 쌀을, 천신대감에는 나락을 갈아준다. 묵은 쌀은 밥을 해서 먹는다.

고령군 쌍림면에서는 10월 손 없는 날에 햅쌀로 단지 안의 쌀을 갈아준다. 보통 아흐레나 열흘에 해당하는 날이다. 단지 안의 묵은쌀은 식구끼리 밥을 해먹는다. 이때 고기나 생선과 같은 비린 반찬은 올리지 않는다. 개진면에서는 가정에 따라 보리가 날 때에 보리로 채웠다가 가을에 나락으로 채웠다고도 한다. 덕곡면 후암리의 김오분 씨 댁에서는 '시주할매단지'를 모신다. 이 단지는 시집왔을 때부터 모시던 것이며, 예전 그대로 모시고 있다. 단지에는 봄에 보리쌀을 넣었다가 가을에 햅쌀로 갈아 준다. 그러나 지금은 보리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햅쌀로 갈아줄 뿐이다. 추수를 하면 시주할매단지의 쌀을 먼저 따로 두었다가 갈아 준다. 단지 안의 묵은쌀은 밥을 해서 식구끼리만 먹는다. 이때 육고기나 물고기와 같이 비린 반찬은 하지 않고, 김치, 나물, 된장으로 찬을 해서 먹는다.

영덕군 영해면에서는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손이 없는 날을 받고, 아침이나 저녁에 사람의 기척이 드문 시간을 골라 단지 안의 쌀을 교체한다. 이때 묵은쌀로 밥을 짓고 물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대추, 밤 등 제물을 차려 두고 집안이 잘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비손한다. 남정면 양성리에서는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논으로 가서 가장 먼저 벼를 훑어 남들이 보지 않는 깨끗한 곳에 널어서 말려 두었다가 디딜방아를 찧는다. 손이 없는 날, 주로 9일이나 10일 남이 안 보는 시간에 재미를 한다. 재미를 할 때는 시준단지에 넣어둔 쌀을 꺼내어 밥을 하고 나물, 채소, 과일, 술 등을 모두 마련한다. 그러고 나서 햇곡식을 단지에 넣는다. 이때 묵은쌀로 지은 밥을 조상에게 떠 둔다. 경우에 따라 햇곡식을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한다.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시준단지 안의 곡식을 먹기가 수월한 데 반해 식구

가 없는 가정에서는 단지의 쌀을 한꺼번에 먹지를 못해서 보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재미를 할 때는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며,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다. 한 주민은 이를 가리켜 '정성이 말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재미를 할 때는 "최씨 터전에 김씨 가문. 이 가문에 이 터전에 불도 밝고 물도 맑고 복은 이 집으로 오도록 해 주고 나갈 때는 빈 짐 지고 들어올 때는 온 짐 지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남의 구설을 듣지 마라."라고 빈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서는 시준단지의 쌀을 갈아 주는 것을 '제미한다'라고 한다. 손이 없는 좋은 날을 택하는데, 8월 그믐이나 9월 또는 10월에 한다. 의례를 행하는 날 아침에는 대문 앞에 '경구(금줄)'를 치고 호박잎이나 솔잎을 꽂아 두어 부정한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가을에 벼가 익으면 한 줌 베어 와서 훑고 솥에 쪄서 말린 다음 찧어서 큰방에 있는 시준단지의 쌀을 갈아준다. 비가 와서 쌀을 말리지 못하면 솥에 볶아서 단지에 갈아 넣는다. 남은 쌀로는 밥과 나무새(나물) 등을 장만하여 정제(부엌)의 조왕, 방의 시준, 마루의 성주 순서로 빈다. 이때 마당에도 한 상 차려 놓는다. 제물은 밥, 과일(밤, 대추, 감), 나무새, 북어, 북어탕, 조기 등으로 정제에서는 솥에서 밥도 푸지 않고 솥뚜껑만 열어 놓은 채 위하며, 제물도 부뚜막 위에 올려놓는다. 반면에 방과 마루에서는 밥을 퍼서 상에다 제물을 차린다. 북어는 한 마리를 계속해서 조왕, 시준, 성주, 마당에 놓는다. 제물을 차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집도 다 재수 있게 해 달라."라고 비손한다. 제보자의 표현을 빌리면 "웃대 웃대, 제일 우의 할매, 할배에게 영감과 아들 모두 재수 있게 해 달라."라고 비는 것이다. 조왕, 시준, 성주 앞에서 모두 똑같이 빈다. 대문 앞을 보고 마당에도 한 상 차려놓고 마찬가지로 빈다. 그런 다음 물바가지에 밥, 나물, 과일 등을 조금씩 넣고 북어대가리도 떼어 넣은 후 골목에 나가 손 없는 방향에 버린다. 이렇게 제미를 하면 이웃의 일가에게 "우리 집에서 제미했으니, 밥 먹으러 오라."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는 추수를 하고 나면 '제미밥'을 올린다. 첫 나락이 여물면 나락을 베어 홀태로 훑어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 가정신에게 바친다. 쌀 한 되나 두 되 정도로 밥을 하고 나물, 조기자반, 탕국을 함께 만들어서 조왕에 빈다. 빌고 나면 방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주와 조상에게도 빌었다. 거제시 둔덕면에서는 음력 10월이 되면 성주와 조상께 고사를 지낸다. 이를 '첫미하기' 또는 '초미하기'라고 한다. 햇곡식이 나면 적당한 날을 잡아서 상을 차린다. 상은 아침에 햅쌀로 지은 밥과 나물 정도로 간략하게 차린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첫곡식이 나왔으니 성주와 조상님이 첫 맛을 보시라는 의미이다.

합천군 적중면에서는 손 없는 날이나 소날(丑日) 또는 말날(午日)을 택일해 가신단지의 쌀을 갈아 준다. 소날을 택하는 것은 소가 시주이기 때문인데, 시주는 조상을 말한다. 때문에 꿈에 소가 보이는 것은 조상이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세존단지 안의 쌀을 갈아 넣는 의례를 이 마을에서는 '재미한다'라고 칭한다. 김하자 씨 댁의 경우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지금까지 모셔오고 있다. 이 댁에서는 매년 10월 손 없는 날을 택해 쌀을 교체한다. 쌀을 갈아 넣는 날 아침 일찍 목욕재계를 한 후 정갈한 옷으로 갈아 입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햅쌀로 지은)밥, 나물, 정화수이다. 이때 비린 음식이나 육류와 술은 쓰지 않는다. 제물을 준비한 후에는 세존단지를 내려서 묵은쌀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햅쌀로 갈아 넣는다. 햅쌀을 넣은 뒤에는 한지로 덮고 무명실이나 한지를 꼬아 만든 끈으로 테두리를 묶은 다음 뚜껑을 덮어 봉한다. 세존단지의 쌀을 교체한 뒤에는 미리 장만한 제물을 진설하고 촛불을 밝힌 뒤 안과태평과 자손들의 운수대통을 기원하며 비손한다. 비손이 끝나면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때에 따라서는 소지를 한 장만 올리기도 한다.) 단지 안의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식구끼리만 음복한다. 이때 비린 반찬이나 육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 세존단지의 쌀을 교체하고자 하는 날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출산이 있으면 재미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 세존단지의 쌀을 교체하고 3일 동안에는 설령 외지에 사는 며느리나 딸이 출산했다 해도 출산부정을 탄다 하여 찾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김하자 씨는 세존단지 안에 있는 묵은 쌀의 형태로 길흉을 점쳐 보기도 한다. 단지 안의 쌀이 깨끗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쌀이 변질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우환이 생긴다고 한다. 단지 안의 쌀이 깨끗하지 못하면, 음복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 버린다.

참고문헌 성주단지갈기(김진순,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 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남 · 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조정현(曺鼎鉉)

허궁

표제어 건궁(36쪽)

허재비

표제어 제웅(580쪽)

헌식

표제어 고수레(45쪽)

호구신(戶口神)

정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신. 일반적으로 돌림병인 천연두신을 지칭한다. 예전에 중요한 질병으로 취급된 천연두는 두신, 호구별성, 마마, 호구마마, 손님마누라, 서신국마누라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호구신은 한자말로 된 것으로, 호구단자와 관련이 깊다. 예전에는 호구신에 대하여 '호적 차지 물고 차지 장적 차지'라거나 '인물추심 가구적간'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는 돌림병을 담당하는 호구신이 마을의 모든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추정된다. 호구별성은 호구신이 별도의 임무를 띤 객성(客星)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거둥할 때 사신이 와서 알리는 절차를 별성행차라고 한다. 이에 유래하여 마마배송을 할 때 황토를 배설하고 보내는 절차를 별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별성이나 객성이나 우리말로 보면 모두 '손님'이다. 두신은 병명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마마는 여성을 지극히 높이는 말인데, 마누라와 상통하는 것으로 신을 높이는 말이다. 호구신을 여성으로 관념하는 듯하지만 일부 본풀이에서 이에 어긋나기도 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호구마마 역시 같은 용례이다. 서신국마누라는 제주도지역의 용례이다. 서신국마누라는 잘 해명되지 않았다. 서쪽에서 유래한 신으로 판단하여 서신이라고 하였으며, 이 용어가 남아서 제주도지역에서 서신국마누라라고 하는 것이다.

호구신은 돌림병을 유발하는 신이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일으키는 신으로 여겨진다. 호구신이 머물다 가면 주위의 모든 곳에 삽시간에 병이 퍼지기 때문에 가장 무섭게 여기던 질병을 담당하는 신으로 관념된다. 이 신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 신의 면모와 명칭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 질병을 물리치는 일정한 의례가 집안의 풍습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것이 호구역살풀이 또는 마마배송굿 등이다. 현재 우두법의 발달로 천연두가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여서 호구신 신격은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역사 호구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를 질병의 원천으로 감지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오래되지 않았다. 호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신앙과 질병의 구현에 일치점을 보여주는 것에 기인한다.

이 신의 내력은 이규경(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57의 「질병-두역유신변증설(疾病-痘疫有神辨證說), 인사편/인사류(人事篇/人事類)」에 상세하게 전한다.

> 우리 동방에서는 천연두의 신을 호귀마마(胡鬼媽媽) 또는 손님, 영남에서는 서신(西神)이라고 한다.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면 깨끗한 소반에 정화수 한 사발을 놓고 매일 솥으로 지은 밥과 시루떡을 바치면서 기도를 한다. 천연두가 끝나면 종이로 만든 깃발, 싸리나무로 만든 말 등 신에게 드릴 물건을 모두 실어 신을 전송한다. 이를 배송(拜送)이라고 한다. 천연두를 앓기 시작할 때는 꺼리는 일이 많고, 부모가 합방하는 것도 금한다. 천연두를 앓는 아이에게 다른 질병이 있으면 신이 원인이 되었다거나 영

험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세간에서는 노봉(老峯) 민상공(閔相公)이 천연두를 맡은 신이 되었다고 나돈다. 이는 황당한 말이다. 또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려 하면 부모는 꿈에서 귀인(貴人)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이에게는 반드시 부스럼이 돋는다고들 말한다.

我東則痘神 曰胡鬼媽媽 又稱客至 嶺南稱西神 兒痘則取淨盤 設井華水一碗 每日鐺飯甑餠以供禱焉 及經痘終 盛其紙幡、杻馬、捆載享神之物以餞之 名曰拜送其始疫時多拘忌 一切事爲竝寢閣 如或痘兒有他疾痛以爲神祟 或有靈驗 俗傳老峯閔相公爲司痘之神 其說怳惚 且兒將患痘時 其爺孃夢見貴人臨家 則兒必發痘云

이 글은 천연두를 모두 두렵게 여기고 있고, 이 질병과 관련한 신격 명칭 및 의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간어원설의 내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에서 이루어진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호구신이 어떻게 신의 관념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규경의 기록은 호구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전거가 된다. 천연두에 대한 기록은 이규경의 기록 이전에도 많이 보이지만 가장 분명한 어원과 용례를 보여주는 점에서 다른 기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무당내력(巫黨來歷)』에는 호구신에 대한 무당의 관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는 호구거리(戶口巨里)의 그림과 함께 "천연두신을 호구라고 이른다. 가정에서 홍역을 치르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치성 드릴 때 순전한 천연두의 앓기를 빈다. 근일에 (호구신이) 최장군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는 극심한 망발이다(天然痘神 謂之戶口 家有未疫兒致誠時祝其順痘 近日謂之崔將軍女云 妄發極矣)."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대 문헌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두신에 대한 내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정확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이다. 두신의 항목을 따로 두고서 자세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능화가 말한다. 우리 조선에 천연두가 있게 된 시원을 살펴보면 4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전염되어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몇 천만의 인명이 희생되었는지 알 수 없다. 조선에는 인구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내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천연두로 말미암은 사망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천연두로 말미암아 인구가 늘지 않고 줄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천연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종합하여 보면 천연두의 근원은 마원이 교자를 정벌할 때 그 군대가 이 병에 전염된 데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국 본토에까지 유포되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염되었다. ……

우리 조선에서는 천연두가 한 해 걸러서 혹은 해마다 잇달아 발생하고 퍼져 인명을 해친다. 처음 천연두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붉은 자국에 흰 물집이 잡히며 붉은 부스럼이 일어나고 고름이 배어나오면서 부스럼이 줄어들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각각 사흘이 걸리므로 모두 10여 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이 나간다. 천연두가 유행하면 세상에서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도와 축원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한다. 어린아이에게 천연두가 발병한 날에는 즉시 종이로 기를 만들어 '강남호구별성사명기(江南戶口別星使命旗)'라고 써서 문짝 위에 걸어놓으며, 천연두의 딱지가 완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무당을 불러서 신을 강남으로 보내는 마마배송굿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강남이라는 무당의 말은 중국을 의미하므로, 천연두신이 중국에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호구는 천연두신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연두를 전염시키는 현상에서 유래한 말이다. 별성은 사명을 띤 특별한 객성을 말한다. 세속에서는 천연두신을 손님이라고 한다. 이것을 번역하면 객성이다. 별성의 뜻풀이는 『목민심서』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 이르기를 임금이 행차하는 길 가운데 황토를 까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태양의 황도를 본뜬 것이라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금의 명령을 받든 사신이 고을에 들어올 때면 특별한 황토 한 삼태기를 길 양쪽 가에 뿌린다. 이 역시 오리정에서부터 관사까지만 그렇게 한다. 무당이 천연두신을 보낼 때도 이 방법을 썼으므로 그 이름을 별성이라 한다."

또 우리 속어에 천연두신을 역신마마라고 한다. 마마는 낭낭(娘娘)을 이르는 말이다. 또 사명은 천연두신이 사람의 생명을 맡았다는 의미이다. 신을 보내는 의식에서는 말과 마부로 신이 탈 것을 갖추며, 기타의 의장(儀仗)은 벼슬아치들이 외출할 때와 같이한다. 말이 없으면 짚으로 만든 말로 대신하였다. 무당이 창부타령을 부르면 구경꾼들이 담처럼 에둘러 섰다가 돈을 앞다투어 던져 상급을 주었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는 대부분 무당을 부르지 못해 제문을 지어 마마배송을 했다. 천연두신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여러 가지 기록에 자세하게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의 풍속에서 천연두를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李能和曰 我朝鮮之有天然痘 考其始原 則大約距今四百餘年前 自支那方面 傳染而來 不知其千萬人命爲其犧牲朝鮮舊無人口死生統計之法規 故因痘病死者無從可稽雖然 人口由是而不增有減 應亦事實也 蓋此痘疫 綜合諸說 其痘源之皆以馬援征交趾時 其軍隊傳染此病 仍爲流布於支那本部 而又自支那 傳染朝鮮也 …… 我朝鮮自有痘疫 或間世 或連年 發生流行 傷害人命 蓋始染天痘 自始痛至發瘢 起瘡 貫膿 收痘 落痂計各三日 須十餘日 方得出場 天痘之行 俗甚恐怖 以爲有神 供奉祈祝 無所不至 兒痘發生之日 卽造紙旗 書曰 '江南戶口別星使命旗' 懸于門肩之上 待落痂畢 招巫送神 其云江南者 蓋巫語謂支那曰江南 則此謂痘神 自支那以來也 其云戶口者 謂痘神逐戶逐口 不遺一人 進行染痘也 其云別星者謂帶使命之特別客星也 俗云痘神曰 '손님' (Son Nim) 譯卽客星也 別星之義見于牧民心書 茶山筆談曰 御路之脊 鋪以黃土 未詳其所始 或云象太陽黃道 未知然否 奉命使臣 入郡縣 另以黃土一番 瀉于兩旁 亦自五里亭抵官舍而已 巫送痘鬼 亦用此法 以其名別星也云云者是也 又我俗語 謂痘神曰疫神媽媽 媽媽者娘娘之謂也 其曰使命者 謂痘神司理人之生命也 其送神之儀 用馬及馬夫以備神乘 其他儀仗 一如官燥出行之時 無馬則代以芻馬 巫爲倡夫之歌 則觀者如堵 爭投金錢以償之 貧紳寒士之家 多不用巫而作祭文以送神 詳見下諸記錄 可知我俗畏痘之事也

이능화는 천연두의 신격과 어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보여준다. 호구신을 정밀하게 지적하고 자신의 식견으로 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호구신의 정의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당을 초치(招致)해서 이를 물리치는 마마배송굿을 한 용례 역시 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질병은 조선에 400여 년 전 유래한 것이라고 했으며, 마원이라는 장수가 교지를 정벌하면서 중국에 전염시켰고 나중에 조선에 들어왔다고 추정한다. 서역에서 유래되었음을 말한다.

신앙 관점에서도 천연두의 면모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천연두가 발생하고 물러나는 과정이 통상 10여 일이 걸린다고 함으로써 이 과정을 보여주는 무가의 구전 현상과 견주어도 그다지 틀리지 않는 정확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능화는 다른 문면에서 천연두신의 사실적인 해명에도 주력하면서 문헌에 대한 비정(批正)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천연두신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내용 마마배송을 위한 절차가 있다.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면 깨끗한 소반에 정화수 한 사발을 놓고 노구메를 지어 바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다 천연두가 낫게 될 때쯤 종이로 만든 깃발과 싸리나무로 만든 말 등을 비롯하여 신에게 드리는 물건을 실어서 신을 전송한다. 이를 마마배송이라고 한다. 처음 천연두를 앓기 시작할 때에는 모든 일을 두려움 속에서 피하고 부모가 합방하는 것도 조심하였다. 천연두를 앓는 아이에게 다른 질병이 생기면 신의 꾸짖음이거나 영험함으로 간주하였다. 마마배송굿을 하기도 하고, 농악대가 예방굿을 하기도 했다. 절걸립패나 화청을 치는 패들도 이러한 호구역살풀이와 노정기 등을 해서 천연두를 예방하고자 했다.

호구신을 모시는 청배무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손님신이 와서 머물다 가는 절차를 노정기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무가는 일정한 본풀이가 없으며 일련의 교술무가의 성격만이 있다. 특히 천연두를 앓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구비공식구를 통해 천연두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전통시대에 의사를 대신하던 무당의 굿과 사제자의 기능을 알 수 있다. 호구신을 떠돌이로 규정하였으며, 호구신을 보내는 과정을 노정기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경기도 남부지역에서는 화랭이들이 이를 확대해 〈손님노정기〉의 공연 형태로 바꾸었다.

동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는 이를 본풀이로 발전시켰다. 마마와 홍역을 앓게 하는 손님신을 모시는 절차이다. 전통적으로 질병을 두려워한 가장 적절한 본보기의 굿이 손님굿이다. 여러 손님네를 잘 모셔야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고장에서도 마마배송굿을 하는데 그와 성격이 상통한다. 지모는 손대를

들고 갓을 쓰고 굿을 한다. 이때 서사무가인 〈손님본풀이〉를 한다. 손님을 잘 대접한 노구할매는 복을 받고 구박한 김장자는 외동아들을 마마로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손님본풀이〉와 관련되는 손님놀이가 곧 말놀이이다. 이는 손님신이 말과 마부를 불러내 대원국으로 가는 대목에서 하는 절차이다.

제주도지역에서는 이러한 본풀이를 〈서신국마누라본풀이〉라고 달리 지칭한다. 이 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삼승할망이 급히 해산을 시키고자 서천강 다리에 가다가 마마신인 대별상의 행차와 만난다. 대별상은 위의를 차리고 인물도감책을 들고 만민자손에게 마마를 시키려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삼승할망은 길을 비켜서 공손히 꿇어 앉아 생불할 자손에게 고운 얼굴로 '호명(천연두) 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대별상은 무섭게 삼각수를 거느리고 사내대장부의 길을 여성이라는 '사물'이 가로막는다고 꾸짖는다. 삼승할망은 분을 참고 있으나 교만한 대별상은 삼승할망의 자손에게 혹독한 호명을 잃게 하여 얼굴을 뒤웅박으로 만든다. 삼승할망은 생불꽃 하나를 가지고 대별상 부인인 서신국마누라를 잉태시킨다. 서신국마누라는 열두 달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자 사경을 헤매게 된다. 서신국마누라가 남편인 대별상에게 삼승할망에게 빌어 보라고 사정을 한다. 대별상은 사내대장부로서 어찌 여성을 청할 수 있겠는가 고민했으나 도리 없이 청하게 된다. 대별상은 흰 망건, 흰 도포, 마부 등을 갖추어서 삼승할망을 찾아가 빌었으나 삼승할망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삼승할망은 대별상에게 머리 깎고 굴송낙, 굴장삼, 맨보선 바랑으로 와서 댓돌 아래에서 빌라고 한다. 대별상은 고깔, 장삼, 버선 등으로 꾸미고 와서 댓돌 아래 엎드린다. 삼승할망은 준절하게 나무라고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를 놓으라고 한다. 삼승할망은 서천강의 명주 다리를 건너서 대별상의 집으로 행차한다. 서신국마누라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나 삼승할망이 허리를 두어 번 쓸어내려서 자궁문이 열리고 해산하게 된다. 오늘날 불도맞이를 할 때에 무명이나 광목을 깔아 놓고 다리라 하여 신을 청하게 된다.

제주도지역에서는 비교적 신격의 명칭이 고유한데 여기서는 비교적 원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별상은 별성신을 크게 부르는 것이고, 여성신은 서신국마누라라고 하여 이 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명칭에서 원래의 신명이 드러나 있어 이를 통해 주변부의 자료가 오히려 전통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동해안 본풀이와는 다른 구조이지만 동일한 관념으로 마마배송굿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박한 관념에서 출발하여 무당들이 의례로 만들면서 복잡하게 된 사정이 여기에 있다. 마마배송과 같은 소박한 치성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굿이라는 점에서 이 호구신의 모시는 절차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일반 집안에서 하는 마마배송과 굿에서의 호구굿은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징 호구신인 천연두를 물리쳐서 배송하는 무가를 보면 의학적 지식을 겸하고 있는 대목을 만날 수 있다. "하루 이틀 머리 앓려/ 사흘 나흘 보람주어/ 닷새 엿새 솟을 시루/ 이레 여드레 부루시루/ 아흐레 열흘 검은 시루 받으실 때/ 영검 자취 이러하고 그염 자취 이러하니 손님이 없을소냐" 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천연두를 앓을 때의 과정이 비교적 명료하다.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머리가 아프고 신열이 생겨난다. 사나흘에 이르게 되면 하얗게 물집이 잡혀서 나온다. 이를 보람 주었다고 한다. 보람이라는 말은 무속에서 '보람 자취'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신의 영험함을 나타내는 말, 일종의 수포로 추정된다. 대엿새에 이르게 되면 하얗게 농포가 생기는데 '솟을 시루'란 이를 말하는 듯하다. 이레, 여드레는 자주색으로 변함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아흐레, 열흘에는 검은 딱지가 앉아서 떨어지게 되는 과정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가의 특징은 열흘 동안 앓는 일련의 과정을 선명하게 집약하고, 이를 통해 신이 무사하게 물러날 수 있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신을 섬기는 일은 현상적으로 가시적이지 않지만 신이 보여주는 영험과 자취는 가시적으로 확인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례 호구신의 지역적 사례는 현재의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호구신에 대한 지역적 사례를 일별한 것으로는 이능화의 언급이 있다. 천연두신을 호구마마라고 했다고 한다. 달리 별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능화의 관점에서 손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호구신과 별성신이 같은지 다른지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영남과 호남지방에서는 이를 서신이라고 하였다. 이 말이 타당하다면 서신국마누라라고 지칭하는 제주도의 사례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예전에는 전통적인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무당이나 민간의학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즉 호구신은 돌림병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학에서 내린 처방전에서 비롯된 관념이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남대국에서 밀려 왔기 때문에 이를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여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관점에서 이 신이 모셔졌다. 그러므로 이 신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정성을 모아 대접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이 신앙은 민간신앙, 민간의학이 만나는 접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호구신이 인간의 얼굴에 전좌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형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질병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호구신의 관념은 종교적으로도 긴요하고 민간의학의 역사에서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무당내력**(서대석 해제, 민속원, 2002), **五洲衍文長箋散稿**(이규경, 민족문화추진회, 1986),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 1927),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1988년 강릉단오제무가집**(김헌선, 보고사, 2009).

필자 **김헌선(金憲宣)**

호서낭

정의 인천시 강화도 일대에서 사람이나 소가 호환을 당한 이후에 해당 집에 모셔지는 신격. 호환을 당한 사람이 전화(轉化)된 경우와 호환을 당한 소가 전화된 경우가 있다.

형태 신체(神體)는 벙거지와 쾌자를 쓰며, 집 바깥이나 담 밖에 주저리에 넣어 봉안한다. 강화도 일대의 가정신앙에서 벙거지와 쾌자는 주로 대감의 신체, 주저리는 터주의 신체로 각각 쓰인다. 호서낭의 신체가 벙거지와 쾌자를 넣은 주저리라는 점에서 터줏대감의 성격과 상통하고, 안채와 떨어진 곳 특히 담 밖에 모셔진다는 점에서 여타의 신격과 거리를 둔다. 호서낭의 주저리는 갈아주지 않고 해마다 이엉을 엮어 덧씌우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주저리의 크기가 커진다.

내용 호서낭은 '호랑이'라는 외경의 대상이 개입된 신격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물론 무당까지도 무서워하고 다른 신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한다. 예컨대 외부에서 이바지가 들어왔거나 집안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는 반드시 호서낭에게 고하고 먹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고수레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 역시 호서낭을 두려워했고, '호서낭 있는 집' 자체를 무서워할 만큼 이 신격은 외경의 대상이다.

무당을 불러 가정신을 위한 굿을 할 때 호서낭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개를 희생물로 하고, 호서낭의 신체인 벙거지와 쾌자를 꺼내입고 놀린다. 이는 황해도 굿에서 보이는 호서낭굿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호랑이와 개(또는 들개)는 상극이며, 호환을 막기 위해 호랑이상을 세우는 전남 남원 광한루의 사례나 호랑이를 마을제의 대상으로 하는 마을(경기도 용문 구천제)에서 개를 희생물로 한다는 사실을 볼 때 호랑이와 개의 관계는 매우 일반적이다.

특징 강화도에 전승되는 호서낭은 네 가지 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첫째 호서낭을 모시는 집은 '부자'라는 인식이다. 이는 강화도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부자는 곧 호서낭을 모시는 집이라는 등가적 인식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둘째 강화도 일대에서 숭신되는 호서낭은 시집가는 여성을 따라가기도 한다. 시댁으로 따라간 친정의 호서낭은 시댁의 신격과 충돌하고 집안의 우환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시집간 딸이 앓아 굿을 했는데 친정에서 호서낭이 따라갔다."라는 무당의 공수를 받고 시집간 딸이 자발적으로 친정의 호서낭을 모셨다는 하점면 부근리의 사례가 대표적인 증거이다. 셋째 호서낭은 혼인과 관련하여 두려워하는 신격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호서

낭을 모시는 집의 딸이 시집을 가는 데 호서낭은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신랑집에서 호서낭이 있는 집의 여성을 신부로 맞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부집에서 딸을 시집보낼 때 호서낭이 신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리미에 불을 담아서 가는 예방 의례를 행한다. 넷째 외경의 대상인 호서낭을 특정 시점에서 섬기는 것을 단절시키기도 한다. 호환을 당한 집에서 손자를 얻었을 때에는 호서낭을 폐기한다. 이는 신격 자체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득손자'라는 계기를 삼아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강화도지역에서 호서낭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강화도 가정신앙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무당굿과의 관계, 특히 황해도 무속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 황해도의 호살량굿은 굿거리 중의 하나이다. 호환을 당한 사람의 영혼을 '호영산'이라고 하는데 호살량굿은 바로 이 호영산을 위한 굿거리이다. 실제로 호살량굿은 호환을 당한 영혼을 위무하는 동시에 미래에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 연행된다. 호살량은 암호랑이인 호영산마누라와 짝을 이루는 수컷을 이른다. 좀 더 분화된 호랑이 관념을 투영하여 굿거리에 구현했다는 뜻이다. 강화도의 호서낭에서는 이와 같은 자웅(雌雄)의 차별적 관념은 없다.

강화도의 호서낭을 황해도와의 관계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다. 호환을 당한 창귀(倀鬼)에 대한 관념과 이에 대한 특정 의례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고, 호랑이를 대상으로 하는 굿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산견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문산도당굿에서 연행되는 호영산호대감굿거리가 그렇고, 동해안의 경북 영덕군과 포항시 일대의 별신굿에서 연행되는 범굿이 그렇다. 이렇듯 호서낭은 무속의 한 신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의례는 생각보다 폭넓은 편이다.

의의 호환은 전통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 횡액(橫厄)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호랑이는 맹수 중 맹수이고, 관념상으로는 산신(山神) 또는 산신의 사자로서 인식된 양가적 동물이다. 호환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관념과 의례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호서낭의 발생과 숭신은 가정신앙적 측면에서 우연적인 일이 아니다. 호랑이가 멸종되다시피 한 현대에서 호서낭에 대한 신앙은 점차 소멸되고 있지만 전통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민속 관념이다.

참고문헌 **강화가정신앙의 대상과 유형**(윤동환, 강화가정신앙연구, 민속원, 2011), **강화의 가정신앙 1**(강화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인천지역무속 2**(이선주, 미문출판사, 198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 · 평남 · 평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의 굿-서울 · 경기 · 인천**(이선주, 민속원, 1996), **한국의 굿 1-강사리 범굿**(하효길 · 황효창, 열화당, 1989).

필자 **장장식(張長植)**

호식장(虎食葬)

정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남긴 유구(遺軀)를 거두어 장사(葬事)하는 의례.

내용 호랑이에 의한 호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신에 의한 운명적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팔자에 없으면 범에게 잡혀 가도 먹히지 않는다든가 눈썹이 길면 호환을 당할 운명이라든가 하는 속신도 있다. 산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앞뒤의 행렬 순서와 관계없이 호환의 피해를 당하며, 방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습격해도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호랑이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호환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호환을 당한 사람의 영혼은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 죽어서도 호랑이의 부림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된다. 이 창귀는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호랑이에게 바쳐야만 창귀의 신세를 면하고 보통의 귀신이 될 수 있다. 창귀는 서둘러 다른 사람을 호환의 대상으로 물색한다. 호랑이는 창귀가 선택한 사람을 물고 가지 않고 걷게 하여 앞세워서 죽일 장소로 인도해 간다. 호랑이는 사람의 팔다리와 몸통을 먼저 먹어 치우고 반드시 머리만 남긴다. 그리고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헤로 싹싹 핥아서 왼 가르마로 곱게 빗어 놓는다. 호환을 당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의 처리는 일반 사고에 의한 죽음과 달리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산악지역에서는 호식장(虎食葬)이란 독특한 장례 풍속이 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남긴 조각 시신을 유족들이 찾아서 집으로 데려 오지 않고 그 자리에 호식총(虎食塚)을 만든다. 화장을 하고 그 위에 돌무덤을 쌓은 다음 시루를 엎어 놓는다. 그 시루 구멍에는 물레의 가락을 꽂아 놓는 특이한 형태의 무덤인 호식총을 만든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서 먹는 곳을 호식터 또는 호남(虎噉)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 비해 태백산지역에는 호식총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 유지(遺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참고문헌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호식장**(김강산, 태백문화원, 1988).

필자 **천진기(千鎭基)**

홍수맥이

표제어 횡수막이(736쪽)

화재막이

정의 화재를 막기 위해 행해지는 가정신앙. 흔히 화재맥이라고도 한다. 비슷한 지역에 따라 화재뱅이, 불막이 등으로도 불린다. 물 또는 소금을 집 안 곳곳에 뿌리고, 부적을 붙이거나 종이옷 태우기를 통해 집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한다.

내용 화재막이는 불의 성질에 대응하는 물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뿌리고, 부적이나 종이옷 같은 상징물을 붙이거나 태워서 불로부터의 재앙을 막아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물의 성질을 지닌 물질로는 물 · 간수 · 막걸리 · 쌀뜨물과 소금 등을 사용하였다. 부적에는 '수(水)'자를 쓰거나 '수(水)'자가 '화(火)'자를 빙 둘러싸게 써서 아궁이 · 굴뚝 · 잿간과 같은 화기(火氣)가 인접한 곳에 뿌리거나 붙여 놓았다. 종이옷을 지어 입었다가 태우기도 한다. 이러한 믿음의 전승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가정을 단위로 정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례 물 뿌리기는 맹물, 간수, 쌀뜨물, 막걸리 등 다양하다. 전북 완주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새벽에 물을 떠 와서 지붕 끝에 "화재맥이 하자, 화재맥이 하자."라고 하면서 물을 뿌린다. 고창에서는 솔잎으로 지붕에 물을 흩뿌리기도 한다. 진안에서는 간수를 대문 양쪽에 세 번씩 뿌리면서 "화재맥이 하자."라고 외치기도 한다.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는 쌀뜨물을 뿌려 화재를 막고자 하였다. 충남 부여와 홍성에서는 굴뚝에 쌀뜨물을 세 번 붓는다. 전북 남원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기둥과 지붕, 마당에 쌀뜨물을 뿌렸다. 전북 익산 · 진안에서는 집안 여러 곳에 쌀뜨물을 뿌리기도 한다. 전북 정읍에서는 쌀뜨물에 재, 소금, 고추 등을 넣어 화재를 예방하기도 하였다. 진안에서는 집안에 화재수가 들었다고 여겨지면 연중 어느 때나 화재막이를 하였다. 이때 쌀뜨물에 소금을 섞고 식구들의 숟가락을 바가지에 담아서 지붕 위에 끼얹기도 한다. 쌀뜨물을 뿌릴 때는 축원을 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화재막이 하자, 화재막이 하자, 올 일 년 화재 나지 말아라." 등을 외치고 염원하였다. 독특하게도 충남 홍성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막걸리를 집 안의 기둥 네 귀퉁이에 조금씩 붓기도 하였다. 충남 예산에서는 돼지날(亥日) 부득이 지붕을 얹게 될 경우 도편수가 지붕 위에 오줌을 누기도 하였다.



화재방지 부적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2005.10.4, 김도현



화재방지 부적
전북 완주군 봉동읍, 2004.6.29, 서해숙

물과 마찬가지로 불에 대응하는 성질을 지닌 소금을 직접 뿌리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간수'는 물과 소금의 성질을 합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과 전북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지붕·집 주변·굴뚝에 소금을 직접 뿌려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충남 예산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굴뚝에 소금을 뿌렸고, 전북 전주에서는 '불맥이'라고 하여 이날 저녁에 지붕에다 소금을 뿌리기도 하였다.

민속에서 부적은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많이 쓰인다. '화재막이'에서도 부적을 붙이는 사례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수(水)'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며, 전라도에서는 '화재뱅이'라고 하여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종이 한 가운데에 '화(火)'자를 쓰고 빙 둘러 '수(水)'자를 써서 잿간 등 집 안 곳곳에 붙이기도 한다.

화재막이의 독특한 사례로서 전북 전주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집안 식구가 모두 종이옷을 지어 입었다가 저녁에 태운다. 이것을 '화재막'이라고 한다.

의의 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지극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다루면 '화마(火魔)'라는 말로 인식될 만큼 위험한 요소이다. 전통사회의 초가나 목조 건물로 이루어진 삶의 공간에서는 매우 절실한 화재막이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재막이는 가정신앙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있고, 의례의 시기가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세시풍속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가정신앙에 있어서 화재막이는 불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믿음의 한 형태이다. 가정신앙의 대표적인 의례는 아니지만 예상되는 불운을 떨쳐내기 위하여 행해지는 직접적이고도 소박한 주술적 모습을 담고 있는 액막이 풍습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편찬위원회, 1986), **불막이제**(임승범,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의 가정신앙-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화재막이**(정연학,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문화공보부, 1975).

필자 **안태현(安泰賢)**

횡수막이

정의 횡수(橫數)의 재앙을 막는 제의. 횡수란 뜻밖에 당하는 운수를 말하기 때문에 삼재와 같은 악재가 포함될 수도 있다. 반면 횡재(橫財)일 경우 뜻밖에 얻은 재물이니 좋은 일이고 같은 발음이지만 횡재(橫災)는 뜻하지 않은 재난이다. 그런데 횡수라 하면 후자의 횡재를 뜻한다. 횡수막이는 해가 바뀐 새해 일 년 동안에 닥쳐올 횡수의 재앙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횡수막이는 와음(訛音)인 홍수맥이라고도 쓰지만 홍수매기라는 말을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밖에 홍수막이라고도 한다.

역사 횡수막이는 무당과 같은 전문사제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무속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무속이나 중세의 무속의례와 관련된 자료가 상세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상 추정이 조심스럽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 유리왕(琉璃王) 19년 기록에 따르면 그해 9월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무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 있다.

> (유리왕) 19년 8월에 교시(郊豕)가 달아나니 왕이 탁리(託利)와 사비(斯卑)란 자로 뒤를 쫓게 하여 장옥택중(長屋澤中)에 이르러 발견하고 칼로 그 돼지의 각근(脚筋)을 끊었다. 왕이 듣고 노하여 "제천(祭天)할 희생(犧牲)을 어찌 (함부로) 상할 것이냐" 하고는 두 사람을 구덩이 안에 넣어 죽였다. 9월에 왕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탁리와 사비가 준 병이라고 아뢰었다. 왕이 무당을 시켜 사과케 하니 곧 나았다.

무당이 왕의 병 원인을 알기 위해 점을 쳤더니 그 병이 들게 된 원인은 '원한'이라는 재앙이었다. 횡수막이는 무당의 점복을 통해 재앙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리왕 이야기는 이미 '재앙'이 온 것을 제거한 것이어서 횡수막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앙'에 따른 병을 치료하면서 더 이상의 재앙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횡수막이와도 관련시킬 수 있다. 물론 이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추정이다.

굿 형태가 오늘날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13세기에 나타난다. 고려시대 고종 때의 문인인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고율시(古律詩) '노무(老巫)'편(篇)을 통해 당시의 굿거리와 오늘날의 굿거리 형태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굿 형태는 이미 13세기 이전에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형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무속의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무속의례가 시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횡수막이와 큰 굿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무속의례가 점차 개인굿으로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변화 양상을 생각하면 횡수막이는 큰 굿에서 분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한편 무당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후관계는 사실상 논의할 수 없다. 게다가 횡수막이가 개인의 사주(四柱)를 본 결과에 따라 행하는 의례이며 사주를 보는 것은 점복의 일종이다. 점복은 고대 부족국가 때부터 있어 왔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횡수막이의 역사성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횡수막이에 대한 오래된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횡수막이는 경성(서울)지역의 무속제의로서 새해에 한 해 동안의 재액을 예방하여 일가의 무사식재(無事息災)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정월 초사흘부터 보름 사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월 안에 행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이른바 푸닥거리로 칭하는 소무제(小巫祭)에 속하며, 무녀가 버들고리 바닥을 문지르면서 축사(祝詞)를 외는 것이다. 주부가 단골무당을 부르거나 무당 집에 가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양물로는 밥·과일·탁주 등이 있다. 부정(不淨)·가망·대감·뒤풀이의 네 거리로 이루어져 행한다. 부정은 1월부터 12월에 이르는 일 년간의 부정을 막는 의미에서 기도문(무가)을 외고 공양물 위에 소지(燒紙)를 한다. 소지불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가족의 운수를 점친다. 가망청배는 조상의 영령을 맞아 가족의 수호를 기도하는 절차이다. 대감은 이른바 터줏대감, 즉 택지신에게 기도하는 행사이다. 이는 일 년간의 횡액, 즉 불시의 재액을 예방하는 행사이다. 이상 세 거리를 실내에서 행한 뒤 마지막으로 작은 상을 툇마루에 내놓고 잡귀에게 시식(施食)하는 뒤풀이로 끝낸다. 남부지방의 액막이, 거리제 등도 경성의 횡수막이와 같이 일 년의 재액을 예방하는 정월의 가제(家祭)이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각 집에 무녀를 불러 액막이 행사를 행한다. 그것이 경성의 횡수막이 무사(巫事)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충남 공주지역에는 정월대보름에 제웅을 만들어 그날 밤 이것을 길가에서 태우는 무제(巫祭)가 있다. 제웅이 쓰러진 방향에 따라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고 한다.

액이 든 사람이 제웅의 배 안에 이름과 사주를 쓴 종이, 돈, 음식을 넣는 액막이 풍속은 강원도·서울·충청도 등지에서도 행하는 의례이다. 충청도에서는 아이들이 제웅의 배 안에 있는 돈을 꺼내는 등 놀이로

즐기기도 한다. 여기서 연유한 '제웅치기' 놀이라는 것도 있다.

내용 신년 초 또는 그 전해에 신수를 보아 다가오는 새해에 횡수가 있음을 알면 무당을 불러서 횡수막이를 한다. 정월 열나흗날 밤 달이 뜰 무렵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나 삼거리 한가운데에 짚 한 단을 열십자로 깔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횡수막이를 한다. 제물은 중시루에 백설기를 쪄다 통째 바치고 촛불을 켠 다음 나물, 실과(實果), 술 등을 바친다. 횡수막이에는 반드시 횡수의 액운이 든 본인이 입던 옷의 동정 한 개와 신던 신 한 켤레를 열십자로 놓은 짚 위에 올려놓은 다음 무당이 그 사람의 생년(生年)·시(時)·주소·성명을 대고 축원하여 액운이 비켜 가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기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면 일 년 신수를 보는 소지를 올린 뒤 제물과 본인의 동정과 신발을 열십자로 깐 짚 위에 놓고 무당과 횡수막이를 부탁한 주인이 귀가한다. 이렇게 하면 횡수를 피해 그해 액운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횡수막이 또는 홍수매기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재앙을 예방하는 의례는 많다. 예를 들어 거리제·살풀이·삼재막이 등의 명칭으로 재앙을 막는 의례를 행한다.

횡수는 어느 때나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월 중에 예방막이를 한다. 구전되는 횡수막이 무가(巫歌)에는 횡수를 각 달의 세시풍속으로 막아 낸다는 내용이 있다. "정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정월이라 대보름날 오곡 잡곡으로 막아 내고, 이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이월이라 한식날 편떡으로 막아 주고, 삼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삼월이라 삼짇날 쑥 절편이 막아 주고, 사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사월이라 초파일날 관등으로 막아 주고, 오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오월이라 단옷날 수리치떡으로 막아주고, 유월 한 달 오는 홍수는 유월이라 유두일 날 유두떡으로 막아주고……" 와 같이 세시명절의 음식이나 그 밖의 행사로 막아 준다는 것이다. 그 중 음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세시명절에 음식을 하면 우선 신에게 바치기 때문에 음식으로 막아 준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례 '홍수매기'란 명칭으로 의례를 행하는 곳은 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이다. 충남 서산, 태안 등지에서는 정초에 안택 또는 지신제를 지낸 뒤 이어서 홍수매기를 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횡수막이 보다 홍수매기라는 말을 주로 쓰며, 홍수막이라고도 한다.



횡수막이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1리, 1996.3.3
이인화

충남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서 1980년대에 행한 홍수매기를 살펴본다. 그해에 삼재가 들거나 액살이 끼는 등 신수가 나쁜 사람은 홍수매기를 하여 액을 쫓는다. 홍수매기는 무당(또는 경꾼)이 밤새 집 안에서 지신제를 지낸 뒤 새벽에 삼거리나 사거리로 나가서 한다. 이때에도 역시 시루떡을 찐다.

홍수매기를 하기 위해 무당이 시루떡(시루채), 북어, 과일, 1전짜리 동전 서 푼 정도의 돈, 겉벼 1말, 수수팥단지, 활 21개, 24방위(方位)의 장군 이름을 쓴 기다란 백지, 액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쓴 백지를 가지고 삼거리로 나간다. 활은 쑥대, 수수대 등으로 만든 것이다.

무당(또는 경꾼)이 주언을 한(또는 경꾼이 경을 왼) 뒤에 사방팔방에 활을 쏜다. 이때의 활촉은 수수팥단지이다. 수수팥단지에 24방위의 장군 이름을 쓴 기다란 백지를 붙이고 활은 겉벼가 담긴 말(곡식 담는 말)에 꽂아 놓은 뒤 그것을 사방으로 퉁겨서 쏘는 것이다. 활을 쏠 때에는 먼저 액살이 든 사람의 머리에 활촉(수수팥단지)을 잠시 댔다가 쏜다. 동서남북으로 활촉 21개를 모두 쏜 뒤 소지를 올린다.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에서 오는 온갖 액살을 막을 수 있고 잡귀도 쫓겨난다고 한다.

홍수매기 때 쓴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떡을 비롯한 제물을 마을의 어느 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나누어 먹는다. 돈도 누구든지 가지면 된다. 홍수매기를 지낸 집에서는 이튿날 빈 시루를 찾아온다. 아이들은 이들 음식(제물)을 먹기 위해 홍수매기를 시작할 때부터 몰려든다.

이 밖에 무당이 떡(시루째)·과일·포, 액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쓴 종이, 신발, 저고리 동정 및 돈 몇 푼을 가지고 삼거리로 나가기도 한다. 홍역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해 홍역을 잘 치르도록 짚으로 말(馬, 제웅이라고 하는 인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기도 한다. 말의 배 부분에 홍역을 치를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쓴 종이와 돈 따위를 넣는다. 이들을 짚방석 위에 놓고 무당이 축원하여 액살을 미리 막는다. 홍수매기를 마치면 거리에 사용한 갖가지 제물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다. 떡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는다. 돈도 아이들이 가지고 간다. 무당이 북(오른쪽)과 양푼(왼쪽)을 두드리며 주언을 해 액이 든 사람의 액살을 쫓는다. 액이 든 사람의 속옷이나 저고리 동정을 불태우지만 제물은 그대로 두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몰려와 구경도 하고 제를 지낸 뒤에는 떡·포 등을 나누어 먹으며 신나게 놀기도 하였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50대의 법사가 2000년대 중반에 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월 초이튿날부터 보름 이전까지 적당한 날을 택해 '홍수맥이'를 한다. 특별히 좋지 않아서 행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기도 한다. 흉한 일, 돈 나갈 일, 삼재 등의 재난을 막고 낙성수나 관재수 등도 없이 재앙이 틈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빈다. 특별히 홍수는 거리의 창부가 맡아주는 것이다. 열두 달 중 정월에는 일 년의 복을 빌므로 가장 중요하다. 일 년 중 처음인 정월에 미리 아첨을 하듯이 빌어두면 일 년이 편해진다. 또한 정월은 깔끔하고 맑은 정기가 떠오르는 달이기 때문이다. 꽃이 피면 땅 속에 있던 것들도 나와 지저분하게 여기므로 미리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궁법을 보면 신장님 전에서 액운을 풀어 준다. 그 사람에게 나쁜 달과 닥칠 액을 찾아 풀이를 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흰색 옷을 입혀서 마당에 앉힌다. 그런 후 배에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그 몸통에 운이 나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넣는다. 바닥에는 붉은색으로 '천살만액(千煞萬厄) ○○달 퇴액(退厄) 대수대명(代壽代命)'이라고 쓴다. 마른 명태에 이 종이를 싼다. 이때 동전을 액운이 있는 사람의 나이수 대로 넣거나 세 개 또는 일곱 개를 넣는다. 쌀도 조금 넣어 둔다. 운이 나쁜 사람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넣기도 한다. 이것을 일곱 매듭으로 묶어 두었다가 경을 외고 내던진다. 머리가 바깥쪽이 향할 때까지 반복하여 던진다. 명태의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면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땅에 묻거나 태운다.

이렇게 홍수맥이를 할 때 운이 아주 좋지 않으면 명태 대신 산 닭으로 한다. 산 닭은 홍수맥이를 하는 동안에 운이 나쁜 사람이 들고 있는다. 풀이를 마치면 닭이 죽는다. 죽은 닭은 집 바깥에 나가서 땅에 묻거나 태운다.

서산과 태안 등 충남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횡수막이는 대개 지신제를 지낸 뒤, 또는 지신제를 지내지 않더라도 집 밖에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사의 신당 같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

경북 안동에서도 근래에는 횡수막이를 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유없이 병이 계속 낫지 않을 때, 집안의 운수가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는 점쟁이를 찾아간다. 이 때 점쟁이는 횡수막이를 권한다. 횡수막이를 할 때에는 제물은 떡으로 송편이나 시루떡을 한다. 송편은 반달같이 동글동글하게 하고 시루떡은 의례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 한다. 그밖에 대추, 배, 감 등 삼색실과, 무, 고사리, 콩나물의 삼색채소, 그리고 메(밥)와 탕을 한다. 상을 차린 후 가장 먼저 성주를 모시고, 이후 조상신을 모신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에게 만복을 점지해 달라고 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하**(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충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세시풍속 2**(김명자, 민속원, 2007), **한국의 점복**(김태곤·최운식 외, 민속원,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이칭

분야	표제어	이칭
제의	가을고사	도신
		상달고사
		시월고사
	개공제	개공고사
		모탕고사
		밑고사
	객귀물리기	뜬것물리기
		뜬귀물리기
		푸레박질
		해물리기
	거리제	거리맥이
		길산제
		길제
	귀신가두기	귀신잡이
		송경
	논둑제	논두렁고사
		둑제
	농사고사	논고사
		농사밥먹이기
		용제
	농신제	밭고사
		복제
		복제사
		용신제
	동지고사	동지맞이
		동지차례
		팥죽제
	마구간고사	마제
	마중시루	마짐시루
		맞고사
	문간제	문간고사
	문전제	올레대위
	문전철갈이	멩감제
	배고사	배서낭고사
		배성주고사
제의	보름고사	정월고사
	불밝히기	수세
	산멕이	산메기
		산멕이
		산멕이기
	산바람막기	산소동토막기
		산소탈막기
	산치성	산신제
	삼신모시기	삼신치성
		지앙위하기
	삼신받기	삼신타기
		지앙맞이
	삼잡기	삼눈잡기
	삼재풀이	삼재막이
	상량제	상량고사
	상문풀기	상문잡기
	성주매기	성주받기
		성주옷입히기
	아이팔기	명다리걸기
		수양걸기
		수양부모삼기
		시영어매삼기
		신충애기
		자식팔기
	안택	가을떡고사
		신곡맞이
		안택고사
		정월떡고사
		햇곡맞이
	액막이	액맥이
	어부심	물산제
		어부슴
		어부식
		용궁맞이
	업맞이	업모시기
		업잔치
		업제
	염전고사	벗고사
		소금고사
	영등고사	영등제
		이월하기
		풍신제
	올벼심리	올개심니
		올개심리
		올벼차례
		올벼천신
		풋바심
제의	용알뜨기	복물뜨기
		새알뜨기
		용물뜨기
	용왕제	요왕제
		용왕먹이기
		용왕공
		유왕제
	우물제	샘제
		용제
	유두고사	유두제
		유두천신
	입택고사	집고사
		집들이고사
	자동차고사	굴레고사
	정초차례	정초고사
	제석할망고사	제석할망제
	제웅버리기	제웅치기
	조기심리	조기신미
	조왕고사	조왕제
	주당풀이	주당맥이
		주장맥이
		주장풀이
	중구차례	구일차례
	출어고사	선왕제
	칠석고사	칠석맞이
		칠석제
	칠성고사	칠성공
		칠성맞이
		칠성제
	터밟기	마당밟기
		매구치기
		지신밟기
		풍장치기
	터주고사	터주제
		텃고사
		토신제
	햇곡식갈기	제미하기
		첫미하기
	화재막이	불막이
		화재뱅이
	횡수막이	홍수막이
		홍수매기
		홍수맥이
신격	곳간신	고방신
		광대감
		도장지신
신격	군웅	산
		소귀신
		쇠구영신
		쇠군웅
		쇠머리영산
	굴뚝신	구대장군
		굴대장군
	마당신	벼락장군
	문신	문간대감
		문간신
		문장군
		문전신
		수문신
	바꾸보살	보살할머니
		쪽빡할머니
	방앗간신	방아지신
	배서낭	배당
		배선영
		배성주
		선왕
	사신	울타리신
	삼신	삼승할망
		지앙
	성주	성조
	안칠성	고팡신
	야광귀	신발귀신
		야괴
		야귀왕
		야묘
		야유광
	업	업왕
		업왕신
		업위신
	영등	바람님
		바람제석
		바람할매
		바람할머니
		영두할매
		영등할머니
		이월손님
		이월할맘네
		이월할매
		이월할머니
		풍신
		풍신할매
		풍신할머니

분야	표제어	이칭
신격	올레신	정살지신
		주목지신
		죽산이
	용왕	우물신
	우마신	구신
		마귀신
		마대장군
		마부신
		쇠구영신
		외양간신
	제석	불사할머니
	조왕	삼덕할망
		정지각시
		조군
		조신
		조왕각시
		조왕대신
		조왕할매
	철륭	뒤꼍각시
		천룡신
		철륭지신
		철령할마이
	지신	토신
	측신	구릉장군
		뒷간귀신
		똥장군
		부출각시
		정낭각시
		측간신
		측도부인
		측신각시
		치귀
		통시각시
	터주	지신
		터신
		터주할매
		텃대감
		터줏대감
		토신
		토주
	호구신	두신
		마마
		서신국마누라
		손님
		호구별성
		호구마마

분야	표제어	이칭
신체	건궁	허궁
	귀신종이	거장
		조상종이
	대감벙거지	병립
		전립
	미륵바위	미륵님
		미륵불
		선돌
	산똥이	산단지
	삼신단지	삼시랑단지
		삼신할매단지
		지앙단지
	삼신바가지	삼신고리
		삼신단지
		삼신자루
		삼신토방구리
	성줏단지	성주동우
		성주오가리
		성줏독
	세존단지	세존단지
		시주단지
		시준단지
	신줏단지	부루단지
		부루독
		조상단지
	업가리	업영가리
	용단지	건용
		터용
	제석오가리	신줏단지
		제석단지
		조상단지
		지석단지
		지석오가리
	조상단지	부루단지
		시조단지
		신줏단지
		조상당세기
		토방구리
	조왕중발	조왕단지
		조왕물그릇
		조왕보시기
제구	새옹	노구솥
		반짐이
		새용
		생우
		쇠용

분야	표제어	이칭
제구	시매	섶막대기
		짚방망이
	영등까꾸리	영등갈쿠리
		영등깔꾸지
		정제깔꾸지
	제웅	지웅
		허수깨비
		허재비
	춘첩	문련
		영련
		입춘첩
		첩자
제물	객귀밥	거리밥
		까치밥
		뒷밥
		뒷전밥
		물귀밥
		물밥
		바가치밥(바가지밥)
		치밥(키밥)
	밀떡	밀부침개
		밀전병
	삼신밥	삼승밥
		제왕밥
		지왕밥
	섬떡	나이떡
		나이송편
		노비송편
		두지떡
		머슴송편
		세병
		솔떡
		송엽병
		수복병
	오곡밥	오곡잡밥
		잡곡밥
		찰밥
	정화수	정안수
용어	삼칠일	세이레
	택일	날가림
		복일
		추길
		추일
	금기	구기

분야	표제어	이칭
용어	옥녀각시	옥녀각시살
		옥녀살
	동토	동티
		지벌
	양밥	방술
		술법
	좀도리	절미
		종도리
	주부	계주
		기주
	고수레	걸명
		고스레
		고시래
		고시레
		헌식
	탈	동토
		주당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색인

ㄱ

가신제 48, 167, 208, 304, 712, 725
가을고사 22, 50, 128, 158, 162, 197, 206, 328, 330, 468, 525, 539,575, 596, 633, 644, 677, 691, 708
가을떡의례 446, 447, 448, 561
가을맞이 440
가을시루 41, 82, 214
감실 53, 60, 203, 359, 361, 572, 595
개공제 25, 169
개기제 25, 27
개맥이고사 133
개삼신 268
개토제 27, 28, 29
객귀물리기 29, 153, 161, 270, 326, 456, 556, 699
객귀밥 31, 32, 33
객귀상 31, 32, 696
거리굿 32, 283
거리맥이 35
거리밥 31, 33, 201
거리제 34 153, 280, 282, 295, 358, 450, 489, 527, 552, 555, 582, 639, 641, 697, 737
건궁 36, 159, 170, 173, 243, 255, 257, 262, 264, 265, 312, 327, 464, 513, 570, 571, 608, 617, 645, 672, 683, 713
걸교 711
걸궁 631
걸립 38, 39, 121, 126, 158, 160, 283, 310, 441, 504, 531, 577, 609, 632, 683, 731
걸립대감 38, 121
걸립마누라 38
걸립신 38, 39
겨릅대 97, 105, 538
경국대전 252, 595
경도잡지 143,158, 307, 359, 363, 452, 487, 580, 612, 659, 662, 719
경쟁이 34, 69, 220, 448, 510, 520, 636, 699, 715
고깔 39, 180, 196, 222, 258, 265, 324, 362, 571, 575, 645, 685, 690, 692, 723, 732
고려사 58, 75, 151, 196, 208, 219, 225, 230, 288, 520, 537, 595, 611
고사 22, 40, 79, 80, 91, 92, 97, 112, 121, 132, 134,144, 158, 167, 169, 197, 205, 211, 252, 282, 287, 313, 472, 477, 506, 537, 540, 545, 552, 561, 579, 611, 642, 650, 668, 678, 684, 711, 717
고사반 709
고사시루 163, 167
고수레 40, 45, 106, 159, 169, 346, 578, 579, 670, 733
고추 47, 84, 149, 152, 154, 255, 280, 285, 295, 326, 329, 335, 351, 449, 557, 642, 643, 654, 656, 688, 735
고팡신 48
고풀이 671
곡령 48, 51, 57, 88, 207, 208, 223, 231, 269, 360, 367, 690
곡물 48, 72, 74, 76, 82, 90, 113, 127, 158, 169, 196, 206, 223, 240, 256, 263, 322, 347, 367, 440, 465, 470, 490, 513, 519, 555, 599, 696, 698, 708, 711, 715, 717
곳간신 51, 52
광대감 52, 121, 124, 127, 129
광청아기 52, 459
구덕장군 675
구슬할망 57, 59, 60, 459, 598
구슬할망본풀이 57, 58, 59, 60, 61, 598
구일차례 61, 626
군웅 61, 62, 63, 245, 295, 328, 339, 442,
군웅장군 623
굴대장군 63, 64, 172
굴뚝신 63
굴레고사 65
굴부르기제 65, 66, 67
궤눼깃또본풀이 55
귀면와 628, 629
귀신가두기 69
귀신날 344, 454, 463, 660
귀신동이 72, 591, 595, 596
귀신종이 72, 73, 74, 77, 78, 79, 591, 593, 595
귀신종이모시기 75, 76, 78
귀표고사 79, 80, 93
규합총서 130, 224, 349, 701
그물고사 80, 81, 135, 671
금기 41, 50, 51, 76, 81, 85, 142, 143, 147, 152, 153, 204, 208, 221, 234, 256, 284, 296, 301, 303, 322, 331, 338, 367, 481, 486, 508, 513, 524, 548, 587, 613, 654, 670, 676, 678, 699, 701, 726
금줄 22, 24, 44, 48, 50, 82, 84, 85, 115, 139, 152, 158, 171, 174, 180, 206, 240, 241, 245, 248, 260, 268, 285, 302, 322, 327, 334, 344, 347, 352, 439, 442, 475, 479, 490, 524, 535, 561, 565, 600, 615, 621, 632, 638, 641, 669, 671, 683, 686, 689, 715, 726
기자 83, 84, 85, 142, 190, 254, 255, 261, 267, 305, 588, 610, 681, 682
기주 131, 490, 626, 708, 711, 712
길대장군 34, 35, 528, 697
길산제 280, 282
길일 22, 34, 41, 49, 73, 76, 82, 152, 158, 176, 178, 206, 241, 254, 263, 282, 292, 301, 327, 338, 353, 513, 515, 525, 533, 540, 595, 596, 597, 605, 636, 676, 679, 683, 688, 699, 701, 709, 712
까치밥 31, 33
꺼칠용 90, 514, 515, 517, 518, 519, 658, 727
꽃반 703, 706

ㄴ

나락 25, 49, 50, 88, 98, 103, 137, 169, 206, 217, 307, 312, 319, 345, 366, 471, 479, 490, 505, 511, 514, 517, 538, 633, 644, 646, 658, 678, 686, 707, 712, 726, 727, 728
나무고사 91
나이떡 91, 307, 483
낙인고사 80, 92, 94
날삼재 274, 275, 277
남근석 85, 180, 191
내전 32, 282, 450, 696
넋들임 94, 264
노구솥 97, 295, 538
노래기날 334
논고사 97, 98, 99, 101, 103, 105, 539
논꼬 97, 103, 105
논둑제 97
논멕이기 103
농사고사 98, 99, 100, 101, 103, 106
농사밥 100, 214, 479, 488
농사오가리 571, 572
농신 49, 97, 99, 104, 106, 178, 197, 478, 538, 539, 569, 571
농신제 98, 99, 101, 216, 217, 305, 516, 538, 539
눌굽 108
눌굽지신 107

ㄷ

단군신화 83, 259, 285, 287, 359, 477, 680
단귀 116, 120
단오고사 112, 115
단오장 112, 143
단오차례 112
단잡기 116, 117, 120
달음탈 149
담배고사 121
당산 24, 160, 163, 166, 463, 560, 564, 631, 634, 637, 639, 642, 645, 651, 656, 679, 685, 689, 693
당상관 116, 120
당신본풀이 56, 60
대감 27, 38, 121, 122, 123, 124, 125, 126, 168, 172, 193, 215, 310, 596, 607, 708, 733, 737
대감거리 62, 123, 126
대감단지 127, 361, 366
대감벙거지 127, 128
대감옷 27
대감항아리 22, 222
대구심리 130, 131
대삼재 274, 279
대수대명 35, 208, 210, 228, 280, 282, 294, 583, 739
대신말명 56
대왕단지 1 13
대잡이 71, 116, 260, 310, 318, 450, 688
대주 24, 40, 75, 111, 123, 128, 131, 162, 164, 168, 215, 217, 241, 298, 302, 309, 315, 321, 353, 364, 370, 490, 523, 527, 533, 545, 548, 562, 564, 571, 625, 633, 636, 644, 650, 683, 689, 703, 706, 713, 715, 723
덤장고사 81, 132, 133, 135, 252, 253, 254
도깨비 35, 60, 69, 81, 125, 126, 132, 147, 161, 167, 171, 203, 253, 455, 467, 629, 671
도깨비고사 97, 133, 136, 137
도깨비단지 137
도신 44, 138, 158, 178, 367, 442, 446, 656, 689, 692
도채비 133, 459
독각귀 133, 134
독갑 134
독경 30, 40, 69, 147, 150, 220, 229, 242, 252, 295, 330, 364, 442, 535, 536, 537, 632, 671, 674
독살 252, 253, 254
돌레떡 139, 140, 613, 615
돗제 138, 139, 140, 141
동경잡기 112, 487
동국세시기 40, 83, 141, 144, 145, 158, 163, 170, 172, 225, 229, 232, 244, 249, 273, 274, 283, 307, 313, 335, 355, 357, 368, 453, 474, 477, 487, 520, 530, 537, 580, 584, 612, 620, 630, 660, 662, 711
동국여지승람 141, 143, 283, 474, 477
동국이상국집 115, 288, 737
동돌개비떡 245
동정잽이 148, 150, 632, 633
동지고사 144, 145, 147, 335
동지차례 144, 145, 147, 719
동토 64, 117, 148, 154, 219, 224, 249, 273, 274, 328, 488, 536, 555, 675, 678, 696, 698, 715
동토경 148, 249
동토잡기 117, 148, 161, 270, 273
동토태세경 149
동티 48, 116, 148, 149, 154, 155, 161, 303, 328, 331, 338, 352, 353, 354, 488, 588, 614, 615, 632, 656, 676, 698, 699, 715
돼지코 151
된장 30, 35, 48, 151, 295, 326, 329, 330, 449, 524, 525, 557, 558, 596, 642, 643, 696, 727
둑직이 97
뒷간귀신 672, 675
뒷전 32, 117, 294
뒷전상 31
들삼재 274, 275, 277
떡국천신 650, 653
똥떡먹이기 154
똥장군 672
뜬것 29
뜬귀 29
뜬귀물리기 155
띠배 282, 351, 497

ㅁ

마구간고사 158
마당밟이 160, 161, 631
마당신 36, 41, 159, 160
마당제 160, 162
마대장군 158, 160, 163, 530
마마 332, 344, 442, 455, 585, 729, 731, 732
마부대감 158
마부신 62, 158, 530
마제 158
마중시루 163
마짐시루 164, 165
말명상자 55
맞고사 163, 167
맞시루 163, 166,
매구치기 160, 233, 703
머슴날 205, 307, 479
메밀 81, 113, 133, 136, 146, 167, 206, 280, 495, 577, 654
메밀묵 32, 81, 134, 137, 167, 168
멩감 250
멩감제 168, 250
명다리 439, 440, 462, 573, 575, 678, 685, 687, 691
명절고사 198, 200, 669, 670
모밥내가기 101, 103, 168
모탕고사 25, 27, 169
목신대감 122
목은집 211
몸주대감 121, 124, 126, 310
못자리고사 101, 103, 106, 168, 169
묘제 360
무당내력 31, 130, 308, 494, 690, 730
무성주 311, 725
무주고혼 29, 696
묵삼재 277
문간대감 171, 172
문간신 171, 175
문간제 170, 171
문배 171, 172, 225, 277
문신 36, 41, 45, 130, 142, 143, 170, 171, 178, 225, 442, 500, 611, 661, 665, 672, 673, 674
문장군 171
문전고사 175
문전본풀이 171, 173, 175, 178, 500, 586, 606, 613, 615, 672, 673, 675
문전신 171, 175, 176, 206, 615, 616, 674
문전제 174, 175, 206, 504, 616
문전철갈이 175, 176, 178, 179, 196
물대 179, 180, 475, 510
물애밥 33, 213
미륵바위 180, 181, 182, 192, 638
미륵불 84, 180, 181, 341
미역 58, 67, 69, 84, 154, 182, 207, 255, 256, 258, 259, 260, 262, 264, 265, 285, 286, 326, 363, 366, 475, 480, 524, 525, 527, 571, 653, 689
밀떡 91, 97, 105, 107, 186, 538, 539, 679,

686, 687
밀전병 106, 186, 538, 539, 686
밀천신 650, 653
밑고사 25, 26

ㅂ

바꾸보살 190
바람신 334, 473, 475, 477, 478, 479, 483, 484
바래기기와 627, 628, 629, 630
바위치성 190
밧칠성 179, 192, 206, 441, 465, 645, 646,
681, 685, 688, 693
방아지신 196
방앗간신 36, 196, 197
방위가리기 197
밭고사 197
배고사 48, 82, 134, 135, 197, 202, 204, 229,
284, 299, 351, 352, 369, 370, 494,
496, 528, 590, 669, 670, 671, 672
배서낭 197, 198, 200, 201, 204, 299, 300,
364, 493, 494, 469, 620, 669, 671, 672
배서낭함 204
배성주 200, 201, 202, 205, 620, 671, 672
백설기 22, 24, 41, 70, 106, 164, 168, 181,
185, 209, 217, 231, 252, 257, 260,
262, 264, 286, 349, 350, 351, 467,
468, 469, 484, 492, 546, 561, 565,
574, 576, 622, 635, 669, 670, 678 678,
679, 683, 687, 688, 689, 690, 691, 738
백중고사 205
뱅이 30, 147, 339, 344, 449
법사 30, 39, 69, 116, 208, 249, 259, 280,
282, 312, 317, 318, 321, 342, 365,
442, 449, 456, 493, 494, 495, 496,
510, 511, 535, 536, 651, 677, 739
벗고사 205, 472
벙거지 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6, 239, 462, 596, 644, 646, 708,
712, 733
벨롱겡이 175, 176, 178, 179, 196
벼슬대감 121, 122, 124, 126, 596
벽사 26, 48, 170, 172, 173, 174, 219, 220,
224, 225, 226, 285, 290, 333, 336,
352, 546, 580, 628, 661, 662
변소귀신 677
별비 126
별상 121, 122, 123, 124, 126, 129, 130
별상대감 121, 122
볏가릿대 307, 496, 497
볏섬 97, 368, 369, 442
볏짚 22, 30, 205, 351, 469, 492, 583, 584,
633, 643, 644, 658, 659, 678, 690, 707
병경 208, 536,
보름고사 98, 211, 216. 488, 565
보리눌 107, 108
보물대감 121, 124, 127
복물뜨기 217, 519
복삼재 274, 275, 277
복숭아나무 106, 117, 149, 150, 151, 154, 210,
217, 223, 224, 279, 295, 330, 345,
356, 357, 454, 496, 722
복제 103, 216, 217, 221
본당 200, 201, 203, 671
부락제 304
부루 599, 690
부루단지 221, 222, 223, 312, 323, 325, 360,
366, 599, 690, 725, 726
부적 84, 112, 135, 143, 149, 151, 170, 172,
218, 219, 220, 223, 274, 276, 277,
279, 282, 328, 355, 456, 488, 533,
546, 548, 552, 555, 608, 617, 735, 736
부정풀이 244, 302, 330, 352, 449, 561
부출각시 672, 675
북어 22, 24, 31, 35, 39, 62, 82, 135, 161,
204, 227, 228, 229, 230, 280, 282,
294, 295, 297, 298, 299, 302, 311,
314, 315, 363, 364, 365, 476, 524,
552, 582, 659, 697, 709, 728, 738
불막이 230, 735
불밝이쌀 24, 163, 533, 540, 636
불밝히기 230, 232
불사거리 126, 129
불사할머니 567
비손 22, 30, 34, 41, 44, 52, 63, 65, 75, 79,
81, 84, 98, 106, 112, 134, 147, 158,
160, 207, 214, 219, 233, 242, 252,
257, 260, 266, 280, 282, 298, 302,
315, 320, 323, 326, 328, 330, 336,
351, 358, 361, 370, 442, 449, 451,
462, 466, 469, 476, 483, 488, 496,
513, 522, 525, 533, 539, 557, 560,
566, 582, 596, 613, 622, 632, 650,
653, 656, 676, 678, 681, 683, 688,
691, 699, 710, 715, 726

ㅅ

사례편람 28
사만이본풀이 179, 250
사신 121, 125, 192, 194, 231, 238, 441,
729, 730
사신대감 121, 122, 124, 125, 239, 240
사자상 31, 32, 624, 625
산 61, 62, 240, 328, 329, 335, 713
산단지 243
산동이 113, 243
산림경제 115, 152, 218, 223, 333, 340, 354, 606
산멕이 61, 112, 240, 244, 248, 296, 335, 494,
495
산바람 249
산바람막기 249, 250
산부정 22, 24
산소탈막기 249, 250
산신 28, 34, 41, 46, 49, 62, 83, 84, 100,
115, 129, 160, 162, 176, 183, 207,
229, 242, 249, 251, 258, 261, 267,
297, 300, 310, 323, 329, 335, 439,
497, 524, 529, 534, 536, 627, 645,
652, 653, 710, 711, 715, 734
산신대감 129
산신멩감 250
산제 164, 242, 244, 248, 249, 251, 252,
282, 296, 301, 358
산치성 113, 250, 251, 252, 296, 468, 685
살고사 252, 253, 254
삼국사기 75, 83, 151, 170, 282, 337, 486, 516,
520, 531, 544, 565, 595, 700, 737
삼국유사 31, 69, 83, 170, 172, 211, 214, 218,
223, 224, 231, 282, 286, 337, 485,
486, 490, 513, 516, 518, 569, 580,
681, 684, 700, 711
삼날 270
삼눈잡기 161, 270
삼두일족부 274, 276
삼색실과 34, 35, 67, 135, 191, 200, 249, 250,
254, 260, 283, 370, 449, 473, 489,
524, 529, 533, 564, 583, 636, 659,
669, 677, 688, 709, 726, 739
삼승할망 257, 258, 264, 732
삼승할망본풀이 55
삼시랑 264
삼신 25, 39, 50, 61, 64, 71, 82, 84, 145,
147, 158, 183, 207, 209, 215, 240,
244, 252, 254, 262, 283, 285, 286,
315, 316, 322, 328, 350, 363, 366,
438, 442, 449, 469, 472, 486, 505,
511, 517, 519, 536, 543, 557, 559,
564, 567, 571, 574, 576, 577, 579,
592, 594, 607, 613, 620, 623, 633,
650, 651, 678, 686, 690, 709, 725
삼신단지 25, 51, 89, 255, 257, 262, 264, 324,

519, 570, 726
삼신당 83, 115, 142, 241, 244, 249, 260, 283
삼신대 258, 259, 260, 261
삼신떡 351
삼신모시기 261, 266
삼신바가지 49, 88, 255, 258, 265, 266, 360, 442, 514, 727
삼신받기 259, 265, 268, 530
삼신밥 262, 268, 269
삼신제 184, 259, 260
삼신주머니 255, 258, 262, 264, 574, 678, 679, 689
삼신짚 268, 269, 270, 651
삼싱할망 95, 96
삼잡기 270, 271
삼재 142, 219, 226, 229, 273, 279, 302, 355, 461, 492, 665, 666, 677, 701, 736, 738
삼재막이 173, 279, 280, 282, 738
삼재부 226, 274, 279
삼재부적 273, 279, 280, 282
삼재풀이 274, 276, 279, 282
삼짇고사 282, 283
삼칠일 82, 84, 262, 269, 284, 329, 334, 335
상달고사 22, 25, 50, 82, 98, 99, 136, 161, 206, 234, 287, 310, 349, 469, 575, 675, 692, 717
상량고사 25, 290, 293, 317, 545, 548, 621
상량문 287, 548
상량식 131, 132, 228, 285, 315, 545, 570, 571, 621, 723
상량신 25, 293, 313, 723, 724
상량제 25, 27, 287, 307
상문 294, 295
상문풀기 294
새알뜨기 295, 519
새옹 252, 295
새옹메 296
샘제 523, 531, 533
생기복덕 44, 138, 250, 277, 309, 318, 532, 634
서낭당 114, 210, 282, 296, 298, 336, 358, 364, 365, 494, 620, 622, 722
서낭신 163, 204, 297, 365, 495, 523
서낭제 200, 283, 297, 365, 448, 494, 495, 671
서신국마누라 729, 732, 733
석전 · 기우 · 안택 304, 306, 490, 516, 711, 712
석탈해신화 55
선돌 165, 180, 364
선왕 201, 300, 307, 481, 671
선왕제 307
섬떡 307, 483
성주 22, 24, 27, 30, 36, 40, 44, 50, 63, 82, 84, 100, 103, 113, 121, 128, 131, 143, 145, 147, 151, 154, 160, 162, 164, 167, 175, 201, 205, 208,214, 234, 248, 262, 264, 269, 283, 288, 292, 297, 304, 307, 334, 346, 349, 362, 442, 446, 469, 472, 488, 493, 512, 514, 519, 535, 536, 540, 543, 548, 555, 560, 597, 606, 609, 613, 616, 619, 631, 650, 670, 679, 687, 706, 712, 713, 715, 723, 739
성주고사 24, 100, 313, 562, 565, 636, 670
성주굿 154, 308, 310, 315, 321, 571, 620, 703, 723
성주매기 307, 317, 320
성주받이 132, 315, 321, 545, 548, 571
성주본가풀이 316
성주섬 50, 312, 315, 442, 726, 727
성줏단지 25, 40, 49, 82, 89, 206, 311, 319, 363, 366, 505, 569, 596, 619, 622, 723, 726
성줏대 116, 259, 309, 311, 314, 320, 334, 622
성줏대감 121, 122
성황 297, 300, 309, 488, 495, 585, 602, 687
세시기 143, 172, 279, 363, 368, 452, 580, 659
세시잡영 212, 213, 662
세시풍요 158, 277, 453
세이레 207, 257, 266, 269, 285, 322, 571
세존 39, 104, 217, 255, 322, 326, 361, 571, 594, 726
세존단지 39, 217, 322, 360, 569, 571, 574, 591, 593, 595, 685, 725, 728
세종실록지리지 253
소금 26, 30, 48, 116, 148, 154, 183, 198, 202, 207, 228, 259, 273, 280, 295, 304, 326, 330, 456, 472, 488, 524, 530, 534, 546, 557, 642, 656, 661, 670, 688, 697, 735
소삼신 62, 153, 268, 327
소삼신모시기 28
속신 50, 76, 142, 145, 197, 207, 219, 221, 223, 230, 264, 284, 286, 300, 303, 353, 355, 495, 677, 686, 703, 726, 734
손 331
손각시 332, 511, 624
손님 29, 331, 442, 455, 702, 729
솔가지 44, 99, 169, 216, 259, 285, 315, 321, 333, 351, 483, 518, 644, 719
송경 69, 336
솥 336
솥할망 339, 614
쇠구영신 61, 530
쇠군웅 61, 62, 63
쇠코뚜레 341, 637, 638, 696
수문신 171, 172
수세 143, 219, 230, 232, 345
수양부모 345, 438, 439
수지 89, 113, 328, 345, 346, 514, 725, 726, 727
수지쌀 345, 514
숯 30, 44, 48, 152, 273, 285, 298, 330, 335, 347, 352, 558, 715
시루 22, 24, 37, 41, 52, 82, 97, 106, 113, 130, 135, 153, 162, 163, 171, 175, 200, 206, 214, 217, 259, 298, 316, 318, 330, 340, 347, 351, 442, 449, 456, 468, 470, 493, 496, 536, 565, 575, 636, 677, 679, 683, 713, 717, 732, 735, 739
시루고사 40, 41
시루떡 22, 24, 34, 37, 41, 44, 62, 81, 135, 147, 158, 162, 164, 168, 181, 186, 197, 215, 234, 245, 250, 252, 262, 282, 293, 299, 302, 314, 316, 318, 349, 363, 442, 446, 449, 461, 467, 469, 472, 480, 488, 497, 529, 530, 538, 546, 552, 560, 565, 596, 614, 659, 671, 676, 679, 682, 686, 691, 709, 711, 713, 715, 729, 738
시매 351, 352
시영어매삼기 438
시준단지 76, 78, 221, 312, 323, 360, 572, 574, 653, 726
신과세제 616
신구간 231, 352, 354
신대 259, 260, 322
신수보기 354, 356, 358
신수점 302, 355, 356, 358, 363
신줏단지 39, 50, 82, 89, 221, 346, 359, 366, 516, 569, 571, 574, 593, 598, 619, 725
신증동국여지승람 143, 163
신충애기 362, 438, 440
실타래 26, 40, 112, 228, 242, 255, 257, 260, 262, 264, 269, 286, 297, 302, 315, 322, 324, 362, 439, 519, 552, 573, 595, 597, 619, 672, 685, 706, 724
심방 52, 95, 137, 171, 174, 176, 178, 192, 195, 203, 215, 250, 329, 439, 457, 460, 475, 480, 504, 523, 598, 606, 613, 634, 672, 676, 688
쌀 365
쌀용 89, 514, 517, 519, 658
쌈 367
쌍걸립 38

ㅇ

아이팔기 438, 527, 529
안내상 616
안칠성 139, 194, 206, 339, 440, 681, 684, 689, 693
안택 31, 40, 50, 61, 71, 112, 136, 158, 167, 214, 234, 260, 266, 282, 297, 302, 304, 317, 320, 324, 350, 441, 474, 490, 516, 535, 546, 561, 565, 571, 583, 597, 610, 613, 631, 635, 679, 688, 692, 696, 711, 738
안택경 44, 142, 305
앉은굿 69, 70, 150, 211, 499, 535, 698
애기씨 451
액막이 34, 137, 139, 142, 151, 153, 162, 173, 176, 178, 213, 225, 227, 274, 277, 305, 328, 331, 339, 351, 358, 368, 438, 451, 456, 460, 493, 498, 526, 528, 533, 537, 545, 552, 555, 580, 585, 633, 677, 682, 697, 736
야광귀 452, 463, 659
약밥 211, 487, 521
양귀법 604
양밥 106, 151, 456
양씨아미 457
어부심 368, 460, 520, 526, 528
엄나무 137, 150, 173, 343, 358, 454, 463, 546, 632, 637
업 464
업가리 22, 466, 469, 513, 644, 708
업대감 60, 172, 469
업맞이 469
업왕 465, 518, 541
업제 469, 471
업항아리 81, 222, 467, 544, 643
여서낭 135, 201, 254, 297
여제 627
열양세시기 143, 170, 172, 276, 283, 368, 460, 487, 520, 526, 612
염전고사 472
영등 154, 346, 473
영등고사 477, 494
영등굿 476, 483
영등까꾸리 484
영등할머니 153, 179, 307, 334, 473, 477, 483, 488, 496, 510, 609
예조 28, 485
오곡밥 37, 116, 120, 211, 255, 262, 368, 371, 461, 483, 486, 517, 521, 525, 528, 559, 585, 632, 636, 688, 696
오방신장기 494
오방지신 298, 489, 633
오색천 203, 229, 280, 294, 302, 475, 479, 483, 493
옥갑경 210
옥녀각시 497
옥녀살 497
옥추경 150, 210, 294
올개심니 500
올개심리 504
올레 171, 176, 500, 503
올레대위 176, 328, 500
올레신 500
올레코시 175, 504
올벼심리 99, 264, 325, 361, 366, 504, 588, 590
올벼차례 504
옹기가마고사 506
왕신 308, 332, 499, 509, 544
왕신단지 510, 717
외양간신 530
왼새끼 28, 39, 44, 63, 71, 113, 116, 139, 149, 219, 222, 241, 258, 285, 295, 302, 328, 335, 344, 347, 351, 473, 479, 546, 595, 623, 638, 640, 643, 656, 659, 675, 699, 707, 712, 722
요왕제 34, 369, 523, 525, 528
용궁맞이 461
용단지 25, 36, 88, 100, 145, 159, 206, 346, 442, 513, 535, 542, 633, 658, 659, 725
용단지모시기 516
용신 49, 54, 98, 103, 106, 183, 240, 242, 244, 267, 326, 458, 462, 516, 518, 531, 538, 653, 659, 710, 727
용신제 97, 101, 103, 523, 526, 530, 538
용알뜨기 231, 519
용왕 34, 41, 65, 104, 135, 139, 184, 198, 201, 204, 224, 253, 259, 267, 298, 326, 352, 359, 368, 439, 458, 460, 488, 492, 513, 516, 519, 522, 536, 546, 580, 669
용왕공 280, 282, 526, 530, 534
용왕밥 368, 371, 524
용왕제 280, 305, 351, 358, 368, 461, 486, 520, 523, 526, 538, 641, 659, 670
용재총화 133, 170, 172, 219, 223, 334, 674
용제 97, 103, 186, 217, 531, 538
용지대 100
우란분재 83, 205
우마신 36, 143, 530, 633
우마장군 158
우물제 283, 531, 534
웃줄단지 534, 565
웃줄할매 258, 534, 565
월점 148
위목 70, 216, 512, 535
유감주술 99, 152, 180, 200, 231, 669
유두고사 97, 101, 103, 105, 206, 537
유두제 101, 103, 537
유두천신 537, 650
유지지 496, 645, 655
이레떡 264, 351
이월할매 473, 478, 540
인동토 149
인분대감 675, 677
인삼고사 540
인업 459, 465, 518, 541
임신네 544
임원경제지 28, 239, 338
입주고사 25
입춘첩 225, 291, 342, 358, 661, 664
입택고사 25, 27, 545

ㅈ

자동차고사 228, 552
자식팔기 438
잔밥각시 555, 643
잔밥먹이기 456, 555, 642
잡귀 25, 29, 31, 48, 70, 117, 120, 133, 139, 145, 150, 158, 160, 170, 173, 176, 186, 208, 211, 218, 224, 232, 295, 314, 316, 326, 334, 339, 342, 344, 349, 351, 463, 476, 489, 524, 529, 536, 555, 559, 608, 610, 621, 627, 631, 636, 638, 643, 698, 715, 719, 736, 739
장독신 558, 560
재복신 38, 517, 541, 544
재수굿 39, 310, 315, 364
절미 561, 618
절미단지 619
정살지신 171, 175, 503, 504
정월고사 213, 302, 525, 561, 565
정월떡 213, 302, 525, 561, 565
정월떡의례 446, 561
정초차례 562, 565
정화 31, 48, 267, 285, 315, 326, 333, 336, 339, 351, 442, 462, 524, 526, 559, 609, 618, 658, 697
정화수 22, 25, 37, 41, 48, 63, 75, 82, 84, 90, 148, 158, 160, 163, 184, 207, 209, 243, 255, 257, 262, 264, 269, 283,

285, 315, 323, 326, 334, 350, 361,
366, 475, 479, 483, 514, 517, 520,
522, 531, 540, 559, 565, 570, 573,
576, 587, 596, 608, 610, 613, 615,
617, 622, 658, 681, 685, 690, 706,
709, 715, 718, 724, 728, 731
제미하기 567, 726
제석 40, 128, 142, 184, 209, 215, 232, 255,
265, 322, 360, 442, 483, 544, 565,
567, 591, 607, 609, 620, 633, 651,
685, 691
제석단지 465, 569, 573, 609, 685, 687, 723
제석오가리 221, 361, 366, 567, 569, 574, 591,
593, 723, 725
제석주머니 22, 186, 360, 362, 467, 567, 571, 591,
593, 725
제석할망 103, 574, 577
제석할망고사 579
제웅 208, 273, 580, 737, 739
제웅버리기 358, 583
조군영적지 586, 588
조기심리 588
조령 49, 51, 72, 223, 366, 572, 591, 594,
597, 724
조상 29, 33, 39, 44, 47, 52, 55, 59, 72, 75,
98, 114, 122, 124, 126, 131, 142, 161,
174, 181, 190, 205, 209, 211, 230,
234, 242, 245, 248, 255, 262, 283,
312, 322, 324, 340, 346, 349, 360,
365, 441, 449, 451, 457, 468, 472,
486, 488, 495, 499, 504, 518, 525,
528, 536, 538, 540, 544, 546, 556,
562, 564, 570, 572, 574, 587, 590,
604, 607, 609, 626, 633, 650, 669,
709, 718, 727, 737
조상단지 39, 82, 88, 221, 311, 314, 320, 323,
325, 359, 366, 486, 505, 535, 564,
569, 591, 609, 619, 653, 724
조상모시기 76, 594
조상신본풀이 52, 56, 60, 457
조상종이 73, 78, 595, 598
조상하나씨 51, 311
조선 75, 115, 143, 207, 228, 244, 253, 305,
354, 355, 357, 359, 438, 452, 491,
497, 499, 537, 540, 586, 595, 598,
611, 626, 631, 708, 711, 719, 731
조선무속고 172, 255, 307, 465, 490, 511, 583,
601, 620, 711, 730
조선왕조실록 115, 151, 230, 338, 340, 611
조선의귀신 603
조왕 25, 30, 36, 40, 44, 63, 84, 108, 145,
147, 158, 168, 171, 175, 196, 206,
209, 216, 234, 271, 298, 311, 325,
339, 341, 350, 353, 442, 446, 449,
469, 487, 491, 496, 500, 504, 515,
517, 536, 562, 566, 572, 586, 599,
605, 633, 636, 650, 672, 676, 679,
692, 706, 715, 728
조왕경 44, 71, 449, 615, 636
조왕고사 611, 614
조왕굿 161, 209, 310, 613, 703
조왕중발 37, 607, 613, 616
조왕할망 616, 673, 676
좀도리 618
종이성주 311, 570, 619, 723
주당 154, 161, 164, 499, 623, 675, 677, 698
주당맥이 150, 623, 625, 675, 699
주당살 154, 303, 316, 623, 677
주당풀이 161, 623
주부 25, 34, 41, 75, 91, 97, 106, 121, 128,
137, 144, 181, 234, 242, 263, 298,
302, 305, 316, 322, 329, 334, 352,
360, 441, 448, 456, 460, 468, 476,
493, 495, 513, 517, 524, 526, 529,
532, 541, 546, 561, 564, 571, 582,
594, 596, 605, 609, 617, 625, 633,
635, 651, 658, 680, 683, 689, 715,
722, 725, 737

죽산이 171, 626
죽은부정 22
중구차례 626
증보산림경제 25
지경다지기 637
지골 624, 625
지붕신 627
지신 25, 38, 39, 89, 125, 160, 161, 196,
283, 309, 369, 488, 518, 558, 560,
563, 564, 614, 620, 629,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53, 657,
658, 672, 698, 703, 704, 710
지신밟기 160, 283, 358, 493, 532, 631, 634,
636, 655, 658, 703, 709
지신제 24, 304, 492, 533, 564, 634, 657, 712,
738
지앙 147, 185, 256, 264, 607, 637, 657
지앙상 215, 256, 264, 488, 656
지앙할미 255, 258
짐승뼈 637
집고사 22, 41, 91, 467, 545
집들이고사 25, 642
집안시루 24
짚신이바지 557, 643
짚주저리 137, 206, 367, 467, 470, 490, 510,
546, 633, 643, 659, 689, 707, 710,
712, 716

大

차사본풀이 607
찰밥 31, 37, 51, 100, 169, 211, 269, 320,
369, 483, 486, 517, 519, 522, 528,
533, 613, 650, 697
참봉 81, 133, 203, 254, 614
참봉고사 133, 135, 252, 650
처용가 273, 580, 711
천룡 159, 645, 658
천신 90, 112, 125, 130, 153, 160, 170, 205,
223, 227, 230, 234, 240, 309, 313,
323, 346, 490, 504, 536, 561, 567,
570, 588, 626, 631, 646, 650, 691, 726
천신대감 121, 124, 127, 240, 646, 727
천연두신 729, 731, 733
철륭 65, 88, 89, 90, 153, 159, 206, 234,
350, 365, 367, 442, 472, 488, 558,
631, 635, 643, 645, 653, 710
철륭제 657, 659
첫국밥 268, 269
첫미하기 726, 728
체 659
초감제 96, 139, 476, 480
추렴 480
축귀 29, 142, 218, 223, 225, 285, 294, 326,
327, 335, 558, 628, 660, 661
춘첩 345, 661, 664, 668
출어고사 135, 200, 668
측간고사 677
측도부인 175, 503, 606, 672, 675
측신 24, 36, 41, 113, 151, 153, 282, 442,
491, 606, 613, 620, 672
측신모시기 675
치밥 31, 564
치성 31, 37, 41, 82, 100, 104, 123, 129,
160, 164, 180, 185, 190, 200, 211,
214, 242, 250, 255, 260, 267, 280,
282, 286, 296, 301, 308, 336, 347,
352, 355, 364, 440, 479, 511, 515,
522, 525, 527, 533, 545, 583, 608,
618, 622, 634, 651, 671, 679, 687,
697, 709, 713, 715, 717, 730, 732
칠석고사 103, 186, 349, 678, 683
칠석맞이 439, 678, 684, 691
칠성 24, 41, 82, 84, 123, 126, 128, 153,
159, 162, 168, 176, 186, 192, 215,
259, 297, 350, 353, 438, 441, 459,

488, 500, 544, 558, 566, 574, 633, 646, 652, 674, 678
칠성고사 104, 678, 681, 684, 686, 688, 689, 691
칠성눌 179, 195, 206, 470
칠성단지 206, 680, 684, 688, 690
칠성본풀이 178, 192, 441, 684
칠성판 682, 685, 691

ㅋ

코시 108
키 696

ㅌ

탈 69
태세치기 149
태을보신경 209, 250, 260
택일 22, 24, 26, 44, 82, 100, 138, 152, 158, 167, 174, 176, 178, 195, 243, 250, 258, 260, 293, 321, 438, 442, 446, 449, 471, 504, 515, 523, 535, 546, 548, 572, 577, 587, 597, 605, 609, 614, 634, 636, 671, 675, 699, 726, 728
터밟기 703, 706
터주 24, 37, 39, 64, 81, 84, 89, 113, 124, 128, 147, 158, 167, 172, 209, 215, 350, 361, 365, 367, 442, 446, 449, 465, 467, 486, 488, 490, 495, 511, 516, 518, 539, 546, 555, 560, 566, 616, 626, 631,643, 650, 652, 657, 684, 687, 689, 691, 707, 723, 733
터주고사 82, 540, 635, 707, 709, 712, 718
터주시루 41, 82, 164, 442, 467
터주항아리 446, 644, 659, 707, 715
터줏가리 22, 41, 49, 90, 122, 124, 129, 206, 207, 234, 467, 490, 493, 513, 546, 557, 633, 644, 655, 658, 707, 710, 715
터줏대감 27, 90, 121, 124, 129, 172, 206, 468, 490, 631, 635, 646, 658, 707, 717, 733, 737
텃대감 126, 172, 467, 491, 493, 631, 646, 658, 707, 711
테우리 80, 92, 578
토봉고사 717
토신제 176, 614, 634, 710, 718
토정비결 44, 142, 355, 358, 451
통시각시 672, 718
퇴송 200, 259, 450

ㅍ

팥죽 64, 135, 137, 140, 142, 144, 147, 150, 158, 170, 173, 255, 262, 293, 294, 320, 333, 335, 466, 517, 535, 538, 546, 560, 597, 613, 658, 659, 677, 719, 727
팥죽제 144
표해록 201
푸는체 353
푸닥거리 34, 158, 201, 219, 251, 737
풋바심 505, 651
풍신 442, 473, 478, 481, 484, 719
풍신제 305, 474, 478, 484, 719

ㅎ

하루걸이 722
학질떼기 161, 722
한양세시기 213, 368, 453, 580
한지 37, 39, 61, 72, 77, 106, 115, 127, 129, 152, 200, 202, 204, 216, 222, 229, 239, 242, 245, 251, 258, 265, 293, 297, 299, 311, 315, 318, 320, 323, 328, 360, 363, 371, 485, 497, 513, 519, 525, 527, 535, 541, 546, 570, 573, 575, 592, 595, 598, 607, 617, 619, 630, 632, 644, 654, 656, 672, 687, 690, 708, 710, 712, 716, 723, 725, 728
해동가요 45
해동농서 696
해동죽지 45, 112, 212, 362, 453, 520, 580, 661
해물리기 153, 271, 697, 726
해채 182
햇곡식 25, 40, 82, 88, 100, 127, 137, 206, 223, 234, 255, 262, 320, 325, 360, 367, 446, 490, 495, 505, 510, 514, 519, 567, 571, 576, 593, 627, 646, 650, 658, 687, 689, 692, 707, 709, 712, 715, 726
햇곡식갈기 345, 567, 726
허궁 36, 264, 729
허수아비 35, 229, 289, 358, 451, 461, 512, 581, 585, 625
허재비 510, 585, 729
헌식 99, 106, 134, 198, 201, 534, 552, 670, 729
현몽 90, 202, 256, 471, 485, 514, 541, 587, 592
형초세시기 143, 170, 662, 719
호구별성 36, 729
호구신 729, 731
호서낭 240, 646, 733
호식장 734
홍수맥이 450, 735, 739
화재막이 230, 280, 326, 735
화재뱅이 326, 735
화주 352
횡수 302, 736, 738
횡수막이 450, 735
후토신 27, 645, 657
희식 253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필자

강권용(康權用) _ 제주해녀박물관

돗제 138
문전철갈이 178
산신멩감 250
제석할망고사 579

강성복(姜成福) _ 공주대학교

마중시루 163
모밥내가기 168
살고사 252
서낭제 300
시매 351
지신제 634

강소전(姜昭全) _ 제주대학교

귀표고사 79
넋들임 94

강영환(姜榮煥) _ 울산대학교

개토제 27
사신 238
상량제 292

구미래(具美來) _ 동국대학교

복숭아나무 217
삼칠일 284
솔가지 333

권오경 (權五慶) _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주고사 313

권태효(權泰孝) _ 국립민속박물관

미륵바위 180
제석 567

기량(奇亮) _ 국립민속박물관

상량문 287

김경남(金京南) _ 한중대학교

고사 40
성줏대 320

김기설(金起卨) _ 강릉민속문화연구소

종이성주 619

김도현(金起卨) _ 강원대학교

농신제 101
짚주저리 643

김동섭(金東燮) _ 제주도립미술관

놀굽지신 107
밧칠성 192
안칠성 440
올레신 500

김만태(金萬泰) _ 서라벌대학교

택일 699

김명자(金明子) _ 안동대학교

건궁 36
마당신 159
문신 171
용단지 513
용단지모시기 516
유두고사 537
인삼고사 540
인업 541
측신 672
터주고사 711
횡수막이 736

김미주(金美珠) _ 금오민속박물관

영등까꾸리 484

김상보(金尙寶) _ 대전보건대학교

미역 182

김선풍(金善豊) _ 한중대학교

불밝히기 230

김승찬(金承璨) _ 부산대학교

도깨비고사 134
조상모시기 594

김시덕(金時德) _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상 591
조상단지 592

김영자(金英子) _ 람아트바자

부적 223

김은희(金銀姬) _ 경기대학교

신수보기 354

김재호(金在浩) _ 안동대학교

나락 88
농사고사 98
체 659

김종대(金宗大) _ 중앙대학교

그물고사 80
바위치성 190
산동이 243
업 464

김준(金準) _ 전남발전연구원

배고사 197
배서낭함 204

김준기(金俊基) _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용알뜨기 519

김지욱(金志昱) _ 경기문화재단

굴뚝신 63
금기 81
나무고사 91
미륵불 180
방앗간신 196
애기씨 451
업가리 466
천신 650

김진순(金鎭順) _ 코리아루트

군웅 61
복대 216
새옹 295
수지 345
칠석고사 678

김창일(金昌一) _ 국립민속박물관

삼재 273
삼재부적 274

김창호(金昌鎬) _ 국립민속박물관

숯 347
자동차고사 552

김태수(金泰水) _ 삼척시립박물관

산멕이 244

김태우(金泰佑) _ 국립민속박물관

객귀밥 31
오색천 493
칠성단지 689

김헌선(金憲宣) _ 경기대학교

광청아기 52
구슬할망 57
양씨아미 457
호구신 729

김효경(金孝慶) _ 한남대학교

마당제 160
보름고사 211
삼재풀이 276
쌈 367
옥녀각시 497
키 696

나경수(羅景洙) _ 전남대학교

동토 148
백중고사 205

액막이 451
주당풀이 623

남근우(南根祐) _ 동국대학교

곡물 48
볏짚 205
석전 · 기우 · 안택 304

류종목(柳鍾穆) _ 동아대학교

동지고사 144
비손 233
철륭 653

문무병(文武秉) _ 제주교육박물관

낙인고사 92
신구간 352

문순덕(文舜德) _ 제주발전연구원

문전제 175

민경은(閔庚恩) _ 남양주역사박물관

옹기가마고사 506

민병근(閔丙槿) _ 전기박물관

제석주머니 573

박관수(朴官洙) _ 민족사관고등학교

귀신가두기 69

박대재(朴大在) _ 고려대학교

조왕중발 616

박성석(朴性錫) _ 경상대학교

부루단지 221
삼신밥 268

박용식(朴容植) _ 경상대학교

물대 179

박종익(朴鍾翼) _ 충남대학교

실타래 362
제웅 580

박흥주(朴興柱) _ 굿연구소

걸립신 38

배도식(裵桃植) _ 부산시문화재위원

쇠코뚜레 341
짐승뼈 637

배영동(裵永東) _ 안동대학교

된장 151
오곡밥 486

백민영(白旻永) _ 국립민속박물관

삼신 254
삼신모시기 261
양밥 456

상기숙(尙基淑) _ 한서대학교

동국세시기 141

서종원(徐鍾源) _ 단국대학교

제웅버리기 583
조기심리 588

서해숙(徐海淑) _ 전남대학교

시루떡 349
쌀 365
업맞이 469
장독신 558
좀도리 618
지신 631

송화섭(宋華燮) _ 전주대학교

철륭제 657

시지은(施知恩) _ 경기대학교

오방지신 489

신영순(申永順) _ 국립중앙과학관

솥 336
조군영적지 586
조왕 605
조왕고사 611

안상경(安相敬) _ 충북대학교

방위가리기 197
병경 208

안태현(安泰賢) _ 옛길박물관

웃줄할매 535
화재막이 735

안혜경(安惠敬) _ 지역문화연구소

대주 131
삼잡기 270
입택고사 545
주부 625

양종승(梁鍾承) _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무속고 601
조선의귀신 603

오문선(吳文仙) _ 서울시청

단잡기 115
대감단지 127

오선영(吳仙榮) _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왕신단지 511

오선화(吳善花) _ 수원화성박물관

예조 485
정초차례 562

오세길(吳世吉) _ 동의과학대학교

영등 473
용왕 522

유승훈(柳承勳) _ 부산박물관

대구심리 130
소금 326
염전고사 472

유철인(庾喆仁) _ 제주대학교

굴부르기제 65

윤동환(尹東煥) _ 고려대학교

중구차례 626

이건욱(李健昱) _ 국립민속박물관

똥떡먹이기 154
엄나무 463

이경엽(李京燁) _ 목포대학교

배서낭 201
출어고사 668

이관호(李官浩) _ 국립민속박물관

기자 83
영등고사 477
터주 707

이균옥(李均玉) _ 안동대학교

삼신단지 258
섬떡 307

이기태(李淇泰) _ 고려사이버대학교

안택 441
정월떡 561
터밟기 703

이명진(李明珍) _ 국립문화재연구소

곳간신 51
마구간고사 158
올벼심리 504

이복규(李福揆) _ 서경대학교

조선 598

이성희(李聖熙) _ 경희대학교

어부심 460

이수자(李秀子) _ 중앙대학교

야광귀 452
제석할망 577

이영식(李英植) _ 강릉원주대학교

삼신바가지 265
서낭신 297

이영진(李榮鎭) _ 경북과학대학교

개공제 25
지붕신 627

이옥희(李玉姬) _ 목포대학교

성줏단지 319

이유나(李泑娜) _ 수원화성사업소

삼신짚 269

이윤선(李允先) _ 목포대학교

제석오가리 569
한지 723

이인화(李仁和) _ 내포민속문화연구소

못자리고사 169
밀떡 186

이정재(李丁宰) _ 경희대학교

삼신대 258
손 331

이창식(李昌植) _ 세명대학교

삼짇고사 282
터줏가리 716

이필영(李弼泳) _ 한남대학교

객귀물리기 29
바꾸보살 190
왕신 509
임신네 544
잔밥먹이기 555
잡신이바지 642

이한길(李漢吉) _ 강릉원주대학교

단오고사 112
칠성고사 684
토봉고사 717

임근혜(任槿惠) _ 안성맞춤박물관

성주 307

임승범(林承範) _ 문화재청

거리제 34
논둑제 97
담배고사 121
동토잡기 149
성주매기 317
위목 535

임장혁(任章赫) _ 중앙대학교

정화수 565

장상교(張庠敎) _ 국립민속박물관

시루 347

장장식(張長植) _ 국립민속박물관

사신대감 239
호서낭 733

장정룡(張正龍) _ 강릉원주대학교

산 240

전지혜(全持慧) _ 부경대학교

북어 227

정래진(丁來振) _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삼신받기 266

정연학(鄭然鶴) _ 국립민속박물관

고추 47
문간제 170
춘첩 661

조선영(曺善映) _ 국립민속박물관

우마신 530

조정현(曺鼎鉉) _ 안동대학교

햇곡식갈기 726

주영하(周永河) _ 한국학중앙연구원

메밀묵 167
팥죽 719

천진기(千鎭基) _ 국립민속박물관

돼지코 151
소삼신 327
호식장 734

천혜숙(千惠淑) _ 안동대학교

아이팔기 438

최래옥(崔來沃) _ 한양대학교

고수레 45

표인주(表仁柱) _ 전남대학교

신줏단지 359
우물제 531
칠성 680

한양명(韓陽明) _ 안동대학교

용왕제 526
탈 698

허용호(許龍鎬) _ 전남대학교

도깨비 132

홍태한(洪泰漢) _ 중앙대학교

대감 121
대감벙거지 128

황경숙(黃京淑) _ 부경대학교

귀신종이 72
귀신종이모시기 75

황경순(黃慶順) _ 국립문화재연구소

가을고사 22
고깔 39

산바람막기 249
세존 322
세존단지 323
소삼신모시기 328
측신모시기 675

황루시(黃縷詩) _ 관동대학교

산치성 251
상문풀기 294
학질떼기 722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통합목차

ㄱ

가망	무속	22
가신위목	무속	22
가야진용신제	마을	22
가을고사	가정	22
가지꽃	무속	23
각심절본	무속	24
감흥시루	무속	25
감흥신령	무속	26
감흥화	무속	27
강	마을	25
강대형	무속	27
강릉단오제	무속	28
강릉안인진해령사	마을	25
강릉행깨마을고청제	마을	28
강신	마을	30
강신무	무속	31
강진사문안석조상	마을	32
강화교동도부군당제	마을	34
강화교동도자신당	마을	39
강화도외포리곶창굿	무속	33
개	마을	40
개공제	가정	25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무속	39
개양할미	마을	41
개토제	가정	27
객귀	무속	39
객귀물리기	가정	29
객귀밥	가정	31
거령산	무속	39
거리밥	무속	40
거리밥	가정	34
거리제	마을	43
거리제	가정	34
거무장단	무속	41
거무춤	무속	41
거상장단	무속	42
거상춤	무속	43
거창거기리말무덤	마을	45
거창농산리입석음각선인상	마을	46
거창당동당산	마을	47
거창대동마을액막이제	마을	49
건궁	가정	36
걸궁	마을	51
걸립	마을	51
걸립명두	무속	44
걸립상	무속	44
걸립신	무속	45
걸립신	가정	38
걸립패	마을	54
걸립화	무속	46
겉연	무속	46
겜심바침	무속	48
겹마치	무속	48
경관만신	무속	48
경기도굿무복	무속	49
경기도도당굿	무속	51
경산자인단오제	마을	59
경순왕	마을	64
계룡산산신제	마을	64
계면	무속	60
계면떡	무속	62
고	무속	63
고깔	가정	39
고동화	무속	64
고드개무당	무속	65
고리동반	무속	65
고리짝	무속	66
고사	가정	40
고사반	무속	67
고삼	무속	67
고성석마리석마	마을	69
고수레	마을	70
고수레	가정	45
고창사내리당산	마을	70
고창오거리당산	마을	71
고창오거리당산제	마을	74
고창임리마을짐대당산제	마을	77
고청제	마을	81
고추	가정	47
고팡신	가정	48
고풀이	무속	67
고희정	무속	68
곡물	가정	48
곡성옥과성황당목조신상	마을	82
골맥이	마을	84
골맥이	무속	69
골맥이제	마을	86
곳간신	가정	51
공민왕	마을	88
공수	무속	70
공싯상	무속	72
공주고마나루웅진단	마을	91
공주동해리산신제	마을	92
공주동해리산향계문서	마을	95
공주무성산산제당	마을	97
공주부전대동계문서	마을	99
공주상세동산신도	마을	102
공주세동리산향계문서	마을	104
공주탄천장승제	마을	106
공창무	무속	72
공하	마을	110
곽머리씻김굿	무속	73
관성제군	무속	74
광대감	가정	52
광대춤	무속	75
광양당제	무속	75
광인굿	무속	77
광주엄미리장승제	마을	111
광주칠석동당산제	마을	112
광청아기	가정	52
광청애기본풀이	무속	79
괴산문당리성황단	마을	114
구덕북	무속	81
구례구산리입석	마을	115
구리갈매동도당굿	무속	81
구삼싱냄	무속	83
구솔할망	가정	57
구애비	무속	84
구일차례	가정	61
구파발본	무속	85
국무	무속	86
국사당	마을	116
국사당무신도	무속	86
국사당제	마을	119
군문기	무속	89
군문춤	무속	90
군웅	무속	92
군웅	가정	61
군웅방울	무속	93
군웅본풀이	무속	93
군웅상	무속	96
군웅춤	무속	97
굴대장군	가정	63
굴뚝신	가정	63
굴레고사	가정	65
굴부르기제	가정	65
굿	무속	97
굿거리장단	무속	103
궁상이무가	무속	103
권전	마을	122
궤눼깃당본풀이	무속	106
귀신가두기	가정	69
귀신종이	가정	72
귀신종이모시기	가정	75
귀표고사	가정	79
그물고사	가정	80
그물코사	마을	123
극락문	무속	109
금기	마을	123
금기	가정	81
금산농바우끄시기	마을	125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마을	130
금산천내리용호석	마을	131
금산청징연기우제당	마을	133
금성당	무속	109
금성대왕	무속	112
금이신장	무속	113
금줄	마을	135
금토	마을	137
기고사	마을	137
기대잽이	무속	113
기메	무속	115
기밀	무속	116
기우제	마을	138
기우제등록	마을	143
기자	가정	83
길대장굿	무속	116
길베	무속	117
길지	마을	145
김광수	무속	119
김금화	무속	119
김남순	무속	121
김대례	무속	122
김병옥	무속	123
김부대왕	마을	149
김석출	무속	123
김영희	무속	125
김옥렴	무속	126
김용택	무속	126
김유감	무속	128
김유선	무속	129
김유신	무속	130
김윤수	무속	131
김장길	무속	132
김제월촌입석	마을	150
김찬섭	무속	133
김춘강	무속	134
꼭두청	무속	136
꽃맞이굿	무속	136
꽃반세우기	무속	137

ㄴ

나락	가정	88
나무고사	가정	91
나이떡	가정	91
나주용진당제	마을	156
낙인고사	가정	92
낙화유수	무속	142
날받이씻김굿	무속	142
남양주덕릉마을산신각	마을	158
남양주팔현마을산신당	마을	160
남원삼동굿	마을	162
남원서천리당산	마을	166
남이 장군	무속	144
남이장군사당제	무속	145
남해가천암수바위	마을	167
남해물건리동제	마을	168
남해안세습무무복	무속	156
남해안별신굿	무속	149
남해안오구굿	무속	157
내림굿	무속	159
내림춤	무속	162
너울	무속	162
넋(무구)	무속	163
넋(용어)	무속	165
넋노래채	무속	165
넋당석	무속	166
넋들임	가정	94
넋춤	무속	166
넋칼	무속	168
노고할미	마을	172
노구솥	가정	97
노누메기	무속	168
노들본	무속	169
노무편	무속	170
노신제	마을	172
녹음이시루	무속	171
논고사	가정	97
논공천왕당	마을	172
논둑제	가정	97
논산반곡리산신제	마을	173
논산부인당산제	마을	178
논산양암동계문서	마을	182
논산주곡리장승제	마을	182

논산후동동계문서 마을 185
놋동이 무속 171
농기 마을 186
농사고사 가정 98
농신제 가정 101
농포신 마을 190
농포제 마을 190
눈설화 무속 172
눌굽지신 가정 107
느진연물 무속 173

ㄷ

다리굿 무속 176
다리화 무속 177
다자구할머니 마을 194
단골 무속 178
단군 무속 179
단양두악산소금무지제 · 기우제 마을 195
단오고사 가정 112
단오맞이굿 무속 181
단잡기 가정 115
단잡이굿 무속 181
단종 무속 183
단풍맞이굿 무속 185
닭 마을 200
담배고사 가정 121
당기 마을 201
당떡 무속 187
당맨심방 무속 188
당산 마을 203
당산나무 마을 203
당산맞이굿상 무속 189
당산옷입히기 마을 205
당산제 마을 209
당신화 마을 212
당진안섬당제 무속 189
당클 무속 192
대감 무속 193
대감 가정 121
대감굿무가 무속 194
대감단지 가정 127
대감벙거지 가정 128
대감시루 무속 194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당 무속 196
대구심리 가정 130
대너리 무속 196
대너리춤 무속 197
대덕법동리석장승 마을 214
대동회 마을 215
대령상 무속 197
대명왕사자기 무속 198
대모 무속 198
대사산이 무속 199
대상 무속 199
대수대명 무속 201
대신발 무속 201
대신방울 무속 202
대신상 무속 202
대신칼 무속 203
대안주상 무속 204
대전계족산기우제 마을 217
대전무수동국사봉 마을 219
대전무수동동계문서 마을 220
대전무수동산신제 마을 222
대전외삼동산신제 마을 224
대전의앉은굿 무속 205
대주 가정 131
대철망 무속 207
덤불국화 무속 208
덤장고사 가정 132
도가 마을 226
도깨비 가정 132
도깨비고사 가정 134
도깨비굿 무속 209
도깨비제 마을 227
도당 무속 210
도당상 무속 211
도당신 마을 229
도랑성비 청정각씨 노래 무속 212
도래둘러맴 무속 214
도령돌기 무속 216
도령춤 무속 216
도부 무속 217
도살풀이 무속 218
도살풀이춤 무속 218
도신 가정 138
도채비방쉬 무속 219
도포 무속 219
도황수 무속 221
독경 무속 221
독집 무속 223
돈전개 무속 223
돈전풀이 무속 223
돈지할망 마을 232
돈짓당신 마을 233
돌탑 마을 233
돌하르방 마을 236
돗제 가정 138
동국세시기 가정 141
동다리 무속 227
동답 마을 237
동맹 마을 237
동사 마을 238
동살풀이 무속 228
동이춤 무속 228
동이풀이굿 무속 229
동자대 무속 231
동자상 무속 232
동제계 마을 239
동제홀기 마을 240
동지고사 가정 144
동토 가정 148
동토잡기 가정 149
동티 마을 242
동해대진동도신제 · 재고사 마을 242
동해동호동천제단 마을 244
동해동호동천제단제 마을 247
동해봉정마을고청제 마을 250
동해신흥동도서낭제 마을 252
동해안 세습무 무복 무속 238
동해안별신굿 무속 233
동해안오구굿 무속 239
동해어달동서낭제 · 해성제 마을 255
동화대 마을 257
돼지 마을 259
돼지코 가정 151
된장 가정 151
두두리 무속 243
두린굿 무속 243
둑제당 마을 260
뒤주대왕 마을 266
뒷전무당 무속 245
뒷전상 무속 246
드렁갱이 무속 247
디딜방아 마을 261
디딜방아뱅이 마을 264
떡 마을 266
떰쿵장단 무속 248
떵떵이장단 무속 248
똥떡먹이기 가정 154
뜬귀물리기 가정 155
띠배 마을 269
띠배 무속 249

ㅁ

마고할미 마을 274
마구간고사 가정 158
마당밟이 마을 274
마당신 가정 159
마당제 가정 160
마대장군 가정 163
마련방 마을 274
마마배송굿 무속 254
마마신 무속 255
마불림제 무속 255
마을돌기 마을 275
마제 마을 276
마중시루 마을 278
마중시루 가정 163
막꽃 무속 256
막음쟁이 무속 257
만구대택굿 무속 258
만당제물 무속 260
만성수부채 무속 261
만세바지장단 무속 262
만수대탁굿 무속 263
만신 무속 263
말명 무속 263
말미상 무속 264
말축굿 마을 279
망묵이굿 무속 265
망자상 무속 267
망자혼사굿 무속 268
망제 마을 279
망지 마을 281
맞고사 가정 167
매당왕신 마을 282
매화 무속 270
맴돌이장단 무속 270
맹감본풀이 무속 271
맹인신장 무속 273
메 마을 284
메밀 마을 285
메밀묵 가정 167
멩감제 무속 274
멩감제 가정 168
명다리 무속 276
명도 무속 277
명두굿무가 무속 277
모름채 무속 279
모밥내가기 가정 168
모탕고사 가정 169
모포줄 마을 285
목단꽃 무속 280
목제남근 마을 288
목축신 마을 289
몸기 무속 280
몸주대감 무속 281
몸주신 무속 282
못자리고사 가정 169
몽달귀신 무속 283
몽두리 무속 283
무감 무속 286
무경 무속 287
무고 무속 288
무당 무속 289
무당내력 무속 292
무세 무속 294
무안발산마을미륵당산 마을 289
무조신 무속 295
무주고혼 마을 291
무주내창마을산제 마을 293
무천 마을 296
무후제 마을 296
묵은진오기굿 무속 297
문간제 가정 170
문경성저리동제 마을 296
문경소야리동제 마을 299
문굿무가 무속 299
문신 가정 171
문전본풀이 무속 299
문전제 무속 302
문전제 가정 175
문전철갈이 무속 304
문전철갈이 가정 178
물대 가정 179
물부리굿 무속 306
미닫이 무속 306
미륵당 마을 301
미륵바위 가정 180
미륵불 가정 180
미역 가정 182
미친경 무속 307
밀떡 가정 186

ㅂ

바꾸보살 가정 190

바라지 무속 312
바라춤 무속 312
바리공주 무속 313
바위치성 가정 190
박경자 무속 315
박꽃 무속 316
박병원 무속 317
박병천 무속 318
박수 무속 319
박용녀 무속 319
반기 마을 306
반야용선 무속 320
발뻐드레 무속 322
밟이춤 무속 322
밤섬부군당도당굿 무속 322
밥무덤 마을 308
밧칠성 가정 192
방망이떡 무속 327
방석화랭이 무속 328
방앗간신 가정 196
방울떡 무속 329
방위가리기 가정 197
밭고사 가정 197
배고사 가정 197
배서낭 가정 201
배서낭함 가정 204
배성주 가정 205
백련화 무속 330
백마장군 무속 331
백중고사 가정 205
백지 마을 313
백학 무속 332
뱃기 마을 313
뱅이 마을 315
벅구춤 무속 332
벅수 마을 315
벅수제 마을 315
범일국사 무속 333
법사 무속 334
법수선원 산신도 무속 335
벗고사 가정 205
벙거지떡 무속 336
베포도업춤 무속 337
별기은 무속 338
별상춤 무속 338
볏가리제 마을 318
볏가릿대 마을 315
볏짚 가정 205
병경 가정 208
병굿 무속 339
보령외연도당제 마을 321
보령외연도전횡장군사당 마을 324
보름고사 가정 211
보성당촌별신당 마을 326
보성당촌별신당제 마을 328
복대 가정 216
복물뜨기 가정 217
복숭아나무 가정 217
복제 가정 221
본향 무속 341
본향당굿 무속 342
본향상 무속 342
본향춤 무속 343
봉등채 무속 343
봉죽 무속 344
봉죽기 마을 332
봉지밥 마을 332
봉화산도당굿 무속 345
부군 무속 350
부군당 마을 332
부군당제 마을 336
부락제 마을 340
부루단지 가정 221
부산강선대당산 마을 342
부산당리동제석할매당 마을 346
부산대리당산 마을 348
부산두호마을당제 마을 351
부산수내리고당할미당 마을 353
부산수영할매당 마을 354
부산신선동산제당 · 아씨당 마을 357
부산청사포당산 마을 360
부안돌모산당산제 마을 363
부안동문안당산 마을 366
부안서문안당산 마을 369
부안죽림리석장승 마을 372
부여괴목마을노신제 마을 375
부여내지리단잡기 마을 377
부여포사마을산신제 마을 380
부적 가정 223
부정 마을 383
부정 무속 352
부정상 무속 352
부정풀이 무속 353
부천깊은구지도당제 마을 386
북어 가정 227
불도맞이 무속 354
불막이 가정 230
불막이제 마을 388
불밝이쌀 마을 390
불밝히기 가정 230
불백기 마을 393
불보살번 무속 357
불사맞이굿 무속 359
불사상 무속 360
불사할머니 무속 361
비래쟁이 무속 362
비보 마을 393
비손 가정 233
빈순애 무속 363
빙의 무속 365
뼈매달기 마을 395

ㅅ

사귀대 무속 370
사냥타령 무속 371
사도세자 마을 400
사슬세우기 무속 371
사슬타령 무속 372
사신 무속 373
사신 가정 238
사신대감 가정 239
사신반혼굿 무속 374
사신성황당현판 무속 375
사자맥이 무속 377
사자상 무속 379
사천가산리석장승 마을 401
산 가정 240
산동이 가정 243
산막 마을 403
산메기 무속 380
산멕이 가정 244
산바라기상 무속 382
산바람막기 가정 249
산소탈막기 가정 250
산신 마을 403
산신 무속 382
산신당 마을 405
산신멩감 무속 385
산신멩감 가정 250
산신제 마을 408
산씻김굿 무속 386
산오구굿 무속 387
산치성 가정 251
산함박 무속 389
살 무속 390
살고사 가정 252
살맥이 무속 391
살장 무속 393
살잽이꽃 무속 394
살전지 무속 395
살풀이 무속 395
삼공맞이가면 무속 397
삼공본풀이 무속 397
삼공잽이 무속 400
삼국지위서동이전 마을 410
삼두구미본풀이 무속 401
삼멩두 무속 402
삼사자 무속 403
삼산돌기 무속 405
삼성혈 마을 411
삼성혈제 마을 415
삼승할망본풀이 무속 406
삼신 무속 408
삼신 가정 254
삼신단지 가정 257
삼신대 가정 258
삼신모시기 가정 261
삼신바가지 가정 265
삼신받기 가정 266
삼신밥 가정 268
삼신짚 가정 269
삼오장 무속 412
삼잡기 가정 270
삼장개비 무속 414
삼재 가정 273
삼재맞이 무속 414
삼재부적 가정 274
삼재풀이 가정 276
삼지창 무속 418
삼짇고사 가정 282
삼척신남마을해신제 마을 420
삼척한두골용소 마을 427
삼척호산리서낭제 마을 429
삼칠일 가정 284
삼태자풀이 무속 419
삼토신령 무속 421
삼현춤 무속 421
상달고사 가정 287
상량문 가정 287
상량제 가정 292
상문 무속 422
상문풀기 가정 294
상산춤 무속 423
상식상 무속 423
상주천봉산성황제 마을 433
새남굿 무속 425
새미하로산당 무속 440
새발심지 무속 441
새알뜨기 가정 295
새옹 가정 295
새ᄃᆞ림춤 무속 439
샘제 마을 435
샛별굿화 무속 442
생기복덕 마을 438
생떡국 마을 440
생불할망본풀이 무속 443
서낭 무속 443
서낭기 무속 445
서낭당 마을 440
서낭신 마을 445
서낭신 가정 297
서낭제 마을 446
서낭제 가정 300
서빙고동부군당 무속 446
서산옥녀제 마을 451
서산차리산제 마을 454
서산창리영신제 마을 456
서울가양동성황제 마을 459
서울굿무복 무속 448
서울당인동부군당제 마을 461
서울도곡동도당제 마을 463
서울동빙고동부군당제 마을 464
서울부암동산신제 마을 467
서울새남굿 무속 451
서울서빙고동부군당 마을 469
서울서빙고동부군당제 마을 470
서울신기리도당제 마을 473
서울신수동북개당화분 마을 474
서천마량리당제 마을 47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무속 454
석전 · 기우 · 안택 마을 481
석전 · 기우 · 안택 가정 304
석척기우 마을 484
선돌 마을 485
선무당 무속 460
선문대할망 마을 486
선부리장단 무속 461
선왕 가정 307
선왕상 무속 462
선왕제 가정 307
설경 무속 463
설문대할망 마을 486
설쇠 무속 464

설위설경	무속	465
섬떡	가정	307
성수	무속	466
성수청	무속	467
성인굿	무속	468
성제묘	마을	487
성제묘관우제사	마을	489
성주	가정	307
성주고사	가정	313
성주굿	무속	470
성주매기	가정	317
성주상	무속	473
성주풀이	무속	473
성줏단지	가정	319
성줏대	가정	320
성황제	마을	491
세경본풀이	무속	475
세령무	무속	479
세민황제본풀이	무속	480
세습무	무속	481
세이레	가정	322
세존	가정	322
세존단지	가정	323
셍굿무가	무속	482
소	마을	493
소가면	무속	484
소금	가정	326
소금단지	마을	495
소도	마을	497
소미	무속	485
소삼신	가정	327
소삼신모시기	가정	328
소설경	무속	486
소슬굿	무속	486
소지	마을	498
속연	무속	490
손	가정	331
손각시	무속	491
손님굿	무속	492
손님굿무가	무속	495
손돌제	마을	501
손전	무속	497
솔가지	가정	333
솟대	마을	505
솟대제	마을	508
송경	가정	336
송당리마을제	무속	497
송당본향당	무속	499
송동숙	무속	500
송선자	무속	502
송송개	무속	503
송징장군	마을	511
송천달집태우기	마을	513
솥	가정	336
쇠걸립	무속	503
쇠말	마을	517
쇠코뚜레	가정	341
쇠풍장	무속	504
수구맥이	마을	517
수부채	무속	505
수비	무속	506
수비장단	무속	506
수산본향당	무속	507
수성당	무속	508
수세	가정	345
수양부모삼기	가정	345
수원영동거북산당	마을	520
수지	가정	345
수팔련	무속	510
숙영랑앵연랑신가	무속	513
순창산동리남근석	마을	523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마을	524
순창성황제	마을	528
순창창덕리남근석	마을	530
순천구산용수제	마을	531
순천삼설양굿	무속	513
숯	가정	347
쉰대부채	무속	516
스승청	무속	517
시나위	무속	518
시루	가정	347
시루떡	가정	349
시루말	무속	518
시매	가정	351
시무굿무가	무속	520
시왕기	무속	524
시왕도	무속	524
시왕맞이	무속	525
신과세제	무속	527
신광주리춤	무속	529
신구간	가정	352
신내림	무속	530
신대	마을	532
신딸	무속	530
신만곡대제	무속	531
신방	무속	545
신벌	마을	537
신법	무속	532
신병	무속	533
신부리	무속	533
신석남	무속	537
신석봉	무속	538
신수보기	가정	354
신위	마을	537
신위행	무속	538
신장대	무속	539
신장위목	무속	540
신줏단지	가정	359
신청궤춤	무속	540
신청울림	무속	541
신충애기	가정	362
신칼	무속	542
신태집	무속	543
실타래	가정	362
심방백중제	무속	545
심방청	무속	546
심청굿무가	무속	547
십대왕	무속	550
싹불이가면	무속	551
쌀	가정	365
쌈	가정	367
쑹거장단	무속	552
쑹거타령	무속	553

아이팔기	가정	438
아흔아홉상쇠방울	무속	622
악공청	무속	622
안당사경맞이상	무속	623
안당제석상	무속	624
안동가송리동제	마을	592
안동서지리성황당	마을	596
안동하회동동제	마을	597
안사인	무속	625
안산잿머리성황당	무속	626
안성아롱개마을미륵댕이	마을	600
안칠성	가정	440
안택	가정	441
안택굿	무속	627
애기씨	가정	451
애기씨·동자꽃	무속	630
액	마을	603
액막이	가정	451
액막이굿	무속	630
액막이상	무속	633
액매기	마을	605
야광귀	가정	452
약사불사	무속	635
양반	가정	456
양산지산리부부상	무속	635
양씨아미	가정	457
양양동해신묘지	마을	608
양양임천리서낭제	마을	610
양양죽정자리서낭제	마을	611
양주소놀이굿	무속	636
어부심	가정	460
언월도	무속	638
얼새남	무속	640
엄나무	가정	463
업	가정	464
업가리	가정	466
업맞이	가정	469
여귀	마을	615
여수영당지	마을	616
여수화산마을당제	마을	618
여제	마을	621
여제등록	마을	623
여탐굿	무속	640
역가상	무속	640
연기원수산산신제문서	마을	624
연기학봉마을기고사	마을	627
연양탁상	무속	641
연지당상	무속	642
연풍대	무속	642
염불	무속	642
염전고사	가정	472
영감가면	무속	644
영감놀이	무속	645
영감춤	무속	647
영게상	무속	649
영고	마을	629
영광도동리석장승	마을	631
영광법성포단오제	마을	632
영광안마도당제	마을	635
영광우평마을당산제	마을	638
영돈	무속	649
영동당곡리십이장신당	마을	642
영등	가정	473
영등고사	가정	477
영등굿	무속	650
영등까꾸리	가정	484
영산대감춤	무속	653
영암남해당지	마을	644
영암정동정호제	마을	645
영월영모전	마을	647
영장치기	무속	654
영주읍내리성황제	마을	649
영주읍내리성황제문서	마을	656
영집	무속	656
영천자천리오리장림	마을	660
영해별신굿놀이	무속	657
영험담	마을	661
예산대흥소도독사	마을	663
예산운산2리산신제	마을	665
예조	가정	485
예천작평마을서낭제	마을	669
오곡밥	가정	486
오방돌리기	마을	670
오방신장	무속	659
오방신장기	무속	660
오방제	마을	671
오방지신	가정	489
오색천	마을	673
오색천	가정	493
오수복	무속	661
오온신제	마을	673
오쟁이	마을	675
옥녀각시	가정	497
옥녀살	가정	500
옥수그릇	무속	662
옥천청마리제신탑	마을	676
옥황상제	무속	663
올개심니	가정	500
올레대위	가정	500
올레신	가정	500
올림채	무속	664
올림채춤	무속	665
올벼심리	가정	504
옹기가마고사	가정	506
와룡묘	무속	665
와룡선생	무속	667
와흘본향당	무속	667
완도어두마을갯제	마을	677
완도예송리당산	마을	680
완도장좌리당제	마을	681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무속	668
완주고당리고당	마을	686
왕신	가정	509
왕신단지	가정	511
왕십리본	무속	675
왕십리아기씨당	무속	676
요왕차사상	무속	678
용기	마을	688
용단지	가정	513
용단지모시기	가정	516

용수동당산 마을 688
용신 무속 679
용신제 마을 689
용알뜨기 가정 519
용왕 가정 522
용왕기 무속 681
용왕밥 무속 681
용왕상 무속 683
용왕제 마을 689
용왕제 가정 526
용인상하동할미지석제 마을 691
우마신 가정 530
우물제 마을 693
우물제 가정 531
우불산신사 마을 693
우실 마을 696
울릉해신제 마을 697
울쇠 무속 685
울주방기리알바위 마을 701
울진12령새재성황사 마을 703
울진개바우마을동제문서 마을 707
웃줄할매 가정 534
원귀 마을 712
원미상 무속 686
원삼 무속 687
원주강원감영제 마을 712
원주강원감영지 마을 713
원주원성성남리성황림 마을 715
원천강본풀이 무속 688
월악산신제 마을 716
월평다라쿳당 무속 689
위도대리마을원당 무속 691
위도띠뱃놀이 무속 692
위목 가정 535
위토 마을 718
위패 마을 718
유가돌기 마을 718
유두고사 가정 537
유천동산신제 마을 718
은산별신제 무속 698
음복 마을 722
음성마송리석장승 마을 723
의무 무속 703
의술가면 무속 704
의원가면 무속 704
이공본풀이 무속 705
이명옥 무속 707
이사제 마을 724
이상순 무속 708
이선비 무속 708
이어인년 무속 710
이월할매 가정 540
이정연 무속 711
이종순 무속 712
이중춘 무속 713
이천정개산산신제 마을 724
인구전 마을 727
인물개 무속 714
인삼고사 가정 540
인업 가정 541
인왕산국사당 무속 716
일뤠또본풀이 무속 717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마을 727
일산동당제 마을 729
일산동당제 무속 719
일월개 무속 721
일월노리푸념 무속 723
임경업장군 무속 725
임신네 가정 544
임실구암리도깨비제 마을 732
임실사곡리남근석 마을 733
입석 마을 734
입춘굿 무속 726
입택고사 가정 545
입향시조 마을 734

ㅈ

자동차고사 가정 552
자삼 무속 736
자진한잎 무속 736
작두 무속 737
작두장군 무속 738
작두춤 무속 739
잔밥먹이기 가정 555
잡귀 마을 738
잡귀잡신 무속 740
장구떡 무속 742
장군개 무속 743
장군상 무속 743
장독신 가정 558
장동산디마을탑제 마을 740
장말도당굿 무속 744
장발 무속 748
장보배 무속 749
장산마고당 · 천제당 마을 743
장삼 무속 750
장성생촌마을당산제 마을 746
장성영천리방울샘 마을 749
장세일 무속 752
장승 마을 750
장승제 마을 756
장자풀이 무속 753
장흥방촌리석장승 마을 761
장흥호계리동계문서 마을 764
장흥호계리별신제 마을 767
재가집 무속 755
재수굿 무속 756
재인청 무속 762
저승본풀이 무속 763
저승사자 무속 766
전금순 무속 766
전복 무속 767
전북의 앉은굿 무속 770
전북–충남무속음악 무속 771
전안상 무속 773
전횡장군 마을 770
절미 가정 561
점사 무속 773
정모연 무속 773
정숙자 무속 774
정영만 무속 775
정월고사 가정 561
정월떡 가정 561
정읍백암리남근석 마을 772
정읍원오류마을당산제 마을 773
정읍원정마을당산제 마을 776
정정괴 무속 776
정정애 무속 776
정주 무속 777
정초차례 가정 562
정학봉 무속 779
정화 마을 778
정화수 가정 565
제관 마을 781
제금 무속 780
제마수 무속 782
제미하기 가정 567
제석 가정 567
제석노래채 무속 782
제석본풀이 무속 782
제석상 무속 785
제석오가리 가정 569
제석주머니 가정 573
제석춤 무속 786
제석할망 가정 577
제석할망고사 가정 579
제수물목기 마을 781
제웅 마을 784
제웅 가정 580
제웅버리기 가정 583
제주(祭主) 마을 786
제주(祭酒) 마을 786
제주골왓마을방사탑 마을 788
제주굿무복 무속 787
제주납읍리마을제 마을 790
제주납읍리포제단 마을 792
제주도내왓당무신도 무속 789
제주몰래물마을방사탑 마을 793
제주무릉2리평지동포제 마을 794
제주무릉리방사탑 마을 797
제주복신미륵 마을 800
제주상귀리당제 마을 801
제주성읍리포제 마을 802
제주쇠당의례 마을 804
제주신촌리포제 마을 805
제주신흥리방사탑 마을 808
제주신흥리포제 마을 810
제주어음리비멘이당제 마을 812
제주온평리포제 마을 814
제주용수마을방사탑 마을 816
제주인성리거욱대 마을 817
제주제석제 마을 820
제주제충제 마을 821
제주최영장군사당 마을 822
제주추자도천제 · 장군제 마을 823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무속 792
제주큰굿 무속 799
제주풍해방지의례 마을 826
제주해신사 마을 828
제주해신제 마을 828
제주행원리포제 마을 832
제주회천동석불제 마을 834
제천면산산신제 마을 835
제천오티별신제 마을 839
제천입석리선돌 마을 844
조군영적지 가정 586
조금례 무속 803
조기심리 가정 588
조너리 무속 804
조라 마을 845
조라술 무속 804
조상 무속 805
조상 가정 591
조상단지 가정 592
조상대 무속 806
조상모시기 가정 594
조상상 무속 807
조상종이 가정 598
조상화 무속 808
조선 가정 598
조선무격의신가 무속 808
조선무속고 무속 809
조선무속고 가정 601
조선무속의연구 무속 810
조선신가유편 무속 811
조선의귀신 가정 603
조선의무격 무속 812
조순자 무속 814
조왕 가정 605
조왕고사 가정 611
조왕중발 가정 616
좀도리 가정 618
종이성주 가정 619
주당풀이 가정 623
주부 마을 845
주부 가정 625
주저리 마을 846
죽령산신 마을 848
죽령산신당 마을 848
죽령산신제 마을 849
죽령산신제문서 마을 851
죽산이 가정 626
중구차례 가정 626
중디밧산 무속 814
증평남차리수살제 마을 852
지리산남악사 마을 855
지리천문신장 무속 814
지벌 마을 856
지붕신 가정 627
지신 가정 631
지신밟기 마을 859
지신밟기 가정 634
지신제 가정 634
지앙 가정 637
지앙밥 무속 815
지장본풀이 무속 815
지전 무속 817
지전춤 무속 820
지하장군 무속 820
진가장무가 무속 821
진도채씨무계 무속 829
진도수역마을충제 마을 863
진도씻김굿 무속 823

진도해창마을당제 마을 865
진쇠 무속 831
진쇠춤 무속 832
진오기굿 무속 832
진적굿 무속 834
진주명석자웅석 마을 867
진진오기굿 무속 839
짐대 마을 869
짐대제 마을 869
짐승뼈 가정 637
집들이고사 가정 642
짐말 마을 869
짚신이바지 가정 642
짚장군 마을 871
짚주저리 가정 643
쪼시개 무속 839

ㅊ

차사본풀이 무속 844
찰밥 가정 650
참봉고사 가정 650
참신 마을 876
창귀 마을 876
창부씨 무속 844
창호지 마을 877
채계만 무속 846
천군 마을 878
천궁맞이상 무속 847
천근소리 무속 847
천금새남굿 무속 849
천상제 마을 878
천신 가정 650
천왕대 무속 849
천왕메기 마을 879
천왕메기굿 무속 851
천존위목팔부신대 무속 852
천지왕본풀이 무속 853
철륭 가정 653
철륭제 가정 657
철릭 무속 854
철마 마을 881
철망 무속 857
철물이굿 무속 858
철쭉대 무속 861
첨사통 무속 861
청계상 무속 862
청너울 무속 862
청단일 마을 882
청도비동당제 마을 883
청룡도 무속 863
청송무당 무속 864
청양정산동화제 마을 885
청양청소리산신제문서 마을 891
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 마을 893
청주선도산장승제 마을 895
체 가정 659
초공본풀이 무속 865
초롱등 무속 868
최갑선 무속 868
최영장군 무속 870
최음전 무속 871
최형근 무속 872
추라 무속 873
축문 마을 898
춘첩 가정 661
출어고사 가정 668
충렬굿무가 무속 874
충제 마을 899
충주목계별신제 마을 901
충청도독경무복 무속 875
취타 무속 876
측신 가정 672
측신굿 무속 877
측신모시기 가정 675
치성비요 마을 905
칠석고사 가정 678
칠성 가정 680
칠성검 무속 879
칠성고사 가정 684
칠성단지 가정 689
칠성방울 무속 880
칠성본풀이 무속 880
칠성새남 무속 882
칠성신 무속 883
칠성풀이 무속 885
칠쇠방울 무속 886
침호두 마을 908

ㅋ

칼판고사 마을 912
쾌자 무속 890
큰굿상 무속 892
큰대 무속 893
큰머리춤 무속 893
키 마을 912
키 가정 696

ㅌ

타살칼 무속 896
타승굿무가 무속 896
탁상굿 무속 897
탈 가정 698
탑등 무속 897
탑제 마을 916
태백산사길령산령각계문서 마을 918
태백산사길령산령각제 마을 921
태백산천제 마을 925
태백산천제단 마을 932
태백신사 무속 899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마을 938
태백황연동유령제 마을 941
태안설위설경 무속 900
태주 무속 902
태주무당 무속 903
택일 가정 699
터밟기 가정 703
터벌림 무속 904
터벌림춤 무속 905
터주 가정 707
터주고사 가정 711
터줏가리 마을 943
터줏가리 가정 716
텃대감상 무속 904
테우리신 마을 943
토봉고사 가정 717
토산여드렛당본풀이 무속 906
토신제 가정 718
통기 무속 906
통북어 마을 945
통시각시 가정 718
통영문화동벅수 마을 945
통영삼덕리마을제당 마을 946
통영최영장군사당 마을 950
퇴송 마을 950

ㅍ

판수 무속 910
팔문금쇄진 무속 911
팥죽 가정 719
편탕 마을 954
평안도무속음악 무속 913
평안도굿무복 무속 911
평진오기굿 무속 915
평창동보현산신각 무속 917
포신 마을 954
포제 마을 954
포제단 마을 957
포항북송리북천수 마을 961
푸너리 무속 918
푸너리춤 무속 919
푸닥거리 무속 919
푸살 무속 920
풍신 가정 719
풍신제 가정 719
피막 마을 961

ㅎ

하기 마을 964
하로산또 마을 964
하지굿 무속 924
하직굿 무속 926
하진순 무속 927
학질떼기 가정 722
한라산신 마을 966
한라산신제 마을 966
한지 가정 723
한칠동 무속 929
할망상 무속 930
할미가면 무속 930
할배까꾸재 마을 969
함경도무속음악 무속 932
함경도굿무복 무속 931
함평수문리불막이제 마을 971
해남소죽마을중구제 마을 974
해남평암마을도제 마을 977
해동성적지 마을 979
해막 마을 980
해물리기 가정 726
해물리기 마을 981
해미광대탈 무속 933
햇곡식갈기 가정 726
행당동아기씨당굿 무속 934
허개등 무속 940
허궁 가정 729
허수아비 마을 983
허용업 무속 942
허웅애기본풀이 무속 943
허재비 가정 729
허주굿 무속 945
헌관 마을 983
헌식 마을 984
헌식 가정 729
헌작 마을 987
헛배 마을 989
호가 무속 945
호구별성 무속 946
호구별성풀이 무속 947
호구신 가정 729
호남당골굿 무속 951
호남굿무복 무속 948
호살량굿 무속 954
호서낭 가정 733
호식장 가정 734
혼맞이굿 무속 957
혼베 무속 958
혼수맥이 무속 959
홍성백월산홍가신사당 마을 989
홍성백월산홍가신제 마을 991
홍성성호리제각창건기 마을 994
홍성성호신당상량문 · 중수기 마을 996
홍성수룡동당제 마을 998
홍성웅암리당산제 마을 1006
홍성장촌마을산신제 마을 1009
홍수맥이 가정 735
화룡제 마을 1011
화재막이 마을 1012
화재막이 가정 735
황남희 무속 959
황도붕기풍어제 무속 960
황천혼시 무속 962
황토 마을 1012
황하청 무속 965
황해도굿무복 무속 967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무속 971
횡수막이 가정 736
흑산도진리당 마을 1013
희생제물 마을 1016

자문위원

김동섭(제주도립미술관)
김지욱(경기문화재단)
김진순(코리아루트)
김효경(한남대학교)
서해숙(전남대학교)
유승훈(부산박물관)
임승범(문화재청)
황경순(국립문화재연구소)

감수위원

김명자(안동대학교)
이필영(한남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김헌선(경기대학교)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황루시(관동대학교)
서영대(인하대학교)




壬午年生平地
甲子年生平地